가을, 우리가 함께 쓴 글

라이팅챌린지 3주프로젝트
2023-2

LOG OF
2023/10/30-
2023/11/17

BAND

라이팅챌린지-3주 프로젝트-2023-

2023.10.30-2023.11.17

01

October
2023

2023/10/30
monday, am 7:39 | 39읽음
김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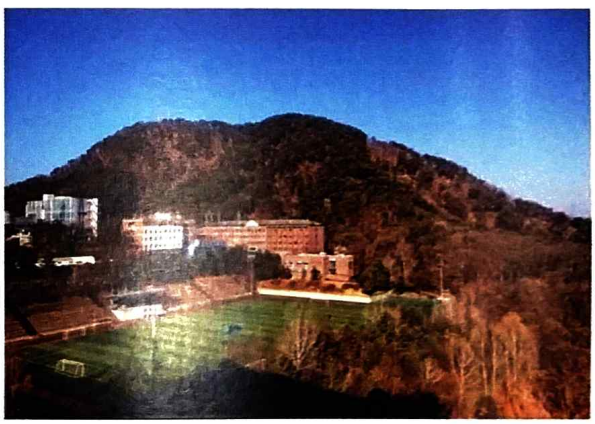
#1일차 키워드 : 처음
라이팅 챌린지 1일차 미션을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설레게도 하고, 내가 처음 무엇을 시작했던 때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된 날, 처음 상을 받은 날, 처음 소중한 사람을 만났던 순간 등등. 처음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접하는 경험은 단 한번뿐이지요. 처음의 다음은 두번째이니까요. 여러분의 '처음'은 무엇인지요?

21 0

2023/10/30
monday, am 9:38 | 36읽음
김서희(심리학과)

#1일차
나에게 '처음'이란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과 두려움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순간이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유연하게 행동하기까지의 적응하는 과정이 나에겐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집에서 떨어져 혼자 기숙사에서 지낼 때, 설레는 마음도 가득했지만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미숙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런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번 째라고 생각한다. '처음'이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과정이니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자.

(사진 첨부) 처음 기숙사에 입사한 날



22 28

모임이 쉬워진다!

정우현(인문학부) 똑똑하신 분 같다고 느껴진 글이었습니다!논리적이고 훌륭한 글이라 앞으로의 글이 더 기대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신유정 (심리학과) 처음이 나중에 추억이 되려면 두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야 할 것 같아요. 불안함 마음을 잘 이겨내어서 처음이란 순간에 설레임이 더 많이지기를 응원합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신유정 (심리학과)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이라는 순간이 언젠가는 추억으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응원감사합니다 !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

김준호 (콘텐츠IT) 저도 처음이라는 경험에서 기대보단 긴장과 두려움, 걱정을 더 느끼는 편이라 많이 공감되는 글이었네요. "적응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긴장할 필요 없었는데~"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서 글쓴이분의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자."라는 말에 더더욱 공감했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김준호 (콘텐츠IT)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처음 집을 떠나 기숙사에 들어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앞으로의 성장 응원할게요~!!

김서희(심리학과)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응원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저도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앞으로 성장해나가실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상민(생명과학과) 처음에 힘들 수 있고 미숙할 수 있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모습이 멋있어요

김서희(심리학과) 김상민(생명과학과) 감사합니다 !!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글을 읽으면서 저도 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을때 긴장감이 떠올라서 공감하면서 봤어요. 처음이라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본받고 싶네요:) 앞으로의 성장도 응원하겠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응원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저두 대학교에 입학에서 기숙사에 처음 입사한 날이 아직도 떠올라요 벌써 3년 전 이야기인데 말이죠.. 저도 서희님처럼 적응하는 데 걸린 기간이 꽤 길었어서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처음은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을 주는 단어라는 서희님의 글에 공감이 되네요 ㅎㅎ 또한 첫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시험 기간에 느끼기도 하구요. 공부하기 위해 앉는 그 처음이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이를 버텨내면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알기에 나을 위한 시작과도 같은 성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서희(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맞아요 ~! 첫 시도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성장해요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처음 기숙사를 지낼 때 겁도 나고 적응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처음'을 서희님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김서희(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조석환(심리학과)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감정과 느낌, 풋풋함과 순수함이 묻어있는 앳됨이 20살의 설레임과 두려움에 섞여있는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조석환(심리학과) 감사합니다 !!!

문정희(법학과) 모두 서툴지만 함께 이번 챌린지를 통해 미숙함에서 성장하고 나아가요
김서희(심리학과) 문정희(법학과) 감사합니다 !!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챌린지의 처음을 시작하는 처음의 글! 잘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설렘과 긴장이 동반된다는게 잘전달된 글이였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김경회(국어국문학과) 감사합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기숙사 처음 입사했을 때가 생각나게 되는 글이에요! 모두가 대학교에 처음와서 지내는 일상을 떠올리게 해주는 글이라 처음을 회상하게 해주는 글이네요! 다들 잘 적응하는 대학생활이면 좋겠어요!
박혜윤(사회학과) 기숙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생각나요. 전 아직까지도 기숙사에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2023/10/30

monday, am 9:51 | 33읽음

조영주(간호학과)

#1일차

고개를 흠칫, 가슴이 쿵. 엿보는 눈짓, 떨리는 마음.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바쁘게 굴러가는 나의 눈동자.
용기낸 물음들엔 돌아오는 예쁜 너의 목소리.
어쩌면 오랫동안 널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요동치는 심장보단 은은하게 퍼지는 달큰한 기분이 나를 어쩔지 모르게 하고, 멋있고 번지르르한 겉모습보단 다정한 너의 마음이 나로 사랑하게 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듯했던 그 해 선물 같은 너를 처음 봤던 날.

// 소중한 사람을 '처음' 만난 날 :)

☺ 22 ⋯ 12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꺅!! 첫눈에 반한 걸까요? 설렘이 가득 느껴지는 글 잘 봤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가장 가슴벅찬 "처음"을 묘사한 글이네요! 아름다운 순간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ㅎㅎ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처음'이 설레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좋은 글이었어요. 소중한 사람을 마주치는 처음이란 감정이 잘 느껴져서 좋았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소설 같기도 하고 영주님의 일기장에 있는 글 같기도 해서 여러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사실 아직 영주님아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낀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만약 첫사랑을 만나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네요 ㅎㅎ 평소보다 더 설레는 발걸음과 뭔가 둥둥 떠다니는 듯한 기분... 저도 모르게 영주님의 글을 읽으며 처음하는 사랑의 설렘을 느낀 것 같아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상대에게 첫눈에 반한 순간은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생각해요 오직 상대와 나만 시간이 멈춘 기분.... 영주님의 마음이 귀엽고 소중하네요~~~~
김재명(러시아학과)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듯했던 그 해' 라는 표현이 귀엽네요. 설레이는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국어책에서 볼법한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운명을 처음 마주한다고 하면 이런 느낌일것 같네요 설레임에 젖어 들어가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문정희(법학과) 처음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일상적인 글보다 이렇게 문학적인 의미가 담긴 글이 눈에띄고 기억에 오래남는것같습니다
노경민(빅데이터)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써본 적이 없는 저에겐 아주 인상적인 글이네요! 저도 표현력 풍부한 글을 써보고 싶네요! 영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에게도 와닿는 글이에요!

2023/10/30

monday, am 10:24 | 25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1일차
'처음' 이라는건 경험을 한다는 것 이다.
나는 글쓰기를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다. 글을 쓰려 노트북을 펼쳐놔도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데 지루함을 느꼈다.
그러다보니 암기과목이 아닌, 글을 쓰는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뒤쳐지는걸 느꼈다.
나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처음' 신청하게 되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내가 얼마나 성장 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꾸준함의 노력이 얼마나 큰 성장을 가져오는지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것 또한 나의 '처음'의 경험으로 시작했던 교훈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일을 처음 시작할 때 성공할꺼라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고, 실패할꺼라 생각하면 핑계를 찾는다고 한다.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 보는거다
잘되면 성공, 안되면 경험이니까 :)

☺ 20 ⋯ 12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원래 모든 것엔 처음이 있는 거죠! 함께 꾸준히 성장해나가요!!
김준호 (콘텐츠IT) 잘되면 성공, 안되면 경험!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네요! 이번 프로젝트로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이번 프로젝트가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의 성장도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호님의 글처럼 뭐든지 처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마치 시험기간에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의자에 처음 앉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면 나에게 좋은 보상이 올 것을 알기에 지호님 글처럼 일단 시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ㅎㅎ 3주라는 글쓰기 프로젝트에 처음 신청허신 지호님을 응원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마지막 문구 귀엽기도 하면서 멋있어요 잘되면 성공, 안되면 경험 !! 저는 고민만 하다가 기회가 날아간 기억도 있네요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재명(러시아학과) 이 프로젝트에서 성공과 경험 둘 다 얻으시길 바래요)
정우현(인문학부) 파이팅입니다!!쓰다 보면 늘더라고영
조석환(심리학과)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법이지요.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어려운 처음을 시작했으니 두번째, 세번째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쌓아서 올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문정희(법학과) 이번 챌린지가 지호님의 힘찬 발돋음으로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래요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이번 챌린지가 성공과 경험 둘다 가져가는 과정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이번학기 라이팅 챌린지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라이팅 챌린지가 꾸준함을 통한 저의 성장(성찰)인데 동기가 비슷한 거 같아 반갑네요! 지호님의 챌린지도 아주 도전적이고 대담한 것 같아 멋있습니다!

2023/10/30
monday, am 11:06 | 23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1일차
그녀에게 사랑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였다.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짧은 단발의 머리를 빙빙 돌리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주 낯선 존재가 그녀의 삶에 찾아왔다.
자신보다 긴 머리를 가진, 어깨까지 내려오는 곱슬에 반쯤 올려 묶은 머리 스타일이 신기한 남자였다. 그렇게 시작된 관심은 어느덧 일렁이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변했다. 그의 이름에는 '별'이 들어갔다. 그와 함께 일을 끝내고 인사를 하며 돌아서 가는 길. 밤하늘에 보이는 작은 별은 그를 떠올리게 만들기 충분했다. 너무 많은 별들이 그녀의 마음을 유혹했고, 밤 공기에 취해 그를 불러 마음을 전하였다. 그녀의 충동적인 고백에 그는 아무 말이 없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세상에 작은 별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렇게 첫 연애가 시작되었고, 낯설지만 매일이 설레는 처음이 시작되었다.

처음이라 하면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첫사랑'과 '첫연애'입니다.
그렇기에 대학교 입학 이후 처음 남자친구를 사귄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나 적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란 단어가 주는 설레는 감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 16 ⋯ 16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그려지는 게 정말 좋네요. 잔잔한 설렘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너무 오랜만에 쓴 글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첫 연애의 설렘과 달달함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저도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는 감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김준호 (콘텐츠IT) 무엇이든 처음이 있는데 그 처음에서 오는 셀렘과 조금의 두려움 저는 이 감정이 너무 좋아요!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장면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서 몰입이 잘 되었던 글이네요. 처음이란 단어가 주는 설레는 감정을 다시끔 돌아보게 되어서 좋았어요:)
임미혜(사회복지학과)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어떻게 하면 읽으면서 장면이 떠올릴까 고민하며 썼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미혜님의 글처럼 처음이 주는 설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이라러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한 감정... 마치 똑같은 하루를 바꾸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글을 읽으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게 됐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처음은 참 오묘한 감정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때의 설렘이라니 너무 과찬이십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처음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첫사랑이죠... 미혜님 글 덕분에 쌀쌀한 가을에서 따뜻한 봄 내음이 나는 듯해요 그날의 봄밤에, 떠오른 별들이 미혜님과 미혜님 남자친구를 비추고 있었을 것 같네요
정우현(인문학부) 표현이 참 좋네요 솔직해서 와닿습니다 ㅎㅋㅋ 기대되네요 앞으로의 글들이!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정우현(인문학부) 앞으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더 좋은 표현의 글 써보려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올해 첫 가을에 어울리는 첫 연애의 달콤함이 은은하게 느껴지네요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조석환(심리학과) 지금 계절이 설레기 좋은 거 같아요 첫 연애의 달콤함이 느껴진다니 감사합니다
문정희(법학과) 첫사랑의 그 감성을 잘 녹여낸 것 같아요. 사랑과 처음은 같이 붙어있을때 그 힘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잘 읽고 가요
김경회(국어국문학과) 그녀의 세상에 작은 별이 마음에 자리잡았다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잘읽었습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처음을 인연에 대한 설렘으로 생각하고 적은 글을 보니 너무 설레네요!

2023/10/30

monday, am 11:15 | 21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일차
처음.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경험에는 "처음"이 있다. 첫 옹알이, 첫 생일, 첫 친구 등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처음"을 만나가는 과정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처음"은 그 자체로 모든 경험과 감정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즉, "처음"은 그 순간을 간직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그리워하는 것도 특별했던, 아름다웠던, 슬퍼했던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 같은 그러한 "처음"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가끔식 "이 영화를 보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보고 싶다."던가 "놀러갔던 곳을 가기 전으로 돌아가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러한 말 또한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결국 모든 "처음"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처음"과 달리 평범해져버린 경험, 감정, 느낌에 우리는 예전같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처음"은 나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과 앞으로 또 다른 "처음"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 싶다.

14 14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확실히 처음이기에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들이 많은 거 같아요:)
김준호 (콘텐츠IT)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처음의 특별함을 가진 추억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ㅎㅎ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처음이란 순간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같다는 말이 확 와닿았네요:)지금은 평범할지 몰라도 돌아보면 특별했던 처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김준호 (콘텐츠IT)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특별했던 처음들이 앞으로의 경험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준호님의 글처럼 처음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에 공감이 되네요. 처음의 말 뜻을 보면 마체 한 번 경험하고 두 번은 오지않을 듯하지만 긴 인생에서 처음의 경험이 그리 짧으면 깊은 성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처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처음을 마주한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처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그 소중함과 특별함을 알게되는거라 생각해요 그 두려움을 얼마나 이겨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무언가를 처음 본 감정은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처음'에 느낀 감정이 작고 소중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듯해요.. 준호님 말대로 그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실망하기보단 '처음' 그 느낌 그대로 나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 생각해요. 또 그것들이 저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 같고요

김준호 (콘텐츠IT) 박지원(사회학과) 처음의 특별함이 녹아있는 존재가 바로 지금의 우리 인거죠!
조석환(심리학과) 아무것도 모르기에 두렵고, 또 그 두려움이 있기에 이미 겪고 나서고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긴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잃지 않게 해주는것 같습니다.
김준호 (콘텐츠IT) 조석환(심리학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처음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요!
문정희(법학과) 처음이 만들어낸 기억의 힘은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의 준호님의 처음이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래요
김준호 (콘텐츠IT) 문정희(법학과) 감사합니다~! 정희님의 처음도 오래 기억되기를!
박혜윤(사회학과) 첫 옹알이는 제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묘하게 느껴져요
노경민(빅데이터) 글을 읽어보니 처음이란 경험위에 또 다른 경험들을 쌓게 되다가 다시 한번 처음의 기억을 상기하는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네요! 저에게도 더 많은 처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3/10/30
monday, am 11:30 | 27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일차 #처음

'처음'이라는 건 누군가에겐 의미있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누군가에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을 많이 변화시켜 준 것은
'한림대학교'이다.
그 수많은 대학들 중 한림대학교를 선택하여 왔고,
수시 원서에 다른 한 대학을 쓰지 않았던 거에 후회는 있으나
한림대학교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할 수 있었고, 의미있는 다양한 경험을 했기에.

물론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왔지만,
나랑은 맞지 않는 혹은 인간의 양심과 도리의 측면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그 어느 때보다 공부라는 걸 열심히 해서 성적도 우수하게 받았고,
교내와 교외 공모전, 동아리 임원과 과학생회, 자취 등.
대학에 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도전할 용기가 없었고 무엇보다 나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없었다.

다양한 첫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또 성장한 지금의 '나'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가 될 것이고,
2022-2학기에 이어 이번 2023-2학기에도 도전하게 된 이 '라이팅챌린지'도 나의 글쓰기 습관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15 9

정우현(인문학부) 본받아야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는데 수많은 과정을 겪고 성장해 온 이야기를 보니 동기부여가 되네요 같은 한림대학교

학생으로써 귀감을 얻었고 앞으로도 소중한 학교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한림대에서 더욱 눈부시게 성장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할게요 라이팅챌린지가 글쓰기 능력 향상에 좋은 과정의 한 부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처음을 통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기에 보민님의 인생은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처음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쌓고 지금보다 더 성장한 보민님이 되길 바랄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성장하고 믿음과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민님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면서 응원하고 싶네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대학에 입학해서 더욱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다니. 참 멋있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저의 첫 대학은 한림대학교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처음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곳은 한림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인지 보민님이 가지고 계신 학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십분 이해되면서 각별하게 느껴지네요
문정희(법학과) 처음의 갚진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장한 보민님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처음이 될 모든 보민님의 도전을 응원할게요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한림대에 절대 후회가 없어요 이번 챌린지 완주뿐만 아니라 졸업까지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저는 한림대학교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생활을 생각하게 해줬고 뭘 할지 생각하는 환경을 준 한림대학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림대학교에 와서 아주 잘 적응한거 같아요! 보민님도 아주 잘 적응하시는 모습을 공유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2023/10/30
monday, am 11:30 | 29읽음
정우현(인문학부)

#1일차
처음 하면 첫사랑이 먼저 떠오르더라. 처음 그 사람이 주었던 그 감정,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첫사랑에게서 느꼈다. 그 감정은 가슴이 말랑해지고 흥분되며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법 같은 감정이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여자만이 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들 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감정이었다. 그런 소중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일기장에 글을 썼고 그녀에게도 마음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생각날 때 마다 썼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감히 이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추억이 평생 가기는 하지만 인연을 평생 동안 유지해주지는 못하는구나란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는 요즘이 떠나가선 안 될 “처음“이었던 순간 보다 무척 행복하며 처음이라는 소중함을 간직하고 사는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다.

이미지-넷플릭스 드라마 빌어먹을 세상따위

15 12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잘 전해져 오는 글이었어요. 이미지와 어우러져서 더욱 몰입하며 읽었던 것 같네요. 행복한 오늘을 보내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감사합니다 채연님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아직 첫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으나 우현님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첫사랑이 가진 큰 힘인 것 같네요 ㅎㅎ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느껴보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오..제 글을 완벽히 이해하셨군요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해요 하영님 잘 부탁드립니당

박지원(사회학과) 야속하게도 운명은 제 할 일을 하는 듯해요 조금 씁쓸하네요ㅠㅠ 혹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홀로 갇혀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현님께선 그 시절의 느꼈었던 '처음'의 마음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크다는 말을 들으니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추억.. 소중히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네요

정우현(인문학부) 박지원(사회학과) 영화도 계속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되면 재미가 없듯이 인생도 변화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해요!잘 적응해서 행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해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첫사랑은 항상 각별하죠. 저는 첫사랑하면, 이성 간의 사랑을 떠올렸었는데 가끔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떠오르는 거 같아요.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맛보는 사랑이니까요. 이런 종류의 사랑도 행복과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이과스러운 답변이시군요!! 효녀이실거 같습니다 !ㅎㅎ 좋은 댓글 감사해요!!

조석환(심리학과) 저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면서 한 첫사랑의 첫연애가 20살 이때쯤이었는데 무릇 그때의 시간과 향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이미지가 함께하니 글 몰입도가 확 높아지네요! 담담한 어른이 된 입장에서 첫사랑을 돌아보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몰입감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저는 아직 첫사랑이 없지만 생긴다면 우현님이 써주신 글처럼 첫사랑의 느낌을 기록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문정희(법학과) 첫사랑의 감정만큼 강렬하고 아프고 따뜻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우현님의 첫사랑의 소중함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2023/10/30

monday, am 11:45 | 24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1일차

'처음'이라는 단어는 참 신기해. 벚꽃이 핀 봄날처럼 설렘 가득한 감정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도전의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잖아.

내게도 처음은 늘 떨리면서도 두렵고, 가끔은 설레기도 하는 단어였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 뭐랄까, 아이러니하게도 '끝'을 떠올리게 한달까.

나의 처음이었던 한림대학교가 이젠 끝이 보이거든. 어리버리했던 신입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느덧 선배라는 이름으로 불려. 처음 캠퍼스에 발을 들였을 때, 참 설레고 떨렸는데 지금은 모든 게 익숙해.

그토록 꿈꾸던 대학생활이 지겹게도 느껴지지. 수강신청 때 열심히 잡았던 수업을 빠지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다음 봄이 오면 나는 또 처음을 맞이하게 되겠지. 2024년, 첫 사회인. 학교라는 틀을 떠나서 나의 처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여태껏 살아온 시간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싶어. 나는 매순간이 처음이라서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처음은 도화지처럼 새하얀

상태라는 걸 알아. 시작을 위해서는 마무리가 중요하다잖아? 처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 처음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14 1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마지막 학기 잘 마무리하세요! 사회에서의 첫걸음도 응원하겠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감사합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처음이었던 대학생활도 잘 보내신 만큼 사회에서의 처음도 잘될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의 첫 순간도 힘차게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채연님의 처음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수연님의 글을 읽다보니 저의 첫 신입생 시절이 기억나네요 ㅎㅎ 그때는 모든게 낯설기도 했지만 그 속에 설렘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던지... 다시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그때는 풋풋했는데 지금은.. 다음에 맞이할 처음에서도 설렘과 즐거움을 경험해봐요!

정우현(인문학부) 떨리신 마음이 와닿네요 파이팅이에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ㅠㅠ '나를 깨끗하게 비워야 처음을 온전하게 맞이한다'라는 말 너무 멋있네요. 마지막 학기 잘 마무리하세요. 수연님의 봄이 항상 따듯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박지원(사회학과) 응원 감사합니다:) 봄날뿐만 아니라 지원님이 맞이할 모든 계절이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처음이 지나면 끝이 오고 또 다른 처음이 찾아오는 거 같아요, 봄의 설렘을 안고 내년부터 사회인이라니 무척 떨리실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 학기의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모호한 감정이 느껴져서 좋아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조석환(심리학과) 같은 막학년 막학기인지라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로 처음 들어가는 그 두려움이 공감이 되네요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곧있음 4학년을 달려가게 되는데 4학년 막학기는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작은 사회에서 이젠 진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수연님한테 정말 좋은 경험을 줄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시간을 응원합니다!

문정희(법학과) 저도 막학기라 이러한 감정이 온전하게 전달되네요. 새로운 처음을 맞이해야하는 걱정 속에 비워내야 하는 마음이 공감이 되네요

2023/10/30

monday, am 11:58 | 28읽음

홍은기(영문학과)

#1일차
가장 익숙한 딸기맛을 고르고 싶었지만 제철이 아닌지라 선택지에 없었다. 차선은 샤인머스켓이었다. 삼성페이로 4000원을 지불하고 안경에 김이 낀 어린 알바생에게 진열대 안 샤인머스켓 탕후루를 건네 받았다. 내 뒤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 사이를 뚫고 밖으로 나와 사거리로 향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첫입을 시작했다. 한 알은 두 번 나눠 먹기에는 작고 한 번에 다 삼키기엔 아까운 크기였다. 과육을 부려 나눠 베어 먹는다면 빈약한 꼬치에서 남은 알이 흘러내릴 수도 있기에 한 입에 물었다. 적당히 얇은 설탕 코팅을 먼저 음미하고 바삭, 작은 소리와 함께 껍질을 깼다. 안에 숨겨진 과일을 이로 물면 과즙이 흘러나오면서 샤인머스켓의 향이 입안에 가득찼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변하고, 집으로 향하며 그걸 다섯 번 반복하자 어느새 내 손에는 빈 꼬치와 꼬치에 끼어져 있는 작은 종이컵만이 남았다. 난 아무 데나 탕후루 꼬치를 버리지

않는 양심 있는 성인이므로 집에 도착해서 분리수거 했다. 왕가탕후루가 뭐라고 다들 줄을 서서 사 먹나, 처음으로 먹은 왕가탕후루의 탕후루였다.

그것이 3달 전이며 나는 이제 모든 종류의 탕후루를 먹어본 사람이 되었다.

16 8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보면서 설탕코팅의 바삭한 탕후루가 먹고 싶어지는 글이었어요. 처음 먹었을때 경험이 떠올라 공감하면서 봤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왕 저는 어제 탕후루 3개나 때려버렸어요 딱 2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탕후루를 처음 먹었던 순간을 잊지 못해요~~~ 정말 달고 또 달고!! 이 글을 읽으니까 또 먹고 싶네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탕후루가 굉장히 먹고 싶어지는 글이네요! 탕후루 특유의 달달한 맛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탕후루를 워낙 좋아해서 왕가탕후루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기분은 잊을 수 가 없네요 ㅎㅎ 사실 탕후루의 첫 이미지는 달아서 먹고 싶지 않았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먹게 되었고 결국 좋아하는 디저트다 되었어요. 요즘은 사먹기엔 너무 비싸서 집에서 종종 직접 만들어먹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행복해지기도 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탕후루를 처음 먹으셨을때의 경험인데 왜인지 모르게 초콜릿을 처음 먹어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신박하면서도 진지하기보단 담백하게 읽을수있는 새로운 느낌의 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글들이 더욱 매력있게 다가오네요
노경민(빅데이터) 저는 취미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새로운 걸 시도해 보기입니다. 새로운 맛의 과자가 나오면 먹어보거나 안 가보던 길로 지나다녀 보는 일상에서 줄 수 있는 새로움을 저에게 주곤 하는데요! 은기 님 글을 읽어보니 원래 먹던 것에서 새로운 맛을 선택하신 샤인머스캣 탕후루의 첫 만남을 보니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문정희(법학과) 탕후루의 처음인게 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탕후루를 먹으면서 탕후루를 알아가는 과정이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2023/10/30
monday, pm 12:17 | 21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1일차

첫 마디, 첫 걸음의 실패를 잊고 살았다.

내 인생에 실패는 용납 불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실패로 가득 차있었다. 그래서 나는 포기를 선택했다.

'할 줄 모르는 건 하지 말자', '어차피 난 다른 걸 더 잘하니까 못하는 걸 들키지만 말자'... 내 어린 시절 다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단 말에 공감이 되지 않았다. 스스로 잘하는 것만 하면 될텐데 굳이 도전한다는 것이 왠지 인생을 개척해나갈 줄 모르는 것 같았고, 무지해보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다. 도전은 인간의 본능이고 실패는 본능의 불씨라는 걸. 첫 마디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첫 걸음에 포기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다만 너와 내가 다르기에 누군가는 성공을, 누군가는 도전에 그칠 뿐이다. 그래, 무지한 건 나였다.

'나는 실패가 아니라 여러번에 걸친 도전을

하는 거야', '도전이 가져오는 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첫 마디, 첫 걸음의 실패를 오늘도 추억한다.

14 9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실패가 아닌 여러번의 도전이란 말이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첫 걸음을 내딛으며 성장해나가실 앞으로의 모습도 응원하겠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불씨를 계속해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힘드실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가끔은 실패를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면서, 그 또한 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쌓였기에 지금의 서현님 모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도전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가 봐요! 실패는 두렵지만, 멈추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도전하고, 성장하며 나아가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처음하는 실패는 결국 성공의 한 걸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실패를 질책하곤 하지만 사실 그 실패를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축하해주고 싶어요. 너의 첫실패를 축하하며 이를 통해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서현님께도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첫 마디, 첫 걸음의 첫 실패에게 첫 포기를 건네주었지만, 첫 깨달음으로 돌려받았기에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신 모습에 저의 보잘것 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이다혜(사회복지학과) 제가 올린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있기에 지금 저희도 있는 것 같아요!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실패했던 기억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역시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현님이 실패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재정의하신 첫 경험 아주 값져보이네요!
문정희(법학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실패에 좌절했지만 그 실패들이 모여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더라구요

2023/10/30
monday, pm 12:17 | 27읽음
조성현(철학과)

#1일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2가지 의미가 생각납니다. 바로 설렘과 두려움입니다. 두 의미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떨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을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면 한동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렘과 함께 시작한다면 아마 무슨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처음하는 사람을 이해못하고 타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시작은 두려움 보다 떨림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팅챌린지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보다 매일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설렘과 함께 시작한다면 무사히 완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완주할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13 20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제가 생각하는 처음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만큼 도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저와는 다르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멋있으시네요! 함께 힘내보도록 해요!

조성현(철학과)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저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신분과 소통할 수 있다니 기쁘네요!! 함께 힘내봐요 파이팅!!

박지원(사회학과) 처음 시작을 떨림과 함께 시작하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떨림을 가지면 설렘도 자연스레 느껴져서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떨림이 설렘이 되는 것만큼 기쁜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원님도 자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ㅎㅎ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저도 처음이란 단어에 모순된 감정을 느껴본지라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의 라이팅챌린지도 화이팅입니다!:)

조성현(철학과)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공감이 되시는 글을 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라이팅 챌린지 파이팅 해봐요!!

정우현(인문학부) 철학 전공하셔서 그런지 생각하시는게 멋지십니다 !!

조성현(철학과)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다!! 우현님도 인문학부시면 과를 고민중이시겠네요 철학과는 어떠신가요??ㅎㅎ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처음은 낯설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라이팅챌린지도 함께 꾸준히 합시다! 파이팅이에요:)

조성현(철학과)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맞아요! 세상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게 참 많은 것같아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죠!! 라이팅 챌린지 파이팅해봐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첫시작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통해 떨림을 느끼고 성공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두렵지만 이겨내고 나서 다시 시작했을 때는 두려움보단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하겠죠. 그래서인자 첫 시작의 두려움이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현님의 챌린지가 끝날 때쯤엔 뿌뜻함으로 남아있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조성현(철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글 잘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님의 밝은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진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뿌듯함으로 남아봐요!!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철학과 분들의 글은 항상 단어의 원론적인 의미부터 시작하여 본인의 생각을 적어내려가는 글들이 많았는데 항상 관심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조성현(철학과)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철학과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원론적인 의미에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글이지만 재밌게 읽어주세요~~

조석환(심리학과) 설레임과 두려움 상반되는 감정의 공통점은 떨림이라는 말에 사이다 한잔을 마신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반되고 상충되기에 더 끌리고, 오직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게 아닌가 싶네요

조성현(철학과) 조석환(심리학과) 사이다 한잔을 마신듯한 기분이 들었다니!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어떤 일을 할때에 시작하는 의미를 찾고는 합니다! 확실히 처음하는 일이라면 더욱 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같아요! 두려움보다는 설레고 즐거움으로 처음을 맞이하는 행동이 꾸준히 가면 좋겠습니다!

조성현(철학과) 노경민(빅데이터) 맞아요! 시작하는 의미를 찾는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보단 설렘과 즐거움으로 모든일 시작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문정희(법학과) 상반된 감정 속에서 처음을 여는 시작이 주는 의미는 강렬한 것 같아요! 같이 화이팅해봐요

조성현(철학과) 문정희(법학과) 처음은 정말 강렬한 단어같아요!! 강렬하고 의미있는 처음이면 좋을것 같습니다 ㅎ 파이팅 해봐요!!!

2023/10/30
monday, pm 12:22 | 29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일차 #처음

이세상

누구나 처음을 경험한다. 어떤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던가, 어떤 가수의 노래를 처음 듣는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보고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거나...

나에게 처음은 이 세상이다.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땐 낯선 학교와 처음 보는 친구들뿐이었고,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기엔 모든 것들이 처음이라 어설프고 불안정했었다. 처음을 지나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이 늘다 보니 안정적인 나로 완성될 무렵 대학교를 입학하였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고 나는 또 다시 어설프고 불안정해졌었다. 졸업 때까지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한 내가, 낯섦과 처음을 넘어 여러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경험하다 보니 안정적인 나로 완성되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 무슨 일어날지 지금 당장 몇 시간 뒤 혹은 몇 분 뒤 내가 마주할 세상이, 처음 느껴보는 것들일 수 있다. 누구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람의 모든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린 각자의 삶과 인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은 소중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낯섦과 새로움 투성이며,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안아줘야 한다.

우리는 이번 생이 처음이기에 겁먹지 않아도 된다!

☺ 15 ⋯ 10

신유정 (심리학과) 처음이라서 걱정하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어려운일이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김재명(러시아학과) 늘 처음과 마지막의 반복인 것 같아요. 처음, 중간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어요)
정우현(인문학부) 멋지세용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모두가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요! 왠지 응원이 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처음이자 마지막 생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삶이라는 건 특별한 것 같아요. 지원님의 말처럼 처음은 소중하기에 인생도 소중하고 가치있게 느껴지는 거죠. 지원님 덕분에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생각해 보면 처음이기에 서툴고 불안정한 건데 처음 하는 일에도 완벽해 보이려 힘쓰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이 서툰 거는 당연한 건데.. 글을 읽으면서 처음 하는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처음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탑을 이루고, 뒤 돌아 봤을때 생긴 탑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있게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맞닥뜨리며 경험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참 멋있어요. 처음이기에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박혜윤(사회학과)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으로 여겨져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문정희(법학과) 모두가 같은 상황 속에 처음을 마주하게 되기에 두려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처음이 경험이 되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23/10/30
monday, pm 12:45 | 23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일차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활기찬 야외와 달리 장난감 가게는 너무나도 조용했다. 가게의 주인인 브라운은 가만히 서서 실내를 둘러보았고, 어린아이 한 명과 오붓한 커플, 그리고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흩어져 있었다. 그에게 가장 처음 다가온 것은 커플이었다. 그들은 나무를 조각한 조그마한 순록이 이끄는 썰매에 탄 산타를 골랐다. 산타는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깨어나 선물을 뿌릴 듯 생동감이 넘쳤다.
귀여운 장난감을 계산해 주고 손님을 떠나보냈다.
여유로운 틈에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었다. 처음 입에 대기 직전에 젊은 남자가 계산대로 찾아왔다. 그가 건넨 것은 플라스틱 블록과 자동차 모형이었다. 브라운이 포장을 하면서 물었다.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생일이에요. 쌍둥이라서 항상 두 개를 사야 하죠."
"그래도 늘 행복이 배로 느껴지시겠어요. 이 가게에서 지내다 보면 선물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 그들은 행복해 보여요."
"포장이 멋지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유리문이 닫히고 들어오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옴에도 어린이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 브라운은 조명을 하나씩 끄고, 계산대를 나섰다.
"이봐, 꼬맹이, 우리 가게가 너무 넓어서 장난감을 못 고르겠니?"
"아... 네, 맞아요."
상대의 눈빛이 갈 길을 잃은 것처럼 허공을 맴돌았다. 브라운과 결코 마주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미안하지만 가게가 닫을 시간이란다. 내일 다시 오렴. 우리 가게는 아침 아홉 시에 연단다."
"알겠어요. 저는 가볼게요."
브라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직접 현관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런데 어린이의 패딩에 익숙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브라운이 크리스마스마다 기부하는 보육원의 상징이었다. 문득 이 아이를 어디서 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니?"
"알버트 브라운이요."
브라운은 씁쓸한 마음을 쓸어내리고 대답했다.
"나가기 아쉽다면 오늘은 크리스마스인 만큼 한 가지 선물을 주마."
그날, 브라운의 장난감 가게는 처음으로 야간 연장 운영했다.

14 7

정우현(인문학부) 소설 읽는 느낌이라 신기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어린 시절엔 장난감 가게 자체가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구경만 해도 벅차면서 신나고 떨렸거든요. 브라운 사장님은 아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넸고, 어쩌면 아이는 어른에게 따뜻한 첫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소설이라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굉장히 잘 그려지네요. 정말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아주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소중함인지를 알려주는 글인 것 같아요. 어쩌면 보육원 아이에게도 브라운이 주는 선물이 처음이지 아닐까 싶네요. 단순히 아이에게만 특별한 경험이 아닌 브라운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조석환(심리학과)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들을 위한 어른동화 느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의 전공지식을 사용하자면 내면의 어린 자아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브라운 덕분에 아이는 행복한 선물을 받았네요.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문정희(법학과) 처음을 따뜻한 에피소드로 풀어내서 인상 깊게 읽은 것 같아요. 어릴적 감성도 느낄 수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2023/10/30

monday, pm 12:48 | 30읽음

가양선(경영학과)

#1일차

'처음'
새로운 경험. 그 경험은 만남, 헤어짐, 도전 등을 압축시킨 단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에게는 처음이란 설렘과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되겠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때문에 나에게 있어 처음은 늘 두려운 떨림이다. 누군가는 그 떨림 또한 '처음'을 경험할 때에 느끼는 감정이니 즐기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대학에 입학하는 동시에 늘 함께 지냈던 가족, 친구들과 떨어지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두려움의 처음을 설렘의 처음으로 바꾸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2학년인 지금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처음이 설렌다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을 경험하는 나의 감정이 태연해졌다고는 말할 수 있다. 태연함이 설렘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이팅 챌린지도 처음하는 도전이기에 걱정이 많지만 3주 동안 나의 이야기를 글로 적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면 기대된다. 이번 챌린지가 나에게 있어 작지만 큰 변화를 줄 것이라 믿는다.

18 9

김서희(심리학과) 양선님 글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했어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양선(경영학과) 김서희(심리학과) 서희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입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오히려 처음이라 더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ㅠㅠ 이번 라이팅 챌린지 3주 동안 재밌게 글 작성해요~~ 양선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되었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정말로 공감이 많이 되는 글이네요:) 이번 챌린지로 함께 더욱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불러오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첫 시작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챌린지에 참여한 양선님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3주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에 참여 결정이 쉽지 않았을텐데 그럼에도 첫 시작을 다짐한 양선님을 응원하며 함께 3주동안 열심히 해보자구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홍다연(정치행정) 같은 2학년으로써 공감이 많이 되었어용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다양한 경험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3주간의 챌린지로 또 다른 설렘을 얻기를 응원합니다!!
이다혜(사회복지학과) 공감이 많이 되네요~ 감사해요!

2023/10/30
monday, pm 1:59 | 19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일차
처음은 두렵다. 누구나 막막하다.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기에 뒤에 있을 일을 예측할 수도 없다. 하지만 어떨때는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에 설렘이 비집고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한 것들이 처음이라는 장벽을 부수고 나올 수 있게 해준다. 올해도 나는 처음이라는 장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숴왔고 지금도 하나하나 부숴오는 중이다. 2023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을 날이었다. 2023년 2월 26일. 그날은 내가 기숙사에 "처음" 입사하는 날이었다.
짐캐리어를 끌고 올라와 방문 앞에 섰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갔다.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냈었던 나의 학생 나날들, 이제 너도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봐야 된다고 말하시던 아버지, 새로운 친구에게 수줍게 말을 건네는 장면, 룸메이트와 잘 안 맞아서 싸우면 어떡하지라는 나의 걱정, 새로운 집에 몸 둘바를 모르고 경직되어 있던 나의 신체... , 새로운 룸메이트와 소풍을 가는 생각... 불안과 설렘이라는 만감이 교차하는 와중에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몇 분간을 서성였다. '드르륵, 터벅터벅'. "어! 안녕하세요... ㅈ..잘 부탁드립니다...".
기숙사생들의 걸음소리와 말소리에 나는 더욱 더 숨을 죽였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을 방문을 힘껏 잡아 열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첫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듯 창문 너머에는 살을 간지럽히는 햇살이 쏟아들었다. 가지런히 정리된 침구류. 처음 보는 환경의 차가운 공기. 처음은 항상 나를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끌었다. 무섭고 불안하고 설레던 모든 감정들이 사라졌다. 나는 침대에 놓고 짐을 모두 풀었다. 혼자 지내면서 처음 보던 침대와도 친해지고 화장실과도 친해지고 식당과도 친해졌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밖에서 산책을 나갔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방문을 열었다. "앗..!! 안녕하세요..?" 나의 책상 옆옆쪽에 한 선배님이 공부하고 계시다 내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인사하셨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그대로 얼어붙었다. 점차 긴장을 풀고 서로 통성명을 했고 나는 선배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와 선배님의 첫 만남으로 그렇게 처음은 예고없이 나를 찾아왔다. 어느 덧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하르고 나는 방안에 있는 룸메 분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다. 나에게 처음이란 시간은 길고 어색한 장벽이었지만 뒤돌아봤을 때는 아주 작게 튀어나온 돌부리에 불과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처음"은 우리에게 그리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3년 10월 30일. 아침에 잠시 산책을 갔다 왔다. 기숙사에 들어오고 나서 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나는 더 이상 예측하지 못한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동시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설렘을 가지지도 않는다. 새로운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룸메들이 다 깼을까? 아니면 일어났을까?" 작은 호기심만이 있다. 방문을 열면 익숙함이 내 감각을 깨운다. 지금의 일상은 아에게 어떤 감흥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다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환경에 있어서일까? 그렇지만 시간은 항상 흐르기에 사물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변한다. 처음은 내가 만나는 곳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익숙함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서일까...
"처음"은 나에게 '설렘, 자극, 그리움, 회상,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지만 나는 한번도 "처음"에 감사한 적이 없었다. 비록

오늘이라도 "처음"을 의미있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2 6

정우현(인문학부) 귀여우세요 ..
박지원(사회학과) 가끔은 처음의 경험과 느낌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계절이 변하듯 건물, 사람, 환경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의 감정은 변하지 않고 그 형태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제가 처음 기숙사에 입사했을 때의 긴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기숙사에 입사한 첫 날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긴장되고 설레는 감정이 글에서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처음을 의미있게 여기고 감사하며 산다는 마음을 저도 종종 떠올려야겠어요:)
이다혜(사회복지학과) 저도 기숙사에 처음 입사했을때가 떠오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10/30

monday, pm 2:07 | 22읽음
이주영(디미콘)

#1일차

#처음

처음이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간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할 길이다. 나는 나만의 길을 만들고자 한다. 시작은 처음, 끝은 마무리. 시작과 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처음이 필요한 법. 시작을 어려워했던 나는 처음인 순간을 경험하는 일이 적었다. 시작하는 게 두려웠고 실패할까 봐 무서웠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득 내가 걷고 있는 것도 시작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처음이 항상 옆에 있었다. 처음이 있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항상 도전하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한다.

경험과 도전이 내 삶에 자리 잡고 나서는 새로운 것이 좋았고 실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실패하게 된다면 또 도전하고 도전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나만이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은 두려움과 설렘이 모두 공존한다고 한다. 내가 처음을 경험하고 나니 두려움과 설렘 서로 상반된 단어지만 서로 공존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 각자만의 방법으로 처음을 이겨내고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3주 동안 열심히 해봐요!!)

12 8

정우현(인문학부) 멋있으십니다!! 응원할게요 ㅎㅎ
가양선(경영학과) 챌린지 파이팅입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처음은 두려움과 설렘 모두 공존한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가요! 서로 상반된 단어이지만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듯해요~~ 3주 동안 파이팅 해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마인드가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3주 동안 챌린지 꼭 완주해봐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라이팅챌린지를 시작하는 날 '처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으니 마지막 날에는 '끝' 이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봐요ㅎㅎ 저희 잘 완주해요! 화이팅!
신유정 (심리학과) 우리 같이 3주동안 잘 완주해 보아요!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멋있으세요. 도전을 응원하며 3주간 챌린지도 파이팅입니다
박혜윤(사회학과) 3주동안 파이팅해서 완주해봐요!!

2023/10/30
monday, pm 3:35 | 20읽음
문정희(법학과)

#1일차
'처음'
처음만큼이나 모순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있을까?
모든일의 처음이 가장 걱정되고 설렌다.
힘들지만 좋고 그랬던 것 같다.
모순적인 감정을 담지만, 결국에는 과거의 모든 처음을 마주한 나를 보면 애틋함만 남는 것 같다.
그 때의 나였기에 할 수 있었던 것들과 그 때의 나였기에 힘들어했던 나는 지금의 나를 일궈냈으니 말이다.

모든 처음의 감정을 겪어내야만이 애틋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해야할 '처음'은 끝도 없이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할지도 모른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모든일에 두려워 그 처음을 놓치게 된다면 애틋한 나 마저도 마주할 수 없게 된다.
두려움에 이끌려 시작을 주저했던 수많은 과거들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작에 두려움보다 설렘에 이끌려 시작해야한다.

처음은 시작을 의미한다.
물론 끝도 있겠지만, 그 처음을 기억하는 끝은 없다.
처음의 온전한 감정을 느끼며 시작했다면, 완전한 처음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불완전한 처음이겠지만 그 감정을 느끼고 기억한다면 완전한 처음이다.

라이팅 챌린지의 나도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며 시작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애틋하고 뿌듯한 과거의 나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

11 8

가양선(경영학과) 감정을 느끼고 기억한다는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희 모두 마지막까지 라이팅 챌린지 잘 완주해봐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그동안 느꼈었던 저의 불완전한 처음이 정희님 덕분에 완전한 처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라이팅 챌린지 파이팅 해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처음과 끝이 달라지기에 초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잘 읽었어요:)
신유정 (심리학과) 시작에 두려움보다 설렘에 이끌려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깊어요. 글 잘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끝날땐 보람찰거에요!!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처음이 모순적인 감정을 담고있다는 말 공감합니다! 의미깊은글 잘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처음이라는 모순된 감정을 담고 있다는 말이 공감이 많이 가네요. 끝날 때 보람찬 모습을 생각하며 라이팅 챌린지 3주간 화이팅입니다

2023/10/30
monday, pm 3:41 | 17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1일차 #처음

여러분의 '처음'은 설레임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제게 처음이란, 아직은 두려움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은 낯설고 긴장됩니다.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할 때, 대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교수님과 상담을 한다던지 등등 말만 들어도 떨리는 순간인 것 같네요. 이러한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 두려움 건너편에는 설렘도 있는 거 같습니다.
마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첫 만남 같은 것이죠.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때는 예상치 못한 비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날씨 예보로도 알 수 없던 비가 오면서 상대방과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비를 맞지 않게 막아줬던 그 순간이 얼마나 설렜는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와 21년도 9월에 만나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처음의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떠올려보니 어떤 느낌의 처음이든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소중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처음을 응원하겠습니다!

10 7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21년도 9월에 만나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다니! 오랜 인연을 가지고 싶어하는 저로써는 너무나 부러운 글이네요ㅎㅎ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왕 두려움 건너편에는 설렘도 있다는 말도 멋있지만 다혜님의 사랑 이야기도 너무 멋있고 몽글몽글하네요 왠지 비가 내릴 때마다 생각이 날 듯하네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처음이 두려움이든 설렘이든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같아요! 지나보면 별것 아니었을 때도 있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을 때도 있죠! 저도 다혜님처럼 소중한 인연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김경희(국어국문학과) 첫사랑, 첫만남의 글은 항상 읽을수록 행복한 감정이 전달되는것같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처음이라 설렘 가득한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처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처음 알바를 했던 날, 처음 교수님과 상담을 했던 날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만났던 날들이 떠오르는 글이에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0/30
monday, pm 3:54 | 19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일차
'처음'은 우리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어떤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경험도 쌓지 않은 채로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무지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을 탐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처음으로 웃음소리를 내며 웃는 순간은 어린 아이의 미소와도 같습니다. 그 미소는 그 순간에만 갖는 순수함과 신선함을 지니고 있죠.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지식을 습득하며, 자립성을 키워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배움의 길로 들어서는 시점입니다. 학교 생활은 동시에 도전과 성장을 의미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감정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감정은 불확실성과 흥분,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순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하며, 더 깊은 감정과 연결을 형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처음을 경험하고, 그 때마다 성장하며 배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은 우리 삶의 끊임없는 모험의 시작을 상기시키며, 새로운 경험들을 환영하는 문을 엽니다. 모든 '처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보석 같은 순간들이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10 6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처음'은 우리 삶의 끊임없는 모험의 시작이라 생각해요!! 처음을 통해 많은 인연을 맺고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 '처음'은 보석 같은 순간 " 이 문구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도록 할게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다큐멘터리 혹은 ebs를 보는거 같은 명언들이였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라혜민(사회학과) 처음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보석같은 순간이라는 문장이 진하게 와닿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처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에 공감하며 봤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좋은 글로 가득차서 집중하면서 봤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처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에 십분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었던 오늘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내일이었던 오늘을 매번 처음으로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어제보다 더 나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반성과 고찰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혜윤(사회학과)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글이었어요!

2023/10/30

monday, pm 4:05 | 18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일차 #처음

'처음'이라는 단어를 보는순간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나는 대학교 1학년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첫' 기숙사 생활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생활은 시작의 설레임보다 도망가고 싶은 괴로움의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들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과 방식, 표현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을 마주하는 나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로 머릿속과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면서 내 속은 망가져갔다.
1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돌아가야하는 기숙사와 학교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대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조금은 달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괴로워하던 시절이였지만 부정하거나 없애버리고 싶은 시간은 아니다. 내 인생에서 짧은 시간동안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현재는 여전히 '처음'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은 있지만, 이제는 약간의 굳은살이 박혀 그것에 압도되지는 않는다.
적응의 시작, 마음의 굳은살은 '처음'으로 시작한다.
앞으로도 많은 '처음'들이 남았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11 4

박지원(사회학과) 마음의 굳은살..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도 유정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처음'들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 드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심리학과 다운 고찰이네요 힘들지만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워도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수도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 유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나 자신을 달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멋있네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처음들도 슬기롭게 잘 이겨내길 응원합니다:)

박혜윤(사회학과) 막학기여도 아직 수많은 '처음'이 인생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10/30
monday, pm 4:18 | 17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1일차 #처음
나는 낯설음에 두려움을 느낀다. 처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낯설다. 처음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작년에 휴학을 결정하고 이번 학기에 복학하기 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해보고 처음으로 전국 단위 해커톤에 나가보기도 했다. 처음으로 서평을 작성해 보았고 처음으로 글을 써보았다. 처음을 이겨내면 그 다음은 쉽게 느껴진다.
나에게 처음은 여전히 두렵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처음을 마주하려고 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0 2

정우현(인문학부) 처음 치고는 글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쓰셨는데요!앞으로 더 완성도 있는 글들을 쓰실거 같아 기대됩니다 !!
김현지(경영)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영찬님처럼 처음을 이겨내면 그 다음은 쉽게 느껴지기에 계속 도전하는 편입니다. 영찬님의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

2023/10/30
monday, pm 4:25 | 22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1일차
[처음] 대학교에 입학한 처음이 생각난다. 타 지역으로 와서 모든 것이 낯선 나에게 춘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처음이었다.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첫 기숙사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들었다. 처음에 적응해야 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게 아직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좋은 룸메이트와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내게 이 처음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중앙 동아리에 들어가고 새로운 지역에서 친구들을 만난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난 내게 처음이 더 다가오길 바란다. 이젠 두려움 보다 설렘으로 처음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인 2024년이 다가오고 새로운 3학년이 시작된다. 3학년도 학교에서 잘 보내고 싶고 2024년 한 해도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

14 4

정우현(인문학부) 춘천 낯서실텐데 적응하셔서 즐기시길 바랄게요!
김현지(경영) 소정님의 글을 읽으니 저의 새내기 시절이 떠오르네요! 저도 춘천이 처음이었고 기숙사 생활도 처음이었습니다. ㅎㅎ 중앙동아리 활동도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에요! 소정님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
라혜민(사회학과) 처음이 두렵고 어렵지만 대학교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의 의미가 설렘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3주간 파이팅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기숙사를 쓰면서 춘천이라는 지역이 낯설었고 기숙사도 낯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적응을 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그 당시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2023/10/30
monday, pm 5:05 | 14읽음
김현지(경영)

#1일차 #처음
처음은 두렵기도 하지만 무척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오히려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한림대에 "처음" 입학하여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한림대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내기 시절은
노력해도 마냥 미숙했던 모습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막학기를
온전히 느끼며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시된 단어로 자신만의 글을 쓰는
라이팅챌린지가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글을
읽으며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라이팅 챌린지에 글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과정을 거치며
글쓰기 실력도 높이고 싶고
다른 학우들의 생생한 감정도 느끼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9 8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김현지(경영) 정우현(인문학부) 넵ㅎㅎ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현지님의 글을 읽으며 저도
한림대학교애 처음 입학해 신입생의 신분이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ㅎㅎ 신입생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얼마나 설레고 풋풋한지 가끔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마지막
학기를 보내겠지만 그 순간에도 처음의 설렘을
경험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3주동안
진행할 챌린지를 통해서나마 현지님도 그 기분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합니다ㅎㅎ 새내기 시절은 생각만해도
풋풋하죠...ㅎㅎ 하영님도 학교에서 설레는 경험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같은 막학년 막학기로서
라이팅챌린지도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지(경영) 조석환(심리학과) 석환님도
막학기이시군요! 라이팅챌린지를 통해 의미있는
시간으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해요 :)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매일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쓰려고 하는 편이라서 제시어를 주는 라이팅
챌린지가 더 특별하고 매력있게 다가왔어요!
3주동안 열심히 해봐요!!
김현지(경영) 박혜윤(사회학과) 일기를 쓰는 분을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요 ㅎㅎ 혜윤님의 라이팅
챌린지도 응원하겠습니다 :)

2023/10/30
monday, pm 5:05 | 21읽음
홍다연(정치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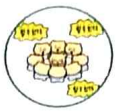
#1일차 #처음
저는 '처음'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단숨에
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처음이란 곧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무언가를 하는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3주 라이팅
챌린지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저는 제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글을 쓰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
글을 읽는 분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글을 작성해내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쓰기를
3주 동안 '꾸준히 써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번 활동의
목표로서 글을 '하나의 일상루틴처럼 써보기'
라는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보았습니다.

평소 목표를 크게 두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저이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담은 글을 공유하며 즐기면서 기록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위한 명목상의 어떠한 글을 써내야만한다는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닌, 정말 온전히 글을 작성하는데 몰입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저의 내면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5

정우현(인문학부) 똑똑하신것 같습니다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라혜민(사회학과) 처음에는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단숨에 도전을 떠올리셨다는 대목에서 능동적인 분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앞으로 3주간 챌린지를 잘 완주해봐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처음을 통해 도전하려는 다연님의 다짐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쉽게 들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도전을 통한 인생의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다연님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3주동안 함께 도전을 통하 나아가보자구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3주 동안 꾸준히 글을 쓰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나 휘황찬란한 글 솜씨보단 그냥 솔직하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 내려갈 때, 더 멋있는 글이 나올 때도 있는 거 같아요~~ 이번 라이팅 챌린지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뭐든 처음 할 때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이팅 챌린지 3주간 하시면서 목표했던 바를 이루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



2023/10/30
monday, pm 5:43 | 17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일차 #처음

처음이란 말을 듣게 된다면 사실 설렘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설렘도 존재하겠지만 그 뒤에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보며 먼저 인사 해준다. 그치만 처음을 거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이라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실 내가 그렇다. 처음이라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가 처음을 경험하고 나아가면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의 설렘이 찾아온다.

걸음마를 떼는 아기도, 처음 운전을 시도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걸음마를 뗀 아기는 걸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고, 운전을 능숙하게 하게 된다면 걸어서 갈 수 있었던 장소 뿐만 아니라 차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처음이라고 너무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지 말고 설렘을 가지고 처음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나는 몰랐던 행복과 즐거움이 올지도!

12 3

정우현(인문학부) 좋은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처음이 주는 그 낯설음이 싫었기에 늘 회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이 있었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경험을 이끌어내 설렘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유빈님의 글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처음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이상하게 처음 앞에서는 두렵고 겁이 나는 듯해요ㅠㅠ 유빈님 말처럼 처음을 넘으면 행복과 즐거움이 온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고, 놀라움이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0/30

monday, pm 5:43 | 22읽음

조석환(심리학과)

#1일차

처음. 끝이자 시작. 나의 첫 기억이 무엇
이었는지 떠오르질 않는다. 그 첫 기억이 나의
것인지, 타인에게 이어진 것인지, 이미 끝이
난 시간의 연장선인지 나는 모른다. 굳이
찾으려고 하거나 떠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언제나 처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또 즐겁고
유쾌하다. 하얀 눈송이가 쌓이고 쌓인 설경에
흠 같지만 아름다운 패턴으로 남겨진 홀로
남겨진 발자국. 그 발자국에 눈송이들이
압축되어 눌리고, 또 그 위에 새로운 눈송이가
쌓이는 것이 우리네 경험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것을 느끼고 싶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회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수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도 나는 첫
걸음을 공부하고 있다. 그 무엇도 되지
못했기에 모든 것이 낯설다. 미지에서 오는
낯설음이 나에게 감정의 쾌락을 주기위해 손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나는 이미 걸음을
떼는 방법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엊그제 이사 온 동네의 저녁 노을과 친해지지
못 했다는 핑계로 첫 걸음을 아직도 공부 하고
있다. 노을의 색에 맞춰 눈시울을 붉히고,
꿈에 어울리는 색을 골라 숨을 내쉬고 싶었다.
여유를 넘은 나의 나태함을 나무라는 것은
없지만, 시간은 어느새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
놓았다.
바람의 배기음이 울린다. 매년 이 때 즈음에
한 해의 처음 물갈이가 끝난 거리에 울려
퍼진다. 무엇이 아쉽길래 나는 정처 없이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생각에 잠기는 이유를
모른다. 이미 지나간 처음들을 회상하며
추모하는 것인지, 세상에게 짜여진 수식에
따라 그 결과값으로 하는 것인지, 시대에
떠밀려 부유 밖에 할 수 없는 나의 존재가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인지 그 누구도,
무엇도 알지 못 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아마 진정 처음으로
내가 나임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처음

14 10

정우현(인문학부) 우울하지만 감정이 잘 전달된 글이었던것 같습니다!갈수록 담담히 감정을 뱉은것도 매력적이었지만 초반의 논리적인 생각을 글로 풀어내신건 대단하다고 속으로 느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조석환(심리학과) 정우현(인문학부)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에겐 상당히 심오한 글인 것 같아요. 처음이 가진 내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듯한 글로 느껴지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네요 ㅎㅎ 석환님 덕분에 처음이 가진 감정에 대해 생각해본 것 같아요. 나에게 처음이란 무엇이었는지 그 시작점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조석환(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의 부족한 글을 여러번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글이 하영님께 의미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게되어 영광입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감정이 잔잔하게 요동치는 것 같아 참 좋네요.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한 편의 소설을 읽은 기분이에요. 앞으로의 글도 기대됩니다 :)

조석환(심리학과) 김현지(경영)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현지님의 글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잔잔한 바닷속에서 파도가 치는 기분이네요. "노을의 색에 맞춰 눈시울을 붉히고, 꿈에 어울리는 색을 골라 숨을 내쉬고 싶었다." 이 문구가 정말 인상 깊고 훔치고 싶은 문장이네요. 석환님의 글이 책이었다면, 저는 벌써 연필로 밑줄 긋고 있었을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의 글이 지원님께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나 작가의 소설을 오마주 하는 버릇이 있는데 저는 제가 쓴 오마주를 글을 훔쳤다 라고 표현 합니다. 지원님께서 훔치고 싶었다라고 하신 문장도 저 또한 훔쳐온 글이기에 제가 훔쳐온 글을 지원님께서 훔치고 싶다고 하셔서 기쁠 따름입니다

2023/10/30

monday, pm 6:18 | 21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1일차 #처음

처음이란 키워드를 보고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첫 시작을 앞둔 나에게는 이따금씩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걱정을 동반한 회피가 오기도 했다. 막상 발걸음을 떼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훨씬 많았음에도 말이다. 처음이란 순간에 대한 부푼 기대와 거창함이 성장의 촉진제도 됐지만 덩달아 독이 됐던 순간들도 많았다.

'처음'에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지 말고 자연스레 마중 나간다면, 과거에 놓쳤던 첫 시작들이 나를 향해 돌아오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처음을 맞이할 때마다 점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리숙하단 걸 인정할 때 그제야 처음이 두렵지 않았다. 작용-반작용 법칙처럼 처음을 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힘은 나에게 어떤 형태로 되돌아오든 풍부한 삶의 자양분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3주의 시간 동안 나는 현재보다 더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는다.

16 6

라혜민(사회학과) 제가 생각한 처음의 이미지와 많이 닮아있는 글이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3주간 잘 부탁드려요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라혜민(사회학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3주간 잘 부탁드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처음을 시작한 누구에게나 성장의 길을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채연님도 저도 같은 경험을 하겠죠. 그 경험 속에서 단순히 성장을 넘어 글을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3주동안 으샤으샤해서 함께 잘해나가 보자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합니다 3주간 힘내봐요:)

박지원(사회학과) 처음에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지 말자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3주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채연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번 라이팅 챌린지 꼭 완주합시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감사합니다! 힘내서 이번 라이팅 챌린지 꼭 완주합시다

2023/10/30
monday, pm 8:29 | 21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1일차 #처음

[처] : 처마 밑에 앉아 내리는 비를 보고있을때
[음] : 음악의 선율은 비의 방향을 바꿔 내
마음을 적시게 한다.

어떤 분야에서 '최초','처음'의 타이틀은
때로는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지난 챌린지에선 저는 항상 같은 글들이 아닌
'처음'으로 쓰는 주제들,분야들로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이번 챌린지에선 처음으로 이행시로 제 글의
[처음]이자, 2023-2학기 라이팅 챌린지에서
[처음]으로 이행시로 작문을 한 '타이틀'을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립니다

11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경회님의 이행시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듣는 음악은 마치
인생의 고단함을 씻겨주는 듯한 편안함을
전해주죠. 그래서인지 뭔가 빗소리가 그러지는
밤인 것 같습니다 ㅎㅎ 3주동안 진행될 챌린지를
향해 함께 달려가봐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내 마음을 적시게한다라는 표현이 넘
예쁘네요 :)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이토록 매력적인
이행시라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처음'의 타이틀은 귀한
가치를 드러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 이행시도
너무 신박하고 좋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조성현(철학과) 2행시로 글을 쓰는 건
상상못해봤는데 참신하고 좋은것같아요! [처음]
타이틀도 멋집니다!!

2023/10/30
monday, pm 8:30 | 17읽음
라혜민(사회학과)

#1일차 #처음

당신에게 '처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이라는 단어에서 무슨 느낌이 드나요?
설렘, 긴장, 두려움, 막막함, 낯섦, 부담감,
자유로움, 상기되는, 황홀한, 자신감,
즐거움...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저에게 '처음'은 눈을 가리고 걸을 때의
어색함과
하얀 눈밭을 최초로 밟을 때의 짜릿함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고도의 집중상태에 빠져들다 보면 몸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어요.
지나고 보면 그리 큰일은 아니었는데, 왜 자꾸
처음에 의미 부여를 해서 뒷걸음질 쳤을까요.
그냥 해버리면 될 것을.
그건 아마 너무 잘하고 싶어서겠죠.
단 한 번뿐인 처음에 너무 잘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린 탓이겠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통한다는 건
그만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걸 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처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다면,
축하합니다!
앞으로는 그 처음보다 더 나아질 일만
남았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3주간의 글쓰기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또 몹시 기쁘네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10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혜민님의 글처럼 처음은 정말 어려운 시도와도 같기에 처음을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큰 도약과도 느껴져요. 시험기간만에도 공부하기 위해 책상에 앉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처음이 늘 순탄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작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위해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그냥 해버리면 그만인데 괜히 걱정만 하다 '처음'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질때가 있죠~~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하얀 눈밭을 최초로 밟을 때, 그 짜릿함은 정말 공감이 가네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ㅠㅠ 3주 동안 파이팅합시다~~

박지호(식품영양학과) 혜민님의 처음을 응원합니다!

2023/10/30

monday, pm 9:04 | 17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일차

나에게 '처음'은 어려운 것이었다.
처음이라는 낯선 상황 속에 던져진 체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이 좋았다. 늘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군가는 반복적인 삶은 지겹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이 잘못되었을 때 되돌아오는 비난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나의 확고한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 반복적인 나의 삶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졌다. 이런 삶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매일 똑같이 겪는 학교생활 속에 한 줌의 변화조차 없다면 졸업 이후의 나는 과연 신입생 시절과 달라져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삶인가? 그 생각이 든 이후로는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 그래서 처음과 부딪혀보기로 했다.
도전이라는 벽을 넘어 처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싶어졌다. 처음의 시작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한다. 나의 새로움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물론 그 처음을 거대하게 시작하진 않을 거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활 속에 먼지처럼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경험할 것이다. 그 먼지가 언젠가 큰 폭풍이 되어 온 세상을 휩쓸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처음이 잘못되었을 때 겪는 실패조차 성장의 발판으로서 받아들일 것이다.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도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때까지 지금의 나는 처음을 있는 힘껏 받아들여 새로운 나를 써내려가고자 한다. 미래에 변화해 있을 나를 상상하며 오늘도 처음의 경험을 맞이해본다.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처음을 회피했던 사람들도 새로움의 매력을 느끼는 순간이 오길 바라며 그들의 처음을 응원하고 싶다.

8 5

정우현(인문학부) n일거 같아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김현지(경영) 저도 익숙함 속의 편안함을 느꼈지만 도전을 하며 새로운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영님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조석환(심리학과) 우리 인간은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너무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모순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로 있을 수 있게
지탱해주는 가시 돋은 장미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반복되는 삶에서 '처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익숙한 것이 더 편하고 좋지만
가끔씩, 자주 새로움도 필요한 듯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0/30
monday, pm 9:37 | 14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1일차 #처음
사실 저에겐 이번 라이팅 챌린지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학기에 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학기에 쓴 글에 '15개의 키워드를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남겼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처음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쓸 땐 어땠나
생각해 보았는데 고민이 정말 많았고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벌써 글을 몇 번이나 지웠다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팅 챌린지 자체가
처음은 아니지만 2학기에는 처음이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참여해보겠습니다. 모두 완주하시길 바라요!

조석환(심리학과) 이번 라이팅 챌린지가 처음은
아니지만, 2023년 가을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니 넓은 의미에서는
같이 처음으로 라이팅 챌린지를 하신다고 표현해도
틀린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는 이번이 처음인데
1일차부터 학우님들의 글을 보며 '신청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음도 얻었고, 썼다
지웠다 하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요즘
모자랐는데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자아성찰을 할
수 있어 좋아요 :) 모두 끝까지 힘내서 완주하길
바라겠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지난 학기에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스스로 성장한 기분이었고, 정말 따뜻했어요 :)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모습에서 글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껴지네요. 2학기도
파이팅합시다

2023/10/30
monday, pm 9:38 | 16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1일차 #처음

처음이 정말 어렵다.
처음 백점 맞는게 그렇게 어렵다.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처음 걷는게 그렇게 어렵다.
두 번째 걸으면 그나마 나은데

처음 말하는게 어렵다.
말하고 나면 편한데

처음 글쓰는게 처음 수영하는게
처음 배우는게 어렵다.

그래도 이건 하면 어느 정도 남들과
비슷해진다.

어떤건 처음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것같다.
예를들면 한계가 존재하는 것

인류가 처음 달에 간건 1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이런 인류적인 기회말고도
개인에겐 대학, 취업, 학업, 연애, 결혼 등
처음마저도 진입이 높은게 있는 것 같다.

처음이라는 그 어려움을 담는다.

7 2

조석환(심리학과)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도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모두다 처음이기에 어떤 것이 정답이고, 또 어떤 것이 오답인지 모르기에 처음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중요한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과연 처음을 쉽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은 정말 어렵고, 그 속에서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되는 듯해요.

2023/10/30
monday, pm 10:14 | 11읽음
함예원(미디어스쿨)

#1일차 #처음

처음 시작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을 무서워한다.

그렇지만 처음은 설레기도 한다. 시작하면 또
재미있는 일들이 잔뜩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처음이 무섭지만 좋다!

지금도 처음하는 시작하는 일이 있다. 새로운
일이라 무섭기는 하지만, 설레는 일이다.
항상 처음은 그렇다. 처음이라 열정으로
가득한 만큼, 파이팅 넘치게 해야겠다.

4 1

박지원(사회학과) 어쩌면 처음은 정말 매력 있는 존재라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과 불안, 설렘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순간이 바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기에 열정 가득하고 파이팅 넘치는 예원님의 자세 정말 멋있어요!! 응원할게요 :)

2023/10/30
monday, pm 10:49 | 11읽음
노경민(빅데이터)

#1일차
#처음
처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여정에서 흥미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해주는 키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우리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탐험할 때 느끼는
것이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떠나 도전에 나서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새로운 경험, 프로젝트, 또는
도전 과제에 처음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처음의 순간은 우리가 자기계발과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처음 단계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자주 함께
다니지만, 이것은 성공적인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처음이라는 순간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믿고,
목표를 설정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이라는 순간을 단순히 한계로 보지 말고,
기회로 생각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처음이란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
새로운 장면을 더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모험과 성공의 시작이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합니다.

6 4

고다인(중국학과)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도전에 나서는 순간이라 정말 처음이라는 단어에 딱 맞는 말이네요~~

노경민(빅데이터) 고다인(중국학과)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지원(사회학과) 처음이 무섭고 두려움 가득한 단어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희망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경민님의 말대로 처음은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열쇠인 듯해요

노경민(빅데이터)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처음은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원님에게도 처음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2023/10/30

monday, pm 10:58 | 17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1일차 #처음

태양이 밤을 이기는 절기인 춘분(春分)에는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저마다 숭고한 생명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내게 처음은 완연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과 같다. 길고 험한 겨울을 견뎌내어 춘분이 오면 맨 처음 싹이 돋고 꽃이 피어 생명의 시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처음이라는 나의 삶의 절기는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고 새롭게 도약하는 거룩한 행위이다.

무언가를 처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고 박수받을 일이다.
처음 하는 것들을 두려워 말자. 무서워 말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자.

저마다의 처음이라는 절기에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꽃이 필 수 있기를!

5 4

조석환(심리학과) 봄을 마주보는 계절인 가을에 봄의 찬가를 보내는 모습이 새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춘분을 훌쩍 넘기고 입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춘분을 기다리며 또 다른 '처음'을 맞이하고 싶어지는 글이에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처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이 희망적인 단어라고 느껴지네요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우와 숭고하고 거룩한 행위라니 ! 처음이 아름답게 와닿네요ㅎㅎ 잘 읽었습니다

2023/10/30

monday, pm 11:22 | 16읽음

고다인(중국학과)

#1일차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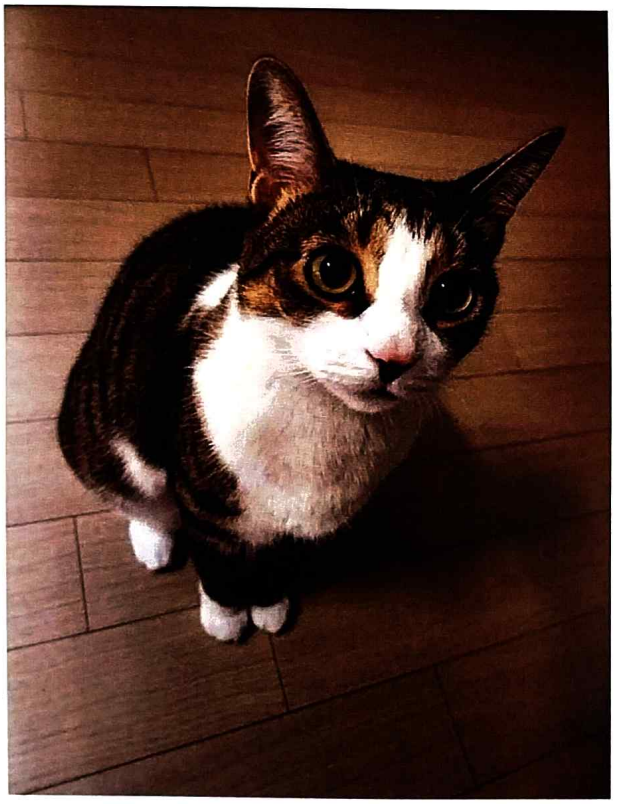
'처음'이라는 키워드를 읽고 우리집 고양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강아지 고양이 등등 동물이라면 무조건 좋았던 나와 털도 날린다며 무조건 반대하시던 부모님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아주 달랐다.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해봐도 거절만 당했었다.그런데 이런 우리집에 어떻게 고양이가 살게 된걸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 겨울이었다.먼 지인이 키우던 4개월짜리 아기 고양이를 더이상 키우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린 것이다.부모님의 반대는 잠시 미뤄두고 그 아기고양이를 데려오고야는 일을 저질렀다.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기고양이를 만나러갔는데 원래 4개월짜리 고양이는 이렇게 작은건가 싶을정도로 작고

귀여웠다.흰색이 섞인 갈색 고등어 고양이,
눈이 마주치자마자 난 집사가 될 운명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했다.걱정을 안고
고양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전화로 들은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지만
생각보다 아주 덤덤하게 이 아기 고양이를
식구로 받아들이셨다.'날 혼내지도 않으시고
고양이를 귀여워하신다니'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만 혹시 잔소리라도 들을까 처음 만난
그 고양이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그렇게 얼렁뚱땅, 네 발 달린
게다가 털도 복실복실한 동물이 우리집
가족이 되었다.

첫 날부터 지금까지 고양이는 우리집
귀염둥이가 되었고, 시크하고도 엉뚱한
고양이의 매력에 우리 가족들은 빠져나오지
못한채 집사로 살고있다.

+우리집 고양이 버블이의 현재모습



8 7

박혜윤(사회학과) 헉... 버블이 너무 귀여워요!!
예정되지 않은 '처음'이 모두를 행복하게 했네요!
고다인(중국학과) 박혜윤(사회학과) 맞아요
갑작스러운 처음이 이렇게 모두를 행복하게 할 줄
몰랐네요~~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저도 두달 전에 냥줍해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공감합니다ㅠㅜ 부모님
반대하시다 애기 보고는 허락하셨어요! 눈이 너무
반짝이는 냐옹이예요 고양이와 처음 만난 이야기
감사합니다! 힐링하고 가요
고다인(중국학과) 임미혜(사회복지학과)
미혜님의 냥줍스토리도 궁금해지네요~~냥이랑
행복하세요!
조석환(심리학과) 각자 다른 생과 삶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 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버블이는 다인님의 처음이자
소중한 선물이라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해요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것을 보니 소중한 처음이네요 ㅎㅎ 고양이
귀여워요

2023/10/30

monday, pm 11:44 | 18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1일차
#처음

시작은 다분히 충동적이었다.

시험과 과제, 자격증 준비로 지쳐있던 와중
문득 휴식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홀린
듯이 항공권 예매 사이[illegible] 충동적이던 나는
다낭행 최저가 항공권[illegible]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illegible]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뒤에[illegible]
항공권을 떠올려 그제야 부랴부[illegible]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난생처음으로 나 홀로 여행을,

그것도 해외로 가게 되었다.

처음으로 발을 디딘 다낭의 첫인상은 '덥다.'였다. 그리고 덜컥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을 잘 버틸 수 있을까? 휴식을 취하러 왔다가 되레 스트레스만 얻어가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그 뒤에 있을 일을 예감하기라도 한 것이었는지 다낭에서의 첫날은 엉망진창이었다. 환전부터 얼마간의 손해를 보았고, 한국에서 사 들고 간 유심은 말썽이었으며, 공항에서부터 잡아탄 택시는 터무니없는 값을 불러댔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여정부터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잔뜩 지쳐버린 나는 짐도 풀지 않은 채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난 나는 초장부터 대차게 말아먹은 여행 계획을 확인한 뒤 일단 뭐라도 먹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1일차의 밤은 컵라면과 약간의 우울 속에서 지나갔다.

2일 차 아침, 다른 건 다 제쳐둔 뒤 조식부터 먹으러 갔다. 배를 채우며 이번 여행의 목적을 상기한 나는 '어차피 나는 쉬러 온 거고,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결 무거워진 위장과 가벼워진 마음으로 숙소를 나서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다낭 대성당을 향해 걸었다. 햇볕이 따가웠기에 양산을 쓰고 있었던 나는 아스팔트로 가득 찬 시야에서 뭔가 눈앞이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다낭의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고개를 든 그 순간, 이 도시가 좋아졌다.

이후로는 정말 놀고, 먹고, 자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내킬 때 밖에 나가 산책을 했고, 수제 햄버거 맛집에 들러 햄버거를 사 온 뒤 숙소에서 영화를 보며 먹었다. 하루는 와인 바에 가 혼술을 즐겼고 또 하루는 택시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기도 했다. '알차게 경험해야 한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알차게 쉬었으며 그렇게 나는 다낭의 하늘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에 오던 부슬비와 얼음장 같은 호텔 수영장, 7월의 무더위와 오토바이들이 자아내는 소음까지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경험한 나 홀로 여행은 내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줬다. 바로 사람은 언제까지고 달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힘에 부쳐 충동적으로 결정한 여행이었으면서 정작 나는 그 여행도 열심히 하려 들었고, 한 번 마음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쉴 수 있었다. 끊임없이 달리려다 어떻게 멈추는지도 잊었던 것다. 쉬는 방법을 다시 깨우쳐 줬다는 점에서 이

여행이 내게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주기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6 3

박지원(사회학과) 왕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가끔은 혼자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무서움이 커서 도전해 보진 못했어요 명지님의 글을 읽어보니 용기를 얻고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가끔은 충동적으로 행동해야 이야기가 시작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명지(데이터테크) 박지원(사회학과) 원래 뭐든 계획한 뒤에 행동하는 성향인데, 지원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때론 직관을 따라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겐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됐었어요. 지원님도 이번 방학에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댓글 감사합니다. 안온한 밤 되세요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저도 무엇이든 열심히 알차게 해야한다는 마음이 있었다가 요즘 휴식의 중요성을 알게되서 더 공감돼요. 전환점이 되었다니 제가 다 행복한 기분이네요 ㅎㅎ,, 읽다보니 잊었던 여행지에서의 감정이 떠올라요. 첫 혼자 여행은 해본적 없는데 저도 해봐야겠어요!

2023/10/31
tuesday, am 12:09 | 30읽음
김양선

#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처음 대학에 왔을 때, 춘천이라는 낯선 도시에 왔을 때, 처음 설레는 사랑을 할 때의 기억들, 글쓰기 챌린지를 처음 시작하면서의 다짐들이 여러분의 글에서 오롯이 느껴집니다. 챌린지 첫 날의 마음이 3주 동안 쭉 이어지기를 응원할게요. 하루 마감 잘 하기 바랍니다.

14 0

2023/10/31
tuesday, am 1:46 | 22읽음
정다운(미디어스쿨)

#1일차
#처음

마감기한은 지났지만 그냥 남겨두는 글

.
.

스무살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던 나에게 19살 한해는 참 두려움의 시간이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것처럼 난 스무살이 되는 해가 오는 걸 너무 두려워했고 슬퍼했었다. 그동안 못한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저 막막하고 후회되고 서럽고, 인생이 거의 끝난 사람처럼 학창시절이 끝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너무 컸다. 근데 막상 되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한살 더 먹은 것 뿐.. 미래를 상상할 수 없던 나의 스무살은 그저 열아홉에서 한살 더 먹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 뿐이다. 주변 환경이 눈에 띄게 바뀐것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었다. 19살의 내가 느낀 두려움이 무색할 만큼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 너머에는 여전히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처음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이젠 오히려 청소년의 신분으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도전 해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을 느끼고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나의 스무살은 청소년으로써의 끝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나니 이젠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찬 것을 온몸으로 느낀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두려워 하지말자.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을 처음

살아가고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 시간이 흘러
다가올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자.

7 2

배성준(경영학과) 저도 막상 스무살이 되는 것을 기대했었지만 성인이 되면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과 크게 무언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네요..!! 다운님의 생각이 공감이 잘 되는 글이 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다운님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네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너무 멋있는 말 같습니다 좋을 글 감사해요

2023/10/31
tuesday, am 7:58 | 32읽음
김양선

#2일차 키워드 : 가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날입니다. 11월이면
늦가을에 접어들겠지요. 그래서 식상하지만
오늘의
키워드로 '가을'을 골랐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식물들이 색을 바꾸고
떨어지는 쇠락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과 관련된
추억이나 떠오르는 노래가 있나요?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한 춘천의 가을, 캠퍼스의 가을을
오늘 하루 둘러보면 어떨까요?

17 0

2023/10/31
tuesday, am 8:39 | 26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2일차

어렴풋이 느껴지는 계절의 향기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아마 지금도 제 곁에 있으시겠죠?
아침잠이 없어 새벽부터 깬다 하셨으니 이미
깨셨을 터,
저와 제 어머니를 보며 추위에 유독 약한 것이
집안 내력이라며 놀리시다가도 두터운
외투를 입혀주시던 당신이니 아직은 걱정이
안됩니다만 한 번 더 계절의 향기가 바뀔 때엔
따스한 옷을 챙겨 입어주세요.

아직은 푸르른, 가을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씩 날 떠올리셨겠죠?
가뭄에 콩 나듯 했던 전화에 할 말이 넘치셨던
것을 보면요.
매번 저에게 할 말이 그렇게 많으셨는데 아직
다 하지 못하셨진 않은지, 추위에 약한 손녀와
딸이 이제는 기억나지 않으신지, 당신을
따라가버린 까망이를 만나셨는지, 지금도 날
떠올린다면 제발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그래, 그 날은 어린 아이마냥 '할머니,
보고싶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밖에
외치지 못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16 8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이별과 그리움이 너무나 선명한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사계절 중 가을은 유독 그리움의 계절인 것 같아요. 낙엽 때문인지, 여름 다음 계절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울컥하게 만드는 글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명지(데이터테크) 상실은 언제나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젠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할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가을을 탄다는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서현님의 속마음을 쓴 글인지 혹은 그저 소설을 쓰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오늘은 꼭 손녀의 꿈에 나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글이네요
김재명(러시아학과) 계절마다 그리워지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주(간호학과) 담담한 듯 애절한 마음이 참 여운을 오래 남게 하는 글인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싶어지는 하루네요. 서서히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얼굴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요.

2023/10/31

tuesday, am 9:38 | 28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2일차 #가을

모든 계절은 계절만의 특유의 향과 바람, 소리 등이 있다.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감정도 다르며, 그렇기에 모든 계절은 아름다우며 각자만의 매력이 있다.
모든 계절을 좋아하지만, 본인은 봄과 가을을 더 좋아한다. 어렸을 때는 무더운 8월에 탄생했다는 순수한 이유로, 여름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17살쯤 되니 땀을 삐질삐질 흘려 땀 냄새가 날까 걱정되고, 장마에 머리부터 양말까지 젖어 꿉꿉한 냄새와 찝찝한 것이 싫어졌다.

가을이 다가오면 귓가에 맴도는 노래가 있다. 가수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이다. 57초간 무반주로 노래가 시작된다. 가수 아이유의 청량하고 설렌 듯한 목소리와 가사가 너무 잘 어울린다.
2017년 9월 22일, 1년 전에 발매된 곡임에도 가을만 되면 찾게 되는 노래이다. 원곡은 1991년 10월 1일에 가수 양희은이 발매한 곡으로, 가수 아이유가 리메이크하여 발매한 곡이다. 가수 양희은의 원곡은 깊이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리움이 강한 느낌이고, 가수 아이유의 리메이크 곡은 순수한 소녀가 가을 아침을 맞이하는 맑고 청량하며 설레는 분위기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이 든다.
https://youtu.be/V2Mzp7ewg9M?si=YVcK5O2F2vBq6snv

간신히 눈을 뜨고 일어나 창문을 열어,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와 창문의 방충망 구멍 사이로 몰래 들어오는 바람을 맞이한다. 눈을 감고 새와 바람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다시 잠에 빠진다.
따뜻한 초코우유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 왠지 모를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몽글몽글한 게 기분이 좋다. 특히 겨울에 핫초코 위에 마시멜로우를 올려 먹으면 더욱 맛도 좋고 기분도 좋다.

12 8

김상민(생명과학과) 가을이라는 계절의 모습을 풍경 그리고 냄새로 표현한 점이 와닿네요 ㅎㅎ 노래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글뿐만 아니라 음악 추천까지 있다니! 잘 들어보겠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차가우면서 따뜻한 느낌' 가을 겨울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분이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어지는 문장이예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 수업 끝나고 '가을 아침' 곡을 들으며 집에 가야겠어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분명 지금 시간은 한창의 낮인데 보민님의 글을 읽으니 가을 아침의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가을이 다가오면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꼭 들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꼭 들어볼게요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가을 특유의 향취가 느껴지는 글이여서 좋네요 ㅎㅎ 원곡과의 차이점에 동감하며 내일은 가을 아침 노래로 맞이해야겠어요.

2023/10/31

tuesday, am 10:24 | 22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2일차

계절마다 각자의 매력이 있겠지만, 가을은 내가 유독 좋아하는 계절이다. 유난히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도 매력적이지만, 세상을 알록달록 물들이는 단풍을 보면 괜히 감성에 휩싸이기도 한다. 유독 서늘하면서도 잔잔하게 느껴지는 바람도 좋다. 무언가를 수확하기에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든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을 보면 기겁하게 되지만, 그것이 가을을 싫어하게 될 이유에 미치진 못한다. 아마 많은 사람이 나처럼 봄이나 가을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 극단적으로 스스로를 뽐내는 여름이나 겨울과 달리 두 계절은 잔잔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마음이 몽글몽글하다. 내가 마냥 좋아하는 계절에 머물러도 서글프기만 하다. 내가 좋아하는 두 계절은 날이 갈수록 점점 짧아지며 눈 깜빡할 사이에 여름 혹은 겨울로 넘어가고 있다. 어릴 적에는 '지구가 아프니까 분리수거를 잘해라.', '에너지를 아껴써라.'와 같은 말이 굉장히 교육적이고 상투적이게만 들렸다. 마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어라.'처럼 뻔하고 도덕적인 말 같았달까. 그런데 요즘은 지구가 아프다는 말이 예전처럼 하나의 이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당장 맞이한 현실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라며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 괜찮을 거라며 막연하게 웃어넘기는 사람들을 보면 착잡한 심정이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그리움, 쓸쓸함, 풍요를 담고 있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입꼬리가 올라갈 정도로 아끼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가을을 떠올리면 위기감이 느껴진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거라며 괜찮다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기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침체가 올 거라며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다. 몇몇의 이기심이 모여 이러한 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어쩌면 그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절로 반성하게 된다. 언제쯤이면 나는 다시 가을이라는 계절을 온전히 사랑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럴 때가 다시 올까. 서늘한 바람을 맞을 때면, 괜히 마음이 울렁거린다.

☺ 11 ⋯ 12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가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어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은기(영문학과)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 추천 부탁해도 될까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홍은기(영문학과) 유명해서 이미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구의증명 재밌더라고요! 한 번 읽어보세요:)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가을의 서늘한 바람은 왠지 모르게 더 쓸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신유정 (심리학과)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가을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가득이네요 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쵸, 가을은 유독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는게 체감이 되었는데 수연님의 글로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가을을 정말 좋아해요. 유독 사계절 중 가장 아름다우면서 쓸쓸한 계절이라 생각하거든요ㅠㅠ 우연히 댓글을 읽다가 봐버렸는데, 저도 구의증명이라는 책 정말 재밌게 봤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글 읽고 공감 많이 했습니다!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서늘하면서도 잔잔하다'라는 말이 와닿네요. 저도 가을에 대해 안타까움이 커요. 요즘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아니라 이계절이라는 말도 있다더군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2023/10/31

tuesday, am 11:18 | 19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2일차
'가을'이 되면 왜 단풍이 드는지 아시나요?
가을에는 일조량이 작아져서 광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엽록소의 합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랗고 빨갛게 변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 어렸을 때 늘 단풍을 보면 "단풍들이 예쁜 옷을 입었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동심의 추억이 있나요? 전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는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 " 라는 말의 의미를 점점 느껴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잊고 살아가고 있는 어린시절의 추억이 있나요? :)

13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호님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을의 추억은 무엇이 있나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요즘 잊고 살아간 추억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덕분에 떠올리게 되네요! 어렸을 적에 하셨던 말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하하 어릴 적을 떠올리면 왜이리 귀엽고 웃긴지요. 저는 어릴 때 가을 새벽공기의 냄새를 좋아해서 새벽에 창문을 열고잤다가 감기가 된통 걸려 어머니께 야단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께서 저를 폭신한 이불에 돌돌 말고 토닥이시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좋아서 엊그제도 열어두고 잤다가 감기가 걸렸네요 ㅎㅎ,,정말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거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는 추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ㅠㅠ 저도 동심의 추억이 정말 많아요, 흑역사도 정말 많고요!! 좋은 글 감사해요

2023/10/31

tuesday, am 11:22 | 19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2일차

활기차던 나뭇잎이 시들어 낙엽이 되고, 푸르던 녹음이 알록달록 변해가는 계절이 찾아왔었다. 가을의 메타세쿼이아 길에는 레드 카펫 대신 길게 널브러진 낙엽의 행진이었고, 사람들이 무리 지어 지나가곤 하였다. 이젤을 앞에 두고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화가는 잠시 고민하다 지나가는 행인을 불렀다.
"이보시오, 하나만 묻겠소. 이 길의 전체적인 색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괜히 남녀노소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낙엽의 색상이 궁금한 것입니다.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눈이 멀쩡히 달린 당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에 걸맞은 냉담한 대답과 함께

행인은 떠났다. 어쩔 수 없이 붓을 쥐고 한동안 앉아 있어야 했다. 그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노을이 지고 멀끔한 차림새의 행인이 화가를 찾았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이 샛노랗고 붉은 기가 감도는 길과 커다란 나무들을 그릴 때랍니다!"
"노랗고 빨갛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색맹이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됐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위입니다. 그림을 살 테니 완성된다면 제 집으로 오십시오. 겨울이 되기 전에만 완성하십시다. 참고로 당신의 팔레트에는 아직 노란색이 없습니다."
화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어둡고 파랗기만 하다는 화가의 그림에 따뜻한 온기처럼 알록달록한 색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13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정말 감각적인 글 같아서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위 '라는 말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 충민님의 글을 읽으니 쌀쌀한 가을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김현지(경영) 활기차던 나뭇잎이라는 표현은 생동감 넘치는 여름이 레드카펫 대신의 낙엽의 행진은 가을이 잘 그려지는 표현이네요! 글만 읽어도 눈 앞에 그려지는 표현이 정말 멋집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글 잘 쓰시네요!

2023/10/31
tuesday, pm 12:06 | 21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2일차#가을
견디기 힘들었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
달려야 할 것 같던 여름이 가면 가을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여름의 물건을 겨울의 물건으로 바꿔야 해서 귀찮아 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겨울옷은 아직 덥고. 여름옷은 잘 정리해서 차곡차곡 내년 여름에 쓸 수 있게 정리해야 하는데. 고민하하고 미루다가 얼마 전에 다 했다.
여름에는 뜨거운 날씨. 햇살. 따뜻한 바람이 너무나 싫었다.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으로 다니려고 하고. 차가운 음료수가 기본이였다. 잠을 깨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름은 무조건 아이스였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춥다. 아직 패딩을 입으면 안될 것 같은데 낮은 조금 덥기도 한 것 같은데, 조금만 해가 있는 곳에서 따뜻해 하며 몸을 녹인다. 그렇게 추워진 날씨에 밖을 다니다 보면 여름의 뜨거움이 잠깐씩 그립다. 한 조각만 잠시 빌려와서 꽁꽁 언 나의 손과 발을 녹여주었으면 좋겠다. 여름엔 그렇게 싫어하더니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 이불을 덥고 누우면 또 가을 겨울이 최고지 한다.
모순 덩어리인 '나'이다.
있을 때 잘하자!. 지나간 것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보내서 지나간 계절을 뿌듯해 하며 다음 계절을 맞았으면 좋겠다.

13 7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여름에는 겨울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겨울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 여름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크크...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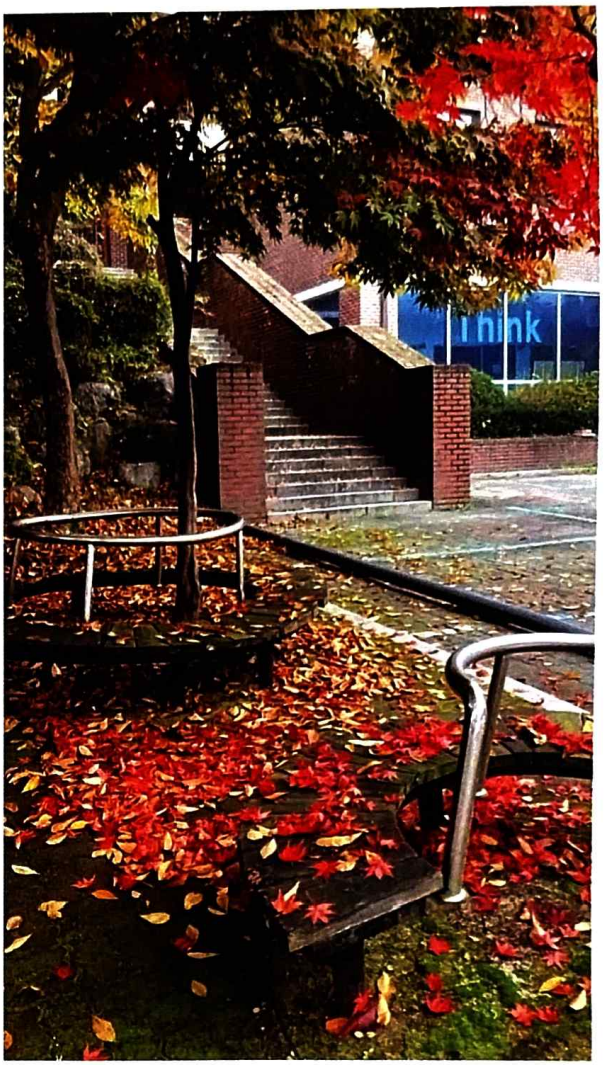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요즘 제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공감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감사합니다
조영주(간호학과) 여름의 한 조각을 빌려오고 싶다는 표현이 예뻐요
신유정 (심리학과) 조영주(간호학과) 감사합니당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지금 가을의 모습이 되기 전까지, 초록초록한 여름의 모습이 한창이었었는데,,,, 초록이 그립기도 하네요. 저도 유정님처럼 지나간 계절을 뿌듯해하며 다음 계절을 기다리도록 할게요 :)

2023/10/31

tuesday, pm 12:24 | 17읽음
김서희(심리학과)

#2일차
나는 아직 2학년이라 가을을 생각하면 대학교 원서접수를 하고 한림대학교로 면접을 보러 왔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의 차갑고 쌀쌀했던 공기와 날씨는 잊을 수 없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한 가을을 보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내가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생이 되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되는 하루이다.

모임이 쉬워진다!



12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사진이 너무 예쁘네요! 사진을 보니 정말 가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도 잘 읽었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헉 거기 단풍나무가 유독 붉게 물들었어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하면서 사는 하루가 정말 아름답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김서희(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면접 볼 때가 생각이 나요!! 사진 너무 예뻐요
김서희(심리학과) 가양선(경영학과) 감사합니다 !! :)

김현지(경영) 저도 이 맘때 면접을 보러 왔는데 서희님이 찍어주신 장소가 면접이 끝나 긴장이 풀리던 그 곳입니다. 저도 그 당시의 날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ㅎㅎ

김서희(심리학과) 김현지(경영) 맞아요 ㅎㅎ 그 당시의 날씨는 잊을 수가 없네요

2023/10/31
tuesday, pm 12:56 | 20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2일차
학우분들께 가을을 맞아 "Autumn Leaves" (가을 잎)라는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프랑스의 가수 이딩 피아프 (Edith Piaf)와 윌링 넬슨 (Yves Montand) 등 다수의 아티스트에 의해 불려온 곡으로, 가을의 우울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노래로 유명합니다.

"Autumn Leaves"의 가사는 가을의 잎이 떨어지면서 연인 간의 이별을 다루고 있으며, 이 가사와 함께 곡의 음악은 가을의 시들고 우울한 분위기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다룬 가사는 가을의 내추럴한 아름다움과 가을에 닥칠 수 있는 이별의 슬픔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Autumn Leaves"는 다양한 아티스트에 의해 다양한 스타일로 불려졌으며, 감성적인 재즈 버전부터 클래식한 보컬과 피아노 연주로 편곡된 버전까지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모두들 이 곡을 들으며 가을의 정취에 빠져드는 건 어떨까요?

15 2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좋은 곡 추천 감사합니다. 꼭 한 번 들어볼게요:)

박지원(사회학과) 와우!! 가을의 우울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이라니 너무 궁금하네요 당장 들어봐야겠네요~~!!!

2023/10/31
tuesday, pm 1:06 | 13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2일차

가을이면 절로 봉의산에 시선이 가게 되는 이유에는 가을산의 알록달록함도 있겠으나 학창 시절의 기억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다. 중학생 시절 유독 가을이면 학생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까지도 봉의산에서 하는 야외 수업을 즐겼다. "얘들아, 오늘 날이 너무 좋지? 봉의산 가자." 이 두 문장이 나올 때면 다들 교과서와 필기구만 챙겨서 밖으로 뛰어나가 봉의산으로 향했다. 미술 수업이니까, 음악 수업이니까, 국어 수업이면 또 국어라서 맑은 날 봉의산에 오르면 이미 한두 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 제일 먼저 산을 오른 반이 된 날이면 저 멀리서부터 언덕을 오르는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들으며 숨죽여 웃기도 했다. 봉의산에서 우리는 간이 장기 자랑을 하거나 수건돌리기를 했고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며 가을의 청명한 날을 즐겼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이 가을만 되면 그리워지는 까닭이다.

10 2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봉의산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추억을 들으니 가보고 싶어져요. 학창시절은 못 잊을 추억거리지요.

박지원(사회학과) 봉의산에 가보진 못했지만, 그 당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듯하네요. 돌아갈 수 없기에 더 애틋해지는 것 같네요

2023/10/31
tuesday, pm 1:47 | 18읽음
홍다연(정치행정)

#2일차 #가을
가을은 한 해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봄의 이미지에 대하여 새로운 시작, 처음, 설레임 등을 떠올리고, 여름은 뜨거움과 열정, 그리고 청춘을. 겨울에서는 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떠올립니다.
제가 가을이 쓸쓸하고 고독한 계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는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사람들이 어떠한 설레임을 느끼거나,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애매한 시기에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움이 가득했던 여름이라는 시기를 지나면 곧 가을이라는 공허한 계절이 찾아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공허함을 즐기는 편입니다. 앞선 계절 내내 열심히 살아왔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잠시 고독한 마음으로 인생의 휴식기를 갖는 것 또한 저에게 필수적으로 주어야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일정한 휴식을 거쳐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어떠한 삶을 만들어나갈지 고민해보는 것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좋은 발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10 4

김재명(러시아학과) 뜨거운 여름 뒤에 가을은 다가올 겨울의 혹한을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추스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좋은 통찰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가을이 애매한 시기에 걸쳐있기에 가을만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의 설레임도, 애매함의 쓸쓸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양선(경영학과) 가을의 공허함을 즐기는 것도 생각을 정리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공허함을 즐기는 편인데, 그래서 가을을 정말 좋아해요 :) 이처럼 쓸쓸하고 따뜻함이 공존하는 계절이 있을까 싶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0/31
tuesday, pm 1:56 | 14읽음
이유빈(사회학과)

#2일차 #가을

몇 년 전에만 해도 가을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간이였다. 뉴스에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봄에 피는 꽃이 빨리 핀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점차 가을이라는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예전 같다면 오전과 저녁에는 차가운 가을 공기와 낮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었지만 지금은 오전과 저녁에는 겨울과 같은 찬 공기가 우리 곁을 머물고 낮에는 초여름과 같은 공기가 우리 곁을 머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점점 봄과 가을을 잃어가고 있다. 벚꽃 놀이도 단풍 놀이도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없게 되었다. 가을에 보이던 잠자리들도 이젠 가을이 아닌 여름에 보이는 슬픈 장면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봄과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가을이면 알록달록한 단풍을 먼저 떠오르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서 변화해 가는 기후를 떠올려보는건 어떨까?

10 2

가양선(경영학과) 가을이 빨리 지나가 아쉽네요 ㅠㅠ 기후를 떠올려본다는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봄과 가을이 딱 계절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절들이 사라지고 있다니 너무 속상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2023/10/31
tuesday, pm 2:03 | 14읽음
이주영(디미콘)

#2일차 #가을
혹시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제가 가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듣는 노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입니다. 가을 아침은 다른 계절의 아침과는 다르게 서늘하고 겨울이 오기 전이라 그런지 해도 늦게 뜹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일 당시 하는 것도 많았는데 왕복 6시간 거리를 통학했습니다. 3월부터 항상 통학하며 누구보다 새벽을 일찍 맞이하면서 일어나도 해가 뜨지 않는 가을이 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게으름이 생겼습니다. 게으름을 해치우기 위해 항상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듣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가을이란 몸도 마음도 무거운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 덕분에 가을 아침을 행복하게 맞이합니다. 다들 노래 덕분에 마음의 심경이 변화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을 잘 마무리하시고 찾아오는 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11 4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저도 가을 키워드 듣자마자 가을아침 노래들으며 어떤글을 쓸까 고민중이였는데 마침 저와 같은생각 가지신 분을 만나 반갑네요 ㅎㅎ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통학은 힘들지만 그만큼 부지런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을 아침을 들으면 가을이란 계절의 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가을 아침의 노래를 경춘선에서 들을 때의 감성이 떠오르는 글이네요! 가을 필수곡 인 것 같아요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통학을 하면서 정말 피곤했던 기억이 있네요 ㅠㅠ 노래 덕분에 심경의 변화가 온 경우 있었어요!! 주영님도 가을 잘 마무리하시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2023/10/31
tuesday, pm 3:25 | 18읽음
문정희(법학과)

#2일차
'가을'
무르익은 계절, 무르익은 마음

떨어지는 낙엽과 선선한 바람은
한없이 슬프게 만든다.

4학년이 된 지금,
이 계절은 생각이 많아지게 한다.
무르익지 못한, 아직은 덜 성숙한 나에게
졸업이란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떨어진 낙엽처럼 나무도 한 해를 훌훌 털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만 같은 기분이 조금은 슬프다.

낙엽을 보다가 무르익은 낙엽도 한때는
푸릇한 나뭇잎이였으며,
앞으로 끝없이 나뭇잎이 낙엽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무르익어 떨어진 낙엽도
내년에는 푸릇한 나뭇잎으로 나를
맞이하겠지.

나도 그렇다.
지금 힘들더라도 새로운 잎이 다시 자라난다.
무르익기 전에는 성장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없이 아쉽고 걱정이 많은 지금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것을.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와 과거는 잠시 미뤄두는 건 어떨까?
그것이야말로 무르익은 나 아닐까?

가을은 시간의 흐름선상 위에서 나를 휘젓고 있지만, 현재에 머물러 있는 나에게 가을의 힘은 한없이 약하다

11 4

이주영(디미콘) 가을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문장이 인상깊네요. 4학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은 힘들어도 내년의 가을은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조석환(심리학과) 같은 가을이어도 1학년 때 봤을 때와 4학년 때 봤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이 달라지는게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조금은 내가 성장을 했다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무르익기 전에는 성장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게 공감이 가요. 이번 가을도 잘 마무리 하시고 앞으로의 가을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마지막 문구가 조금 울컥하게 만드네요. 정희님의 다음 가을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4학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10/31
tuesday, pm 5:09 | 14읽음
함예원(미디어스쿨)

#2일차 #가을

나는 사계절 중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생일이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장 좋다. 하지만 점점 이 계절이 짧아지는 게 느껴진다. 나는 매년 가을 즈음에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성찰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나는 가을 하면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이름부터 가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노래에서 그 가을의 느낌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정말 가을 아침의 한 장면을 담은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지만, 유독 가을 아침에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

8 2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가을 아침이란 노래를 들으면 가을의 분위기를 정말 잘 담은 노래라 공감이 갔어요. 사계절 중 가을이 가진 매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가을 아침은 정말 노래 제목 그대로 가을 아침에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2023/10/31
tuesday, pm 5:17 | 18읽음
조성현(철학과)

#2일차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던가..!
책이 읽고 싶네요..
재밌어 보이는 책이 많습니다.
다이어리에 리스트 업을 해놨는데 얼른 읽고 싶습니다..
이럴 때마다 안 읽어도 읽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무의미하면서도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인간이기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공중곡예사, 환상의 빛,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고도를 기다리며, 케빈에 대하여, 희랍어 시간 등등
읽다가 만 책도 있고 구입하고 놔둔 책들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끝나면 여유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책을 읽는데 독서모임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은 읽어야 하니 아주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가까운 곳에 독서모임이 있다면
한 번쯤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은 못 읽을 이유는 있지만

안 읽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잠시 여유를 가지고 좋아하던 책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11 10

김재명(러시아학과)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었는데, 독서모임이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만나시길 바래요!

조성현(철학과) 김재명(러시아학과) 독서모임은 정말 강추 합니다!! 재명님도 좋은 책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예전에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책을 읽을 시간도 틈도 없더라구요..지난 여름방학 때 읽고 싶은 책을 2권 사긴했는데 아직 한권의 절반도 못 읽었는데 따로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읽어야겠어요

조성현(철학과) 조석환(심리학과) 맞아요.. 저도 책을 보일때마다 사는데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읽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저도 모르게 독서가 하고 싶어지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보면 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다른 계절에서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 하겠는데 유일하게 가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참 매력적으로 다가 오는 계절이네요!! 덕분에 가을이 지나 가기 전에 독서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을은 감성이 강해져서 그런것 같아요!! 가을이면 뭔가 좋은 소설을 한권 읽고 싶어집니다!! 하영님도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좋은 소설 읽으시길 바랍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런지 이때까지 읽어보지 못했던 책도 도전해보고 싶은 계절 같아요! 저도 이참에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성현(철학과)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맞아요! 계절에 따라 하고싶은게 다른 것처럼 이참에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요즘 같은 날씨에 책을 읽으면 너무 짜릿할 것 같아요! 떨어지는 낙엽 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까지.. 쓸쓸함이 느껴지지만 책은 따뜻하기에 괜찮은 듯해요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마음같아선 다 뒤로하고 책을 읽고 싶은 날씨죠..!! 쓸쓸함 속에 따뜻한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ㅎ

2023/10/31

tuesday, pm 5:41 | 16읽음

조석환(심리학과)

#2일차

올해도 해가 기울어졌소.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내지고 있소. 당신께 안부를 묻고 싶지만 나에게 흉터를 남기고 간 그대이기에 감히 물어보지는 못 하겠소. 길가의 가로수들이 그대의 마음처럼 변했소. 그대의 감정처럼 노랗게 변하기도 했고, 빨갛게 변하기도 했소. 이 풍경이 그대 만큼이나 아름답소. 가로수들이 길가에 융단폭격을 퍼 부어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졌소. 텅 빈 하늘에 짓눌린 나의 모습과도 같아 실소가 나오. 그 시절의 나는 당신에게 빠져 주정뱅이 같은 노래를 부르곤 했었소. 가을의 작은 섬에는 그대와 나만이 있어서 애틋한 배드엔딩의 영화 한 편이 되었소. 어쩌면 처음부터 절름발이 같은 내외의 운명을 타고나 이미 배드엔딩으로 결정된 것일지도 모르오. 이 영화가 한 때는 죽도록 미웠던 적이 있었소. 단 하루의 어제를 위해 내 모든 내일들을 바쳐 돌아가고 싶었소. 망상의 늪에 빠진 망령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미워했었소. 그랬었던 나의 감정이 이제는 한 편의 모자이크 조각처럼 하나의 예술이 되었소.

창가에 녹이 슨 동전을 하나 두고 가오. 내가

올 때 당신이 생각나서, 설경에 그대와 함께 거닐던 내가 생각나서, 그때 그대가 했던 선택 때문에 사라진 가능성들을 그리워져 향수 한 조각을 꺼내 먹은 값으로 치르고 가오.
나는 괜찮소. 당신 덕분에 겁쟁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소. 시계 바늘에 수 없이 찔려서 감정의 넝마주이가 되었소만은 그래도 나는 괜찮소. 보잘것 없는 나의 순애를 딛고 그대가 잘 살아 간다면 그걸로 만족하오. 당신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일상에서 가끔 나의 향기가 보일 때, 그때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 라며 추억보다 못한 기억으로 회상 해주는 것 만으로도 나는 만족하오.
나를 잊어 달라고 하거나 잊지 말라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니 내가 어찌 감히 부탁할 수 있으리오. 그래도 내가 감히 욕심을 낸다면, 당신에게 저주 하나를 걸고 싶소. 그대가 절대로 그때의 행복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저주를 말이오.
나는 멀리 나가지 않을 터이니 조심히 가시오. 명년 이 때에 다시 물어보러 오겠소.
#가을

☺ 11 ⋯ 8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디선가 실제로 누군가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랑의 감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슬프지만 쓸쓸하기도 한 미련 덩어리의 편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다시 물어 보러 오겠다는 그 말은 글쓴이가 묵혀두었던 심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도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오늘도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님께서 읽으면서 느끼신 감정들을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성과 감정을 잘 전달 했구나 라누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안부를 묻는 편지 속 여러 감정들이 잘 느껴지는 글인 것 같아요.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가을의 풍경과 겹쳐보이기도 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가을감성을 담아보고자 했는데 그 느낌이 잘 전달 되어서 다행인것 같습니다

김현지(경영) 가을 특유의 쓸쓸함과 아련함이 잘 묻어나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조석환(심리학과) 김현지(경영) 오늘도 부족한 저의 글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가을은 그리움의 계절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움과 짙게 묻어있는 글이라 느껴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오늘도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0/31

tuesday, pm 5:49 | 17읽음

박지원(사회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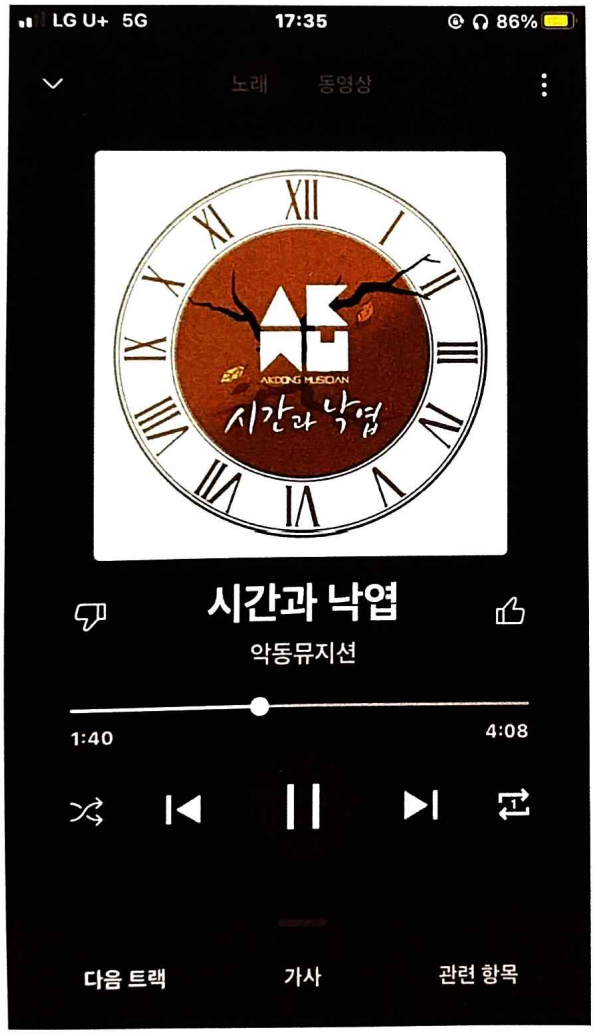
#2일차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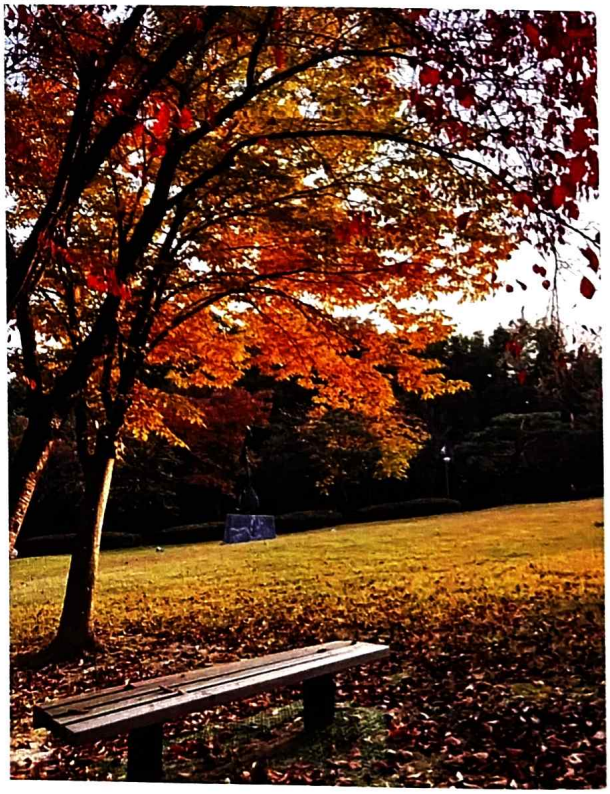
저는 가을이 다가오면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이라는 노래를 꼭 들어요! 가사도 정말 아름답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을의 풍경을 바라보면 내가 가을 숲속을 거닐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을이 다가올 무렵쯤, 길거리에는 은행 냄새로 가득하며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면 노란 잎도 같이 지고 날은 쌀쌀해지면서 나무가 완연한 가을의 색을 드러내는 순간, 가을이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은 참 신기한 계절이면서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가을의 풍경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찬 바람에 가을의 냄새가 깃들어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상하게 쓸쓸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지나간 과거의 일들, 나에 대한 질문 등 여러 생각이 드는 계절인 것 같아요. 쓸쓸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무언가가 그립기도 하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좋기도 하면서 가을이 조금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가을의 계절은 짧지만 가을의 향과 낙엽은 오래 기억되는 듯합니다





12 5

홍은기(영문학과) 시간과 낙엽 가을 플레이스트에

꼭 있더라고요 ㅎㅎ
가양선(경영학과) 시간과 낙엽은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당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쓸쓸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가을은 참 매력적인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가을이 오면 오묘한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그 감정 조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절인 것 같기도 해요! 덕분에 가을에 매력에 또 빠지게 됐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가을이 점점 짧아져서 아쉽기도 하지만 낙엽과 향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말에 공감해요.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마지막 사진은 휴대폰 배경사진으로도 손색이 없네요! 교정의 아름다운 풍경과 지원님의 글이 잘 어우러집니다 :)

2023/10/31
tuesday, pm 5:56 | 16읽음
조영주(간호학과)

#2일차

휘황찬란히 눈부시는 가을
너는 오색빛깔 예쁜 옷을 입었구나

지저귀는 새들도 노래하듯 그를 찬양하고
비춰오는 햇살은 저 풀들을 사랑하지

있잖아, 이리도 다정한 너는
어느 한 날 자신없이 풀이 죽은 나에게도
티없이 맑은 하늘 넌지시 보여줄래
어느 한 날 소리없이 울고 있는 이에게도
따스한 바람 한 숨 슬며시 보내줄래

비춰오는 햇살에 저 풀들은 살아나고
그의 아름다움에 저 새들은 노래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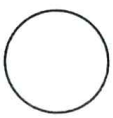
그래, 이리도 따스하던 너는

/ 가을 하늘 보며 누워서 따스한 바람만을 듬뿍 맞이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

13 6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가을 하늘 보며 맞는 바람은 정말 최고죠!!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옛날에는 가을에 따뜻한 감정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가을만이 주는 그 따스한 햇살은 하루의 기분을 변화 시키고 발걸음조차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주 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감정이 다시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가을은 알록달록 색감이 유독 도드러지는 계절이라 더 매력적인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 하늘 보며 따스한 바람 맞이하고 싶다는 말이 공감이 가네요:)
가양선(경영학과) 가을 하늘은 유독 더 예쁜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가을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시인 듯해요!! 가을은 정말 매력적인 계절인 것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가을의 따스함이 묻어나는 글 잘 읽었어요~



2023/10/31
tuesday, pm 5:59 | 14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2일차
[가을] 가을이 오면 나무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말이 있다. 초록색이던 잎이 노란색과 빨간색 등등으로 바뀌는 계절이라 그런 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나의

마음가짐도 바뀌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곧 11월이라 그런지 2023년의 나를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도 구했다.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며 개강을 하고 중간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괜찮게 봤다는 점은 정말 뿌듯하다. 성장한 내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어지고 게을러서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 걸 안다. 특히 이번 가을은 도전하고 싶은 활동들이 많은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 가득이다. 하지만 가을의 낙엽처럼, 분위기처럼 나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을의 변화하는 분위기에 따라 나도 더욱 좋은 나로 변하고 싶다. 가을의 산들거리는 낙엽들처럼 살랑이는 편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10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소정 님의 가을은 참 부지런한 것 같아 그 노력에 박수를 쳐 드리고 싶어요! 자신에게 뿌듯한 가을의 계절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걸 해내는 소정 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다양한 도전을 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가을의 변화처럼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글이었어요. 앞으로 하는 도전들도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변화하는 분위기에 따라 더 나은 나 자신으로 변하고 싶어요!! 소정님의 모든 하루가 잔잔하고 산들산들하게 흘러가길 바랄게요
고다인(중국학과) 가을과 함께 더 좋은 나로 변화하는 것 너무 좋네요~~
정우현(인문학부) 자기성찰 좋습니다

2023/10/31

tuesday, pm 7:00 | 15읽음

라혜민(사회학과)

#2일차 #가을

가을에게
안녕 가을! 너한테 편지는 처음 쓰네. 가을이 오니까 네가 자주 생각났어. 잘 지내고 있지? 거긴 이제 초여름이려나? 가끔 인스타 스토리 올라오는 거 보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아ㅎㅎ 앞으로도 자주 소식 전해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2016년이었나.. 친구의 친구로 만나서 이렇게 오래 인연을 이어오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건가 봐~ 작년에 같이 풋살했던 거 아직도 종종 생각해. 그때 네가 같이 뛰니까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던 게 오래오래 가슴에 남더라. 나도 고마워, 가을! 네가 나눠주었던 생각과 작업들, 너의 행보가 나한테는 자극제야. 살다 보면 나 하나 아무리 발버둥 쳐 봐야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주어진 삶을 비관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더라. 너는 나한테 그런 존재야.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이런 내 모습을 기억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버틸 수 있는 거야.
네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갈 거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이던 모습을 기억해. 너는 어딘가에 진득이 소속되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했지만, 나는 우리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지금은 그럴 나이라고 생각해. 네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훌훌 떠나줘서 나는 참 기뻐. 또 나에게도 그럴 가능성을 알려줘서 고맙고. 한국에 들어오거든 연락해. 만나서 못다 한 얘기도 나누고 즐겁게 놀자!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야 해~
오늘은 이만 줄일게. 가을아, 늘 응원하고 애정해. 안녕!

-2023년 10월 31일, 혜민이가 -

10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혜미님에겐 가을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가을에게 편지를 쓰는 컨셉이 정말 독특해서 저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가을에게 저는 무슨 말을 전해주게 될지 궁금해 지네요! 덕분에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편지 형식이 새롭게 다가오고 좋은 것 같아요! 현재와 미래의 혜미님 모두 잘 지내시길 응원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가을에게 편지를 쓰다니! 너무 신선하고 가을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귀엽네요

2023/10/31
tuesday, pm 7:07 | 13읽음
가양선(경영학과)

#2일차 #가을

가을은 다른 계절보다 풍경의 색감이 다양한 계절이다. 등산이 취미이신 아빠와 함께 가을이 되면 동네에 있는 산에 자주 갔다. 떨어진 낙엽 밟는 소리를 재미있어하던 동생의 모습도 생생하다. 그때는 몰랐지만 아빠는 나와 동생에게 더 다양한 풍경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그때가 생생한 걸 보면 그 풍경들은 나의 눈에 담겨있고, 행복했던 기억임이 틀림없다. 21살인 지금 나에게 있어 가을은 행복했던 추억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다. 2023년은 유독 나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봄과 여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회상하고, 무언가를 이뤄낸 타인들을 바라보며 조급해지기도 한다.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공존한다. 그래서인 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글거린다고 생각했던 "가을탄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어느정도 이해할 것 같다. 지금 느끼는 감정과 올해 가을도 늘 그랬듯이 언젠가는 추억이 될 것이라 믿는다. 춥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을 찾아가며 남은 2023년을 지내고 싶다.

11 5

김현지(경영) 양선님의 글처럼 여러 감정이 공존하여 가을 탄다라는 말이 생겨난 듯 합니다. 저는 올해에는 아직 그 감정을 느끼진 못했지만 매년 가을 탄 것 같아요...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봄과 여름에도 색깔이 풍부하지만 뭔가 가을 많이 주는 색감이 있어서 가을에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저도 낙엽 받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감정을 주는 가을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가을의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가을 특유의 색감 때문에 더 매력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남은 2023년도 잘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저도 2023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ㅠㅠ 춥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을 찾아가자는 내용이 큰 공감이 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가을탄다라는 느낌은 정말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을 타고 있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얼른 가을을 즐기려고요!

2023/10/31
tuesday, pm 7:07 | 15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2일차 #가을
가을은 재정비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계절의 변화를 돌이켜보면 봄이면 얼어붙었던 강이 녹아내리고, 요지부동이던 땅에서 하나둘씩 새싹이 자라나길 시작한다. 여름에는 푸릇푸릇 피어나는 잎들의 향연이 이어진다. 가을은 단풍이 지고 떨어질 잎들은 떨어지고, 굳게 자리 잡은 나뭇가지들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세찬 바람이 불고 억센 날씨에서도 그간 쌓아놓은 것들로 겨울을 맞이한다.
나에게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봄은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적응의 시간, 여름은 활개를 펴고 도전과 경험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올해가 점점 끝나갈 무렵인 가을은 올해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는 기간인 것 같다.

12 11

이다혜(사회복지학과) 맞는 것 같아요.
가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내년을 기다리는 설레는 계절인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감사합니다. 내년 계획도 슬슬 세워봐야겠어요:)
김현지(경영) 가을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의 계절인 듯 합니다. 저는 벌써 내년도 다이어리를 구입했어요ㅎㅎ 채연님의 내년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저도 내년을 슬슬 준비해봐야겠어요:) 가을은 계획의 계절이란 말이 공감이 가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에게 가을은 내년을 준비하기 보단 한해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년의 반 이상을 보내며 그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 왔는지에 대해 성찰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덕분에 제가 생각하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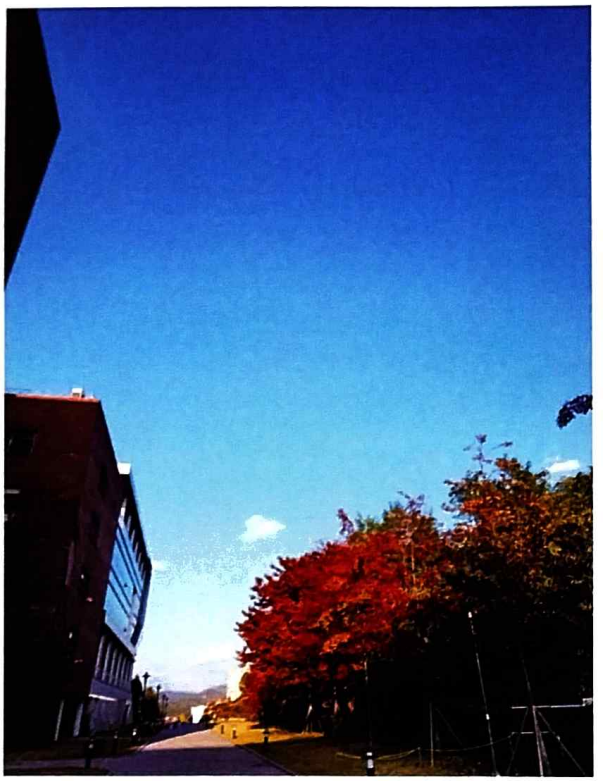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도 한 해를 잘 되돌아봐야겠어요.
가양선(경영학과) 가을은 재정비의 시간이라는 말에 공감해요 글 잘 봤습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감사합니다! 가을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되돌아봐야겠네요~~글 잘봤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가을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내년을 기약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살짝 우울해보이셔서 마음이 안타깝네용

2023/10/31
tuesday, pm 7:15 | 18읽음
김현지(경영)

#2일차 #가을
가을은 선선한 날씨의 계절이지만
따듯함이 느껴진다.
여름과 다른 날씨에 포근한 외투를 입고 길을 나서면
초록잎이 빨간 단풍이 되어 우리를 반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에 따듯한 라떼를 마시고
생일이 가을에 있어서 지인들의 따듯한 안부를 받는다.

"가을 탄다"라는 말이 있듯이
계절 특유의 분위기가 좋다.
쓸쓸하기도 정적이기도 하지만
가을만이 주는 서정적인 분위기가 좋다.
곧장 겨울이 오기 전에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기에
여름과 겨울 사이의 가을이 사계절 중 가장 좋다.



12 1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을은 서정적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인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묘하게 가을만이 주는 그 느낌들이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 매력적인 계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님이 찍으신 사진들을 보니 정말 가을로 온세상이 물든 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온 세상이 물든다는 표현이 넘 예뻐요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하늘이 정말 시원해 보여요. 가을 특유의 선선함과 분위기를 좋아해서 공감이 많이 가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탁 트인 하늘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ㅎㅎ 채연님도 가을을 좋아하시는 군요! :)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가을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해요 글 잘 봤습니다 !
김현지(경영) 가양선(경영학과) 감사합니다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가을만이 줄 수 있는 서정적인 분위기 참 좋죠~~
김현지(경영) 고다인(중국학과) 금방 지나가기에 더 애틋하고 아쉬운 것 같아요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가을을 가장 좋아해요~ 가을이니까, 가을도 타고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춘천의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가을은 체고죠
김현지(경영) 정우현(인문학부)

2023/10/31
tuesday, pm 7:21 | 18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2일차 #가을

여러분 혹시 악동뮤지션이 부르는 '시간과 낙엽'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요즘 집 밖으로 나갈때 듣는 노래랍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낙엽이 정말 많이 떨어져있는데요.
그 낙엽에서 들리는 바스락 소리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걸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하루가 정말 잘 풀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할 사람들을 보낸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가을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 밤산책을 자주 가곤 하는데, 가끔은
과제는 또 언제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녁하늘을
바라볼때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코에는 나무 냄새,
발에는 바스락 밟히는 낙엽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위로를 해주곤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또 산책을
가고 싶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고
산책하러 나가야겠어요.

여러분도 이 노래 한번씩 들어보시고,
답답할땐 산책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3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혜 님의 글처럼 가을은 쉽게 생각에 잠기게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매력을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아주 푹 빠져 살아요. 그래서인지 가을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계절이 되었네요! 다혜 님의 글 덕분에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들으며 가을을 만끽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가을은 바깥 풍경도 좋고 날씨도 선선해서 산책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좋은 노래와 글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내일 집 밖에 나가면 시간과 낙엽을 들어야겠어요 ! 노래추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시간과 낙엽' 정말 자주 듣고 있어요~~ 이 노래는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노래라 생각이 들고, 가을의 냄새가 가득 나는 것 같아요
정우현(인문학부) 산책을 하려고 노력중이에요 ㅋㅋㅋㅋ

2023/10/31
tuesday, pm 7:25 | 17읽음
정우현(인문학부)

#2일차

가을 하면 씨잼이 커버한 last night on earth 노래가 떠오른다. 이 노래를 들으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고 헤어지고 버스를 타는 길에 이 노래만 들었다. 집에 가서 연락하면서도 듣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이 노래를 들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참 몽글몽글해지고 기분이 이상했다. 간지러운 느낌이 들고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만났던 전여친에게 느꼈던 몽글몽글한 감정이 기억난다. 헤어지고 나서도 이 음악을 들었고 힘들어하면서도 이 음악을 들었다.

다시 가을이 왔지만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항상 연민에 젖어있고 슬픔에 잠식 됐었던 내가 많이 바뀌었나보다. 가을은 가끔 좋았지만 어쩔 땐 쓸쓸했고 어떤 날엔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항상 쌀쌀해서 마음이 비워져있었다.

이번 가을은 지난 가을과는 다르게 가득 채워져 있다. 가을 만큼은 계속 좋은 감정만 남기를, 이 마음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https://youtu.be/JlAvM6uUEfc?si=M1SUgmiDcJq_gQxB

씨잼 미공개 커버곡 'Last night on earth'
www.youtube.com

9 10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몽글몽글 한 느낌이 드는 듯한 감정도 가을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가끔은 혼자서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계절은 가을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우현 님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가을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 됐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합니다 가을은 소중하죠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노래에 담긴 감정이 글로써 생생하게 느껴지는 글인 것 같아요. 이번 가을은 좋은 감정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채연님도 행복하셔요!

김서희(심리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 :)

정우현(인문학부) 김서희(심리학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가을의 좋은 감정만 남기를 바랍니다 !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가양선(경영학과) ㅎㅎ 영광이에요

박지원(사회학과) 왕 저는 last night on earth의 원곡 가수 그린데이를 정말 좋아해요!! 씨잼이 커버한 것도 좋네요~~ 이 노래는 정말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설레면서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에요

정우현(인문학부) 박지원(사회학과) 동의합니다!

2023/10/31
tuesday, pm 7:27 | 17읽음
홍은기(영문학과)

#2일차
영화 <라라랜드>에서 여자 주인공 미아는 남자 주인공 셉과 가을에 이별해요. 이 때 가을은 Autumn이 아니라 Fall이라고 나오죠. 영화 속 미아는 연인과 이별하하지만 그 동시에 배우라는 자신의 꿈을 이뤄요. 헤어짐은 또다른 시작이라는 메세지가 담겨있다며 가을을 사용하는 그 방식을 좋아해요.

12 6

조석환(심리학과) 과실 속 씨앗이 나무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싹을 틔우는것은 불가능하죠. 사랑과 꿈 둘다 잡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져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미아는 셉에과 해어져 꿈을 이루는 것이 fall이 가진 이중적의미를 내포하려고 autumn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라라랜드에 나오는 가을의 숨겨진 의미가 이런 뜻이 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가끔은 상상으로 남아 이루어지길 바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개를 다 잡지 못 하는 것이 가을이기에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영화 속 가을의 표현이 더 마음에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예전에 봤던 라라랜드를 다시 떠올리게 되네요. 가을이란 계절이 주는 숨겨진 메세지를 다시끔 생각하게 하는 글이어서 유심히 보게 돼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라라랜드 본 적이 없는데 보고 싶어지는 글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라라랜드를 보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가을을 사용해서 헤어짐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네요

정우현(인문학부) 헤어짐은 곧 시작이란 말 동의합니다

2023/10/31
tuesday, pm 7:41 | 18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2일차 #가을
온도와 색감이 달라지고, 수많은 추억과 낭만이 가득했던 계절. 나는 사계절 중 가을이 가장 좋다. 무더위가 가시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좋다. 높아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다보면 보이는 형형색색 단풍이 좋다. 두꺼워진 옷과 이어폰 사이로 흘러나오는 음악이 좋다. 알 수 없는 감성에 빠지게 만드는 공기의 냄새가 좋다. 나는 가을이 정말 좋았다.
어느새부턴가 시원한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 되어 옆구리를 쑤신다. 한 해가 벌써 다 가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더이상 나이를 먹기 싫어서일까, 벌써 찾아온 가을이 미워진다. 외로워서일까, 추운 겨울을 알리는 가을이 오지 않았으면 했다. 나는 가을이 정말 싫었다.

12 11

신유정 (심리학과) 한 해가 얼마남지 않아서 가을이 아쉽고 쓸쓸한 것 같기도 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신유정 (심리학과) 시간이 참 빠르죠
조석환(심리학과) 좋아하기에 싫어하는 이중적인 감정에 공감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예전에는 가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 년의 반을 지낸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말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을만이 주는 그 기분이 좋아서 점차 좋아지고 있네요. 영찬 님의 글을 읽으면서 가을의 감정을 느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가을이 오면 한 해가 벌써 다 가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공감이 가네요. 이번 가을도 유독 짧고 빨리 추워져서 너무 아쉬워요
김서희(심리학과) 가을이 오면 정말로 한 해가 끝나가는 느낌이 들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라혜민(사회학과) 싫어했던 가을을 어떤 계기로 좋아하게 되셨나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라혜민(사회학과) 좋아했던 계절인데 나이가 들수록 싫어진다는 글이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가을은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정우현(인문학부) 감성 있는 글 굿이에용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당

2023/10/31
tuesday, pm 7:57 | 18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2일차 #가을

푸릇푸릇했던 여름을 만끽하다 나무가 서서히 붉어질 때쯤 '가을'이 왔음을 느낀다. 여름의 선명하던 빛깔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밝은 나날들을 보내던 여름의 기분은 점차 사라지고 발그랗게 변해가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오묘한 감정에 빠진다. 마치 넘치는 관객에 시끌벅적 했던 콘서트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난 뒤 한 순간에 몰려오는 고요함처럼 가을은 나에게 그런 기분을 가져다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뭇잎은 가을의 색깔을 드러내고 내 속의 공허함도 점차 커져만 간다. 이건 어떤 기분일까.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가을 탄다는 것인가 보다.
가을을 탄다는 건 나에겐 심적으로 침체되는 불안의 이미지가 강하기에 그런 기분을 느끼는 나 자신을 늘 부정해왔다. 조금이라도 기분의 변화가 있음을 느낄 때면 억지로라도 서랍 속에 고이 숨겨 놓았던 여름을 꺼내들었다. 그러다보니 나의 가을은 여름과 다름이 없었다. 가을이 없는 일 년을 살 수만

있다면 외로움 따위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오였다. 지나가는 길마다
보이는 노랗고 붉은 색깔들은 쉴 틈 없이
나에게 가을을 보여주곤 했다. 그리곤 보이는
그대로를 인정하라고 속삭였다. 결국 나는
눈과 귀를 모두 막은 체 가을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가을을
부정한 나의 모습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모든 감각의 문을 닫고 살다보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눈을 지그시 감고 가을을 온몸으로
느끼던 과거를 떠올려 본다. 그때는 가을에
오는 공허함의 감정조차 나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부정의 시선보단 또 다른 나를
써내려가는 하나의 계절로 느꼈다. 그렇다,
가을은 나에게 그런 계절이었다. 외로움조차
하나의 묵혀둔 감정으로서 나라는 계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존재였다. 이제라도 나에게
사라져있던 가을의 색깔을 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을 몸소 보여주려고 한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알록달록한 나뭇잎이
떨어진 길을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 마신다.
그렇게 난 가을을 되찾게 되었다.

14 7

라혜민(사회학과) 가을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하영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잘 읽었습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가을은 공허함도 느껴지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나를 더 성장시켜주는 다리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가 공감이 가네요. 이번 가을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가을 타는 걸 즐겨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저도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곤 했는데 그것조차 제 일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받아들이다 보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니까요! 글을 통해 하영님의 내면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고다인(중국학과) 트렌치코트를 입고 가을을 즐기는 모습이 떠오르네요~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하영님께서 가을을 되찾게 되었다니 너무 멋있네요! 가을나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 부럽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힘들어도 슬퍼도 나는 안울어 하는 하영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파이팅이에요

2023/10/31
tuesday, pm 8:55 | 15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2일차 #가을

제주도에서 맞은 가을은 핑크빛으로 물든
핑크뮬리와
높은 가을하늘로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다.

가을만큼 좋은 계절도 없다.
뜨거운 햇빛은 따듯한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더웠던 바람은 온기가득한 바람으로

우리를 감싼다.

옷도 다채롭게 입을 수 있고
감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 좋다.

10 7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제주도와 가을 두 글자만 봐도 벌써 설레요>< 이번에 단풍 구경 한 번 못 갔는데 핑크뮬리 보면서 가을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짧은 글에서 가을 특유의 포근함이 느껴져서 좋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핑크뮬리 너무 예뻐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호(식품영양학과) 사진 너무 예뻐요! 겨울도 좋은 계절이 될꺼에요!
김서희(심리학과) 핑크뮬리 너무 예뻐요 ~~!
가양선(경영학과)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 같아요 사진이 너무 예뻐요 !
박지원(사회학과) 핑크뮬리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상민님의 사진으로 가을을 느끼기 딱인 것 같아요~~~
정우현(인문학부) 가을은 풍부함의 계절인거 같아오 ㅎㅎ

2023/10/31
tuesday, pm 9:16 | 19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2일차

-바사삭, 아이의 발밑의 낙엽이 쪼개졌다. 처음 느껴보는 낯선 소리가 싫지는 않은지 아이는 노오란 웃음을 보였다. 몇 가닥 없는 카락을 올려 묶은 머리에,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작은 눈동자. 살짝 그을린 아이의 얼굴 속에는 어떤 근심도 없이 그저 맑았다. 그때, 아이는 작아지고 작아져 작은 유리병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아이들과의 추억이 담긴 이야기가 제일 좋아-"

나뭇잎을 엮어 만든 옷에, 머리에 코스모스를 꽂은 작은 요정이 중얼거렸다. 이들은 가을의 요정으로 가을의 추억을 먹고 산다. 날개가 없어도 바람을 타고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삶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밤에 그들의 꿈에 찾아가 가을의 추억을 대가로 행복을 전해준다. 요정의 이름 플로, 얼마 전 남편과 이혼 후 술에 의지해 생을 이어가는 여자를 만났다. 술냄 새가 코끝을 괴롭혀 다가가기 싫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연신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리기에 궁금증이 생겨 플로는 다가갔다.
여자는 제법 젊었다. 비록 비루한 몸에 모든 것이 헝클어진 모습을 하였지만, 그녀가 따뜻한 시절을 보냈음을 플로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슬픔에 취한 걸까 연신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그녀는 이내 잠이 들었다. 죽은 듯 세상이 적막해진 이후 플로는 그녀의 꿈으로 들어갔다.
가을이 만연한 풍경 속에서 큰 단풍나무 옆에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꿈은 추억의 매개이자 무의식을 반영한다. 가을 요정인 플로는 그녀의 꿈이 맛있어 보였다. 그래서 웅크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너의 추억을 주면 행복을 전해줄게, 기억이 흐려져도 괜찮다면 나에게 추억을 주지 않을래"

자신만의 공간에 존재하는 낯선 이가 어색한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플로를 바라보았다. 비장한 얼굴로 자신의 용건을 전하는 플로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여자는 작은 빛이라도 의지하고 싶었기에 플로를 한 번 쳐다보곤 입을 벙긋거렸다.

"그럼 우리는 거래한거다?"

플로는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의 주변을 바람을 타고 돌더니 작은 유리병을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유리병은 밝게 빛나더니 그 안에 작은 세상이 담겼다.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걷다가 울긋불긋 물든 나뭇잎이 신기한지 손으로 잡아보기도 했다. 보도 옆 사이사이에 심어둔 나무들이 펼쳐진 길을 걷는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두어 살쯤 지났는지 이제 막 세상을 누비는 신난 발걸음이 귀여운 아이였다. 아이의 양손을 잡고 거리를 누비다 마주친 두 시선은 따스함으로 넘쳤다. 세상 가장 행복했던, 가을이자 그녀와 아이의 마지막 추억이었다. 그 이후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플로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적막한 그녀의 세상을 통해 직감적으로 아이가 그녀의 곁에 없음을 알았다.
플로는 잠깐 엿본 그녀의 추억에서 짙은 그리움을 느꼈다. 이 기억을 가져가면 그녀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작은 요정은 열심히 고민하다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꿈에서 빠져나왔다. 다시금 추억을 찾으러 가을 바람에 몸을 싣고 유유자적 플로는 사라졌다.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그녀의 이마를 간지럽힌다. 사실 햇빛 때문인지 플로가 남긴 작은 입맞춤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 긴 잠에서 깨어난듯 그녀는 기지개를 켜곤 벽에 걸린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말없이 웃고있었다. 하루 아침에 그녀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꿈에서 오랜만에 느낀 아이의 흔적은 그녀에게 다시금 세상을 누릴 용기를 주었다. 그렇게 가을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플로는 오늘도 세상을 떠다닌다. 언젠가 힘든 우리의 꿈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가을의 요정에게. 이 이야기를 바친다.
-
가을 하면, 낭만 있고 추억이 많기에 그런 추억이 들어간 짧은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담아 쓰다 보니 길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얼마 안 남은 가을의 끝자락에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1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누군가 제게 행복과 추억을 거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지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글 처럼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고다인(중국학과)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펼쳐지네요~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가을은 정말 낭만의 계절인 것 같아요!! 미혜님도 남은 가을에서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우현(인문학부) 개인적으로는 글을 전개할때 약간의 논리를 배제하고 조금 더 감정에 몰입할 수 있게 쓰면 좋을거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소설의 매력을 알 수 있었어용

2023/10/31
tuesday, pm 9:48 | 14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2일차 #가을

https://youtu.be/opoDZRVfJXM?si=TfeT_igrJiJiLD0D

[Playlist] 가을의 분위기를 듬뿍 담은 노래 모음 | 가을 노래 모음

사람들은 '가을'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고민하다가

가장 많은 대중들의 생각에 공감하는것은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로서의 글[文]이 형상화 되어 나타난[化] 것을 두고 우리는 문화라 표현합니다. 예술이 될수있고 사람들의 분위기나 언어가 될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처럼 노래가 될수도 있구요.

이처럼 글이라는 것은 많은 힘을 담고있고

모든것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을'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듣고 여러가지 상상을 통해 각자 다른 글들을 써내려가는 것처럼요.

노래 가사를 듣다보면 가을은 참 연애와 관련이 많은것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니

긴 성장의 시간과 인내 끝에 열매를 맺어 새로운 인연을 탄생시키는 가을의 계절처럼 멋지게 성장한 두남녀가 만나 서로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그려가는 것이 자연과 꼭 닮은 연애의 아름다운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을 노래 감상하시며 힐링해보시는건 어떨까요?

10 7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노래 너무 좋네요
김서희(심리학과) 이 노래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에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가을과 관련된 노래 중에 좋은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
고다인(중국학과) 몰랐던 노래인데 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그 플레이리스트 들었어요~~!! 가을이 되면 듣고 싶은 노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추천해주신 음악 들으며 가을을 즐겨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노래는 힘을 주는 중요한 장치이죠!

2023/10/31
tuesday, pm 10:04 | 17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2일차 #가을

춘천에서의 가을은 올해로 두 번째이다. 이번 여름 나기가 어려워 하루빨리 가을이 오길 손꼽아 기다렸지만 늦여름이 기승을 부리는 까닭에 이제서야 가을을 온전히 느끼는 중이다.
아주 뜨거워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도 어려웠던 이번 여름을 지나 맞이한 가을은 소중했다.

따뜻하고 축축한 바람은 어느샌가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고, 구멍이 뚫린 듯 비만 오던 하늘은 공활하고 쾌청한 하늘이 되었고, 학교의 나무들이 하나둘 무르익어 가고, 은행이 떨어지고, 봉의산도 가을 옷으로 바꿔 입는다.

봄여름과 사뭇 다른 풍경을 맞이하는 춘천의 가을은 쓸쓸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풍요로움도 느껴진다. 다가온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자. 새로운 학기, 새로운 계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을을 맞이하자.

12 5

김서희(심리학과) 저도 춘천에서 가을이 두 번째에요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김현지(경영) 가을 옷으로 바꿔 입는다는 문장이 넘 예뻐요 :)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학교에서도 가을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더라고요~~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춘천에서 두 번째 가을을 맞고 있어요!! 춘천의 가을은 참 이쁜 것 같아요
정우현(인문학부) 설레는 마음 잘 간직하셔요!!

2023/10/31
tuesday, pm 10:57 | 14읽음
배성준(경영학과)

#2일차
"여름은 끝났어". 구름이 눈살을 찌푸리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다. 땅이 톡톡 젖기 시작하더니 흥건해지기 시작했다. "쏴아-. 쏴아-." 여름을 잃은 슬픔이 가시지를 않는지

구름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모른다. 온 세상이
구름의 눈물로 잠기고 나서야 구름은
무안한지 눈물을 슥슥 닦는다. 온종일
내리쬐던 햇빛도 구름의 차디찬 눈물에
시들해진다. 나무들은 푸른 잎을 자랑하다가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됐다는 듯이
나뭇잎들을 떨구기 시작한다. 모두가
숙연해지는 분위기에 얼굴을 붉힌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 숨어있던 다람쥐, 곰, 여우들이
한적한 숲을 가득 채운다. 적막하고도 고요한
산골짜기에 흐르는 계곡의 메아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여름동안 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만
피곤하단다. 해가 뜬지 얼마 되지 않아 해는
조퇴를 한다. 저 멀리 지평선에 타오르는 붉은
꽃이 온 세상을 노려보더니 어둠이 그 자리를
삼킨다. 별들이 총총걸음으로 밤하늘에 뜬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제야 가을이
왔구나"라고 새삼 느낀다.

11 8

가양선(경영학과) 가을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글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
고다인(중국학과) 가을 이미지가 떠오르는 글 잘 읽고가요~
라혜민(사회학과) 가을의 구성원을 의인화한 글이 인상깊어요. 가을을 한가득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가을에 지는 노을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별들이 총총걸음으로 밤하늘에 뜬다는 표현이 너무 인상 깊어요~ 뜨거운 여름밤을 가고 시원한 계절만 남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가을을 의인화한 표현이 생동감 있네요. '여름동안 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표현이 좋네요 ㅎㅎ
노경민(빅데이터) 가을이란 단어로 이런 스토리를 쓰시다니 가을이란 계절에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 같네요!
정우현(인문학부) 표현이 풍부하셔서 감명깊게 봤어요~~

2023/10/31

tuesday, pm 11:06 | 15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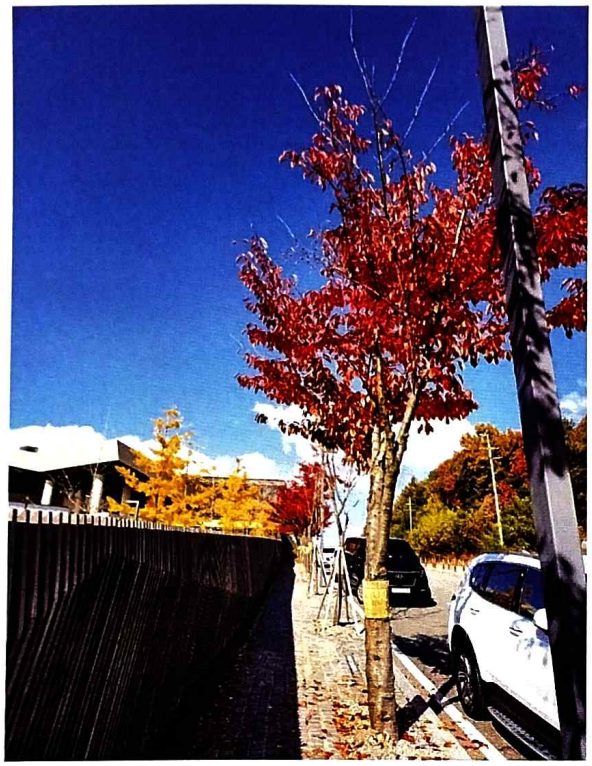
고다인(중국학과)

#2일차 #가을

오늘의 키워드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은
단풍,낙엽,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환절기 등
문득 작년 가을인 10월31일 딱 1년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져서 핸드폰
갤러리를 살피기 시작했다.

아하 나는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위해 사진관에 들렸었다.당시
태국으로 친구와 여행을 떠나려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 새 여권사진이 필요했다.유난히
사진관의 큰 카메라와 조명 아래서 표정이
굳어버리곤 하는 나는 예쁜 여권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에 한참을 검색해 한 사진관을
예약했다.고민끝에 결정한 한 사진관으로
향했고 나말고도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보정하느라
바쁜 직원분들과 조금은 긴장한듯 미소를
지어보이는 사람들이 보였다.기다리고 내
차례가 되었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 어느새
내 손엔 여권사진이 들려있었다.생각보다
잘나온 여권사진에 기분이 좋아 신나는
마음으로 바로 여권발급 신청을 진행했다.

오늘의 키워드 덕에 잊고 있었던 작년
이맘때의 기억이 살아났고 괜히 여권을 한 번
더 펼쳐보았다.
여러분은 작년의 오늘 어떤 일을
하고계셨나요?



12 13

라혜민(사회학과) 사진이 맑고 색채가 진하네요. 가을의 느낌과 시간의 흐름이 잘 전해지는 글인 것 같아요. 편안한 밤 되세요 :)

고다인(중국학과) 라혜민(사회학과) 감사합니다 혜민님도 편안한 가을 밤 되세요~~

김현지(경영) 다인님의 글을 읽으니 당시의 생생한 감정선이 잘 느껴졌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고다인(중국학과) 김현지(경영) 감사해요~편안한 밤되세요~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ㅎㅎ 저는 작년 수능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가을은 참 쓸쓸했는데 이번 가을은 풍만한 기분이 드네요.

고다인(중국학과)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작년보다 훨씬 기분 좋은 가을보내세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작년 이맘때쯤 뭐했는지 궁금해지네요... 기록 좀 해둘걸ㅠ

고다인(중국학과)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이번 가을은 많은 추억과 기록 남기시길 바라요~~

박지원(사회학과) 작년의 오늘도 지금과 똑같이 가을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 너무 이쁘네요

고다인(중국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작년도 지금도 가을을 즐기고 계셨군요~~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여행가고 싶어지네요! 역시 여행은 여행 자체로도 좋지만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운거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노경민(빅데이터) 맞아요 이런저런 계획을 짜는것도 여행의 매력이죠~~

정우현(인문학부) 귀여워요

2023/10/31
tuesday, pm 11:30 | 16읽음
김준호 (콘텐츠IT)

#2일차
가을.
뜨겁게 불타오르는 여름을 지나고 조금은 차분해지고 감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절, 가을이 왔다. 생각해보면 유난히 가을이 감성과 연결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흔히들 말하는 "가을탄다."는 표현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긴 표현이 아닐까 싶다. 영어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으로 "Autumn blues" 또는 "Fall blues"이 있는걸 보면 어느 나라든 다들 느끼는 감성인 것 같다.

가을을 뜻하는 단어인 Autumn과 Fall 중에서도 Fall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라는 의미에서 오게되었는데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인 Fall in love에서도 Fall이 쓰이는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러한 부분을 노린(?) 낭만있는 표현일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뿐만이 아닌 모두가 감성적인 가을, 오늘 한번 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간단히 연락이라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감성에 들으면 좋을 법한 노래를 추천하면서 끝내려 한다.

Fall in love alone -Stacey Ryan

틱톡그노래 | 답답한 내 짝사랑 소꿉친구에게: Stacey Ryan -Fall

10 5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와 이노래 저는 여름에 많이 들었는데 가을에도 잘 어울리네요!
고다인(중국학과) Fall blues라는 단어가 있군요~~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왕 들어보지 못 한 노랜데,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요즘 날씨의 딱인 감성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요새 듣는 음악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의미를 알게 되어서 더 감미로워요!
정우현(인문학부) 글을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군요 대단해요!배우고 갑니당

2023/10/31
tuesday, pm 11:31 | 13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2일차 #가을
가을은 모든 계절은 담고 있는 계절 같습니다. 가을의 시작과 끝은 여름과 겨울을 닮았고 따뜻한 오후에는 봄 같기도 합니다.
가을은 날씨처럼 사람의 마음도 변덕스러워지는 계절 같습니다. 하루가 고된 어느 날에는 떨어지는 낙엽에 마음이 시큰해지고 기분 좋은 어느 날에는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간질간질해집니다.
가을은 변화의 계절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일상도 인간 관계도 처음과 꽤 많은 것이 바뀌어있습니다. 후회되기도 후련하기도 한 일들을 겪으며 나도 성장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며 왜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쌀쌀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있는 사계절이 합쳐진 것만 같은 날씨가 좋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바뀌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수많은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정리되고 성장한 저의 모습이 좋아 가을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이 지나가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7 3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봄여름겨울을 다 느끼는 요즘이예요~~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도 가을을 정말 좋아하는데,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 기분이라 너무 아쉬워요 ㅠㅠ 가을이 다 가기 전, 가을을 즐겨야겠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줍은 소녀가 쓴듯한 글 같았어요 여리고 소중한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0/31
tuesday, pm 11:45 | 12읽음
노경민(빅데이터)

#2일차
#가을
가을은 여름이 점차 물러가고 연말의 끝이 다가온다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면 날씨는 서서히 선선해지며 나뭇잎은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으로 물들어 가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가을의 물든 나뭇잎과 고요한 분위기는 나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미뤄뒀던 목표들을 추진할 용기를 심어줍니다. 봄, 여름 동안의 활동과 노력의 성과를 거둬들이며 내 마음이나 주변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계절입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내게 특별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지금까지의 일상에서는 수많은
과제와 업무에 허덕이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다가오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1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는
사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생각은 저에게 들뜨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 이제 1달 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제게 에너지를 주며, 지금까지 힘들게
해온 모든 노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가을은 연말을 앞두고 나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동경을 일깨워줍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든, 가을은 그 길을 더욱
확고하게 걷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7 4

박지원(사회학과) 경민님의 가을은 열정이 느껴지네요!! 가을의 색다른 해석인 듯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경민(빅데이터) 박지원(사회학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 화이팅입니다!!

정우현(인문학부) 논리적인 분 같아요 수학을 잘하실거 같아 부럽습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정우현(인문학부) 논리적인 글이라니 감사합니다!! 수학은,,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 ) !! 저는 우현님 같은 표현력있는 문학적인 글도 좋아합니다!

2023/10/31

tuesday, pm 11:59 | 16읽음

정다운(미디어스쿨)

#2일차
#가을
재작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마침 코로나에 걸려 2주동안 집에서
격리를 당했었다. 2주동안 정말 집밖으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방안에만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했었는지 창밖을
바라보는 게 가장 재밌었다. 저 멀리 가로변의
나무들이 모두 알록달록한 색깔로 물들어
있었고, 짙은 초록빛의 산들도 어느새 붉은
색이 되어 있는 걸 자세히 보게 됐다.
평소에는 뭐가 그리 바빴는지 맨날 지나쳐온
길에 단풍이 들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격리로 인해 집밖으로 못나가는
상황이 되고서야 맨날 지나치던 그 길의
단풍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때 난 2주가
지날동안 그 단풍이 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2주가 지나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면
맨날 걷던 그 길의 단풍을 꼭 눈에
담을거라고, 아무리 바빠도 앞으로는 단풍이
지는 거리를 느낄 만큼의 여유를 가지며
살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깨달았어도 지금의 난
여전히 단풍이 지는 아름다운 가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이 계절을 보내고 있었다.
왜 우리는 평소에는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고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느낄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님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상을, 당연하지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있는 것 같다. 잠시 멈추고 거리의
나무들을, 파란 하늘을, 변해가는 계절을
둘러볼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살자.
글을 쓰며 잠시 재작년 그때처럼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봤다. 시간이 이미 많이
흐른건지 단풍이 벌써 많이 떨어져서 겨울이
올것만 같은 모습이다.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단풍이 가을을 즐기기에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는것만 같아 다시한번 다짐했다.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단풍구경 가서 좋은 추억 하나 남기고
와야겠다.

9 3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너무 당연한것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어요~~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한 번은 변해가는 계절을 둘러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을이 지나가고 곧 겨울이 다가오네요, 겨울에도 곧 새길 추억들이 기대가 되네요
정우현(인문학부) 여유는 중요한거같아요

2023/11/01
wednesday, am 8:28 | 34읽음
김양선

#3일차 키워드 : 세모
오늘은 도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세모모양으로 된 사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삼각김밥, 고깔모양 등이 떠오르는군요.
세상에 세모 모양으로 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리해 봐도 좋고, 세모 모양으로 된
물건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떠올려도 됩니다.
세모 모양의 마음이란 게 있을까, 노래는 혹
없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17 0

2023/11/01
wednesday, am 9:44 | 20읽음
김서희(심리학과)

#3일차
나는 세모를 생각하면 피자조각이 떠오른다.
우리 동네에는 피자스쿨이라는 피자집이
유명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이랑 피자를
자주 먹었던 기억이난다. 가족들이랑도 자주
먹었는데 그때 우리집 강아지가 피자를 먹고
싶어 가엽게 쳐다보던 그 표정도 생각난다..
나는 특히 까르보나라 피자에
갈릭디핑소스를 찍어 먹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곧 본가를 가는데 가서 가족들과 피자를
먹어야겠다!

11 5

정우현(인문학부) 전 고구마 피자가 맛있더라고요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피자스쿨 좋아해요 !
노경민(빅데이터) 저는 고구마피자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갈릭디핑소스 최고죠!!
조석환(심리학과) 최고 명문대 피자스쿨
박지원(사회학과) 헉 저도 피자스쿨 정말
좋아해요!! 갈릭디핑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ㅠㅠ~~~~

2023/11/01
wednesday, am 10:20 | 19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3일차 #세모
'세모' 를 보면 삼각김밥이 떠오른다. 지금은
자주 먹지않지만 어렸을 때 나는 삼각김밥을
아주 좋아했다.
삼각김밥을 처음 먹은 날은 초등학교 저학년
병원에 갔다가 지하 편의점에서
참치마요삼각김밥을 오렌지 주스 와 함께
먹은 일이다. 그 당시 나는 편의점가는일이
아주 드물어서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신기해
했는데 거기서 먹어본 삼각김밥은 아주
맛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편의점에 가면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고르곤
했다. 고소하고 맛있고, 금방 먹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삼각김밥이다.
삼각김밥은 지금도 여전히 맛있다. 그러나
어릴 때 먹던 것 만큼은 맛이 덜한 것 같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때보다 음식이 더

다양해졌고 그보다 더 맛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생겼다. 그렇지만 어쩌다 먹는
삼각김밥을 좋아하면서 먹던 그 때가
그립기도 하다. 먹으면서 하던 생각은
'맛있다'에서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며 '이거
먹고 빨리 가야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로 바뀌어서 걱정하며 먹는 맛이 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13 7

정우현(인문학부) 어른이 되어가고 있으시군요!
노경민(빅데이터) 삼각김밥이 어찌 보면 '처음' 키워드랑도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이네요! 이번 글에선 부지런한 생활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삼각김밥을 데워먹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노경민(빅데이터)제가 '처음' 경험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ㅎㅎ 저도 삼각김밥 데워먹어용
조석환(심리학과) 저도 어렸을때 삼각김밥에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처음 먹은 그 날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 먹은 삼각김밥이 참치마요 였는데 우연의 일치라는게 신기하네요
김서희(심리학과) 저도 어렸을 때 삼각김밥 정말 좋아했어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예전에는 정말 맛있어서 삼각김밥을 자주 먹곤 했는데, 요즘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먹는 듯해요ㅠㅠ 맛을 음미할 여유도 없고ㅠㅠ
박혜윤(사회학과) 삼각김밥은 역시 참치마요죠!!!

모임이 쉬워진다!

2023/11/01
wednesday, am 10:36 | 23읽음
정우현(인문학부)

#세모
엄마는 나랑 마트를 갈 때 항상 세모
커피우유를 찾았다. 어느 순간 궁금해서
엄마는 왜 이것만 먹냐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내가 물었다.

맛있고 카페인 때문에 힘이나 이런 말을 했다.
결국 맛있어서 먹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엄격한 엄마는 불량식품도 못 먹게 했는데
커피는 대체 어떤 음식인 거지? 커피를 대체
왜 먹는 거지하며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아직도 아침마다 다른 커피를 먹는다.
커피가 그저 엄마의 맛있는 음료라고
여겼는데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커피는 엄마가 힘들 때마다 힘을
주는 음료구나란 것을 이제는 안다.

나보고는 어른이 되면 먹으라고 했는데 정작
나는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안 와서 먹지
못한다. 엄마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어른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고
책임져야 할 게 많구나란 걸 깨닫는다.

엄마가 커피를 먹는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내가 성숙해진
것 같다. 나도 엄마가 커피를 마시듯 나한테
행복을 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힘을 주는 음식을
다르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본인에게만
행복을 가져다주면 그만인 것 같다.

요즘 느끼는 것이 있다. 최고는 없고
최선뿐이란 것을 말이다. 사람마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나는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살려고 한다. 엄마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커피우유를

사 먹고 지금도 커피를 마시는 엄마처럼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한다.

인생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15 5

노경민(빅데이터) 사람마다 힘을 주는 음식 표현 너무 좋아요!! 저랑 저희 가족을 생각해도 각자 고유한 음식이 떠올라져서 재밌네요!! 상황이 힘들어져도 잠깐 기댈 음식으로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석환(심리학과) 세모 커피우유...어릴때 어머니 따라 목욕탕가서 씻고 나오면 저는 초코우유를 마셨고, 어머니는 세모 커피우유를 드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가양선(경영학과)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이라는 말에 공감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서희(심리학과) 세모 커피 우유 오랜만이에요 !!!!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세모 커피우유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세모 커피우유 한 모금 정도 남겨두고, 얇은 노란색 빨대를 꽂아서 맨날 저를 주곤 했어요

2023/11/01
wednesday, am 10:43 | 23읽음
배성준(경영학과)

#3일차
온 세상이 다 세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나라의 건물은 피라미드가 될 거에요. 자동차도 세모세모. 타이어도 세모세모 "덜그럭! 덜그럭! 쿠당탕!" 타이어가 시끄럽게 발을 굴러요. 사람들도 세모가 되었네요. 삐죽삐죽한 머릿결과 뾰족한 얼굴, 뾰족한 발끝을 들고 사뿐사뿐 걸어요. 세모난 지우개와 연필을 쓰자니...이거 참 날카롭네요. 전공책을 들고 수업을 갈 때는 세모가방에 책을 넣어 가요. 안 그러면 뾰족한 택의 모서리에 손이 찔릴지도 모르니까요.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필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필기 모양이 이상해요. 세모난 칠판 속에 글자가 이리저리 날라다니고 있어요.

배고프니 식당에 가야겠죠? 삼각김밥에 오니기리에 나쵸에...맛난 것들이 많네요. 배를 든든히 채우고 도서관에 가는 중이랍니다. 몸을 반으로 접어 삼각형 문을 열고 들어가요. 유부초밥처럼 책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책상이 삼각형이라 그런지 3명씩 앉아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아요. 과제를 열심히 하고 도서관을 나오니 해가 지평선 너머에 걸려 작은 세모가 되어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오징어머리구이, 오징어머리조림, 오징어머리볶음밥, 오징어머리카레에요. 세모들을 맛있게 먹어치우고 집에 오니 그만 잠이 와요. 내일의 하루를 위해 발이 삐죽 튀어나오는 세모 침대에 누워요. 그러고는 내일의 세상은 네모가 되길 빌어봐요.

14 4

노경민(빅데이터) 글을 읽어보니 동화를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읽는 동화도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일상에 무수히 많은 세모가 존재한다는 것도 떠올려보게 되네요!! 저번부터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스토리를 잘 짜시는 것 같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세모 세상에서 네모 세상을 바라며 쓴 글이네요ㅎㅎ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온 세상이 세모라니!! 정말 동화 같은 세상 같네요~~ 그 공간 속에서 사는 우리는 세모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세모에게 빠져들고 흡수될 것 같아요
박혜윤(사회학과) 세모 모양의 타이어가 자동차의 아래 부분에서 굴러가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2023/11/01

wednesday, am 10:48 | 22읽음

문정희(법학과)

#3일차
세모를 생각하면 짝사랑이 생각이 난다.
세모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학창시절에 짝사랑할 때 듣던
러블리즈의 '삼각형'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매일 모서리에 콕콕 찔려도
사랑하는 감정이 담긴 노래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보는 것만큼
아픈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좋아했던 애가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볼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삼각형은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관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슬픈 감정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감정은 너무나도 굵어서 그 선을
끊어내기에는 꼭짓점의 힘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아픈 짝사랑을 했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기에
기다림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https://youtube.com/watch?v=lDC6hc0CO9I&si=1wKvFHBDVjkLcM1N

Triangle (삼각형)
www.youtube.com

16 9

신유정 (심리학과) 아픈일을 잊고 기다리면 좋은일이 올 거예요!
노경민(빅데이터) 이 노래를 들을 때 마다 시린 짝사랑이 생각날 것 같네요. 분명 정희 님에게 좋은 분이 올 거란 생각도 들어요!
안소정(언어병리학과) 좋은 글과 함께 좋은 노래도 알아가서 좋는 것 같아요!
가양선(경영학과) 삼각형은 사랑의 감정이 담긴 노래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바랄게요 !
김서희(심리학과) 러블리즈 삼각형노래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오늘 꼭 삼각형 노래 들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오늘 주제 보자마자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좋은 노래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 같아 좋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삼각형은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라는 문구가 인상 깊네요ㅠㅠ 좋아하는 상대와의 관계, 마음들은 정말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삼각형의 뾰족함으로 마음을 나타내는게 기발하고 좋네요. 노래도 잘 듣고가요

2023/11/01
wednesday, am 11:11 | 24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3일차

세모난 마음 이야기는 인디언 부족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세모의 세 모퉁이는 상대적으로 예리하므로 닳아 동그라미 혹은 뭉툭해진다. 이를 마음에 비유하여 거짓말을 할 때마다 세모가 회전한다고 가정하자. 거짓말을 할수록 세모는 양심의 벽에 부딪쳐 마모되어 결국 동그라미가 되고, 더 이상 양심의 벽에 닿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에 무감각해진다.

현대 사회에서 세모는 무척 견고한 구조로써 건축물에 쓰이곤 한다. 시간이 지나면 환경에 따라 변형되어버리지만 말이다. 우리는 모두 가슴속에 세모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결코 둥근 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지 모른다.

☺ 15 ⋯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세모난 마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글귀인 것 같아요
김재명(러시아학과) 제 마음 속 세모가 마모되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세모난 마음이 그런 뜻이 있었다니! 제 세모는 잘 있는지 궁금해지는 글이었습니다ㅎㅎ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세모난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네요! 어떻게 보면 세모난 마음은 귀하다고 느껴지네요 :)

2023/11/01
wednesday, am 11:27 | 19읽음
홍다연(정치행정)

#3일차 #세모
세모라는 도형은 네모나, 동그라미 같은 다른 도형에 비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부정적인 마음상태를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도형 중 한 가지로 나타낼 때 세모를 고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모난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해보자면, 날카롭고 예민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모에 관련된 노래를 떠올리면 저는 특이하게도 '네모의 꿈'이 항상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네모의 꿈' 가사에는 제목 그대로 네모난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 밖에 나오지 않고,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네모를 활용하여 부정하는 느낌으로 마무리 됩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네모난 것들에 대한 가사지를 보면서 세모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세모난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세모 모양을 가진 것은 보편적으로 책상, 칠판과 같은 물건에 비해 음식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물건들이 주로 네모난 모양으로 생긴 이유와 음식들이 주로 세모난 모양으로 생긴 이유에 대한 공통점을 찾게되었습니다. 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네모, 손쉽게 집을 수 있는 세모를 보며 제가 생각한 둘 사이의 공통점은 '편리함'입니다. 나아가 세상은 하나의 도형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여러 도형의 모양을 활용해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규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12 ⋯ 3

안소정(언어병리학과) 세모에 대해서 더 다양한 생각을 할수있어서 좋은 글이라고 느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연님이 세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글이라 좋았어요! 잘 읽었습니당~~!
박지원(사회학과) 다연님께서 세모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잘 느껴지는 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01
wednesday, am 11:44 | 23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3일차
[세모] 세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아 많은 생각들을 했다. 네모나 동그라미는 네모는 네모의 꿈, 동그라미는 맞았다의 의미로 채점할 때 많이 접했는데 세모는 많이 본 적이 없기에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세모라는 단어에 더 아름다운 경험을 말해주고 싶다. 세모하면 텐트가 생각난다. 어렸을 때 캠핑을 많이 다녔기 때문이다. 큰 세모난 텐트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다 함께 마시멜로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불을 보고 멍도 때리며 제대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세모난 텐트 안에서 힐링을 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캠핑의 행복을 알려주고 싶다. 요즘은 글램핑도 있고 원터치 텐트로 더 편하게 힐링할 수 있어졌으니 다들 캠핑을 추천해 주고 싶다.

☺ 13 ⋯ 6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캠핑 저도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캠핑 돈 들여가면서 까지 할 정도로 자연에서 얻는 행복이 정말 있나요~~??
조석환(심리학과) 세모하면 텐트가 생각난다는 말에 초등학교 1학년때의 제가 생각났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이었는지 방과후 시간이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삼각형만 남겨두고 무엇을 그릴지 많이 고민 했었어요. 그때 번뜩이며 삼각형에 선 3개를 그어 텐트 그림을 그렸었던 어릴적 추억이 떠올라 새삼 반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렸을 때는 가족이랑 캠핑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캠핑을 가지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있네요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텐트들은 대부분 세모 모양인 것 같네요!!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귀여운 듯해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세모난 텐트에서 캠핑하고 싶네요!!
김현지(경영) 소정님의 글에서 따듯함이 느껴집니다 :)

2023/11/01
wednesday, am 11:45 | 23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3일차 #세모

'세모'라는 주제를 떠올리며 길을 걸으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눈에 보인 것은 '과속방지턱 주의표지판'이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지역의 통과차량에 대해서 속도 제어, 보행자 공간 확보, 교통량 감소, 노상주차 제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주로 차속 30km/h 이하인 제한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지나간 본 사람이라면, 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충격이 생각보다 아프다는 것을 알 것이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에서도, 인간의 마음에도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 같다.
너무 빠르고 세게 달리다 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 빠르게 달리다 보면 마음적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내 안전과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육체와 정신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무심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갔다가 큰 충격이 흡수되어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때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항상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힘차게 달리다가 잠깐은 천천히 달리거나 쉬어가는 때도 있어야 한다.
긴장과 불안한 상태로 달리는 것은 위험하기에, 인생에 있어 여유를 갖는 것도 열심히 사는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4 11

정우현(인문학부) 좋은 영감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매일 글 안 쓰시면 댓글 테러 갑니다
김보민(사회복지학과) 정우현(인문학부)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글 잘 읽었습니다 !
김보민(사회복지학과) 가양선(경영학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다연(정치행정) 사진 너무 이뻐용
김보민(사회복지학과) 홍다연(정치행정) 감사합니당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무심코 보고도 지나갈 수 있는 과속표지판에서 이런 멋진 생각을 하시다니,,,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무언가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달리거나 잠시 쉬어가다가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보민님의 글을 읽으니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쉼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박혜윤(사회학과) 세모를 통해 잠시 마음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글이에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1
wednesday, pm 12:03 | 21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3일차 #세모
학창 시절 수학을 공부하면서 지독하게도 많이 그려봤었다. 세모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점이 항상 마음에 들었다. 어른이 되면 지금과는 180도 다른 나의 모습을 기대해서일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성인이 되어버린 나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성격의 변화와 가치관의 성립,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나는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180도 다른 사람이다. 그때의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많이 변했다고 얘기한다. 가끔씩 순수했던 그 시절 내 모습이 그립기도 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겠지. 나는 세모난 사람이다.

1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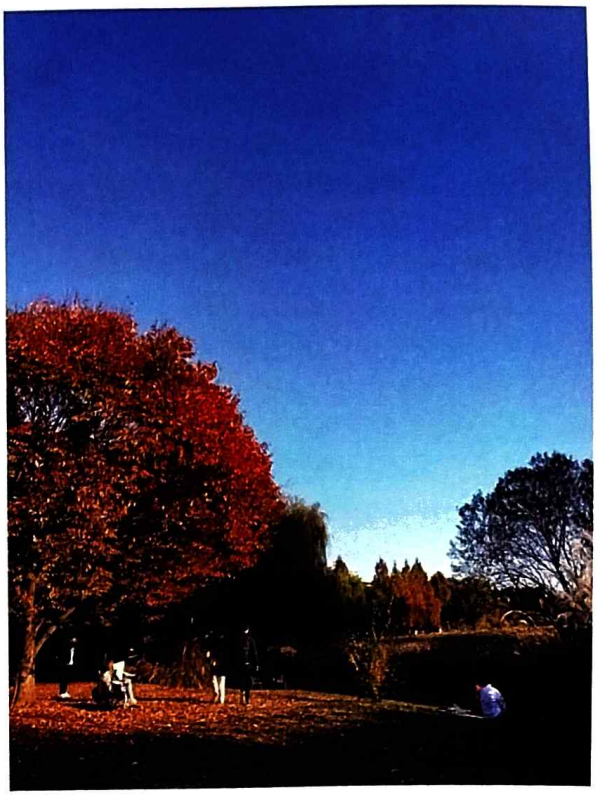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요즘 그때의 순수함이 어디로 갔을까 많이 생각해요 !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찬님의 순수함은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그때의 순수함이 정말 그립고 또 그리워요ㅠㅠ 순수함을 잃은 형태를 세모로 나타낸 부분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글의 끝이 쓸쓸하네요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록 점점 변하니까요 지금 모습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2023/11/01
wednesday, pm 12:11 | 20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3일차
난 세모를 생각하면 네모의꿈이 떠오른다
네모의꿈 노래를 초등학생때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 노래 마지막엔 왜 세상은 다 네모날까
지구는 둥글고 세모도 있다는 가사가 있다. 그
노래를 어릴때 정말 많이 듣고 좋아했기
때문에 세모라는 말을 듣자마자 생각이 난것
같다.
요즘 가을이라 그런지 기분도 센치해지고
어린시절 생각이 많이 난다ㅎ

어릴적 추억들은 참 소중한것 같다.
10년 뒤엔 지금의 추억을 안주삼아 이야기
하고 있을것이니,
하루하루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으며
살고싶다:)



13 4

가양선(경영학과) 초등학생 때 네모의 꿈은 누구나 다 좋아했던 곳 같아요 ! 반 친구들과 단체로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지막 단락에 깊은 공감을 표현하고 갑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네모의 꿈을 좋아했어서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가네요. 지호님의 앞으로 쌓으실 추억들과 경험을 응원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네모의꿈 정말 많이 들었죠~~ 맞아요, 10년 뒤엔 지금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네요

2023/11/01
wednesday, pm 2:01 | 19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3일차
세모를 떠올리면 모나고, 뾰족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렇기에 나는
늘 동그라미 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너는

참 둥근 사람이야" 이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곤 했다. 어디에 끼더라도 크게 실수하는 부분 없이 그 조직에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사람. 동그라미는 딱 이런 사람의 모습이다. 계절이 변하며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3월이 되며 떨리는 마음을 한아름 안아 대학교에 입학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고 동아리, 봉사 기관, 작은 소모임 등에 들어가며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회적 역할이 생겼다. 때로는 벅차기도 했지만, 이 모든 조직에 잘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들은 저 멀리 굴러가는데 나는 구르다 턱에 걸려 멈춰진 동그라미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 둘, 관계가 멀어지며 나를 둘러싼 관계들이 작아졌다. 둥글고 싶었던 나에게 이 일은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고, 학교를 쉬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쉬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다. 삶의 여유를 찾고 왜 그렇게 둥글게 살아야 했나 후회도 했다.
세모의 각들에는 특별함이 있다. 그 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형을 이루는 것처럼 그 각들이 모여 '나'를 규정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세모를 부끄럽 여기고 부정하며 숨기고, 동그라미로 만들려 했다.
이제는 동그라미가 아닌 세모로 살고자 한다. 내 개성을 드러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모두가 자신의 세모를 사랑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자신만의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12 6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세모나다고 해서 지적받지 않는, 다름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세상이 완전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학우님의 세모난 인생을 응원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미혜님의 세모난 세상을 응원해요!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내 개성을 드러낸 세모들이 세상에 더 가득했 으면 좋겠네요. 미혜님의 세모가 더욱 빛나길 응원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항상 둥근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모로 살아보려고 해요~ 저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 미혜님과 동일한 의견으로, 모두가 자신의 세모를 사랑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함이 매력 있고 인기 있는 세상으로요!!
고다인(중국학과) 항상 둥글게 살려다보면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것 같아요~~글 잘 읽었어요
박혜윤(사회학과) 칠교에선 세모의 모양도 웬만한 곳에는 실수 없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굳이 둥글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네요!

2023/11/01
wednesday, pm 2:05 | 18읽음
이유빈(사회학과)

#3일차 #세모

어른들은 우리를 보고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삶이 편해"라고 자주들 말하신다. 둥근 세상은 무엇일까? 남들이 하는거 다 똑같이 하면서 이 사회에 스며 드는 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만들지 않고 잔잔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나는 가끔 둥근 세상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둥근 세상은 무엇인데!!

둥근 세상 말고는 세모난 세상은 없는걸까? 남들과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고 각자의 개성이 인정 되는 세상! 지금 사회가 예전보다 개방 되었고 각자의 개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좋지 않은 인식이 남아있다. 세모처럼 뾰족한 부분과 각이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두려워 한다. 그치만 둥근 세상보다는 세모난 세상이 더 재미나지 않을까? 부드럽게 굴러가는 동그라미보다 삐그덕 거리더라도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세모난 세상이!!

13 7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어릴 때부터 사람들 눈에 띄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정말 둥글게 살려고 했던 거 같아요..둥근 세상보다 세모난 세상이 더 재밌다는 말 공감해요! 둥근 세상은 너무 정적이고 다 똑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도 정형화된 둥근 가치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모난 가치관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 둥글든 네모나든 세모나든 모두 어우러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재명(러시아학과) 동그라미가 주는 포근함도 필요하지만, 세모가 주는 자극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콕콕 찌르면서 짜릿함을 줄 수도 있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세모난 세상은 말로만 들어도 흥미롭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세모난 세상의 관점은 처음 떠올려 보게 되네요! 무조건 둥근 세상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가끔 '어느 하나 모난 곳 없이 둥근 성격'이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인생은 둥근 것보단 세모처럼 삐그덕 거리면서 굴러가는 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가수 거북이의 노래 중 빙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가사 중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라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좋은 글 감사해요
박혜윤(사회학과) 둥근 모양은 멀리 굴러 갈 위험이 있지만 세모는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23/11/01

wednesday, pm 3:40 | 18읽음
가양선(경영학과)

#3일차 #세모

세모를 떠올리면 걸그룹 러블리즈의 삼각형이라는 곡이 생각난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장기자랑으로 춤을 추었던 곡이기 때문에 추억이 많이 담긴 곡이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정말 많이 들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안무도 기억난다. 힘들었지만 좋았던 기억이 많아 다행이다.

세모는 날카로운 도형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세모를 생각하면 날카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둥글다와 대비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 같다. 예전에는 성격이 둥근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남들도 나를 둥근 사람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랐다. 요즘들어 둥근 성격도 좋지만 어느정도의 날카로움도 필요하고 생각한다. 날카로움에 무례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날카로움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거나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긴장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 또한 둥근 성격과 관련있다고 생각한다. 긴장을 놓지 않는 날카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던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수를 했던 것 같다. 둥근 성격와 날카로운 성격을 잘 융합시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다.

11 4

김서희(심리학과) '둥근 성격와 날카로운 성격을 잘 융합시켜 성장하고 싶다'라는 말이 깊게 와닿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장기자랑으로 춘 춤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도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췄던 빠빠빠 춤이 아직도 기억난답니다... 크크....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어느 한쪽만 두드러지는 게 아닌 둥근 부분과 날카로운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성장한다는 게 공감이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삶을 살아가면서 둥근 성격도 참 좋지만, 가끔은 세모 처럼 날카롭고 뾰족할 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둥근 것과 뾰족함을 잘 융합시켜 성장하고 싶네요

2023/11/01
wednesday, pm 5:27 | 18읽음
조성현(철학과)

세모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건
삼각김밥입니다
삼각김밥.. 처음 먹었을때는 깜짝놀랄
맛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그런가 자극적인 맛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삼각김밥을 먹는다는 것은 밥을
대충때운다는 의미갔습니다. 간편하게 먹고
빨리 먹는 용도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처음 먹을때가 가장
인상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게
아닐까요

저에게 삼각김밥은 이제 익숙한 음식이 되어
큰 감흥을 못주지만 추억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면 초등학교때
맛있었던 기억이나는 것으로 충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삼각김밥을 먹어봐야겠습니다

13 18

김경회(국어국문학과) 글의 주제가
삼각김밥이라는 친숙한 주제다보니 가볍고
유쾌하게 다가와서 새로웠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삼각김밥은 정말 친숙한 소재죠!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음식이라는 건 처음 먹을때가
가장 인상깊다.' 라는 문장이 공감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조성현(철학과) 김서희(심리학과) 처음 먹은
음식은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맛있는
음식이라면..! 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모든 음식이 첫 입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 오늘
점심에 삼각김밥을 먹었는데 맛을 느끼기보다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은 거라서 그런 점에서
공감이 됐습니다. 또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점점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조성현(철학과)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맞아요..
이제는 삼각김밥은 허기를 달래는 용인 것 같아요!
건강에 안좋으니 가끔 먹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길 바래요 :)
라혜민(사회학과) 추억의 맛 삼각김밥!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라혜민(사회학과) 공감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늘 학원 가기 전에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었는데 그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하게 떠오르네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학원가기전에 정말 많이 먹었죠! 저도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삼각김밥이 추억의
음식이여서 공감이가요ㅎㅎ 글 잘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신유정 (심리학과) 삼각김밥은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 같아요
ㅎㅎ 글 잘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점심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지만 무언가를 먹어야 할 때 종종
삼각김밥을 먹어요. 작은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큰 맛을 내는
특별한 음식은 삼각김밥이란 생각도 드네요!! 성현
님의 글을 읽다 보니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우러져
큰 맛을 낸다는 표현이 멋지네요! 작지만 강한
삼각김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삼각김밥이
생각이 나네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삼각김밥은 간편하게
끼니를 위해 먹기도 하지만 추억이 떠올라서
그런지 가끔씩 떠오르는 음식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맞아요! 추억때문에도 가끔 생각나는 음식 같아요!! 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삼각김밥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네요... 먹을 때가 왔네요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삼각김밥이 가끔 생각날때가 있죠..!! 오랜만에 삼각김밥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ㅎㅎ

2023/11/01
wednesday, pm 5:41 | 17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3일차 #세모

초등학교 음악 시간 때의 일이다. 반에서 각자 악기를 정해 노래에 맞춰 연주하는 활동이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북, 탬버린, 캐스터네츠, 마라카스, 멜로디언 등을 선호했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과 다르게 트라이앵글을 골랐다.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고 특이한 것에 눈길이 가고 관심이 있어서 동그라미, 네모 모양의 악기 대신 혼자서 세모난 모양을 지닌 트라이앵글에 꽂혔던 모양이다.

트라이앵글은 다른 악기들처럼 연주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한 번씩 막대로 칠 때면 여음이 지속되어 은은하게 존재감을 뽐냈다. 또 막대로 쳤을 때의 진동이 손에 고스란히 느껴져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다. 연주를 할수록 트라이앵글의 모양보다는 악기 그 자체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서로 생김새와 모양도 달랐고 소리도 엉망진창이었지만, 점차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광경이 꽤 감동적이었다. 생김새와 모양, 소리가 달라도 맞춰나가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순 없겠다, 싶었다.

13 6

라혜민(사회학과) 유년시절의 밝고 몽글한 느낌이 전해지는 글이네요! 유민님의 개성과 주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게 그려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늘 캐스터네츠를 맡았는데 유민님은 트라이앵글을 맡으셨군요ㅎㅎ ~!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민님의 글 처럼 트라이앵글은 한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악기지만 다른 악기들과 함께 했을 때 숨겨진 힘을 발휘하는 작지만 큰 존재인것 같아요! 마치 트라이앵글이 빠지면 뭔가 시원섭섭 한 것처럼요!! 유민님 덕분에 트라이앵글이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트라이앵글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요. 덕분에 저도 초등학교 음악 시간이 떠올려졌네요. 은은하게 존재감을 뽐어서 더욱 빛을 발하는 악기인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트라이앵글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트라이앵글의 소리는 정말 아름답고 작지만 강한 소리와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박혜윤(사회학과) 트라이앵글이 곡 내에서 비중은 적지만 귀에 꽂히는 소리를 내어서 활약도가 매우 큰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2023/11/01
wednesday, pm 5:51 | 16읽음
라혜민(사회학과)

#3일차 #세모

세모는 나에게 노란불과 같다. 정답은 아니지만 완전히 오답도 아니면 세모를 친다. 노란불도 완전히 빨간불(정지)은 아니지만 초록불(지나감)도 아닐 때 켜지는 불이다.

어찌 보면 애매한 상태라고 여겨질 수 있겠다. 우리 사회에는 확실하지 않은 건 어딘가 부족한 미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자신이 어딘가 애매한 상태라고 여겨지거나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애매한 상태, 사회적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 이런 상태에 있는 당사자가 느낄 감정은 당사자만 알기에 제3자는 추측할 뿐이다. 막막함이나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의외로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나의 경우에는 조급함과 위축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확신에 가득 차 보이는 세상에서 그것과 대조되는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일이 고되고 부당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정확히는 타인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고 나니까 되려 편안함이 찾아왔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의 감정과 상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나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써왔고, 그 속에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누군가 나처럼 애매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에너지를 끌어와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써보기를 권한다. 사회가 규정하는 '나'에 숨지 말고 자신으로 살고, 느끼며 말하는 사람이 되자.

☺ 9 ⋯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요근래 일기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혜민님 글 보고 나서 얼른 일기를 작성하고 왔어요 크크...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회가 규정 하는 나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사회에 맞춰서 살다 보니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네요. 혜민 님의 글을 읽으면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자신으로 살고 느끼며 말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이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안소정(언어병리학과) 나 자신으로 사는 것!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윤(사회학과) '교착상태'... 지금 생각해보니 이 상태에 빠졌던 순간들이 매우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교착상태일 때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11/01
wednesday, pm 5:55 | 20읽음
김현지(경영)

#3일차 #세모
세모라는 단어를 보니 불현듯 버뮤다 삼각지대가 떠올랐다.
중학생 시절 미스테리하거나 알지 못했던 신기한 사실을 정리한 글이나 영상을 즐겨봤다.
우주의 신비나 신기한 건축물, 외계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범한 인물들의 미스테리한 콘텐츠를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렀다.

유년기에는 공룡에 빠졌었고 초등학생 때는 why? 책 시리즈와 탠탠북스(~하는 아이, ~하지 않는 아이 시리즈), 투니버스 황금기 때 즐겨보던 만화와 당시에는 신났지만 지금 들으면 울컥한 주제가를 들으며 여가시간을 보냈다.

"세모"라는 단어 하나에 그동안 좋아했던 수십 가지의 단어들이 머릿속에 마구 튀어 나오며 "맞아, 나 이런거 좋아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방감이 들었다.

☺ 8 💬 1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이 글을 보니 오늘 밤에 유튜브로 버뮤다 삼각지대의 비밀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자기전에 유튜브로 보기에 딱 좋아요ㅎㅎ 좋은 밤 되세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미스테리한 콘텐츠를 가끔씩 보는데 한 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세모를 뜻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현진 님의 글을 읽으니 저도 버뮤다 삼각지대 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입고 있던 미스테리 콘텐츠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김현지(경영)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오타가 났어용! ㅠㅡㅠ ㅎㅎ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당!!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세모라는 단어 하나에 지금껏 보냈던 여러 기억들이 담겨져 있네요! 미스테리한 콘텐츠는 한번 보면 멈추기 힘들 정도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호기심을 유발하는 콘텐츠는 쇼츠가 만연한 현재에 보기드문 소재이죠.. 댓글 감사합니다 채연님 :)

안소정(언어병리학과) 세모를 통해 생각하면서 해방감이 드신 부분이 정말 공감이 가요 저도 세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해방감도 함께 들었어요!

김현지(경영) 안소정(언어병리학과)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구요ㅎㅎ 좋은 밤 되세요 소정님 :)

고다인(중국학과) Why시리즈 저도 정말 재밌게봤는데 공감되네요~~글 잘 읽었어요

김현지(경영) 고다인(중국학과) 다인님 댓글 감사합니다 :) 요즘도 why책이 있으려나요? ㅎㅎ 넘 추억이죠

박지원(사회학과) 세모를 주제어로 글을 작성할 때 세모가 뭐가 있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지님의 세모는 수십 가지의 좋아했던 단어들이 머릿속에 마구 튀어나온다니 부럽네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지원님의 세모같은 마음도 넘 멋진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돋보여서 인상깊었어요 :)

2023/11/01

wednesday, pm 6:25 | 11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3일차
동그라미가 노래하고
네모는 춤을 추네, 세모는 봄바람과 함께 미소 지어요.
도형들이 만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돼,
색다른 세상을 그려나가네.

동그라미는 무한한 사랑을 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따뜻한 품 안에 있어요.
네모는 안정과 평화의 상징이라면,
도형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줘요.

세모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춰나가네.
도형들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춤을 추네.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의 노래,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노래하네.
도형들과 함께하는 삶은 특별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워요.

8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도형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정말 좋다고 느껴졌어요. 어쩌면 지은님이 쓰신 도형의 의미가 그 가치를 빛내고 있는 거 같아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면서 읽었네요!! 짧지만 예쁜 시 잘 읽었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두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안소정(언어병리학과) 도형을 통해서 희망과 아름다움을 전달해주신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두 소중한 도형들이죠~~ 어떻게 보면 도형들과 저희는 많은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한 편의 시를 읽은 기분이에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01
wednesday, pm 6:45 | 15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3일차 #세모
세모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수박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여름이면 통통 소리 나는 꼭지가 튼실한 수박을 찾아서 사 오곤 했습니다. 반으로 쩌억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수박에 여름의 열기가 한결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네요.
세모 자르기, 깍둑썰기, 길쭉한 네모 썰기 등 집마다 수박을 제각기 자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림책에 어렴풋이 나왔던 세모난 모양의 수박이 그리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가지런히 보관하기 편한 네모난 모양의 수박도 먹기 편하고 좋지만, 저는 아직도 껍질부분을 든 채 먹는 세모 모양의 수박을 가장 좋아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은 잘 보지 못했지만 내년 여름에도 시원달달한 수박을 맛보고 싶네요.

11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생각해보니 올해 여름에 수박을 못 먹고 지나간 것 같아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김재명(러시아학과) 수박 조각도 세모였네요, 잘 읽었습니다. 내년 여름 시원한 수박 저도 기다립니다!
안소정(언어병리학과) 저도 수박 좋아하는데 수박 먹고싶네요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채연님의 글을 읽으며 올해 먹은 수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데 알고보니 한 번도 먹지 않았더라구요. 예전만큼 싸지 않은 가격에 손이 가지 않았나봐요.. 수박킬러인 제가 먹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이 있으니 그때가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덕분에 여름이 기다려지는 글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이번 여름에 수박을 엄청 먹었는데, 세모를 보고 반으로 자른 수박을 떠오르시다니!! 내년 여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지(경영) 채연님의 글에서 동그란 수박을 세모 모양으로 잘라내는 장면이 생동감있게 그려져 즐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

2023/11/01
wednesday, pm 6:58 | 20읽음
조석환(심리학과)

#3일차
세모. 三角形. 선분 3개와 꼭지점 3개로 이루어진 도형. 기하학에서 기초가 되는 도형 중의 하나. 세모만이 구조주의를 이룩하고

게슈탈트를 이룬다. 그렇기에 세모만이 가장 완벽한 모양이다.

네모와 네모를 합치면 더 큰 네모만 만들어진다. 허나 세모는 세모를 만나 네모가 되고, 세모를 만나 오각형이 되고, 세모를 만나 육각형을, 세모를 만나 원에 가까운 원이 된다. 또한 차원을 넘은 동족의 사랑으로 사면체도 이룰 수 있다. 또한 차원을 넘은 사랑으로 사면체 이상의 입체 도형을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명암으로 손을 뻗어 학문을 넘은 예술로 산란하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위에 시간이 쌓이고 쌓여 한 시대를 풍미 했었던 누군가를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준다. 또한 각이 있어 멈출 때를 알고 멈추는 겸손함과 굴러갈 때 멈추었다가 굴러가는 신중함도 겸비하고 있다.그렇기에 세모만이 가장 완벽한 모양이다. 실로 완벽하고 아름다고 보잘 것 없는 세모를 나는 동경하고 찬양한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세모가 되고 싶다.

세모. 三角形. 선분 3개와 꼭지점 3개로 이루어진 도형. 기하학에서 기초가 되는 도형 중의 하나. 세모만이 구조주의를 이룩하고 게슈탈트를 이룬다. 그렇기에 세모만이 가장 완벽한 모양이다.
#세모

9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석환님 글을 읽고 정말 세모는 신기한 도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모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망상으로 풀어서 실험적인 글로 묘사를 해봤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어디선가 세모만큼 안정감을 이루는 도형은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세모가 너무 뾰족하게 생겨서 좋아하지 않는 도형이었어요. 그런데 석환님의 글을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세모가 가진 매력에 빠지게 되었네요. 문득 세상도 세모처럼 돌아간다면 더 완벽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의 실험적인 글이 하영님께 닿아 무언가의 깨달음을 얻는데 일조해서 영광입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마지막 문구인, '세모만이 가장 완벽한 모양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어요~ 저는 이번 사람들의 다양한 세모를 접해보면서 세모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수미상관을 맞출려고 어거지로 끼워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세모들이 모여 완벽함을 이루듯이 각자가 모여 아름다운 삶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

조석환(심리학과) 김현지(경영) 저의 실험적인 글에 의미를 부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1
wednesday, pm 7:09 | 18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3일차

Dear. T
이제야 제 편지를 발견했군요.
당신이 언제쯤 이 편지를 발견했을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겠어요.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당신의 곁을 떠난지 오래일 테니까요.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주제넘었다고,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다 맞아요. 저는 당신 때문에 정신이 나간지 오래예요.
사랑이라는 감정만 붙들고 당신의 곁을 지키기엔 너무 지쳐버렸어요.

제가 사랑했던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만, 맑고
순수한 청년이었죠.
외롭지 않도록 곁에 머무르며 저를
다독여주고 애정을 줬어요.

지금은 뭔가요?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면서
일만 하고 있잖아요.
사회는 피라미드라고요? 더 높은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야 누릴 수 있다고요?

당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덕분에 우리는 평생 동안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의 명예와 돈을 얻었어요.
그럼 만족하고 내 곁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더니 마음도
날카로워진 모양이죠?

당신이 정점에 오르는 동안 짓밟은 사람들만
생각해도 기가 차요.
분명,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안타깝군요.
위로 오르겠다는 목표가 저 때문에 생겼으니
다 제 잘못이겠죠.

당신의 변화에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외로움에 사무쳐 당신의 등만 보는 동안,
당신은 위만 보며 나아갔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었어요. 알고
있죠?
제가 당신을, 당신이 저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계를 놓기로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죗값일 테니까.

언젠가 당신이 피라미드를 부수는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9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나를
호강시켜주겠다고, 일을 하는 건 다 널 위한 거라는
포장으로 정작 나를 외롭게 남겨두면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 생각을 저도 한 날이 있었던
지라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실 피라미드를 올라가는
건 그리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보단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과정 속에 일어난
것이 좋든 나쁘든 신경쓰지 않죠. 그게 사회가
변질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수연님의 글을
읽다보니 그런 사회가 참 쓸쓸하고 안타깝네요.
하지만 변화는 있는 법이니까 우리가 함께
피라미드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덕분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세모는 피라미드고 가끔은
세상이 피라미드라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인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23/11/01
wednesday, pm 7:27 | 15읽음
김경희(국어국문학과)

#3일차
#세모

[일상속의 세모의 발견]

세모라는 키워드를 듣고난 후 세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네모,원 같이 다른 도형은 익숙한데 왜 세모만
낯설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일상중에 네모와 원을 가장 많이 마주치고 세모는 생각보다 보기 힘들다는걸 알았습니다.

세모찾기가 쉽지않았지만 우연히 세모를 발견할수있었는데

심비우스 독서골든벨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샌드위치의 모양이 세모였습니다. 일상중에 세모를 찾는다라는게 이렇게 반가운 일일 줄이야

두번째는 집을 가다가 발견한 세모모양 표지판이었습니다.

세모를 찾으려고 보니 이세상의 모습에 대해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네모,원 같이 익숙함에만 둘러쌓여있다가 진정 내가 노력을 해야만 찾을수있는 세모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세모는 '일상중의 잊고있었던 특별한 것'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세모의 물건을, 사물을 발견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8 3

박지호(식품영양학과) 저는 오늘 세모모양의 책갈피를 발견했습니다. 일상중 잊고 있던 특변한 것의 의미라는 말이 와닿았어요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경회님의 글을 읽으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말로 세상은 네모와 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라구요! 건물과 도로, 심지어 물건들까지도 세모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세모난 것을 볼 때면 지루하던 세상에 흥미로운 존재가 생겨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ㅎㅎ 덕분에 세모난 걸 찾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키워드를 확인하고 세모라? 너무 어색했고 뭐가 있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오늘 본 세모는 토스트 모양이 세모였어요

2023/11/01

wednesday, pm 7:42 | 11읽음

이주영(디미콘)

#3일차 #세모

오늘의 키워드를 보고 세모의 완벽한 자리라는 책이 생각났다. 멘토링을 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읽는 책이다. 내용은 주인공 세모가 자신이 다른 도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세모에게 딱 맞는 자리를 찾는다. 세모는 모든 도형들과 다 잘 어울리는 도형이었다. 다름이 불편했지만 어우러져야 더 좋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나는 세모보다는 동그란 원을 더 좋아했다. 세모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어울리는 동그란 원이 더 좋다고 느꼈지만 세모야말로 다른 도형과 함께 있으면 빛을 내는 도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스크림콘이 있는 밑 부분의 세모, 피자를 자를 때 세모 등 세모는 모든 도형과 잘 어울리고 있었다. 모든 도형은 세모의 도움을 받았다. 세모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나의 생각에 변화를 준 책이다. 다들 한번 읽어보세요 유아용이지만요,,,

8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주영님이 소개해주신 책 내용이 마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떠오르게 하네요! 슬픔이만이 유별난 존재였지만 알고보면 슬픔이를 포함한 모든 감정들이 함께 했을 때 정말

행복한 추억이 생긴다는 것! 비록 유아용이긴 해도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이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모든것은 그에 걸맞는 자리가 있는거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모든 도형은 세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네요!! 세모 관련 책이 있다니 너무 귀여우면서 궁금하네요

2023/11/01
wednesday, pm 7:57 | 16읽음
박지원(사회학과)

#3일차 #세모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키워드 소개 내용 중, '세모 모양의 마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마음이 동글동글, 네모 같은 마음,,, 그럼 세모는? 세모는 무엇일까? 이번 기회의 세모 같은 마음도 만들어보자!

내가 생각한 세모 같은 마음은 변치 않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네모는 닳아지면 원이 된다. 세모가 닳아진다면, 세모 본연의 모습을 유지한 채 닳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동그라미를 따라 동글동글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네모네모빔을 맞고 네모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린 독특하고 개성 있게 세모 같은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자!

누구를 향한 사랑 혹은 나의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면 우리 모두 외쳐보자! 세모 같은 마음이 되자!!

7 3

이다혜(사회복지학과) 세모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좋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세모와 같은 마음은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세모는 안정감을 주는 도형 중 유일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세모가 가진 특별한 점이 세모만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의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세모 같은 마음을 가져보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변치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넘 예뻐요 :)

2023/11/01
wednesday, pm 8:02 | 18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3일차

세 : 세상은 벅찼다. 그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었다. 우리는 이 곳의 지배자였으며, 그대들은 나의 바닥을 가리는 데에 쓰이겠지.

모 : 모든 것은 약육강식의 이치대로, 평등을 외치는 자본주의로 향하는 것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되었을 오늘이다.

우리는 피라미드 속에서 사는 사람들.

8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에 다른 분이 쓰셨던 댓글에도 썼지만 전 피라미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과정보단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살다보니 피라미드가 가진 본연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이 옳다는 믿음 때문에 피라미드의

가치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네요. 덕분에 사회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경회(국어국문학과) 멋진 이행시입니다! ㅎ 잘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세모로 이행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2023/11/01

wednesday, pm 8:48 | 14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3일차 #세모

어릴 적 잘못을 저지를 때면 이를 숨기기 위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곤 했다. 나는 몰랐던 일이라던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며 내 잘못을 숨겼다. 잠깐의 벌을 피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은 할 때마다 마음을 쿡 찔렀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잠에 들기 전까지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그 땐 그 이유를 몰랐다. 그저 내가 어딘가 아픈 줄 알았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기에 고통을 싫어했던 나는 거짓말보단 진실을 택했다. 비록 혼나는 날은 전보다 더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그게 더 편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다. 왜 거짓말을 할 때면 마음이 그렇게나 따갑고 아픈지.
처음에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기에 부모님에겐 비밀로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호기심은 그 비밀을 지키지 못했다. 퇴근하고 오신 엄마에게 쭈뼛한 몸으로 다가가 내 비밀에 대해 물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며 살며시 웃으셨다.
영문도 몰랐던 나는 그저 엄마를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는 옅은 미소와 함께 나를 붙잡고 말했다.

"딸, 그건 병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심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양심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픔의 원인이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양심 때문에? 왜?"

"왜냐하면 양심의 모양이 세모이기 때문이거든. 사람마다 세모 모양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심이라는 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빙글빙글 돌아.
뾰족뾰족한 세모 양심이 돌아가면 어떻겠어? 아프겠지? 그래서 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따끔하면서 아픈 거야."

걱정되는 비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마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보자 엄마는 한 마디를 덧붙이셨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세모난 양심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 뾰족한 부분이 뭉툭해지면서 결국 동그라미가 되는 순간이 와. 그 때가 되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양심을 느끼지 못하게 돼. 그때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바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언제나 세모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 알겠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엄마의 그 말은 어른이 된 내가 아직까지도 기억할 만큼 깊은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난 여전히 세모난 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9 3

고다인(중국학과) 어린시절 세모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큰 영향을 주었네요~글 잘 봤어요
김현지(경영) 양심의 모양이 세모나기에 거짓말을 할 때 쿡쿡 찌른다는 표현이 정말 멋집니다.
하영님의 글을 읽으니 어른들께서 둥글게 사는게 좋다는 말이 더 다가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양심의 모양이 세모...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영님의 글이 정말 귀여우면서도 멋있는 글인 것 같아요

2023/11/01
wednesday, pm 9:04 | 15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3일차 #세모

'세모'라는 주제를 보니 삼각김밥이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다 보니 삼각김밥이 떠오르나보네요.

요즘 삼각김밥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짜장후라이 삼각김밥도 있고, 불닭콘치즈 삼각김밥, 트리플 오일이 들어간 삼각김밥, 참치감자짜글이 등등 신기한 게 많아요. 요즘 도시락으로는 초밥도 나오고, 낙지덮밥 등등 정말 잘 나오더라구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편의점에 오셔서 맛있는 삼각김밥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콤한 맛이 좋으신지, 아니면 담백한 맛이 좋으신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떤 맛이 있냐며 하나하나 설명해줄 수 있냐고 하시길래 총 5개의 삼각김밥의 맛을 설명드렸어요.

결국 할머니께서는 요즘 대게가 먹고싶다며 붉은대게딱지장 삼각김밥으로 선택하셨어요. 구매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요즘 청년들이 너무 착해서 내가 고마워서 눈물이 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뭘 한 것처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세모'라는 주제로 좋은 경험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10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혜님의 사소한 배려가 할머님께는 큰 선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여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실천하시는 다혜님을 보며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되네요. 도움을 준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고마움을 넘어 특별함으로 다가온다는 게 다혜님의 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같아요! 덕분에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대단한 일이 아니라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신거잖아요. 다혜님의 도움 덕에 할머니께서 먹고 싶은걸 사셔서 좋으셨겠어요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훈훈한 배려에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글이네요~잘 읽었습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글을 읽고 나니 마음이 찡해지네요 따뜻한 글 감사합니다 ~ !
박지원(사회학과)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네요 :) 사소한 하루였어도 따뜻한 하고 엄청난 위로를 받은 느낌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01
wednesday, pm 10:07 | 12읽음
김준호 (콘텐츠IT)

#3일차
세모.
게임, 컴퓨터 그래픽스, 모델링을 배울때 가장 먼저 배우고 만들어보는 도형이 바로 세모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삼각형을 이용해 다른 도형을 그릴 수 있기에 나도 지금까지 정말 많이 사용했었다.

잠시 생각해보면 세모는 우리의 어릴적 모습과 같다. 무엇이든 쉽게 배우며 이뤄냈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으로 튼튼했으며 우리가 되고싶은 무엇이든 상상하는대로 될 수 있었던 추억속의 우리의 모습은 세모의 특성과 여러모로 닮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픽스에선 모든 종류의 도형을 세모로 표현한다. 게임이나 영화의 모델링도 겉으로는 매끈해 보일지라도 자세히보면 모두 세모로 만들어져있다. 이를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지금 우리는 그저 겉에서 보았을 때 어렸을 적의 그 세모가 아닐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서 우리 중 누군가는 다각형이나 다면체 또는 원과 같은 형태로 변하겠지만 가까이서 본다면 결국 모두 세모로 이루어져있을 것이다. 우리의 형태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어릴적 모습이, 생각이, 추억이 지금의 우리를 이루고있기 때문이다.

더 사실적인 그래픽과 모델링에는 폴리곤이, 더 많은 세모가 필요하다. 더 촘촘한 세모 즉, 더 촘촘한 우리의 생각과 추억이 더 입체적인 우리를 만든다는 뜻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세모를 자신에게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6 2

김소은(미디어스쿨) 새로 알게 된 내용이 많아 흥미로운 글이었어요 미래엔 더 많은 세모를 지닌 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다양한 사람들의 세모를 들으면서, 저에게 없었던 세모를 만들고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2023/11/01
wednesday, pm 10:38 | 13읽음
고다인(중국학과)

#3일차 #세모

'세모'모양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집 고양이의 세모난 귀를 바라보다 사막여우가 떠올랐다.작고 귀여운 체구에 비해 아주 큰 세모모양 귀를 가진 동물이다.영어로는 Fennec Fox라고 한다.더운 사막에서 살아남기위해 열 배출에 유리한 크게 발달된 귀가 특징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아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검색해보면서 꽤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사막여우는 건조기후인 북아프리카 사막 지대에 서식하며 몸무게는 1~1.5kg,모래색의 털로 덮여 있다고 한다.아주 예민한 성격을 지니고있고 울음소리는 굉장히 크고 시끄럽다고 한다.

과거 모피채취와 식용으로 사냥당했고 현재는 모피채취 혹은 애완용으로 포획된다고 한다.대한민국에서 개인 사육을 위한 판매는 불법이지만, 과거 그저 귀여운 외모를 지닌 사막여우를 기르고 싶다는 이유로 밀수입된 사건이 있었다.밀수된 사막여우들 중 일부는 비행기 이동과정에서 폐사했고 일부는 적발되어 국립생태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사막이란 자연에서 살아야 할
사막여우를 희귀하고 신기한, 그저 돈만
있으면 키울수 있는 것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키워드'세모'가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과 그동안 나는
어떻게 동물을 대해왔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7 2

김현지(경영) 다인님의 글을 읽고 사막여우를 그저 귀여운 동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특징과 바라보아야할 자세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사막여우에 대한 유익한 글인 것 같아요!! 고양이의 귀도 세모 모양이었네요

2023/11/01
wednesday, pm 10:54 | 9읽음
조영주(간호학과)

#3일차

삐죽빼죽 위험해보여도 사실은 가장 둥근
마음.
아주 싫지도 아주 좋지도 않은 마음.
어중간한 듯 보이지만 가장 많은 걸 품을 수
있는 마음.
분명한 것들도 매력적이지만, 그렇다고 네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확실하고 강한
것들을 둥글게 품어줄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싫은 마음과도 좋은
마음과도 함께 할 수 있다.
마음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어쩌면 삐죽빼죽 세모는
가장 양보하는 마음.

/ 세모난 마음은 상대를 배려하고 싶을 때
쓰는 마음인 것 같아요-

6 1

박지원(사회학과) 삐죽빼죽한 세모가 참 매력있고 솔직한 존재라 생각이 들어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01
wednesday, pm 10:54 | 13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3일차 #세모
세모, 즉 삼각형을 생각하니 저는 중학교 시절
즐겨보았던 프로듀스 101이 떠올랐습니다.
프로듀스 101은 로고부터 무대, 좌석 위치,
춤 동작 모두 삼각형입니다. 마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며 끊임없이 그들의 등수와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참가자들 사이엔 경쟁을
부추기고 시청자들에겐 투표를 유도합니다.
그 모습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그 속에서
인간미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경쟁자였으나 점점 동료가 되어갔고
혼자만이 아닌 팀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만 순위에 오르고 다른
참가자는 탈락하게 되었을 때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프로듀스 101처럼 경쟁
사회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미를 잃지 않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고 너무
쉽게 타인을 증오하지 않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2

고다인(중국학과) 그러고보니 프로듀스101의 끝없던 경쟁구조가 세모모양이었네요~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그러네요, 프로듀스 101의 로고는 삼각형이고.. 어쩌면 경쟁사회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2023/11/01
wednesday, pm 11:24 | 12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3일차 #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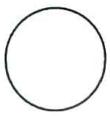
이번 주제를 맞닥뜨리고 많은 고민을 했다. 세모? 주변에서 볼 수 있던 세모가 뭐가 있었지? 피라미드? 도리토스? 수학? 다양한 세모를 떠올리며 하늘을 본 순간 아, 이거다! 싶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별이 있으면 별자리가 있고,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들을 이은 도형이 있다. 나는 그중 여름의 대삼각형에 대해 쓰려고 한다.

사실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대삼각형은 3개나 있다. 봄의 대삼각형, 여름의 대삼각형, 겨울의 대삼각형. 그중에서도 여름의 대삼각형을 콕 집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별들이 그 구성원이기 때문이고, 또 내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백조자리의 데네브,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 거문고자리의 베가로 구성되어 있는 여름의 대삼각형을 처음 본 건 고등학교 1학년, 천체관측 동아리의 부 활동 시간이었다. 원체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는지라 그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별인지, 어딜 봐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고 커봤자 얼마나 크겠나, 싶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기수로 입부해 친구가 된 동기가 손을 들어 머리 위에 선을 그어줬을 때 왜 대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늘에 그려진 커다란 삼각형과 나를 보며 웃음 짓던 친구의 얼굴은 내 기억 한 켠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 여름의 대삼각형은 이름과는 다르게 늦가을인 지금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해가 진 뒤의 하늘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밤 11시 경까지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밤하늘을 유심히 살펴보는 걸 추천합니다.

4 2

박지원(사회학과) 세모를 주제로 정말 신기한 내용과 유익한 정보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홍은기(영문학과) 천체관측 동아리 멋져요!!



2023/11/01
wednesday, pm 11:34 | 12읽음
홍은기(영문학과)

#3일차
중학교때 세 명인 친구 그룹이 있었다. 그 셋은 우린 똑같이 친하다며 말했지만 가끔씩은 불안정해보이는 삼각형이었다. 셋 중 둘이 남자친구가 생겨 나머지 하나가 둘의 연애 얘기에 끼지 못할 때, 두 명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하고 한 명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을때.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는 끊임 없이 길어지다 짧아지다를 반복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관계가 정삼각형으로 보이기를 원했다. 서운함을 말할 때에도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자 삼각형은 세개의 점이 되어 다시 다른 도형을 만들러 떨어졌다.

6 2

박지원(사회학과) 관계의 모양은 저마다의 형태를 가졌다가 사라지고 하는 듯해요. 은기님의 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박혜윤(사회학과) 홀수인 무리에서 종종 겪게되는 일을 삼각형의 각 변으로 표현한게 인상 깊은 글이에요 그럼에도 정다각형으로 보이길 원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23/11/02
thursday, am 8:04 | 33읽음
김양선

#4일차 키워드 : 배달
배달 : 1. 물건을 가져다가 나누어 돌림. 2. 단군신화 시대 우리나라를 달리 이르던 말. '배달'의 사전적 뜻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명칭이 딱 어울릴 정도로 우리는 매일 택배로 물건을 받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심지어 빠르기까지 하죠. 매일 혹은 매주 꽃이나 샐러드. 좋은 문장이나 글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배달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 어떤 배달을 받았나요? 이런 배달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11 0

2023/11/02
thursday, am 9:28 | 22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4일차

'무료배송, 빠른 배달! 고객님 맞춤 감정 배달 서비스!!'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감정을 배달하는 서비스라니? 그러나 의문을 갖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다. 멍하니 전단을 바라본지 얼마나 지났을까? 호기심이 일은 손은 저도 모르게 서비스센터 번호가 적힌 종잇조각을 쥐고 있었다.

-

이걸 왜 갖고 왔을까?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쓰레기통은 찾지도 않은 채, 오히려 불면 날아갈새라 고이 쥐고 왔음에 드는 생각이었다.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뚜뚜거리는 신호음은 얼마 가지 않았다. 그러나 꼭 제 심장박동과 같게 느껴져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연결됐을 땐 마치 심장이 멈춘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윽고 들려오는 경쾌한 목소리에 그는 불현듯 정신을 차렸다.

"반갑습니다, 감정 배달 서비스 센터의 상담원 애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조심스레 지금껏 고민하던 이유를 목소리로 꺼냈다.

"... 혹시, 그냥 들어주실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이제 이 세상엔 없는 사람이라서요."

잠시간의 정적, 전화를 끊으려던 그를 막아서는 건 이제까지나 다름없이 경쾌한 그녀의 목소리였다.

"네 그러시군요,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받는 분이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서요, 성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름은 소피, 일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3살짜리 딸아입니다. 그냥...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그 날 토끼인형을 안 사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토록 좋아하던 토끼들이랑...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어도 널 많이 사랑하는 엄마가 거기 있을테니 함께

기다려 달라고요."

"네, 접수되셨습니다. 배송 결과는 일주일 뒤 확인메세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으시면 상담 종료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더 없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마지막 마디 이후로 전화를 끊었다. 시덥잖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러나 속은 후련했다. 지금껏 지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은 덜어냈기 때문이리라.

-

정확히 일주일 뒤, 해당 배송 건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그의 폰을 울렸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배달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소피가 보고싶어졌다. 그동안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을 제 발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과 함께.

-

충동적으로 소피에게 도착한 그는 바로 앞에서도 서성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내 용기를 내었다. 참 추운 곳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있는 모두가 가진 그리움이 그를 따스하게 했다.

이내 소피의 바로 앞에 도착한 남자는 한 자리에 멈춰 그대로 눈물을 쏟아낼 수 밖에 없었다. 소피의 자리 주변에 놓인 토끼인형 때문이었다. 남자는 그제야 문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고객님 맞춤형 배달 서비스, 당신의 고백과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배달이었다.

15 6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감정 배달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감정배달이라니. 아이디어가 정말 통통 튀시는 것 같아요! 따스한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추운 날씨에 서현님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언젠가 내 감정을 배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너무나 의미있는 글이라고 느꼈어요... ! 서현님의 다음 글도 기다려지네요 :)
노경민(빅데이터) 나미야 잡화점이 떠오르는 글이네요! 저라면 누구한테 연락할 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2023/11/02

thursday, am 10:34 | 18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4일차
[배달]
배달하면 배달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배달의민족이라는 앱이 활성화되면서 앱으로 배달을 하고 편리하게 받는 시대가 됐다. 어렸을 땐 직접 전단지를 찾아서 전화를 하고 음식을 시켰다. 알고 있는 음식점이 많지 않아서 음식 맛이 좋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주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앱이 활성화되고부터는 음식점을 찾기도 수월하고 음식에 대한 평가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떡볶이를 시켜 먹은 적이 있다. 비가 오는 날이라서 배달이 지연되었지만 아직 식지 않았고 매장에서처럼 따듯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실제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떡볶이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 비 오는 날에
배달 기사님이 얼마나 안 잡히고 배달
기사님의 고충도 알고 있어서 매장의 상황이
이해가 잘 갔다. 비가 오는 날인데 안전
운전을 하시고 따듯한 음식을 배달해 주셔서
감사했다.

13 5

정우현(인문학부) 배달기사님 최고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배달은 하시는 기사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배달해주시는 기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비 오는 날 택시가 잘 안 잡히듯 배달 기사님도 잘 배차가 안 되는군요...!
노경민(빅데이터) 배달 이란 기능 자체가 점점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볼 수 있는 음식 종류도 확장되는 시대가 된게 실감되네요! 배달 기사님들도 안전히 배달해주셔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2023/11/02
thursday, am 10:53 | 17읽음
이주영(디미콘)

#4일차 #배달

어제 집에서 나가기가 귀찮아 샐러드를
배달시켜 먹었다. 샐러드를 배달시키려고
보니 알뜰 배달이라는 서비스가 생겼다.
예전부터 배달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다. 하지만 물건만 딱
놓고 가는 걸 보고 배달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뺏는다고 생각했다. 예전엔 배달도
얼굴 보면서 받았는데 비대면 결제로 집 앞에
놓고 간다. 포장보다 배달을 선호하고, 옷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배달은 소통의 기회를
줄이고 사람들과 접촉을 줄인다.또한 배달의
순기능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줄인다. 배달말고
포장을 통해 사람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음식이나 물건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더욱 맛있고 행복한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 4

정우현(인문학부) 긍정적이시네요
박지원(사회학과) 배달이 증가할 수록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줄어든다니, 그건 생각치도 못했네요. 조금 슬프네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배달이 가지는 양면을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알뜰배달 외에도 한집배달 방식도 생겼더라구요! 앞으로 또 어떤 배달 방식이 나타날지 궁금해져요ㅎㅎ

2023/11/02
thursday, am 11:01 | 17읽음
홍다연(정치행정)

#4일차 #배달
저는 배달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과거의 인물들에게 온 편지를 읽고
답신을 보내는 세 명의 도둑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둑들은 그들의 편지를
읽고 그에 맞는 답신을 쓰며, 그것을 우편함에
넣는 간접적인 '배달'행위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편지를 '배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의 순기능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근처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 이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해보았습니다.
널담이라는 브랜드는 대학교 창업 동아리로

시작한 브랜드로,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단'으로 책을 선택하여 상대방을 50가지 주제에 담아내는 책을 기획하고 판매합니다. 이들은 카페를 구상할 당시 각자의 기념일에 맞게 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고안해내어 카페 내부에 편지함을 제작하여 배치했습니다. 널담의 핵심 서비스인 '1년 뒤 편지 배달'은 작년에 좋았던 기억이 한번 더 전해져 그 기억을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키워드에 대한 글을 작성하며 저의 마음을 배달하는 방법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고, 앞서 말한 편지 외에도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12 4

정우현(인문학부) 편지 좋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그 책을 한 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네요!! 따뜻한 활동인 듯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연님의 글을 보니 해당 책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나미야 잡화점 읽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비슷한 공간을 찾으시는 정성 최고에요!

2023/11/02
thursday, am 11:45 | 15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4일차
나에게 가장 꿈이 많고 세상이 커 보이던 시절, 매년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든 배달부 할아버지가 있다. 빨간 옷에 흰 수염이 포근한 할아버지가, 루돌프가 끄는 썰매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한가득 싣고 밤에 몰래 선물을 전해주고 간다.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는 '선물'이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며 겨울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 어느 날, 엄마가 나한테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갖고 싶냐' 물으셨다. 당시 '슈가슈가룬'을 좋아했던 나는 '쇼콜라 펜던트가 갖고 싶다'고 얘기했다. 엄마는 웃으며, 할아버지께 이 선물 원한다고 편지를 써서 보낸다 하셨다. 나는 너무 기뻤고 2주 정도 남았던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렇게 크리스마스이브가 되었고, 산타 할아버지가 초코 쿠키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듣고 어린이집에서 부직포로 만든 큰 양말 안에 초코다이제를 넣고 잠에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당시 2층이던 우리집 계단으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에 깨어났고 산타할아버지라 생각해 두근거리며 자는 척을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집 문이 열리고 내 방 앞에 인기척을 느끼고 산타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문을 확 열었다. 고개를 찬찬히 들어보니 빨간 옷은 없고 포장된 선물을 들고 있는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지금 생각하면 그보다 허무한 기억은 없을 것 같다. 그날은 새벽이 가도록 울었다. 이후에 산타할아버지는 없다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고 선물 받은 슈가슈가룬 펜던트는 한동안 내 목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배달부였던 산타 할아버지는 그렇게 떠나갔고, 돌이켜보면 딸을 위한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추억이 되었다.그래도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 방 정말 열심히 꾸몄는데-__-. 어른이 된 지금, 올해는 사촌 동생에게 선물 배달부가 되어볼까 한다.

9 4

홍다연(정치행정) 제 유년시절의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글이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크리스마스에 롤러스케이트를 받고 싶다고 쓴 편지가 아직도 기억 나네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연말에는 누가 뭐래도 산타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거 같네요! 배달이란 키워드로 산타할아버지를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덕분에 크리스마스가 더욱 기다려지게 되요!

2023/11/02
thursday, pm 12:00 | 17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4일차

세월이 지나고 마차와 비행기, 열기구 등 인간의 상상이 현실의 산물로 나아가고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 신문을 걸어서 배달하던 알버트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마차에 몰래 탑승하여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마다 자신만의 거점에서 몰래 마차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간혹 순찰 중인 경찰이 먼저 지나치면 숨을 죽이곤 했다. 밤에 돌아다니는 자는 수상하기 때문이었다. 늙은 마부가 이끄는 마차에 올라타 정해진 집집마다 신문을 던졌다. 밭으로 나가는 농부가 이를 기이한 눈빛으로 보기도 했었다.

손쉽고 신속한 배달로 큰돈을 벌게 된 알버트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장난감 가게를 매입했다. 자신과 같은 성씨의 브라운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비록 그는 운명했지만 그의 형이 가게를 관리하고 있었다. 알버트의 장난감 가게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이에게 무료로 무작위의 장난감을 선물하기로 유명해졌다. 새하얀 눈이 내리고 가게가 문전성시되던 어느 날이었다. 종일 바쁜 알버트를 누군가 불렀다. 손님이 아닌 브라운의 형이었다.
"내가 있을 때보다 어째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소?"
흐뭇하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알버트도 그것이 기뻤다.
"네, 원한다면 집까지 배달도 하거든요. 누구나 어디서든 장난감을 즐길 수 있죠. 아저씨도 하나쯤 골라봐요. 아들이나 딸에게 줄 선물 말이에요."
"알버트 씨, 그건 나중 일입니다. 가게가 휴무인 날 브라운 가의 저택으로 찾아오세요."
말의 의중을 알 수 없었으나 몹시 호의적이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알버트는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continue....

◇ 이 단편은 전에 게시한 브라운의 장난감 가게와 이어집니다.

7 3

임미혜(사회복지학과) 1편의 어린 알버트가 성장해서 그 장난감 가게를 샀군요! 어릴적 장난감을 건네준 주인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이어받아 크리스마스에 선물하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다음 편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할게요
박지원(사회학과) 헉!! 전에 게시한 브라운의 장난감 가게와 이어지는 내용이라니!! 알버트도 똑같이 그 마음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11/02
thursday, pm 12:06 | 17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4일차
배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전 짜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어릴적에 배달음식은 짜장면이 근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ㅎ. 배달비가 없던 시절..전화로 주문해 사장님이 배달을 오시던 시절이 10년 남짓 지나지 않은것 같은데 어느덧 시대가 빠르게 변화해

배달비 3천원이 기본이 된 세상이 된게
조금은 씁쓸하지만 그만큼 기술이 발전 했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요즘 배달비가 너무 많이
올라 배달을 잘 시켜먹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나도 빨리
적응 해야지 싶기도 해요ㅎㅎ 그래도 예전이
참 많이 그립네요.

어떻게 보면 배달일 이라는 새로운 업이
생기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또 손실이
생기고,,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직업의 다양함, 직업의 미래도 빠르게
변하는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저의 미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해요.
로봇들과 인공지능이 만무하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해 고민하는게 현
시대의 청년들 아닐까 싶어요:)

☺ 9 ⋯ 5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저는 어릴때 그 전화를 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그래서 늘 먹고 싶어도 꾹 참았었는데 요즘은 어플로 모든지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면서도 과거가 그립기도 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지호님이 멋져용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요즘 배달팁이 너무 비싸서 한 번 배달시킬 때마다 손을 덜덜 떨며 시킨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배달비도 너무 올라서 항상 배달 시키기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 조금 많이 슬프네요.....
김현지(경영) 저도 배달의 시작은 자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지호님의 글을 읽으니 오랜만에 뜨끈한 중식음식이 생각나네요ㅎㅎ

2023/11/02
thursday, pm 1:49 | 15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4일차
기숙사에 살기 전까지 내게 배달은 굉장히
생소했다. 포장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간편식이나 집밥을 먹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8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간편식을 보관할 냉동실이 없는 건 물론이고,
조리실도 존재하지 않아 룸메이트와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게 일상이 되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8관에도 조리실이
생겼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아 발길이 안
닿는다.
1학년 2학기 때, 만났던 룸메이트는 당시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게 많은
맛집을 알려줬었다. 함께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떡볶이는 어디가 맛있고,
닭볶음탕은 어디가 최고라며 춘천이 낯선
내게 다양한 음식점을 소개해줬다. 도장
깨기를 하듯 하나하나 배달을 시켜서
맛봤는데 정말로 다른 곳보다 맛있어서
상당히 즐거웠다. 룸메이트가 이런 게 선배의
역할이라면서 뿌듯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자기도 잘 모르지만, 맛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안다면서 꼭 후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했었다.
고학년이 된 후,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났을
때, 나도 그녀와 같이 배달 어플을 열면서 각
메뉴에 따른 음식점을 소개해줬다. 꾸준히
맛집이 전승되는 게 웃기기도 했고, 가끔
사라진 음식점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다.
최근에도 이전에 소개받았던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1학년 때 처음으로
먹었던 메뉴라서 유독 이전 룸메이트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마치 추억을
배달받은 기분이었달까. 요즘도 연락하고,
가끔 만나는 친구였지만, 그 당시에는 유독 더
그 룸메이트가 그리웠다.

☺ 9 ⋯ 7

정우현(인문학부) 추천좀요 !!!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정우현(인문학부) 닭볶음탕은 '닭장', 떡볶이는 '미화네'도 추천받았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조심스레 맛집 하나 추천드리자면,,,, 평창한우 -갈비탕 맛집 / 조부자 -순대국 맛집 / 순두부 맛집 -콩이랑두부랑 / 짬뽕 -도원 입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이제는 주변 음식점들이 사라지면서, 자주 먹던 배달 음식도 사라진다고 느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그립다고 느껴요
김현지(경영) 저도 이전의 룸메들이 배달할 때 가끔 생각나더라구요...ㅎㅎ 떡볶이 엄청 먹었는데 그 때가 생각나네요...!
노경민(빅데이터) 함께 지낸 룸메이트와의 추억 너무 좋네요! 저도 그런 룸메이트 만나면 좋을 거 같아요! 넘넘 재밌을 것 같아요!

2023/11/02
thursday, pm 3:09 | 15읽음
문정희(법학과)

#4일차
배달이라는 말만 들으면 설렘이 가득하다.
고민을 하고 주문을 하고,
어쩌면 길지도 모르는 시간 동안 행복한
기다림을 거쳐서
배달 음식을 받는 과정은 설렘만 가득한 것
같다.

코로나 이후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시켜 먹는
요즘.
배달 음식에 중독돼서,
자꾸만 주문하게 되는 나를 보면서,
이번 주 만큼은 직접 요리해서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배달음식을 먹을 때와는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주 만큼은 직접 요리해서
부모님,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배달하는
건 어떨까?

7 4

정우현(인문학부) 인증 부탁드립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배달 중독인 것 같아요 크크.... 정희님 말대로 오늘 저녁은 집밥을 먹어봐야겠어요
김현지(경영) 따듯한 마음을 배달한다는 표현이 예뻐요 :) 정희님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포근해집니다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기숙사를 쓰면서 자주 배달 시켜먹는 것 같아요ㅠㅠ!! 저도 부모님께 따뜻한 마음을 배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02
thursday, pm 3:19 | 19읽음
김서희(심리학과)

#4일차
'배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설레는
기다림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나는 배가 고플
때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정말 빠르게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준다. 배달 기사님들도 친절하셔서
기분도 좋아진다!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해주시는 기사님들께 감사해지는
하루이다.

10 5

정우현(인문학부) 배민 최고죠 어디 자주 시켜먹으시는지 정보좀 알려주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우리나라 배달이 빨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맞아요 라이더님들께서도 친절하셔서 배달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또 친절하게 배달해주시는 기사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ㅠㅠ
노경민(빅데이터) 배달 기사님들 정말 감사하죠! 우리 일상에 편리함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하게 되네요!

2023/11/02

thursday, pm 4:03 | 13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4일차 #배달

"오늘 뭐 먹지?"
"음... 배달 시켜 먹자!"

나와 룸메이트는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곤 했다. 우리 만의 배달 데이랄까? 배달 데이는 월요일을 잘 버텼다는 보상의 의미로 생겨났다.
시키는 음식은 아주 다양한데 마라탕, 돈까스, 삼겹살, 피자, 국밥, 초밥 등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을 모두 섭렵하고 있다.
많이 시키다 보니 우리끼리 어느 음식점이 별로다, 괜찮다, 최고다!라는 나름의 세 가지 평가 기준도 생겼고, 마치 먹방을 찍는 듯 복스럽게 먹으며 웃고 떠들다 보니 점점 배달 데이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 갔다.

배달음식을 자주 시키면 건강에도, 환경에도 좋지 않겠지만 룸메이트와 다양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건 기숙사 생활의 묘미와 특권이라 여겼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하게 먹자는 인식이 강해져 샐러드, 샌드위치, 포케 등의 건강식 위주로 배달 데이를 보내고 있다.
또 환경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인지라 일회용품 수저는 쓰지 않고, 일회용품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고 말려 분리배출을 한다.
배달음식의 아쉬운 점은 중국집처럼 다회용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인데, 모든 음식점들이 다회용기를 쓰는 용기를 보여줬으면 한다!

배달이 주는 편리함과 추억이 좋지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여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2주나 3주에 한 번씩 배달 데이를 갖는 것도 좋겠다. 또는 배달을 줄이고 직접 다회용기로 포장해서 가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지만 가끔씩 건강을 생각하는 채식의 민족 혹은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의 민족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10 6

정우현(인문학부) 그치만 채식은 맛이 없는걸요 건강을 챙겨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룸메이트와 함께 배달 데이라니! 자취하는 저한테는 너무나 부러운 데이네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배달데이 넘 귀여워요ㅎㅎ 저도 모든 배달음식을 다 먹다보니 이제는 샐러드나 포케가 끌리더라구요..ㅎㅎ 다회용기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다회용 용기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담아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친구랑 배달시켜서 먹으면 괜히 더 맛있더라고요! 뭘 시킬지 고민하는 시간도 배달 기다리는 시간도 친구랑 있으면 시간 금방가서 그런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룸메이트와 배달을 자주 시켜먹었요 배달은 편리하시만 용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생각 많이 했었기에 공감하며 글 읽었습니다 !

2023/11/02
thursday, pm 4:08 | 13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4일차
배달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찾아보니
2019년에 발생한 '찰리 시에미의 롤리'
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찰리
시에미의 롤리(Charlie Siem's Rollin')'는
영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찰리
시에미(Charlie Siem)가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라고 한다. 이 활동은 런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찰리 시에미의 열정적인 롤러
스케이팅과 음악적 능력을 결합한
퍼포먼스로, 영국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이벤트의 특징은 바로 브랜드와
협력이었다. 영국의 유명 음식 배달 회사인
Deliveroo와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찰리
시에미는 Deliveroo의 배달원으로 활동하며
고객의 주문을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배달하는 것이다. 찰리 시에미는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며
고객과의 높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8 4

정우현(인문학부) 지은님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롤러스케이트로 배달을 하는 이벤트는 정말 참신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자전거로 배달하는 경우는 봤었지만 롤러를 타고 배달한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광고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배달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요 :) 좋은 정보와 글 감사합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영국에서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확실히 시선이 가는 퍼포먼스라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잘 될 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2023/11/02
thursday, pm 5:49 | 15읽음
김현지(경영)

#4일차 #배달
배달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나에게는
선물같은 존재이다.
"학생 택배 보관실에서 물건 수령바랍니다."
"라이더님이 곧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을 한아름 안고
기숙사에서 하나둘씩 풀어본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좋다.

이번에 받은 선물은 2024년 다이어리와
포케이다.
20살부터 대학생활과 일정을 빼곡하게
기록했다.
올해 졸업예정자로서 내년 다이어리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의 일정으로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을 적고 하나씩 이루는 과정과
내일을 준비하는 내가 좋기에
앞으로도 다이어리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포케는 올해 선정된 최애 음식이다.
그 전에는 샌드위치를 무척 좋아했다.
입안가득 채워지는 신선한 맛이 이유인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밥이 추가되니 취향
저격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포케를 먹게 된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보면
행복한 감정이 든다.
전공 공부하기, 자격증 취득하기, 대외활동도
좋지만
무엇을 좋아하는지,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여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만끽하는 과정이 소소한 행복이다.

8 12

신유정 (심리학과) 다이어리가 너무 예뻐요. 좋은 일 뿌듯한 일이 가득 담기길 바래요
김현지(경영) 신유정 (심리학과) 유정님 응원 감사합니다 :)
이다혜(사회복지학과) 소소한 행복 멋있습니다!
김현지(경영) 이다혜(사회복지학과) 감사합니다! 다혜님의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도 궁금해집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포케 맛있나요?? 제 주변에서 다들 맛있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포케 강추드립니다!! 정말 후회 없으실거에요..ㅎㅎㅎ 지원님의 최애 음식도 궁금합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다이어리가 엄청 예쁘네요~! 좋은 일들만 가득 담긴 다이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은님 감사합니다 :) 지은님도 남은 올해와 앞으로 다가올 날들 모두 행복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20살 때부터 다이어리를 꼭 쓰는데요! 친밀감이 느껴지는 행동을 여기서 볼줄이야!! 기록하는 습관은 저의 성장을 성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노경민(빅데이터) 경민님께서도 파워J이시군요!! ㅎㅎ 다이어리를 쓰고있는 이유까지 똑같아요ㅎㅎ 정말 반가워요 :D
가양선(경영학과) 다이어리 너무 예뻐용 글 잘 읽었습니당
김현지(경영) 가양선(경영학과) 양선님 감사합니다ㅎㅎ 좋은 밤 되세요:)

2023/11/02
thursday, pm 5:50 | 16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4일차#배달

배달

신유정

이것저것 살펴보다
여기저기 둘러보다
드디어 하나 선택

주문완료 하고나니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네

배송준비중 배송출발
언제오지 내일오나
내 마음은 두근두근

오늘 오후 배송 예정
배송완료 문밖으로 나가
택배상자 택배 봉투 열 면

내가 고른 색깔 맞지?
예쁘다 조금 더 살걸
포장지 뜯어 요리조리
그러고는 다시 서랍장 행

며칠 동안 기다림의 설렘

어떻게 생겼을까 기대하는데
나에게 왔을 때
기쁨은 너무 잠깐이다

오늘의 키워드인 '배달' 을 보고 택배 배달을 떠올렸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류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편인데 주문하기 전까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비교하여 신중하게 고른 물건이 나에게 왔을 때 기쁨이 별로 오래가지 않는 아쉬움과 쓸쓸함을 담은 '시' 이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왠지 모르게 슬플 때 우울할 때 배달이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배달 말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오래가는 행복을 찾고 있는 중이다.

11 7

김현지(경영) 저도 문구류는 인터넷으로 배달하는데 도착하면 두근두근하고 넘 기분이 좋더라구요ㅎㅎ 유정님의 기쁨또한 오래오래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유정 (심리학과) 김현지(경영) 감사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재밌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옷을 주문할 때 정말 여기저기 둘러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제했는데, 막상 하고 나면 다른 게 더 이쁜 것 같고... 유정님의 시를 읽으면서 순간 배달주문을 하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네요 ㅎㅎ 잠깐의 설렘을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그렇기에 배달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옷 배달이 왔을 때는 진짜 얼른 집 가야될 것 같고, 택배 봉투를 뜯으면서 너무 급해서 이상하게 뜯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저도 문구점 가서 문구류 쇼핑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공감가는 글이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저는 어떤 택배인지 알고 있는데도 직접 만나게 되는 설렘이 너무 좋아요!

2023/11/02
thursday, pm 5:51 | 17읽음
가양선(경영학과)

#4일차 #배달

배달은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존재 같다. 요즘은 음식, 옷, 가구 등 모든 것이 다 배달이 가능하니 그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오늘 생일인 친구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생일 선물을 줬다. 멀리 떨어져 있기에 직접 만나 축하하고, 선물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축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11 6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어제 친구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생일 선물을 보냈는데 배달이 일상화되니 정말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예전에는 배달이라는 개념이 음식에만 거의 국한 되어 있었던 거 같은 데 요즘은 해외에서도 전자제품이 배달이 될 정도로 그 개념이 정말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배달 덕분에 하루하루가 편해져서 참 좋네요 ㅎㅎ 배달이 저희 일상에 일부분이 된 것만큼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도 드는 시간이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이제는 배달이 음식보단 친구의 선물도 배달하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저도 카톡 선물하기로 종종 마음을 선물하는데 양선님의 글을 보니 이전의 고마움들이 생각나네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특히 카카오톡의 위시리스트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민망하게 제가 갖고 싶은 걸 티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ㅎㅎ
노경민(빅데이터) 배달은 확실히 챙겨줄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 같아요!

2023/11/02
thursday, pm 6:24 | 18읽음
이유빈(사회학과)

#4일차 #배달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와 부우웅 하는 트럭 소리가 들려온다면 행복함이 배가 되기 시작된다. 배달이라는 단어는 설렘을 가져다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음식 배달과 택배 배달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리듯이 기다린다.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다는 것!

음식 배달 기사 분들과 택배 배달 기사 분들과 같이 우리가 설렘을 기다리면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설렘을 담아 감사하다는 한 마디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서로 행복함이 2배가 아닌 3배, 4배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또 어떤 설렘과 기쁨들이 배달될까?!

12 6

정우현(인문학부)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금 사는 저희 집은 배달이 안 돼서 설렘과 기쁨을 느낄 순 없지만 예전에 배달을 엄청 많이 시켜 먹었을 때 오토바이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기억이 나요!! 배달을 시키고 나서 창문에 귀를 대고 내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 오토바이는 어디쯤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곤 했어요ㅎㅎ 지금은 추억이 되었지만 가끔은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그립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배달 시킨 후 밖에서 오토바이 비슷한 소리가 나면 귀부터 쫑긋하게 되더라구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맨날 빠르고 친절하세 배달해주시는 기사님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면서 인사를 전해요~ 인사를 전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김현지(경영) 맞아요 서로가 기분 좋은 인사를 주고받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노경민(빅데이터) 저도 기사님께 감사하다는 문자를 꼭 남겨드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답장을 주시는 기사님께도 너무 감사했었어요!

2023/11/02
thursday, pm 6:28 | 15읽음
박지원(사회학과)

#4일차 #배달

배달

배달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무한도전의 '베달의 무도'특집이 생각났다. '배달의 무도' 특집에선 무한도전 멤버들이 사연을 받아 손맛이 담긴 추억의 음식을 배달해줬던 특집이다. 당시 시청자들에게 웃음뿐만 아니라 많은 감동을 줬던 특집이었다.

'배달의 무도' 특집은 추억의 음식, 그리운 맛 등 음식을 배달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같이 배달하였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배달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 기억이 있나요?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정성스레 포장하여 배달을 한다면 어떨까. 배달 도중 나의 마음이 낯선 곳으로 새어나간 건 아닌지, 상대에게 내 마음이 닿았을까 만약 상대도 나와 같다면 당신도 조마조마하고 있진 않을지 생각이 들

것이다.

당신도 마음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9 6

조석환(심리학과) 배달비 없는 배달도 추억이었고, 무한도전도 추억이었는데 뭔가 씁쓸하네요
신유정 (심리학과) 마음도 배달도 목적지에 항상 안전배송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닌 도시락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혹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배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지 도시락을 포장 할 때도 그분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 같네요ㅎㅎ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원님 덕분에 제가 마음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노경민(빅데이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음을 먼 곳에 보는 사람도 그 정성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도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글이네요!
가양선(경영학과) 배달의 무도!!너무 추억이네요 ㅠㅠ 감동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2023/11/02

thursday, pm 6:35 | 16읽음
조석환(심리학과)

#4일차
한적한 주말의 오후. 밥솥은 텅텅 비어 기아에 굶주리고 있고, 냉장고 안은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다. 주말이라서 해먹기도 사오기도 귀찮다. 슬리퍼를 질질 끌어 실크로드 같은 현관문으로 갔다. 덕지덕지 종이 한 장으로 붙어있는 전단지들. 어디 마트에서는 세일을 한다고 하고, 어디 식당은 신장개업 했다고 자랑하고, 또 어디 식당은 총알 배송이라고 자부심을 가졌고, 어디 식당은 며느리도 모르는 맛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다. 어차피 한번은 떼어 버려야 하는 것들이니 배달을 시킬겸 하나하나 살펴 보았다. 돈까스는 썰어 먹기 귀찮고, 백반은 어제 집밥을 먹었으니 안땡기고, 치킨은 저녁에 먹어야 맛있고, 피자는 뭔가 애매하고. 역시 배달은 중국집이 해답인것 같다.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쭈욱 훑어 봤다. 자장면, 짬뽕, 우동, 울면, 기스면, 간짜장, 자장밥, 짬뽕밥, 볶음밥, 마파두부덮밥, 당수육, 깐풍기, 라조기, 양장피, 쟁반짜장, A세트, B세트 등등. 뷔페 못지 않게 다양하고 수 많은 음식들이 5~평 남짓한 주방에서 한명의 요리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역시나 무궁한 가능성이 잠들어있는 중국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먹고 싶은 것은 많고, 수중의 현금은 많지 않으니 처음으로 돌아가 자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고르기로 했다. 자장면과 짬뽕을 같이 먹을 수 있게 반반으로 된 그릇으로 팔면 꽤나 획기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자장면과 짬뽕 사이의 줄타기를 하며 고민을 하다가 좀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짬뽕을 골랐다.
무엇을 먹을지 다 골랐으니 나는 수화기를 들어 전단지에 적혀 있는 번호를 순서대로 끼워 맞춰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무덤덤한 목소리로 이미 출발 했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뚝 끊겼다.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출발 했다고 하니 그 중국집이 무서웠다.
https://www.youtube.com/watch?v=UWHDhfiVXrs

하찌와 TJ 짬뽕배달 M/V
www.youtube.com

#배달

9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짬뽕을 굉장히 좋아해서 중식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 짜장면이 땡길 때도 있는데 두 그릇을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늘 짬뽕만 시켰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더라구요!! 저한테는 정말 획기적이고 감사한 음식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짬짜면만 먹었던 것 같아요ㅎㅎ요즘에도 파는 곳이 거의 없던데 조금 아쉽네요...석환님의 글을 읽다보니 짬뽕이 땡기는 날 이네요ㅎㅎ글 잘 읽었어요!!

조석환(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배달비도 없고, 배달 책자도 없고, 짬짜면 그릇도 없었던 철없는 어린 시절때로 돌아가서 써봤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 점심부터 뚝배기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내일 먹기로 약속하고 밴드를 열어보았는데 중국집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내일 제 몫까지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석환님의 글을 읽으니 오랜만에 짜장면이 땡기는 밤이네요.. 요즘은 중국 음식하면 마라탕, 탕후루만 찾는 것 같아요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낭만의 시대를 풍미했던 중국음식이 점차 안보이게 되는게 슬퍼지네요

2023/11/02
thursday, pm 7:37 | 13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4일차 #배달

'배달'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배달의 무도'가 떠올랐다.

어릴 적 토요일 저녁마다 꼭 챙겨봤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무한도전은 최고시청률을 기록한 여운이 남는 예능으로 불리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었던 이 예능 프로그램은 최고였다.

무한도전 콘텐츠 중에서 외국으로 떠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연을 받아 신중하게 선정하여 해당 나라로 직접 멤버가 가서, 의뢰자가 부탁한 내용을 대신 전해주는 내용의 '배달의 무도'가 있다.
선정된 사연 중 가봉에 30년 넘게 타향에 거주하셔서 어머니를 뵐 수도 없었을뿐더러 어머니의 소중한 밥을 먹지 못한 사연이 있었다. 멤버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의 요리법을 배우고 영상편지와 손편지를 받아 아프리카 가봉까지 가서 음식과 어머니의 마음을 배달했다.
손만둣국과 김치 등 다양한 반찬까지 들고 가서 조리하고, 어머니와 비슷하게 분장도 한 뒤 마음을 전달했다.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음식이라는 것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맛있게 드셨고, 영상편지와 손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품까지 그대로 전해 받았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어머니가 그리울까. 어머니의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소중하고 따뜻한 아들을 향한 마음을 전달한 멤버가 존경스럽다.
한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전달력 등이 필요하다.

기회가 된다면 필자도 위와 같이 소중한 마음을 배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9 6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배달의 무도 정말 따뜻한 콘텐츠였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네요.
정우현(인문학부) 오 기억나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사실 무한도전을 잘 보지 않아서 배달에 무도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민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참 따뜻한 예능이 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소중한 마음을 배달 하고 싶다면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도 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뿌듯하고 좋은 봉사였어요! 한번쯤은 해 보길 추천 드려요!! 글 잘 읽었습니다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배달의 무도를 보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배달의 무도 특집이 생각났어요!! 정말 재밌고 따뜻하고 감동적인 특집이었죠 ㅠㅠ 그립네요 무한도전...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배달의 무도 참 재밌게봤는데 공감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2

thursday, pm 7:38 | 12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4일차 #배달
"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배송 예정입니다."
옷을 너무 많이 주문한 탓인지 기사님과 주고받은 연락이 흘러 넘친다. 내 또래로 보이는 기사님과 형성된 내적 친밀감은 어느덧 경지에 올랐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좋은 말들만을 주고 받는다. 어쩌면 우리는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방금도 문자가 왔다.
"고객님의 상품이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친구야.

9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예전에는 그 문자의 매력을 몰랐기에 엄마 핸드폰에 띠링 하고 문자가 올 때면 짜증이 났었어요. 그런데 쇼핑 의 매력에 빠진 현재는 항상 그 문자만을 기다립니다ㅎㅎ절 설레게 하는 소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한동안 쇼핑에 빠져 있었을 때 저를 행복하게 했던 문자이기도 하네요ㅎㅎ덕분에 공감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같은 기사님이 배달해주시면 내적 친밀감이 많이 들곤 하죠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매일 같은 기사님께서 배송을 해주시다보니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오늘도 택배가 도착했네요~~^^^^**
김현지(경영) 저도 기사님과 내적친밀감이 생겼습니다ㅎㅎ 항상 놔주시는 그 자리에 오늘도 제 택배가 놓여있네요...ㅎㅋㅎㅋ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택배문자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글 잘 읽었어요

2023/11/02
thursday, pm 7:38 | 13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4일차 #배달

'배달'은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입니다.
이와 관련된 제 웃픈 경험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자취 2년차입니다. 서울에서
살고있는 저는 본가에서 춘천으로 오려면
저녁밥을 일찍 먹고 2시간이 지나야 춘천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웃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가에서 분명 밥을 먹었는데,
많이 걷지도 않고 경춘선에서 앉아서 오는데
대체 왜 배가 고픈걸까요?

어느 날, 저는 자취방에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배달앱을 켜고 뭘 시켜먹을까 하며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춘천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어찌나 가볍고
행복하던지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떡참이라는 분식을 먹기로 결정하여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을 놓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눈을 떴는데 날이
밝아있었습니다.
눈을 떴을땐 아무런 생각과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켜자마자 문자에 알림이
와있더라고요.
'주문하신 음식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자마자 집 현관에 놓인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떡볶이는 다 굳어있고, 튀김이 들어있는
봉지는 기름으로 다 번져있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좋다는 생각으로 점심으로 떡볶이를 냄비에
데워 먹었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전 날 저녁에
먹었다면 살찐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있었겠지만, 하루 지나서 점심으로 먹으니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배달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 8 💬 5

정우현(인문학부) 놀랍네요..맛있게드셧으면
만족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웃픈 얘기네요ㅎㅎ 그만큼
다혜님이 피곤 하셨기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가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잠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더 공감이
갔어요ㅎㅎ그래도 맛있는 음식은 식어도 정말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랑곳 하지 않고 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ㅎㅎ덕분에 저도 제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렸을 때 일이라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으면서
잠든 적이 있다고 엄마께 전해들었어요ㅎㅎ 아마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게 잠드는
것 같아요 크크,,,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저도 집에서 밥을 먹어도 춘천역에
도착하면 배가 고프더라구요 그래두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어머나... 다혜님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맛있게 드셨으면 다행이네요!!! 그날은 정말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ㅠㅠ

2023/11/02
thursday, pm 7:45 | 16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4일차 #배달

[요리는 형, 배달은 동생]

"안녕이라고 형한테 인사해야지"

10살 무렵. 동생이 생겼다. 늦둥이는 아니고
나와 2살 터울이라고 한다.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지 1년후
아버지에게는 사별의 슬픔을 달래주던
절친한 친구분이 계셨다. 우리집에 자주와서
밥도 해주고 나와 같이 놀아주며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던 이모가 내 진짜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동생을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와 그 이모는
친구관계인줄만 알았다. 8년이나 나는
동생의 존재를 모르다가 내가 혼자 라면을
끓일수 있게될 무렵 동생과 이모는 나의
가족이 되었다.

"형아 안녕?"

"응 그래 반갑다"

사실 반갑지 않았다.
정확히는 낯설었다. 근데 동생은 낯을 가리지
않는듯 했다. 아니 낯가림이 뭔지 모르는듯
하다. 동생의 쾌활한 성격에 나는 마음을
붙이기가 더욱 어려웠다.

나는 동생과 친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이제는 엄마가 된 이모)은
재혼한지 약 7일만에 사고로 두분다
돌아가셨다. 원래부터 고아였던 아빠와
이혼한 남자에게 시집간 나쁜년으로
소문났던 새엄마이자 이모는 가족과 연을
끊은 상태였다.

우리를 돌봐줄 부모님의 친구들도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너희 형제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거야. 서로 의지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는"

고아원 원장님의 말씀이었다.
아버지도 고아원 출신이라 했다. 어쩌면 우린
아버지의 고향으로 온거다. 고아원 원장님이
나의 조부모님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고아원은 아동을 돌보는 곳이다. 아동의
나이를 넘겨버리면 더이상 고아원에 있을 수
없다. 다행히 우리는 고등학교 까지는
문제없이 다닐수 있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감각이 예민한
편이였다. 청각과 후각, 미각 촉각 모두. 그런
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아 나는 요리쪽에
관심이 생겼고 언젠가 나만의 식당을
운영하고 싶었다.

동생은 나와 다르게 어렸을적부터 곧장
활기찼다. 어린나이의 혈기를 누가 말릴수
있으랴 어릴적부터 친구들과 쌈박질을
하다보니 어느새 지역에서 알아주는
싸움꾼이 되었고 자연스레 나쁜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내가 고아원을 나올 나이가 되었을때 동생도
함께 나오게 되었다. 고아원에선 동생이

없는게 반가운 편이었나 보다.

"김진우. 이제 사고 그만치고. 형은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잡일부터 다시배울꺼야. 거기서 숙식도 제공해주기로 했어."

"나도 뭐 내친구집에서 같이 지내기로했어. 거기도 우리처럼 부모님이 안계시니까 월세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충당할꺼고. 아 학교는 자퇴하기로했어. 어차피 맞지도 않고 부모님이 안계시니까 자퇴서류 작성할때도 쓸게 별로없어서 편하더라"

"그래. 자주 연락할게. 내가 돈벌어서 집구하면 그때 다시 같이살자.

"뭘 징그럽게 같이살아. 살아만 있으면 됐지. 잘살아 형. 나도 잘살고 있을게"

내가 일하던 중식당은 나름 노포로 유명한 곳이었다. 주방장 할아버지 혼자 운영하는데 주방도 좁고 테이블수도 많지 않았다. 아내도 없이 늙은이 혼자 식당도 운영하고 살림도 같이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다보니 집안일과 주방일, 잡일을 모두 도맡아 하는 조건으로 숙식과 일자리 모두 제공받게 되었다.

7년정도 일했을 무렵. 주인 할아버지는 가게를 운영할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는 자식들있는 곳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됐는데 그바람에 가게를 싸게 인수할 수 있었다.

기존의 간판 그대로 쓰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간판부터 고쳤다. 집도 내가 살던 짐이 그대로 있어 사람한명만 나간 꼴이다. 이제 새 사람을 들이면 되지.

"너 우리가게 와서 배달좀 해라"

동생은 일자리 핑계로 같이 불러다가 배달일을 시켰다. 원래부터 자퇴하고 배달일만 하고있기도 했고 내심 자존심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형하고 같이사는게 좋았겠지.

가게는 생각 이상으로 잘됐다. SNS를 통해 맛집소개로 홍보가 잘 되어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서 맛집으로 소문나 사람들이 몰려왔다.

'거리의 숨은 맛집, 형제 반점'

내 입맛이 예민한 탓에 요리하나는 자신있기도 했지만 이정도로 잘될줄은 몰랐다. 이제는 방송국에서 찾아와 가게를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한다.

"가게는 혼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배다른 동생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라 표현했을까. 긴장한 탓이었을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뱉고 나서 오랜만에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tv에 방송이 나왔고, 나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아니요 배달은 동생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되서 가게를 운영하는게 참 보기좋네요! 요리는 형이, 배달은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 배달은 동생이...

뭐 둘다 맞는말이다.

배달...배달... 키워드를 받은 후 배달이라는 단어를 입에 맴돌도록 계속 뱉다보니 배달은, 배다른이 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떠올렸고

말장난 심아 배다른 형제를 주제로 짧은
소설을 한편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의미를 지닌 글도 재밌지만 이렇게
말장난으로 떠올린 아이디어로 쓴 글도
쓰면서 굉장히 재밌게 작성할수 있었습니다.

9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궁금 하던 찰나에 발음 하나로 피식 웃게 되는 글이었네요ㅎㅎ이 글을 읽어 보면서 한 번 직접 말로 해 봤는데 진짜로 발음이 비슷하더라구요!! 되게 신기 했었어요. 덕분에 색 다른 시선으로 글을 읽었네요ㅎㅎ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배다른 동생... 글 읽으면서 직접 발음해보니 너무 비슷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ㅋㅋㅋ배달에서 그런 생각을 해내시다니! 마지막에 피식하고 웃었네요. 잘 봤어요
김현지(경영) 우왓 생각지못한 발상이에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02
thursday, pm 8:39 | 18읽음
정우현(인문학부)

#4일차
나는 배달기사, 택배기사님이 싫었다. 그냥 불친절해 보였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으면 숨 막혀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기 싫은 사람 1위였다.

올해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택배기사님이랑 다툼이 생겼었다. 반품 물건 안 내놔서 헛걸음 하셨다는 기사님의 불만 섞인 분노의 전화가 온 것이다. 내 딴에는 귀찮아서 늦을 수도 있지 하며 그렇게 화를 낼 인인가 억울함을 느꼈다.

지금은 기사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명동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대한통운 기사님이 택배를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하며 대단함을 느꼈다. 다른 곳에서 택배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 하시는지 몰랐던 것이다.

내가 사는 옷과 물건,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배달기사님, 택배기사님들이 없었다면 절대 받지 못했다.

택배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외국에서만 파는 물건을 외국까지 직접 가서 사고 왔을 수도 있다. 옷도 직접 입으러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시켜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까지 가능하다.

택배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편리한 삶은 없었다. 택배기사님들의 노고가 요즘따라 참 감사해진다. 무엇 하나 당연히 얻어야 할 대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 하나 쓸모없는 직업은 없고

보임이 쉬워진다!

택배기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무시는 당할지언정 나에게 있어 최고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택배기사라고 말할 것이다.

택배기사님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집으로 가면서 어떤 물건이 와있을지 기대하는 나는 도파민 중독자다. 음식과 물건과 옷 그리고 도파민을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은 나의 최고의 파트너다.

9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처음에는 내일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는 택배 기사님들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하루 종일 고생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진 것이 부끄럽더라구요. 그 이후로는 집으로 택배를 배달 해 주는 기사님을 보면 항상 캔커피를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그 행동을 한 이후로는 모든 기사님들이 저에게 정말 친절하시더라구요! 그동안은 왜 그러지 못 했는지 후회 되었지만 앞으로의 시간 동안은 지금보다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크크 사진하고 글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저절로 웃음이 났네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자가 택배기사님이 보내주시는 배달 완료 문자예요ㅎ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가끔은 무뚝뚝한 기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바쁜 삶을 살고 계시고 많이 힘든 일을 하시기에 이해해요
김현지(경영) 로켓배송이라는 말처럼 기사님들 업무량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2023/11/02
thursday, pm 9:01 | 10읽음
홍은기(영문학과)

#4일차
어제는 계속 기다리던 택배가 배달됐어요!
발목 위까지 오는 가죽 부츠인데 선 주문 후 제작이라 3주 가까이 기다린거 같아요.
작년부터 눈에 담은 부츠인데 1년이 지난 후 사니까 가격이 10만원이나 올랐어요...
내일은 처음으로 새 부츠를 신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5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집에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가장 반가울 때는 택배가 올 때인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기분을 몰랐는데 쇼핑이라는 개념을 알고 난 뒤 부터 택배 오는 소리가 정말 반갑더라구요!! 그래서 인지 내일 새로운 부츠를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 하는 은기 님이 모습이 상상 되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 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내일이 너무나 기대가 되겠어요! 저도 새 옷을 입거나 새 신발을 신은 당일은 아무 이유없이 기분이 좋더라구요ㅎㅎ 은기님도 내일은 아무 이유없이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오늘 본가 왔는데 기숙사에 택배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얼른 가야겠어요
가양선(경영학과) 내일 새 부츠 신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3/11/02
thursday, pm 9:06 | 11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4일차 #배달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봉사를 하러 가는 기관이 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다. 그 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주 도시락 배달을 하는 날이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분주해지신다. 경로식당의 식탁 위에는 도시락을 담기 위한 가방들이 펼쳐져 있고 열기가 가득한 주방에선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다. 배달을 가기 위한 도시락이 하나 둘씩 완성되기 시작하면 복지관의 주차장에는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오신 분들의 차가 들어온다. 따끈따끈한 도시락 가방을 들고 트렁크에 실으면 배달 준비는 다 된 것이다.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뒷정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분들의 행동이 의아했다. 그저 도시락 배달일 뿐인데 그 분들은 몸이 여기저기 아플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급여 없이 그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셨다. 난 너무 궁금했다. 무엇이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일까? 궁금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조심스럽게 여쭈어보았다.

"누군가에겐 도시락 배달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에 그 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의 한 마디는 그저 아무생각 없이 봉사를 해오던 나에겐 큰 깨달음이었다. 그 분들이 배달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힘이었으며, 혼자인 당신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배달하고 있는 것이었다. 비록 도시락 한 통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한 통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 그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힘든 순간들이 있어도 웃음으로 이겨내고 꾸준히 봉사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동안 봉사를 하면서 내가 가졌던 마음가짐이 부끄러웠다. 그저 봉사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나였기에 그분들이 가진 마음은 내 눈에 정말 빛나 보였다. 진정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가치 있는 봉사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의 변화가 생긴 이후로 난 그분들을 나의 봉사 롤모델로서 바라보고 존경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단순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에 그 마음가짐을 이어받고 싶었다.
겨울방학이 되면 다시 그 기관에 가서 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 마음도 함께 담아서 보내고 싶다. 그리고 보다 의미 있는 봉사를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싶다.

7 6

김경회(국어국문학과) 멋진일을 하고계시는분의

멋진글 잘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하영님의 봉사를 응원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하영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건 정말 대단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라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네요
고다인(중국학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텨낼 힘이 되는 배달이네요~글 잘 읽었어요
정우현(인문학부) 같이 봉사 가면 재밌겠네요~
가양선(경영학과) 봉사하시는 거 너무 대단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당

2023/11/02
thursday, pm 10:02 | 11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4일차 #배달

배달의 민족, 주문!

이젠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든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인기 많은 식당의 끊임없는 배달 알림은 소음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어릴 적 배달 음식은 중국집, 치킨, 피자가 전부였다. 배달은 어디까지나 서비스의 일부분에 불과했고 추가 요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배달앱을 켜 아무 곳이나 눌러보면 배달비가 기본 3,000원부터 시작하며 간혹 7,000원도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껴 방문 포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이젠 포장비를 받기까지 한다. 배달대행업의 탄생으로 많은 것이 편리해졌다지만 늘어나는 수수료와 그에 따른 배달비 인상으로 오히려 점주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것 같다.

☺ 6 ⋯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맛집 들어가면 저 소리가 밥 먹고 나올 때까지 울리더라구요ㅎㅎ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직접 포장해서 사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ㅠㅠ 슬프네요.. 그래도 끊을 수가 없는 배달.....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배달 어플의 과도한 수수료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점주분들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요~글 잘 읽었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요식업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023/11/02
thursday, pm 10:29 | 10읽음
라혜민(사회학과)

#4일차 #배달

음식 배달, 꽃 배달 등 우리는 클릭 몇 번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는 나가기 귀찮은 날,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에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기사를 읽은 뒤로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에는 가능한 배달 주문을 하지 않아요.

2020년 9월, 비가 오는 날에 50대 남성이 치킨배달을 하던 중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있겠지만,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배달라이더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에 종속되어 일하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라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피해를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인재를 줄이기 위해 배달라이더 안전교육과 업체 간 과도한 경쟁 배달 줄이기,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고려해야 겠죠. 그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편리함에 취해, 그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을 쉽게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이 배달라이더로 일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클릭하기 전에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잠깐 고민 해보면 어떨까요?

7 5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희 집 앞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유턴하는 차량들이 서있고 앞에 배달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는지 청년이 탄 오토바이가 넘어져있고 음식은 다 쏟아져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잊지 말아야해요

라혜민(사회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에고.. 사고현장을 목격하셨군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일을 해봐요!

고다인(중국학과) 산재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모르고있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그치만 배민을 참을 순 없는걸요.. 참을 수 있다면 참을게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최대한 날씨가 궂은 날은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2
thursday, pm 10:45 | 13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4일차 #배달
택배를 시키고 나면 집까지 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특히나 진짜 원했던 물건을 샀을 때 더더욱이요. 괜히 배달이 언제 오나 택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택배 조회를 몇 번이나 누르기도 해봅니다. 며칠을 배달 완료 문자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바깥에 외출해 있다가 배달이 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집 가는 발걸음이 한 걸음마다 날아갈 듯 기쁜 날도 있습니다.
배달 받는 물건이 직접 살 때보다 더 감흥이 남다른가 생각해 보면, 마치 선물을 받듯 꼼꼼하게 감싸진 박스와 포장지를 뜯는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받는 아이처럼 이 순간만큼은 생각이 단순해지고 들뜨는 기분이 듭니다. 배달 시킨 물건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8 8

배성준(경영학과) 오오! 저도 기숙사에 택배 시키면 언제 오지..? 하고 너무 설레서 오지도 않은 택배 찾으러 들락날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감이 잘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저두 배송조회 새로고침 엄청 눌러보는 것 같아요ㅎㅎ 누르면서 기다림이 설렘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맨날 배달 언제 시작될까하면서 매일 매일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정말 택배는 설레는 것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조회를 여러번 해보는 것이 공감되네요~~

정우현(인문학부) 배달 컴온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운송장 번호가 등록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사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거리곤 해서 너무나 공감 가는 글이었어요!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도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 마냥 들떠있어요 ㅋㅋㅋㅎㅎ

김소은(미디어스쿨) 저도 기다리는 택배가 있는데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2
thursday, pm 11:00 | 14읽음
조영주(간호학과)

#4일차

<너의 배달부>

어느 때나

어디서든
너의 맘에
귀 기울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걸음에
꼭 달려갈게

슬플 때는
위로함을
기쁠 때는
생글함을

한 아름에
움켜쥐고
너에게로
달려갈게

/ 어디서든 너와 함께 하고픈 내가 !

☺ 7 ⋯ 6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배달과 관련된 시라니..!! 너무 신선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배달이 전해주는 기쁨이 느껴지는 시네요~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사랑해 택배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나만의 배달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어요 흐흐 글 잘 읽었습니다!
김경회(국어국문학과) 하상욱 시인이 생각나는 시였습니다! 제목없이 보면 연애편지인줄 알것같아요 잘읽었습니다!
박지호(식품영양학과) 글 너무 잘 읽었어요

2023/11/02
thursday, pm 11:03 | 12학점
고다인(중국학과)

#4일차 #배달

배달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자리잡은지가
오래되었다.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주문하고 잠시 잊고 살다보면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편리함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날들이 아주
많았는 이 소중함을 일깨워준 일이
있었다.바로 전국적으로 택배 회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이다.옷,신발,식품,고양이
사료 등등 아주 많은 물품을 주문하는
나로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빠르면
하루, 평균 이틀이면 내가 필요한 물품들이
신속하게 배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되어버리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파업기간동안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느라 자주 들리지 않았던 대형마트에
직접 가게되었고, 항상 온라인으로 주문하던
우리집 고양이들의 사료와 캔도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해 무겁게 들고오게
되었다.그동안 택배기사님들의 고된 노력과
빠른 택배시스템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게했다.

택배파업 이후로 동네를 지나다닐때 무심코
지나쳤던 택배 트럭에 얼마나 끝없이 많은
택배상자들이 실려있었는지, 가득 실린
택배상자들을 나르느라 기사님들이 땀을
흘리시며 고생하시는지 더욱 눈에
들어왔다.그래서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택배기사님들을 만날때마다 먼저 인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 노력하고있다.

8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인님이 주문하시는 고양이 사료는 아마 다인님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있는 고양이를 위해서이겠죠ㅎㅎ?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요! 글도 잘 읽었습니당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택배 기사님들은 지금도 계속 열심히 고생하시고 계세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하는 것 같아요.

2023/11/02
thursday, pm 11:07 | 11읽음
김준호 (콘텐츠IT)

#4일차
배달.
요즘은 뭐든지 배달시킬 수 있다지만 가끔씩은 배달비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배달 덕분에 아끼는 시간과 귀찮음에 대한 대가가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 가격까지? 싶을 정도의 배달비를 보면 그냥 집에서 요리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배달을 포기하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배달이 가져다주는 이점 중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시간"이다. 다른 어떤 이점보다 시간은 대체될 수 없고 가장 큰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더 빠를수록, 더 사람이 많은 지역일 수록 더 높은 가치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선 더 높은 배달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높은 배달비를 지불하면서도 우리의 시간을 아끼려는데는 그만큼 개개인이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엔 배달 책자에서 음식을 고르고 주문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지금보다 길었고 배달도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해서 딱히 화가나거나 느리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아마 지금의 우리가 비싼 배달비를 내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는 것은 그만큼 예전에 비해 우리 마음속의 여유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6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저도 배달비와 음식 가격이 담긴 장바구니를 보면 가끔씩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랜 마음에 조용히 요리를 시작하곤 한답니다,,,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가끔 음식만큼 비싼 배달비를 보고 멈칫할때가 있어요~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요즘은 배민1 이런식으로 배달비를 더 내고 더 빠른 배달을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준호님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 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2023/11/02
thursday, pm 11:21 | 11읽음
조성현(철학과)

#4일차
배달서비스만큼 편한서비스가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배달이 안오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시골 깊숙한 곳도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국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달을 해야할때는 전화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짜장면을 하나 시키려면 배달 책자를 뒤적이며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배달책자는 이제 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하지도 책자를 보지도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편함이 찾아온 세상만큼 사라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어떤식으로 편함이 다가 올지도 궁금하네요

6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사실 제 이름은 저희 언니가 배달책자를 보고 지어준 것인데요ㅎㅎ,,, 배달책자에서 '지은'이라는 가게 상호명을 보고 이 이름 예쁘다고 이렇게 짓자고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인데 성현님의 글을 보고 다시금 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현(철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이름이 너무 이쁘시네요! 지은님은 배달책에 조금 더 추억이 떠오르실 것 같네요 ㅎㅎ 행복한 기억이 떠올렸다고 해주셔서 제 기분도 좋아지네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항상 배달 음식 시키면 배달책자가 같이 와서, 집에 엄청 쌓였었던 기억이 있네요..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이제는 정말 추억이 된 것 같아요 ㅎ 이제는 못볼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어쩔수 없죠!!

2023/11/02

thursday, pm 11:46 | 10읽음

배성준(경영학과)

#4일차
모두들 아마 배달음식을 한번씩은 살면서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기숙사에 현재 살고 있는데 제 룸메이트 분들도 그렇고 다른 사생분들이 많이 시키는 것도 봅니다. 배달음식을 시키면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의 설렘은 음식을 직접 포장해서 올 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배달음식 외에도 자주 택배도 시킵니다. 옷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식음료도 삽니다. 택배 배달이 왔는지 안 왔는지 휴대폰을 1시간 마다 확인하기도 하고 오지도 않은 택배를 보기 위해 택배 보관실을 들락거리기도 합니다. 아직 배달 온 택배를 열어보기도 전인데 택배를 기다리고 택배가 뭐가 들었을까 상상하는 지금이 왜 더 설레고 행복할까요? 밥을 먹지도 않고 쳐다보기만 해도 배부른 느낌입니다. 부모님이 때때로 반찬이나 옷을 택배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은 음식 배달이나 택배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단순하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것을 보냈을까? 라고 말입니다. 택배를 받아들었을 때는 보낸사람의 반응이 들리는 것 같고 보낼 때의 표정이 가득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배달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게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배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혹시 이런 배달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꿈을 배달해주는 가게가 있다면 어떨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을 꾸면 그 날 하루가 전체적으로 너무 뒤숭숭하고 찝찝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꿈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선택해 꿈을 골라서 꾸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밤 10시에 띵동 하는 소리가 울리자마다 현관문을 열고 밖을 확인해보면 배달기사는 아무도 없고 조그만 소포가 놓여져있습니다. 편지에는 " 오늘도 좋은 꿈 꾸기를 바래. 너가 잘되기를 항상 응원하는 누군가가" 라고 적혀져있을 뿐입니다. 작은 보랏빛 알약과 불그스름한 물약을 한 입에 털어놓습니다. 온몸이 노곤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친구들과 소풍을 가는 꿈을 꿉니다.아침에 깰 때마다 비록 꿈이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나는 배달을 기다리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달 중에 어떤 배달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4 1

박지원(사회학과) 성준님의 글처럼 그런 배달이 존재한다면 행복함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네요 :)

2023/11/02
thursday, pm 11:58 | 13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4일차 #배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배달을 많이 시켰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핑계와 먹는 기쁨
때문에 5일 중 2~3일은 배달 음식을
먹었었다. 즐거운 것도 잠시, 정리할 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고민이 되었다.
게다가 갈수록 플라스틱 용기만 봐도 음식
맛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먹은 음식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는 나
자신이 싫어서 배달 음식을 줄이기로 했다.
배달보다는 식당에 직접 먹으러 갔다.
쓰레기도 배출하지 않고 오고 가며 운동까지
되었다. 움직인 뒤에 먹는 갓 나온 음식은
아주 맛있었다. 왜 아빠께서 항상 식당 가서
먹는 것이 배달보다 훨씬 맛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6 2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편리하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커서 저도 배달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잠깐의 행복을 포기하고 환경과 건강을 위해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가서 먹으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기숙사 생활하면서 배달을 엄청 시키거든요 가끔 다 먹은 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니하면서 제 자신이 싫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소은님처럼 가능하다면 배달보다는 식당에 직접 먹으러 가야겠어요

2023/11/03
friday, am 12:11 | 29읽음
김양선

#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전화로 배달을 요청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배달과 관련된 소소한 에피소드, 그리고 택배와 배달기사님에 대한 생각까지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앱만 켜면 내가 원하는 상품과 음식이 문 앞에 도착하는, 배달 유니버스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 이면에 있는 배달노동자의 어려움이나 환경문제도 생각해보기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16 0

2023/11/03
friday, am 8:24 | 28읽음
김양선

#5일차 키워드 : 최애
최애 : 가장 사랑함. 보통 사람들이 신조어
줄임말인지 알고 있으나 사실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단어랍니다.
여러분은 최애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겠지요? 최애하는 영화나 책. 음식도 있을
거고요.최애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지요?
오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11 0

2023/11/03
friday, am 10:06 | 22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5일차

나는 새벽을 사랑한다. 세상이 고요해지는 자정, 그리고 2시 30분쯤부터는 하늘에서 촘촘히 빛나는 별이 보인다. 6시에는 은은한 빛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상쾌한 공기가 새벽의 끝과 아침의 시작을 알린다.

나는 새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최애한다.

-

새벽을 어쩌다 좋아하게 됐냐 묻는다면 나는 단번에 내 이름을 이유로 들 것이다.

나를 이루는 그 짧은 단어 중 한 음절이 새벽을 뜻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최애하게 되었으니까. 새벽 서(曙), 내 이름의 중심이다. 새벽은 빛 하나 없어보이다가도 은은하게 빛나니까, 이와 닮아 세상을 은은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하면 닮는다.
닮기 위해 나는 새벽을 사랑한다.
그러다 정말 최애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새벽이 되었다.

15 7

조영주(간호학과) 사랑하여 결국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의 나의 새벽이 되었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어요..! 최애하는 새벽을 사랑히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라혜민(사회학과) 서현님의 이름에 그런 뜻이 담겨있었군요! 저도 새벽의 차갑고 차분한 공기를 좋아합니다. 최애하는 것들을 계속 곱씹을 수 있는 나날이길 바래요
고다인(중국학과) 새벽이 이름과도 연관이 있었군요~글 잘 읽었습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글이 너무나 따스하네요. 이름과도 연관이 있다니!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새벽은 좋죠
박지원(사회학과) 새벽의 고요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현님의 이름 속에서 새벽이 담겨있었군요 사진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
박혜윤(사회학과) 새벽 서 曙 라는 한자를 처음 알았는데 너무 예쁜 뜻과 음인 것 같아요

2023/11/03
friday, am 10:07 | 19읽음
조영주(간호학과)

#5일차

최애[最愛]

몽실몽실한 구름, 지저귀는 새의 노래, 살랑이는 바람, 향긋한 꽃내음과 찬란한 여름 햇살, 높푸른 하늘, 흥얼거리는 노래와 그

중에 있는 당신.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푸른 눈을 하고 있을까. 당신은 저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까. 당신은 살랑이는 바람처럼 하늘거릴까. 당신은 이 땅의 어느 노래보다 가장 아름다울까. 내가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도 실은 가장 사랑할 당신. 수많은 고백들 중에서 드릴 말을 고르고 고르다 결국엔 주저 앉아 당신 앞에 엉엉 울고 말 만큼, 기필코 가장 사랑할 당신.

/ 사랑하는 것들 중 가장 -

13 4

김서현(광고홍보학과) 구름이 몽실하지 않고 햇살이 찬란하지 않았더라도 새가 노래하듯 들리고 세상이 향긋해진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최애가 있다면 기필코 사랑하리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사랑하는 것들 중 가장 사랑할 당신이라니,, 시적인 표현에 감탄하구 갑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사랑은 영원하다고 믿고싶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배경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주님의 글 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따뜻해요

모임이 쉬워진다!

2023/11/03
friday, am 10:28 | 18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5일차 #최애

약 2개월 전부터 네이버웹툰 '마루는 강쥐'에서 나오는 마루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 웹툰의 내용은 5살 된 강아지가 하루 사이에 사람으로 변하여 바뀐 일상생활을 그려낸 작품이다. 지인이 마루 귀엽다고 그래서 무슨 웹툰인가, 보고 약 65화가 넘는 것을 끊지 않고 쭉 봤다.

보면서 감동적인 부분에서는 과몰입하여 눈물도 흘리고, 재밌는 부분에서는 크게 웃기도 하고, 성인이 되고 웹툰을 잘 보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본 이 웹툰이 너무 좋았다. 마루는 푸들 견종으로, 사람이 변한 모습인 곱슬머리에 노란 티와 주황색 바지가 기본이다. 조금 멍하게 생겨 멍청해보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이다. 마음도 따뜻하고 주인인 언니를 제일 좋아하고, 애착 인형과 꼬린내를 좋아하는 아이.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몇 번 상상해볼, '반려견이 사람으로 변한다면?'이라는 주제를 풀어낸 이야기라서 더욱 흥미롭고 집에 있는 반려견이 자꾸 떠오르는 웹툰이었다. 우리 강아지가 사람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으로 상상하게끔 만든다. 사람이 되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 나에게 서운하거나 화났을 때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더 행복할까 등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니 수많은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발랄하고 5살 어린 나이에 맞게 노는 거 좋아하고, 대부분 강아지와 같이 산책 좋아하고, 나이에는 조금 성숙한 마음도 가진 '마루'라는 캐릭터가 내 최애 캐릭터이다.

13 5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마루 저도 꼭 보겠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가끔 인스타그램에서 마루 캐릭터를 접하곤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 더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흐흐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아 이 웹툰이 그런 내용이었군요~~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마루 귀엽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그게 웹툰이었군요!! 제 친구가 강쥐 이모티콘을 쓰길래 너무 귀엽다 생각했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봐야겠어요!!

2023/11/03
friday, am 10:56 | 18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5일차 #최애
음악을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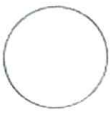
음악은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있고 시대의 정서를 풀어낸다.

내 머리속에 엉켜있는 복잡함을 풀어내는 수단이며 어느날의 습도와 공기, 온도와 조명, 추억을 기록한 일기이다.

나는 작곡한다. 표출한다. 그리고 기록한다. 언젠가 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12 10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머지 않아 음악 프로그램에서 영찬님이 작곡하신 곡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런날이 오면 정말 좋겠네요ㅎㅎ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저도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작곡까지 하시다니. 정말 멋있으시네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음악을 좋아하신다니 수연님도 너무 멋지십니다!!
가양선(경영학과) 작곡하시는 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가양선(경영학과) 감사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멋잇으십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당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라이팅 댓글을 작성할 때마다 노래 들으면서 작성하면 더 편안하고 집중이 되는 기분인 것 같아요 곧 영찬님의 음악도 들을 날이 올 듯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박지원(사회학과) 언젠가 들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감사합니다!!



2023/11/03
friday, am 11:09 | 19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5일차
저의 '최애' 장소는 서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점의 매력에 푹 빠져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학원이나 야간자율학습을 하러 가는 반면 저는 곧장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점의 매력은 정말 다양하다고 느낍니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책을 한 자리에서 찾을 수 있고 온라인 서점과 달리 책을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읽고, 표지를 감상하며, 글꼴과 종이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은 책을 고르고 구매하는 과정 자체를 더욱 풍부하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느낍니다.
또, 대다수의 서점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책을 읽거나 학습하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 사색을 즐기기 위한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서점은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책관을 가지고 있어, 예술과 문학을 동시에 감상하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서점을 사랑하며 저와 같이 서점 방문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최애 장소는 어디인가요?

☺ 12 ⋯ 8

김서희(심리학과) 저도 서점 좋아해요 ! 서점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점의 향기에요 ㅎㅎ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고다인(중국학과) 서점의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저도 좋아해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서점 정말로 좋죠! 개인적으로 저는 교보문고 같은 곳도 괜찮지만, 독립서점이 정말로 매력있는 것 같아요!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서점이 '최애 장소'예요. '최애'들이 가득한 장소라서 갈 때마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가양선(경영학과) 서점의 분위기나 책 냄새들이 좋아서 자주 방문했었어요 !!
정우현(인문학부) 집이 최애입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교보문고 정말 좋아해요! 서점에 방문하면 정말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관심사를 찾고 그 책속에서 위로 받고, 웃음을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저도 서점이 최애 장소에요! 그곳의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ㅎㅎ

2023/11/03
friday, pm 1:00 | 13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5일차

내 최애의 취미는 당연코 작문이다. 글쓰기란 사소한 일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고전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권의 책에 30년 이상의 시간을 쓸 정도였다. 책을 읽으면 글을 쓴 이의 생각, 포부 등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읽어 본다면 한 인간의 상상에서 나올 수 없는 세계임을 경이롭게 볼 수 있다. 인쇄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일반인도 쉽게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가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독자와의 타협이다. 아서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죽여버렸고, 이에 격분한 독자는 작가를 현실에서 꽤나 괴롭혔다. 현재도 많은 독자들이 원하지 스토리나 결말에 항의를 하기도 한다. 글쓴이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 셈이다. 이미 정해진 운명을 되돌릴 수 없듯 소설도 작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 9 ⋯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원래 외국 소설은 잘 안 읽는 편인데, 오늘은 반지의 제왕을 도서관에서 대출해봐야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헉 그런 장르의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어요ㅠㅠ 이번 기회의 한 번 읽어보고 싶네요!!

2023/11/03
friday, pm 1:20 | 18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5일차
'최애'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뮤지컬이 떠올랐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연극이나 뮤지컬 등 관극에 관심이 많았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는 '뮤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연을 많이 보고 다녔다. 첫 뮤지컬이 어떤 거였는지, 내가 왜 뮤지컬을 좋아하게 됐는지 기억 안 나지만, 확실한 건 내가 공연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관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애'라는 단어 대신 본진, 애배(애정하는 배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나는 당당하게 '김준수'가 나의 본진이자 최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뮤지컬을 보기 전에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데스노트, 엘리자벳이라는 공연을 본 뒤에는 김준수에게 홀려서 해당 배우의 뒤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준수가 나오는 뮤지컬이라고 하면 지식이 있든 없든 무작정 예매하고 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관극이 취미인 사람들은 남들보다 1, 2달 빠르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티켓팅부터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하는 공연을 잡기 때문이다. 내 최애인 김준수가 나오는 공연, 드라큘라도 지난달에 예매해뒀기에 나와 만나려는 사람들은 최소 2달 전부터 약속을 잡는 게 습관이 됐다.
지금도 친한 친구들에게 만나자고 연락 오면 '1월, 2월에는 아직 일정 없지?'라고 묻는다. 그럴 때면 어쩌다가 내가 뮤지컬에 빠졌는지 헛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 뮤지컬은 다른 취미에 비해 굉장히 단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비싼 가격은 물론이고, 공연을 보기 전까지 내 취향과 맞는지도 알 수 없어 실패도 많다. 그럼에도 나는 조금씩 취향을 찾아가며 많은 공연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즐겁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뮤지컬에 관심이 생겨서 내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불안하지만, 관극의 즐거움을 알게 되길 바란다.

☺ 10 ⋯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저도 뮤지컬 관람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절로 뒤로가기를 누르게 되더라구요ㅎㅎ,,,,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쵸ㅠ 그래도 대학로에서 하는 건 저렴하고 할인도 자주 하니까 한 번 보세요!
정우현(인문학부) 뮤지컬 추천해주세용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정우현(인문학부) 다음 달부터 레미제라블 하는데 한 번 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정우현(인문학부)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감사합니당
박지원(사회학과)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공연을 보러가거 싶은데,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치만..! 기회가 되면 꼭 보러가려고요

2023/11/03
friday, pm 1:51 | 23읽음
문정희(법학과)

#5일차
'최애'
최애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걷는데,
사실 최애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동물
물건
연예인

끝도 없는 최애가 있다.
그렇기에 매번 변하는 것 같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한 오늘의 최애는
아샷추다.

1교시 수업 전에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은 온통 아샷추 마실 생각만 하고
있었다.

운이 좋게도 일찍 카페에 가서 아샷추를
포장해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아샷추를 들고 수업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났다.

내일의 최애는 무엇일까?
매일 변하는 나의 최애가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10 5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최애'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내일의 최애도 정희님께 활력을 가득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들어가기 싫은 수업은 항상 초코 음료 같은 단 음료를 들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감가는 글이었어요 흐흐 ,,,,
가양선(경영학과) 최애를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말 공감합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변하는 최애란..행복이군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최애를 통해 힘을 내고,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2023/11/03
friday, pm 2:21 | 21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5일차
나의 최애는 보통 음식이다.
난 어릴적부터 가수든 배우든 좋아하는
분야가 딱히 없어서 흔히 말하는 덕질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내 최애는 거의 음식인 경우가 많다.
난 과자를 좋아한다. 내 최애 과자는 빅파이, 홈런볼이다.
대부분 초코가 들어간 과자를 좋아하는것 같다. 아이돌 최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나도 내 최애 과자를 먹을때 누구보다 행복하다:) 인생에서 최애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건 자신의 취향과 행복의 요소를 갖을 수 있다는것 같다.

13 5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초코 들어간 과자 엄청 좋아해요~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호님 글을 보니까 갑자기 빅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져서 편의점에 갔다와야겠어요ㅎ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홈런볼 좋아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저도 최애 초코입니당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초코를 정말 좋아해요! 삶을 사면서 최애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듯해요

모임이 쉬워진다!

2023/11/03
friday, pm 3:19 | 23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5일차#최애
나의 원동력은 '최애'다. 몇 년전 졸업식 축사에 한 연사가 나의 원동력은 '분노'다라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무언가를 하고자 결정했을 때 분노는 결심을 내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이였고, 의지를 다지게 만드는 것 이였다. 그러나 삶의 원동력이 '분노'만 있어 괴로울 때가 더 많았다. 무기력증이 심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심하게 채찍질해야 했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많아서 늘 버거웠는데. 어느날 분노로 가득한 내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고 계속 뜨겁게 달궈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니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2년 전부터 나의 '원동력'. '활력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너무 나도 아끼는 '최애' 에서 찾기 시작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하고자 할 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좋아하는 것을 먼저 떠올린다. 나의 큰 자원이 '최애'로 부터 나오는 것인데 최애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때 너무 사랑했던 것들 행복함을 느꼈던 것들이 더 이상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 가 많다. 슬프지만 또 다른 '최애'들이 있어 무너지지 않는다. 삶의 원동력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자신에게만 있는 원동력이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최애' 들에게 마음껏 내 사랑을 주고 그것들이 주는 기쁨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나도 '최애'들이 가득한 내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것들을

아끼고 애정하여 내 곁에 오래 남아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진은 나의 '최애'들이다.

11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기 있는 건 형광펜인가요?! 유정님이 문구류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사진인 듯 해요! 헬로키티도 너무 귀엽네요 흐흐... 글 잘 읽었습니당~

신유정 (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네 형광펜이예용ㅎㅎ 감사합니당~^^

정우현(인문학부) 카카오 ..맛 없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유정님의 글처럼 분노가 원동력이 된다면 정신적으로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봄으로써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원동력이 최애라는 유정님의 말에 큰 공감이 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최애가 가득한 공간에 있으면 정말 힐링일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제까지 좋아했던 것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를 못 느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쓸쓸하긴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고 또 다른 것을 좋아할 기회라 생각이 들었어요

2023/11/03
friday, pm 4:19 | 17읽음
박지원(사회학과)

#5일차 #최애

나의 최애는 무엇일까??

나의 최애, 사랑하는 것은 옛 노래와 LP이다. 학창 시절때부터 이상하게 8090년대 노래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고, 요즘은 90년대 록 음악이나 올드팝을 엄청 듣고 있다. 분명 몇 년 전만 해도 록 음악은 나랑 평생 맞을 일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안 들으면 힘이 안 난다. 옛날 노래는 뭐니 뭐니 해도 LP로 들어야 제맛이다. 우리집 주변에는 LP바가 없지만, 버스를 조금만 타고 가면 LP바들이 참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가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한 최고의 LP바는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곳을 가야 하는 것이다! 이래야 엄청난 황홀감과 힐링을 느낄 수 있다.
옛 노래를 좋아하는 내 모습은 아빠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아빠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 아빠만큼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우리집에선) 아빠한테 '아빠 이 음악 알아?'라고 딱 물어보면 아빠는 가수와 노래 제목 그리고 그 가수의 다른 노래까지 딱 대답해 주고 흥분하신다. 가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과거의 아빠는 음악을 참 좋아하던 소년이구나란 생각이 든다.

나의 최애 연예인은 바로 대만 배우 '허광한'이다. 최근 드라마 '상견니'로 많은 인기를 얻고 한국 팬들에게도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이다. 허광한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나의 엄청난 이상형이기도 하다. 허광한을 너무 보고 싶어서 무대인사 양도를 받아, 허광한을 보러 간 적도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보고싶다!! (이 이상 더 썼다간 너무 흥분해서 이상한 말을 할 것 같다)

12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허광한 배우님 실물은 어땠나요?! 저도 한창 하정우 배우님한테 빠져있어서 매주 무대인사 출석체크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흐흐,,, 잘 읽었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허광한 배우 좋아해요 !!
정우현(인문학부) 허광한 님은 처음 듣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지원님처럼 8-90년대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그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고 특히나!! 요즘 노래에서는 볼 수 없는 가사들까지... 영어없는 한국말로만 된 노래들을 듣다보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 마치 그 시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ㅎㅎ 지원님의 글을 읽다보니 그 시절 노래가 듣고 싶은 저녁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재명(러시아학과) 허광한 배우 참 멋있네요)
최애를 직접 본 적도 있으시다니 대단합니다. 좋은 기회에 또 뵙기를 바래요)
김현지(경영) LP판 자체도 감성적이고 예쁘죠 :)
저는 부모님께서 올드팝을 주로 들으셔서 옆에서 듣곤 하는데 lp로 듣는 올드팝이 궁금해지네요ㅎㅎ

모임이 쉬워진다!

2023/11/03
friday, pm 4:40 | 15읽음
이유빈(사회학과)

#5일차 #최애

모두에게는 최애가 존재할 것이다. 음식이던 특정 인물이던 존재할 것이다. 나도 요즘 빠진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배우 김남길이다.
드라마를 정주행 중에 열혈사제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어쩜 거기서 빠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배우의 드라마를 정주행 하게 되었고 팬미팅까지 기대하게 되었다.

다들 최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사는 내내 아이돌을 좋아했다가 처음으로 배우를 좋아하게 되어서 기분이 좀 색다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꽤나 흥미롭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삶이 지치더라도 최애를 떠오르게 된다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한 번 쯤은 마음 속에 최애를 품어보는건 어떨까?

최애에 대한 마음을 서술한 것 같은 노래라

추천 드려요

10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저도 김남길 배우님 나오는 작품 보면서 잘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사람들 눈은 비슷한가봐요,,, 노래 잘 들어보겠습니당!!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도 최애 배우 중 한 분이 김남길 배우인데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아주 멋지신 분이라 눈길이 갔어요..
가양선(경영학과)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제 친구가 김남길을 좋아한다고 했을때 처음에는 아저씨가 취향인 줄 알았지만 여러 작품에서 보면 볼수록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진 배우더라구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지게 되었어요 ㅎㅎ 특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드라마에서 더 좋아지게 된 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기억은 오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으로 좋아했던 아이돌, 배우 등 지금까지도 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2023/11/03
friday, pm 4:42 | 18읽음
가양선(경영학과)

#5일차 #최애
나의 최애는 취침이다. 취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픈 편인데 그럴 때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 어떠한 상황에 화가 나면 생각 정리가 필요한데 자고 일어나면 이해 안 되었던 상황들도 어느정도 이해해게 되고 타협점을 찾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신기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자고 일어나면 모든게 해결되는 것 같아서 나또한 신기하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애가 존재한다. 최애는 행복이나 편안함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전해주는 힘을 가졌다. 지금 나의 최애와 다음달 나의 최애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최애가 주는 긍적적인 힘을 통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싶다.

13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자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고 잠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자고 일어나면 불안했던 것이나 고민이 조금은 덜어져서 하루 중 낮잠시간은 꼭 갖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당!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요즘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기력이 없어서 수업 끝나면 낮잠을 자는 것이 루틴이 되었어요 잠과 침대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제게도 행복을 주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ㅎㅎ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저도 자는 걸 정말 좋아해서 무척 공감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잠이 정말정말정말 많아요 ㅎㅎ 이미 주변인들에게는 소문이 날대로 나서 오후 1시에만 일어나도 왜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며 다들 놀리곤 해요. 심지어 저도 놀라구요 허허... 그래도 잠을 자는 순간 만큼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자각몽을 잘 꾸는데 꿈 속에서 제가 상상한 것을 직접 펼치면서 자다보니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저도 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잠의 행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12시간 이상 못 자게 되는게 슬플뿐이에요
신유정 (심리학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는 것이 참 좋아보여요. 편안한휴식이 주는 행복감은 정말 큰 것 같아요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자는 걸 정말 좋아해요.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는 잠을 자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울다가 지친 경우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힘도 나고 혼자서 위로하는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쪽잠을
자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아요ㅎㅎ

2023/11/03
friday, pm 4:50 | 25읽음
정우현(인문학부)

#5일차
최애라 함은 가장 좋아함을 뜻하는데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는 게임을 즐겨 했고

작년부터는 영화를 즐겨보았다. 늦게
넷플릭스에 입문해 남들보다 많은 작품을
놓쳤다는 생각을 했지만 2년 동안 영화
1000시간을 가까이 보게 되었다. 고찰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보지는 않지만 명작
영화를 좋아한다. 영화는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새롭게
충족시켜줘서 좋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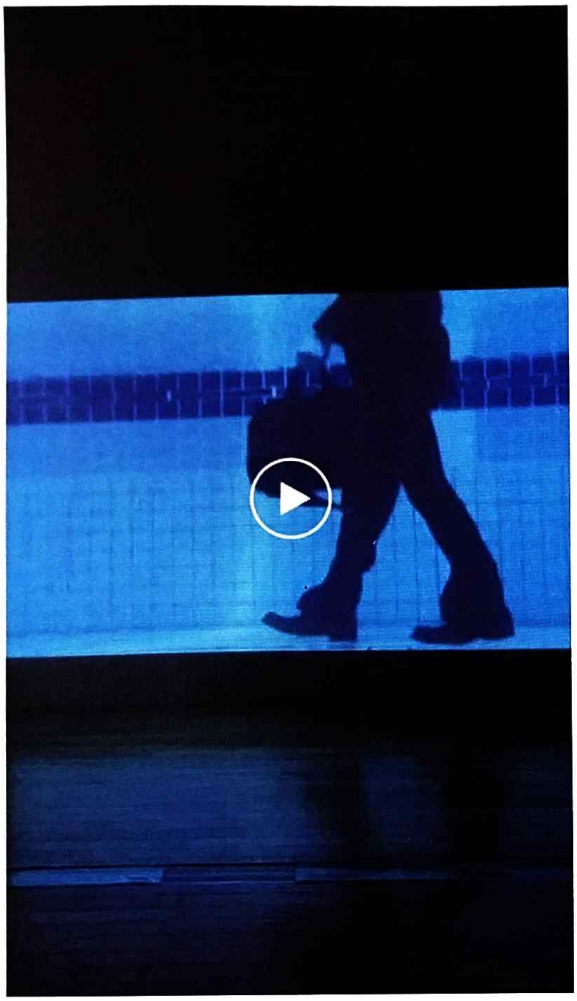
다른 최애는 글쓰기다. 나는 평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느낀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전시회를 좋아한다.

전시회도 작년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작가가
주는 의도, 목적, 내가 받아들일 때의 감정을
통해 얻는 영감들이 훌륭한 영양분이
된다.누군가는 전시회를 돈 낭비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전시회는 나에게
있어 꿈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장소이다.

우리는 남들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각자만의 감성과 고유한 개성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 하지만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알고 전시의 목적과 전시가 주는 의미를
감상하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 따뜻한
존재구나,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구나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시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예술을 사랑하게 해준다.
계속해서 내가 전시회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꼭 한번 관심 있는 전시회를 가서 진심으로
매력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전시를 다니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고
계속해서 전시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 혹시나 전시에 관심이 있거나
전시를 볼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내가 만든
전시 관람 동아리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동아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동아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의사항
:https://open.kakao.com/o/sHoKutPf



14 11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현님이 가 본 전시회 중 어느 전시회가 가장 감명 깊었는지 궁금해지네요 크크...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기억이 잘 안나네요..늘 좋았습니다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영상 속 전시 저도 관람했었는데 참 흥미롭더라구요 ㅎㅎ 그리고 저는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 우현님 글 읽고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당

정우현(인문학부)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오 현대미술 좋아하시나보네요 !

가양선(경영학과) 전시회를 가본적이 없었는데 글 보고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정우현(인문학부) 가양선(경영학과) 꼭 가보세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전시회도 좋지만 영화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특히나 영화관을 좋아해서 직접 가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혼자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데 그 짧은 두 시간이 저에겐 정말 힐링같은 시간이어서 그 순간에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우현님의 글을 읽다보니 영화도 좋지만 가끔은 전시회를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 동아리 들어오시죠 .

라혜민(사회학과) 2년 동안 영화 1000시간을 시청하셨다니 영화에 대한 우현님의 열정!이 느껴져요. 전시회를 자주 가지는 않지만, 작품 관람 시 내 속에서 무언가 건져올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현님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하네요! 불금되세요~

정우현(인문학부) 라혜민(사회학과) 동아리 들어오세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전시회 보러가는 거 좋아합니다~ 저에겐 아직은 전시가 혼자서 볼 때가 제일 고독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물론 친구와 보고나서 그 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겁기도 한 것 같아요

2023/11/03

friday, pm 6:52 | 16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5일차 #최애

날씨가 추워질 무렵, 문득 겨울 최애 간식을 떠올려보면 붕어빵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원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 가는 길, 한쪽 골목에서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한겨울에 슈크림, 팥 붕어빵 모두 사서 따끈한 갓 나온 붕어빵을 호호 불며 먹는 날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끄트머리가 바삭한 붕어빵, 속이 넘쳐 삐져나온 붕어빵 찾는 재미도

있었네요. 꼬리부터 먹는지 머리부터 먹는지 친구와 열띤 토론을 하며 집에 가는 시간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미니 붕어빵, 붕어빵 아이스크림처럼 가지각색의 붕어빵들이 나와서 무슨 신메뉴가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쓰다 보니 한 입 먹고 싶어지네요.

11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요즘 슬슬 붕어빵이 나오고 있던데 얼른 먹고 싶네요 ㅎㅎ 근데 막상 먹으려고 하면 예전만큼 싸지 않은 가격에 망설여지기도 해요... 예전에는 세 개에 천원에다가 가끔씩 서비스라면서 하나 두개는 더 넣어주곤 했는데 요즘은 붕어빵 하나에 싸면 오백원 비싸면 칠팔백원 하다보니 큰 맘 먹고 사먹는 간식이 되었네요... 그래도 올 겨울엔 한 번쯤은 붕어빵을 사먹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재명(러시아학과) 제 최애 간식은 호두과자입니다. 시장에 나가면 장 끄트머리에서 호두과자를 늘 사먹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붕어빵으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라혜민(사회학과) 날씨가 쌀쌀해지니 붕어빵의 계절이네요~ 추운 겨울에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기를요!
고다인(중국학과) 요즘 피자붕어빵도 팔더라고요~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명동에 가보니 피자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를 봤어요! 꼭 사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오늘 붕어빵 먹으려고 붕어빵집 갔는데, 사장님께서 안 보이셔서ㅠㅠ 결국 못 먹었어요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2023/11/03

friday, pm 7:17 | 14읽음

이주영(디미콘)

#5일차 #최애

내 최애는 뻬삐다. 뻬삐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다. 뻬삐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들 왜 이름이 뻬삐냐고 묻는다. 나의 아가 즉 영어로 하면 베이비 베이비에서 뻬삐로 이름을 지었다. 뻬삐는 나의 최애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이다.

슬플 때 옆에 있어주고 행복할 때 옆에 있어준다. 내가 심심할 때 같이 놀기도 하고 자는 동안에도 내 옆에서 늘 함께한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자취를 시작했는 데 오래 걸리더라도 주말마다 꼭 본가에 가는 이유가 나의 최애를 만나기 위해서다. 최애는 나의 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물한다. 최애를 만난 뒤에는 고민이 있어도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함께 있으며 극복한다. 뻬삐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가족들은 행복으로 가득 찼고 즐거움과 함께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 참 행복하다!

10 7

조석환(심리학과)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사진 서른마흔백구십장 보여주시면서 자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명(러시아학과) 저도 고양이 참 좋아하는데, 부럽네요. 이번 주말도 뻬삐랑 잘 쉬시길 바래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희 집에도 강아지 두마리를 키워요. 어찌나 귀여운지... 제 인생의 원동력이자 행복이 되었네요 ㅎㅎ 가족들 모두 강아지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고맙네요! 주영님 뻬삐도 저희 집 강아지들도 함께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슬플때 기쁠때 모두 같이 있어주는 고양이가 역시 최고예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살고 가족들도 더 화목해진다구 하더라구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고양이 정말 좋아해요! 저희 집 근처에 길고양이가 많이 다니는데, 주변 주민분들이 항상 밥을 챙겨주세요 :)
박혜윤(사회학과) 고양이 이름이 정말 특이하고 매력있어요!! 빼삐와 가족분들 모두가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2023/11/03

friday, pm 7:18 | 19읽음
조석환(심리학과)

#5일차
자신의 우상, 롤모델, 삶과 활력의 원동력, 경외심과 진심어린 존경을 모아 찬사를 보내고 사랑을 하는 대상과 동시간 혹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다. 설사 같은 시간선 위에 존재하지 않아도 그들을 기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흔적이 끊기지 않고, 재탄생되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다. 너무나도 부러워 시샘이나고, 질투가 난다.
나의 최애는 비운의 천재였고,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였다. 나 또한 시대를 잘못 타고난 비운아인 점에서 동질감을 느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행세, 시대에서 벗어나려는 생활, 시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기행, 시대에 버림받은 비약적인 사고.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었고, 나의 우상은 나의 평행선에서 살았었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스승으로 남아있다. 그렇기에 나는 더욱더 심취하고 더욱더 수렁에 빠지듯이 물들어졌다. 될 수만 있다면 그의 시간 속에서, 같이 숨을 쉬고 싶었고, 그의 옆에서 허드렛일이나 잔병치레 같은 잡일들을 거들며 같이 있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세계를 직접 보고 싶었다. 그렇기에 나는 평행선을 원망하고 시간선을 미워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에는 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재탄생되는 일이 선인장이 사막에서 말리 비틀어 죽을정도로, 물고기가 물 속에 빠져 죽을 정도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나같은 우민이 아닌 범인들의 품평회만이 남아있다. 그렇기에 부디 어리석은 범인들의 품평회가 멈추기를 바랄 뿐이다.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교과서 속 김유정이 나를 노려본다. 당신은 나의 마음과 이 사랑을 알아주는 유일한 이해자다. 다만 억울한게 있다면 당신은 그와 함께 살아가고 술 잔도 기울이는 기연 같은 필연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건 그의 그림과 글로 그의 파편을 만나는 것 뿐이다. 그러니 당신께서 나를 꾸짖는 것은 조금은 참아주길 바란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닿고 싶어도 닿지 못하는, 그저 발자취만 따라가고, 발자국을 훔치는 것밖에 못하는 나의 비운함이 당신에게는 현실이었기에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질투심에 좋아할 수가 없다.
나의 최애는 비운의 천재였고,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였다. 나 또한 시대를 잘못 타고난 비운아이기에 더욱더 그리워 하고, 렬렬히 사모할 뿐이다.
#최애

11 8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비운의 천재라는 말이 너무 안타깝게 들리네요. 저도 역사를 배우다보면 가끔씩 시대를 잘 못 타고났다고 느끼는 인물들이 있는데 석환님의 글을 보면서 또 느꼈네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몇몇 글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쓴 글과 앞으로도 쓸 글들이 좀 많이 어렵고 난해 할텐데 그 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 분의 문체를 따라하다보니 그런 글을 쓰는게 저한테 정착이 되었습니다. 국내 문학을 좋아하시면 제가 좋아하고 따라하는 그 분이 누구인지 금방 아실수도 있을겁니다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니. 저도 뭔가를 엄청나게 좋아해보고 싶네요.

조석환(심리학과)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광기입니다ㅋㅋㅋ은지님이 무언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것이 은지님께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혹시 석환님의 최애가 지금 석환님 프로필 사진에 있으신 분일까요~? 궁금해지는 글이네요 흐흐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프로필 사진은 최애인 그 분의 특징 3가지 정도 집어서 ai로 만든 그림 입니다. 제가 쓴 글 속에 힌트들을 넣어두긴 했는데 국내문학을 좋아하신다면 금방 알아차릴수도 있을겁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최애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심오하고, 진한 애정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3

friday, pm 7:36 | 15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5일차 #최애

여려분의 최애는 무엇인가요?
제가 최근에 찾은 최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중인 탕후루 드셔보셨나요?
과일꼬치에 설탕물을 코팅한 후식이죠.

저는 몰랐는데 이 탕후루가 원래 옛날에 유행하던 음식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재유행이죠.

탕후루에는 딸기, 토마토, 블랙 사파이어포도, 귤 등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통귤 탕후루가 나온 거 아시나요? 제가 평소에도 겨울이 되면 집에서 이불 덮고 귤 까먹는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통귤 탕후루를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구요. 귤 사이즈가 좀 크면 반 나눠서 먹고, 작으면 한 입에 먹기도 합니다. 탕후루를 씹을때 그 쾌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글을 쓰고 친구와 탕후를 먹으러 명동을 가야겠어요.

제 피드는 왜 다 먹는 얘기일까요? 제가 먹는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걸까요? 항상 주제랑 연관되는 얘기가 음식이네요!여러분의 최애는 누구인가요? 제 최애는 바로

9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탕후루 진짜 맛있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한 입 먹고 나서는 우와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구요 ㅎㅎ 달달한 게 어찌나 맛있던지...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잘 안 사먹다가 요즘에는 집에서 직접 해먹어요! 확실히 직접하니까 훨씬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더라구요. 가족들한테도 해주곤 하는데 오빠는 저보고 탕후루 가게 차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찌나 뿌듯한지... 이따 저녁에 탕후루 해먹으려고 하는데 벌써 침이 고이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탕후루 가게 지나가다보면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글 잘 봤어요~

가양선(경영학과) 저는 파인애플 탕후루를 좋아해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 명동을 가셨나요?! 저도 시간 되는 날 명동에 가서 꼭 통귤 탕후루를 먹어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괜찮아요~ 먹는 얘기라서 너무 좋아요~! 저도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오늘 시간만 괜찮았다면 탕후루를 먹었을텐데... 아쉽네요

2023/11/03
friday, pm 7:37 | 17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5일차
[최애] 최애는 '최고로 애정 하는'의 뜻의 단어라고 알고 있다. 내가 최고로 애정 했던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한다.
최근에 최애의 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유명해지면서 아이돌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다. 그래서 직접 아이돌을 좋아했던 나의 경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다.
아이돌이 라이브를 하거나 컴백을 하거나 생일 등을 챙기면서 아이돌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알 때마다 내가 더 행복하고 즐거우면서 하루가 가득 찬 느낌이 들었다. 무료했던 하루가 아닌 최애 아이돌로 인해 기쁜 하루에 연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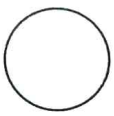
하지만 아이돌로 인해 나의 할 일을 못하거나 돈을 너무 많이 쓰며 정작 내가 쓸 돈이 없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지장이 있어서 나는 최애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응원 댓글인 선플을 남겨주거나 사진과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최애로 인한 나의 행복감도 챙기고 최애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여러 일이 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 최애 아이돌이다. 나에게 다른 사랑의, 관심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러한 부분에서 또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 다들 최애가 있다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최애를 응원했으면 좋겠다!

9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지금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최애인 아이돌이 있었어요. 엑소라고 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땐 정말 안 좋아하는 얘들이 없었죠. 너무 인기가 많아서 세계를 정복할 것만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모은 용돈으로 엑소 굿즈도 사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저도 소정님의 최애 아이돌을 응원할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저두 중학생 때 아이돌 엄청 좋아했는데 성인되고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요..ㅎ 지금은 제 최애 결혼했더라구용..ㅎㅎㅎ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중학생 때부터 응원하던 최애가 있어요 최애를 앞으로 더 응원해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돈을 쓰지 않고도 최애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글 잘 읽었습니당~!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지금은 좋아하는 아이돌은 없지만, 아이돌을 좋아했었던 과거의 저는 정말 돈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좋고 행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2023/11/03
friday, pm 7:42 | 14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5일차 #최애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 최애 음식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한다. 느끼한 음식이나 외국 음식을 먹으면 절로 김치와 밥을 찾는 나는 한식 러버이다. 그런 내가 한식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된장찌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국과 찌개를
먹어봤지만 내가 평생토록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여러 음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된장찌개였다. 단, 그냥 된장찌개보단
두부와 버섯, 호박이 듬뿍 들어가 있으면서
고깃집에서 파는 것처럼 약간 짭짤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된장찌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학교에서
점심시간만 되면 늘 된장찌개만 먹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 학교 정문 쪽에
명인만두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었다.
나에게는 마치 김밥천국과도 같아서 항상
애용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수많은
메뉴가 있었는데 내가 항상 먹었던 것은
된장찌개였다. 가격도 착해서 늘 그것만
먹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메뉴판을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식당
아주머니께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거의
매일같이 똑같은 메뉴를 먹다보니 식당
아주머니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가게에
들어서면 '된찌?' 라고 하시면서 바로 불을
올리셨다. 가끔은 특별히 만들어주는
거라면서 달래를 듬뿍 넣은 달래 된장찌개와
아주머니께서 반찬으로 드시는 어묵볶음을
함께 먹곤 했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침이 고인다.
그러다 학기가 끝나서 방학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지 못하게 되면서 한동안
생각이 나곤 했었다. 방학 때 그 집
된장찌개를 따라하려고 했지만, 맛은
있었어도 아주머니가 하신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다. 개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된장찌개가 너무 생각나서 가려고 했더니
가게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순댓국집이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 신나는
발걸음으로 내려오던 나는 바뀌어있는
간판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몇 번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봤지만 식당은 없었고, 친구에게
물어보니 명인만두가 사라진 것이 맞다고
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최애 식당이
사라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쉬운
마음을 부여잡고 결국 학식을 먹으러 언덕을
올라가는데 가는 길이 얼마나 길고
힘들던지... 울컥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겨우겨우 올라가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식당이 생각나곤 한다.
여전히 된장찌개가 내 최애 음식인 만큼 난
학식으로 된장찌개가 나오면 바로 달려간다.
물론 그 식당 아주머니가 해주신 것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된장찌개가
학식으로 나온다는 것에 만족하며 맛있게
먹는다. 이번 주는 학식으로 된장찌개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는데, 다음 주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 펄펄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명인만두 된장찌개가
생각나는 저녁이다.
여러분들의 최애 음식과 식당은 어디인가요?

☺ 10 ⋯ 14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된장찌개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던 식당이 없어져버려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영님이 꼭 된장찌개가 맛있는 식당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신유정 (심리학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된찌를 팔았다보니 더 슬픈 것 같네요ㅠㅠ 언제가 될 진 모르겠으나 그 맛을 내는 식당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녀봐야 겠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아이고 아쉬운 맘이 느껴지네요.. 새로운 맛집 찾기를 바래요 !
제 최애 음식은 집밥이에요ㅎㅎ 정성이 들어간 밥은 맛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저도 집밥 너무 좋죠!! 저희 엄마는 김치 비빔국수를 정말 잘하시는데 그게 제가 집밥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ㅎㅎ 갑자기 침이 고이면서 배가 고프네요...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명인만두 넘 추억이에요 전 김밥이랑 라볶이만 먹어봤는데 된찌가 있는 지는 몰랐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현지(경영) 그쵸ㅠㅠ 명인만두 정말 좋아했는데... 저는 오히려 된찌만

먹느라 김밥하고 라볶이를 못 먹어봤네요ㅠㅠ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ㅠ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최애식당이 사라지다니 너무 아쉽겠어요~~ 제 최애 음식은 찜닭이예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고다인(중국학과) 오오 찜닭!! 전 찜닭에서 닭보다 당면을 더 좋아해요! 국물을 쫙 빨아드린 당면에 김치랑 같이 먹으면 진짜진짜 맛있더라구요!! 갑자기 찜닭도 먹고 싶어지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하영님 졸귀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정우현(인문학부)

박혜윤(사회학과) 비록 편식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 종류를 고르라면 무조건 한식을 외치는 한식파로써 한식러버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너무너무 반갑네요!! 진짜 한식만큼 맛있는 음식도 없는 것 같아요 ㅎㅎ 한식러버들은 외국여행갈 때도 무조건 김치는 필수인 거 아시죠?? 갑자기 한식 땡기네요...허허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오늘 용용선생이라는 식당을 방문했어요! 평소에도 마라탕을 좋아하기도 해서 방문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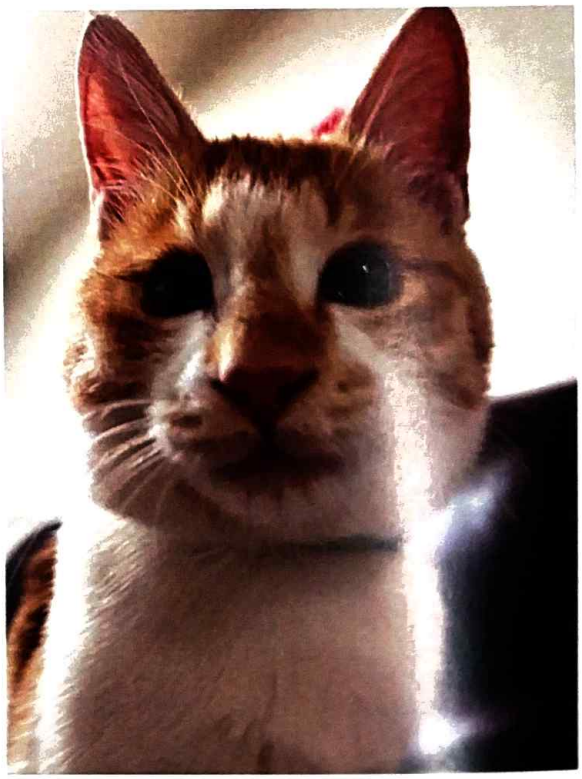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오?? 한 번 가보고 싶네요!! 마라탕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씩 생각나던데 한 번쯤은 가봐야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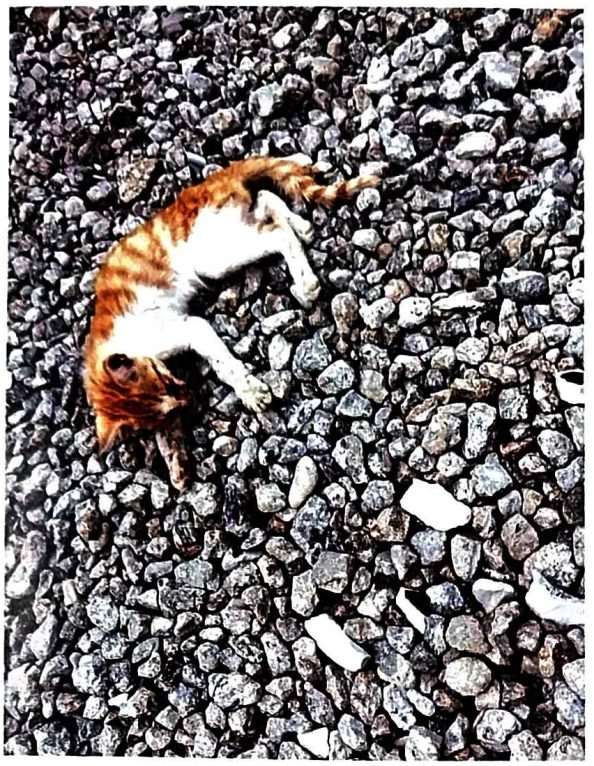
2023/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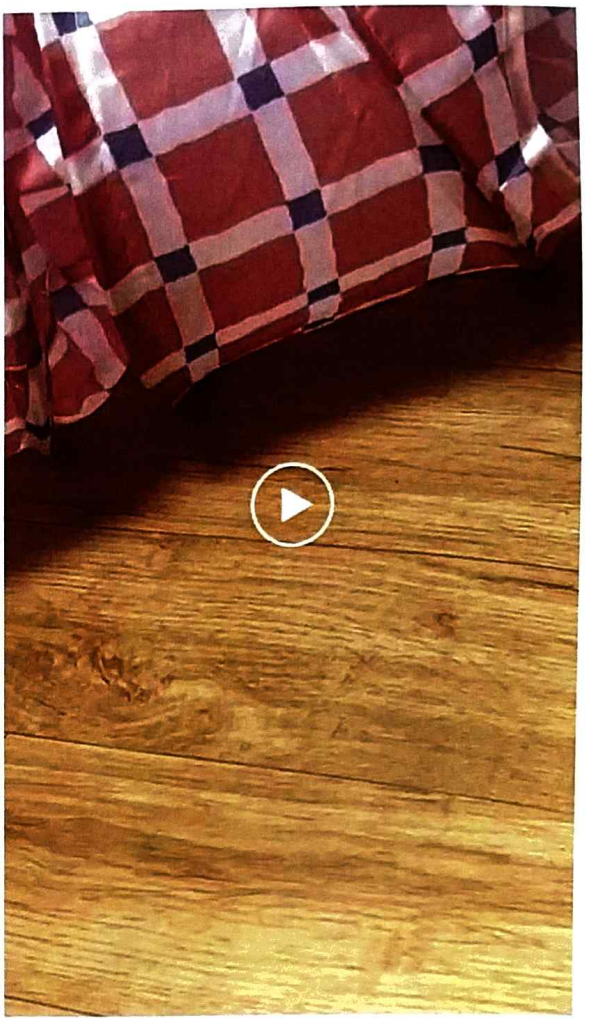
friday, pm 8:02 | 16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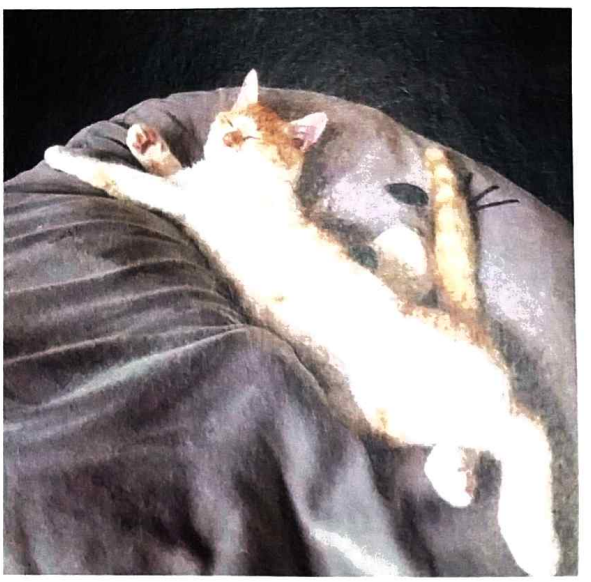
임미혜(사회복지학과)

#5일차
요즘 나의 최애는 우주를 뚫을 정도로 너무 귀엽다. 핑크고 핑크 발바닥에 나만 보면 폴짝 뛰어 안기는 귀여운 생명체가 나의 최애이다. 8월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 우연히 아픈 고양이를 발견했다. 근처에 어미가 있긴 했지만, 많이 약한 개체라 그런지 버려졌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고양이는 낯선 나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다가왔다. 그렇게 그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춘천으로 돌아왔고, 그 애기는 여름이가 되어 나의 가족이 되었다.
장난감도 많이 망가뜨리고 요즘 깨물기도 하지만 세상 제일 귀여운 개냥이가 되었다. 세상에 있는 쥐돌이 장난감과 츄르를 바치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다
나의 최애, 아깽이 여름이가 앞으로 화창한 하루로 가득하게 만들어줘야겠다.









11 6

모임이 쉬워진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와 너무 귀여워요
고다인(중국학과) 한참 물고뜯고 정신없이 사냥놀이 할 아깽이네요~~귀여워요
김현지(경영) 귀여워요ㅎㅎㅎ
가양선(경영학과) 너무 귀여워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여름이가 좋은 주인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보여요~~!
박지원(사회학과) 어머나!! 너무 귀여워요!! 한여름 8월의 소중한 선물이 다가왔었네요 :)

2023/11/03
friday, pm 8:27 | 19읽음
김현지(경영)

#5일차 #최애

이번 학기에 새로운 최애들이 많이 생겼다.
그 중에 기록하고 싶은 최애는 "연극"
관람이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친구들과 혜화역에
도착하여
옹기종기 관객석에 모여 앉았다.
앞뒤로 꽉 찬 관람객들에 의해 작은
움직임으로
조그만 무대 위의 배우들을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배우들의 감정선에
전율이 돋았고
조명과 음향으로 극적인 연출을 느낄 수
있었다.
주로 편집된 영상을 좋아했지만, 이번 연극을
계기로
앞으로 혜화에 자주 방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8 10

라혜민(사회학과) 저도 연극관람을 좋아해요! 요즘 문화생활을 잘 못했는데 다시 해봐야겠어요.
현지님, 좋아하는 것들을 맘껏 누리는 나날이 되길 바랄게요 :)
김현지(경영) 라혜민(사회학과) 혜민님
감사합니다ㅎㅎ 혜민님도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당 :)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혜화에서 연극 한 번 본적이 있는데 매력있더라고요 글 잘 봤어요~~
김현지(경영) 고다인(중국학과) 다인님
감사합니다ㅎㅎ 연극 진짜 넘 재밌는 것 같아요 :)
가양선(경영학과) 저는 연극은 딱 한번 봐봤어요 ! 글 읽고 연극이 보고 싶어졌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현지(경영) 가양선(경영학과) 양선님
감사합니다ㅎㅎ 정말 추천드려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작년에 남자친구와 혜화에 가서 연극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연극의 명대사가 생생히 기억나요 크크,,,
조만간 또 가봐야겠어요~!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은님
댓글 감사합니다 :) 연극은 현장감이 매력인 것 같아요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저는 맨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연극을 자주 못 보러 다닌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맨날 연극 좀 보러다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회가 된다면 보러가고 싶네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연극보다 영화를 더 좋아했는데 매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연극 관람을 꼭 추천드립니다:)

2023/11/03
friday, pm 8:39 | 17읽음
라혜민(사회학과)

#5일차 #최애

내 최애를 모르겠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꼽기 어려워서 늘 세 손가락으로 추리곤 했다. 내가 최고로 애정하는 것은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좋아하는 것은
지는 노을빛
좋아하는 사람들과 티타임
수영할 때 물을 가로지르는 느낌
이 정도라고 하겠다.

가만 보면 나는 특정 대상보다도 일상의 어떤 순간을 좋아하고, 그 순간의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 듯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그런 나를 또 좋아한다. 이런 논리로 보자면 나는 내가 최애가 아닐까? 하하. 즐거운 금요일 밤이다!

☺ 9 ⋯ 6

조석환(심리학과) 최애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요. 혜민님이 좋아하는 것이 곧 최애입니다
김현지(경영)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순간순간의 행복이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
정은지(데이터사이언스학부) 공감가는 글이네요~ 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구성한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운 금요일밤 보내세용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본인이 최애라니!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말이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사람에게 최애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 최애로 인해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요

2023/11/03
friday, pm 8:57 | 17읽음
홍다연(정치행정)

#5일차 #최애
저의 최애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어렸을 때 길고양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양이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학교에 와 애기라는 고양이를 본 이후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좋게 바뀌며 고양이가 저의 최애 동물이 되었습니다.
아침수업을 갈때마다 한림대의 대표 고양이인 애기를 종종 아침마다 목격하는데 그럴때마다 항상 애기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사랑받는 모습을 보곤합니다. 우리 학교에 '림냥따봉'이라는 동아리를 보며 우리 학교가 정말 고양이에 진심인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작은 동물에게 큰 사랑을 주며 항상 애정을 다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늘 따뜻해졌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며 다른 분들의 최애 동물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끼리, Band!

9 6

고다인(중국학과) 저는 고양이2마리 집사라 역시 고양이가 제일 좋고 거대한 고양이같은 호랑이도 좋아해요~
김현지(경영) 애기 애교도 많고 너무 귀엽죠ㅎㅎ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귀여우신 것 같아요! 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사실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아지를 더 좋아하죠 ㅎㅎ 그런데 학교에 있는 고양이들은 너무 귀엽더라구요! 중간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는데 어찌나 귀엽게 앉아있던지!! ㅎㅎ 고양이에게 눈길이 간 적은 처음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고양이가 너무 귀엽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 최애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길 가다가 주인분이랑 강아지가 산책하고 있으면 저 멀리서부터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가가는 것 같아요 크크,,,
박지원(사회학과) 어머 애기네요! 저도 예전에는 고양이보단 강아지였는데 요즘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강아지이지만.....

2023/11/03
friday, pm 9:07 | 18읽음
조성현(철학과)

#5일차
저의 최애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는 작품입니다!
거대한 이야기의 힘이라는 단어로 <고래>라는 소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래>의 줄거리는 금복,춘희가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줄거리 요약은 감히 할 수 없는 책이라 생각하여 이 글에서는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고래>라는 작품을 다 읽고났을때 여운이 오래갔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천명관 작가님의 팬이 되었고 천명관 작가님도 저의 최애가 된것같습니다.

<고래>라는 소설을 읽으신다면 아마 저와 같이 <고래>가 최애가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글 마칩니다

9 12

정우현(인문학부) 읽어보겠습니다!분량 긴가여?어렵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조성현(철학과) 정우현(인문학부)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같아요!! 도전해보세요!
김현지(경영) 고래가 신비로운 동물인것 처럼 책 내용도 궁금해집니다 :)

조성현(철학과) 김현지(경영) 고래는 정말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책 내용도 신비롭게 독자를 매료시킵니다 ㅎ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데 성현님의 글을 읽고나니 고래라는 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팬이 되었을 정도면 그만큼 책의 호소력이 깊다는 뜻으로 다가오는데 그래서인지 더 기대가 되는 책이에요!! 이번 달이 가기 전에 구입해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조성현(철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의 소설 추천에 언제나 들어가는 책입니다!! 재밌게 읽으시면 좋겠네요!!

가양선(경영학과) 책 소개 감사합니다 꼭 읽어볼게요 !!

조성현(철학과) 가양선(경영학과) 몰입감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작가님이 최애라는 글은 성현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책 꼬옥 읽어보겠습니다 ㅎ0ㅎ

조성현(철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아마 20대 초반에 크게 매료되어서 그런것 같아요ㅎㅎ 재밌게 읽으시면 좋겠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제목부터 벌써 끌려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 추천 감사합니다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 표지도 강렬해서 보시면 분명 끌릴 것 같아요 ㅎㅎ

2023/11/03

friday, pm 9:11 | 18읽음

홍은기(영문학과)

#5일차
최애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아이돌 팬덤일까요? 요즘 제 케이팝 최애는 르세라핌의 홍은채에요. 그냥 아기. 공주님. 만두. 결국 저도 저보다 한참 어린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나이가 됐네요. 어렸을 땐 아이돌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어른 같아 보였는데 세월 참...

10 5

김현지(경영)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처럼 엣되고 귀여운 아이돌 진짜 많은 것 같아요ㅎㅎㅎ 할미덕질일까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요즘 아이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게 왜이렇게 슬프면서도 공감이 가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아이돌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 요즘 아이돌들 나이에 깜짝 놀라곤 하네요... 정말 나이먹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제 친구들 중에 르세라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요즘 음악 프로그램 보면 저보다 한창 어린 친구들이 나오더라구요,,, 그 때 세월을 실감하는 것 같아요 흐흐,,,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어렸을 때는 모든 아이돌들이 다 어른 같다고 느꼈는데 이제와서 보니 다 저희 또래거나 엄청 어리고...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이제는 아이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2023/11/03
friday, pm 9:48 | 19읽음
고다인(중국학과)

#5일차 #최애

오늘의 키워드를 보고 떠오른 것은 바로 달콤한 떡꼬치입니다.겨울마다 저를 살찌게 하는 뜨겁고 달콤한 호떡도 있지만 요즘 가장 자주 사먹는 길거리 음식은 떡꼬치입니다.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죽여주는 열꼬치라는 체인점이 있어 하교하는 길에 친구들과 사먹고는 했습니다.바베큐맛,눈물맛,글쎄요맛,죽여주는 맛 등등 소스 종류도 정말 다양했는데 그 중에 저는 글쎄요맛을 자주 사먹었던 기억이 있어요.그런데 요즘은 떡꼬치 파는 가게조차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탕후루를 파는 가게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추억이 가득 담긴 꼬치를 파는 가게들은 왜 문을 다 닫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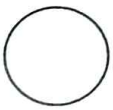
춘천 명동에서 환승버스를 기다릴때 시간이 많이 남으면 엠백화점쪽으로 걸어올라가 1,000원짜리 떡꼬치를 사먹으며 기다리곤해요.먹고있으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다음에 춘천 명동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시간이 많이 남을때는 떡꼬치를 한 번 드셔보세요!

9 1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인님의 글을 읽고보니 진짜로 꼬치집이 많이 사라졌더라구요ㅠㅠ 특히나 떡꼬치를 파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의 떡꼬치를 파는 곳은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석중 쪽에 있는 혜리네 분식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떡꼬치가 진짜 맛있거든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음에 차타고 지나가면 혜리네 분식 한 번 들려볼게요 감사해요~
정우현(인문학부) 눈물맛 추억돋네요
고다인(중국학과) 정우현(인문학부) 그쵸!!

정우현(인문학부) 고다인(중국학과) 다인님 동아리 들어오세요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떡꼬치 정말 좋아해요 초등학생 때는 학교 끝나면 매일 먹었는데 요즘 파는 곳이 별로 없는 게 아쉬워요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가양선(경영학과) 맞아요 하교하면서 사먹은 떡꼬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혹시 거기 명동에 있는 백소정 앞 포장마차일까요?! 제가 겨울되면 꼭 하는 루틴 중 하나가 밤 늦게 그 포장마차에 가서 붕어 몇 마리 낚아오는 거랍니다!!!! 떡꼬치도 넘 맛있겠네요,,,
고다인(중국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 맞아요~~이미 가보셨군요
김경회(국어국문학과) 거기서 예전에 순대꼬치를 처음 먹어본 기억이있는데..! 아직 그곳 순대꼬치가 제 최애 순대꼬치로 남아있습니다..ㅎ
고다인(중국학과)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순대꼬치는 안먹어봤는데 맛있나보군요!!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최근 집 근처에 생긴 분식집에서 떡꼬치를 팔길래 생각날 때마다 사먹고있어요 떡꼬치를 파는 가게 정말 소중해요...! 나중에 명동가면 떡꼬치 사먹어봐야겠어요!!
박지원(사회학과) 헉! 떡꼬치 정말 좋아하는데.. 중고등학교때 하교하면서 친구들이랑 자주 먹었는데, 제 친구는 손가락에다가 4개씩 껴서 먹었어요 정말 추억이네요..
김소은(미디어스쿨) 떡꼬치 안 먹은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알려주신 곳에서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



2023/11/03
friday, pm 9:48 | 16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5일차 #최애

최애는 찰나와 같다고 생각한다.
순간적으로 좋은 것이지
지속적으로 좋은 느낌은 안 든다.

현재 좋아하는 최애가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경험 상 최애는 달라지고
보편적인 것들이 2순위 3순위에서
스테디셀러처럼 묵묵히 버텨주는 것 같다.

나에게 최애는 변덕이기도 하며
나를 설명하는 본질은 스테디 셀러처럼
우직한 친구들이 아닌가 싶다.

최애를 떠올리며

8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최애는 찰나일 수 있지만 그 찰나의 순간동안 행복을 주는 것이 최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어요. 가끔 인생을 살다보면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며 기쁨을 주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최애인 거죠. 비록 찰나의 순간이어도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최애가 아닐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흐흐,,, 저도 변덕이 진짜 심한 편이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뭘 젤 좋아하는지가 바뀌더라구요!!
박지원(사회학과) 최애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정말 오래남는 것 같아요 :)

2023/11/03
friday, pm 10:18 | 16읽음
배성준(경영학과)

#5일차
오늘의 주제는 최애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애정하는 것들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가장 첫번째는 음악입니다. 음악 듣는 것을
단순히 좋아하기도 하지마는 저에게 있어
음악은 저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

이상입니다. 음악은 제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기도 하고 지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며 잊고있었던 기억을 회상시켜주기도 합니다. 제 온전한 감정을 해소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음악은 건전지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장르를 좋아하기보다는 재즈, 클래식, 전자음악, 힙합, 팝송, 디스코, 레트로... 원하는 날 한 두개 씩 골라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최애는 전시회 감상도 있습니다. 예술을 잘 알지 못해서 모든 작품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드는 첫 느낌이 향수를 불러일으킬때도 있고 낯설기도 해서 재밌습니다. 전시회를 보다보면 다리도 아프지만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어서 오래보는 것 같고 새로운 시각을 저에게 주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가끔 작품이라고 칭하기 어려운 나만의 요상하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찍기입니다. 사진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는 모두가 같은 사진기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도 모두 다른 풍경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찍은 사진은 변한 풍경으로서 나에게 다른 감흥을 주기에 특별합니다. 다른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습니다. 주로 산책하다가 눈에 잡히는 풍경을 찍어서 원하는 대로 사진이 나오면 기분이 짜릿합니다.

10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타인을 사진 찍어주다가 그들이 인생샷이라고 너무 고마워하면 뿌듯하더라구요 o3o !!!! 성준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의 최애도 음악이에요! 오늘 최애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해요. 특히 풍경도 좋아하고 친구들 찍는 것도 좋아해요

2023/11/03
friday, pm 10:26 | 14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5일차 #최애

[최애는 바로 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한때 자존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석하게 관심을 가졌던때가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물론 최근에도 많은 상담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좋아할만 해서 좋아하는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좋아할만한 모습이 생기는 것이다'

제가 자존감에 관련된 말들중 기억에 남는 글귀인데요

저는 저의 최애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많이 어렵긴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7 4

가양선(경영학과)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흠 저는 아직 온전히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보이는지,,, ! 이제부터는 원데이 클래스도 좀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좀 해보려구요!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는 자존감이 한때 많이 낮았는데,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남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같아서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사실 최애는 나 자신이어야 해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3/11/03
friday, pm 10:43 | 14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5일차 #최애

최애.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최애는 뭘까, 생각해보니 절로 떠올려지는 게 많기도 하다.

최애 영화는 인터스텔라.
최애 드라마는 셜록.
최애 판타지 소설은 해리 포터.
최애 추리소설은 13.67.
최애 히어로는 스파이더맨.
최애 가수는 안예은.
최애 뮤지컬은 스위니 토드.
최애 넘버는 드라큘라의 Life after life.
최애 뮤배는 전동석.
최애 요일은 수요일.
최애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 어스름한 푸른빛의 새벽.
최애 계절은 늦가을에서 초겨울.
최애 소리는 집에서 듣는 빗소리.
최애 장소는 나만이 홀로 있는 집, 그 중에서도 나의 방.
최애 음식은 딸기잼과 클로티드 크림을 바른 갓 구운 스콘.
최애 음료는 캐모마일 차.
최애 색은 검정.
최애 옷은 후드티.
최애 가족은 외할머니.
최애 장신구는 외할머니의 유품인 은반지.
.
.
.

떠올려지는 대로 손을 놀리다 보니 알 수 있다.
아, 이게 날 설명하는 것들이구나!

9 5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가장 좋아하는 색이 검은색이에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명지님의 최애 글을 보니 좋은 추억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왜인지 드네요!
김소은(미디어스쿨)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것이 부럽기도 멋있기도 합니다 저도 찾아봐야겠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명지님의 최애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최애가 모이면서 명지님을 만들어가는 듯해요
정우현(인문학부) 최애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2023/11/03
friday, pm 11:34 | 11읽음
김준호 (콘텐츠IT)

#5일차
최애.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 만화, 물건 등을 아예 잊고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다. "그 당시엔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이걸 아예 잊고있었지?" 라고 말할 정도로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날의 최애를 우연치않게 다시금 찾아 그때를 회고하노라면 그때의 추억들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잊혀져있었다는 건 지금 나의

최애들도 언젠간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무서워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지금은 나의 일부인 것들이 언젠가 나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될까봐, 나의 최애가 서서히 잊혀져 망각되는 것이 두려워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최애가, 추억이 언젠가 대체하겠지만 그럼에도 망각은 무서운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에 예전같은 최애를 요즘엔 찾기 힘들다는 것도 한몫했다.

모든걸 기억할 순 없고 모든걸 사랑할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한 때의 최애를 위해 오늘도 나는 얼마남지 않은 시간을 불태우고 있다.

☺ 7 ⋯ 2

박지원(사회학과) 지금도 잊고 지내는 최애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우현(인문학부) 저도 기록해야겠네요 무서워졌어요

2023/11/03
friday, pm 11:41 | 13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5일차 #최애

요즘 내 최애는 드라마 '연인'이다. 주연 배우는 믿고 보는 배우 남궁민과 안은진인데,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역사멜로 드라마이다.
작가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모티브 삼아 집필하였다고 한다.

한 번 꽂히면 끝까지 파는 성격이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고, 대본집을 구매하고, ost와 bgm을 다운 받아 시험 기간에도 반복재생해서 들을 만큼 최애 드라마로 등극했다.
대사, 영상미, 배경음악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감동을 매 회마다 선사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두 몫 한다. 너무 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어서 더 애절하고 감정이입이 잘 된다.

최애 드라마의 최애 대사는
"들리느냐, 이 소리, 꽃 소리"
"말했던가? 낭자가 웃으면 분꽃 피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저 내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부서져 님만은 나같지 마시라 간절히 바랄 뿐"
"요란하고, 화려하게 길채답게 사시오"
이 드라마를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사 하나하나가 여운을 준다.

아직 방송 중이고 회차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하니, 못 보신 분들은 차근차근 정주행하면 장현과 길채의 애틋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모임이 쉬워진다!

8 2

박지원(사회학과) 으악 저도 그 드라마 한 번 보고 싶어요!! 남궁민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워낙 재밌다고 하길래 너무 궁금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볼게요

정우현(인문학부) 이거 인기 많은 것 같던데 재밌나보네요!

2023/11/03
friday, pm 11:56 | 18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5일차 #최애
여러분은 김향기 배우를 아시나요? 저의 최애는 바로 김향기 배우입니다! 벌써 데뷔 17년 차가 되었으며 김냄새 또는 김선생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신과 함께를 보고 김향기 배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배우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내며 똘망똘망한 눈빛을 가진 저 배우는 누구일까 궁금한 마음에 찾아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쭉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아역 배우에서 성인 배우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인터뷰를 찾아 읽으면서 마냥 귀엽다고 생각했던 배우가 깊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애정과 단단한 마음을 가진 김향기 배우를 보면서 저도 꿈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됐습니다.
최애 배우의 최애 작품을 소개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김향기 배우는 학교 폭력 피해자인 '천지'를 연기했습니다. 입체적인 캐릭터들과 좋은 대사들 덕분에 몰입하여 여러 번 보았던 영화입니다. 영화와 소설 둘 다 추천드립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6 1

박지원(사회학과) 김향기 배우 정말 반갑네요
연기도 정말 잘하고, 귀엽고, 매력 있는 배우라
생각해요. 기회가 된다면 꼭 작품도 보겠습니다

2023/11/04
saturday, am 12:17 | 28읽음
김양선

#5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 요즘
혹은 과거 내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들,
사람들에 대해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는지요?
음악과 전시, 사진과 문학, 글쓰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취향이
오래 계속되기 바랄게요.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챌린지가 없어요. 일정의 1/3을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함께 한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새로
시작합시다!!

15 2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주말 잘 보내세요
정우현(인문학부) 안녕히 주무세요 교수님 ~

2023/11/06
monday, am 8:02 | 30읽음
김양선

#6일차 키워드 : 습관
습관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여 익숙해진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나요?
손톱을 물어뜯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는 것도 습관이고, 공부를 하기 전 책상을
정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나만의 습관을 소개하거나 습관에 대한
생각을 써보기 바랍니다.

15 0

2023/11/06
monday, am 9:06 | 22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6일차

습관이 생겼다. 같은 수업을 듣는 내내 굳이
시계를 보겠다며 뒤를 돌고, 가만히만
있었더니 굳는 것 같다며 굳이 옆으로 몸을
돌려 기지개를 펴고, 혹시라도 들키진
않았을까 괜히 눈치를 보는 습관.

괜히 묻지 못할 말만 목구멍에 감춰두는 습관,
눈이 마주치면 티라도 날까 휘어지듯 웃으며
눈을 감아내는 습관 -그러다가도 내가
당신에게 온 신경이 쏠린 걸 눈치챌까
관심없는 척 눈을 다른 곳에 두는 습관까지.

정말 억울하게도 당신을 좋아하면서 내게
생긴 찌질한 습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신은 날 닮은 것 하나 없이 그저 웃으며

나긋나긋하게 말해주는데... 나만 당신을 신경쓰느라 평생 가질 습관을 한 번에 다 가진듯하다.

그러면서도 내 습관의 이유가 당신인 건, 내가 이유없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한다.

☺ 13 ⋯ 3

김현지(경영) 상대방분이 서현님의 습관을 알게 된다면 귀엽다고 느끼실 거에요..ㅎㅎ 서현님의 호감을 조금씩 보여주세용!!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아마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사랑이 아닌 괜히 눈치를 보게 되니 짝사랑에 가까운 듯 한 사랑인 것 같네요 흐흐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헉..!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셨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정말 축하받을 일이라 생각해요!! 너무 설레고 귀여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분도 서현님과 동일한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도 동일하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매일 일기를 쓴다는게 쉽지는 않을텐데,, 대단하시네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이번년도 목표가 일기쓰는 습관 갖기였는데... 내일은 힘들더라구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 전 다음번에 특별했던 날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했는데 딱 추천받으니 뭔가 더 그래야겠다! 하는 맘이 드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저도 요즘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갑네요!
김현지(경영) 저도 매일 일기를 쓰는데 저의 감정이나 처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희님의 글을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한동안 매일 일기를 쓰다가 포기했는데 서희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매일 일기나 다이어리를 쓰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것 같아요 2024년도부터는 정말 꾸준히 써보려고 벌써 다이어리도 사버렸어요ㅎㅎ 서희님 정말 멋있고 배우고 싶은 습관이네요

2023/11/06
monday, am 9:38 | 20읽음
김서희(심리학과)

#6일차
나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할 때 생각을 정리하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매일 일기를 쓰는 이유는 글로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마무리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 객관적으로 나의 생각들을 보게 되면서 감정도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일기쓰는 습관은 나에게 좋은 습관이 되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기쓰는 것을 추천한다.

☺ 14 ⋯ 6

2023/11/06
monday, am 10:04 | 18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6일차
나의 매일은 내가 만들어둔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털고 정리하고, 향균제를 뿌린다.
점심을 먹으면 꼭 커피를 한잔하고, 친구들과 통화도 잊지 않는다. 저녁엔 9시에 항상 샤워를 하고 내 시간을 보내다가 잠에든다. 내 일상엔 이처럼 좋은 습관들도 많은 편인것 같다.
그치만 이것들 또한 하루아침에 된것 이 아니다.
그런말이 있다. 어떤 행동도 3주만 꾹 참고 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래서 난 부단히 노력했었다. 매일 좋은 행동들을 반복하며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ㅎㅎ
다만 한가지,, 아침 운동은 3달을 해도 습관이 되지 않는건
왜 때문일까?ㅎ

13 7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좋은 습관들을 가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겠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김재명(러시아학과)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는 게 하루를 참 소중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습관들이는 건 참 어렵죠 ㅎㅎ
김서희(심리학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지금도 충분히 부지런하십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내가 만든대로 하루가 이루어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용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아침 운동이 제일 어렵죠ㅠ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것부터가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저는 가끔 까먹고 못 할 때가 많아요

2023/11/06
monday, am 10:17 | 17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6일차 #습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6시 30분이 되면 귀를 어지럽히는 소음이 울린다. 무거운 눈을 반쯤 뜬채로 알람을 끄고 다시 잠을 청한다. 30분이나 더 잘 수 있다니 이건 혁명이다. 기분 좋은 채로 눈부신 햇살을 반갑게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강제로 만들어진 긍정 이것이 나의 습관이다.

이상한 습관이다. 하지만 좋은 습관이다.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본능과 이성 사이에 균형을 잡기위해 찾아낸 타협점이다.

아직도 내 습관이 이상해 보이는가?

12 4

김현지(경영)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지키기 어렵지만 이뤄내면 뿌듯한 습관은 없는 것 같아요. 7시에 일어나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저는 누가 깨워만 주지 않는다면 저녁에 일어날 자신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저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겠죠?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박지원(사회학과) 2, 3주만 연습하시면 그 다음부턴 쉬울거에요!

2023/11/06
monday, am 10:32 | 19읽음
라혜민(사회학과)

#6일차 #습관

나는 자기비하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고,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에 더 집중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보다 내부로 향하곤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상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받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면 '진심이 아닐 거야', '그냥 하는 말이겠지'하고 그 말을 거부했다.
새로운 모임에 가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늘 상대와 나를 비교하곤 했고, 백이면 백 내가 제일 못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또 우울해했다.
이 시기에 나는 늘 걱정과 불안에 잠식돼 있었고, 이런 내가 싫어서 또 우울해했다. 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부러웠고, 사소한 것에도 걸려 넘어지고 마는 내가

한심스러웠다. 심할 때는 이 세상에 아예 없던 것처럼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불현듯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다. 매주 상담을 받고, 정리되지 않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린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울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고, 사소한 목표가 생겼다.
나는 늘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거였구나
지금 내가 멈춰 서 있는 건 게으르고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내 몸이 신호를 주는 거였구나
세상과 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투성이였고, 생각 이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사는 게
무섭지 않다.

이제 나는 자기비하하는 습관을 멈췄다.
요즘에도 마음이 취약해질 때면 할 일을
내려놓고 나를 돌보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듯 내가 나를 보살피는
거다. 밥을 잘 먹이고, 잠을 푹 재우고,
스트레스받을 만한 일을 최대한 멀리한다.
나에겐 멀리 가는 것보다 순간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혹여 마음의
문제로 힘들다면 가만히 혼자 삭히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결국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건 '나'의 몫이기
때문에

15 5

조석환(심리학과) 혜민님이 아파했던 습관이 어쩌면 혜민님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명(러시아학과) 자신의 아픔을 정갈하게 적은 것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또한 부정적인 내면을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나서야 나로서 잘 살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의 행복을 포착하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현지(경영)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강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혜민님의 글을 읽으니 단단한 내면이 느껴집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나를 갉아먹는 습관을 멈추셨다니 정말 다행이어요 앞으로 혜민님이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뭉치고 돕고 사는 것 같아요. 혜민님 정말 수고하셨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2023/11/06
monday, am 10:57 | 20읽음
홍은기(영문학과)

#6일차
잠을 길고 얇게 자는 편이다. 그만큼 꿈도
여러 개 꾼다. 일기는 19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그날 꾼 꿈도 일기에
적기 시작했다. 이른바 '꿈 일기'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지난밤의 꿈을 곱씹다 기억나는
부분을 핸드폰을 켜 노트에 적는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떠 타자를 치기가 버거울 때는
녹음 앱을 이용하기도 한다. 녹음을 다시
들어보면 자신의 목소리가 가관이다.
일어나자마자 기록하지 않을 때는, 화장대에
앉아 나갈 준비를 하거나, 휴일엔 공복
유산소를 하다가 문득 벼락처럼 지난 밤의
꿈이 떠오른다. 제대로 된 꿈 일기는 저녁이
넘어서야 쓴다.

언니는 내가 꿈 일기를 써서 더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거라고,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복기하는
것보단 내 꿈 속 환상 이야기를 다이어리에
쓰는 게 더 재밌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어젯밤
꿈에는 드라마 <무빙>의 장주원이 나왔다.

15 4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꿈일기라니!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꿈을 다 까먹는데 한 번 도전해봐야겠어요!
김현지(경영) 제 친구도 꿈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곤 하는데 은기님의 글을 보니 친구가 생각났어요 ㅎㅎ 꿈을 생생하게 꾸실만큼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꿈을 여러개 꾼 적이 종종 있는데 반가워지는 글이네요 흐흐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가끔 꿈에서 꾼 꿈을 적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적으려고 하는 순간 까먹어버렸어요 ㅠㅠ 정말 신기한 습관인 것 같아요

2023/11/06
monday, am 11:11 | 17읽음
배성준(경영학과)

#6일차
나에게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 있다. 이 습관은 거의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때부터 갖고 온 것이다. 나는 그 당시에도 매우 수줍은 성격과 낯을 많이 가렸었다. 그랬기에 학급 친구들과 먼저 다가가서 어울리는 걸 잘 못했고 무엇보다도 말을 먼저 거는 것을 어려워했다.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제어 할 수 없을 정도로 났기 때문에 남들이 가끔 이상하게 봐서 내 얼굴을 가릴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말을 할 때 예절 기침을 하듯이 입에다 손을 막아서 입을 거의 가린 채로 말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그 습관으로 인해 친구들은 내가 친구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잘 몰랐을 것 같다.

그리고 웃을때 나도 모르고 주먹을 입에 갖다대고 헝헝 웃는 습관도 있었다. 내가 아마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러한 습관들은 나에게 꽤나 악영향을 초래했다. 손을 입에 대고 말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를 잘 못 듣게 되었고 모두가 나를 조용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조용하다고 생각하니 내 목소리도 자신감이 없어져 더 작아지게 되었다. 지금도 나에게는 그 습관이 꽤나 남아있다. 낯선 곳에 가거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웃을 때 의식하고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온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나의 모습에 떳떳해지고 싶다. 습관이 단단하게 굳어진 만큼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나의 모습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의 미소를 잘 보여주려고 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13 4

김재명(러시아학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웃음꽃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준님이 가진 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이를 고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수줍은 미소도 좋지만 따듯한 웃음을 먼저 보여주신다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에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크크 저는 아직도 말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웃을 땐 나도 모르게 손이 입에서 떼지고 제 허벅지를 치곤 한답니다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습관이 단단하게 굳어진 만큼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말 너무 공감이 가네요.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ㅠㅠ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힘내봅시다

2023/11/06
monday, am 11:16 | 19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6일차
어떠한 분위기를 누리고 싶을 때면, 음악을 찾아서 듣는 습관이 있다. 서둘러서 끝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민초의 난'을, 잔잔하게

감성에 잠기고 싶을 때는 유튜버 '메르헨'의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서 듣는 편이다. 무언가를 도전할 의욕이 떨어질 때면, 'stronger'이란 팝송을 듣기도 한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싶을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악을 부지런하게도 찾아서 듣는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주 불렀던 노래일 때도, 자주 들었던 것일 때도 있다. 인센스 스틱에 불을 붙이고, 그리운 사람이 좋아했던 음악을 켜둔 채 눈을 감는 건 내가 사랑하던 시간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과도 같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리워서, 혹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듣던 음악들이 내 삶에 녹아내렸다. 습관처럼 이어폰을 끼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음악을 듣는다. 각각의 음악마다 누군가의 향기가 묻어있어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더 이상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아 멈칫하게 될 때도 있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듣게 되는 건 유전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나의 부모님은 언제나 음악을 좋아했고, 아버지와 함께 연주회,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 엄마와 어떤 노래, 어떤 가수가 좋다며 이야기를 나눴던 나날도 적지 않다. 음악은 언제나 내게 소통의 창구였고, 어떠한 분위기였으며, 사람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음악은 내게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감상하는 습관을 바꾸고 싶다. 이어폰을 매번 끼고 다니다보니 귀가 안 좋다는 핑계로, 더 이상 누군가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본심을 숨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에는 곁에 머무는 사람보다 떠나간 사람들의 향기가 더욱 짙게 묻어있다.

15 4

라혜민(사회학과) 원하는 무드와 상황에 따라 배경음악처럼 듣는 음악이 달라지는 점이 공감돼요! 저는 심리상태에 따라 듣고싶은 음악이 달라지는 편인듯 해요~ 추천해주신 음악 들어보겠습니당!
김현지(경영) 넘 감성적이고 먹먹해지는 글이네요! 저도 특정한 노래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순간이나 감정으로 수연님의 글을 읽으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늘 산책을 하거나 먼 길을 걸어야 할 때면 에어팟을 필수로 챙기곤 하는 것 같아요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너무 많이 듣다보니 귀가 많이 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헤드셋으로 노래를 듣고 있어요! 수연님의 마지막 문구가 인상 깊네요

2023/11/06

monday, am 11:32 | 18읽음
홍다연(정치행정)

#6일차 #습관
저에게는 매주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다보니 항상 청결해야하는, 각별히 신경써야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루틴처럼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청소가 상당히 고되고, 청소하는데 쓰이는 락스 냄새가 익숙하지 않아 머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경험 끝에 지금은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여 청소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코 끝에 락스냄새가 살짝 베어도 머리가 아프다거나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혼자서만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안좋기도 했지만 제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경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되었습니다.

15 6

라혜민(사회학과) 청소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묵혀뒀던 청소를 좀 해야겠어요~
김서희(심리학과) 화장실 청소 습관 !! 저도 배워야겠어요!
김현지(경영) 예민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신경쓰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방을 깨끗하게 쓰는 편이라 방이 지저분하면 룸메한테 말하기 보다는 혼자 쓱쓱 치우는 것 같아요..ㅎ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앗 혹시 8관이신가요!~!~! 혼자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정말 어렵게 힘들텐데 대단하세요,,,!
고다인(중국학과) 화장실 청소 정말 미루기 쉬운데 습관이 되었다니 좋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아이고 혼자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힘드실텐데 대단하세요. 분명 다연님께 행복한 일이 다가올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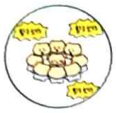
2023/11/06
monday, am 11:48 | 19읽음
조석환(심리학과)

#6일차
잠시 멈췄었던, 혹은 멈춘 것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멈추지 않았던 시간에 다시 뛰어들기 위한 통과의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 한 달을 살기 위해, 일 년을 살기 위해, 한 번의 삶을 살기 위해 필수불가결적으로 해야만 하는 행위. 어쩌면 존재와 자아가 숫자와의 놀음에서 졌기에 그 대가로 치뤄야 하는 판돈. 심장에서 몸의 끝에서 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한 몸부림. 들숨을 들이키고 날숨을 내쉬기 위한 폐의 수축과 이완. 시야의 용이성을 위한 눈꺼풀의 개폐. 떠밀려 떨어지지 않기 위한 중력과의 발맞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습관이다. 우리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우리가 가진 습관은 그림자 같이 꼬리가 되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어느 것 하나 습관을 고친다면 우리는 세계에게 실격된다.

자연의 수식과 코딩으로 짜여진 습관으로 결과값을 내야 살아가는 우리는 무지하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누군가의 악의 일지도 모른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실존하는 현상학과 세계의 표상은 누군가의 창작물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잃지 않으려고 습관이라는 틀을 만들어 스스로 갇히는 것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머리가 점점 맑아져 온다. 편집증적인 반추가 습관적 아이러니를 또 다시 도지게 한다.
#습관

13 6

김재명(러시아학과) 석환님 글에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와 개념의 단어가 쓰이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읽을 때 단어들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것이 흥미롭고 좋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심리학과) 김재명(러시아학과) 오늘도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심리학과이셔서 그런지, 늘 석환님 글을 읽으면 여러번 곱씹게 돼요!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도 부족한 저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습관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중으로 행하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공감이 가는 글이네요 :)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6
monday, am 11:59 | 22읽음
이유빈(사회학과)

#6일차 #습관

나에게는 정말 좋지 않던 습관이 있었다. 다들 습관이 있을텐데 나는 좋지 않은 습관이다. 바로 손톱을 물어 뜯는 습관이다. 심지어 손톱만 물어 뜯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살까지 뜯어먹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들을 보고 개구리 손가락이라고 그랬다. 이 습관이 깊게 들어 고치는데 애를 먹었다. 손톱에 쓴 약을 발라보아도 매니큐어를 발라보고 별의 별 행동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이 악습관이 고쳐지게 되었는데 하고 싶은 네일아트가 생기기도 했고 네일아트를 하다보니 손톱이 예뻐져 고치게 된 것이다. 악습관도 의지와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은 들더라도 악습관을 고칠 수 있고 의지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고쳐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악습관을 고친 저의 손입니다!

14 6

라혜민(사회학과)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시작한 네일아트가 취미가 된 점이 보기 좋네요! 네일 예뻐요~~
김현지(경영) 손톱이 길고 정말 예쁘세요 :) 저는 동글동글 하거든요..ㅎㅎ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완전히 고치신 것 같아서 넘 다행입니다! 그리고 손도 예쁘십니다! :D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데 은근 중독되더라구요 흐흐,,, 손도 넘 예쁘시고 컬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홍다연(정치행정) 저는 젤네일을 주로 했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네일팁을 자주 애용해요! 나중에 한번 써보세용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네일아트로 안좋은 버릇을 고쳤다니 정말 좋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손톱을 많이 물어 뜯었다가 요즘은 잘 안 뜯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자주 불안감을 느껴서 손톱 거스러미를 너무 뜯어버리네요 이런 나쁜 습관은 얼른 고쳐야해요

2023/11/06
monday, pm 12:33 | 18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6일차

나의 습관은 매일 뉴스를 챙겨 보는 것이다. 뉴스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 또는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것 등 여러 방면의 정보가 넘친다. 때로는 잔혹하고 부정적이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보이고, 때로는 희망차거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현실,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과거의 모습, 현재의 추세, 미래의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곤충에게도 뉴스가 있더라면 여름의 매미가 미처 생이 저물기 전에 겨울의 하얀 눈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여담으로 나는 언론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나

기자를 꿈꾼 적이 있었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재밌었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언론학도와 언론인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12 8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뉴스 보는 습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저도 예전에는 뉴스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챙겨보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안보게 되더라구요. 같은 내용의 반복에 지쳐서 안보게 된 것도 있고, 감정에 지쳐서 그런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것들에 지쳐서 아무생각 없이 멍하니 머리속에 흘려넣기만 하는데도 뭔가 보기가 힘에 부쳐서 안보게 되는것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서 요즘 뉴스를 안봤는데 저도 다시 보려 노력해야겠어요 글 잘 봤어요~~
김서희(심리학과) 뉴스 보는 습관 저도 배워야겠어요 !!
김현지(경영)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흉흉한 것 같기도 살만 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가끔 뉴스를 보는데 매일 보는게 습관이시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뉴스를 챙겨봐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뉴스를 챙겨보는 습관을 길러야하는데.. 너무 배우고 싶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혜윤(사회학과) 어릴 때부터 뉴스에 지루함이 없었어서 언론 분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뉴스를 챙겨보려고 노력 중이구여 뉴스의 매력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알게 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2023/11/06
monday, pm 3:13 | 14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6일차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중 제일 안 좋은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하는 것이다. 딱히 볼 것이 없는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사용하고 핸드폰을 하며 잠이 더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SNS나 유튜브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왜 핸드폰을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핸드폰을 안 하면 잠을 더 자고 좋을 텐데'라고 생각도 했다.

이 습관으로 인해 피로도가 쌓여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습관을 바꿀 방법부터 생각했다. 시계를 보고 바로 씻는 것이다. 누워서 계속 있다 보면 핸드폰으로 손이 가게 되고 변화가 없으니 움직여서 핸드폰과 잠시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행동은 습관을 고치기에 좋았다. 아침마다 개운했고 핸드폰 대신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졸리면 다시 자면서 단점들을 없앴다. 그러면서 이 안 좋은 습관도 없어졌다.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당장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변화의 첫걸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좋은 습관이 있다면 유지하면서 발전을 바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9 6

고다인(중국학과) 졸린데도 굳이 스마트폰 사용하는거 너무 공감되네요!저도 휴대폰을 좀 멀리 놓아야겠어요
김서희(심리학과)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바꾸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문장이 와닿아요!
김현지(경영)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고쳐 나가는 소정님의 모습이 멋집니다! :) 저도 유튜브 보느냐고 늦게 잘 때가 있는데 아예 책상에 올려놓고 자야겠어요..ㅎ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소정님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도 궁금해지네요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하는 습관 때문에 고민이예요. 피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는 전날 밤에 핸드폰을 하다가 자면 다음날 엄청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습관이네요 꼭 배워야겠어요

2023/11/06
monday, pm 3:19 | 17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6일차 #습관

잠에 들기 전, 아침에 눈을 뜰 때, 학교에 갈 때, 학교에 가서, 강의가 끝나고, 할 일이 끝나고, 할 일을 시작할 때 등 모든 일과에 있어 '투두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다.

투두메이트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플을 사용한지 약 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다. 매일 하루에 해야 할 일들과 과제,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기록하며 잊지 않으려고 한다.
대학생이 되고 난 후 건망증이 심해져서 해야 할 일을 놓칠 때가 자주 있었다. 그때마다 항상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이를 방지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러 투두리스트를 사용하다가 투두메이트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어플로 인해 전반적인 학기 중 계획과 시험 공부 계획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투두리스트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내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 습관이 괜찮은 걸까, 갑자기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의문이 든다.

투두리스트를 그것도 휴대폰으로 매일 확인하고, 불안해서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지 말이다.
투두리스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연락이나 사소한 것들을 여러 번 확인하곤 한다.
콘센트를 뽑았는지, 전등을 껐는지, 과제를 잘했는지, 오타가 없는지, 내가 까먹은 할 일이 있는지 등 수시로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 불안과 강박이 아닌가 싶다.

☺ 11 💬 6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투두리스트 진짜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김서희(심리학과) 투두메이트 어플 넘 좋아요 !
김현지(경영) 저는 모트모트 플래너를 쓰는데 투두리스트도 사용해 봐야 겠어요! 보민님의 습관이 강박이라기 보다는 꼼꼼하신 것 같아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투두메이트 한창 유행이었죠~! 글도 잘 읽었습니당!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저는 맨날 기본 메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 번 써봐야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지금 하진 않지만 예전에 투두리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좋았던 건 이미 한 것들는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였어요! 지워나갈 때의 그 쾌감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ㅎㅎ 보민님의 글을 읽다보니 다시 하고 싶어 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3:35 | 17읽음
김현지(경영)

#6일차 #습관

저의 습관이자 루틴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아직 헬린이지만, "하나만 더!"를 외치며
땀 흘리는 기쁨과 조금씩 늘어나는 체력을
느낍니다.

오후에는 열심히 수강한 수업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조용하지만 열정 가득한 그곳의 분위기를
즐기며
책장을 넘깁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면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느꼈던 기분, 기억하고 싶은
문장,
의미있게 느껴진 것 등을 빼곡하게
기록합니다.

인턴 근무 후, 막학기를 보내기 위해 돌아온
지금.
한 학기, 4개월, 2번의 시험이 끝나면
대학생이 아닌 졸업생이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기 위해
저만의 습관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냅니다.

☺ 11 ⋯ 10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막학기ㅠ 화이팅입니다
김현지(경영)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영찬님 응원 감사합니다 :) 영찬님의 학교생활도 파이팅입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오전에 헬스장이라니 대단하시네요~
김현지(경영) 고다인(중국학과) 감사합니다ㅎㅎ 다인님께도 아침 운동 추천드립니당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와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해서 꾸준히 헬스장 다니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해보이더라구요! 미리 졸업도 축하드립니다!!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은님 댓글 감사합니다 :) 저도 숨쉬기운동만 하다가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요..ㅎㅎ 운동 추천합니당!! :D 하다보면 재밌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다는 현지님의 글에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게 되네요!! 정말 지키기 힘든 건데 거기에 운동까지!! 맨날 입으로만 운동하는 제가 반성이 되네요...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도 누워 있네요 허허.... 언젠가 할 수 있겠죠...??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 감사합니다 :) 라이팅챌린지도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거의 모든 분들의 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하영님의 꼼꼼함과 따듯함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아침부터 운동을 하시다니! 너무 대단하시고 배우고 싶어요 피곤하시진 않나요? 저도 아침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일어나면 피곤해서 자버리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운동 초반에 지쳐서 잠들었는데 장기적으로 운동하니 낮잠을 거의 안자게 되었어요! ㅎㅎ 지원님도 운동 계속 하시다보면 엄청 똘망똘망한 상태가 될거에용 :)

2023/11/06
monday, pm 4:41 | 16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6일차
제 습관은 잠자기 전 ASMR 영상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ASMR 을 처음 접한 건 유튜브 알고리즘에 '하쁠리'라는 유튜버분이 새우와 샐러리를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삭한 소리와 탱글탱글한 새우의 소리가 묘하게 잠이 오게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게 했습니다. 그 후 여러 유튜버분의 ASMR 을 찾아듣게 되었고 아무리 졸려도 적어도 하나의 ASMR 영상은 꼭 봐야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SMR 영상이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의 질 향상,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귀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들은 마치 마사지를 받는 듯한 효과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요한 소리와 마음의 평온함은 잠을 쉽게 찾게 해주고 ASMR은 내 내면과 조용한 공간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내 안의 고요한 세계에서,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하기 위한 계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ASMR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좋아하는 ASMR 유튜버가 있나요?

12 5

김현지(경영) 비토 asmr 구독자입니다! 섬세하게 소리를 잘 잡아내고 영상도 엄청 깔끔해서 좋아해요 :)
고다인(중국학과) 아 하쁠리라는 유튜버 들어봤어요~asmr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지 몰랐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ASMR을 즐겨듣진 않지만 가끔씩 먹방 관련한 거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홍사운드라는 먹방 ASMR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군침이 돌더라구요... 지금 쓰면서도 생각 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먹방 ASMR 방송을 많이 봐요~ 댓글에서 하영님이랑 똑같은 홍사운드 먹방을 봐요!! 정말 최고입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여니 asmr추천!

2023/11/06
monday, pm 7:02 | 16읽음
가양선(경영학과)

#6일차 #습관

대학 와서 생긴 습관은 매주 목요일 본가에 가는 것이다. 사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춘천에 있는 것이 맞지만, 효율보다는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본가에 간다. 매주 목요일마다 본가에 가면 가족들과 밥 한끼 이상은 꼭 같이 먹는다. 친구들도 한번 이상은 꼭 본다. 피곤할 때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생각을 하며 최대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그 습관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긍정적인 것들은 꾸준함으로 유지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미래의 나를 위한 고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9 5

고다인(중국학과) 금요일 공강이신가보네요~가족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거 최고죠!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매주 간다는 게 쉽게 들릴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까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가끔은 올라가기 귀찮을 때도 있을텐데 습관이 될만큼 꾸준히 가신다는 것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그만큼 양선님이 가족들을 아낀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잘 배우고 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목요일마다 본가를 가요 :)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 주변 지인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목요일마다 집에 가서 매번 그리운 집밥을 먹어요 집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우현(인문학부) 똑똑하십니다

2023/11/06
monday, pm 7:40 | 14읽음
문정희(법학과)

#6일차
습관은 나를 하루 이틀 쌓일 때마다
나에게 더 깊이 물든다

습관이 될수록
짙게 물들어 번진다

좋은 습관이 번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나쁜 습관이 번지면
얼룩덜룩한 그림이 된다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좋은 습관이 많았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지루해진다
나쁜 습관이라도
그림도 수정하면 되듯이
수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도
나에게 조그마한 행복이 되기도 하니까
그림이 얼룩덜룩해도 그림임은 변함없다

8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나쁜 습관으로 인해 얼룩덜룩 해진 것도 결국 그림이라는 말이 깊게 와닿네요. 얼룩이 그림도 결국 예쁘게 보완하면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것.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ㅎㅎ 습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습관을 주제로한 시라니,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이 많았다면 분명 지루하고 인생이 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림이 얼룩덜룩해도 우리 모두 그림임은 변치 않으니 마음속에 새겨야겠어요

2023/11/06
monday, pm 7:41 | 13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6일차#습관

내가 제일 고치고 싶은 습관은
'젓가락질'이다.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떨어트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창피한 경우가 많다. 옛날부터 교정 젓가락을
써보기도 하고, 잡는 방법을 따라 해 보기도
했는데 잘되지 않아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편하게 젓가락질을 해왔다. 그렇지만 잘
못하는 젓가락질이 점점 부끄럽고 신경
쓰이기 시작해 얼마 전부터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움직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긴장하거나 식당에서 먹을

때는 편하게 잘되지 않는다. 그래서 밖에서 밥을 먹는 것이 늘 불편하다.
어릴 때 TV를 보다가 "젓가락질 못해도 밥 잘 먹어요~." 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 밥 잘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은 밥 잘 먹으려면 젓가락질도 잘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전보다는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는 것이 조금 수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하다.
몸에 좋은 자세는 불편하고 좋지 않은 자세가 오히려 편하다. 그래서 어깨도 축~내리고 있고. 허리도 구부리고 목도 앞으로 쭉 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가 나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원래 이렇게 밖에 못해!" 보다 "그래도 계속하면 될 거야! 계속 연습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성공할 것이다. 젓가락질을 올바르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 얼른 밥을 더 편하게 먹고 싶다.

7 7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고1까지는 젓가락질을 정말정말 못했어요. 젓가락질을 하다가 음식이 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고2때 친구가 하는 완벽한 젓가락질을 보고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에게 팁을 물어보면서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연습한 결과 한 달만에 젓가락질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죠 ㅎㅎ 고치면서 느꼈던 건 끈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유정님도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다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응원할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합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젓가락질 올바르게하려고 고생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너무 스트레스 받지말고 천천히 바꿔보시면 바뀔거예요~
신유정 (심리학과) 고다인(중국학과)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가끔 젓가락질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용한 캐릭터 교정 젓가락을 살까도 고민했었어요 가끔은 이게 보기 흉하다는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ㅠ 지금이라도 고치고 싶어요
신유정 (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고쳐봐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한 때 교정용 젓가락을 알아보던 때가 있어서 그런지 유정님의 글이 반갑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8:00 | 17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6일차 #습관
저는 언젠가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방 청소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유독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청소를 하게 됩니다. 내 물건을 차곡차곡 정해진 자리에 넣어주고, 먼지 없이 뽀득뽀득 닦아주다 보면 엉켜있던 생각들도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 듭니다. 정리가 잘 된 방을 보며 뿌듯해지기도 하고요. 잠시 생각을 비우고 시간을 쏟기 좋아 몇 번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으로 굳어졌네요. 방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지만 이런 날에는 방이 평소보다 더 깨끗해집니다.

11 6

이유빈(사회학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방청소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깨끗해진 주변을 보고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습관이 참 좋은거 같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청소를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음 먹고 아주 크게 대청소를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구요! 몇 주전에 집에 물건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공간 확보를 위해 두

시간동안 정리 및 청소를 했는데 힘들긴 하지만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던지!! 이 맛에 청소하는 것 같아요 ㅎㅎ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지는 저녁이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마음이 복잡할때 청소하는거 진짜 도움되더라고요!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할 때 가만히 앉아서 그 기분에 빠져들기보단 움직이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 감정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정말 좋은 습관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우현(인문학부) 배우겠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희 친언니도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꼭 청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누워서 잠을 청하는 스타일이라 늘 신기해했었던 기억이 나요ㅎ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8:11 | 15읽음
박지원(사회학과)

#6일차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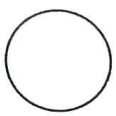
나의 습관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커피는 써서 바닐라라떼나 카라멜 마끼야토를 마셨었지만, 카페 알바를 하면서 카페라떼의 매력에 푹 빠졌다. 아메리카노는 너무 써서 반 샷만 넣어서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고, 바닐라라떼나 카라멜 마끼야토는 너무 달아서 이제는 안 땡긴다. 하지만! 카페라떼는 달지도 쓰지도 않고 딱 적당히 음미하기 좋은 맛이다! 내가 카페라떼를 마실 때 가장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는 바로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목이 막힐 때! 그때 카페라떼를 마신다면... 정말 기분이 좋다.

요즘 들어 카페인이 잘 안 받아서 그런지, 커피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조금은 줄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 나는 오늘도 카페라떼를 마셨고 내일도 마실 예정이다 :)

9 4

김소은(미디어스쿨)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좋아하는 커피를 오래 즐기실 수 있길 바라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카페인이 잘 맞지 않아서 많이 마시면 머리가 어지워러요. 특히나 급성 카페인 중독을 잘 걸려서인지 커피 한 모금을 먹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먹게 되는 것 같네요. 커피를 마시는 건 좋지만 너무 몸이 좋지 않을 땐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보세요! 뭔가 몸에 있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라서 저는 자주 마셔요 ㅎㅎ 한 번쯤은 커피 대신 차를 마시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저도 카페라떼의 매력에 빠져서 에너지가 고갈될 때 꼭 마셔요 :) 지원님의 글을 읽으니 달달한 라떼가 또 생각나네요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엄청나게 단 커피만 마시는데 지원님은 라떼를 좋아하시는군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9:13 | 13읽음
조성현(철학과)

#6일차
인생에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꿀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좋은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습관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꽤나 노력이
들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독서가 주는 효과는 상당합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만들어주고 타인의 생각을
간접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두가지만 해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좋은 습관 만들기 첫번째로
독서를 선택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한달에 한권으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9 8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건 말로는 쉽지만 어려운 행동인 것 같아요. 뭔가를 오랫동안 앉아서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취미로 가끔 독서를 하곤 하는데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맞아요 습관이라는 건 정말 어렵죠! 저도 아직 부족함이 많네요 ㅜ 취미 독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ㅎ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매일 듣고 보는 말이 '책을 읽어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서점에 방문해서 끌리는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의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독서가 주는 효과는 무시 못해요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상상력을 키우는 능력은 독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ㅎ 많은 독서하시고 상상력이 풍부해지시길 바래봅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다

조성현(철학과) 정우현(인문학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 도서관에 가서 꼭 책을 빌려봐야겠어요 :)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도서관에서 좋은 책 찾으시길 바래봅니다!! 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6

monday, pm 9:39 | 16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6일차 #습관
한림대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본가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춘천 톨게이트에 다다를 때쯤 창밖을 보는
것입니다. 춘천은 분지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톨게이트에 다다를 때쯤 창밖을 보면
산에 둘러싸인 채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처음 그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미츠하가 사는 마을 같아 보였습니다.
이후로는 학교에 오는 길에 잠에 들었다가도
그 풍경을 보기 위해 눈을 뜨곤 했었습니다.
마침 면접 때 찍어둔 사진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사진에는 전부 담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춘천에
들어오기 전 풍경을 한 번 감상해 보세요.
황홀한 풍경을 보고 춘천에 더욱 빠질
것입니다.

8 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드라이브하면서 창밖을 보는 것 같아요. 춘천은 산이 많아서 그런지 자연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구요! 특히 창문을 내리고 즐기면 상쾌한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에 기분도 좋구요 ㅎㅎ 날씨 좋을 때 드라이브 하고 싶어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춘천이 너무 익숙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음엔 저도 창밖을 보면서 다녀야겠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고속도로를 타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데, 이런 풍경이 있었다니! 몰랐네요 정말 미츠하가 사는 이토모리 마을과 비슷하네요
박혜윤(사회학과) 분지 지형이라는 건 알았는데 외곽에서 바라본 춘천은 처음 봐요 실제로 보면 미니어쳐처럼 옹기종기 귀여울 것 같아요!
정우현(인문학부) 춘천이라는 지역이 참 아름답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사진이 너무나 예쁘네요,,,, 사진 보면서 힐링하구 갑니다아!

2023/11/06

monday, pm 9:46 | 14읽음
이주영(디미콘)

#6일차 #습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루에 한잔 커피 먹는 습관이 있다. 나는 처음부터 커피를 좋아하진 않았다. 처음 커피를 맛본 건 어른들의 음료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결국 부모님 몰래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혼난 기억과 동시에 커피는 너무 쓰고 맛도 이상해서 왜 먹은 지 궁금했다.

이 일이 있고 고등학생 때까지 먹지 않다가 시험기간 커피를 먹으면 잠에 잘 들지 않는다는 말에 맛이 없어도 시험기간만 되면 항상 커피를 찾곤 했다. 고등학생 때 커피를 항상 먹다 보니 어느새 커피 맛이 익숙해졌고 대학생이 된 지금은 식후 커피를 항상 찾곤 한다. 커피를 먹으면 느끼함이 사라지고 힘들었던 정신도 돌아온다.
하루에 한잔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기고 난 뒤로 커피를 먹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커피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커피를 끊어 보았다.
커피를 먹지 않는 날도 괜찮은 날을 보내지만 커피가 있으면 더 활기찬 느낌이 들어 하루 커피 한잔 먹는 습관은 나쁜게 아니라 삶에 도움을 주는 음료구나 생각한 뒤로 항상 커피를 먹으며 재밌게 일상생활을 보낸다. 다들 커피 한잔 드셔보세요~

7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커피가 몸에 잘 맞지 않아서 마시지 못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마시는 때는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에는 잠을 줄이려고 하다보니 아주 적은 양의 커피를 마시곤

하죠. 그래서인지 커피를 잘 마시는 주영님이 뭔가 대단한 듯한 기분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커피를 너무 마셔서 그런지, 자꾸 카페인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요 하지만 내일도 마실 예정이랍니다~~^^

김경회(국어국문학과) 저도 요즘 아침에 커피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 컨디션이 달라지는것같아 너무 좋은것같습니다 오후에 먹던 커피를 아침에먹으니까 밤에 잠안오는 일도 없어서 좋더라구요

정우현(인문학부) 커피 그만 드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달달한 커피, 즉 라떼 이런 건 마실 수 있는데 아메리카노는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구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9:53 | 10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6일차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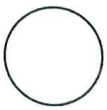
나는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이다. 사실, 커피 한 잔만으로도 하루 온종일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는 수준이라 민감하다를 넘어 취약하다에 가까운 듯 싶다. 그럼에도 내 일상은 학교 편의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들고 강의실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 계기는 월요일 1교시 수업이었다. 월요일 1교시. 그렇잖아도 아침잠이 많은 내게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다. 반쯤 의식을 놓은 채로 수업을 듣길 여러 번, 안되겠다 싶어 커피를 대동한 채 강의실에 들어갔으며... 그 효과는 굉장했다. 다시 없을 명징한 정신으로 강의실을 나선 나는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커피를 챙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학기 중 한정 카페인 중독자가 되어있었다. 수업에 집중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건강에 좋을 리가 없는 나쁜 습관인 것을 알지만 오늘도 gs25 아아메(큰컵)와 함께 강의를 듣는다.

6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명지님처럼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뭔가 어지럽고 배가 아프곤 하죠. 그런데 가끔씩 커피가 땡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험기간에 종이컵 2/3분량을 마시면 잠이 안 와서 그런지가봐요 ㅎㅎ 그래서인지 시험기간에는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카페인에 민감하고 잘 안 받아요 gs25 진짜우유라떼도 정말 맛있어요 가격도 괜찮고 맛도 맛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교시 수업은 늘 어렵고 힘들죠,,,, 저는 커피 한 잔으로는 도저히 아침잠을 깨울 수 없겠어서 아이셔를 들고 간답니다 크크,,,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9:59 | 11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6일차 #습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습관은 관절을 꺾는 것이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체 부위를 자주 꺾는다. 관절을 꺾는다는 건 스트레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똑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는 관절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순간적으로 터지면서 나는 소리로 처음에는 아프지만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시원함이

느껴진다. 아마 나처럼 관절을 꺾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다. 아픈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느껴지는 시원함에 중독성을 느끼게 된다.
사실 내가 이 행동을 시작하게 된 건 초등학생 때부터인데,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아파트 앞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아파트에 위치한 학원이다 보니 내 또래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가도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잠시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학원 옆에 있던 놀이터에서 놀기도 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더 왜소한 체격이라서 그런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 친구들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물론 나가서 노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가끔은 과격한 친구들이 손길에 손이 아픈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놀러 가자고 내 손을 잡았는데, 하필 손가락을 잡아버렸다. 그 친구의 힘이 내 손가락 하나에 몰렸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똑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우리 둘 다 당황해서 내 손가락이 부러진 줄 알았다.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다행히 손가락에는 이상이 없었고, 나는 조금 안심하고 친구와 놀았다. 문제는 집에 돌아온 이후였다. 한 번 소리가 난 손가락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계속해서 소리가 났다.
어린 나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은 손가락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소리를 시원하게 내고 나서야 비로소 쾌감이 느껴지며 편안해졌다. 결국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 손가락 하나에서 두 개가 되고 결국 대부분의 신체 부위를 꺾게 되었다.
그렇게 난 현재까지도 소리를 내게 되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소리를 내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절제를 한다는 것이다. 똑 소리를 내는 것이 관절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다만, 시험기간과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관절을 꺾는다.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라서 그런지 쉽게 고쳐지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고쳐보려고 한다. 지금은 괜찮아도 하나 둘 나이를 먹다보면 언젠가 관절에 무리가 갈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행히 오늘은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런 날이 계속되길 바란다.

☺ 5 ⋯ 9

고다인(중국학과) 어릴때 우연히 겪은 일이 지금까지 습관이 되었군요 앞으로 조금씩 의식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을거예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고다인(중국학과) 꼭 그랬음 좋겠어요ㅠㅠ 언제가는 고쳐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소리내고 싶은 욕구를 꾹 참고 있네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안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경을 안쓰면 관절 꺾는 습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손가락에 신경을 안쓰다보니 꺾는 습관이 아예 사라졌어요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현지(경영) 현지님의 방법부터 시도해봐야 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계속 신경써서 자꾸 생각나고 하고 싶어지는 것 같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관절을 꺾는 모습이 괜히 멋있고 신기했지만 막상 하기엔 너무 무섭고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커서 안 했었어요..!!!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저도 오늘부터 저의 습관들을 고쳐보려고 해요~ 같이 노력해봅시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혼자 노력하는 것보단 함께 으샤으샤해서 노력하는 게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님 덕분에 고치고

싶은 의지가 더 커졌네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고치려는 게 중요한거죠 응원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정우현(인문학부) 이른 시간 내에 고치기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응원 감사합니다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저는 손가락에서 뚝뚝 소리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뚝뚝 소리가 안 나더라구요 크크,,,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10:07 | 9읽음

고다인(중국학과)

#6일차 #습관

오늘의 키워드 '습관'에 대한 여러 인증글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좋고 나쁜 습관들이 있었다.나역시 여러 습관이 있는데 어릴때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은 엄마의 강력한 의지로 개선이 된지 오래되었다.현재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 3가지를 써보려고 한다.

첫번째는 분단위 알람맞추기이다.예를 들어 나는 9시 수업을 위해 7시45분에는 집에서 나서 셔틀버스을 타러 가야한다.이것을 위해 집에서 나가는 시간7시43분,7시40분에 알람을 맞춘다.준비하려면 7시에는 적어도 일어나야하니 6시45분,6시50분,6시55분,6시58분,7시에 알람을 설정하고 또 늦잠을 잘까봐 그 이후로도 세네개의 알람을 맞춘다.

두번째는 초단위 시간확인이다.나는 어릴때부터 뭔가 시간을 확인할 때 분단위도 보지만 초 단위까지 봐야 확실한 느낌이 괜히 들어 이런 버릇이 생겼다.아침에 밥을 먹고 양치를 할때도 음악을 틀고 휴대폰으로 분,초 단위 모두 확인하며 양치를 한다.

세번째는 메모습관이다.가끔은 너무 바쁜 일정에 누가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해야할 일을 잊을까 재빨리 모든 것을 휴대폰 캘린더에 입력해놓는다. 장점은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잊지않으려 체크하는 것이지만 단점은 너무 많은 메모에 가려진 목록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습관들은 나를 효율적으로도 만들고 가끔은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6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인님이 가지고 있는 메모 습관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는데 그걸 메모로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분단위로 알람을 맞춰놔요.. 예전에 알람을 못 들었던 시절이 있어서, 불안함 마음에 지금도 분단위로 맞춰놨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알람 맞추는거 너무 공감되네요

정우현(인문학부)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부럽습니ㅣ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저도 분단위로 알람을 맞추는 것과 자잘한 메모까지 다 작성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다인님 글이 너무 반갑네요!
늦었지만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10:08 | 12읽음
정우현(인문학부)

#6일차
내 습관은 늦게 일어나는 것이다. 잠이 유독 많아 약속에 늦은 적이 많다. 그래서 약속 전에 알람을 무조건 맞추고 잔다. 못 듣고 일어날 때의 자괴감은 엄청 고통스럽다. 무척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약속을 어겨서 싸운 적도 꽤 있고 관계가 깨진 적도 있었다. 그래서 약속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요즘 웬만하면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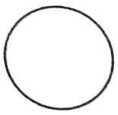
그리고 내 안 좋은 습관 두 번째는 안 좋은 자세를 하는 것이다. 안좋은 자세를 하고 살아온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최근에 정형외과를 갔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허리가 아프니까 이곳저곳이 다 아프기 시작했다. 허리가 몸의 중심이니까 다 무너지는 것 같다. 이래서 중심을 잘 지켜야 하는구나 안 그러면 휘청휘청 거리는 젠가처럼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생각해 보니 좋은 습관이 별로 없고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만 많이 끼친 것 같다. 앞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을 찾아서 멈추려고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7 💬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안 좋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맨날 구부정하게 있다보니 뭔가 허리도 더 쑤신 것 같고 목도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씩 스트레칭도 하고 바른 자세로 수업을 듣고 있네요 ㅎㅎ 우현님도 한 번에 고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해보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거북목이 너무 심해서 항상 목이 뻐근해요ㅠㅠ 시험기간 때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안좋은 습관을 고치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십니다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도 목 디스크가 있어 어깨 통증과 두통이 심한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느꼈습니다ㅜㅜ 자세 교정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헉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허리하고 어깨 좀 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현님과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네용,,,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10:47 | 15읽음
김준호 (콘텐츠IT)

#6일차
습관.
순우리말로는 버릇이라 말하곤하는 습관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깊숙히 붙어있는 행동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있어 좋은 습관은 끈기있게 오랜 시간 반복해야 만들 수 있지만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나에게 달라붙은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도 않기에 여러모로 골치 아플때도 있기 마련이다.

습관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티가 난다는 점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 나의 습관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습관을 의식하고 눈여겨 봐야한다. 습관은 한자로 "習慣"인데 이때 "慣"(익숙할 관)은 방임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방임한 안좋은 행동도 곧 습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안좋은 습관도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물론 좋은 습관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습관들은 더 많이 반복하고 안좋은 습관은 줄이면서 좋은 습관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

8 6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습관의 가장 큰 무서움은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티가 나고 드러나는 사실인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안좋은 습관은 정말 쉽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몇 번의 반복으로 습관이 만들어지니 항상 주의해야겠어요~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특히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의 습관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좋은 습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준호님의 글에 정말 공감해요. 누군가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처럼 습관도 그런 힘이 있다면 제가 가진 좋은 습관들을 널리 퍼뜨리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좋은 습관은 끈기있게 오랜 시간 반복해야 만들 수 있지만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말에 너무 공감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11:12 | 13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6일차 #습관

[루틴과 습관]

'인생은 습관이다. 라기보다 인생은 습관의 연속이다'
-사무엘 베케트-

요즘 인터넷을 보면 '루틴' 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쓰는듯 합니다. 오늘 습관이라는 주제를 보고나서 습관과 루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며 인터넷에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해보았는데요

습관은 무의식적인 반복의 행동, 루틴은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침 루틴, 운동 루틴, 잠들기 전 루틴 등등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좋은 루틴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행도 합니다.

그 루틴들이 수많은 반복을 통해 습관이 되었을때 어느새 그사람은 멋진 사람이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히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지고 싶은 루틴이 있으신가요?

오늘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분도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 댓글에도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을

자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맘에 드는 습관은 제가 따라 배우고싶네요)

7 5

고다인(중국학과) 저는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끝내는 습관이 정말 가지고 싶은데 정말 어렵네요~
김경회(국어국문학과) 고다인(중국학과) 할일을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시는군요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경회님 덕분에 습관과 루틴의 차이를 알게 되었네요! 음... 제가 갖고 싶은 루틴은 독서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독서와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만약 독서가 루틴이 된다면 더 풍부한 소양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아침 운동하시는 분의 습관을 갖고 싶어요!! 경회님의 글을 읽어보니, 저는 습관보다는 오늘 하루의 루틴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많다고 느껴지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가 가지고 싶은 루틴은 아침에 알람없이 일어나기 입니다..! 잠이 많은 저는 늘 알람을 듣고 억지로 일어나기 때문이기 때문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11:20 | 9읽음
조영주(간호학과)

#6일차

습관은 나를 지키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몸에 배어 제대로 의식하기도 전에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매일 아침 이불을 개는 것이 될 수도, 다리를 꼬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것은 나를 활기차게 하고, 어느 것은 나를 점차 힘이 들게 한다. 두 모습을 가진 습관.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의 특성을 파악해 잘 활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한다.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은 내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나를 활기차게 해주는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에 있다.

7 4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습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활용한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저 또한 건강한 습관을 만드려고 노력 중입니다. 글 잘 읽었어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좋은 습관을 형성해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쁜 습관들은 습득하기 쉽고 좋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습관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덕분에 습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습관의 중요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인 듯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네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11:23 | 13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6일차 #습관

나는 어릴때부터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다.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혼난 기억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때도 손을 보여주기 창피했다.

이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다가 네일을 발견했지만,
나이가 어렸던 나는 성인을 꿈꾸기만 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나는 바쁜 적응기에 네일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교 3학년이 되고 어느날 인스타 피드에 올라온 네일을 보고 3시간 동안 어떤 네일을 할지 고민했다.

나도 이제 짧은 손톱에서 벗어나는건지 설레이고,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을 나에게 투자하는 부분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다.

현재는 손톱을 예쁘게 기르고 있다. 심지어 내 손톱에 한 네일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있다. 넘 기분이 좋다.

☺ 8 ⋯ 5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손톱 물어뜯는 습관 정말 고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습관에서 벗어나신 것이 멋지십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습관을 고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낸 다혜님을 보면서 저도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모르게 의지가 불타오르면서 저도 변화를 맞이하고 싶네요 ㅎㅎ 덕분에 좋은 배움 얻어갑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기분 좋은 다혜님 굿굿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얼른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하는데 다혜님 정말 대단해요!! 오늘 습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고 사람들의 글을 읽다보니 습관을 더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드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비싼 네일 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 하면 속상하기도 한데 누군가 예쁘다고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구요 크크,,,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6
monday, pm 11:32 | 12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6일차 #습관

결벽증은 아니지만 나름의 '청결 철칙 습관'이 있다. 손 자주 씻고 소독하기, 많이 쓰는 물건들 하루에 한 번씩은 소독하기, 2주마다 손발톱 깎고 정리하기, 외출복으로 절대 침대에 눕지 않기 등. 어렸을 때부터 깨끗한 상태와 깨끗한 것들을 좋아했기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내 안에 완벽히 자리 잡은 습관이다.

극단적인 J는 아니지만 나름의 '일상 계획 습관'이 있다. 고등학생 때는 플래너에다가 직접 작성했지만 갖고 다니기도 귀찮고 쓰기도 귀찮아져 폰 어플인 '투두메이트'를 쓰기 시작했다. 편리하게 앱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일기 쓰기 기능까지 있어 매일 들여다보게 되는 어플이다.

음식을 먹을 때 잘 안 씹고 넘기는 것 같아 최소한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만들었다.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샌가 천천히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샤워하는 습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있는 습관 등 케케묵은 먼지 쌓인 습관들도 많다. 어서 바로잡고 고쳐 좋은 습관들로 만들어야지.

☺ 8 ⋯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유민님의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사소한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간 유민님의 행동으로 인해 얻은 보상이 아닐까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정말 하영님 말처럼 사소한 습관들이 유민님의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또 그런 습관들이 모여 유민님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극단적으로 p인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계획이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당~!~!

2023/11/06
monday, pm 11:39 | 17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6일차
벌써 6년은 되어가는 나의 습관은 학교가 끝나고 한 길로 집까지 걷는 것이다. 한림대 옆 고등학교에 다니며 야자가 끝나고 늘 집까지 걸어왔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이 좋았고, 겨울에는 소복히 내린 눈 위로 발자국을 찍으며 집까지 걸었다. 대학교 입학 후에도 동일한 길로 집까지 걸어간다. 그동안 한림대 근처는 많이 변했다. 기존에 있던 쥬씨, 미화네 떡볶이, 휴대폰 대리점 등 많은 가게가 사라지고 새롭게 가게들이 생겼다.
원래 글로벌학부는 춘천시의회였는데, 어느날 지구본이 생기더니 한림대 건물로 바뀌었다. 예전에 정문쪽 신호등을 건널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깃발도 있었다. 가끔 옛날의 모습도 떠올리며 그 당시의 나를 떠올려본다. 대학에 대한 불안으로 울면서 걷던 모습, 친구와 함께 떠들며 걷던 추억, 교복을 입었음에도 정문쪽에서 마주한 사이비 등 너무나 소중한 십대 끝자락의 추억이 있었다.
지금은 교복이 아닌 자유롭게 옷을 입고,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와 그 길을 걷고, 취직에 대한 걱정을 생각하며 걷고 있다.
짧은 사이 나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늘 같은 길을 걸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미래를 꿈꾸기도 한다. 조금은 변하였지만 한결같은 나의 하교길이 늘 영원했으면 좋겠다. 언젠가 이 길을 걷지 않는 날이 온다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할 것 같다.
그 언젠가가 오기 전까지 나는 매일 이 길을 걷는다.

+고등학생 시절 짧게나마 한림대가 찍힌 사진을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8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늘 걷는 길에 예쁜 추억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부럽네요 ㅎㅎ 저도 그런 추억들을 기억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정말 신기한 습관인 것 같아요!! 과거부터 걸어왔던 길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서 걷다보면, 과거의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 자퇴 어떠냐는 사진이 너무 웃기네요 크크,,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안전한 횡단보도를 위해 깃발이 다시 도입됐으면 좋겠어요ㅜㅜ

2023/11/07

tuesday, am 12:13 | 22읽음

김양선

#6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나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하고,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일기를 쓰거나 투두리스트를 정리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많네요.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들도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알차게 채워줄 것이라 맏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편안하게 잘 자기 바랍니다.

16 1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감사합니다

2023/11/07

tuesday, am 8:01 | 26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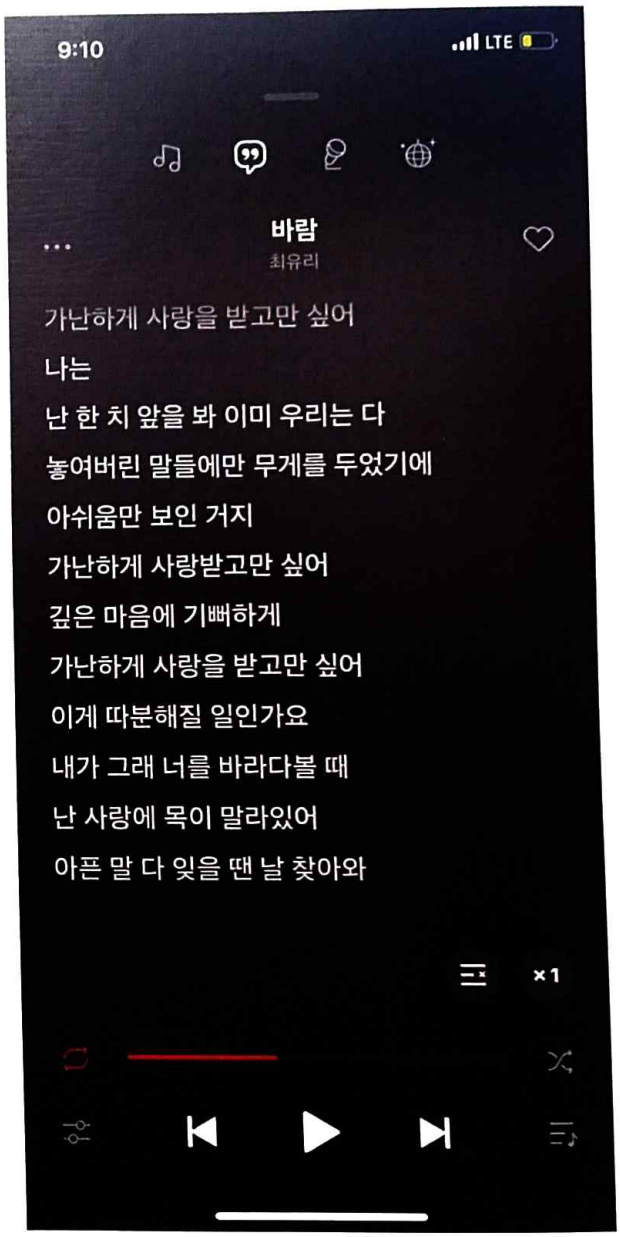
김양선

#7일차 키워드 : 바람
밤새 바람소리가 세차게 들려서 잠을 설친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바람도 사실 종류가 많답니다. 산들바람, 높새바람, 하늬바람 등등. 바람을
쐬다, 바람나다와 같이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바람의 언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와 같이 유명장소. 문학. 노래의 모티프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찬바람을 맞으며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12 0

2023/11/07
tuesday, am 9:11 | 16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7일차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 최유리의 바람
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최유리의 노래는
대부분 잔잔하고 목소리를 돋보이게
하기위해 반주도 거의 넣지 않는다. 오로지
가사를 전달하는데 집중한다. 그 노래를 듣거
고 있자면 바닷가에서 찬 바람을 맡으며
고뇌에 빠질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특히 가난하게 사랑만 받고싶어 라는
가사를 좋아한다.
다들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노래로 위로를
받고싶을 때 이 노래를 추천하고싶다 :)



12 4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좋은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꼭 한 번 들어볼게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꼭 들어봐야겠어요!
글도 잘 읽었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헉 최유리 노래 좋아하는데,
바람이라는 노래는 처음 드는 것 같아요. 꼭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2023/11/07
tuesday, am 9:47 | 15읽음
김서희(심리학과)

#7일차
나는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좋아한다.
특히 봄에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너무나 좋다.
차에서 창문을 열면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도 좋다.
'바람'하면 떠오르는 노래도 생각나서 첨부한다.

바람의 빛깔
오연준

사람들만이 생각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 아이가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날 정말 너무 잘 불러서 경악을 금치 못 했던 기억이 나요,,,
박지원(사회학과) 헉 저 아이의 노래를 영상으로 정말 많이 봤어요!!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도 들어봐야겠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특히나 제주소년 오연준군이 부른 버전을 좋아하는데 목소리에 호소력이 있어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나더라구요. 특히나 가사가 너무 예뻐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am 9:49 | 18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7일차
바람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침부터 매섭게 들이친 바람이 아니라 '바라다'라는 동사였다. 바람과 바람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느껴진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게 불어온다. 때로는 매섭게, 때로는 부드럽게 다가와 나를 휩쓸고 간다. 수험 생활을 했을 때, 내게 매서운 바람은 대입이었다. 너무나 간절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 보면, 그렇게까지 매달려야 했던 일인가 싶기도 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발이 돼서 대입만이 보였던 때를 생각하면, 그만큼 몰입했던 순간이 또 언제였을까, 그때처럼 노력할 수 있을까 싶다.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인데 수험생으로 지냈던 시절보다 노력을 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잔잔하고 기분 좋은, 내게 오래 머무르는 바람은 뭐가 있을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종류는 나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건강한 것?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소망이 있다. 바람부는 인생, 수많은 바람을 안거나 흘러 보내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다.

12 8

홍다연(정치행정) 저는 단순히 바람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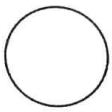
작성했는데 바라다 라는 동사와 대입시절을 떠올리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감명깊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딱 바람이라는 명사만 생각났는데 바라다의 동사가 있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오늘의 키워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때의 감정을 기억나게 했군요 글 잘 읽었어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바람은 불어오는 거지만 바라는 건 찾아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연 님의 글을 읽고 나니 꼭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오듯 내 바람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싶어졌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공감 많이 되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바람'이라는 단어를 '바라다'라는 단어로 바라보신 수연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바람을 안고 흘러보내며 살아가고 싶네요
박혜윤(사회학과) '바람'을 '바라다'로 떠올리신 게 인상깊어요!
김현지(경영) 수 많은 바람을 안거나 흘러 보낸다는 문장이 인상깊습니다 :)

2023/11/07
tuesday, am 10:19 | 20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7일차 #바람
바람 하니까 광고가 하나 떠오른다. 핫초코 광고였는데 매년 이맘때쯤 '찬바람 불 때~핫초코 미떼'라는 멘트와 함께 끝났다. 손이 빨개질 정도로 추운 날, 찬바람이 쌩쌩 불 때 먹는 자판기 핫초코는 정말로 좋다. 따끈따끈한 종이컵을 꼭 쥐며 노곤하게 차가워진 손을 녹이며 목을 축이는 핫초코는 어느 때보다도 맛있는 것 같다. 진한 핫초코 위에 새하얀 마시멜로를 둥둥 띄워 사르르 녹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다. 바람이 더 특별하게 기억을 남겨준 것 같다.
그래서인지 문득 바람이 창문을 치며 매서운 소리를 지를 때면 따뜻한 핫초코가 떠오르곤 한다.

13 5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도 아메리카노만 줄곧 먹다가 오늘은 핫초코가 생각이 나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 카페에 가서 핫초코를 사들고 수업에 가야겠어요 :)
고다인(중국학과) 그 광고 진짜 기억에 잘 남죠~글 잘 읽었어요
가양선(경영학과) 추울 때 마시는 핫초코는 너무 맛있어요 ㅠㅠ !
박지원(사회학과) 핫초코 미떼 광고 알죠!! 거기 나온 남자아이 정말 귀여웠던 기억이 나네요



2023/11/07
tuesday, am 10:54 | 14읽음
홍다연(정치행정)

#7일차 #바람
저는 바람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세찬 비바람이 불었던 어제의 하루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약간의 바람이 불었으나 날이 따뜻하여 '유기농 카페'라는 곳에 가서 핑크뮬리를 구경하며 가을을 즐겼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에는 매서운 바람과 함께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우산이 뒤집히는 등의 일을 겪었습니다. 수업에 들어오기 전, 동기들이 뒤집혀진 우산을 들고 와 옆에서 웃으며 함께 우산을 원래대로 복구시키기도 했습니다.
낙엽이 지게 된지 한달도 되지않아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를 보니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감기에 걸렸지만 다른 분들을 항상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감기를 예방하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8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저도 유기농 카페에 가서 핑크뮬리를 꼭 보고싶었는데! 다연님 덕분에 사진으로나마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고다인(중국학과) 하루만 늦게갔어도 바람때문에 핑크뮬리 구경을 제대로 못 할 뻔 했네요~~다행이예요
가양선(경영학과)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바람이 너무 불어서 우산이 뒤집히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바람이 정말 세차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2023/11/07

tuesday, am 11:11 | 17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7일차

그날은 거센 바람이 몰아쳐 아무도 여관에서 외출할 수 없었다. 객실에 머물던 이들은 주인의 제안에 따라 화로 앞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한 손에 커피나 코코아가 든 컵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책을 펼쳤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글과 책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평소 문학 클럽에서 자주 본 얼굴도 있었다. 주방으로 떠난 주인을 뒤로하고 젊은 작가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토록 기상이 악화된 건 제 인생에서 손에 꼽아요. 잉글랜드는 좀처럼 폭풍이 몰아치지 않으니까요.]

이에 중년의 사내가 호쾌하고 웃고는 대답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것은 어린아이도 웃고 지나가지. 어디 한 번 지금 저 밖에서 우릴 괴롭히는 바람에 대해 논해봅시다. 나는 마치 저 바람이 영국으로 진입하는 로마의 군단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에 당차게 진입했지만 켈트족에게는 코웃음 거리죠.]

그러자 단아한 복장의 여인이 말을 꺼냈다.

[저는 이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비바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한 메리 셸리도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 친구들과 모여 괴담을 만들다 자신의 걸작에 대한 영감을 받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떠올릴 영감을 줄 수도 있고요.]

가장 오른쪽의 흔들의자에서 힘없이 듣고 있던 노인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머나먼 옛날의 드루이드도, 로마인도, 소설가도, 우리도 모두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다양한 외모에 비해 그 속내를 알 수 없어도 미워할 수 없지. 자연을 이길 순 없어. 그것은 운명과 같은 힘을 지녔단 말이다.]

유쾌하고 심오한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토마토소스를 앞치마에 묻힌 채 나타난 여관 주인이 외쳤다.

[이제 떠들 시간은 끝났습니다! 어서 와서 식사나 하십시오. 오늘의 메뉴는 스파게티입니다. 어떤 화가는 스파게티 면으로 바람을 묘사하기도 했죠. 그게 바로 저랍니다!]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창밖의 어둡고 차가운 풍경과 달리 실내에는 부정과 우울이 결코

들어오지 못했다. 인간의 감정은 날씨와 상관없이 화창했던 것이다.

10 4

김서현(광고홍보학과) 바람이 아무리 세차고 매서워도 사람들은 그 또한 감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바람은 추운 것이라 생각해 싫어하기만 했었던 예전의 저를 반성하게 되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스파게티 면을 바람으로 묘사했다니! 지금 상상해보니 정말 그 둘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스파게티 면으로 바람을 묘사하다니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한문장,한문장 생각이 많아지는 글이네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am 11:14 | 15읽음
정우현(인문학부)

#7일차
난 바람이 싫었다. 머리가 날리고 품위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추운 날씨에 바람이 불면 정말 시베리아가 따로 없다. 바들바들 떨리고 이를 떨게 되며 소리를 지르게 된다.

난 날씨에 예민해서 바람이 불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게 싫었는데 생각해 보면 바람이 불어서 오히려 그날들이 특별했던 것 같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하는 날에는 유독 기억이 잘난다. 바람이 부는 날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까?
화창하기만 한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는 바람이 좋다. 어제 새벽에 편의점을 가는 길이 평소와는 달랐다. 바람이 계속 불어서 이곳저곳이 쓰레기로 뒤덮여있었으며 각종 잡다한 것들이 흩어져있었다. 원래 이러한 날들을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따라 특별한 날이 좋다. 평소와는 다르고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 결국엔 기억에도 잘 남기 때문이다.

추억이라는 게 별거 없는 것 같다. 그냥 내 기준에서 조금만 특별해도 추억이다. 나는 추억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내 추억을 바람이 만들어준 거 같아 감사하다.

10 3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저도 바람을 정말 싫어했는데 요즘은 왠지 상쾌한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구요! 우현 님의 글을 읽으면서 특별하지 않은 화창한 날의 기억을 떠올려보아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유독 추워진 요즘 날씨에 공감되는 글이네요 ㅎ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크크,,,, 저도 바람이 불면 제 앞머리를 지키기 바쁘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추억이라는 게 정말 별것도 아닌데 추억으로 남는 듯 해요...

2023/11/07
tuesday, am 11:32 | 15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7일차#바람

찬바람
신유정

뜨거운 여름 무거운 몸
그런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달콤한 오아시스

건조한 피부. 상처에는
연고 바르기 오래가도록
토닥토닥 굳어진다

답답한 내 마음
빼곡한 내 머릿속
가득한 생각 사이 빈틈

차가운 바람 휙 불면
부드러운 바람 휙 불면
거친 바람 쎙 불면

나는 조금 편안해진다
이제 나를 덮어줄 수 있다
갈증이 풀린다

어제, 오늘 부는 아주 거칠고 강력해서
가로수도 간판도 날려버리는 바람은 반갑지
않지만. 적당히 부는 찬바람. 물건들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쎈 바람은 반갑다.
찬물은 내 속을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가라앉히지만 내가 꺼내 놓은 마음만
식혀주는 것은 '바람'뿐 이라서 '바람'이 좋다.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과는 다른. 자연에 있는
바람이 '휘잉'~. '쎙'~하고 불어오면 반가운
이를 본 것 같이 기쁘다.

☺ 10 ⋯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래서 저도 자동차에 히터와 엉뜨를 켜고 창문을 내려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겨울을 좋아해요ㅎㅎ 잘 읽었습니다!
신유정 (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과는 다르죠~~ 자연 바람은 자연의 냄새도 동시에 나면서 향긋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신유정 (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자연바람이 상쾌하죠 ㅎㅎ

김현지(경영) 살랑이는 바람이 딱 좋은 것 같아요ㅎㅎ 시를 정말 잘 쓰시네요 :)
신유정 (심리학과) 김현지(경영) 감사합니다

2023/11/07

tuesday, pm 12:51 | 21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7일차

바람은 세차지만 뼈를 꿰뚫을만큼 살벌하진
않은 요즘 날씨입니다.

누군가는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마지막
잎새'를 떠올리고, 사라져가는 가을에 지구를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 항공서비스를 전공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매일 같은 유니폼, 같은 머리, 같은 구두.
겨울이 오기 전까진 패딩이 아닌 유니폼으로
맞춘 트렌치 코트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추위를 아주 잘 타는 체질이라 가을, 겨울의
등교는 아주 힘겨웠습니다.

당시 집은 남양주 별내, 학교는 서울 서초구.
편도 2시간 정도의 거리를 편하지도
않은데다 얇기까지 한 옷차림으로 다니는 건
참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 동기들, 따스한
눈빛으로 저희를 봐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졸업 후 편입을 하게 된 이곳에서도 많은
기억을 쌓고 있지만, 모름지기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것들이 걸러져
추억으로 보정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괜히 '그땐 그랬지'하며
웃음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추위를 너무 잘 타는 편이라 어제 다이소 가서 핫팩을 엄청나게 많이 구매했어요ㅎㅎ,,,, 따뜻한 하루 되세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작년에 무더기로 구매해서 기숙사 사물함에 넣어뒀었는데요... 8관 침대 밑 사물함에 보관했더니 바닥 온도때문에 사용하려고 꺼냈을 땐... 이미 다 죽어있었어요... 지은 님께서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추위에 감기 안 들리시길 바랍니다! :)

고다인(중국학과) 와 항공서비스를 전공하셨다가 편입을 하셨군요~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수고하셨어요 남은 기간동안 더 많은 추억과 계절을 쌓길 응원할게요

2023/11/07

tuesday, pm 1:59 | 19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7일차
오늘의 키워드를 보니 문득 바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와 지구과학 사이트를 찾아보니 바람은 온도 차이, 압력 차이, 지구의 회전, 지형과 지형 특징, 압력 강도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일단 지구 표면에서 햇빛에 의해 데워진 지역의 공기는 더 가벼워지고 상승하며, 차가운 지역에서는 공기가 더 밀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지구는 회전하는데, 이로 인해 바람은 지구의 회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코리올리 효과는 공기의 움직임을 오른쪽으로 편향시키는데, 이로 인해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형과 지형 특징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악 지역, 바다, 호수 등은 바람의 움직임을 형성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압과 저기압 지역 간의 압력 경도는 바람의 세기를 결정합니다. 압력 차이가 클수록 바람은 더 세게 불게 됩니다. 바람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지구 상의 대기 중에서 발생하고 움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었어서 그런지, 이런 사실이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바람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10 5

신유정 (심리학과) 바람이 왜 생기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흥미롭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생각보다 바람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바람에 대한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과학시간에 흥미를 가지진 못했지만 일상에서 과학은 무척 반가운 것 같아요ㅎㅎ 지은님의 글을 읽고 바람이 생기는 원리를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선택과목으로 지구과학 했었는데 오랜만이네요!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읽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2023/11/07
tuesday, pm 2:11 | 18읽음
조성현(철학과)

#7일차
춥다.
몹시 춥다..

겨울바람을 맞으니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이 와도 별로 안춥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동장군이 화가 났는지
곧바로 찬바람을 선사해주셨습니다.

동장군의 찬바람을 맞으니 겨울이 왔다는게
체감이 됩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을 맞으며
수업을 가니 정신도 금방차려지고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하하

이번 겨울은 너무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
적응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겨울을 좋아해서 갑자기 찾아온
겨울이 밉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예고없이 찾아온 손님을 맞이해야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추워진다는 건 한해가 끝나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길고 길었던 2023년도 정말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과 함께 2023년 잘
마무리해봅시다!!

10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주말동안 비가 세차게 내린 다음 바로 추워지더라구요,,, 눈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는 날씨인 것 같아요
조성현(철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정말 갑자기 추워져서 눈이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감기조심하세요~~
고다인(중국학과) 갑자기 겨울이 된 느낌이예요 분명 일주일 전엔 낮에 더웠는데 말이예요~
조성현(철학과)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겨울이 갑자기 찾아오네요 ㅜㅜ 일주일 날씨가 거짓말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겨울을 좋아해서 오히려 오늘의 바람이 너무 반가워요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겨울의 바람은 반갑기도 하죠!! 매년 바람을 맞아도 좋은 것 같아요 ㅎ

2023/11/07
tuesday, pm 2:16 | 14읽음
이주영(디미콘)

#7일차 #바람

나는 바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한다. 많은 바람들 중 차가운 바람을 나를
더 차갑게 만든다. 밖은 너무 춥고 안은 너무
따뜻해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싫어 몸이 굳어버린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만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생각난다. 차가운 바람이 몸만
굳게 만들었다면 다행이지만 마음도 차갑게
만든다.
아무렇지 않은 일도 차갑게 마주하게 되고
따뜻해야 할 순간에도 차갑게 행동한다.
차가운 바람을 마주한 날에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다운된다.

그래도 차가운 바람만 불진 않는다.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이 있기에 차가운 바람이 나를
차갑게 만들어도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이
나를 녹여준다.
언제나 내 옆에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만 있진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이 오면 그날을 잘 간직하고 다음 바람이
차갑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차갑고 따뜻함이 오고 갈지라도 잘 지나가길

다들 따뜻한 바람이 오래 머물고 차가운 바람은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요!

10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더욱 마음이 허하고 외로운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차가운 바람이 주영님에게 다가오더라도 언제나 주영님 마음속에선 따뜻한 바람에 불었으면 좋겠어요

2023/11/07
tuesday, pm 3:24 | 15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7일차 #바람

요즘 바람이 거세게 분다.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에 거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며 나뭇잎이 이리저리 흩날렸다.

기분이 좋지 않지만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를 듣고 싶을 때 비투비의 '나의 바람(Wind And Wish)'이라는 노래를 듣는다. 영어로 된 노래 제목을 보면 '자연이 만든 바람과 내가 만든 바람', 중의적인 의미로써 활용하고 있다.

가사를 읊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응원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보이그룹 비투비는 이 노래가 담긴 앨범을 통해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이 노래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보다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감상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람이 나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도와주는 듯한 힘이 되는 노래이다.
여러 우연과 운명들이 겹치면서 올해 나의 행운의 상징은 네잎클로버인 것 같다, 생각하며 유독 네잎클로버를 좋아했다. 이 음악의 앨범커버도 4개의 하트가 모인 네잎클로버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음악이 나왔을 때 눈에 확 띄어서 한 번 듣다가, 며칠 내내 이 노래만 들었을 정도로 푹 빠졌었던 노래이다.

"긴 하루의 끝에 또 너를 생각해. 오늘 넌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
시간은 빠르게 도는데, 여전히 내 맘은 똑같아."
"너의 숨결을 느낄 때, 다시 나아갈 수가 있기에. 넌 계속 행복해줘. 늘 그렇게 빛나줘.

10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저도 이 노래 엄청 좋아해요! 지금 앨범 표지를 보니까 네잎클로버가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한 게 사과맛 사탕 같기도 하네요 흐흐,,,
고다인(중국학과) 이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좋네요~글 잘 읽었어요
가양선(경영학과) 노래 찾아 들어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홍다연(정치행정) 추천해주신 노래를 처음 들어보게 되었는데 노래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용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2023/11/07
tuesday, pm 6:23 | 13읽음
문정희(법학과)

#7일차
바람
따뜻한 바람이 어느새 찬 바람으로 바뀌었다.
찬 바람이 부는 날.
나는 붕어빵이 생각난다

붕어빵 먹으면서
차가운 손이 붕어빵을 집어먹으면
따뜻해지는 그 순간이
생각난다

오늘 바람이 유독 찼지만,
겨울이 온 것 같아
나쁘지만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을 사려고 했지만,
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8 4

가양선(경영학과) 전 붕어빵을 정말 좋아해요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얼마전에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을 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못 먹은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붕어빵을 실컷 먹을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슬프거나 아쉽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제 정말 오뎅과 붕어빵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크크,,,
박혜윤(사회학과) 바람도 불고 진짜 겨울이니까 붕어빵 먹을 시기가 되었어요!!

2023/11/07
tuesday, pm 6:50 | 12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7일차 #바람

과제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꼭 30분 안에
잠을 청하리라 다짐하여 온열 안대까지 끼고
천천히 온몸에 힘을 풀고 있었다.

그런데 창문 너머 바깥바람 소리를 듣고,
'기숙사 창문이 깨지면 어떡하지?'
'X자로 테이프를 붙여야 하나?'
'현관문 쪽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는 오만가지 잡다한
생각이 내 잠을 방해했다.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강해져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결국 거센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다 잠을 설쳤다.

내 잠을 방해한 바람이 정말 미웠지만 바람
덕분에 오늘 하루 날씨는 쾌청하고
미세먼지도 거의 없었다. 피곤했지만 추운 듯
시원한 날씨에 마음도 상쾌했다.

6 3

가양선(경영학과) 날씨가 시원하면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
박지원(사회학과) 예전에 집에서 창문에다가 X로 테이프 붙인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꼭 푹 잠드셨으면 좋겠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유민님 마음이 상쾌했다니 다행이어요!

2023/11/07
tuesday, pm 7:02 | 9읽음
김경희(국어국문학과)

#7일차 #바람

[바람의 시]

가을의 바람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바람에

더욱 결실맺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바람

빨강노랑 물들어가는 바람에

나도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바람

내 인생도 그런 계절이 왔으면 하는

가을을 바람

저는 우리나라 말의 '같은 음의 다른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보면 참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Wind(바람)이 될 수있고
Wish(바람)이 될수도 있고
바람에(because)의 뜻도 될수있습니다.

그 의미 모두를 담은 시를 한편 작성해보고
싶어 현재 계절과 어울리는 바람의 시를
적어보았습니다.

7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멋진 시 잘 읽었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시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그 생각을 못 했네요!!
바람이 wind말고 wish의 바람도 있었네요 :) 남은
2023년, 저의 남은 바람들이 이루어지도록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같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으면 더 예뻐보이더라구요! 시도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7:11 | 10읽음
조석환(심리학과)

#7일차
시급 몇 푼에 내 여생을 바치고 남은 시간을
채우는 초조함. 거기에 휩쓸려 떠밀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당할 수 없는 낭떠러지
끝자락에 서 있었다. 절벽 아래의 심연이 나를
들여다 보며 '너는 쓸모 없는 인간일 뿐이야,
우쭐해하지 마라' 라고 속삭인다. 그 말을
부정하지 못 하는 내가 겁쟁이가 같아서 내가
내게 자신이 없는 자기혐오를 반복한다.
꿈이나 희망, 미래 같은 것들은 지금의 나에게
헛된 허상이고, 아름다운 내용의 만화, 소설,
음악, 영화, 드라마들은 자원낭비일 뿐이다.
무기력하게, 생기 없이 살아가지만, 희미하게
드는 부끄러운 마음만을 버릴 수 가 없었다.
비난 당한다면 비난 당한 채로, 부족한 모습에
조롱을 당했다면, 부족한 모습인채로 보란
듯이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나는
손가락질 받는 것에 익숙해 졌다지만
정색하게 되는 어린아이 같은 청개구리에
지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적과
싸우는 단칸방의 돈 키호테가 되어 승리
따위나 패배 따위가 아닌 자신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고를 수조차 없이, 재능도 없이
꼴사납게 싸우는 것이 아슬아슬한 마음의
사인이다.
내일은 반드시 밝아 온다거나 어둠은 반드시
걷혀진다는 그런 순수하고 무지한 위선
보다는 해발고도 45cm 정도의 높이에
매달려 있는 나를 밀어 진자운동 실험을 하는
야속한 바람이 어설픈 위로가 되어준다. 어떤
말을 해도 나에게는 다른 길 따위 없으니 그저

바람따라 떠돌 뿐이다.
#바람

5 2

박지원(사회학과) 바람은 때로 처량하고 쓸쓸한 나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곁에 아무도 없지만 바람만은 내 곁에 있으니 그걸로 위로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이번 글은 일본의 밴드 Amazarashi의 바람따라 떠도니라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해 재구조화 해서 써봤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7
tuesday, pm 7:18 | 11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7일차 #바람
바람이 차갑다.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 모두가 각자의 꿈을 품은 채로 차가운 바람을 헤쳐 나간다.

16년도 오늘 추운 줄도 모르고 교복을 입던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
세상을 마주하기 전 환하게 빛나던 그때의 순수함은 어디로 간것일까?
지금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왔을까?

찬 바람을 너무 많이 맞은 탓일까? 꽁꽁 얼어버린 나의 꿈과 순수함은 어디에 있는가. 지구를 돌며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 차가운 바람은 알고 있지 않을까?

8 5

박지원(사회학과) 이제 곧 수능이네요..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수능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바람이 꼭 바람을 타고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가끔은 나의 지난 꿈과 순수함이 어디로 갔는지, 바람을 타고 도망친 건 아닌지 걱정이 드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난글도 그렇고 영찬님 글을 보면 예전의 순수함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예전 모습이 떠올라서 그런가봐요 관심 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해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저희 집 막내가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랍니다...! 동생도 많이 힘들어보여서 끝나자마자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다녀 보려구요! 갑자기 막내가 생각나 마음이 울컥해지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제 동생도 작년에 입시하고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다니고 있어요. 한참 힘들 시기인데 잘 챙겨주세요 막내 분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7:57 | 13읽음
김현지(경영)

#7일차 #바람

"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수가 없네 "

20대 초반에는 동창 친구와 사회 친구로 인연을 구분했다.
초등학생 때 만났으니 좀 더 끈끈한 사이임을 사회에서 만났으니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관계라는
나만의 틀이 있었다.

하지만 싸우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멀어진
동창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연락하지 않아도 생일일 때 선물을

보내주는 동창도 있다.
짧은 교육 기간 때 만났지만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인턴 동기들도 있고
가끔 만나도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8년 지기 친구도 있다.

만남이 있으면 당연히 헤어짐도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그 멀어짐이 버거웠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 보다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수 없다는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하겠네 "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기분을 의도적으로 망치려는 사람도
있었다.
무례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친 적도 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나는 이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하겠네
이세상 모든것들을 사랑하겠네 "

살아가면서 인연을 알아보는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현시점의 나에게 "친구"란,
서로의 따듯함을 알아보며 배려하는
관계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며
행복한 하루를 이어나가고 싶은 나의
"바람"이다.

8 10

가양선(경영학과) 고백부부 봤을 때 정말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
김현지(경영) 가양선(경영학과) 맞아요ㅎㅎ 전주만 들어도 좋더라구용!
신유정 (심리학과) 좋아하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김현지(경영) 신유정 (심리학과) 에어팟 필수입니다ㅎㅎ :)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만남이 있으면 분명히 헤어짐도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건 저에게 너무 버겁고 무서운 존재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떠나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운다고 믿어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떠날 땐 두려움보다 이젠 추억으로 남기는 것 같습니다ㅎㅎ 지원님에게도 좋은 인연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인연이란 건 총량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가 떠나간다는 건 또 누군가가 내게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니 떠나간 자리를 크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 법칙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였군요! ㅎㅎ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최애 OST를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김소은(미디어스쿨) 소은님 감사합니다 :)

2023/11/07

tuesday, pm 8:08 | 11읽음

이유빈(사회학과)

#7일차 #바람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다. 비가 오고 바람이 태풍 마냥 불기 시작한다. 기숙사에 혼자 있는데 무서울 정도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무섭긴 하지만 바람 부는 것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 가을에서 겨울로 변화가 오는 시기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찾아온 겨울을 느끼고 수능도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벌써 내가 수능을 본지 2년이 되어 간다는 것도 같이 느꼈다. 사실 주변에 수능 보는 사람이 없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인터넷을 하다보니 수능이구나를 느끼게 되었다. 수능날에는 부디 어제, 오늘처럼 바람이 불지 않고 수험생들의 바람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9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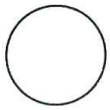
가양선(경영학과)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음주가 수능이라니,,, 정말 시간 빠른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항상 추워질 시기에 수능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수능을 보는 지인이 있는데 꼭 그 사람에게 찬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바람을 바람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김현지(경영) 고등학생 때는 수능이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예 무뎌진 것 같아요ㅎㅎ 감기 조심하세요 :)

안소정(언어병리학과) 수험생들의 바람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글이 너무 좋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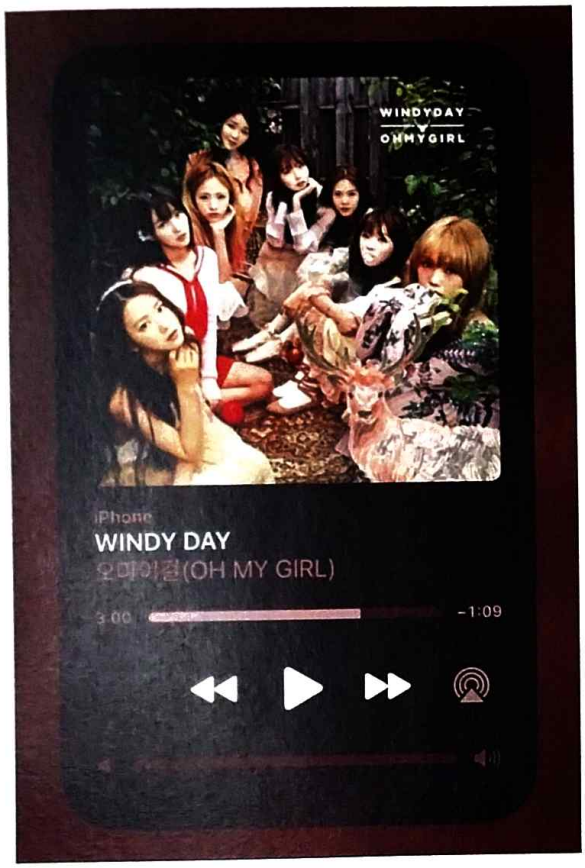
2023/11/07

tuesday, pm 8:52 | 13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7일차
[바람] 바람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바로 오마이걸의 WINDY DAY이다. 예전에 좋은 노래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노래인데 바람과 관련이 있어서 7일차 때 소개하고 싶었다. 노래는 하이라이트에 windy day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며 시원하고 힐링 되는 느낌을 주는 노래이다. 바람이라는 주제만큼 좋은 노래를 추천하였는데 다른 학우분들은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 만약 모른다면 들어보고 느낀 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또 바람하면 날씨 얘기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날씨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가을과 겨울 사이의 날씨이다. 벌써 따듯한 패딩이 필요한 날씨라니 빠르게 찾아온 센 바람만큼 하루도 빠르게 가고 있음을 느낀다. 다들 따듯하게 입고 바람과 함께하는 날씨를 견뎠으면 좋겠다.



7 5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껴요!
박지원(사회학과) 이제는 벌써 패딩을 꺼내야할 날씨네요 시간도 빠르고 계절도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박혜윤(사회학과) 오늘의 바람과는 다르게 윈디데이의 바람은 살랑살랑 시원한 기분이라 봄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김현지(경영) 노래 엄청 반갑네요!! ㅎㅎ 되게 독특한 멜로디잖아요~ 오늘 자기 전에 듣고 자야겠어요 :)

2023/11/07
tuesday, pm 9:01 | 16?
오하영(영어영문학과)

#7일차 #바람

나는 바람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없이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지만, 자신의 본분은 잊지 않는 그런 인생 말이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은 어딘가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어 가끔은 가슴이 답답해지곤 한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은 날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 속에 떨며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바람의 존재는 그저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만이 내 희망일 뿐이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데 세상은 왜 이리 날 이상하게 보는지... 그저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처럼 희미한 바람을 품고 앞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다.
졸업이 점차 다가올수록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라는 공간의 소리가 점점 커진다. 가끔은 귀를 막고 싶지만, 그럴 순 없었다. 행복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속삭임은 나를 유혹하고 나는 결국 넘어가고 만다. 그렇게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 속에 있던 바람은 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오히려 내가 바라는 미래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괜찮은 줄만 알았던 내 마음은 잘 살고 있냐는 친구의 물음에 무너지고 말았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나는 꿈을 꾸는 법을 잊고 있었다. 무너지고 나서야 내 눈에 가려져 있던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내가 원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 눈 앞에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바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세상을 누비는 것. 그걸 다시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체력이 될 때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불안에 요동치는 심장은 이제야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오랜만에 편안한 순간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의 크기는 굉장히 작다. 하지만 작아도 괜찮다.
누군가는 작은 바람을 보며 고개를 저어도 나 자신만큼은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다. 아무리 작은 바람도 결국 언젠가는 큰 폭풍이 되어 세상을 휩쓸 것이라는 나의 믿음에서 비롯된 희망이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커져가는 바람을 보며 다시금 꿈꿀 용기를 얻는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벅차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난 오늘도 꿈을 꾸며 열심히 생활한다. 폭풍이 되어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까지 미친 듯이 노력하고 싶다.

☺ 9 ⋯ 8

가양선(경영학과) 미친 듯이 노력하고 싶다는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양선(경영학과)
감사합니다 ㅎㅎ 한 번쯤인 인생 미친듯이 노력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말을 썼던 것 같네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머지않아 작은 바람이 반드시 폭풍이 되리라 믿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은님도 언젠가는 폭풍같은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아무리 작은 바람도 결국 언젠가는 큰 폭풍이 되어 세상을 휩쓸 것' 이라는 문구 정말 인상 깊어요!! 작은 바람이 오히려 깊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하영님의 모든 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지원님의 말씀처럼 작은 바람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순간에 커진 바람보단 차근차근 모아진 작은 바람들이 더 단단하니까요 ㅎㅎ 저도 지원님의 모든 일을 응원할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김현지(경영) 하영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현지(경영)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현지님이 가지신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7
tuesday, pm 9:13 | 12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7일차
가끔 바람처럼 사라지고싶은 날이 있다. 한 사람의 곁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런 바람. 혹은 아예 없던 존재처럼 잠시 머물다 없어지는 바람이 되고싶은 그런 날이 있다.
올해는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겼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울리는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기분이다.
오늘은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막상 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우울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딱 바람이 되고싶은 날이다, 한편으로 이 힘든 모든 기억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9 4

가양선(경영학과) 내일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힘내세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오늘 바람처럼 사라지고 싶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따뜻한 노래 들으면서 밤을 보내려고 해요
김현지(경영) 날이 추워지니 씁쓸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얼른 털어내시고 내일은 행복한 하루가 될거에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바람처럼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죠. 그래서인지 미혜님의 글에 공감이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9:13 | 15읽음
홍은기(영문학과)

#7일차 #바람
8시 15분에 맞춰 알람이 울렸다. 진동소리 오른손을 뻗어 핸드폰을 찾고 익숙하게 엄지로 알람을 껐다. 30분 간은 준비 시간이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아침을 챙긴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쳐, 소파에 앉아 샤인머스켓을 몇 알 먹을 여유도 있었다. 가디건을 걸치고 가방을 들고 차키를 가지러 방에 돌아갔다. 원래라면 화장대에 있어야 할 차키가 보이지 않았다. 작은 쿠로미 인형이 달린 차키. 미친듯이 차키를 찾기 시작했다. 겨우 현실을 받아들이고 카카오택시를 키며 현관문을 나섰다. 밖에 나오니 낙엽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었다. 카카오택시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산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5분 거리의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치마와 가디건이 펄럭거렸다. 날씨 예보에는 강풍주의보가 경보가 있었다. 택시가 오기까지는 15분이 더 걸렸다. 추웠다. 한번도 지각한 적 없던 출근 기록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택시 뒷좌석에서 멘탈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택시에서 내렸지만 정신적인 고통에 뛸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뛰지 않았지만 우산이 뒤집히려고 했다. 우산이 뒤집히는 우스운 상황에 처하는 것보단 비에 맞는 게 나을 거라 판단, 우산을 접고 나아갔다. 사무실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다.

8 4

가양선(경영학과) 추운 날이는 택시 타기가 힘든 것 같아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바쁜 와중에 제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땀이 삐질삐질 흐르더라구요,,,
박지원(사회학과) 바쁘고 급한 상황에는 꼭 날씨까지 최악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기억에 더 남고, 생각나는 듯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월요일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비가 오던 날, 집에 가기 위해 차로 향하던 도중에 쓰고 있던 우산이 바람에 뒤집히더라구요. 그 순간에 놀라우면서도 웃겼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대한 은기 님의 글을 보니 생각이 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9:15 | 15읽음
박지원(사회학과)

#7일차 #바람

바람이 불아오는 곳_김광석

어젯밤 비바람이 불면서 단풍과 은행잎들이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졌다. 기숙사 앞에는
붉은색별로 단풍잎들이 떨어져서 왠지 모를
처량함이 느껴졌지만, 단풍들이 나를
반겨주는 기분도 들어 오히려 이쁜 것 같았다.

가을바람이 이리도 짙고 차갑지만

다가올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선 이 바람에
맞서야 한다!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선 이 바람에
맞서야 한다!
다가올 사랑을 맞이하기 위해선 이 바람에
맞서야 한다!

나와 함께 걷는 친구에게 말을 건네,
고작 바람 때문에 우리의 고개를 떨굴 순 없어
바람은 그저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향하게
도와줄 도구일 뿐인걸!

서로의 얼굴에 머리카락이 붙고 우린 웃고
있어
너랑 바람을 함께 맞으니,
이젠 바람이 무섭지 않아

+ 친구와 가을 나들이를 가려고 했지만,
단풍과 은행잎이 져서 나들이를 가지 못했다.
아쉬운 대로 우린 입동의 길을 같이 걷기로
했고, 다음 가을을 기약했다

9 4

가양선(경영학과)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는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세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음 약속을 기약할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바람하면 떠오르는 명곡이죠 단풍이 금방 떨어져 아쉽지만 내년의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끔은 바람에 맞서기 보단 바람과 하나되어 함께 날아다는 것을 하고 싶어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다니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싶기도 하구요 ㅎㅎ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추운 바람을 몸소 느껴보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7
tuesday, pm 9:16 | 15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7일차 #바람

오늘 날씨에 정말 딱 맞는 주제네요.
오늘 너무 춥지 않나요? 다들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는 바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산책을 할때 바람이 없으면 산책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스쳐갈때마다 제 옛생각이 나요.
마치 뮤직비디오 주인공인듯 말이죠.

그리고 바람을 떠올리면 우리가 바라는 바인
'바람'도 생각나네요.
전 요즘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요.
제가 하고싶은 걸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요. 제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자신한테 바라는 점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죠?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 5

가양선(경영학과) 오늘 정말 추웠어요 ! 산책할 때 바람이 없으면 정말 산책하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라혜민(사회학과) 다혜님 바람대로 흘러가는 한해 되시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가 바라는 점은 내년에 꼭 졸업여행으로 일본에 놀러가는 것이예요! ㅎㅎ 다혜님도 바라는 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다혜님의 바람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다혜님처럼 바람이 좋아요 ㅎㅎ 마치 자유롭게 누비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존재로 느껴져서인지 저도 그렇게 되고 싶더라구요!! 자유로운 바람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 순간이 저에게도 다혜님에게도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9:24 | 14읽음
가양선(경영학과)

#7일차 #바람

바람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대체로 봄 여름은 따뜻하고, 가을 겨울에는 차갑게 느껴진다. 바람을 통해 계절의 냄새를 더 가까이 느낄 수도 있다. 오늘의 바람은 너무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바람 같았다. 오늘의 이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더 차갑게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망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9 5

고다인(중국학과) 오늘 바람이 정말 찬데 감기조심하세요~
김현지(경영) 바람으로 계절의 냄새를 느낄 수 있다는 문장이 넘 멋집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바람이 너무나 차가워서 저절로 몸을 웅크리게 되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바람이 반가울 수도, 누군가에게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항상 열심히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같은 바람이지만 계절이 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다른 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쌀쌀한 바람이 불던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9:41 | 14읽음
배성준(경영학과)

#7일차
바람이 분다.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수많은 소리와 무형의 손바닥들이 나의 귀를 때리고 통과한다.

바람이 살랑인다.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와 산새 소리가 나의 귀를 간지럽힌다.
2개의 작은 손바닥이 나의 귀를 어루만진다.

바람이 활기차게 불기 시작한다.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나뭇잎들이 서로 자신의 몸을 비비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의 귀 안에 맴돈다.
4개의 손바닥이 나의 귀를 밀친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다.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하하호호 웃음을
나누는 소리, 재빠르게 어딘가를 가는 듯한
발소리가 나의 귀를 통과한다.
7개의 손바닥이 나의 귀를 잡아당긴다.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한다.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왁자지끌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 장대비가
쏟아지는 소리, 천둥과 번개가 대지를 가르는
소리, 빵빵거리는 자동차의 클락션 소리,
파도가 해변을 집어삼키는 소리, 곧
출발하려는 배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
묘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 앞에 두고
울음을 토해내는 소리가 나의 귀를 터뜨린다.
10개의 손바닥이 나의 귀를 사정없이
찢어발긴다.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한다.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고즈넉한 언덕에서 교회의 종이 울리는 소리,
목장에서 젖소가 우는 소리, 학교에 가면서
수다를 떠는 아이들의 소리, 매미가 맴맴
울어대는 소리가 나의 귀를 돌아다닌다.
6개의 손바닥이 나의 귀를 어루만진다.

비람이 거의 그쳤다.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바닷물이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소리, 피아노 음악 소리가 나의
귀를 마주친다.
3개의 손바닥이 나의 귀를 핥는다.

바람이 완전히 그쳤다.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정적이 나의 귀 앞에 멈춰선다.
아무 손바닥도 내 귀를 지나지 않는다.

바람은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겠지.

11 5

라혜민(사회학과) 바람처럼 생동감있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바람은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마음에 참 와닿네요
박지원(사회학과) '바람은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겠지'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 깊어요! 바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라 생각이 드네요
가양선(경영학과) 멋진 글 같아요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람이기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자연의 소리인 것 같네요 ㅎㅎ 덕분에 바람이 가진 가치를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우리끼리, Band!

2023/11/07
tuesday, pm 10:10 | 18읽음
고다인(중국학과)

#7일차 #바람

혹시 비행기를 탈 때나 비행기를 타는 상상만 해도 무서우신 분 있으신가요? 비행기 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바람 의 불규칙한 변화,상승or하강기류같은 수직류가 만들어내는 난기류(터뷸런스)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사실 비행기 공포증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입니다.성인의 8%나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2500만명이나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거든요.특히 여성과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하네요.

사실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은 0.01%미만으로 극히 드물지만 드라마,영화에서 본 끔찍한 비행기 사고로 학습된 공포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저도 영화에서 본 비행기 추락사고와 그 안에서 혼란과 공포에 빠진 승객들을 보며 두려웠던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비행공포증은 없지만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하다가 몇가지 팁을 발견해 적어보려합니다.

첫번째는 공복과 저혈당을 피하기위해 식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카페인,콜라,술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두번째는 심호흡과 복식호흡입니다.세번째는 옆사람 혹은 승무원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이야기를 나누며 감정적 공감적 뇌를 활성화시키면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혹시 비행공포증을 가진 학우들이 있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 7

라혜민(사회학과) 저에게 비행기는 여행의 설렘으로 와닿아요. 비행기 탑승 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준(경영학과) 헉 저도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뜨는 느낌이 어지럽고 숨 가쁜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는데 비행공포증이란게 있었네요. 저도 다음에 비행기 탈 기회 있으면 그대로 따라해봐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늘 비행기를 탈 때면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곤 했는데 옆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터뷸런스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띵-하는 소리가 한 번 울릴 땐 1단계, 흔히 셨을 수 있는 난기류를 만난 거니 걱정 많이 안하셔도 괜찮고, 2단계와 3단계는 똑같이 소리가 두 번 울리지만 승무원분들의 반응(바로 착석, 혹은 뜨거운 물 사용 서비스만 중단 등...)에 따라 나뉘어요! 하지만 여행은 언제든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지만 2단계 혹은 3단계를 겪으셨다 해도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답니다! 저도 이번 1월달에 3단계를 만났지만 무사히 한국 도착했어요! :)

박지원(사회학과) 헉 저는 비행기 탈 때 조금 무서움을 느끼거든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장기간 비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비행기 처음 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눈감고 기절했던 기억이 생각 나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은 자동치 사고보다 적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비행공포증이 있다는 건 수많은 매체에서 보여주는 사고 때문이라는 다인님의 말에 공감이 되네요 ㅎㅎ 다행히 저는 공포증이 없어서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7
tuesday, pm 10:10 | 20읽음
라혜민(사회학과)

#7일차 #바람

춘천은 바람이 매섭다.
어제는 길을 걷다가 바람에 밀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이제 롱패딩의 계절인가보다.
그런데 정오가 되고나니 언제 그랬냐는듯이 햇살이 따뜻하다. 나른해서 잠이 올 지경이다.
아침과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덥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몰라 난감하다.
춘천의 날씨에 오락가락하는 걸 보니 자연 앞에 인간은 작은 존재인 것은 확실하다.
이제 밤이니까 보일러를 틀고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올린 채 단잠에 들어야지.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다 :)

☺ 12 ⋯ 8

고다인(중국학과) 오늘 귀가하다가 너무 추워서 진짜 롱패딩을 꺼낼 때가 왔구나싶었어요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수업이 끝나고 얼른 집으로 와서 뜨끈한 전기장판에 몸 지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흐흐
김경희(국어국문학과) 오늘 그 매서운 바람을 다시 맛보았네요 ㅠ 감기조심하세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오늘 정말 추웠죠 ㅠㅠ 따스한 이불 안에서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오늘 찬 바람을 맞고 방에서 따뜻한 노래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춘천에 살면서 늘 가을은 짧고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일교차로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푹 주무세요!
가양선(경영학과) 롱패딩이 필요한 계절이 오고있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일교차가 너무 심한 탓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할 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자연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는 알 수 없듯이 자연도 알 수 없기에 인간은 그저 보고 느낄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자연이 더 소중한 것 같네요 ㅎㅎ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던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11:27 | 13읽음
김준호 (콘텐츠IT)

#7일차
바람.
거세게 부는 바람을 마주할때면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끼는 건 왜일까. 거센 바람에 바람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때면 아무런 생각없이 조용히 그저 그 소리만을 느끼며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곤 한다.

그래서 가을을 좋아한다. 자전거를 타며 달리면서 바람 소리 이외에 아무것도 듣지

앉은채 그저 자전거와 풍경에 집중하며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 하던 모든 것들을
그 순간 만큼은 바람에 날려 보낼 수 있기에
그런 가을을 좋아했다.

요즘의 대부분의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셋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되어있다. 노이즈 캔슬링이 소음 차단에
있어선 바람소리 보단 좋겠지만 잡념과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면에선 바람이 더
좋은 것 같다.

10 4

가양선(경영학과) 바람이 주는 해방감! 공감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바람은 추위의 상징과도 같지만 한 편으로는 온 몸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시원한 바람을 온 몸으로 맞았을 때 느껴지는 자유과 쾌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저도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날이 좋을 때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이해보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가끔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ㅠㅠ 그래서 가끔은 이어폰을 빼고 걸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생각이 복잡한 날에는 에어팟을 빼고 온전히 자연의 소리만 들으며 산책을 하곤 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11:43 | 12읽음
조영주(간호학과)

#7일차

바람과 왈츠를

둔딴딴, 둔딴딴-
한 걸음에 너와 손을 잡고
한 걸음에 너와 빙그르르
이쯤에선 어디 한번
날아오르듯 뛰어볼까
둔딴딴, 둔딴딴-
불어오는 선율 따라
경쾌한 발걸음 따라
하나둘셋 너와 호흡 맞춰
온세상을 가져볼까

/바람 따라 걷는 게 좋아요 :)
바람과 싱그러운 춤을 출 때면 꼭 온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8 4

가양선(경영학과) 바람 따라 걷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싱그러운 춤이라는 표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바람과도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상상을 하게 되며 읽게 되었네요 ㅎㅎ 비록 추워진 날씨이지만 그 속에서도 싱그러운 춤을 추며 바람을 느끼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신나는 리듬을 가진 시인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바람과 왈츠를 춘다는 표현을 보고 예쁜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11:55 | 댓글
김소은(미디어스쿨)

#7일차 #바람
바람이 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곡입니다. 바람과 관련된 노래를 찾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어릴 적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곱씹어 보니 새삼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 날씨가 쌀쌀한 가을이라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이 참 강하게 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에 지지 않고, 흩어지기보단 흘려보낸 하루를 보내셨길 바랍니다.

11 5

가양선(경영학과) 저기 전에 꼭 들어봐야겠어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에요! MBTI를 맹신하진 않지만 흔히들 말하는 극T성향이라 감성이입이 잘 되진 않는 편인데, 들으면 눈물이 날만큼 가창력도 좋으시고 지금 2030이 공감할만한 가사라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좋은 글 감사해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본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자주 들어서인지 이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몽글해지면서 위로받는다는 느낌에 눈물이 나곤 해요. 그래서인지 소은님의 글을 읽으면서 노래를 상상하게 되니 위로의 순간으로 다가왔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쌀쌀한 가을이라 그런지 저까지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소은님도 바람에 지지 않고 오늘 밤은 그저 편안히 따뜻한 밤 보내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가 바람이 불 때면 길 가다가 혼자 중얼중얼 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소은님 글에서 보니 너무 반갑네요! 늦었지만 잘 읽었습니다~!

2023/11/07
tuesday, pm 11:58 | 댓글
김명지(데이터테크)

#7일차 #바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김광석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의 대목을 좋아해서일까. 바람, 하니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이 곡을 접하게 된 계기는 고 김광석의 노래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 <그날들>의 마지막 넘버로 쓰여서였다. <그날들>은 상실을 딛고 일어나는 이야기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는 선율도, 가사도 쓸쓸하면서도 희망적인 묘한 느낌을 주어 그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더 없이 적절한 곡이었다. 듣고 있노라면 마음을 술렁이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주로 이별을 노래하는 김광석의 곡다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몹시 부는 날, 그 바람에 마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날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김광석 >

바람이 불면 음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02:03 04:41

10 4

가양선(경영학과)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꼭 들어볼게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광석 가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동이네요 ㅎㅎ 가끔씩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들으면 정말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듣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가을 바람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일 듯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살면서 꼭 보고 싶은 뮤지컬 중 하나가 '그날들'인데 멍지님 글에서 보니 반갑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8

wednesday, am 12:16 | 24읽음

김양선

#7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 계절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바람'을 모티프로 한 노래를 감상하는 시간도 되었을 거고요. 몇몇 학생들이 쓴대로 '바람'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계절의 변화를 '바람'으로 느끼면서 11월의 늦가을을 즐기기 '바랍니다.'

14 0

2023/11/08

wednesday, am 8:00 | 26읽음

김양선

#8일차 키워드 :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누군가를 몹시 보고 싶어하는 상태나마음을 일컫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옆에 없거나 헤어졌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과거의 어떤 시기를 좋았던 한때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혹은 과거 언제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1 0

2023/11/08
wednesday, am 8:23 | 19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그리움은 터널과도 같다.
내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길을 가다가 꼭 지나쳐야 하는 구간

어두운 길에 들어가
천천히 걸으면서 깨닫게 되는 구간

그 사람의 소중함도 사랑도
터널에서 한 번 생각해본다.

13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리움을 터널에 비유해주신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요.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그리움을 터널로 비유하다니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상민님의 시를 읽으니, 정말 그리움은 터널과 같은 듯합니다

2023/11/08
wednesday, am 8:24 | 17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8일차

엄마가 사라졌다. 무섭다. 아빠는 엄마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출근과
퇴근, 그리고 밭일에만 몰두한다.

"왈, 왈!"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말해도 아빠는 못 알아듣는다.
답답해도 너무 답답하다. 아빠는 바보야? 날
쓰다듬는 손길에 가만히 눈초리를 보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야겠다.

-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가끔 오는 엄마아빠의 아이들은
나에게 '깜순아, 그렇게 기다려도 엄마는 못
돌아오셔... 돌아가셨어...'라고 말했다.
돌아가시는 게 뭔데? 난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세 번, 네 번... 이젠 더 셀 수도 없다.
아빠는 그동안 점점 말라비틀어진
겨울나무처럼 됐다. 맨날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거 아니었나?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아빠는 너무
말라버렸으니 내가 엄마를 찾으러
나가야겠다. 내가 엄마를 찾아오면 아빠도
기뻐하겠지?

-

엄마를 찾으러 매일같이 돌아다녔다.
아무래도 집 주변엔 없나보다. 조금 더 멀리
가볼까? 그럼 아빠가 걱정할텐데... 하지만
이때까지 못 돌아오는 거면 엄마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래, 난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엄마랑 같이!

여기도 저기도 다 엄마랑 같이 걷던 길들이다.
하지만 혼자 걸으니 흥이 안 났는데, 아주
모르는 길로 오니 그런 외로움은 덜해졌다.
날은 점점 어둑해졌다. 이제 밤인가? 저
멀리서 환한 불빛이 보인다. 엄마다!

"왈!"
'엄마!'

나는 꼬리를 흔들며 불빛으로 뛰어들었다.
퍽-소리가 났다. 왜 아프지? 잘 모르겠다.
아빠한테 돌아가긴 늦은 시간이지만
상관없다. 왜냐면 난 이미 엄마 품에

안겨있는걸.

-

*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키우던 강아지 깜순이가 매일 집을 나가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귀가하실 때가 잦았던 할머니께서는 늘 휴대폰 후레쉬 기능을 사용하여 밤길을 비추셨는데요, 깜순이에겐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같아보였나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 곁에서 잘 있겠죠?

☺ 13 ⋯ 6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강아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네요 깜순이에게 안녕이 있길 바랍니다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깜순이를 발견하신 이웃분께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셨다고 해요, 충민 님의 마음이 더해져 더욱 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지막 문단을 보자마자 울컥했습니다. 할머님과 깜순이 모두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기를 바라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마을은 정말 좁아서, 서로 각 집의 수저 갯수까지 알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에요. 소식을 모르던 읍내 중식집 주인 내외분도 할머니 소식을 묻고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울어주셨어요. 깜순이도 마찬가지로 이웃분이 발견해서 묻어주셨다고 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지은 님의 마음까지 함께 더해져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슬프네요... 할머님께서 남기신 깜순이의 사랑이 왠지 모르게 느껴지네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깜순이는 정말 할머니가 늦게 얻은 자식같은 존재였어요 ㅎㅎㅎ 깜순이도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다는 듯 할머니께 돌려줬으니 가능한 일이었겠죠? 마음 뭉클한 그리움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댓글 감사해요 :)

2023/11/08
wednesday, am 10:02 | 17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과거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며, 생각보다 그리운 시절이 많은 것 같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그때만의 나의 감정과 그때였기에 가능했던 것들이기에 가끔 많이 그립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됐고, 지금도 그 친구와 연락이 닿고 사이가 좋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초등학교로 돌아가 본다.

초등학생 때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동갑 친구가 있었다. 학교도 같이 가기도 하고 매일 하교 후에 우리 집이나 친구 집에 가서 '콕!콕!콕! 스파게티' 라면을 먹거나 밥버거를 직접 해먹기도 했다. 그때의 나는 가족보다 그 친구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그 친구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게 좋았다. 항상 어딜 가든 함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다른 반이 되었을 때, 난 항상 그 친구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종례 시간이 가장 늦는 반이었는데 친구의 반 앞 복도에 서서 언제 나오나, 그 친구를 만날 생각만 하고 먼저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

소심하고 아무런 특기 없는 초등학생의 나는,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는 그런 학생이었다. 선생님께 혼나면 눈물부터 나오는 그런 학생. 친구와 다투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다.

그 친구가 그립거나 어느 한 순간이 그리울 뿐이지, 결코 초등학생 시절이 그립진 않다. 그립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다.

11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순간순간 어렸을 때의 친구 혹은 친구와 함께 했던 추억이 생각나곤 해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학창 시절이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 그 시절엔 정말 몰랐는데ㅠㅠ 가끔은 길을 걷다가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부럽더라고요
박혜윤(사회학과) 글을 읽고 8살 때 옆집에 살다가 이사 간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도 저도 그때가 그립진않은것같아요

2023/11/08

wednesday, am 10:27 | 18읽음

배성준(경영학과)

#8일차
나에게 가장 그리운 순간이 있다면 유치원을 다닐 때다. 사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많이 안 나지만 그때 있었던 인상깊은 사건, 기분, 무엇을 했었고, 누가 있었고,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했는지, 유치원에서 무슨 냄새가 났는지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정말 그 순간을 그리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하고 나의 진로를 생각해야 하며 취업은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한다. 사회화가 완전히 된 이후로는 인간관계를 만들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꽤나 생겼고 지켜야 하는 규범들이 나를 옭아매는 듯 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관계도 매우 복잡하다. 유치원 때는 아무 걱정없이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면 됐었고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짐 없이 살아도 됐었다. 이렇게 보니 내가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금 현실에서 완전한 자유의 결핍, 내 머리위에 너무 많은 짐이 올려진 부담감에 그리움을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미래를 그리워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도 그리워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움이라는 감벙을 느낄 때쯤이면 그리움의 대상은 언제나 과거에 있다. 그리움을 느낀다고 해서 과거의 대상과 100% 똑같은 대상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움을 100% 해소하는 방법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리움을 어떻게 채워나가야할까. 그리움에서 빠져나가면 내가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생긴다.

12 4

가양선(경영학과) 공감되는 글 잘 읽었습니다! 질문의 답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봐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리움을 잘 해결하고 또 묵묵히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쯤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성준님 글도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시간이 흐르면 저희는 라이팅 챌린지도 그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지 그리움의 대상은 지금 현재 느끼기 어려운 것들, 무심코 지나가게 되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박혜윤(사회학과) 미래를 그리워할 수 없다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2023/11/08
wednesday, am 10:28 | 16읽음
김서희(심리학과)

#8일차
나에게 그리움이란 친할아버지와 보냈던
시간들이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다. 할아버지와 함께
저수지에 가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던
시간들. 정말 좋았고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조금은 베풀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는
것이 슬프고 그립다. 요즘에는 내 삶도 벅차서
할아버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든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할아버지께 멋진 손녀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12 5

가양선(경영학과) 매일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리워할 수는 없어도,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글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서희(심리학과) 가양선(경영학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할아버님이 하늘에서
서희님을 잘 지켜보고 계시다고 틀림없이
생각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분명 서희님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또 서희님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2023/11/08
wednesday, am 10:43 | 15읽음
가양선(경영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여름마다 친구들과 물총놀이를 했던
순간들이 그립다.
지금보다 건강하셨던 할머니의 모습들이
그립다.
교복보다는 체육복을 좋아했던 시간들이
그립다.

나에게 그리움은 후회로 이어진다. 그립다고
해서 그때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때의 날씨나 기분, 함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 행동들이 기억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나 영상들을 찍었다면 생생한
기억들로 남았을 것 같아서 아쉽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영상을 많이 찍는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과 같이 모습, 목소리
모두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다. 10년 뒤,
20년 뒤,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내가 그리움을
후회로 느끼기 싫어 하는 행동이라고도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움을 후회보다
소중함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11 6

김서희(심리학과)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해피한
하루 보내세요 !
가양선(경영학과) 김서희(심리학과) 감사합니다!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감사합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요즘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게 있으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곤 해요 크크,,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사진보다 영상이 더
재밌고 뭉클한 것 같아요. 그 시절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해요

2023/11/08
wednesday, am 11:12 | 16읽음
정우현(인문학부)

#8일차
그립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소중했던
친구들과의 이별, 건강했던 외할아버지,
좋아했던 사람과의 이별 등등 나에게 좋은
감정과 추억을 줬던 이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보냈다.
하지만 그리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라. 내
속마음만 애타고 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와 같은 생각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란 걸
요즘 깨닫는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결국
사람은 사람인지라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아했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 무한대도 아니고 한계는 있다는 걸
인정한 순간부터 내가 그들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든 그들이 나에게 어떤 걸 해줬든
날 얼마나 좋아해 줬든 내가 얼마나 좋아해
줬든 간에 그들을 사랑했다는 기억
하나만으로 이미 가치가 있다는 걸을 배웠다.

결국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걸 배웠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인정하는 순간 절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다.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배웠다. 가족, 친구, 연인들이 나에게 준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겠다.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베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작은 목표이다.

☺ 11 ⋯ 3

가양선(경영학과)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멋진
사람이라는 말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하고 또 떠나감으로써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누군가가 제 곁은 떠난다면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 채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과거에 비해서 인연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2023/11/08
wednesday, am 11:15 | 21읽음
문정희(법학과)

#8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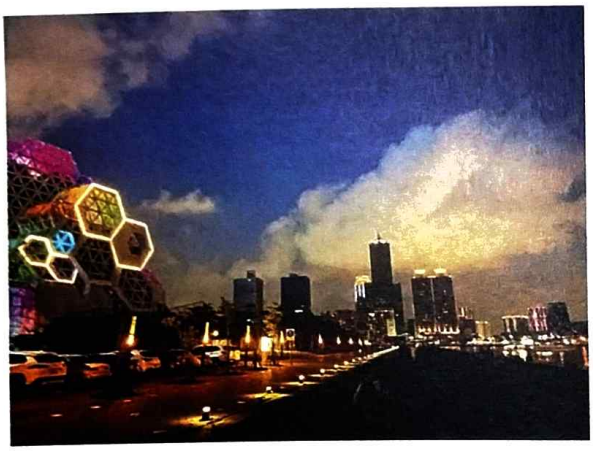
저번학기 나는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요즘 따라 그 때가 유난히
그리워지는 것 같다

친한 동생과 매일같이
술 마셨던 편의점
매일 먹던 마라탕
귀여운 개가 들어왔던 교실

덥지만 따뜻해서 좋았던 날씨
자전거 타고 갔던 학교 주변 바닷가
오토바이 타고 봤던 예쁜 야경

대만에서의 4개월이 유난히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낭만이기에
더 애틋하고 그리워진다



10 6

가양선(경영학과) 대만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라니!! 부럽네요 저도 교환학생 가보고 싶어요 예쁜 사진 잘 봤습니다 !
문정희(법학과) 가양선(경영학과) 감사해요 기회되면 교환학생 꼭 가보세요
안소정(언어병리학과) 교환학생 생활이 정말 즐았을 것 같아요! 글 잘 읽고 갑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마라탕과 마라샹궈 등 마라가 들어간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데 대만에서의 마라탕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호(식품영양학과) 교화학생을 갔다 왔다니 정말 대단해요!! 글 잘 읽었습니당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대만 정말 꼭 가보고 싶은 나란데 정말 그리울 듯하네요..

2023/11/08

wednesday, am 11:22 | 15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8일차
특별한 일 없는, 일상을 보내는데 불현듯 네가 떠오를 때가 있어.
그 순간이 오면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져서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를 지나친 것도, 네가 부르던 음악을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떠한 트리거도, 추억도 없는 시공간에서 꾸역꾸역 너를 그려.
내게 너를 그릴, 그리워할 자격은 있었나.
아무것도 없어도 너를 그릴 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나.
생각해보면 웃을 때보다 울 때가 더 많았던 거 같은데.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괴로울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거 같은데.
어리석게도 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떠올려.

크리스마스가 오면, 서로에게 선물을 주자.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노래방을 가자.
다음 봄에는 꼭 함께 벚꽃을 구경하자.

그때는 지키지 못할 줄도 모르고 참 많은 약속을 나눴지.
그게 내 발목을 잡나 봐, 너는 없어도 약속은 남아서.
너를 떠올릴 추억은 없어도 함께하기로 한 미래가 남아서.

10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헤어지고 나서 너무 슬픈 순간은 '아 우리 이 날 어디 가기로 했는데', '너랑 여기 꼭 같이 오자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같아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누구를 만났던 게 좀 오래됐기도 하고 굳이 연애할 생각도 없는 저라서 사실 그리움은 별로 느끼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저런 약속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일 좋아하는 절 위해서 함께 고양이가 있는 만화카페를 가주기도 했던 친구였어요. 뭔가 그립진 않아도 추억은 떠오르게 되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항상 상대는 없고, 상대와 맺은 약속만 남는 것 같아요. 가끔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무의미해질까봐 걱정이 들 때도 있어서 슬프네요

2023/11/08
wednesday, am 11:41 | 14읽음
홍다연(정치행정)

#8일차 #그리워하다
저는 요즈음 넷플릭스에 올라온 응답하라 1988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온 것으로, 응답하라 시리즈를 생각하면 막 추워지는 이맘때에 항상 가족들과 TV 앞에 둘러앉아 함께 즐겁게 시청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기숙사에 거주하다보니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힘들어졌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니 가족들을 많이 그리워하게 되면서 그들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가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와, 그 나이 때에만 느낄 수 있는 풋풋한 사랑의 이야기, 어른들에게 옛 추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8년 전에 보았던 작품을 성인이 된 현재 다시 보게되니,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심정과 설레었던 장면들에 대하여 색다른 감정이 들었고, 감회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남류, 어남택 중 어남류 였는데 '덕선'이라는 주인공과 '택'이라는 인물이 이어지는 결말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허나 현재는 왜 그들이 이어졌는지 이해가 되며,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드러내는지가 중요한지에 대해 깨닫는 나이가 되니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했던 '정환'이라는 인물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 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전에 봤던 작품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이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0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응답하라 시리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정말 재밌으니 꼭 정주행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에 보아야겠어요
박지원(사회학과)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응답하라 1988 정말 재밌게 봤어요!!

2023/11/08
wednesday, am 11:42 | 15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8일차

'친할머니'가 먼저 생각난다.
친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매 주말마다 아빠는 할머니집에 들러 하룻밤 자고 왔다.
그날도 똑같이 아빠는 할머니집에 갔다.
그런데 할머니는 쓰러져 계셨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춘천에서 자취하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어벙벙했다.
너무 건강했던 할머니라 마지막은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본가를 많이 못 올라가서 할머니한테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이 다가오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서울로 올라가 어떤 상황인지 듣고, 누구보다 놀랐을 아빠를 위로했다.
할머니는 다른 세상에서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9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생각하니 제 마음도 아프네요. 다른

세상에서는 할머님이 행복하실 거예요!
박지원(사회학과) 다혜님도 그렇고, 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분명 다른 세상에서 다혜님을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예요

2023/11/08
wednesday, pm 12:14 | 18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8일차
저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면 메모장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말을 실제로 보내거나 전달하진 않지만 그렇게 작성하고 나면 속이 한결 후련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는 제가 대학교 20살 이맘때쯤 헤어진 상대방을 떠올리며 메모장에 작성해본 글입니다.

인연의 끈은 생각보다 연약해서 한 명이 강하게 만들어보겠다고 아등바등한다고 해서 절대 강해질 수 없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별 후의 두려움으로 혹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전의 추억 때문에 이미 끝나 버린 관계를 억지로 이어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간 함께 했던 시절들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더 성숙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상대방을 소유물로 여기지 말기, 내가 10만큼 줬으니 10만큼 돌려받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기 그리고 내게 마음이 뜬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내 인연이 아닌 것을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살려고 헤어지는 인연도 있다. 그 인연이 내 것이라면 몇십 년 후에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있고, 아니라면 억지 만남을 반복하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

아마 첫사랑이라 이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가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별에 너무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10 1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인연에 대해 연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관계에 대해 귀찮음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요

2023/11/08
wednesday, pm 12:15 | 11읽음
조석환(심리학과)

#8일차
유난히 고독하고 외롭던 사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 마침내 한 생명의 어버이가 된 사람도 이젠 때가 되었다며 차갑게 얼어 붙은 인연의 철로 위에 늘어선 열차에 몸을 실어 떠난다. 꿈을 마무리 지은 사람들의 속삭임에 떠나는 사람도 짐도 적지 않다. 망향. 차창 속 풍경에 지나치는 집들을 세어보며 그 수만큼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 헤어지고 헤어져도 어디를 가서 머물러도 결국 나는 나로 남아있다.
내가 묵은 해 만큼 이별 놀이에는 익숙해진줄 알았지만, 손을 흔들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건 왜일까? 아아 이젠 슬픈 일 따위는 정말 싫다. 내일도 함께하는 꿈을 나이를 먹고 죽을 때까지 웃으며 이어가고 싶다. 어디에도 가지 말고, 계속 이 곳에서 살아주었으면 한다.
끝은 멀지만, 마지막은 너무 빨라 시간도 놀라니 가능하면 조용히, 슬픔 하나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가주길 바란다.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초승달에 매달고, 가는 길에 빛이 있기를. 이 곳이 싫다고, 꿈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당신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여기 남아있으니, 무언가를 이루어내도, 이루지 못 해도

괜찮으니, 역의 대합실에 추억을 남길터이니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
경적이 울린다. 나에게 허락된 남아있어도
되는 찰나의 시간이 다 된듯하다. 이제는 나도
가볼테니 부디 슬픔 하나조차 남기지 말기를.

(이번 글도 일본 밴드 Amazarashi의 슬픔
하나조차도 남기지 말아줘 라는 노래와 다른
노래들의 가사를 인용해 훔쳐 쓴 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
4h_ygyK4iE

Amazarashi -슬픔 하나조차
남기지 말아줘

#그리워하다

☺ 7 ⋯ 2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이별은 당연하다 생각해서 익숙해졌다고 느끼지만,
막상 다가오면 너무 어렵고 이별이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에 대한
익숙함도, 이별에 대한 슬픔도, 이별에 대한
어색함도 모두 소중히 하는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람으로 변함없이 남아있게 해주고 또 이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2023/11/08
wednesday, pm 12:44 | 14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8일차
저는 누군가가 그리워 본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조금은 평화롭고 조금은 나쁘지 않은
삶을 살 고 있다는 말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누구와 떨어져본 적도 잃어본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어린시절이 그리운 적도 없습니다.
어릴적 좋은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어린시절은 그리워 할 만큼 현재의 내 삶이
싫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이 되어도 지금의 순간들이 그리워지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때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나날이 되도록
노력하는게 저의 인생의 모토 이기
때문입니다:)

☺ 10 ⋯ 4

김서현(광고홍보학과) 매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아
그리움이 남지 않는 삶... 너무 부러워요...!
부끄럽지만 저는 매번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후회를 한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지호
님의 태도를 본받아 저도 매일이 어제보다
행복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
정우현(인문학부) 리스펙~!
홍다연(정치행정) 저는 가끔 과거의 기억으로 혼자
힘들어 할 때가 많은데 정말 멋진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호님을
응원할게요

2023/11/08
wednesday, pm 12:56 | 13읽음
이유빈(사회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기숙사에서 본가에 내려가지 않고 2주, 3주
길게 있다보면 집과 부모님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종강 후에 집에 가 있으면 집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유독 기숙사에만 오면 그리워진다. 그런데
요즘 문득 생각이 든다. 기숙사에 있을 때
집과 부모님이 보고 싶은 그리움은 진정한
그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중에 영영 못보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그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요즘은 더 큰 그리움이 생기기 전에 작은 그리움을 통해 더 잘 해드리자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큰 그리움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큰 그리움이 오기 전 모든 이들에게 잘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한다.

10 2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영영 못 보게 되었을 때의 그리움도, 지금의 그리움도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다만 지금 최선을 다한다면 전자의 경우에도 그리움이 후회로 남진 않겠죠? 저는 매주 본가에 가지만, 유빈 님의 글을 읽고 가서 뒹굴대거나 몸 편하게 있던 기억들이 지나가네요... 이번주에는 조금 일찍 가서 부모님 일을 뺏는 불효(?)를 한 번 저질러봐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작은 그리움을 통해 더 잘 해드려야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해야죠

2023/11/08
wednesday, pm 1:22 | 13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8일차

장난감 가게의 문이 닫히고 하얀 눈발이 휘날렸다.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거리와 자동차, 가게의 테라스 등에서 자주 보였다. 반면에 알버트는 혼자였고, 익숙한 듯 브라운 가의 저택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검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들을 여럿 지났고, 붉게 타오르는 불길 주위로 노동자들이 서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공장으로 끌려간 아이들을 몇 번인가 본 적 있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인사가 아직도 가슴에 서려있었다.

브라운의 저택에는 하인과 형이 나란히 맞이했다. 그들은 식사를 대접하고 방을 구경시켜주었다. 브라운이 지내던 서재와 방에 들어서자 작고 커다란 장난감들이 여러 군데 장식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알버트가 선물 받은 것과 같은 물건도 있었다. 그제야 브라운이 자신이 지내던 보육원의 키다리 아저씨이자 산타클로스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브라운의 형이 오르골을 보여주며 말했다.

"제 동생은 어린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에 대한 보답이 반응으로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기쁘다고 했었지요. 그런 말도 하더군요. 한 꼬맹이가 무척 말똥한 눈으로 가게를 둘러보면서도 머뭇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날 후회 없는 야근을 했다고."

알버트의 심장이 크게 동요했다. 그는 눈앞의 스노 글로브를 쥐었다. 유리 속에는 브라운의 장난감 가게를 모방한 미니어처와 트리가 있었다. 분명 차가운 표면이어야 할 유리가 왠지 모르게 따뜻했고, 그 속에서 브라운이 나타나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그리웠다, 키다리 아저씨가, 자신을 지켜볼 산타클로스가.

"그 꼬맹이는 사실 브라운의 아들이었습니다. 녀석은 장난감 가게가 망해가자 가정이 기울었고, 결국 보육원으로 어린 아들을 보낸 겁니다. 다시 한번 노력하여 당신이 알다시피 가게는 흥했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직접 가게로 찾아올 것을. 저는 그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않기로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하지만 매년 이맘때 떠올라요. 괜한 소리를 했나요? 알버트 씨, 왜 울고 계시죠?"

볼을 타고 흐르는 투명한 눈물이 겨울의 보기 드문 빗줄기처럼 흘렀다. 알버트는 제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왜 진즉에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자신과 같은 성씨에 자상한 어른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왔건만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브라운이 가족이었음을 깨달은
대가를 견디기 힘들었다. 감정이 진정되고
알버트가 백부를 향해 달려들어 껴안았다.
진실은 매정하게 마음을 꿰뚫었다.

♤ 이 글은 연재 중인 <브라운의 장난감
가게>의 3편입니다.

8 2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전 편과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른 키워드를 통해 같은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ㅎㅎ 그 전에 이어지던 내용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보면서 읽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8

wednesday, pm 4:16 | 14읽음

홍은기(영문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연애는 하고 싶은데 누굴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전애인이 그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애정을
당연하게 주고받을 수 있던 그 상태가
그리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눈을 맞추고
계속하라는 듯 작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애 상대를
찾아다닐 만큼 격렬하게 외로운 건 아니고
하루에 두 번 쯤 그런 거 같아요." 많은
횟수인가? 하루 종일 외롭다며 눈물을 짜는
것보다는 제정신인 상태 같았다. 채원은
자신의 정신을 변호하려 노력했다.

"전애인랑 나눈 것 중에 어떤 게 그리워요?"

상담사의 질문에 채원은 눈을 깔고 지난
7월을 기억하려 노력했다. 까마득한 옛날
같이 느껴졌다. "그냥, 아침에 깨어나서 하는
인사랑 자기 전에 잘 자라는 인사, 밥은
먹었냐 챙기던게 좋았어요. 그런 사람은 애인
아니면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립지는 않았다. 그저
스쳐지나가는 인연이었다. 채원은 그때
자신이 가졌던 무수한 감정이 그리웠다.
그러나 채원은 기억 속에서 객관적으로
평범한 경험들을 꾸준히 미화시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고통은 희미해지고
그립다라는 생각만이 어렴풋이 들었다.

9 2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요즘은 혼자가 더 편하고
즐거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은 상대가 필요할 때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아직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에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마치 잊은 듯
하지민 사소한 것들에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것.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사랑이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8
wednesday, pm 5:24 | 15읽음
조성현(철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는 문장은 참으로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애틋한 마음도 느껴지고 따스한 감정이 문장하나에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슬픔과 공허함도 느껴집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때
지금은 어릴때 마음 껏 뛰어 놀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얼굴이 붉어질때까지 뛰어도 마냥 재밌기만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순수했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리워 질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이 그리워 질 수 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그리워 질 수 있고
젊음이 그리워 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그리움이 힘이되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기다려봅시다.

10 6

라혜민(사회학과) 그리움이 힘이 되어 현재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니! 저에게 교훈을 주는 글이네요.
조성현(철학과) 라혜민(사회학과) 부족한 글이지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언젠간 한림대학교, 대학생활, 기숙사, 동기들이 너무 그립고 또 그리울 것 같아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해봐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그리움이 낭만이라는 성현님의 글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표현인데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덕분에 낭만을 통해 그리움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조성현(철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제 글이 와닿다니 정말 기쁜 표현인것 같아요 ㅎ 언제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8
wednesday, pm 5:35 | 12읽음
이주영(디미콘)

#8일차 #그리워하다

저는 중학생 때 필리핀 어학연수 간 기억이 그립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두 달이 어색했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영어를 배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만의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떨어진 그 순간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해외를 가본 것이 처음이라 떨리고 두려웠지만 설렜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해서 망고를 먹었는데 아직도 그때 먹은 망고가 정말로 생각납니다. 맛있는 망고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고 가려운 거지 망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생각도 못 하고 아팠던 기억도 생각납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여행도 하며 2달을 지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해 혼난 적도 있고
쇼핑하다가 돈을 잃어버려 운 적도 있지만
서러웠던 기억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도, 필리핀
친구들도, 선생님도, 삼촌, 이 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했고 보고 싶을
정도로 정을 나눴습니다. 좋았던 기억들로
넘쳐났던 필리핀 어학연수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항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립습니다.

☺ 9 ⋯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학연수를 경험한
주영님이 부러워지는 글이네요! 제가 늘 원하고
지금도 바라는 것인데 이미 중학생 때
경험하셨다니...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저조차도 왜
그 순간을 그리워하시는지 알 것만 같아요 ㅎㅎ
저도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의 추억이 정말 강하고 그리우실 것 같네요

2023/11/08
wednesday, pm 5:39 | 11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인생 기억의 시발점인 유치원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을 지나 조금 더 가까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그리워지는 기억의
구간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공기놀이를 하며 깔깔거리고, 술래잡기를
하고
점심이 되면 급식당번인 친구에게 고기를 더
많이 달라고 했었던 때가 그립다.

하교 후엔 학교 놀이터 철봉에 누가 더 오래
매달리나 시합하고, 구름사다리와
지옥탈출을 하며 묘기를 부리기도 했던 모두
다 아는 그때 그 시절 놀이들과 문방구에 가서
불량식품을 같이 나눠먹은 후 집에 갔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그 일상이 너무나도
그립다.

왜 점점 더 그리워질까?
그리웠던 그 순간이 점점 더 멀어져 가기
때문일까?
이제는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아무 걱정 없이 마냥 즐겁고 순수했던
시기여서일까?

아, 지금 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시절의 나도 그리웠지만
그 시절의 부모님도 그리웠던 것 같다.
주름살이 거의 없으셨던, 지금보다 더
건강하셨던, 하교할 때쯤 항상 마중 나오셨던
그 부모님이 그리운 걸지도 모르겠다.

시간은 한참 흘러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오랜만에 집에 가면 그때처럼
마중나오시는,
나를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게 하는 부모님이
그리웠고 그립고 그리울 것 같다.

☺ 8 ⋯ 3

라혜민(사회학과) 이미 지나가버린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공감돼요.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그리워지겠지 생각하면 더욱 하루를 잘
보내야지 다짐하게 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가장 그리운 시절은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하고 사소한 것
하나조차 재미있던 그 시절. 가끔은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저는 그때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도 그리운 것들이 있듯이 부모님께서도 그리운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어린 저의 모습을 사진 찍는 부모님의 얼굴이 그립네요

2023/11/08
wednesday, pm 6:43 | 10읽음
김현지(경영)

#8일차 #그리워하다

할머니께서 하늘로 떠나신지 4년,
아직도 그 품이 너무 그립다.
내가 기뻐할 땐 행복하게 웃으셨고
슬퍼할 땐 같이 울어주셨다.
아픈 몸이시지만 늘 나의 안부를 걱정해
주셨고,
말하지 않아도 항상 나를 이해해 주셨다.

늘 따듯하시며 항상 사랑을 주신 나의
그리움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사랑을 더 실감하게
된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또 지켜주시는
그리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마저도 품어주실 걸 알기에
늘 할머니가 그립고 보고싶다.

☺ 7 ⋯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떤 마음인지 알기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겠죠. 하지만 이젠 그리움보단 그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내가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전 이제 그렇게 살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맞습니다ㅎㅎ 이별로 인해서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현지님의 글을 읽으니, 저의 할머니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너무 보고싶어지네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더 연락도 자주하시구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

2023/11/08
wednesday, pm 6:44 | 13읽음
라혜민(사회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린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습지만 예전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을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 밖에 없었어
마음 둘 곳이라곤 없는 이 세상 속에
_ 가을방학,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전 애인을 그리워하는 건 무용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불쑥 찾아오는 기억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던 감정을 끌어안고 최대한 덤덤해지려고 애쓴다. 내가 사랑했고, 미워했고, 질투했고, 미안했고, 지겨웠던 사람.
내 모든 것이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한테 너무 큰 존재였기에 이별 이후엔 많이 방황했다.
이제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너를 만나고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덕분에 나는 사랑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현재를 더욱 생생하게 감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나고 보니 추억이더라, 인생의 한편에 네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보고 싶은 날에는 내가 알고 있는 너를 만나러 갈게. 그리고 만약 내가 너에게 못 다한 일이 있다면 다음 사람에게 전해줄게.

☺ 8 ⋯ 3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지나간 그리움만을 추억하기보단 혜민 님처럼 지금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아직 혜민님 같은 사랑을 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써 굉장히 심오한 글로 다가왔으나 그럼에도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사랑을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른스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그리움이 찾아오더라도 자연스러운거라 생각해요! 혜민님의 진했던 사랑이 느껴지는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23/11/08
Wednesday, pm 7:09 | 15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8일차 #그리워하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곧 있으면 결혼을 한다. 한 가정을 이루고 진정한 내 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고귀한 탄생을 마주하고 또 다른 세계로 알을 깨고 날아오를 것이다.

우린 더 이상 예전처럼 만날 수는 없을 거야. 너와 함께 놀았던 모든 순간들이 그리울거고. 밤을 새워가며 게임하고 늘어진 술병 사이로 퍼져갔던 수다들이 떠오르겠지. 나이가 들어도 가끔씩은 어린 아이처럼 철 없이 놀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지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린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도망치고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쉬러 왔으면 좋겠다.

☺ 8 ⋯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제 친구들이 결혼으로 하나 둘씩 떠나가면 함께했던 순간들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참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힘껏 박수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친구가 결혼을 하게되면 그리움이 더욱 커질 것 같아요 하지만 추억은 영원하고 영찬님과 영찬님의 친구분의 우정, 추억은 계속 이어질테니 지금의 그리움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박지원(사회학과) 좋은 말씀 감사해요
박혜윤(사회학과) 아직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없어 실감이 안나네요.. 친구가 결혼한다면 그립고 묘하면서도 어안이 벙벙할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친구가 결혼하는게 처음이라 마음이 오묘하네요

2023/11/08
wednesday, pm 7:21 | 13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8일차#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라는 키워드를 보고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나는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리워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였는데. 그것을
그리워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했었다.
한동안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우울한 때도
있었고. 늘 그리워하는 대상을 생각하다 꿈에
나오면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는 꿈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사실에 슬퍼했다. 내가 느끼기에는
'그리워하다'는 슬픔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
같아서 기억함과 동시에 슬퍼지는 것 같다.
앞으로 꾸준히 가야 하는 길 위에서 뒤로
후진하는 기분이라 '현실을 회피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개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어떤 시기로 돌아가고 싶고, 지금
돌아간다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현재에 행복한 것들을 찾으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마음속에 소중하고 의미있는 '기억'들이
많지만 현재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간이 흐른 뒤 또 나는 이
시기를 후회하고 그리워할 지도 모른다. 나는
'후회하다'와 '그리워하다'를 같은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힘들다면 한 번 씩 마음속에서 꺼내
안아주고,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흘리지 않고
잘 담아서 내 옆에 오래 오래 간직하고 싶다.

7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끔씩 그리워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빠져 살다보면 결국 현재라는 순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앞으로의 행복은 사라지고 그저 그리움에 느끼는 슬픔만이 남게 되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충실하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제 유정님처럼 그리움의 마음을 안아주고 새로운 그리움들을 쌓아두며 오래 오래 간직하고 싶네요

2023/11/08
wednesday, pm 8:51 | 12읽음
박지원(사회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나는 아직까지 누군가를 온몸이 아프도록
그리워했던 기억은 없다. 그래서인지 나도
가끔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길을 걷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 마음 한 켠이 쓰라리고 슬픈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 연락이라도
남겨볼까 대화창을 들락날락하는 것일까.

그럼 그리워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 과연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맞는 것일까. 혹여나, 그 사람이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해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그 사람의
눈동자까지 느낄 수 없다. 또 나의 그리움이
그 사람에 닿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에는 안녕과 안녕이 있다.

상대와 처음 만날 때 건네는 안녕, 헤어질 때 건네는 안녕. 이는 불행한 것도 아니고, 운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그저 운명대로 흘러가고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나에게도 언젠간 닥칠 안녕을, 그리운 마음만은 남겨두고 안녕을 건네고 싶다.

6 1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이미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없길 바랬지만 시간은 허락하지 않더라구요. 언젠가 찾아오는 그리움이지만 그럼에도 반길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더 아프고 저린 마음을 가지는 게 그리워하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의 기분인 것 같아요... 오늘따라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8
wednesday, pm 9:38 | 12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이 있나요?
저는 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기숙사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이 그리울때가 많습니다. 본가에만 있었을땐 몰랐는데 부모님의 품이 많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때나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때 문득문득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전화를 매일하는데 전화를 할때도 그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본가에 한번 갈때 최대한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가족들과의 대화를 평소보다 더 많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움의 힘은 꽤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8 3

김경회(국어국문학과) 많은사람들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건 부모님이 되는것같습니다! 공감되는글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족은 정말 그리움의 대상인 것 같아요. 조금만 떨어져있어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것. 그것이 가족이 지닌 힘이라고도 생각되네요 ㅎㅎ 오늘따라 떨어져있는 가족이 그리워지는 날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기숙사에서 지내다보니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매주 본가를 가도 계속 보고 싶고 그리운 존재라 생각해요

2023/11/08
wednesday, pm 9:43 | 9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그리워 하다

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감정에 가장 가까운 단어일까 생각해보니 슬픔,아련함 등등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의 행복을 추억하는것이 '그리워하다'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를 살아가고있는 지금에선 과거의 때의 행복을 추억밖에 할수없기에 슬퍼할 수 밖에 없을 수 있지만

어쩌면 내가 살아온 날들중에 내가
그리워할만한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그자체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일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7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경희님의 글처럼 그리워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나쁜 기억은 그리워하디보단 잊고 싶고 좋은 기억은 평생토록 그리워하며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요 ㅎㅎ 그렇게 생각하니 그리워질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에게도 그리운 순간, 행복한 순간이 있다는 것은 저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2023/11/08
wednesday, pm 9:50 | 11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가끔씩 초등학교 도서관이 떠오릅니다. 책을 정말 좋아하던 친구 덕에 매일매일 갔던 초등학교 안 작은 도서관이 생각나네요. 한쪽 구석에서 소곤소곤 얘기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이면 아이들로 북적거리며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방과후 한가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날, 사서 선생님이 손에 쥐여주던 사탕을 받곤 신나게 집에 뛰어가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공강이면 자연스레 도서관에 머물곤 합니다. 도서관은 어딜 가나 좋지만 이따금씩 작지만 정 많고 따스했던 초등학교 도서관이 그립습니다.

8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도서관을 가장 많이 갔던 때가 저도 초등학생 시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그땐 얼마나 큰 공간이었던지... 그때가 정말 그리워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을 방문해보려고 해요 과거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기억이 나네요~~
박혜윤(사회학과) 초등학생 때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고학년때는 사서 선생님과 친해져 학교 신문부로 활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지 초등학교 도서관이 더 그립게 느껴져요

2023/11/08
wednesday, pm 10:38 | 9읽음
고다인(중국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저는 심심할때면 휴대폰 갤러리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쭉 내리면서 잊고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씩 다시 보고는 해요.약속시간에 늦는 친구를 기다릴때, 혼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조금 지루해 질 때 등등 휴대폰에 담긴 추억들을 꺼내다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갈때가 많아요.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따뜻함을 넘어 무더웠던 태국 방콕여행의 추억사진을 보며 #그리워하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만 야시장에서 친구와 시간가는줄 모르고 했던 게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사실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야시장에서 해본 게임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동전을 넣고 스틱을 당기면 랜덤으로 구슬이 떨어지면서 특정 숫자칸에 떨어지고,그 숫자만큼 스티커가 뽑히고 그걸 모아서 상품으로

바꿀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야시장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현지인들이 다들 집중하며 게임을
하고있길래 궁금해서 한 판만 한다는게
연속으로 여러번하고 늦은 밤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스티커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몇백장이 아닌이상 제가 바꿀수있는건
매달려있던 작은 인형이었지만 아주 재밌고
귀여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대만여행을
다녀온지 열 달이 되었는데 이때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수요일 밤을 마무리해봅니다.

7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가끔씩 핸드폰 속 갤러리를 보며 추억을 회상하고 즐거웠던 그때가 그리워요. 당시엔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왜 이렇게 소중한지... 이제서야 안 것이 후회되기도 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신기하네요!! 저도 갤러리 사진을 보면서 웃으면서 추억들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2023/11/08
wednesday, pm 10:44 | 12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8일차 #그리워하다

8년째, 너무 그리운 사람이 한 명 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은 한 순간에 나를 떠나 버렸다. 간다는
말도 없이 떠난 사람이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워하는 것 밖에 없었다. 이렇게 금방
가버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후회만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있던 빈자리는 후회
속에서 더 커져만 갔다. 같이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나 그리운 마음이 드는 걸 보니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나보다. 밤이 되면
문득 더 많이 떠오르곤 한다. 야심한 밤의
공기가 애써 참아오던 마음을 건드려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든다. 애써 무시해보려
해도 결국 난 또 지고 만다.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닦아내보지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마음이 더 아파온다.
사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집에 두고 간 약을
전해주기 위해 내가 찾아갈 수 있었지만, 나는
그저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전해주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받지 말아야 할 것만 같은
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고, 나는 그 사람의
소식을 들어버렸다. 마지막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가던 차 안에서는 서글피 우는 소리로
가득했고, 나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애꿎은 손만 꼬집었다. 아프지 않길 바랐지만

눈치도 없이 생기는 아픔에 조금씩 눈물이 떨어진다.
그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던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하얀 천 위에 너무도 곱게 누워있던 그 사람은 나에게 이젠 현실을 직시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풀려버린 두 다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 체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가 대성통곡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내 마음이 진정되기 전에 이젠 정말로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와버렸다. 힘없이 가는 그 사람을 보며 자고 있으니 데려가지 말라고 울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뿐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했다. 아직 떠나보낼 준비조차 안 된 나에게 주어진 건 그 사람의 사진이었다. 결국 난 사진을 꼭 안은 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여전히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 나를 향해 지어주던 미소가 떠오른다. 마치 소녀처럼 활짝 웃던 그 웃음소리가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돈다. 오늘같이 추운 날이면 더 떠오른다. 혹여나 거기서 춥진 않을까,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진 않을까 걱정된다. 여전히 그립다. 아마 앞으로도 그리워할 것이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간직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날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과 함께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난 오늘도 눈을 감고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

6 2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은 정말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분명 그 분도 하영님과 같은 시간, 다른 공간 속에서 하영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밤은 푹 쉬시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글을 쓰면서 마음이 울적해졌는데 지원님의 댓글에 힘을 얻게 되네요ㅠㅠ 요즘 날씨가 많이 춥던데 지원님도 따뜻하게 푹 주무시길 바래요 ㅎㅎ

2023/11/08
wednesday, pm 10:50 | 13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8일 #그리워하다

피아노 학원에 가기 전 사 먹던 컵볶이
학교 밑에 팔던 솜사탕
방과후가 끝나고 놀러 가던 친구집
장갑이 젖을 때까지 만들던 눈사람
티비를 보다가 잠드신 아버지의 배가
오르락내리락하던 모습
집 앞에서 불던 비눗방울
낮잠을 깨우던 과일 트럭
갈 때마다 적응이 필요했던 방방이장
.
.
.
지금 생각나는 그리운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사소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그리운 추억이 되어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7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가던 분식집이 생각나요!! 그땐 그게 정말 행복하도 삶의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어서 그런지 더 그리운 것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이 끝나면 맨날 컵떡볶이를 사먹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슬떡이라고 슬러쉬+떡볶이 해서
1000원에 팔았었어요~~ 너무 그립네요 ㅠㅠ

2023/11/08

wednesday, pm 11:06 | 9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8일차 #그리워하다

유년기의 경험은 평생을 좌우한다.

맞벌이 가정이 흔히 그러듯이 어릴 적 나는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었다.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 집과 외할머니 댁이 가깝던 게 한 몫 했던 것 같다. 막내외삼촌과 숙모께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계셨기에 나는 자연스레 외할머니와 삼촌, 숙모 아래서 자라났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때론 평일 내내. 가끔은 주말까지도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외할머니 댁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래서인지 자식이 없으셨던 막내외삼촌과 숙모는 바로 손위 누나의 자식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셨고 나 또한 주양육자는 외할머니와 숙모, 삼촌이라고 여겼다. 어릴 적 기억 속엔 가족끼리 자주 여행을 다녔던 경험도 있지만 그 집, 윗목은 차갑고 아랫목은 따뜻하던, TV와 컴퓨터가 두 대씩 있던, 겨울에는 연탄 보일러를 떼던 그 집에서의 경험이 훨씬 많다.

거동이 불편하시던 외할머니께서 조언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미닫이 창호문으로 연결되어 있던 방으로 힘겹게 걸음을 옮기시고, 갱지에 모나미 펜으로 알아볼 수 없는 한자를 휘갈기시는 것을 구경하며 나는 그 옆에서 천자문을 읽었다. 낯선 이들이 가고 나면 마당에서 외삼촌이 갱지를 태우시고 외숙모는 매번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인 인절미를 사오셨다. 햇볕이 좋은 날이면 외숙모를 도와 빨랫줄에 이불을 널고, 장맛비가 내리면 빗소리를 들으며 강원일보를 읽었고 눈이 내릴 땐 난로에 호일로 감싼 고구마를 구워 먹었다. 봄이면 제비가 돌아와 처마 밑에 둥지를 지었고 여름엔 어린 제비의 삑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빙수와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가을은 큰 대야에 한가득 담긴 배추로 김장을 하는 계절이었고 겨울에는 메주 쑤는 냄새를 맡으며 옅은 황색으로 변한 연탄으로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 집에서 겪은 모든 시간이 경험이었고, 경험은 곧 추억이 되었다.

어릴 적의 견문이 평생을 밝힌다며 70평 남짓한 공간만으로도 내 세상을 넓혀주셨던 외할머니께선 작년 10월에, 외숙모는 지난 9월에 타계하시고 삼 대의 기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집도 재개발로 사라져버렸다. 모든 건 퇴색되기 마련이니 언젠간 하나 둘씩 지워져갈 거라고 예상했었다. 그래도 흔적은 남을 테니 추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소실되어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이 된 내 유년기는 어떻게 그려야 하나.

☺ 6 💬 1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 사리지는 기 기분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소가 사라졌을 뿐 기억에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에 작게나마 괜찮다고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8
wednesday, pm 11:07 | 11읽음
조영주(간호학과)

#8일차

한 걸음 한 걸음 여느 때와 같이 이 길을 걷다가 문득 당신을 떠올립니다. 하루 이틀 씩씩하게 잘 살아내다가도 가끔은 당신이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늘 함께일 것이라는 걸 알지만서도 손에 잡히게 당신이 선명하길 바라게 되는 하루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홀로 걷던 그 걸음을 떠올리고 당신께서 지쳐 누운 그 바위를 생각하다 어느 날은 겨우 이것으로 주눅 들어 있는 내 모습에 피식하며 나 당신 한 분 그저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아아 내게 불어와주세요. 아아 내게 속삭여주세요. 내게 가득히, 더 가득히 충만해 주세요. 마음이 터질 듯이 당신을 끌어안고 저항할 수 없는 웃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 사랑하여 몹시 보고 싶어 하다

7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국어 시간에 읽었던 편지 느낌을 받았어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항할 수 없는 웃음이라는 표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마치 웃지 않고서야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그려져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ㅎㅎ 덕분에 설렘과 더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그리움이 느껴지는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08
wednesday, pm 11:09 | 13읽음
김준호 (콘텐츠IT)

#8일차
그리워하다.
모든 사람은 그리워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 대상은 물건, 추억, 사람, 시간 등등 무엇이든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리워 한다는 것의 본질은 사랑했다는 것이다. 사랑했기에 그리워 하고 그리워 하기에 추억할 수 있는 일련의 순환, 그리고 다시 사랑했던 그 때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더더욱 멈추기 어려운 것이 그리움인 것 같다.

그리워하지 않는 순간이,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감정이, 없을리가 없다. 항상 생각나기 마련이다. 매 순간 후회하고 돌아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해야할 일이 있기에 나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움의 순환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드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크기만큼 그리움이라는 그림자도 크게 생기는 법이다. 하지만 등뒤에 비치는 그림자가 무서워 자라지 않는 나무는 없다. 커져가는 그리움 만큼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9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지막 문단이 정말 인상깊고 좋게 다가왔어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그리움의 본질이 사랑에서 비롯되다는 표현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리워할 수 있고 추억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모두가 마음 속에 그리움 하나 정도는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버텨내는 것 같네요

2023/11/08

wednesday, pm 11:27 | 11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8일차
그리움의 색깔이 있다면 그건 빨강, 파랑, 초록이 섞인 흰색일 것 이다. 처음에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지며, 그 대상에 대해 분노가 느껴질 것 같다. 너무 그립지만 볼 수 없음에 화가 나고, 내 곁을 떠났다는 분노로 빨강일 것이다.
그러다 그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 내 곁에 없음에 우울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며 어쩌면 그리운 날에 상대를 떠올리며 슬픔이 밀려올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움은 파랑이다.
시간이 더 흘러 우연히 그 사람과 함께 거닐던, 혹은 함께 했던 추억 속 일을 반복하다 문득 상대가 생각날 수 있다. 당시를 생각하며 함께있던 그날 그 바람도 그날의 온도도 가끔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다. 너무나 소중했던 이와의 추억에 젖어 그리움이 밀려온다. 이 때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상대방을 그리워하기에 그리움은 초록이다.
그러다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르면 빨강, 파랑, 초록의 감정을 겪으며 그리움은 흰색이 된다. 그 어느 것에 섞여도 색을 연하게 만든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이제는 모든 감성이 합쳐져 좋은 기억, 함께였던 추억에 미소를 짓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건강하기를 생각한다.
나와 6년을 함께해준 나의 친구를 향한 그리움의 색깔은 아직 초록색이다. 언젠가 그 친구를 떠올리며 흰색의 그리움이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다. 소중한 과거의 내 친구에게, 그리움을 전해본다.

8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리움이 색깔을 부여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정말 그런 색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그리움을 색깔로 표현했기에 추상적인 단어임에도 더 시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그리움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ㅎㅎ 덕분에 제 그리움의 색깔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그리움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다니!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2023/11/09

thursday, am 12:19 | 20읽음

김양선

#8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누구나 살아온 세월만큼 그리워하는 사람, 물건, 장소가 늘어갑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앞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각자 털어놓은 그리움들이 서로 겹치고. 공감하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가 나중에 좋았던 시절로, 그리워하는 계절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11 1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감사합니다

2023/11/09
thursday, am 7:42 | 24읽음
김양선

#9일차 키워드 : 선택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과제를 할까 아니면 게임을 할까, 걸어갈까, 택시를 탈까. 우리는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결과가 좋았던 적도 있지만 후회를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어제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요. 선택의 순간과 관련된 잊지못할 기억이 있는지요?

14 0

2023/11/09
thursday, am 8:56 | 15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9일차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비유한 말인데, Birth(탄생)와 Death(죽음), 그리고 Choice(선택). 세 가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선택은 곧 기회를 잡는 일과 같습니다. 기회의 여신은 앞머리만 있다는 말을 아시나요? 다가올 때 그 머리를 잡지 못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녀를 다시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기회이고, 선택일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밑거름이 될지 모르는 일이죠. 이 중 누군가는 얼마 뒤 등단한 작가가 되어 있을 수도요.

당신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향기나는 사람이 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향백리(酒香百里) 화향천리(花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문장을 아시나요?

잘 빚은 술의 향기는 백 리를,
향기로운 꽃의 향기는 천 리를,
좋은 사람의 향기는 만 리를 간다.

저는 제 평생에 걸쳐 모두에게 향기로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목표가 확실하다면 선택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에 맞는 선택에 충실하면 되니까요.

오늘도 저는 이런 기준에 맞춘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C는 무엇인가요?

10 1

박지원(사회학과)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람의 뒷이야기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저의 'C'는 무엇이었는지, 만족스러운 'C'였는지 생각하게 되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23/11/09
thursday, am 9:14 | 12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9일차 #선택
어제 미뤄둔 과제를 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해서 그저 손을 놓고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예상외로 금방 끝났다.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부터 선택해서 시작하니 한결 수월했다. 이제껏 과제가 생기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쓰기를 보류하는 선택을 많이

하곤 했다. 그렇지만 일단 먼저 써놓고 퇴고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마감일보다 빠르게 제출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별생각 없이 시작하는 게 가장 빨리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때로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선택도 중요하지만 내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고찰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다.

9 1

박지원(사회학과) 선택에 따른 책임감을 진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대단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2023/11/09
thursday, am 10:29 | 12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9일차

소설을 쓰기 위해 이루어지는 선택은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 즉 주인공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령 주인공을 강하거나 약하게 만들고, 친구나 동료의 목숨을 앗아가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선택으로 위장한 작가의 선택은 결말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지게 된다. 가공 세계의 창조와 파괴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소설의 의미를 결정짓는다.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는 큰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순수한 꿈을 좇는 선택을 취했다. 소설을 읽는다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테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도, 원탁의 기사 중 하나인 랜슬롯의 사랑도, 모두 고뇌와 선택 속에서 피어났다. 우리의 인생도 소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고뇌와 선택이 운명을 가로 짓다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7 1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우리의 인생도 소설과 같다고 생각해요! 선택은 선택대로, 운명은 운명대로 각자 제 역할을 한다고 느껴요

2023/11/09
thursday, am 10:51 | 13읽음
홍다연(정치행정)

#9일차 #선택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이며, 아마 인간은 자신의 생이 다할때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점심이나 저녁메뉴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언제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하는 지 등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에 해야할 일들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후회로 다가올지, 만족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제 하루를 만들고, 스스로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어떻게서든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난해하다는 평이 많았으나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 제 인생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 것이며, 그 선택이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되었습니다.

10 1

박지원(사회학과) 저 오늘 지브리 영화 보러가요!! 사실 제목을 들었을 때 오히려 너무 좋았고 마음이 묘했어요. 저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현재를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2023/11/09

thursday, am 11:47 | 13읽음

김서희(심리학과)

#9일차
나는 항상 고민하는 선택이 있다.
그건 바로 아침을 먹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다. 아침에는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맛이 없을 때가 많은데, 막상 아침밥을 먹으면 맛있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침밥에 대한 선택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다. 아침밥처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하루이다.

11 5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저는 잠과 아침밥 중에 매번 고민하는데 이유는 다르지만 왠지 공감되네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전 웬만하면 아침은 꼭 먹는 편이에요! 빈혈이 있어서긴 한데, 이게 꽤 좋은 점이 많더라구요! 아침부터 좋아하는 음식이나 먹고싶었던 음식을 먹고 하루를 보내면 서희 님처럼 힘차고 활기차지기도 하고, 건강 측면이나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좋더라구요! 그래서 아침 습관은 꼭 들이시길 추천합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아침은 무조건 안 먹는데 점심을 먹을지 말지 맨날 고민해요 크크,,, 고등학교 때 점심을 건너뛰다보니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사소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의 걱정은 오늘 밥 뭐 먹을지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요즘 밥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2023/11/09

thursday, pm 12:52 | 13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9일차 #선택

선택은 본인이 만든 모든 순간들이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것도 수많은 순간들 중 하나의 순간의 선택이다. 우리는 각자 비슷하면서도 모두가 다른 선택을 한다.

선택에 있어 나는 항상 신중한 편이다. 이 선택을 했을 때의 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것과 걱정되는 것들을 모두 나열한다. 긍정적인 것보다 걱정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으면 그 선택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은 이성에 따르지 않고, 감정에 이끌릴 때가 있다.

어제 나는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해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와 물만 마셨다. 많이 아쉬웠지만 그 사람들과 앞으로 많이 볼 거고 술자리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오늘 새벽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학점을 중요시하는 나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 적이 없는데, 이성적이고 나의 가치관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새벽에 과제를 마무리하여 나름 만족할 만큼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최근 했던

선택 중 대견스럽고 나 자신을 창찬할 만한
선택인 것 같다.

9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술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을 마실 법한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보민님이 너무 대단해보여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저는 가끔 선택을 하게 될 때 신중하지 못 할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ㅠㅠ

2023/11/09
thursday, pm 1:16 | 13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9일차 #선택

선택은 리스크와 기회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2가지를
고려한다.
하나는 기회비용 내가 이것을 할 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시간들여 할만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으로 넘어간다.

리스크, 내가 이것을 할 때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잘못되어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러면 도전한다.

생각없이 한 후에 후회한 적이 많아
선택하기 전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2가지를 꼭 고려하는 것 같다.

10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항상 시간에 쫓겨 선택을 하면 대부분 후회를 하더라구요!
신유정 (심리학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잠깐이라도 고려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상민님의 글을 읽고 저에게도 선택의 순간에 다가온다면 꼭 참고해야겠어요!!

2023/11/09
thursday, pm 1:47 | 16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9일차 #선택

'선택' 키워드를 보자마자 떠오른 것은
'무한도전 인생극장 Yes or No'다. TV
인생극장을 패러디한 특집이고 무한도전
리얼 버라이어티 Best 3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회차였다.
드라마틱한 결과를 위해 질의응답의 순서를
바꾸어 질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Yes or No로
선택하는 점이 재미 유발 요소였다.

멤버별로 다 다른 결과가 나와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가장 운이 좋았던 박명수는 호텔에서 식사와
서비스를 누리는 등 선택의 귀재였다.
그에 반해 짜장면을 먹기 위해 마라도까지 간
유재석 정형돈 노홍철은 중국집에

도착해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
희비가 교차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 보고 최근에 또 보니 우리 인생을
함축해서 극적으로 보여 준 특집 같았다.
우리는 사소한 질문부터 중대한 질문까지
스스로에게 던지고, Yes or No를 선택하게
된다. 그 후의 결과는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선택의 대가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일 수 있지만 무언가를 얻고 인생의
경험치를 쌓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11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헐 저 어제 유튜브 짤로 해당 무한도전 회차를 봤는데 괜스레 반가워지는 글이네요! 저는 정형돈이 짜장면 곱배기 시켜서 못 먹는 장면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크크...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후회하게 되더라도 인생의 경험치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같아요

2023/11/09
thursday, pm 1:53 | 12읽음
김현지(경영)

#9일차 #선택

선택은 존중과 같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는 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사람이 멋있다.
실수하더라도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이 더 나아갈 수
있기에,
젊은 날 최대한 많이 선택하고 실행하며
더욱 발전하고 싶다.

9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모든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현지님은 대단하세요... 배우고 싶은 자세이네요!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제가 저지른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며 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싶어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지원님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지원님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선택을 존중하는 건 멋진 태도 같아요! 저도 그런 태도를 가지며 발전하고 싶네요!
김현지(경영) 가양선(경영학과) 양선님 감사합니다ㅎㅎ 좋은 밤 되세요 :)

2023/11/09
thursday, pm 2:01 | 14읽음
문정희(법학과)

#9일차
선택.
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결정을 어려워하는
쉽게 말해서 '결정장애'이다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은 나에게
매일 찾아온다

물론 스스로 선택하는 일도 많지만
이런 선택의 순간으로 어쩌면 내 인생과
행복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려움은 커진다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하기 때문일까?

오늘도 선택을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의문이 든다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선택장애를 넘어 우유부단하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인지라 매우 공감가는 글이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내가 한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에 정말 공감이 가요. 저도 늘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런 고민도 하지 않으려구요!! 오히려 그런 고민들이 절 힘들게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ㅎㅎ 정희님도 얼른 떨쳐버리시고 편안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글 잘 읽었습니디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항상 선택을 해도 찝찝하고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2023/11/09
thursday, pm 2:57 | 15읽음
정우현(인문학부)

#9일차
선택을 통해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내린 선택들이 결국 저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 내린 선택과 처한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심취했었지만 지금은 난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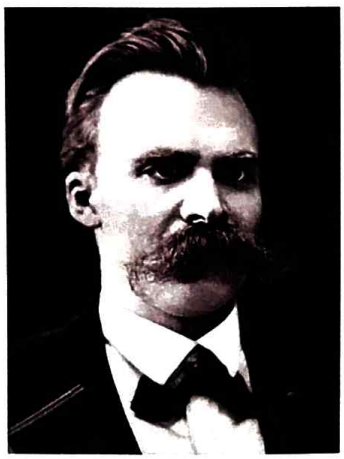
결국 선택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을 표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는 행위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나 자신의 본분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는다면 행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22년 동안 살아왔지만 하루하루 제가 저에 대해 모르던 것을 알아가고 더불어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던 모습, 잊고 있었던 저의 잠재력, 잘하는 것들 등등 다양한 것들을 선택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물론 더 행복한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선택들 때문에 비록 힘들었을지언정 저는 다시 일어나고 제 속도로 달릴 겁니다. 선택들은 저에게 수많은 교훈을 줬고 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선택은 곧 희망이자 교훈 같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현님은 글 작성하시면서 니체가 떠올리셨던 모양이네요! 글 잘 읽구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선택에 대한 고민의 방향이 바뀐 게 참 인상 깊어요. 저는 그런 게 부족해서 늘

후회만 했는데 우현님의 글을 읽으니 제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힘을 느끼게 되네요! 덕분에 좋은 깨달음 얻고 가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선택은 곧 희망이자 교훈이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어요!! 선택으로 인한 후회를 느끼더라도 그것 나름대로 교훈과 깨달음, 배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3/11/09
thursday, pm 3:06 | 14읽음
이주영(디미콘)

#9일차 #선택

나는 선택을 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다. 좋은 선택과 좋은 선택으로 인한 기쁨을 얻고 싶기 때문이다.

듣고 싶은 강의를 수강신청할 때도 도움이 되고 유익한 수업을 듣고 싶어 시간표를 짤 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배가 고프면 더 맛있게 먹고 싶어 어떤 음식을 먹을지 항상 고민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남을 다치게 하기도 내가 다치는 것도 원치 않아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마음이 정리되고 관계를 해결할 때까지도 많은 고민과 시간 소요가 엄청나다.

하지만 듣고 싶은 강의를 다 들을 수도 없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인간관계가 항상 좋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나마 나와 가까운 선택을 하고자 노력한다.

제일 어려운 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 신발을 고를 때도 옷을 고를 때도 항상 선택의 기로에 빠져 고민한다. 스타필드에 가면 항상 옷 색깔이나 사이즈 디자인을 두고 고민하는데 항상 선택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많은 선택들이 항상 좋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고민이 있기에 많이 생각했기에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택은 고민이 항상 뒤따라온다.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저도 선택장애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곤 하는데, 선택에 고민은 항상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공감하구 갑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옷 사는 거에 빠져있을 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같은 옷을 계속 살펴보고 몸에 대보고 사이즈도 보고.... 특히나 인터넷쇼핑을 할 땐 더 심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별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한건지... 그래서인지 주영님의 글이 공감이 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선택은 고민이 항상 뒤따라오죠 그래서 매일 시간도 많이 뺏기고.. 가끔은 고민만 하다가 품절된 경우도 있었어요

2023/11/09
thursday, pm 3:20 | 14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9일차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사람은 태어나 죽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의 말입니다. 하다 못해 오늘 내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먹은 점심 메뉴도 선택했던 우린 매일 수십 번의 선택을 통해 일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며 고민을 하고

후회를 이어오고 있죠. 잘 선택한다는 건
어렵지만, 남에게 이끌려 하는 선택이야말로
주체성이 없는 껍데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 선택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지 오랫동안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다만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또 모든 선택이 항상 성공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과 배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 10 ⋯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자신감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은님의 글에 공감이 되네요 ㅎㅎ 사소한 것 하나 선택할 때조차 내 선택이 맞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하기 때문에 큰 자신감이 필요하더라구요.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하가는 걸 알기에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기 보단, 그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도록 다짐해야겠어요!

2023/11/09

thursday, pm 3:22 | 12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9일차
선택은 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말이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옷은 어떻게 입을지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내게 어려운 선택은 무언가를 할지 말지이다.

동아리에 들어갈까.
서포터즈나 봉사활동 같은 대외활동을 할까.
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까.

하고 싶은 게 많다보니 자연스레 고민도
깊어진다.
선택이 어려운 건, 결국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데
나는 포기를 할 수 없어서 결국 다하기로
결정할 때가 많다.

그럴 때면, 주변 애들한테 몸이 열 개는
되냐는 둥,
한림대학교 공식 헤르미온느 아니냐는 둥
농담을 듣기도 한다.

최근 내게 가장 어려운 선택은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이다.
이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버렸다.

특정 회사에 취업을 할까, 하던 일을
계속할까.
그것도 아니면 1년은 쉴까, 아니면 대학원
준비를 할까.

아무리 N잡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선택해버린 나는
알고있다.

사실, 내가 했던 선택은 건강이나 수면을
포기했었던 거라는 걸.
많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유독 고민이 깊어지는 기분이다.

11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예전에는 결정장애가 심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구요. 오히려 그저 책임회피용처럼 느껴지도 했죠. 그래서 이젠 혼자서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비록 후회로 남더라도 말이죠 ㅎㅎ 수연님도 조금씩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 좀 해라, 운동 운동 거리던 말들을 이제 이해해요 무슨 일이든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2023/11/09
thursday, pm 3:31 | 16읽음
박지원(사회학과)

#9일차 #선택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 중, 후회하지 않은
선택이 없다는 건 거짓말일 것이다. 나는
최근까지도 나의 선택으로 인한 후회를
느꼈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하고 있다.
이런 후회를 느낀 것들의 대부분은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후회가 많다.

선택은 후회라는 단어와 함께 다닌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
어렵고, 항상 미련은 가지며 후회를 한다.
하지만 그 후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으로 후회를 하며 절망을
느끼고 계속 과거에 머무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혹은 현재도 그렇거나) 그때의
선택은 우리가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우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듯이 누가 나의 인생
이야기책의 결말을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부든, 관계든, 환경이든.

선택으로 인해 후회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청춘의 시간을 후회하는 순간으로
보내기엔 청춘은 짧다. 그러니 당장 밖으로
나와 나만의 청춘을 즐기고 느끼자!

12 5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선택과 후회는 하나라는 말이 공감이 돼요! 아무리 좋은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작은 후회가 남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후회보단 그저 즐기기로 했어요!! 지원님도 저도 후회로 인생을 보내지 말아요!! 글 질 읽었습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 누구도 후회 없는 선택만을 하며 살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원님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유빈(사회학과) 우리의 선택이 어느 부분에서는 후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때는 후회하더라도 현재에서 보면 후회할 일이 없더라구요!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가 된다고 해도 그건 마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미있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김현지(경영) 청춘을 즐기자라는 말이 와닿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23/11/09
thursday, pm 4:04 | 18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9일차 #선택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아주 사소한 선택을 할 때조차 이후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땐 신중함이 더해지는 것 같다. 심지어 음식을 고를 때조차 깊은 고민 끝에 겨우 고르곤 한다. 하지만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내 선택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분명 고심 끝에 고른 것임에도 따라오는 좋지 않은 결과에 후회를 하곤 한다. 그런 후회가 쌓이게 되면 결국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수없이 고민하고 내린 선택임에도 항상 결과는 좋지 못했다. 심지어, 다이소에서 물건을 살 때도 천원과 이천원 사이에서 몇 십 분을 고민한다. 결국 더 싼 걸 골랐다가 하루 만에 망가지고 나서야 더 단단하고 좋아보였던 더 비싼 물건이 눈 앞에서 아른거리면서 후회한다. 일상처럼 되어버린 고민-선택-후회의 반복은 나에게 결정장애를 안겨주었다. 이젠 내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넘기곤 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는 말은 더 이상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나의 표현이었다. 처음에는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회로 남는 것은 똑같았다. 아니, 오히려 더 큰 후회로 남았다. 온전한 내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는 당연히 얻을 수 없었고, 나와 맞지 않은 성향을 가진 사람의 선택은 최악의 후회로 남았다. 그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후회로 남는다면 내 선택에 의한 후회가 더 나을 것이라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다. 남들에게 떠넘기던 책임을 다시 맡게 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스스로 선택을 할 때면 다시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망설이게 되었고, 결국 선택을 포기하는 것을 반복했다.
가족과 함께 식당으로 외식을 한 날 난 그날도 메뉴판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결국 아무거나 시켜달라고 작게나마 속삭일 때 쯤,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았다. 말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또 아무거나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애꿎은 메뉴판만 꼭 잡고 고개를 숙이며 고민하는 척을 하는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젠 스스로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살짝 들어 가족들을 살펴보니 그저 잠자코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과거의 행동에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아주 아주 긴 고민 끝에 선택한 내가 외쳤다.

"난 이거..."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혼자서 선택하다니! 앞으로 다가올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성장한 나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렇게 내적으로 기뻐하고 있을 때 쯤, 음식이 나왔다. 기뻐하던 것도 잠시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럼에도 내 선택이 맞길 바라며 한 입 먹어본다. 정말 맛있었다. 말 그대로 내 스타일이었다. 드디어 내 선택이 적합한 순간을 맞이했다. 그때 먹은 음식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 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매 순간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이젠 후회를 겪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회로 얻은 결과를 통해 내가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후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그 덕분에 이젠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망설임도

없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오겠지만,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내 선택을 믿을 것이다.

13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하영님의 선택을 늘 응원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늘 좋은 선택일 순 없겠지만 이를 통해 얻는 배움도 있다고 생각해보려구요 ㅎㅎ 저도 지은님의 선택을 응원할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스스로 하는 선택은 후회할 때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하면서 나에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하영님의 좋은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신유정 (심리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시행착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유정님의 선택을 응원할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의 선택을 믿고 또 믿으려고 해요. 남들이 뭐라하든 이 몸은 제 몸이고! 저의 인생인걸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내 몸이니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다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제가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원님도 저도 자신의 선택에 믿음을 갖고 책임을 지는 순간이 오길 바랄게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09

thursday, pm 4:55 | 15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9일차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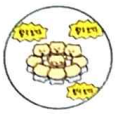
26년간 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 단 한번도 쉬운 선택은 없었다. 수 백번을 고민했고, 수 천번을 후회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였고 책임지는 삶을 살았다. 최고의 선택은 없었다.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었다.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럼에도 선택해야 한다. 길을 내야 한다. 내가 선택한 길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 더이상 헤매고 싶지 않은데.

13 2

박지원(사회학과) 최고의 선택이 있었다면, 인생이 참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길을 잃어도 좋으니, 영찬님의 길을 만들어 묵묵하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잠시 헤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또한 영찬님이 성장하는 또 다른 길이니까요. 본인의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경험으로 삼고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불안해하기보다 부딪힘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응원할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9
thursday, pm 5:13 | 13읽음
이유빈(사회학과)

#9일차 #선택

오늘 한 기사를 읽었다. 거의 30년만인 야구 한국시리즈를 보러 오신 어르신들이 자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담은 기사였다. 이 기사를 읽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온라인 예매 말고도 오프라인 예매를 할 수 있는 좌석을 남겨둘 수 있었는데 티켓 구매를 온라인 구매로만 할 수 있게 놔둔 것에 대한 선택이 좀 아쉬웠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며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으로 변해갔다. 카페나 페스트푸드점, 택시 예매나 버스 예매 등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던 것들이 온라인 예매나 키오스크 예매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올바르고 이기적이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가 좋은 선택이였을까? 다시금 오늘 읽은 기사를 곱씹어보며 생각해본다.

12 3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하도록 둔 것이 아쉬우면서 씁쓸해지는 사건이였습니다. 저는 지금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뒤 저도 잘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카카오택시를 못 잡아 눈물을 흘린 할머니의 글을 봤어요. 우리의 젊음도 길지 않고 늙어갈 날만 남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끼리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돌아가니 너무 슬프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임에도 특정 세대에 맞춰진 것 같은 건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편리함에 맞춰진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인지 저 또한 의구심이 드네요.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누구나 사회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9
thursday, pm 5:58 | 11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9일차 #선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라이팅 챌린지. 수강하고 있는 강의. 자격증 공부, 다른 비교과 활동. 앞으로의 진로까지 모두 내가 선택한 것들이다. 좋아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선택을 한 적도 많지만 항상 나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 이것저것 어쩌면 실패하는 것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고 결정하였을 때 선택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 힘들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등 여러 생각과 말들이 떠올랐지만 한 번 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잘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간고사를 보고 대학교 '마지막 기말고사'만을 남겨둔 지금 '수강 신청한 과거의 나'를 매우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결정을 내렸을 때의 이유와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후회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하는 결과만큼 나오지 않는 부족한 능력을 아쉬워하는 것에 더 가깝다. 늘 성장하기를 원하며 선택을 하는데 좋은 선택을 하려면 내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어렴풋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피곤하다. 안될 것 같은데' 는 안된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잘 하는지.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한다. 부러워하는 타인이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많아야 한다. 부족한 체력. 결과물들을 보면 내가 미워질 때가 많지만 최대한 내 자신과 가깝게 지내며 알아가다 보면 좋은 선택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

9 4

가양선(경영학과) 좋은 선택이 늘어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신유정 (심리학과) 가양선(경영학과)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매일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연히 좋은 선택, 좋은 인연 등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 말이든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선택에 대한 결과물이 좋지 않아도 너무 스스로에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도 슬픈 마음이 들어도 결국엔 그 선택을 통한 결과가 하나의 경험이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성장하는 유정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9
thursday, pm 6:00 | 15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9일차 #선택

선택은 참 어렵다.
인생에서 선택의 상황은 참 많이 온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고민도 하고 방황하기도 한다.

요즘들어 나에게 제일 어려운 선택은 음식이다.
자취를 하는 나는 매 끼니 무엇을 먹어야할지 너무 고민이다.
그렇다고 배달을 시키면 다 먹질 못하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먹으려고 해도 뭘 먹고싶냐는 친구들의 물음에 나는 '아무거나!'라고 답한다.
내 대답에 친구들은 항상 한숨을 쉰다. 사실 그 대답에는 내가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 그런건데 답답한가보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선택의 길이 있을지 궁금하다.
난 날 믿기에 그 선택에 따른 후회는 하지 않을거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다. 다들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12 3

가양선(경영학과) 메뉴 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선택 같아요 ㅠㅠ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선택의 두려움 없이 제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택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선택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건 쉽지 아노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선택하는 게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는데 이젠 극복하고 싶네요 ㅎㅎ 다혜님도 저도 언젠가는 선택의 두려움을 넘어

옳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오길 응원할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9
thursday, pm 6:22 | 13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9일차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선택 인것 같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이제 성인인 우리는 책임을 지는것는 당연하다. 모든 선택은 타이밍이 좌우한다. 하지만 그 타이밍과 운명을 넘는것은 나의 준비이다. 어떠한 좋은 기회와 선택의 순간이 와도 준비 되지 않은자 에게는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는 준비가 된 자라는 말 이다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간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나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니 매일은 감사하게 살아가지만 더욱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더 잘 살아가고 싶다 !

☺ 9 💬 3

가양선(경영학과) 늘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지호님의 글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니까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보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순간이 오길 응원할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9
thursday, pm 6:45 | 11읽음
고다인(중국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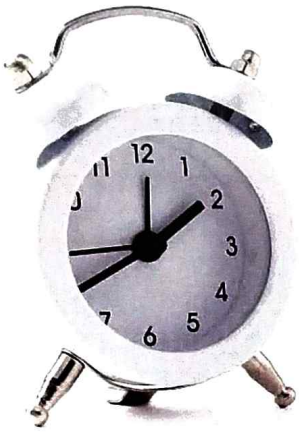
#9일차 #선택

하루하루 살다보면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에 선택이 따라오고는 합니다.과연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선택을 내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알람소리가 들리면 바로 일어날건지 5분만 더 잘건지 고를수 있습니다.등교할때 교통비를 아끼려 버스를 타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 택시를 타는것 모두 선택입니다.이런 일상 속에서의 수많은 선택중에 잠시 편하자고 고른 선택지가 큰 후회를 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번 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전날 공부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1시간만 잔다며 알람을 최소 5개는 맞추고 침대에 누운적이 있습니다.분명 알람을 맞췄는데 피곤해서 전혀 듣지못하고 아침7시20분에 눈이 떠지고 말았습니다.빨리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셔틀버스에서 노트를 펼쳐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애쓴 기억이 있습니다.시험 성적은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그때 침대에 눕지않고 쭉 공부를 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시험 전날에 잠드는 것은 분명 중학교때도 고등학교때도 겪었던 일인데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죠.앞으로는 할 일을 미리미리, 시험기간때 복습도 제 때 해두자고 다시

다짐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여러분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들어버리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10 3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에 경험이면 좋겠지만 많이 경험해봤어요

박지원(사회학과) 5분만 더,, 이 말은 정말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정말 많아요 ㅠㅠ 그래서 다급하게 일어난 적도 있고 지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선택은 너무나도 큰 후회를 가져와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아침에 떠오르는 선택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5분만이라는 단어가 저에겐 고통이 되어버리는 시간이 아침인 것 같네요ㅠㅠ 언제쯤이면 벌떡 일어날 수 있을런지... 당장 내일 아침조차도 걱정이 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9
thursday, pm 7:38 | 15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9일차
정말 사소하지만, 요즘 집에 돌아오며 고민하는 것은 무슨 탕후루를 먹을까다. 샤인머스켓은 한 입 먹으면 너무 달고, 토마토는 과즙이 너무 강하게 튀고, 딸기는 너무 작고, 귤은 뭔가 돈이 아깝고 그렇게 서서 계속 고민하다 매번 고민하다 요즘 통귤 탕후루에 빠졌다. 사실 먹기 힘들기는 한데 제일 가격 대비 양이 많고 과즙도 상큼해서 너무 맛있다. 그러다 또 뭘 먹을지 고민하는데 믹스 탕후루가 있었다. 정말 나같이 결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좋은 것 같다.
매번 점심 뭐 먹을지도 룰렛으로 정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여러가지를 맛 볼 수 있는 메뉴는 최고다! 그래도 계절이 곧 겨울이라 통귤이 제일 맛있다!

10 3

가양선(경영학과) 탕후루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이제 곧 딸기의 계절이라 딸기 탕후루를 맛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탕후루를 몇 개 먹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엄청 먹어버려서 후회한 적도 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탕후루 좋아하는데 사진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는 사먹고 싶지만 가끔 너무 비싸다고 느껴져서 요즘은 그냥 집에서 해먹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이젠 왕가탕후루처럼 얇고 바삭하게 할 줄 알아서 오히려 집 탕후루가 제일 맛있는 게 되어 버렸네요 ㅎㅎ 조만간 또 해먹어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9
thursday, pm 7:40 | 16읽음
조석환(심리학과)

#9일차
오를까 내릴까. 나갈까 돌아갈까. 해볼까 하지말까. 이길까 지고말까. 살아볼까 죽을까. 양자택일과 다자택일. 우리는 애초에 고를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과 선택권은 희대 그 이상의 사기극에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간혹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다 생각하고 믿지만, 짜여진 세계에서 정해진 대본대로 놀아나는 파르스의 대역과 롤플레잉일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또 의심을 해야 한다. 이 또한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이 의심에 대한 의심도 나의 선택이며 나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이 선택에 대한 선택도 나의 선택이며 나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의심에 대한 의심의 선택에 대한 선택도 또한 그렇다. 그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절대 그 무엇에게도 내어 줄 수 없는 마음이다. 손가락질을 받으며 악인이라 불리는 이도 길거리에 버려져 비 맞는 강아지에게 우산을 씌워준다면, 사람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무대에 향하는 일탈과 반항의 마음이다. 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존경 받는 의사가 단 한 생명을 죽인다해도 그 또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해주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무대에 향하는 일탈과 반항의 마음이다. 그 순간에 오로지 마음이 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선택

12 2

박지원(사회학과) 나의 선택이 정말 마음에 들긴 어려운 듯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쩌면 사람은 마음이라는 감정이 있기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에 인간의 존재은 더더욱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택을 그저 단순하거나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던 저에게 새로운 개념을 던져주면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글이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9
thursday, pm 7:46 | 17읽음
가양선(경영학과)

#9일차 #선택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루에도 작고 큰 선택들을 하며 살아간다. 때마다 했던 나의 선택들을 다 만족하지는 않는다. 나의 선택

안에는 후회가 담겨있다. 후회 없는 선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선택지 중 가장 옳다고 생각한 것을, 최선이라 생각하며 택했을 것이다.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할 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후회의 몫은 나의 것이다. 선택의 따른 후회 그리고 책임이 가진 큰 무게를 생각하며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9 4

박지호(식품영양학과) 너무 공감합니다 글 잘 읽었어용!
김현지(경영) 이전의 선택은 최선의 대안임에 공감하였습니다! 후회가 남기도 하지만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격려해주고 싶기도 해요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양선님 처럼 선택의 따른 후회 그리고 책임이 가진 무게를 버티고, 스스로 믿고 버티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양선님이 글에 쓰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네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양선님도 저도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9
thursday, pm 9:32 | 15읽음
홍은기(영문학과)

#9일차 #선택
"처음 집을 나왔을 때는 막막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한나는 양념과 함께 볶은 가지를 밥 위에 얹었다. 일주일만에 직접 만들어 먹는 집밥이었다. 왼쪽 귀에만 꽂은 에어팟으로 상대의 작은 호응 소리가 들렸다.

"외롭기는 한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한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오늘은 한나가 말하는 쪽이었다. 한나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한나가 조용히 음식물을 씹는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한나가 엄마와 살 때, 한나의 엄마는 언제나 밥을 해줬다. 한나의 엄마는 주부였다. 한나의 오빠에게만 돈까스를 줄지언정 한나를 굶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나는 돈까스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엄마가 접시를 오빠 바로 앞에 두는 걸 보는 건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엄마한테 어제 전화 왔었어요. 그냥, 뭐라더라? 뭐하고 있냐고. 토요일에 김장할 건데 오라고." 엄마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서, 딸에게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한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동시에 가슴이 탁 막힌 것처럼 불편했다.

"토요일에 만날래요? 사람 본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한나가 처음 집을 나왔을 때, 한나의 엄마는 한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다 네 선택이지." 비아냥거림을 숨기지도 않고 한나에게 말했었다. "여자가 자취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네, 그럼 12시에 봐요. 전날에 다시 연락할게요." 한나는 전화를 끊고 보리차가 담긴 컵을 입으로 가져갔다.

1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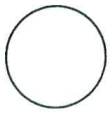
2023/11/09
thursday, pm 9:57 | 16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9일차 #선택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 식사를 할지, 또 무얼 먹을지, 학교에 갈지,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너무 자연스러워 미처 선택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선택도 있고, 반쯤은 관성처럼 하는 선택도 있다. 물론 고심 끝에 하는 선택도 있다.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주는가 하면 아주 미비한 영향만을 주는 선택도 있고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한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될 때도 있다. 우리는 언제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매 순간에 충실하라는 조언을 수도 없이 하는 이유도 그래서가 아닐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내게 중요한 어떤 순간이 닥쳐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 3

가양선(경영학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 믿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어떤 일이든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믿고 산다면, 어떤 고난이와도 쉽게 무너지지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혹여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극복해낼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최선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이 되네요. 무언가에 열중을 하며 노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는 일이기에 선택에 있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신중을 가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언젠가 명지님과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랄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9
thursday, pm 10:20 | 12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9일차
[선택] 선택을 할 때마다 늘 좋은 감정과 아쉬운 감정이 함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좋을 수 있고 아쉬울 수 있는 것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을 먹을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등 많은 선택지 중애 추려내고 먹고 싶은 것을 고르는 작은 행동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이 연속인 하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제일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맛있는 학식을 먹은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성비로 맛있게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도 선택에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3

가양선(경영학과) 선택이 좋은 감정과 아쉬운 감정이 함께 나온다는 생각 공감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모든 선택이 쉽지도,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아쉬운 마음이 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소정님처럼 학식에 대한 선택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늘 학식으로 김치찌개와 수제비 중 엄청난 고민을 했거든요. 결국 김치찌개가 이겼고 전 그 선택에 만족할만큼

아주 맛있게 먹었죠 ㅎㅎ 소정님 글처럼 좋은 가성비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더 기분이 좋은 순간이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09
thursday, pm 10:24 | 12읽음
배성준(경영학과)

#9일차
선택은 여러 개 중에 무엇을 하나 이상 골라야 하는 것이다.
나는 선택장애이다. 물건을 고를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약속을 잡을때도 항상 신중하다.
간식을 사러 편의점에 간다. 음료수 코너를 보고 쓱 돈다. 원 플러스 원 코너에 있던 스프라이트와 눈이 마주친다. 찰랑거리고 시원한 미소로 어서 자기를 고르라는 듯이 나르 유혹한다. 그런 나는 과자 코너로 발걸음을 돌린다. 수많은 친구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
"드디어 나를 데려갈 친구가 온 거야! 어서 나를 알아봐 달란 말이야!!"
오레오가 얼굴을 뒤틀며 새하얀 크림 미소를 보이며 나에게 인사한다. 나는 그런 오레오에게 잠깐 미소를 준 뒤 다시 사탕 코너로 간다. 색색깔깔의 사탕, 젤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다. 귀여운 하리보 젤리가 반갑다는 듯이 윙크를 한다. 나는 귀여움을 참지 못하고 그를 집으려 한다.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서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내 마음을 속삭인다. 손을 거두고 음료수 코너로 간다. 아까의 스프라이트 아가씨는 나를 보자마자 더욱 더 몸을 흔들며 탄산을 부글거린다.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손을 빠르게 꺼내다가 다시 잽싸게 과자 코너로 발걸음을 옮긴다. 프링글스 아저씨가 "어험!" 수염을 휘날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본다. "설마 나보다 어린 친구를 먹을 건 아니지..??" 손을 집으려는 찰나, 뒤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린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프링글스 아저씨 장가가는 소리에 나 배 아파 죽네." 세상에나. 곰젤리가 배 아파서 뒹굴뒹굴 구르는 모습을 내가 볼 줄이야...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있는 모든 상품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하여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듯이 달려나온다. 그리고 다시 간식을 사러 다음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10 1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모르게 상상이 되어지는 귀여운 글이네요!! 선택장애가 있는 저도 가끔씩 편의점이니 마트를 가면 그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눈코입이 달린 간식들이 저를 보며 데려가달라고 소리치는 상상말이죠. 그게 이루어진듯한 느낌이 저도 모르게 상상해보면서 읽게 되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9
thursday, pm 10:25 | 15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9일차 #선택

[오늘의 선택일기]

1. 아침에 일어났을때 알람을 맞춘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잠을 잘지 이대로 하루를 시작할지 고민했지만 나는 이대로 잠을 깨고 하루를 시작하는 선택을 했다.
: 성공적인 선택

2. 일찍 하루를 시작하긴 했지만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 컨디션이 좋지않아 학교에 갈지말지 고민되었다. 그래도 학교에 갔다.
: 성공적인 선택

3. 학교에 갈 채비를 하며 그냥 평소처럼 가방에 다 들어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고 학교에 도착하고나서야 보조배터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 실패한 선택

4. 점심메뉴를 뭐먹을지 고민하다가 친구가 고른 메뉴로 먹게되었다. 나름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 나름 만족스러운 선택

5. 수업가기전에 커피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돈을 아끼기위해 먹지않았고 대신 수업시간에 잠깐씩 졸았다.
: 아쉬운 선택이나 얻을것은 얻었던 선택

6.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서 그냥 이대로 둘지, 아니면 학교 친구에게 충전기를 빌려볼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손해보는거는 없겠지 하며 여러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고, 연락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연락해본 친구를 통해 충전기를 빌렸다.
-아주 성공적인 선택

7. 수업이 끝나고 조모임을 가려는데 비가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나는 항상 가방에 비상용 우산을 넣어다녀서 비를 피할수 있었다.
-성공적인 선택

오늘 하루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은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는가 일기를 써보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성공적인 선택을 많이 한 하루라 후회없는 하루를 보냈던것같습니다.

글을 쓰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성공적인 선택'은 무엇이였는지 어떤것이였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4

가양선(경영학과)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라혜민(사회학과) 저는 오늘 친구들과 좋아하는 식당에서 외식을 했어요. 친구들이 좋아해줘서 정말 뿌듯했답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시도해봐야겠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의 오늘 하루 성공적인 선택은 오랜만에 LP바를 방문한 것입니다!! 비가 조금 내려서 그런지 오히려 더 좋았고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렇게 보니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가지의 선택을 하네요 ㅎㅎ 저도 소소하게 한 가지만 적어보면 오늘 학식을 먹으러 가면서 김치찌개를 먹을지 수제비를 먹을지 엄청 고민했어요. 긴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은 김치찌개였고 전 선택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죠 ㅎㅎ 이렇게 접근해보니 어려웠던 선택도 재미있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9
thursday, pm 10:26 | 15읽음
김준호 (콘텐츠IT)

#9일차
선택.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필연적으로 죽게되는 존재다. 탄생에는 선택이 없었으나 죽음에는 선택이 있는 존재로 탄생한 이상 우리는 어떻게 삶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을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운명을 마주한다.

가끔 우리가 내리는 선택 중 몇몇 선택은
이후의 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많은 갈래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행동 중 무의미하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만한 선택은 없다. 그러한 선택이
결국 우연을 만들고 그러한 우연이 모여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
즉, 선택 또한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필연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마주하는 기회에서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곤 한다.

우리도 언젠가 뻔한 선택으로 예상되는
운명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통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1 3

가양선(경영학과) 공감하며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도 저의 자신감과 믿음이 있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무의미한 선택이 없다는 말에 공감이 되네요. 결국 좋지 않은 선택도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선택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두려워하기보단 그저 맞서는 게 좀 더 가치있는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 아닐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09
thursday, pm 10:49 | 20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9일차 #선택

저는 비상제를 앞두고 선택의 기로 앞에
섰었습니다. 어떤 팀에 지원을 할까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1학년으로서 무척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단편
영화팀에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했던 단편 영화팀의 영화가
비상제에서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감상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촬영에 참여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영이 끝났을 땐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화팀에 지원한
것은 이번 연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해도
될만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4

가양선(경영학과) 수고하셨습니다 ! 뿌듯한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요!!글 잘 읽었습니다
라혜민(사회학과)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귀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자신에 선택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운 것 같네요! 그 기분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아도 실제론 그렇지 않으니까요 ㅎㅎ 앞으로의 있을 소은님의 선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오길 바랄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정말 수고하셨어요 :) 너무나도 뿌듯하실 것 같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3/11/09
thursday, pm 11:14 | 18읽음
라혜민(사회학과)

#9일차 #선택
나의 짧은 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진로결정이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고3이 되기 전에
진로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입시 또는
취업을 한다.
나는 열아홉 살이 되던 해 진로에 대해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엔 대학도 가기
싫고 취업도 하기 싫었다.
대학 안 가면 힘들게 살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불안했고, 한동안 우울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나는 대학에 안 갔다. 대신에 알바를 했다.
직접 번 돈으로 먹고 싶던 음식을 사 먹고,
입고 싶던 옷을 사 입고, 여행을 다녔다.
또래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기효능감도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어떤 계기로 인해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먹고 나니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금의 나는 대학에 와서 하고 싶던 공부를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중이다.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과
자기효능감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다.
어떤 선택이든 망하는 일은 거의 없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먼 미래가 버겁다면 하루하루 살자.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11 4

김경희(국어국문학과) 많은 경험이 느껴지는
어른으로써의 담담한 조언이 느껴집니다. 감명깊게
잘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그때는 대학을 결정하는 게
어찌나 큰 일처럼 생각되던지.... 마치 잘못
선택하면 앞의로의 미래가 불안해질까 더욱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도 별 일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벌써부터 먼 미래를
걱정하기엔, 지금 현재도 바쁘다고 생각해요!!
혜민님 정말 대단하시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선택은 분명 좋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어요~~~!!!
고다인(중국학과)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게 정말 중요한거같아요 글
잘 봤어요~

2023/11/09
thursday, pm 11:18 | 17읽음
조성현(철학과)

#9일차
선택을 잘하는 법이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잘 선택하는 법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찰나의 순간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모든 한순간순간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살짝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내 말한마디 움직임 나의 눈빛하나까지
선택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해야할 일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단적이 예로 지금 유튜브를 볼지 공부를 할지
운동을 할지를 철저하게 선택한다고

생각해보면 좀더 편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뻔한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알고 그 결과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려워합니다. 모든 선택에 신중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보는건 어떨까요

11 6

라혜민(사회학과) 저도 결과를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하기로 선택하는 것만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어떤 결과로 데려다줄 지 기대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라혜민(사회학과) 맞아요! 좋은 선택은 좋은 포기이기도 하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편한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신중에 신중을 더하다보니 사소한 선택도 불안에 휩싸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에겐 어려운 과제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이겨내야한다는 걸 알기에 편한선택을 하는 순간까지 노력해보려구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맞아요ㅜ 편한선택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ㅎ 파이팅해봐요!!

박지원(사회학과) 좋은 결과를 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성현님 말대로 선택에 신중하고 집중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하셔서 어려움에서 잘 벗어나시길 바래보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2023/11/09
thursday, pm 11:27 | 19읽음
조영주(간호학과)

#9일차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자책도 교만도 품습니다.
선택의 무게는 너무나 커서
가끔은 억눌리고 가끔은 짓밟히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늘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잠에 듭니다.

어쩌면 나는 그저 당신을
선택하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어른이 된다는 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10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책임이라는 말이 무서워서 가끔은 선택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른이 된다는 건 저에겐 아직 어려운 일 같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해요..

고다인(중국학과) 늘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좋겠지만 가끔은 잘못된 선택에서도 배우는게 있는거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지막 문장에서 정말 공감하고 갑니다!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0
friday, am 12:25 | 18읽음
김양선

#9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했던 선택들의 이야기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고, 선택에 뒤따르는 책임을 고민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매순간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로버트 프루스트의 시 <가지않은 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 그리고 그것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늘 남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다른,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 바라고 응원합니다.

10 0

2023/11/10
friday, am 7:44 | 26읽음
김양선

#10일차 키워드 : 마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십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집을 나섭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십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동사 '마시다'입니다. '마시다'는 김칫국을 마시다, 고배를 마시다와 같이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마시다'와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12 0

2023/11/10
friday, am 9:44 | 19읽음
조영주(간호학과)

#10일차

한바탕 몸집을 크게 부풀리고
새로운 숨을 한껏 들이마십니다
나쁜 것은 내보내고, 좋은 것은 힘껏
있는 힘껏 들여보냅니다
한 숨, 두 숨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조금 더 좋은 것들로 들어찬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 영혼의 호흡

15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영주님 글을 읽고 몸집을 크게 부풀려 새로운 숨을 한껏 들이마셨더니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덕분에 오늘의 숨을 힘껏 들이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숨은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힘이 되더라구요!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숨을 쉬고 내쉬는 행동을 하루에 한 번 이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기분입니다

2023/11/10
friday, am 10:31 | 19일째
김보민(사회복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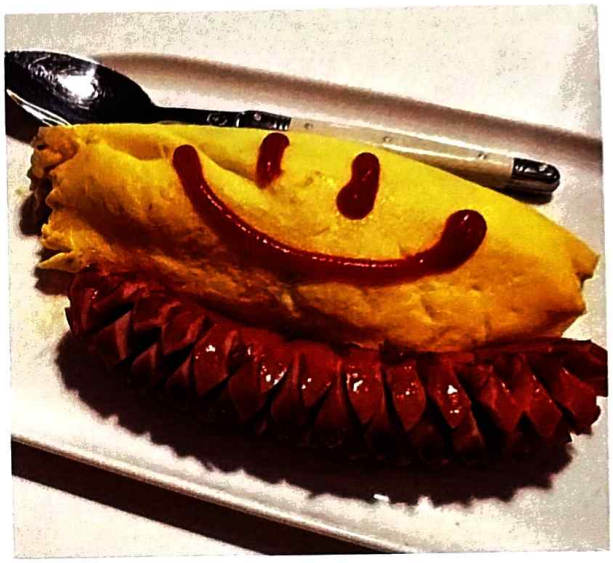
#10일차 #마시다

일요일은 커피라떼로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눈을 뜨고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고, 점점
추워지지만 되도록 반팔에 외투를 입고
나간다. 눈 뜨자마자 가는 곳이 카페이다.
올해 여름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침에 커피는 시험 기간이
아니라면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오픈 준비
끝내고 손님이 오기 전,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게 기분이 좋았다. 카페 아르바이트의
낭만 같은 느낌이다. 별일 아닌데도 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게 들뜨고, 피곤하지만
퇴근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다. 주말 오전부터 일을
한다는 게 때로는 귀찮고 속상하지만....

브런치 카페여서 대부분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 여유롭게 시간 간격 있게 오실
때도 있고, 한 번에 몰려오셨다가 한 번에
가실 때도 있다. 커플 손님이 가장 많이
오시는데 남성이 군인 손님이 적지 않게 오신
것 같다.
열심히 만들어 드린 음료를 다 마신 걸 보면
괜히 알바생인데도 불구하고 뿌듯하다. '드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남기시면 내가
레시피를 실수했나, 맛이 없나... 등
속상하기도 하다.

아주 가끔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는데, 아주 작은 아기를 보면 괜스레
미소가 번진다. 아주 작고 순수하고 해맑은,
아무 걱정 없는 아기의 미소가 내 걱정거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 같다.



13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글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밑에 사진을 보자마자 글 내용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귀엽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이라 놀랐어요!! 해당 사진이 보민님이 만든 브런치일까요?!

김보민(사회복지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아쉽게도 아니에요!ㅜㅜ 저거는 알바하다가 먹은 제 점심입니다 ㅎㅎ 너무 귀여워서 사진으로 남겨놨어요ㅎㅎ 저는 음료랑 서빙만 합니당

김서현(광고홍보학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메뉴와 그에 걸맞는 아르바이트생이네요! 이런 카페라면 주말 오전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 이젠 루틴으로 굳어진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일과가 또 다른 행복한 추억으로 남으면 좋겠네요 ㅎ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주말마다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밑에 사진 정말 귀엽네요 항상 파이팅합시당!!

김현지(경영) 넘 귀여우세요 ㅎㅎ :)

2023/11/10
friday, am 10:36 | 16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0일차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 속담의 의미는 무언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이 커지니 기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자는 기대가 많다. 설마 나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특히 더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적당히 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오히려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그 행운이 나에게 찾아 온다면 기쁨은 몇 배가 되기 때문이다.
내게 필요한 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괜히 기대를 했다가 안된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을때 멀쩡하던 기분이 안좋아지는 상황이 번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바에 차라리 기대하지 않고 그 무덤덤한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라는 것은 명확히 하고 하지 않고를 의도적으로 정할 수 없다. '난 큰 기대 안해'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 진짜 기대를 안한다면 기대를 안한다는 말 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시도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와 도전을 한 것이고 희박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으니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짜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대한 만큼 실망도 하게 된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11 2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어떤 일이든 기대하는 순간 실망감이 크다고 생각해요. 관계든 공부 등 모든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순 없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듯 생각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김현지(경영) 기대하고 실망하다보면 좋은 일은 배가되고 나쁜 일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은님 행복한 나날 되시길 응원합니다 :)

2023/11/10
friday, am 10:44 | 17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0일차

가뭄 속에서 우물은 메말랐다. 마을의 주민들은 허덕였고, 이를 지켜보기만 할 수 없던 현자는 스스로 길을 나섰다. 햇볕에 말라비틀어지고, 갈라진 땅 위를 맨발로 걸으며 먼 길을 떠났다. 풀 한 포기 자라는 땅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잔뜩 경계했다. 마을들이 하나같이 식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기력이 다한 현자는 바위동굴에 들어섰고, 간신히 숨을 몰아 내쉬었다. 입안에서 뜨거운 공기만 나올 뿐이었다. 절망의 보름달이 떠오르고 동굴 속은 어두워졌다. 그는 몸을 뉘고, 한동안 뒤척였다. 그런데 무언가 잔뜩 손끝을 적셨다. 고개를 들어 보니 달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윤슬이 두 눈에 들어왔다. 환희에 찬 그가 걱정 없이 그릇을 들어 물을 마셨다. 그릇은 한 개가 아니었고, 비우는 대로 옆의 물을 들이켰다. 그의 내장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편히 잠에 들 수 있었다.

깨어난 현자는 가까운 마을에 소식을 전했고, 주민들이 하나둘 동굴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장이 그릇의 정체를 확인하고 현자를 놀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릇은 인간의 두개골이었고, 그 안에 물이 고여 썩어

있었다. 현자가 아무리 좋은 물이라 설파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미친 사람이라며 마을로 돌아갔다. 현자가 현실을 피한 것인지, 정말로 몸에 좋았던 것인지 마셔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었다. 진실을 마시는 현자의 이야기는 가뭄이 끝나도 계속 전해졌다.

10 2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정말 흥미로운 글인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충민님이 쓰시는 글은 늘 흥미로워 집중해서 읽게 돼요ㅎㅎ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2023/11/10
friday, am 11:18 | 16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10일차
#마시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잔 마신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물한잔의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대게는 물 한잔을 일어나자 마자 마시는게 몸에 좋다.
어떤날은 물을 한잔 마시면 잠이 깨고 밤동안 생겼던 갈증이 싹 해소되거나 아침에 기분 좋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
하지만 물의 온도가 차거웠거나 그날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면 아침 내내 배가 아픈경우가 많다. 그건 아마 물의 온도가 차가웠거나 세균에 오염된 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모두에게 공복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몸의 신진대사를 도우며 몸의 체온을 상승시켜 몸의 해독작용과 체지방 분해를 한다. 또한 이는 모발건강과도 직결이 되며 혈액순환, 소화, 배변활동에도 도움을 준다.
하지만 기억할것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것이다. 자는 동안의 몸을 깨우는 과정이라 몸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로 섭취해 주는게 좋다고 한다:)

10 3

박지원(사회학과) 어떤 하루는 물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ㅠㅠ 지호님께서 올려주신 물의 효능을 보니, 이제부터는 꼭 수분섭취를 습관적으로 해야겠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일어나면 물부터 마시는데 몸에 좋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좋은 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

2023/11/10
friday, pm 12:10 | 14읽음
김서희(심리학과)

#10일차
나는 산책을 하며 공기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으면 상쾌해지는 기분이든다. 특히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강아지와 함께하는 산책이 정말 좋다.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져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많이 없다. 공기를 마시면 환경의 심각성도 느끼게 될 때가 있다.
감정이 복잡할 때는 산책을 하며 공기를 마셔보는 것을 추천한다!

12 3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향기를 마실 때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는 저녁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감정 정리하는데 이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정신과 의사선생님도 산책이 잡생각을 없애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고 하더라구요. 산책광인 저로써는 산책 정말 강추입니다!!

2023/11/10
friday, pm 1:35 | 15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10일차

나는 오늘도 한숨을 마신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묻는다.

혹시 당신은 오늘도 가기 싫다며, 하기 싫다며, 그래봤자 얻을 건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도 오늘을 잘 살고 있다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술과 담배 연기를 마시며 살고 있진 않은가?

'마신다'는 행위는 이렇듯 행위로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는 행위가 아닌 단계일 뿐이다.

숨은 마시고 또 내쉬는 것,
물은 마심으로 또 다시 내 몸을 이루는 것,
마신다는 건 이렇게 첫 단계로 존재하는 것.

한숨을 마셔라, 그리고 또 움직여라.
당신의 한숨 대신 무기력을 내뱉어라.

그렇게 나는 오늘도 한숨을 마신다.

☺ 12 ⋯ 3

박지원(사회학과) '한숨 대신 무기력을 내뱉어라' 이 문구가 정말 인상 깊어요!! 저도 이제는 한숨 대신 제 몸속 무기력과 우울함을 내뱉어야겠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긍정을 마시고 부정을 내뱉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고 싶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한숨 쉴 시간에 얼른 몸을 움직이고 제가 할 일을 찾아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글이네요 :)

2023/11/10
friday, pm 1:55 | 16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0일차 #마시다

산책하다 마시는 공기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찬기운을 마시고 들어온 너
그런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나

네 옆에서 마시는 향기
이 향기를 오래도록 마시고 싶어

추운 겨울이 오면 저희 엄마에게서 나는 찬 향기를 참 좋아해요! 추운 날, 엄마가 외출을 하고 들어오실 때 엄마의 코트에서 찬 바람의 기운과 엄마의 냄새가 진하게 나요. 저는 그런 엄마를 꼭 안아주며 까슬까슬한 코트에다가 얼굴을 비비고 차디찬 엄마의 볼에다가 저의 볼을 비비며, 저의 온기로 엄마를 녹여줘요.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 벌써 부터 엄마의 차가운 향기를 마실 수 있어 조금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

☺ 11 ⋯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겨울의 찬 공기가 주는 냄새를 참 좋아한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원님과 지원님 어머님 사이가 참 돈독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글이라 저도 괜스레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현지(경영) 너무 몽글몽글한 글이에요 :) 저도 타인에게 나는 찬향기를 느끼는 편인데 지원님의 글에서 이 표현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마지막 문단의 글이 너무 따뜻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0
friday, pm 2:15 | 18읽음
문정희(법학과)

#10일차
물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나의 아침은 오늘도 커피를
마셨다
늦게 잔 탓에 커피가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 쓰고 건강에도 안좋지만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힘들다

커피를 마시는 하루는
나의 일상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 마실 수가 없다

물을 마셔야 함을 알고있지만
커피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다

14 5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저도 카페인을 달고 살아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 글이네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카페인 없이 살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커피를 마셔야 조금은 덜 피곤한 것 같고, 무엇보다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ㅠㅠ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저는 시험기간마다 커피가 없었으면 어쩔 뻔 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김현지(경영) 저도 커피의 힘을 빌리는 것 같아요ㅎㅎ 오늘도 커피 2잔 마셨어요...

2023/11/10
friday, pm 2:39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10일차
매일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아 마신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듯 마시는 카페인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도 하루이틀이 아니다.

평소에 침대에 누우면 일반적으로 3, 4시인데 1교시가 없는 날이 없어 늦어도 8시에는 눈을 떠야만 한다.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근로와 과제를 하다가 일을 하는 게 하루 일과다. 만성피로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스케줄이다.

언제나처럼 가방에는 영양제를, 손에는 커피를 든 채 기숙사를 나왔다. 스마트폰으로 g메일을 확인하면 한가득 쌓인 업무 메일에 한숨이 나온다. 내가 대학생인지 사회인인지 알 수가 없다. 본업은 대학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쏟는 시간을 보면 그냥 대학에 다니는 프리랜서다.

오늘도 일찍 자긴 글렀구나. 어제 조별과제하는 팀원이 다른 과제가 많아서 좀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던데 걔는 내가 압도적으로 바쁜 걸 알고 하는 이야기일까. 우리 조에서 가장 바쁠 나도 팀원에게 피해 안 주려고 열심히 하는데. 괜히 한마디하고 싶었지만, 다투면서 쏟는 시간도 아까워 그냥 넘어갔다.

습관처럼 카페인을 들이키며, 오늘은 대충 몇 잔의 커피를 마시게 될지 계산했다. 최소 4잔은 마시겠네. 병원에 가면 또 의사 선생님께 혼날 게 분명했다. 내년에는 꼭 건강도 챙겨야지. 벌써 몇 년째 같은 다짐을 하는 건지. 참 착잡하다.

11 8

류영찬(빅데이터전공) 하루 일과가 정말 바쁘시네요 건강 관리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 너무 저랑 안 받아서 걱정입니다 마시면 자꾸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무엇보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박지원(사회학과) 카페인이 안 받으시나 봐요..! 정 마시고 싶으시면 디카페인이라도 마십시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에고 수연님이 정말 바쁘신 일상을 보내고 있군요... 꼭 건강 챙기세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지은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김현지(경영) 건강이 최고죠! 저도 커피를 줄이려고 노력중입니다 ㅠㅠ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김현지(경영) 같이 노력해봐요

2023/11/10

friday, pm 2:54 | 19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0일차 #마시다
저는 항상 도서관에 가기 전, 빽다방을 들려 아메리카노를 사 마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노의 쓴 맛이 익숙치 않아 아이스티에 샷 추가, 커피 우유 등으로 카페인을 섭취했었는데 시험기간 동안 커피에 익숙해지다보니 어느새 아메리카노의 쓴 맛이 음료취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점차 커피를 좋아하게 되다보니 커피의 원두나 블렌딩 등을 신경쓰게되면서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로 커피의 신 맛과 탄 맛이 취향을 타는 편인데 저는 두 가지 맛 중 특히 탄 맛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빽다방에 자주 들리는 이유는 아메리카노 양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특유의 탄 맛이 은은하게 나 제 입맛에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빽다방에는 스마트오더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미리 주문을 넣어 커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자주 커피를 사먹으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를 10번 마시면 무료 아메리카노 쿠폰을 주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꼭 쿠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좋은 정보 감사해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몰랐어요 ㅠㅠ 꿀팁을 알려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쿠폰을 보니 정말 많이 사드셨다는 걸 저절로 실감하게 되었어요 크크!!!
김현지(경영) 저도 산미보다 쓴맛을 좋아하는데 빽다방 들려야겠어요 ㅎㅎ

2023/11/10
friday, pm 3:01 | 16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0일차#마시다

'마시다'라는 행위는 갈증을 해소 시켜주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행위이다. 어릴 때는 생수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생수를 잘 마시게 되었다. 생수에서는 보리차나 음료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이 난다. 음료수를 좋아하지 않게 되면서 생수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생겼는데 덕분에 물먹는 하마가 된 것 같기도 하다.

물 마시는 것을 좋아하던 내가 작년에 수술을 받고 금식을 하면서 4일 동안 물도 한 모금 못 마신 적이 있었다. 물 좋아해서 하루에도 수시로 마시던 내가 금식으로 물도 못 마시고 있으니 괴로울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약을 먹어야 해서 '어? 저 물 마셔도 돼요?'하고 여쭤봤는데 약을 넘길 정도로 조금만 마시라고 하셔서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입안에 담는 순간 꿀꺽 꿀걱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아플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간신히 약을 삼킬 만큼 아주 조금 마셨는데 가스가 나오고 이제 물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데 배시시 웃음이 나왔다. 평소에 아무 때나 마시고 싶을 때 마셨던 물이 아프면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상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

건강이 전보다 좋아진 지금 배고플 때 먹고 마시고. 제약을 받지 않고 하던 행동들이 아프게 되면 큰일이 되어서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고. 제한이 생기고, 먹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건강 관리에 힘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11 3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하루에 물 엄청 마시는데 이런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물의 소중한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물도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하루에 물은 꼭 2L이상 마시는 저로써 4일간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ㅠ..ㅠ 건강해지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2023/11/10
friday, pm 3:25 | 13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10일차 #마시다

'공기를 마시다'
우리는 오늘도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점을 매번 잊고 살아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 사람들의 나이도 많아진다.
그리고 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는 일이 많아진다.
그럴때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된다.

나 포함 모두는 우리가 당장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해야한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자.
오늘도 나는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다.

10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김재명(러시아학과) 공기 마시는 당연한 일에서 감사함을 저도 알아차립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만화책에서 먼 훗날 우리는 공기도 사서 마셔야 할 수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져요 :)

2023/11/10
friday, pm 3:29 | 14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10일차 #마시다

불 한번 붙여 본 적 없던 뜨겁고 따가운
연기를 마시며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시절.
우울함과 피폐함으로 물들어 버린 우린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흡연장을 도피처 삼아
하나 둘 그 곳에 모였다.

그 때의 냄새를 기억한다. 좁고 어두운 단절된 세상.
거꾸로 돌아가던 시계 바늘이 제자리를 찾고
전역의 종을 울렸다.
담배 연기로부터의 해방. 자유함을 얻었다.

소망이 있다.

나이가 들어 복잡한 도시의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을 때쯤
잔잔한 곳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기르며
자라나는 열매와 싱그러운 꽃봉우리 아래에
앉아
풀 냄새와 꽃 향기, 바람과 자연의 공기를
마시는 것.
이 때의 냄새를 기억하며 잠드는 것.

10 1

박지원(사회학과) 냄새는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영찬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2023/11/10
friday, pm 4:27 | 15읽음
정우현(인문학부)

#10일차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콜라를
마셨다. 몸에 무리가 오는 거 같아 아침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포카리를 많이 마신다. 장염에
걸렸을 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구라
마시면 속이 편안해진다. 속이 안 좋을 땐
위생천도 많이 마신다.

그리고 난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 소주
한잔 마시고 취한 이후로 후회를 했기
때문이다.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웬만하면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집 앞에 생긴 술집이
좋아져서 하이볼을 좋아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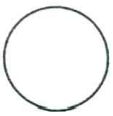
하이볼은 마시다 보니 느낀 거지만 달달한데
계속 마시게 돼서 음료인데 한잔이면 기분
좋게 취하기까지 하는 최고의 가성비
음료수가 되었다.

이처럼 많은 마시는 음료들은 나에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마시는 것들이 없었으면
내 수명은 30년은 줄었을 수도 있다. 물을 잘
마시지 않는데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물도

의도적으로 조금씩 마시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 뭐든 잘 챙겨 먹어야겠다

11 4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밀가루를 끊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그럼 왜 사냐는 말이 있죠 많은 음료가 신체건강엔 안 좋았어도 정신건강엔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건강 잘 챙깁시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예전에는 콜라로 갈증을 해소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콜라를 끊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큰일날 행동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하이볼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던데 우현님이 즐겨마시는 하이볼은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성현(철학과) 물을 먹는게 가장 좋지만..! 다른게 너무 맛있어서 저도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ㅜ



2023/11/10

friday, pm 5:12 | 17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10일차 #마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엔 쓰읍..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육상부를 잠깐 했었는데 겨울엔 패딩도 벗어던지고 열심히 달렸었습니다. 다 뛰고 나면 숨을 몰아쉬었는데 찬 공기 때문에 콧속이 아팠었습니다. 콧물이 흘러도 얼굴에 감각이 없어서 거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찬 공기를 들이마실 때면 코를 찔찔 흘리며 콧속이 아플 만큼 열심히 달리던 어린 시절의 제가 생각이 나 괜히 웃음이 납니다.

12 4

박지원(사회학과) 추운 날 속에서의 기억은 정말 오래 기억나는 듯 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달리기가 너무 느린 저는 늘 달리기가 빠른 육상부들을 부러워했답니다 크크,,,
김현지(경영) 콧속이 아플만큼의 찬 공기에 저는 눈물까지 흘린적도 있어요ㅎㅎ 어린시절에는 뛰는게 넘 재밌었죠...
조성현(철학과) 육상부라니! 정말 멋지시네요 저도 달리기에 빠졌을때 콧속이 아픈게 공감이 됩니다 ㅎㅎ

2023/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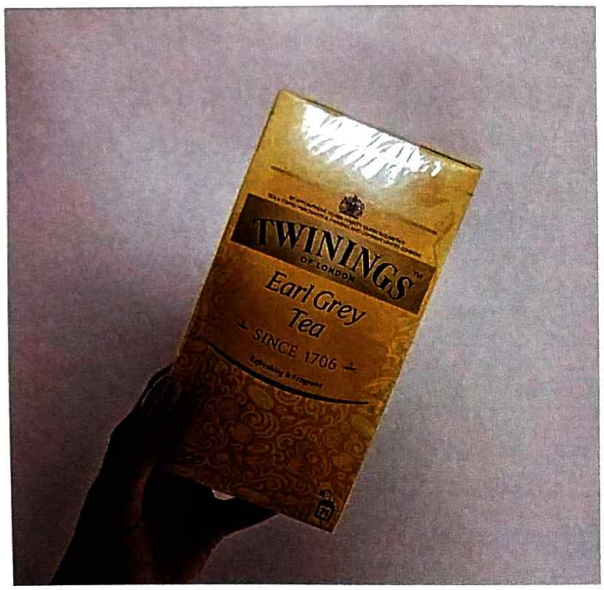
friday, pm 5:29 | 17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0일차 #마시다

나는 음료랑 물을 마시는걸 좋아한다. 밥을 먹기 귀찮을 때 초코우유나 요거트를 마실 정도로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편의점 음료 코너에 가게 된다면 새로운 음료에 도전하게 되는데 '보성홍차'라는 음료가 새로 들어왔을 때 진짜 신세계를 만났다. 이렇게 맛있을수가!

그렇지만 요즘 빠진 마시는 것이 따로 있다. 바로 '얼그레이'이다. 얼그레이는 약간 초반에 맛이 꺼려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화장품 비스무리한 향과 맛이 나기 때문이다. 그치만 한 번 빠지면 못헤어나온다. 시원하게 얼음을 담은 물에 우려먹으면 이만한 행복이 없다. 심지어 쉽게 구해서 먹을 수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카페에서 3000원~6000원 하는 것을 500원으로 먹을수도 있다.

혹시 빠진 음료나 차, 커피 등이 있나요?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11 6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카페라떼를 정말 좋아해요!! 알바를 하면서 배웠던 메뉴라 그런지, 너무 맛있고 오늘도 마셔버렸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느 편의점에서 파는 걸까요?! 저도 꼭 한 번 먹어보구 싶네요!
이유빈(사회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얼그레이 티백은 쿠팡에도 팔고 올리브영에서도 팔더라구요?! 대형마트에도 판답니당
김현지(경영) 오 얼그레이 차 도전해봐야겠어요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와 저도 얼그레이 진짜 좋아해요~
조성현(철학과) 궁금해지는 맛이네요!! 저는 얼그레이를 많이 안먹어봤는데 다음에 기회가되면 먹어보겠습니다!1

2023/11/10
friday, pm 6:07 | 15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10일차 #마시다
해가 막 뜬 아침, 산책길을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선선한 이른 아침에는 나무 사이사이로 풀냄새가 기분 좋게 지나갑니다. 걷다가 지쳐 벤치에 앉아 시냇물 소리와 함께 숨을 훅 들이키면, 서늘하지만 깨끗한 공기가 잠을 깨우곤 합니다. 징검다리도 건너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맑은 공기를 마시다 보면, 어느새 햇볕이 따스하게 감싸며 오후를 맞이할 준비를 한답니다. 새벽 산책은 일어나는 걸 극복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1 5

박지원(사회학과) 새벽 산책을 하면 그 새벽 냄새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노력을 해서 새벽 산책을 하고 싶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 추운 날 새벽 산책이라니! 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저한테는 너무 대단한 이야기이어요,,,
김현지(경영) 풀냄새 넘 좋죠 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새벽 산책 좋은 것 같아요. 새벽의 고요함 정말 좋죠 ㅎㅎ
조성현(철학과) 새벽산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산책을 마치고 아침 커피와 빵을 먹으면 하루가 좋을 것 같네요 ㅎ

2023/11/10
friday, pm 6:11 | 15읽음
김현지(경영)

#10일차 #마시다

화요일부터 으슬으슬 추워지더니 결국 감기에 걸렸습니다.
미열에 어지러움을 동반한 올해 두 번째 감기에요.

부모님께서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약이랑 간식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감기는 몸에서 보내는 쉬라는 신호"라며 밥이랑 간식을 먹고 일찍 자라는 걱정과 함께 아쉬운 전화를 마무리합니다.

알약보다 액상 해열제와 코감기약이 빨리 흡수가 된다며
얼른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물약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을 마신 후에,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듭니다.

9 8

박지원(사회학과)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ㅠㅠ 기숙사에 지내다보면 부모님께서 저를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이 참 좋고 저도 현지님처럼 그 사랑을 마시고 있네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지원님 댓글 감사합니다 :) 감기 조심하세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잘 느껴지는 글이라 저도 모르게 뭉클했어요 감기 얼른 나으시길 바라요!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은님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건강 유의하시어 올해 겨울 건강하세요!!
고다인(중국학과) 요즘 감기 정말 독한데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경영) 고다인(중국학과) 감사합니다! 다인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조성현(철학과) 정말 건강을 조심해야 할때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잘 느껴졌습니다 얼른 나으시길면 좋겠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조성현(철학과) 성현님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감기 조심하세요 :)

2023/11/10
friday, pm 7:05 | 19읽음
가양선(경영학과)

#10일차 #마시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면 갑자기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마십니다. 차갑지만 딱히 싫지만은 않은 그런 공기가 좋습니다.

평소 따뜻한 음료를 기피하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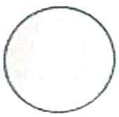
홀로 또는 사람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마시는 것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12 3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사소한 마심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요즘 핫초코를 마시며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 루틴으로 자리잡았어요 흐흐
조성현(철학과) 따뜻한 커피 한잔이면 하루가

기분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10
friday, pm 8:06 | 16읽음
이주영(디미콘)

#10일차 #마시다

친할머니 댁은 농촌지역이라 차도 사람도 많이 없는 시골이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나면 항상 나는 공기를 들이마신다. 항상 사람들이 하는 공기가 좋고 깨끗한 지역만의 냄새가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할머니 댁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매연 냄새도 없어 폐가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사람도 많아 담배 냄새, 음식 냄새도 나고 매연 냄새, 독한 향수 냄새처럼 인위적인 향기만 난다. 밖에 나가면 숨쉬기 짜증 날 때가 많은데 폐도 나빠지는 것 같고 기분도 안 좋다. 그래서 항상 할머니 댁에 가면 공기를 잘 들이마시곤 한다. 내가 매일매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근데 도시에 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왜 갑자기 좋아하는 계절을 말할까 의아할 수 있지만 추운 겨울, 얼굴이 얼 것 같은 온도와, 얼굴을 스치는 매서운 바람 앞에 서있을 때 나는 공기는 정말 좋았다. 이때 마신 공기는 맡아봐야만 알 수 있지만 겨울이 왔으니 공기를 한번 마셔보는 것을 추천한다.

12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저도 계절냄새, 지역냄새가 다 다르더라구요!

라혜민(사회학과) 깨끗한 공기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춘천이 좋습니다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겨울을 정말 좋아해요!! 겨울이 되면 어그부츠나 털모자, 목도리 등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겨울 바람을 마실 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조성현(철학과) 저도 할머니댁이 농촌지역인데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겨울바람의 공기를 가서 맡아보고 싶네요 ㅎ

2023/11/10
friday, pm 8:08 | 17읽음
조석환(심리학과)

#10일차
들이킨다. 윗입술을 타고 인중에 흘러 들어와 비전정의 대류권에서 약식의 환영회와 사교회를. 때가 무르익어 각자의 신분에 맞게 하비갑개, 중비갑개, 상비갑개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후비공에서 모두 모여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긴다. 유희가 끝나면 이관의 개구에 떨어져 열권의 추락을 탐한다. 목젖의 마천루에서 나선으로 빙빙 돌아 기도로 뚜욱 깊이 더 떨어지면 좌우로 갈라진 포도송이의 방에 도달한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채 좁은길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면 포도알에 스며든다. 그럴때에 횡경막의 지각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해 포도송이의 방이 벌벌 떨며 줄어들었다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당하게 어깨를 핀다. 그리고 그 때 즈음에 압력의 압력이 가해져 압력의 압력의 압력이 농축되면 이 작은 그릇에 넘치지 못해 터져 우주의 밖으로 떨어진다. 내쉰다.
들이킨다. 머나먼 세계의 끝자락에 있는 붉은 산둥이 속 끝이 없는 기슭에서 가장 맑은 물이 솟았다. 이윽고 그 물은 강이 되었고, 강물이 들어차 호수가 되어 고일 무렵에 수문이 열려 식도 절벽을 따라 폭포가 되면, 그 아래에 굶주렸던 주머니가 폭포에 쓸려 들어온 물고기를 먹어 배를 채우면, 융털의 숲이

번창해 그 주머니의 뱃속을 산산히 분해한다. 그때 나온 연기가 구름이 되어 비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선혈빛 바다 너머의 땅에 비를 내려 적신다. 그곳에서 방황하던 목마른 나그네가 빗물을 마시고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시와 노래로 읊는다. 내쉰다.
#마시다

9 2

라혜민(사회학과) 석환님의 글을 읽으면서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같이 숨을 들이켰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조석환(심리학과) 라혜민(사회학과) 숨을 마시는것과 물을 마실때의 과정을 표현해봤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10

friday, pm 8:47 | 14읽음

라혜민(사회학과)

#10일차 #마시다

눈뜨자마자 커피 한 잔, 쉬는 시간에 담배 한대, 저녁 식사에 곁들인 술 한잔은 현대인에게 일상의 활력소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호(식)품이다. 주변을 살펴봐도 이 중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은 한국인의 3대 영양소라는 우스갯소리가 낯설지 않은 이유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술, 담배, 커피에 관한 이점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일상의 활력소가 되지만,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우울증, 위산과다, 불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의 카페인 하루 권장섭취량은 400mg(커피 2잔)이다.*
반가운 소식으로 소량의 알코올(하루 15g 미만)을 섭취하는 가벼운 음주자에게서 기억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음주 문화를 고려하면 마냥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 한국인의 월간 폭음률(2020년 기준)은 OECD 36개국 중 11위에 해당되며 음주와 관련이 큰 간질환 사망률,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 사망률(2018년 기준)은 OECD 국가 중 1위다.***
담배는 건강상 이점이 없는 데다 한국의 위암, 대장암과 더불어 3대 암으로 꼽히는 폐암을 유발한다. 처음 흡연을 시작한 나이가 이를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치명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인의 음주, 흡연율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페인 섭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각심이 부족하기에 여러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으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우선됨은 자명하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되돌아보고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75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38617?sid=103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620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71410

금연의 중요성 -충청타임즈
www.cctimes.kr

음주문화의 변화-술 덜 마시는 사회로 [일상스케치(77)] -

[1인 가구 헬스케어] 커피에 빠진 한국인들...효능과 주의점은? - 1코노미뉴스
www.1conomynews.co.kr

"하루 술 1~2잔, 치매 위험성 낮춰"...한국인 400만명 조사했다

10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행히도 저는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다 하지 않고 있네요. 모든지 적당히해야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니코틴은 예외라고 생각해요! 그건 적당히펴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헉 알콜 관련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라니 정말 심각하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저는 술이나 담배는 하지않지만, 카페인은 너무 자주 마셔서 조심해야겠어요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당
조성현(철학과) 정말 과하지 않게 조심해서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경각심을 느끼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10
friday, pm 8:54 | 16읽음
홍은기(영문학과)

#10일차
GS25에서 파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함유됐다는 초코오트밀크를 마셨다. 맛있진 않았다. 가루를 제대로 개지 않은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기분이었다. 돈은 이미 냈고 버릴 정도의 끔찍한 맛은 아니어서 조금씩 빨대를 빨았다.

편의점에 갈 생각은 없었다. 20분쯤 바람 쐬다 오라는 말에 가장 먼저 떠오른 장소가 편의점이 출입구 바로 앞에 위치한 4층이었다. 바람을 쐬라는 말에 충실하게 초겨울 날씨에 겉옷 없이 나가 얼굴을 식혔다. 추웠지만 햇살이 따듯해 견딜만했다.

야외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하다 돌아와 편의점 의자에 앉았다. 얼마 안 되어 편의점으로 들어가 초코오트밀크를 골랐다. 선생님은 커피도 마시고 오라 하셨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싶진 않았다. 이왕이면 한 번도 안 마셔본 걸 골랐다.

11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늘 편의점에서 초코우유를 고르곤 하는데 혹시 초코에몽 드셔보셨나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초코 맛이 가장 진해서 정말 맛있게 마신 기억이 있어요 ㅎㅎ 갑자기 마시고 싶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매일 같은 것만 마시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용기가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편의점에 가서 초코오트밀크를 마셔봐야겠어요!!

조성현(철학과) 저도 이왕먹을 때 새로운 걸 먹는 편인데 새로운 맛을 느끼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ㅎ

2023/11/10
friday, pm 10:12 | 17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0일차 #마시다

사춘기 시절 이마의 여드름이 활보를 할 때, 난 그저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조금씩 늘어가는 이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다. 좁쌀만한 여드름 때문에 조금이라도 없애라고 손톱으로 이마를 뜯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이마가 빨개지는 건 일상이었다. 가끔씩은 약간 아프기도 했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시간이 얼른 빨리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내 여드름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던 나는 그 이후로 얼굴에 좋다는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다. 얼굴 피부도 굉장히 예민했기에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몇 번을 산 끝에 딱 맞는 화장품을 찾았고, 이제 사라질 여드름을 기대하며 꾸준히 발랐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았던 여드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그저 피부만 좋아졌을 뿐 여드름은 좋은 피부에 먹칠을 해놓고 있었다. 결국 해결되는 것 없다는 생각에 피부과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런 나를 보던 엄마가 무심한 듯 스윽 지나가며 한 마디를 던지셨다.

"물 마셔.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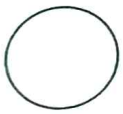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기만 했다. 내 표정을 보신 엄마는 내가 잘 모르겠음을 단번에 파악하시고는 설명을 덧붙이셨다.

"물을 마셔야 여드름이 없어지지. 물 한모금도 안 먹는 얘가 무슨 피부가 좋아지길 바라니? 넌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물 좀 마셔."

나는 물을 마시면 정말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지 검색해보았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몸 속에 있던 노폐물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 즉, 수분공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노폐물을 줄여 피부의 트러블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순 없었지만, 뭐라도 하는 게 더 나았기에 그때부터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안 마시던 물을 마시려는 너무 힘들어서 500ml도 겨우 마셨다. 이래서 1-2리터는 언제 마시나 걱정되기도 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시는 양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마셨다.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서 과연 맞는 건지 의심만 들었다.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게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었을 때쯤,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게 되었다. 아직도 기억한다. 매일 빨간빛을 보여주던 이마가 하얘지고 좁쌀들이 사라진 내 하얀 얼굴을. 정말로 기뻤다. 엄마 말대로 내 여드름의 원인은 수분 부족이었던 것이다. 효과를 제대로 본 그 날 이후로 난 여전히 물을 많이 자주 마신다. 그 덕분에 피부는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물론 시험기간 때처럼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이마의 여드름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만, 평소에는 사라져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물을 마시는 게 피부에 얼마나 중요한지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시간이었다. 그리고 엄마의 말은 마치 의사처럼 정확하고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임을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다.

11 3

고다인(중국학과)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에 좋다는 걸 확실히 경험하셨군요~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몸이 많이 건조해서 엄마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거든요 물이 정말 우리 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자주 마시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조성현(철학과) 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알게 된 글인 것 같아요!! 역시 엄마의 말은 정답이네요 ㅎ 엄마말 잘들어야 겠습니다!!



2023/11/10

friday, pm 10:15 | 14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10일차 #마시다

마시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공기를 마시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그 이외에 세포들, 피부들은 호흡하며
마신다.

생을 끊고 싶다면
마시는 행위를 멈추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마시며
영위한 기본적인 행위를
단어로 표현한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11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마시는 행위가 생명과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심오한 글인 것 같아요! 마시는 행위를 나의 생과 연관 지어 글을 작성하시다니, 대단하시면서 신선한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조성현(철학과) 마시는 것이 생명의 연장이라는 표현이 좋네요!! 정말 우리는 평생 마시는 것을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글 잘읽었습니다!

2023/11/10

friday, pm 10:17 | 17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0일차
나는 마시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쌓인 모래굴을 뚫어주는 청량감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던 어느날 정말 목이 말랐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들이켜도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다. 뭔가 갈증은 풀린 것 같지만 계속 목구멍과 입안이 답답한 느낌이었다. 사이다를 마셨다. 주스를 마셨다. 녹차를 마셨다. 커피를 마셨다.매실을 마셨다. 미숫가루를 마셨다. 마실 수 있는 것을 다 마셨디만 뭔가 청량감이 없었다. 그 상태로 일주일이 흐른 후 나는 아버지의 권유에 등산을 하러 갔다. 가뜩이나 피곤했기에 나는 인상을 팍팍 구긴 채로 산을 올랐다. 그냥 드러누워서 아래로 뒹굴면서 산을 내려 가고 싶었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아버지의 손가락 끝에는 어떤 크기의 그릇에도 담을 수 없는 드넓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엄청난 경관이었다. 아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압도당한듯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목 안으로 타고 들어왔다. 어떤 음료수로도 풀리지 않던 갈증이 다 풀렸다. 그 후 연거푸 몇 번이나 공기를 흡입하고 내뿜기를 반복했다. 그 후 산으로 내려오고 나서 과거에 관심을 갖지도 않던 공기지만 지금은 공기를 음미하게 되었다. 지금도 때때로 비가 축축히 젖은 밤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시는 것은
공기인가보다.

11 6

김현지(경영) 자연의 경관은 숨이 탁 트일정도인 것 같아요! 성준님의 글을 보니 제가 봤던 멋진 풍경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서울에 갔다가 춘천으로 다시 오면 들이마시는 공기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만큼 서울의 공기가 많은 회색빛을 낸다는 말이겠죠. 춘천은 이 푸릇한 공기를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어떤 음료수를 마셔도 해결되지 않던 느낌이 멋있는 자연으로 해소되었다니 참 좋네요~~
신유정 (심리학과) 신선한 공기도 답답한 마음을 사이다 못지 않게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요즘 비가 잔뜩 묻어있는 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쓸쓸한 느낌도 들지만, 위로가 되는 기분도 들어요
조성현(철학과) 자연이 주는 기쁨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산에가서 공기를 음미하고 싶어지네요~

2023/11/10
friday, pm 10:33 | 14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10일차 #마시다

요즘 정말 '제로 음료수'의 인기가 대단한듯 합니다.

코로나기간동안 배달음식 문화가 발달되고 유행하면서 기름지고 매운 음식들이 많아졌고, 그 음식들에 어울리는 '음료수'가 전보다 많이 유행한것 같습니다.

제로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존재는 했지만 특유의 끝맛이 다르거나 씁쓸하다, 텁텁하다 등의 이유로 제로콜라를 찾진 않았지만 제로 열풍이 불게되면서 이러한 맛의 단점도 보완하게 되니 비슷한 가격, 같은 음료수를 먹는다면 차라리 칼로리가 0인 제품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로열풍에 한몫 하게된것 같습니다.

저도 음료수를 마시는것을 참 좋아하는데 모든 음식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체내로 흡수되고, 씹는 과정도 필요없이 혀의 감각기관에 빠르게 단맛을 전해주고 탄산음료 특유의 청량함이 음료수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먹을수 있는 만큼 빠르게 살도찌게 되는 단점이....존재하지요

마시다 라는 키워드를 듣고 생각난 제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10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사실 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제로 음료수의 열풍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칼로리가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글을 읽다보니 이상하게 오늘따라 콜라가 땡기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요즘은 제로 음료수가 굉장히 많이 출시되었더라고요~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요즘은 제로 음료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들은 참 살이 잘 찌는 것 같아요
조성현(철학과) 정말 제로음료수가 나오고 더 많이

마시는 것같아요~~ 저도 이제 그만 먹어야하는데 어렵네요,,,ㅜ

2023/11/10
friday, pm 10:58 | 17읽음
조성현(철학과)

#10일차
저는 커피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매일 한잔은 기본이고 많게는 3~4잔도
마십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 계속해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페인의 부작용도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위염뿐만아니라 만성적인 수면장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커피를 끊을 수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커피의 맛을 생각하면 쓴맛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피는 쓴맛 신맛 단맛 3가지가
느껴지는 놀라운 액체입니다.
아직 이 맛을 잘 못느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3가지 맛에
집중해서 드셔보는건 어떨까요?

11 7

고다인(중국학과) 커피 종류중에 어떤 커피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조성현(철학과) 고다인(중국학과) 저는
다크초콜릿 맛이나는 커피가 좋은 것 같아요!
산미가 있는 커피는 제 입맛에 안맞더라구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곧 있을 시험을 준비하느라 오늘 밤부터 커피를 마실 것 같은데 한 번 꼭 음미하면서 마셔봐야겠어요!
조성현(철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천천히 음미사히면서 드셔보시면 아마도 새로운
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헉 저는 아직도 커피를 못 끊었어요 카페인이 저랑 정말 맞지 않아서 끊어야 하는데
조성현(철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먹다보면
끊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자동으로 먹고
있더라구요.. 저도 언젠간 끊을 수 있겠죠
김현지(경영) 오 저도 다크초콜릿 맛이 나는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ㅎㅎ 혹시 투썸인가요...?
ㅎㅎ 학교 카페 아메리카노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

2023/11/10
friday, pm 11:08 | 18읽음
고다인(중국학과)

#10일차 #마시다

오늘의 인증글들을 읽어보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그런데 전
아쉽게도 아직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커피의
진한 향은 향기롭고 좋은데 막상 먹으면
맛있다는건 모르겠더라고요.특히
아메리카노는 달콤한 맛조차 없이 깔끔해서
더더욱 취향이 아닙니다.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아메리카노의
매력을 몰랐다가 마실수록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혼자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러 카페에 가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밀크티와 초콜릿이
들어간 음료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2030대
당뇨 비율이 크게 올랐다고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제하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면 그냥 좋아하는 달콤한
음료를 마실지 아니면 커피는 안마시니 당류
걱정이 없는 차를 마실지 고민이 됩니다.

가격을 보아도 그냥 얼음물에 티백을 넣은 것 뿐인데 제가 좋다하는 자바칩 프라푸치노나 밀크티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유명한 카페에 가더라도 커피메뉴를 제외하면 고를 선택지가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카페에 갈 때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는게 좋은걸까요? 여러분들의 최애 카페는 어디인가요?

13 4

김현지(경영) 저도 커피맛을 몰랐는데 피곤하니까 찾게되요ㅋㅋ 중독성도 있고... 최애 카페는 탐탐이랑 투썸입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고르느라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먹고 말지! 하는 스타일이라 늘 달달한 음료로 수혈받곤 합니다,,, 제 최애 카페는 파스구찌입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아메리카노보단 카페라떼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마셔요!! 하지만 가끔은 어떤 카페에서 카페라떼를 안 팔고 아메리카노만 파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조금 난감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최애 카페는 아니지만! 카페라떼 찐 맛집!! CLC 브래댄코 좋아해요!!
조성현(철학과) 아메리카노의 맛은 더 맛있게 먹기위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쓴 커피를 먹고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ㅎㅎ 제 최애카페는..다 좋아합니다!!!

2023/11/10
friday, pm 11:24 | 16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10일차
[마시다] 전 사이다를 많이 마십니다.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 탄산 중독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과 점차 멀어지게 되고 건강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탄산이 맛이 있긴 하지만 몸에 안 좋은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안 좋은 선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침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콤부차를 마시며 사이다와의 거리를 멀게 노력하였습니다.

무엇을 마실지 잘 선택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를 살아갈 것 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며 물을 마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2 4

김현지(경영) 저도 거의 당중독(?)이었는데 서서히 보다는 팍 끊는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죠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탄산이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기 너무 어렵더라구요,,, 저는 아직도 제로콜라를 달고 산답니다ㅠ..ㅠ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예전에 콜라를 갈증 날 때마다 매일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의 건강을 위해 콜라를 끊었습니다~ 소정님

말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마실지도 잘 선택해야 하는 것 같아요
조성현(철학과) 제로가 나와서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ㅜㅜ 저도 물을 많이 먹도록 노력해야겠어요~

2023/11/10
friday, pm 11:36 | 17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10일차 #마시다

지난 8일차 때 말했듯이 나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의 계절, 그 중에서도 가을보다는 겨울에 더 가까운 시기를 가장 좋아한다. 더위에 강한 대신 추위를 많이 타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빙상장을 기피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겨울의 공기를 아는 이들은 내 마음을 이해할 테다.

달도, 해도 없는 그 차갑고 푸른 시간에 창문을 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폐부까지 찬 기운으로 가득 찬다. 춘천의 겨울은 안개의 계절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기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온통 희뿌연 눈 앞을 보며 찬 공기를 들이쉬다보면 온갖 상념은 사라지고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다보면 내 존재조차도 흐려져 안개 속으로 흩어지는 듯하다. 이윽고 하나 둘씩 일어나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분주한 분위기가 와닿으면 그제서야 나는 창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내가 되어 도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역전층, 또는 안개, 그런 연유로 새벽의 공기는 기관지에 좋지 않다고 하나... 그럼에도 난 여전히 겨울의 새벽을 마신다.

15 5

김현지(경영) 겨울의 새벽을 마신다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겨울의 새벽을 마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겨울의 공기..! 정말 잘 알아요 따뜻한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성현(철학과) 겨울의 새벽을 마신다는 말이 참 좋네요!! 저도 오늘은 겨울의 새벽을 마셔봐야겠네요 ㅎ
김서희(심리학과) 저도 겨울의 공기 좋아해요!!

2023/11/10
friday, pm 11:41 | 14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0일차
마시다.
요즘엔 항상 마실 것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 같다. 커피, 콜라, 물, 다른 음료수 등 언제 어디서든 하나씩 들고 다닌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항상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먹긴 해야하는데 바쁘다보니 마실 걸 찾게 된다.

포만감도 들고 맛있기도 하고 일단 먹는 건 맞긴하지만 아무래도 좋을리가 없다.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삼시세끼는 무조건 챙겨먹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지금도 먹긴하지만 그때에 비해선 부실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먹고 싶은건 사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먹게 되니 사람이라는게 참 이상하기도 한 것 같다.

결국 여유와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 밥 먹을 땐 개도 안건드린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밥 먹는 시간조차 눈치를 주니 한 몸에 두 명이 사는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는 마실 것들로 대충 때우지 말고 제대로 뭔가 먹으면서 건강도 챙겨야할 것 같다.

12 5

김현지(경영) 건강이 최고에요! 준호님 감기 조심하세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한 몸에 두 명이 사는 듯한 말에 너무 공감해요! 저도 요즘 제 기분을 맞춰주기 너무 힘들더라구요 크크,,,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매일 커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아요 ㅠㅠ 물을 마셔야하는데.. 고쳐야겠어요
조성현(철학과) 저는 그래서 가끔 저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여유를 가지도록해요!! 그렇게 한번 여유를 가지면 또다시 힘이 나더라구요 ㅎ
김서희(심리학과)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0

friday, pm 11:53 | 19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10일차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협탁 위 물을 마신다. 밤 사이 차갑게 식은 액체가 그녀의 목을 지나 심장을 차갑게 만들곤, 지나갔다. 긴 밤이었다. 늘 그렇듯 잠에 이루지 못한 숨을 깊게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꿈에서 그녀는 검은 짐승에게 쫓겼다. 온통 먹구름이 퍼진 잿빛 공간에 이유없이 쫓기던 그녀는 체념한듯 짐승에게 먹힐 준비를 했다. 그러다 이내 꿈에서 깨어나 아침이 되었다.

푸른색 도화지가 하늘에 펼쳐지고 드문 드문, 구름이 찍혀있다. 그저 지루한 하루 속 바라보는 작은 구름점은 그녀의 유일한 재미였다.

높고 높은 탑에 갇힌 그녀는 창을 열고 땅을 보았다. 땅바닥에 작은 개미같은 사람들이 탑 주변을 지나다녔다. 한번쯤 탑을 내려가려 시도를 해봤다. 하지만, 탑을 내려가던 중간 보이는 먹구름이 두려워 다시금 스스로를 가두었다.

이후로 그녀는 탑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저 오늘도 도화지 속 구름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가끔 그녀는 상상한다. 저 구름을 하루에 하나씩 마시며 언젠가 하늘을 날아 탑을 벗어나는.

그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구름을 잡아본다. 그러곤 이내 세상에 가득 찬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자신은 살아있고, 언젠가 구름을 마시며 연기처럼 날아가는 날을 기다린다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 제목을 보고 우울증이 생각나서 뭔가 우울증 극복이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조금은 노력하고자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수업을 듣고 있기에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정신장애인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드라마 어떤가요? 볼까 말까 고민 중인 드라마라 미혜님은 재미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성현(철학과) 정신병동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정신병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더라구요!! 드라마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김서희(심리학과) 저도 해당 드라마봤는데 정말 좋은 드라마였어요!!

2023/11/11
saturday, am 12:00 | 20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10일차 #마시다

어제와 오늘 1박2일로 강릉 여행을 동기와 다녀왔다.
시원하고 건조한 바람이 콧속으로 들어와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안목 해변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니 바다 짠내와 눅눅한 공기가 훅 다가왔다.
매시간 매분 매초 들이마시는 무색무취의 공기가 파란색 짠 내음으로 바뀌는 이 순간 온전히 공기에 취해있었다.
이 공기는 파도의 숨결일까?

오랜만에 바닷바람과 바다의 공기를 느끼니 마음이 잔잔한 물결로 바뀌었다. 한겨울이 오기 전의 바다는 매섭지 않고 포근하고 왠지 모를 아늑함을 선사하는 듯하다.

12 5

김현지(경영) 풍경이 너무 예뻐요 :) 영상 공유 감사합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 본가가 강릉이라 그런지 굉장히 반가운 글과 동영상이네요! 늦었지만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가을과 겨울 사이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바다는 이상하게 매일 아늑함을 선사하는 기분이 들어요
조성현(철학과) 오랜만에 보는 파도가 저의 마음을 울리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ㅎ
김서희(심리학과) 영상 넘 예뻐요

2023/11/11
saturday, am 12:14 | 26읽음
김양선

#10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은 '마시다'라는 익숙한 행위가 우리에게 즐겁고 기분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성큼 겨울의 입구로 들어선 것 같네요.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있는 주말 맞이하기 바랍니다. 챌린지도 마지막 한 주 남았네요.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

16 1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주말 잘 보내세요

2023/11/13
monday, am 4:50 | 28읽음
김양선

#11일차 키워드 : 짓다
오늘도 동사로 글쓰기를 해볼까 합니다.
밥이나 옷, 집을 만드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짓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때로는 죄를 '짓다'라고도 하지요. 기억에 남는 '짓기'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을 무엇을 지어 보았을까요? 혹은 마음으로, 상상으로 무엇인가를 지어본 적은 없는지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13 0

2023/11/13
monday, am 8:16 | 20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11일차

1.
집을 짓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며 나도 막내 돼지처럼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시멘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 제가 봤던 시멘트는 아직 굳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도대체 그 액체가 얼마나 단단하길래? 하고 생각했었는데, 참 어렸던 것 같습니다.

-

2.
밥을 지어보신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아마 여러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거나, 물 양은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건가 싶은 투덜거림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맏이입니다. 그래서 맞벌이인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의 밥을 차려주는 일은 오롯이 제 몫이었는데, 다행히 저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전 특히 힘이 약한 편이었는데, 쌀 통이 무거우면 동생들을 시켜서 쌀을 보울에 담고 씻어 밥을 짓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식가들이라 먹는대로 만들어줬더니 저보다 키가 큰 동생들이 됐습니다. 나름 166이라는 작지 않은 키를 보유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귀찮아도 밥 짓던 게 효과를 본 것 같아 왠지 뿌듯하기도 합니다.

-

3.
요즘 외동이나 많아도 둘인 집이 많은데요, 저희 집은 1남 2녀로 삼남매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나가면 어르신들께서 '아들 하나 딸 둘? 딱 좋다~ 자식농사 잘 지었네~'하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어렸던 저는 잘 이해하진 못했지만 칭찬이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왠지 효도를 누구보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동생들한테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왠지... 동생들이 절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단정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을까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짓는다는 건 참 여러 의미로 쓰이듯이 같은 단어에도 여러 추억들이 쌓일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짓다'에 관련한 추억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짓다'는 무엇인가요?

13 4

김서희(심리학과) 같은 단어에 여러 추억들이 쌓인다는 글이 와닿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서현님의 '짓다'와 관련한 추억들을 읽으니 정말 재미있고 저에게도 비슷한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듯 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하나의 단어에 서현님의 추억 여러가지를 들을 수 있어서 더더욱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저는 동생이 한명있어요 밥을 짓는 법을 모르지만 엄마가 밥을 지어주시면

반찬들을 만들어서 줬던 기억이 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3
monday, am 8:59 | 21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11일차
저는 짓다를 생각하면 밥을 짓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나 자취를 한지도 어엿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처음으로 밥솥에 밥을 지었을때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것이 당연한 삶이었는데 처음으로 의식주를 내 손으로 가꿔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매우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자취를 하지 않었더라면 꽤 오래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 밥 짓는 법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지금보면 정말 쉬운 밥짓기 인데 그때의 저는 몇번을 실패했습니다. 죽이 됐다가 덜익었다가 그럼을 반복하다 비로서야 이제는 눈을 감고도 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이제 모든 살림을 혼자 척척 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 하시기도 약간은 서운해 하시기도 한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당연한건 없습니다.
길가가 깨끗한것도, 매일 따뜻한 밥이 있는것도 입을 옷이 깨끗히 다려져 있는것도, 모든건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할 수 있는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도와주는 많은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는건 어떨까요?

13 6

김서희(심리학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하루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밥 짓는게 은근 어렵더라고요, 저 처음 밥 했을때 식혜 만든다고 할머니가 가져가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살림을 하시는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그동안 익숙해졌던 일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는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대단하세요 :) !! 지호님 말처럼 저도 저의 삶을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고다인(중국학과) 모든것은 누군가에 손길이 닿아 만들어지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겨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아직도 밥을 지을 때 3번은 성공하고 2번은 실패하는데 지호님의 밥 잘 짓는 꿀팁도 나중에 들어보고 싶어요!

2023/11/13
monday, am 9:22 | 30읽음
김양선

'라이팅챌린지-3주 프로젝트-2023-2학기' 미션 15일 차 리포트가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인증한 멤버를 공개합니다!
자신감 뿜뿜 충전하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힘내보아요

인증글 많이 쓴 멤버
김서현(광고홍보학과): 11일 인증
김양선: 11일 인증
박지호(식품영양학과): 11일 인증
가양선(경영학과): 10일 인증
고다인(중국학과): 10일 인증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이덕영 이지혜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모든 멤버의 인증순위를 확인하려면

멤버들의 인증 순위 보기
월~금, 30일 간 (2023.10.30 ~ 2023.11.28)

3 0

2023/11/13
monday, am 9:41 | 18읽음
김서희(심리학과)

#11일차
'짓다'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밥을 지어줬는데 생각해 보니 항상 당연하게 여기며 밥을 먹었던 것 같다. 대학교에 오고 나서 본가와 멀어지니까 엄마의 밥은 먹을 수 없었다. 이때 깨달았다. 세상에 당연한 것들은 없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그리고 우리 엄마께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이다.

15 8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매일 밥을 사먹다 보니 엄마가 해주시던 밥이 너무 그립네요
임미혜(사회복지학과) 본가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 늦게까지 있다보니 밖에서 사먹는 일이 더 많아져 집밥이 그립더라고요ㅠㅠ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저도 집밥이 정말 많이 그립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
홍다연(정치행정)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지니시는 서희님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집밥이 너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ㅠㅠ 매일 기숙사에서 지내다보니,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없어 많이 속상해요
고다인(중국학과) 이 세상 당연한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소중함을 모를때가 많죠~글 잘 봤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저도 기숙사를 살면서 집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대학에 와서 엄마 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2023/11/13
monday, am 10:55 | 16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11일차
나의 추억은 아니지만 나와 관련한 '짓기'의 추억이 있다.
나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 두 번째 손주였지만, 첫 손녀였기에 할아버지는 나를 많이 이뻐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까지 꽤 오래 걸리셨다 들었다. 사촌오빠는 절에서 지었다 들었는데, 나의 이름은 직접 짓고싶다 하셨다.
그렇게 오래 고민하시다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미혜'라고 지으셨다. 아름답고 슬기롭게 자라라는 뜻이었다. 꽤 투박하다 느껴지는 이름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나의 이름이 너무 좋다. 지금은 많이 아프시지만, 과거 나를 등에 업고 다니셨던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져서, 비록 이름에 맞는 삶은 아니더라도,이름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마음에 새기며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전하는 그럼 사람이 되고싶다.
이름을 '짓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짓고싶다.

12 5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뜻이 정말 좋네요! 이미 아름답고 슬기롭게 자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응원할게요!
고다인(중국학과)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해 이름을 지으셨을지 예상되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남자친구와 장난스레 미래 딸, 아들 이름을 지어봤는데 정말

성과 잘 어울리는 예쁜 이름을 짓기 힘들더라구요.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이름이 너무 예뻐요 :)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하다는 뜻인데 할아버님께서 학우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따듯해집니다! 할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할아버지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지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렵겠지만 언젠간 누군가의 이름을 짓고 싶어요 :) 미혜님 이름 정말 이쁘세요

2023/11/13
monday, am 11:13 | 16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11일차

사랑, 행복, 미움, 친구, 가족, 연인.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맺은 관계에는 이름이 있다.
하지만, 때때로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은 관계와 감정이 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감정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같다. 원래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는지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러한 이름을 지어줘서 사랑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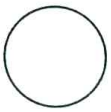
그저 어느 순간부터 이 감정은 내게 사랑인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랑을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게 된다.

그것은 때론 나를 어떠한 틀에 가두는 것만 같아 이름을 짓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감정이나 관계뿐만이 아니다. 그냥 무언가를 그대로 놔두고 싶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붙들기로 결정한 것이라서 일부러 자연스럽게 머물거나 떠나도록 놔두고 싶어 가만히 바라보기만 한다.

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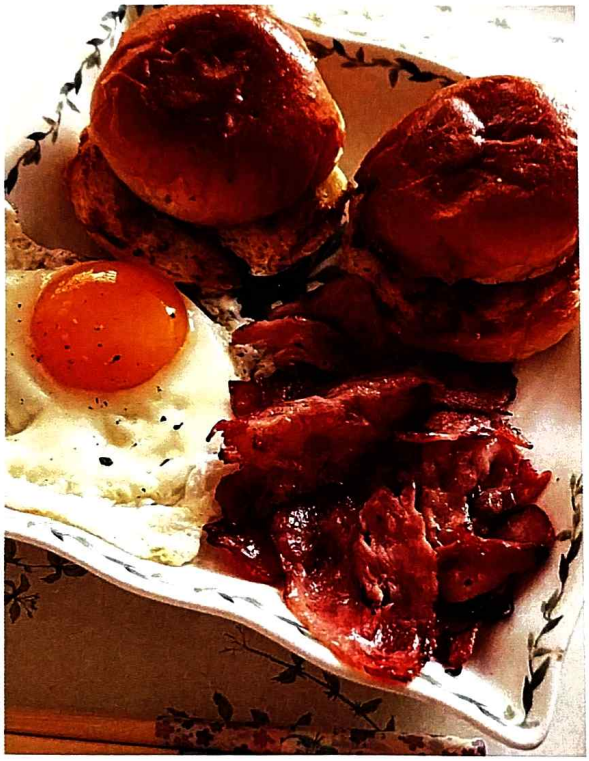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엇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관계와 감정이 있곤 하죠.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수연님처럼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거나 떠나도록 놔두는 행위가 뭔가 아름답고 마음에 뭉클해지는 기분인 것 같아요 :) !!



2023/11/13
monday, am 11:24 | 16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1일차 #짓다
저는 '짓다'라는 키워드를 보고 '밥을 짓다'라는 하나의 소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시기에는 끼니를 제때 채우며, 배달음식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만 시켜먹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밥솥 구경은 커녕 햇반 하나 돌려먹는 것도 귀찮아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일이자 어떠한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먹고싶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닌, 그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되었습니다. 학식이나 반찬 등을 사서 밥을 먹는 대신, 배달음식이나 식당 등에서 끼니를 떼우는 일이 늘었고 남은 음식을 데워먹고 항상 비슷한 인스턴드 음식을 먹다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혼자 어떤 메뉴로 밥을 먹어야할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동안 밥을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편식이 심하고 입이 짧아, 부모님께서 항상 제 입맛에 맞는 메뉴와 매번 다른 메뉴로만 준비해주셨습니다. 혼자 지내며 음식에 있어

제한이 생기다보니, 예전에는 당연하다고만
여긴 식사메뉴가 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방학 때 부모님을
모시고 맛집에 자주 가며, 집에서도 스스로
요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예전에 집에서
만들어본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입니다!



11 4

고다인(중국학과) 식사가 즐거움이 아닌 그저
귀찮은 일이 되어버릴때가 있죠~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연님이 부모님께
직접 요리를 해주신다면 더더욱 좋아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현지(경영)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ㅎㅎ
다연님의 글을 읽고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저도 기숙사에서
생활하니 밥솥 구경도 못하고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먹게 되는 것 같아요 ㅠㅠ 사진 정말
맛있어보여요!!

2023/11/13
monday, pm 12:33 | 17읽음
조석환(심리학과)

#11일차 太古의 虛. 어둠조차 없는 그
곳에서 '있으라' 이 한 마디에 작은 點 하나가
11 次元을 孕胎해 分娩했다. 點 하나에서
시작된 1 次元의 世界에서 點은 自己
自身을 쌓고 쌓아 2 次元의 線과 面을
빚었고, 또 線과 面은 自己 自身을 쌓고 쌓아
3 次元의 立體와 時間을 빚어 視空間을
달여냈다. 그리고 또 自身을 쌓고 쌓아 4
次元, 5 次元, 6 次元, 7 次元, 8 次元, 9
次元, 10 次元, 11 次元에 도달했다.
빚어진 이 次元의 世界에서 또 다시 點 과
線과 面과 立體와 時間이 쌓이고 쌓여
無機物이 태어나고, 有機物이 태어나 有와
無, 生과 死가 循環을 이루는 고리가
誕生했다. 被造物의 被造物인 우리는
우리의 目的과 쓰임새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를 담은 次元의 그릇의 鳥瞰圖와
解像度를 우리 멋대로 그리고, 設計者를
멋대로 想像하며 根源과 理由와 目的을
우리 멋대로 만들어 斷定 짓는다. 그렇게
自我陶醉에 멋들어진 우리는 어설프게
創造主를 흉내내어 지어내지 못 하는 것이
없는 마냥 어설픈 虛勢를 부린다.
以上 내 멋대로 形而上學的 觀點에서
探究한 '짓다'의 考察과 定義를 結論
짓는다.
#짓다

8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석환님은 한문을 많이
아시는 듯해요! 제가 아는 한문은 많이 없다는 것에
놀라고 합니다,,, 흐흐
조석환(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오늘따라 옛날 방식처럼 한문을 혼용해서 쓰고
싶어지더라구요. 단어 옆에 한자를 따로 표기할까
하다가 옛 방식 그대로를 살리고 싶어서 그대로

써봤습니다. 한자가 어려워 보이지 사실 단순한 단어들 입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한자와 같이 쓰니 뭔가 멋있어요!! 제가 대부분 모르는 한자라..ㅠㅠ 공부해야겠오요

2023/11/13
monday, pm 1:01 | 13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1일차

이름을 짓기란 예로부터 고귀한 것이었다. 고대 한국, 중국, 일본에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본명을 '휘'라 하여 말하기를 피했고(피휘), 대신 '자'라는 성인이 되어 받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호'라는 별명 또는 필명으로 불렀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본명을 말하길 꺼려 했는데 한 인간의 본명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지극히 마술적인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현재에도 한 사람이 다양한 이름을 갖는 경우가 있다. 예명, 필명, 별명 등 자신이나 타인이 지어준 것들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본명을 부를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신의 본명을 사랑하고, 타인의 본명을 부르는 것이 현대 인류의 예우가 아닐까.

9 5

고다인(중국학과) 오 이름을 짓는다는건 오늘 키워드 보고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렇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연예인들 보면 정말 신기하고도 독특한 예명이 많기도 하더라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이름의 소중함을 당연시하고 잊고 산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사람들 이름도 많이 많이 불러줘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이름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이름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충민님 덕분에 이름을 짓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2023/11/13
monday, pm 1:07 | 17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1일차 #짓다

밥을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생이 되어 점차적인 경제적 독립, 2023년 6월에는 기숙사를 떠나 자취방으로 왔다. 부모님과 동생 없이 혼자 사는 게 나에게 잘 맞는 것 같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학교생활로 인해 여유가 없어지면 간단히 끼니를 때우거나 거른다.

갑작스레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짓는 밥이 소중해졌다. 어제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오므라이스를 해 먹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였던 식사여서 2인분을 했다. 채소를 손질하고 볶고, 밥을 볶고, 달걀을 풀어 간을 하고 예쁘게 플레이팅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다. 어제만큼은 나도 누군가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싶었는데... 요리하면서 조금 속상했다.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밥 속의 따뜻한 마음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만약 내가 매일 음식을 해 먹어야 한다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만으로도 힘들다. 24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는데 요리할 시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10 7

고다인(중국학과) 먹는건 금방인데 요리하고 치우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하죠~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속상한 마음으로 요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와 달리 결과물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제 눈이 행복해졌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막상 요리하려면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해주는 밥의 소중함을 다시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요리가 쉬운일이 아닌 것 같아요.. ㅎㅎ 오늘도 맛있는 식사 하세용!! :)
신유정 (심리학과) 귀여운 오므라이스예요. 글 잘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너무 귀여운 요리를 하셨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는 기숙사를 쓰다 보니 매일 배달을 시키거나, 밖에서 사먹는 일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민님의 사진을 보니 정말 배고프네요ㅠㅠ

2023/11/13
monday, pm 1:45 | 14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1일차 #짓다

개미들이 지어놓은 집을 본적이 있나?
일개미들은 그 작디 작은 몸으로 자기들보다
몇 천배는 큰 집을 짓는다. 그 큰 집을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작은 방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나가 엄청나게 큰 집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도 개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꿈을 꾼다.
또한 주변에서도 큰 꿈을 꾸라고 항상
들어왔다. 그런데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점차 큰 꿈에 다가가는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큰 꿈을 꿔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목표로 기반을 잘 다진 다음에 큰 꿈을
꾸는 것이 큰 꿈의 완성작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기력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일단
개미들처럼 움직여보자! 그렇다면 목표가
생길 것이고 더 큰 목표가 생겨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모든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을 응원한다.
아자자!

11 7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귀찮다가도 한 번 움직여보면 어느새 잘 하고있더라고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가수 아이유님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때면 일단 먼저 몸을 움직여보라고 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개미처럼 살아야 겨울나기도 좋죠 ㅎ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이 많이 가네요. 느슨해질 때마다 개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작은 움직임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신유정 (심리학과) 차근차근 무기력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글 잘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일단 움직여야 무언가 할 일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무기력하게 가만히 누워있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2023/11/13
monday, pm 2:00 | 13읽음
조영주(간호학과)

#11일차

미소를 짓는다. 사르르 부서지듯 퍼지는 달큼함. 디저트를 한 입 베어문 듯이 달콤한 기분이 드는 것은 미소의 힘이다. 미소를 짓는 일은 기쁨을 주는 일. 미소를 짓는 일은 따스히 안아주는 일. 미소를 짓는 일은 봄을 가져다주는 일. 너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사람

/ 미소 짓는 하루 되기를 :-)

10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신경써서라도 웃어보는 하루가 되어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미소가 주는 영향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미소 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영주님의 글을 읽으며 미소지을 수 있었습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당!!
박지원(사회학과) 짓는다는 것이 미소를 짓는 것도 해당되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따뜻한 글인 듯해요

2023/11/13
monday, pm 2:13 | 15읽음
조성현(철학과)

#11일차
저는 밥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지은 밥을 저에게 선물해주곤 합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먹는 것을 멈출 수 는 없습니다. 에너지를 위해서 미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먹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먹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밥먹을 시간이 없어서 대충먹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먹습니다. 시간에 쫓겨먹고 허기를 달래기 위한 식사를 하는 것은 현대인의 필수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밥을 먹을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밥을 직접 지어서 먹는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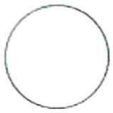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스스로에게 밥을 지어서 먹어보길 바랍니다. 만들고 싶었던 요리를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끼를 선물하는 겁니다. 잘차려진 용기에 정갈하게 담은 반찬과 밥을 보면 괜스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요리를 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저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에게 선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한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모두 맛있는 밥 드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9 7

고다인(중국학과)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배고프면 그냥 사먹고는 했는데 한 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갓 지은 밥에다가 김만 싸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정말 집밥이 그리워지는 글이네요! 저를 위한 근사한 한 끼를 선사해 보겠습니다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보슬보슬한 갓지은 밥을 좋아하는데 대충 끼니를 때우느라 최근엔 잘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한끼 맛있는 밥을 먹어야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밥을 잘 챙겨먹는 것 만으로도 제 자신을 잘 챙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ㅎㅎ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 :)

가양선(경영학과) 저는 밥 짓는 법을 아직 몰라요 나중에 꼭 해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혼자서 밥을 짓고 만드는 거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번쯤 저 혼자서 밥을 짓고 밥상을 차려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2023/11/13
monday, pm 4:49 | 14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1일차 #미소를짓다
한 바람에 마음이 풀린 어느 가을 오후, 그녀는 작은 정원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손에 책과 필통을 들고 차분한 햇살이 비추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년에 심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 푸른 잔디 위에 활짝 핀 꽃들은 마치 미소 짓는 듯 보였다. 그녀는 그 속에서 마음을 풀어내기로 했다.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작은 연못에는 작은 물방울이 떠돌았다. 바람에 스치는 소리,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이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필통에서 꺼낸 연필이 종이 위에 미끄러지며 그녀의 감정을 그려냈다. 순간의 감정을 글로 풀어내다 보니 마치 그녀는 그녀 자신과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 후, 그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더 가볍게 지고 정원을 떠나왔다. 작은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어 마음을 정화하다 보니 더 새롭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작은 행동이 그녀를 조용하게 기쁘게 만들어주었다.

9 4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정원에서 평화로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잘 느껴지네요. 글로 감정을 풀어낼때 마음이 후련해지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글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너무 예뻐요 :)
고다인(중국학과) 글을 읽으면서 이미지가 떠어르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추운 날씨 속에서 지은님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정원에서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여자의 모습이 상상이 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2023/11/13
monday, pm 4:54 | 14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11일차 #짓다

와! 겨울이 진정으로 다가왔다.
아침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양 볼과 코에 맞닿은 채로 날 깨운다. 보일러를 켰지만 발은 시리고 손과 입술은 보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부르트는 엘사의 계절이 다가왔다.

날씨의 여파로 목감기가 온 것 같아 약국에서 약을 지어 왔다. 독감인 줄 알았으나 단순 감기여서 한시름 놓았다. 약 먹고 푹 자니 벌써 완쾌된 느낌!

그래도 목이 너무 시려 목도리를 사려다가 직접 대바늘로 털실을 엮어 매듭을 짓고 여러 차례 반복하며 나만의 목도리를 만들어 쓰고 싶어서 실과 바늘을 구매했다. 이번엔 만들다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짓길 바라본다.

10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엘사의 계절이 다가왔다는 말에 너무 공감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기 쉽더라고요ㅠㅠ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목도리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지(경영) 엘사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너무 귀여워요 ㅎㅎ 뜨개질도 완주하시길 바랍니당 :)
고다인(중국학과) 독감이 아니라 다행이예요~~
박지원(사회학과) 가을을 제대로 느끼지고 못하고 바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또 감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있지만, 겨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목도리가 이쁘게 잘 완성되길 응원할게요

2023/11/13
monday, pm 5:42 | 13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11일차 #짓다
글짓기는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머릿속에 정제돼 있지 않은 생각들을 글을 꺼내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세상에 없던 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매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는 실로 대단한 사람들일지 모른다. 글짓기를 할수록 머릿속을 무질서하게 오가던 단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을 받는다. 예전에 잘 읽히지 않던 남의 글도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글을 짓는다는 건 단순해 보여도 세상을 넓게 보는 시야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우리는 제자리에 앉아 작은 글씨 속 각자 다른 환경을 겪어온 저자의 경험담을 책을 통해 겪을 수 있으니 말이다.

10 4

김현지(경영) 짧은 글이어도 매일 작성하기에 생각을 정리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고다인(중국학과) 글을 써내려가면서 생각이 정리도 되고 온전히 집중하는게 너무 좋은거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글은 지으면 지을수록 문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글을 짓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기분을 느꼈어요 맞아요 글을 짓는다는 것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2023/11/13
monday, pm 5:45 | 15읽음
가양선(경영학과)

#11일차 #짓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빠의 어린시절 집을 지으셨습니다.
현재를 수리를 하였기에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고와 아빠의 어린시절이 담겨있습니다.

밥을 짓고, 시를 짓고, 건물을 짓다의 '짓다'를 단순히 사람의 행동으로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짓다'가 지닌 행동의 의미, 추억, 소중함을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 하더라도 나만이 기억하고 그것의 의미를 전달한다면 '짓다'의 의미는 더 소중하게 남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9 4

김현지(경영) 할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린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가득할 것 같아요 :)
고다인(중국학과)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에 담긴 여러 추억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질거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집을 지으셨다니! 말로만 들어도 그 노고와 정성이 느껴져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짓다'라는 표현이 단지 밥을 짓고 시를 짓는 것을 넘어, 추억을 짓고 소중함을 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11/13
monday, pm 6:05 | 17읽음
김현지(경영)

#11일차 #짓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외우는 편이다.
어디서 만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등
특징과 연관 지으면 한 번 만난 사람이어도
바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

친해진 사람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름의 뜻을 물어본다.
부모님이 그 이름처럼 살라는 뜻으로
지어주셨고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느끼기에
더욱 애정을 느낀다.

우리 학교의 이름인 '한림'은
'빼어난 인재들의 숲'이라는 뜻이다.
한글이름도 예쁘지만 한자로 써도 너무 예쁜
글자이다.
"춘천은 가을도 봄"인 것처럼 춘천에서 보낸
20대의 청춘과 예쁜 캠퍼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

☺ 11 ⋯ 10

고다인(중국학과) 전 이름을 진짜 못외우는 편인데 한 번만 봐도 이름을 외우신다니 부러워요~
김현지(경영) 고다인(중국학과) 다인님 댓글 감사합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한림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앞으로 춘천을 벗어나 보내게 될 현지님의 청춘도 응원할게요!!
김현지(경영)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영찬님 응원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현지님 덕분에 대학교의 뜻을 알게 되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은님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밤 되세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사람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서 늘 곤란을 겪는데 저와 정반대이신 현지님을 보니 정말 부럽네요 ㅎㅎ 사람의 이름에는 그에 맞는 뜻이 있듯이 현지님이 본인의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사시길 응원할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현지(경영)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좋은 밤 되세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가끔 사람들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 실수한 기억도 있어요... 맞아요! 이름은 정말 모든 애정과 소중함이 느껴지는 존재라 생각이 들어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맞습니다! 지원님의 이름의 뜻도 궁금해집니당ㅎㅎ :)

2023/11/13
monday, pm 6:06 | 15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1일차 #짓다

차가운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요즘 들어
쓸쓸한 마음이 자주 드는 것 같다. 단풍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을도 여유롭게
즐기지 못한 채 가을이 지나가버려서 슬픔
마음이 들어 그런 걸까. 아님 내가 너무
예민하고 쓸쓸한 감정을 좋아해서 그런 걸까,
이제는 정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가을
구경과 쓸쓸한 감정이 묻힐만한, 더 재밌고
소중한 추억이 생겨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있다. 얼마 전 동네 친구들과 빼빼로데이날 마니또를 하면서 다시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을 강하게 느꼈다. 또 친구와 lp바를 방문하여 와인을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서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분위기를 느끼고 즐겼다.
분명 모든 날이 바람이 불고 정말 추웠지만, 우리는 따뜻하고 무서움이 없었다. 오히려 함께여서 즐거웠고 또 행복했다. 이제는 또 얼굴 한 번 보기가 힘들어지지만, 나는 슬프지도 아쉽지도 않다. 이제는 나 혼자서 바람을 버틸 힘을 지어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현재, 내 마음 속에서 강한 추위가 불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버틸 집과 마음을 짓고 있는 중이다

13 4

고다인(중국학과) 강한 찬바람에도 버틸수 있는 마음의 집을 짓는다니 표현이 좋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올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집을 꼭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니또라니! 함께 추억을 쌓을 친구분이 있어서 부러워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집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거쳐야 하지만, 추위에도 버틸 힘이 생긴다면 그때의 지원님은 누구보다 훨훨 잘 날고 있을거예요!! 그때가 얼른 오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2023/11/13
monday, pm 7:54 | 15읽음
문정희(법학과)

#11일차
따뜻한 밥을 짓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든다
밖에서 살거나
오래 나가 있으면
엄마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
마음을 짓는 그 마음이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오늘 추운데 하루종일 밖에 있었더니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다

밖에 음식보다
덜 자극적이지만
마음은 더 따뜻하다

12 6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죠. 잘 읽었습니다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집밥이 최고인 듯합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먹고싶어지네요ㅠㅠ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밴드를 보니 오늘 키워드를 보고 집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엄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집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집밥이 더 맛있는 건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똑같는 레시피여도 엄마의 손맛이 아니면 그저 평범한 음식처럼 느껴지는 것 같이요 ㅎㅎ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밤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기숙사에서 지내다보니 더더욱 엄마의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지네요 엄마의

음식은 덜 자극적이지만 사랑이 너무 뜨겁고 자극적이라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2023/11/13
monday, pm 8:14 | 15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11일차 #짓다

어릴 적 바다로 놀러가면 나는 항상 모래성을 짓곤 했다. 공들여 지은 모래성은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며 어떠한 시련에도 끄떡없이 버틸 것만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이내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에 부딪혀 버린 모래성은 버틸 틈도 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인생은 모래성과 같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쌓아 올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지만 이뤘던 모든 것들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 내가 세운 모래성은 과연 나에게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앞으로 나는 어떤 모래성을 쌓아야 할까.

12 6

김현지(경영) 쌓고 무너지길 반복하다 보면 진정 자신의 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찬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김현지(경영) 응원 감사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단단한 모래성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은님만의 모래성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모래로 지은 성은 쉽게 무너지지만 진흙으로 굳은 성은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은 거 아세요? 진흙이 굳은 게 결국 벽돌이니까요. 그러니 모래에 집중하기보다 완벽한 진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비율에 신경써보세요!! 영찬님의 모래가 언젠가 진흙이 되어 벽돌이 될 때까지 제가 응원할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인생을 모래성이라 표현한 것이 정말 멋있고 인상 깊어요 가끔은 모래성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무너지면 다시 짓고 세울 수 있으니 저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2023/11/13
monday, pm 8:37 | 15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11일차 #짓다

[집을 짓다, 미소를 짓다]

사람의 마음을 두고 그릇이나 집으로 표현을 할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간장종지 만 하다, 마음에 빈자리가 없다.)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유로운 미소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그저 평온하게, 온갖 스트레스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도 체념인지,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 먹은건지 그저 씨익 웃으며 제 할일을 시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의미에서 그 여유로운 미소를 '짓기'위해서 튼튼하고 넓은 마음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짓고, 미소를 짓는것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같은 시간속에서

이루어지는 '짓다'의 의미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10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음이 단단하면 꿋꿋이 본인 길을 걸어갈 수 있듯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하는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마음이 넓은 것과 여유는 참 신기한 관계인 것 같아요. 경회님 글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여유로운 미소를 가지기도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이 마음이 넓기도 하니까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저 경회님의 글에 나온 것처럼 미소짓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그러네요 집을 짓는 것과 미소를 짓는 행위는 분명 같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2023/11/13

monday, pm 8:42 | 16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1일차 #짓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집 안에 작은 불빛이 켜진다. 다른 가족들보다 하루를 좀 더 일찍 시작하는 나는 제대로 씻지도 않고 주방으로 간다. 주방이 밖에 있는 탓에 눈을 비비적거리며 문을 열고 나간다. 추운 겨울 날씨에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고 손과 발은 꽁꽁 언다. 빨개진 손으로 가장 먼저 든 건 장작이었다. 아궁이에 불을 때워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에 나는 추위에 얼어 움직이지도 않은 손으로 겨우겨우 불을 피운다. 아궁이에 불이 활활 피어오름과 동시에 굴뚝에는 연기가 폴폴 풍긴다.

쌀가마를 살펴보니 다섯 식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고작 3인분 밖에 되지 않는 보리를 보며 절로 한숨이 나온다. 오늘은 어떻게 밥을 먹어야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일단 꽁꽁 언 물부터 녹이기로 한다. 솥에 물을 부어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물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끓는 물을 잠시 대야에 부어놓고 빈 솥에는 보리를 붓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물을 부어 뚜껑을 덮은 후 밥을 짓는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쪼그려 꾸벅꾸벅 졸다 눈을 떠보니 솥에서는 하얀 연기가 내뿜고 있다. 옷깃으로 뚜껑 손잡이를 잡고 열어보니 뜨거운 연기가 시야를 가린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연기 사이로 윤기가 흐르는 노란 보리밥이 보인다. 큰 나무주걱으로 밥을 휘젓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이 찰진 밥을 그냥 먹으면 좋으련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아까 끓이고 남은 물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붓는다. 그리고 밥이 눌러 붙지 않게 천천히 휘젓는다.
밥이 물을 먹어 뭉글뭉글 해질 때쯤, 집 안의 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고, 자고 있던 가족들은 어느새 일어나 있다. 바깥 양반은 성격이 급한 탓에 벌써 옷을 갈아입고 식탁 앞에 앉아있었고, 아들 셋은 밍기적거리며 내가 새벽에 미리 끓여 둔 물로 씻는다.
그렇게 몇 십 분을 젓고 나서야 3인분이었던 보리밥은 어느새 모든 식구가 배불리 먹어도 될 정도로 불어 있다. 대접 같은 그릇에 보리죽을 담고 나서 집 안을 슬쩍 보니 바깥 양반은 헛기침을 하며 얼른 내놓으라고 재촉한다. 재촉에 못 이겨 재빨리 그릇을 들고 식탁에 두니 온 식구가 뜨거운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는다. 새벽부터 일어나 몸이 피곤하고 무겁지만, 잘 먹는 가족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하나 둘씩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가는 가족들을 보고 나서야 나도 낫과 망태기를 들고 저녁 거리를 찾아 나선다. 추운 겨울에 캘 수 있는 나물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 되지만, 그럼에도

집을 나선다. 산골찌기에 도착하니 다행히도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보인다. 얼기 직전의 손을 겨우 움직이며 작게나마 있는 나물을 캔다. 오늘 저녁은 나물죽이겠구나, 얘들이 싫어할텐데...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자 반도 못 채운 망태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비록 오늘은 나물죽이지만, 언젠가는 갓 지어 뜨거운 쌀밥에 생선을 올려 먹을 수 있는 날이 있겠지? 멀고도 먼 행복을 상상하며 추위에 언 발걸음을 재촉한다.

11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옛날 동화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조금 긴 글이라 지루하셨을텐데 끝까지 읽어주시고 옛날 동화같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김현지(경영) 글 속의 표현들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현지(경영)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긴 글임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하영님의 글을 읽으니,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은 표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너무 감동이네요ㅠㅠ 많이 부족한 글이었을텐데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런 댓글도 남겨주셔거 감사합니다!!

2023/11/13
monday, pm 8:43 | 13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1일차#짓다

갑옷을 짓다
신유정

촘촘하게 빼곡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단단한 마음들을 짓는다

여기저기 부딪혀서
와르르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셀 수 없이 여러 번
다시 쌓고 엮어서
단단한 갑옷 짓는다

속상한 일도 화나는 일도
내가 만든 화도 비난도
밖에서 보내는 화살도

다 빗겨나간다 쌓인다
오랫동안 공들여 지은
내 마음속 갑옷으로
나를 지킨다

'짓다'라는 단어를 보고 '옷을 짓다 '라는 의미가 생각이 났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서 세상이 온통 나를 찌르는 화살로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그 화살에 맞아 좌절하기도 여러 번 이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는 힘들어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했었던

일들이 괜찮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단단한 갑옷을 만들고 나서부터다. 지금은 여기저기 맞고 찢겨도 덜 아프다. 튼튼하게 오랜 경험으로 지은 갑옷이 마음을 지켜준다. 보호해 준다.

9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내 마음속 갑옷이 녹슬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신경써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신유정 (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생의 갑옷을 만들어 간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갑옷은 섬세하게 만들지 못하면 적에게 쉽게 당하지만 심혈을 기울여 만들면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죠. 저도 유정님도 그런 갑옷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에게도 여기저기 맞고 찢겨진 갑옷을 입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튼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역시 갑옷은 저를 보호해주고 있네요

2023/11/13
monday, pm 9:03 | 14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1일차

나는 글짓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어렸을 때부터 글짓기를 좋아하고 꾸준히 글짓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었고 계속 글 쓰는 연습을 간간히 하다 보니 나만의 생각과 상상력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다. 내가 지은 글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설익었지만 나만의 재료가 들어간다. 오늘은 내가 자주 만드는 이야기 비빔밥 레시피를 알려주겠다.

<이야기 비빔밥 만드는 법>

준비물 : 따뜻하게 데운 생각, 잘게 썰어둔 자음, 물에 한번 데친 모음, 고소한 어조, 잘 숙성된 상상력 한 스푼

1. 이야기를 지을 그릇을 꺼낸다.
2.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간단히 정해둔 생각들을 그릇에 넓게 펴준다.
3. 생각에 맞게 넣고 싶은 자음과 모음을 실컷 넣고 버무린다.
4. 자음과 모음이 잘 섞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면 더 기름진 이야기밥을 만들기 위해서 어조를 한 스푼 짜서 같이 비벼준다.
5. 쌉싸름하게 매콤달콤한 상상력을 위에 얹어서 같이 비벼 먹으면 완성이다.

12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이야기 비빔밥이라니! 아주 순수한 동화에만 나올 것 같은 표현이라 너무 재밌었어요 :)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창의적이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글 너무 좋아요!
신유정 (심리학과) 이야기 비빔밥 한 번 만들어 볼게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야기 비빔밥이리는 단어 자체가 너무 귀여은 것 같아요!! 저장해놓았다가 성준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나중에 한 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혼자서 끄적끄적 거리면서 글을 자주 쓰곤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이야기 비빔밥이라니!! 표현이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3/11/13
monday, pm 9:10 | 15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11일차 #짓다

일상 중 소소한 행복 중 하나는
밥을 짓는 일이다.

전기밥솥이 대신 해주지만
쌀을 푸고 씻고 씻어내리면서
조금씩 맑아지는 쌀뜨물을 보면
마치 내 감정도 씻겨내리는 듯 하고
맑아지는 듯 하다.

밥을 짓는다는건 삶의 연결이고
내 삶의 연장선이다.

하나의 쌀로 여럿 먹을 수 도 있고
밥을 짓는다는건 여러의미가
담겨있다.

10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상민님의 소소한 행복은 밥을 짓는 일이시군요! 저의 소소한 행복은 따끈한 밥을 먹는 것이랍니다 흐흐,,, 글 잘 읽었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매일 밥을 짓다보니 가끔은 힘들 때가 있는데 상민님은 저와 정반대이신 것 같아서 부럽네요 ㅎㅎ 뭔가 저도 마음가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밥을 짓는다는 것은 삶의 연결이라 생각이 들어요 :) 동네에서 밥 짓는 소리들이 들리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미소를 짓게 되는 듯 해요

2023/11/13
monday, pm 9:27 | 16읽음
홍은기(영문학과)

#11일차 #짓다
커다란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던 11살의
준호는 마음속에는 한 순간 튀어나와
새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어했다. 소년을
아들로써 받아들이고 사랑해준 새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는 언제나 그에게 가족을
만들어준 사람이었고-

하지만 준호는 피곤했다. 닳고 닳아 지쳤다.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너무나 복잡해져 파도
바로 옆에서 모래성을 짓는 기분이었다.
새아버지의 언급을 듣기만 해도
바스러져갔다.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갔으니 준호도
그래야만 했다.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치 한 소설의 문단을 읽는 듯 한 기분이었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뭔가 어떤 내용이 더 담겨 있을지 궁금햐지네요 ㅎㅎ 챌린지가 끝나기 전에 속편을 만들어주시길 조심스레 바래봅니다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소설의 한 페이지를 작성한 느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그쵸 세상은 빠르게 흐르고 있으니 준호도 앞으로 나아가야할 것이고,,,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2023/11/13
monday, pm 9:49 | 18읽음
이주영(디미콘)

#11일차 #미소를짓다

오늘은 저의 생일이라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날인것 같습니다. 일년에 한번뿐인 생일에 사진도찍구 밥도먹고 디저트도 먹으며 친구들,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고 싶었던 음식점 ,가고 싶었던 카페 ,가고싶었던 가게를 가면서 행복했고 월요일이지만 내 생일이 휴일인것 처럼 즐거웠습니다.선물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꽃도 받는 순간 제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웃는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하고 행복한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남한테도 행복을 나눈다는 생각이 듭니다.저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싶습니다.미소를 짓는 순간의 행복을 다들 느껴보며 행복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11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생일 축하드려요! 일면식도 없지만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 마지막까지 제일 행복하시길 바라요!
이주영(디미콘)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직접 뵐 순 없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주영님의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번 주만큼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 바랄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이주영(디미콘)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늦었지만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항상 웃으면서 살고 싶어지네요~~~

2023/11/13
monday, pm 11:02 | 15읽음
라혜민(사회학과)

#11일차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미소를 짓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일 수록
'만들다'보다 '짓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밥을 짓고
미소를 많이 짓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지었나요?

10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음.. 저는 밥을 지은 하루였네요 ㅎㅎ 가족들 저녁을 제가 주로 맡다보니까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왠지 내일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리 삶을 지탱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표현이라 생각해요! 저는 어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지었지만, 밤에 몸이 좋지 않아 아픈 기억도 짓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13
monday, pm 11:08 | 15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11일차 #짓다
과제가 몰려 있는 시기라 정신없이 바쁜 요즘입니다. 사실 요 며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이팅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의 제시어를 읽었습니다. '짓다'..
생각해보니 슬슬 라이팅챌린지도 마무리 지어갑니다. 드디어 저에게 끝이 보이는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일에 성취감을 느끼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 힘으로 저는 이번 주를 살아야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되새기며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과제를 하며 열심히 쪽지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챌린지 완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8 3

가양선(경영학과) 챌린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요즘 과제에 치여 살아서 정신이 없네요 ㅎㅎ 라이팅 챌린지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라이팅 챌린지도 곧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와버렸어요 저도 소은님처럼 이번 주를 살아가야겠어요!! 같이 힘을 냅시다 !!!

2023/11/13
monday, pm 11:11 | 13읽음
정우현(인문학부)

#11일차
사랑을 짓는 것에 대해 많이 노력했다. 사랑이 고팠고 찾았고 지금은 우정까지 차지하려고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나는 행복하다. 사랑 짓기, 글짓기, 추억 짓기 등등은 나의 취미가 되었다.

무엇을 짓는다는 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와 추억을 쌓는 것 역시 너무 행복한 일이다. 추억을 그리워만 하다가 요즘엔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 중이다. 모르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 역시 추억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나 원래부터 친했던 사람들이랑만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성향이 많이 달라져서 생판 모르는 이들과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성향을 공유하고 친해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졌다.최근에는 동아리까지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한다.

무언가를 짓는다는 건 내 심장을 뛰게 해준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과 추억을 짓고 싶다. 그게 내 올해가 가기 전 소소한 꿈이자 목표이다. 사람들과 여럿이서 얘기하고 알고 지내는 게 굉장히 숨 막히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꽤 적응이 되고 즐기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다가 이제는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도 많이 생겨서 뿌듯하다. 앞으로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닌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이기도 하니까. 감사한 하루다.하이볼과 추억을 지으며 글을 마무리 하겠다!

8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짓는다는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이 돼요. 심지어 집이라는 공간 자체도 지음으로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곳이니까요 ㅎㅎ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무언가를 짓는다는 것이 심장을 뛰게 하는 행위라니 정말 공감이 가는 글인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13

monday, pm 11:17 | 10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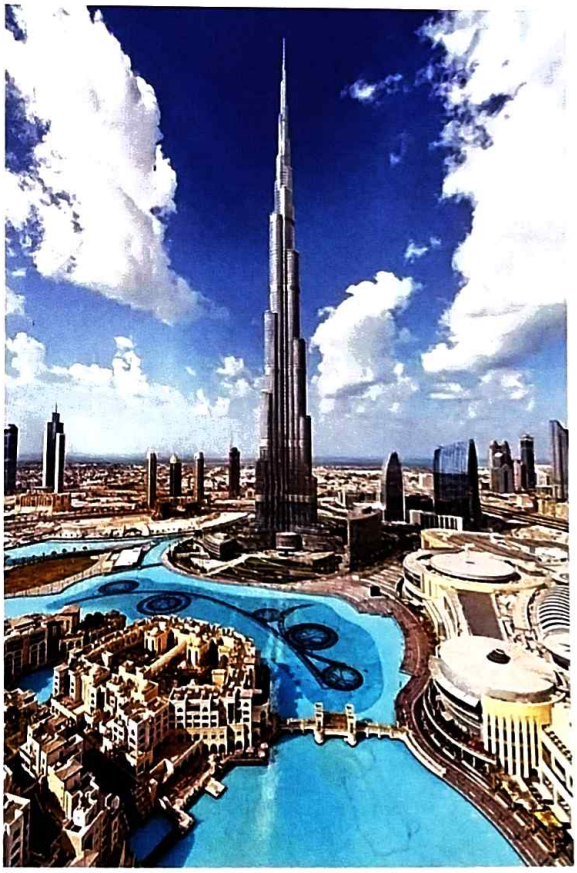
고다인(중국학과)

#11일차 #짓다
춘천은 고층건물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지만 더 큰 도시로 갈수록 초고층 빌딩이 많이 지어진것을 볼 수 있습니다.예전엔 63빌딩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지만 지금은 그정도가지고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못하죠.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인지, 초고층 빌딩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입니다.높이 828m, 총층수는 163층이고 내부에는 상업용 시설부터 거주공간까지 있다고 합니다.엄청난 높이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오래걸릴것 같지만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1분만에 올라간다고하니 놀랍습니다.

과연 몇 층부터 초고층 건물이라고 부를수 있을까요?사실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고 200m이상이면 초고층 건물이라고 부릅니다.튼튼하게 건물을 #짓기 위해 코어월(core wall)을 신경써야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 건설에 아주 중요합니다.인공위성을 이용한 'gps계측시스템'도 사용하여 지면과 완벽한 수직을 맞추기도 합니다.

오늘 #짓다 키워드로 몰랐던 초고층 건물 설계 및 건축에 관한 글도 읽을수있었고 흥미로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사진도 첨부합니다



☺ 7 ···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높은 것 롯데타워인데 늘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돼요. 사람이 지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구요 ㅎㅎ 두바이에 있는 높은 건물도 보고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고층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눈물이 담겨있을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두바이를 방문해서 사진 속 건물을 보고 싶네요

2023/11/13
monday, pm 11:21 | 12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1일차
짓다.
내가 태어나던 날, 부모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누군가에게 기억될 나 자신을 처음 알게 된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지어졌다.

태어난 뒤로는 인연의 연속이었다.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지어 새로운 경험을, 추억을, 사랑을 만날 수 있었고 그건 처음으로 내가 지은 것들이었다.

나이를 먹고 점차 성숙해지면서부터는 결정을 지었다. 내 행동, 선택, 말의 이유와 결과에 결정을 지는법을 배웠다. 책임과 결정은 내가 지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들 중 하나였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다.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겠으나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처음으로 내가 지은 것에 후회를, 절망을 해보기도 했었다.

지금은 글을 짓고있다. 내가 지은 것들 중 가장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이기에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살면서 많은 것을 지어나갈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짓게 될지 내가 지은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 수 없으나 그 끝에는 미소짓는 내가 있기를 소망한다.

8 3

고다인(중국학과) 죄를 짓다라는건 생각을 못했는데 이에 대해 생각해볼수도 있겠네요~글 잘 봤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떤 지음이 준호님의 인생에 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빛나는 것이기를 바랄게요!! 언젠가 미소를 지으며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준호님을 응원할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희는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짓고 또 지으며 살아갈 듯 해요

2023/11/13
monday, pm 11:25 | 13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11일차
[짓다] 약 2주 동안 글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글쓰기 실력이 많이 성장하셨나요? 전 2주 동안 글쓰기 실력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많고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더 풍부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글을 쓰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적어내면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적어내려가면서 마음의 정리도 되고 하나하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더 성장하는 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음도 실력도 다 성장하는 2주가 되었는데 남은 1주도 더 성장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7 3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1일차때보다 고민만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좋아지는거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2주이지만 꾸준히 써서 그런지 잘 쓰진 못해도 감은 잡히는 것 같네요 ㅎㅎ 앞으로 남은 일주일도 열심히 해보자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내니 생각이나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남은 1주도 열심히 해봅시다

2023/11/13

monday, pm 11:29 | 15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11일차 #짓다

'짓다'라는 단어를 본 순간, 글을 짓는 것이 생각났다.
어렸을 때 아빠한테 편지를 자주 썼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편지를 쓴 기억이 없다.
최근에 나는 아빠의 생일 하루 전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경춘선을 탔다.
경춘선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켜 글을 적어나갔다.
"아빠 안녕, 나 다혜야" 라는 말을 적었을뿐인데 눈물이 핑 돌았다.
매년 찾아오는 아빠의 생일인데, 환갑이라는 사실이 뭔가 찡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힘써준 아빠의 60년 세월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잘해주지 못한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았다.
근데 막상 아빠 앞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많이 표현하자고 마음 먹어도 잘 안된다.
이제라도 아빠에게 내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일텐데, 내 아빠라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옆에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8 3

고다인(중국학과) 쑥스러운 마음에 막상 부모님 앞에선 표현을 못할때가 있으니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 참 좋은거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렸을 땐 부모님께 편지를 자주 써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써드린 적이 언젠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다혜님의 글을 읽다보니 저도 올해가 가기 전에 써드려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고 어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 아빠에게 편지를 써드리고 싶네요

2023/11/13

monday, pm 11:52 | 10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11일차 #짓다

죄를 지은 이는 세상 앞에 고개를 떳떳이 들고 살 수 없다며 매사에 정직할 것을 종용하시던 조부께서는 뒷산에 묻히셨다. 다시 마주한 아득하게 오랜 본가는 여전히 낡기보단 고풍스럽단 감상을 준다. 고요하니 시간이 멈춘 듯한 집을 휘 둘러보다 대문을 나서 흙길을 걷다 보면 노오랗게 물든 벼가 바람에

술렁여 생기는 황색 파도가 시야에 들이친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이들, 시를 짓고 노래를
지으며 사는 옛 이웃들과의 해후는 더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피할 수 없게 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이가 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큰숙부께선 바다로 나간 뒤
소식이 없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동생에게
손수 한약을 달여 먹였던 조모님. 내게도 약
좀 지어 먹으라며 타박을 하셨던 그 분은
조부보다 앞서 흙 아래 묻히셨다. 짝지어
다니는 아이들과 무리 지어 다니는 새 떼들.
조잘거림과 재잘거림은 멀어져가고 정처없이
마을 어귀를 거닐다보면 하나 둘씩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마을은 불에 휩싸인 듯 온통 붉기만
하다. 그래, 매듭을 지을 때가 왔구나.

7 1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뭔가 어두운 글이라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글인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3/11/14
tuesday, am 12:14 | 24읽음
김양선

#1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그러고보니
일을 끝낼 때도 마무리를 '짓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오늘 우리 동료들이 지은 다양한
짓기의 이야기들 잘 읽었나요? '짓는다는'
행위는 생산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긍정적인
어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짓다'로 멋진 글
한 편을 지어낸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내일도
내일의 하루를 잘 짓고 쌓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11 1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4
tuesday, am 8:03 | 28읽음
김양선

#12일차 키워드 : 차다
'차다'는 뜻이 여러 개입니다. 발로
무엇인가를 '차다', 기온이 '차다' 사람이
인정이 없고 '차다'. 어떤 공간에 사람이나
물건이 가득 '차다', 심지어는 시귀던 사람과
해어질 때도 '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발음인데도 이렇게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게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성정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있는지요? 아니면 사람이나
물건이 꽉 찬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기분이 나빠서 혹은 기운이 넘쳐서
물건을 차 본적은요? 문득 요즘 바깥 공기가
차다는 생각을 하다 떠오른 키워드랍니다.

14 0

2023/11/14
tuesday, am 8:26 | 21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12일차

마구잡이로 붙잡은 손이 찼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대와 내 사이 또한 이 손처럼
차가워졌다는 걸.

나는 차였다. 술을 연거푸 마시는 수밖에
없었다. 겨울이 다가와 식어버린 찬 공기가
나를 괴롭히니까.

충격에 젖은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다.
그대를 떠올리며 울컥한 마음을 길 위
돌멩이를 차며 달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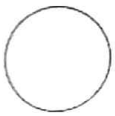
그대의 손은 찼고, 사이는 차가워졌고, 나는
차였고.

공기도 식어 찼고, 길 위의 돌멩이는 나에게 차였고.

그대 하나 없었더니 그래, 내 주변은 온통 차다.

16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차다'라는 동사가 새삼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랍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차다라는 의미가 정말 다양하게 쓰인 글이네요!! 너무 좋은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2023/11/14
tuesday, am 9:34 | 19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2일차
헤어지기로 결심한 그 날, 우리는 마음 한 켠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그 동안 쌓인 감정들이 차가운 공간에 떠도는 듯했다.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은 마치 공기처럼 실체 없이 떠돌기 시작했다.
마지막 대화는 비에 젖은 가로수길에서 이뤄졌다. 손을 흔들며, "안녕" 이라는 그 한마디가 물결처럼 흘러나왔다. 그동안 함께한 순간들이 추억의 물결처럼 다가오고는, 빗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간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갔다. 더 이상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고 헤어짐으로써, 그 사이에 있던 따스함이 차가운 현실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그 차가운 느낌이 계속해서 뒤쫓아왔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간극은 더욱 커져가고, 마치 식은 음료처럼 마음은 더 이상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식은 감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흩어져 나갔다.
헤어진 그 날, 우리는 마치 겨울의 어느 찬 바람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서로를 떠났다.
아마도 그 느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차갑고 냉랭해져, 추억 속에서 서로를 잊게 될 것이다.

13 2

박지원(사회학과) 헤어짐 속에서 차디찬 바람들이 불어오니, 헤어짐이 실감도 나고 그들은 분명 서로의 추억으로 남겨질 듯 해요
김현지(경영) 만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침표를 찍는일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헤어짐이 항상 좋을 수 없지만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죠 :)

2023/11/14
tuesday, am 10:30 | 20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12일차
시간이 참 빨리도 흘러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네요.
아침에 등교교를 하려 길을 나서니 공기가 매우 '차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부쩍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수능이 다가오니 더 체감이 드는것 같네요.
시간이 참 빨라 새내기였던 날이 어제같은데 저는 이제 곧 4학년이 됩답니다. 추억도 많고 힘든일도 많았던 학교지만 곧 떠날 날을 생각하니 시원섭섭한 기분도 들고 사회에 나갈 생각에 두렵기도 하네요. 하지만 시간은 또 빨라서 이런 걱정들로 날을 세웠던 저의 청춘 한 시절을 추억하겠지요.
날이 많이 차가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 남은 1달반, 최고의 연말 보내시면 좋겠네요~!

16 4

김서현(광고홍보학과) 맞아요 요즘 날씨 정말 춥죠 ㅠㅠ 지호 님께서도 남은 한달 반동안 건강히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지호님의 추억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은 시간 소중히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아직도 올해가 한 달 반 남았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흑흑,,, 모두들 행복한 연말 되시길~~!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건강 조심하세요! 남은 2023년 멋지게 유종의 미 거두시길 바라요

2023/11/14
tuesday, am 10:32 | 18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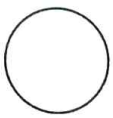
#12일차

축구공을 발로 차 골을 넣을 때의 쾌감과 친구들의 환호성이 떠오르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능을 치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월드컵을 함께 응원하는 기억들이 누구든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청춘에 걸맞은 과거이며 추억들이다. 누군가는 지금도 추억의 상자를 채울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세월이 지나면 추억으로 가득 찼던 청춘을 돌아보지 않게 될까. 미래의 내가 돌아보았을 때 되돌아가고 싶은 '오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 몇 시간 후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이다.

15 2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충민님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듯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제가 사는동안 또 한 번의 2002년 월드컵 열기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해요!



2023/11/14
tuesday, am 10:46 | 20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2일차 #차다
저는 살면서 들어본 저의 첫인상 중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차갑다'라는 말 입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친구들에게 여럿 들어와 익숙한 말이었으나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도 저의 첫인상에 대하여 차갑다고 말하는 동기들이 많아 신기하면서도 안 좋은 의미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차갑다는 말이 곧 무섭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종종 동기들에게 내가 무섭냐는 질문을 몇번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때마다 동기들은 저에게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진다며 무섭게 생긴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차가운 인상을 탈피하고 다가가기 쉬운

인상으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가지의 방법 중 많이 웃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이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허나 동기들이 차가운 인상 또한 저를 나타내는 이미지이며 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만의 분위기로 밀고 나가라는 말을 해주어 현재는 저의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 4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저도 분위기나 여러모로 어렵다, 차가워보인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솔직히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알고보면 밝은 성격이라며 '차가워보이는 인상에 그렇지 못한 성격'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저도 그 장난을 재밌어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다연 님께서도 재밌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오히려 차가운 이미지가 더 매력있고 상대가 궁금해지는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머 저는 오히려 차갑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 사람이예요! 누가봐도 저는 너무 헤헤실실 거리는 이미지라,,,,, 시크한 사람이 되고 싶으네요!!!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도 무표정을 지을 때 줄곧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만의 분위기이니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공감가는 글 좋았습니당 :)

2023/11/14
tuesday, am 11:19 | 16읽음
김서희(심리학과)

#12일차
바깥공기가 이번 주에 들어 더 차가워졌다. 차가운 공기를 맡으면 조금은 더 종강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한다. 작년에는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까지 공기가 차가운 줄은 몰랐다. 차가운 공기를 맡으면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나는 차가운 공기가 좋다. 곧 새해가 오고 내년에도 차가운 공기를 마주할 때면 어떻게 내가 더 변화해 있을지도 궁금하다.

12 4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차가운 공기를 정말 좋아해요~ 내년에는 어떤 차가운 공기일지, 저의 모습은 어떠할지 궁금해지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겨울날 너무 추우면 마스크도 쓰곤 해요 은근 바람을 막아주더라구요!! 크크,,, 글 잘 읽었습니다 :)
김현지(경영) 겨울이 오면 내년을 계획하기에 서희님의 글을 읽고 내년의 더 발전된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
가양선(경영학과)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4
tuesday, am 11:23 | 21읽음
홍은기(영문학과)

#12일차
#차다

"너 벙어리 장갑 낀 거야?" 민아는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인 남자가 벙어리 장갑 낀 거 처음 봐." 준수의 양손의 흰색 털장갑 한쌍은 줄로 이어져 있어 준수의 뒷목을 감쌌다. 준수는 얼굴 보자마자 듣는 소리가 모욕인 것에 기분이 나쁜지 미간을 찌푸렸다.

"벙어리 장갑 혐오 표현인 건 아냐?"

"몰랐는데." 민아는 준수의 왼손에서 장갑을 벗기고 자신의 오른손을 녹였다. 장갑은 귀여운 자태와는 달리 보온력은 확실한지 민아의 빨간 손과는 달리 온기가 느껴졌다.

"차다." 준수가 몸서리를 치면서도 민아의 손을 쥐었다. 민아의 손이 준수의 비교적 큰 손으로 덮였다.

15 5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벙어리 장갑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소설의 한 장면이라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오 처음 알았네요 귀여운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홍다연(정치행정) 벙어리 장갑이 혐오표현이라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은기님의 글을 읽고 처음 다시 생각해보게되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절로 머릿속에서 둘이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는 글이네요:)
김현지(경영)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은기님의 글을 읽고 이러한 표현은 자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23/11/14
tuesday, am 11:56 | 17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12일차
너는 스스로를 찬 사람이라 이야기했다.
감정의 농도가 남들보다 짙어서 관계를 맺는 게 지쳐버렸다고.
어느 순간부터 남들에게 벽을 치고, 찬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한 번도 너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없었다.
이토록 뜨거운 온도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차가울 수가 있을까.
잠시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왜 스스로를 차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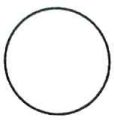
너는 침묵을 사랑한다고 했다.
침묵이 어색하다는 듯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더 힘들다고 했다.
침묵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침묵을 사랑한다는 네가 좋았다.
억지로 대화를 끌고 가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 있는 시간도 온전히 누리는 것 같아 부러웠다.

만약에 네가 정말로 차다면, 그건 따스한 냉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13 4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너무 좋은 사랑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침묵을 좋아해요. 특히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상대와의 침묵은 무언가가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기분이 들면서 그것이 따스함이라 생각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정말 가까운 사이는 그 침묵과 정적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따듯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라혜민(사회학과) 온도는 상대적이듯이 관계도 누구와 맺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듯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12:01 | 18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12일차 #차다

차다.
Tea 이다.
Car 이다.

되도 않는 말장난을 해본다.

차갑게 느껴져 마음이 뇌가 얼어붙으면 되도 않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작동도 멈추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따듯하게 포근한 기온에서야
원활하게 내 신체가 작동하는 것 같다.

이번 겨울은 어떨지 의문이다.
추워도 문제고 더워도 문제인 날씨.

14 3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적당한 따듯함이어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래서인지 저는 강의실이 따뜻한 게 너무 좋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상민님의 겨울이 따듯했으면 좋겠네요 :)

2023/11/14
tuesday, pm 1:38 | 19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2일차
요즘에 몸이 몹시 차다. 날씨가 엊그제 가을이고 단풍잎이 떨어졌던 거 같은데 금새 겨울이 와버려 나뭇잎을 모두 떼 갔다. 요즘은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아침에 영하 3도라는 말도 들은 거 같은데 너무나도 춥다. 옛날에는 11월 중반에 패딩을 꺼내 입는 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릴 적 우리에게 겨울은 12월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날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11월에도 우박이 펑펑 쏟아지고 눈이 내린다고 한다. 참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손발이 너무나도 차다. 꽁꽁 얼어버린 손을 끼릭끼릭 움직여 눈을 굴린다. 눈덩이 위에 눈덩이를 올리고 돌멩이로 장식해주면 눈사람 완성이다. 바짓가랑이로 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썰매도 탄다. 내 엉덩이는 시릴 줄을 몰랐다.

이제는 아니다. 너무 추워서 밖에 아주 잠깐만 발을 내딛어도 호다닥 안으로 들어온다. 내 엉덩이는 너무 시렸는지 감각이 없다.
뜨거운 핫포코로 온 몸과 마음을 적시고 싶다. 수증기가 펄펄 나는 가마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싶다.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요즘 전기장판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랍니다 크크,, 글 잘 읽었습니다 :)
김현지(경영) 저도 중학생 때는 눈썰매를 탔는데 이제는 롱패딩 입고 눈 최대한 안맞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ㅎㅎㅎ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요즘은 어디서 핸드폰이나 노트북만 해도 손이 금방 차갑고 추워지는 것 같아요 ㅠㅠ 뜨거운 핫초코를 마시고 싶어지는 계절인 듯 해요

2023/11/14
tuesday, pm 2:57 | 16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2일차 #차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다. 밖을 나갔다오면 온몸이 냉동참치 마냥 차가워진다. 나는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다. 식물들의 잎이 지고 모든 것들이 차가워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겨울에 파는 길거리 간식들은 정말 좋아한다. 겨울에 길을 다니다보면 길 한 구석에 포근한 온기와 고소한 냄새를 내뿜는 곳들이 있다. 바로 붕어빵과 풀빵, 호두과자 그리고 계란빵 등을 파는 곳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있는가 !!

나는 붕어빵 중에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한다. 사실은 내가 팥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치만 둘 다 맛있다. 그 중에

슈크림 붕어빵을 더 선호하는 것 뿐!! 날이 차가워진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차가운 겨울이 오는 대신 따뜻한 간식들이 우리 곁으로 올테니

13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풀빵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슈크림 붕어빵을 더 좋아해요
김현지(경영)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간식 중 붕어빵이 최고인 것 같아요..ㅎㅎ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붕어빵 너무 좋아해요 !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슬슬 겨울 간식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전에 붕어빵을 먹었는데 요즘은 붕어빵 하나가 1000원이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맛있으니 사먹게 되더라고요~~~ 겨울에는 오뎅국물도 정말 좋아해요

2023/11/14
tuesday, pm 3:38 | 18읽음
김현지(경영)

#12일차 #차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까만 원형의 기둥 통은 크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불이 닿았을 때 열기를 뿜어냅니다.
빨간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온기를 선사하고
따듯함을 제공합니다.

시를 통해 타인에게 따듯함을 준 적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따듯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따듯한 시선, 따듯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되는 것 같아요.

따듯한 눈 인사
서로를 귀여워 하는 마음
작은 선물
깜찍한 이모티콘
등등... 오늘도 주변의 고마움들에게
따듯함을 느낍니다.

11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그 시를 좋아해서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었어요 :)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은님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밤 되세요 :)
박지원(사회학과) 시가 정말 타인에게 따뜻함과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따듯한 시선,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표정, 말투까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ㅎㅎ 지원님 좋은 밤 되세요 :)

우리끼리, Band!

2023/11/14
tuesday, pm 4:02 | 18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2일차 #차다

요즘 날씨가 매우 차다.
찬 날씨에 목도리를 오랜만에 꺼내 매일 아침 목에 두르고 나간다.
매일 차가운 음료만 먹다가 오늘은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핫초코를 마셨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이번에는 자취방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겠다고, 트리 그림 페브릭 포스터, 앵두 전구와 각종 트리 장식을 구매하여 꾸밀 예정이다.
따뜻한 음료와 크리스마스를 찾는 내 모습을 보니, '겨울이 다가오기는 하구나' 느꼈다.

이번 겨울에는 눈 오는 날에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멍하니 눈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고 싶다. 귀여운 눈사람, 거대한 눈사람, 미니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들과 눈싸움도 하다가 구르고.
이번 겨울에는 집에서 마시멜로우를 올린 핫초코를 마시며, 빔프로젝트로 큰 화면으로 겨울 분위기 나는 영화를 보거나 여유롭게 캐롤을 들으며 보내고 싶다.

찬 날씨에 따뜻한 분위기, 상상만으로도 낭만적이고 설렌다.

모임이 쉬워진다!

12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올해 처음으로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볼 생각에 너무 설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라혜민(사회학과) 트리를 보니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네요!! 감기 조심하세용~
가양선(경영학과) 사진이 너무 예뻐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으악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정말 연말이 다가왔네요 이번 크리스마스때는 꼭 여유롭고 캐롤을 들으면서 보내고 싶네요~~~~

2023/11/14
tuesday, pm 4:22 | 17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2일차 #차다
무엇이든지 다 꽁꽁 얼려버리는 계절이 왔다
이불밖은 위험해, 밖에 나갈 때, 샤워를 하기 전에도 따뜻한 공간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들게 하는 차가운 계절이다. 더군다나 나는 기분이 안좋을 때 긴장할 때 속상한일이 생길 때 온몸이 속에서부터 차가워진다. 바깥의 온도와는 상관없이 차갑고 콕콕 찌르는 통증이 차디찬 계절과 만나면 커다란 얼음이 된다.

이 얼음 집에가서도 녹이려면 한참동안
이불안에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 녹여줄 다른
것을 찾아봐도 우리집 내 방 이불 속 밖에
없다.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에 정신못차리고
녹아있었는데 지금은 찬 공기에 꽁꽁
얼려져있어 몸과 마음이 뻣뻣해지며 그냥
잠들어버리고 싶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요즘 완전히 녹아져버리지도 않는 얼음이
나는 정말 싫다. 답답한 마음 식혀주는 시원함
아니라서 싫다.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모든 게 추운 겨울보다는 그나마 더운 여름이 낫더라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춥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오뎅국물, 호떡, 붕어빵, 계란빵 등 겨울 간식을 먹으면서 저를 녹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쓸쓸한 겨울 노래를 들으며 그 속에서 잠드는 것을 좋아하는 듯해요
김소은(미디어스쿨) 얼었다 녹았다 체력적으로 힘든 요즘이지만 이 추운 날씨만의 낭만을 찾아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

2023/11/14
tuesday, pm 4:46 | 17읽음
조석환(심리학과)

#12일차
달이 기울었다. 별들의 합창을 건져올린 새벽
무렵에 꼬리별 하나가 지평선 너머로 뚜-욱
떨어진다. 삼백육십며칠동안에 쌓이고 쌓인
나의 잘못과 거기에 떨어져 나온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한 숨으로 삐져나와 얼어 붙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를 길가의 자동차에
성에가 되어 내려 앉는다.
언제나 늘 이 때 즈음에 남아있는 싸늘한
공기가 닻을 내린다. 북극성의 등대 불빛에
따라 카시오페이아의 계류장에 정박한 그
날들의 기억은 추억과 뒤엉켜 한 층더 나를
숙연해지게 만든다.
땅거미도 서둘러 떠나간 오늘. 쓰러진
쓰레기통에게 미움 받아 넘어진 나의 한탄이
미래가 되지 못 한 밤들의 여비를 대신
치뤘으니 나는 그 누구도 알지 못 하는
서사시를 새로운 해에게 마저 이어간다.
#차다

15 2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자연스럽게 상상이 가는 글인 것 같아요! 석환님의 글은 항상 고요하면서도 웅장하고 심오한 글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부족한 글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14
tuesday, pm 4:59 | 16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12일차 #차다
날씨가 요즘 갑자기 차다. 이런 날, 밖에서 찬
공기를 쐬면 손발 끝이 빨개지곤 한다.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가 나를 확
감싸는 느낌이 든다. 내 주변에만 한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다. 곧이어 전기장판을 키고
이불을 덮으면 차가워진 손에 뜨뜻한 열기가
서서히 찬다. 열기가 가득 차올라 노곤노곤
해질 때쯤 시원한 귤 몇 개를 가져와 까먹다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그렇게 집에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구름 한 점 없이 가득
찬 하늘이 어느덧 뉘엿뉘엿 노을이 지곤 한다.
얼른 집에 가서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14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수업이 끝나고 얼른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집에 후다닥 가서 누워야겠어요.

라혜민(사회학과) 따끈한 이불 속에 들어가 먹는 귤은 세상 달콤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듯 해요. 남은 하루도 소소한 기쁨이 함께하길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힐링인 것 같아요~~
김소은(미디어스쿨) 날이 추워서 그런가 집이 더욱 그리워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4

tuesday, pm 6:13 | 15읽음
문정희(법학과)

#12일차
한 해를 정리하는 겨울.
가장 춥고 춥기에 따뜻함을 찾게 된다

내가 이 챌린지를 시작할 때 가을을
적었지만
어느새 겨울을 적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잊게 한다

어제는 유난히 춥고 힘든 하루였지만
겨울날씨가 주는 차가움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벌써 끝나가는 올해가 너무 아쉽고, 슬프다

☺ 13 ⋯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아직 올해 추억할 만 한 일을 하나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연말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ㅠ..ㅠ !!
박지원(사회학과) 그러게요, 이 챌린지를 시작할 때는 가을이었는데 벌써 겨울을 적고 있네요 :) 저도 올해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좋기도 하면서도 너무 아쉽고 슬픈 것 같아요

2023/11/14

tuesday, pm 6:37 | 14읽음
조성현(철학과)

#12일차
요즘 들어 물건이 가득찬 방을 보니 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계속해서 채우기만 했던 삶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물건을 사고 가득차있는 방을 보면서 마음을 채웠던 걸까요

요즘은 그런 꽉 찬방이 갑갑하게 느껴지기도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샀던 물건들이라도 다시보면 필요없게 느껴집니다. 이제 바쁜 날도 거의 끝나갑니다. 동아리 활동,학술제 활동 등등 여러가지를 하다보니 정신없이 살아 방도 청소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깔끔하게 방을 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건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아닌 다른 방식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왕이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 11 ⋯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한 때 귀여운거라면 실용성이 없어도 마구잡이로 샀더니 방이 꽉 차 버렸어요 크크,,, 기말고사가 끝나면 반드시 청소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요즘 귀여운 것들이 저의 공간을 차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들을 다 치우기엔 너무 귀여워서 적당히..~ 치우려고 해요!! 파이팅합시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앞으로는 더욱 가치 있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

2023/11/14

tuesday, pm 6:47 | 15읽음

정우현(인문학부)

#12일차
겨울이라 날씨가 참 춥다. 차갑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하고 추위에 약한 내가 살아남기 쉽지 않은 계절이다.

겨울에는 항상 좋은 추억들이 떠오른다. 첫사랑을 만났던 계절도 겨울이었고 초등학생 때 재밌게 봤던 포레스트 검프를 보던 계절도 겨울이었다. 항상 겨울에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아마 추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날씨가 덥기보다 추워지면 확실히 각성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원래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성격인데 겨울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기분이 든다. 매년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유독 겨울이 좋다. 많은 겨울이 쓸쓸하고 외로웠다. 비참했던 날들도 많았다. 이제는 가슴이 먹먹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후회되지도 않는다. 추운 날씨를 괜히 미워하며 추운 날씨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춥다고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계절이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싶어진다. 요즘 인생이 잘 풀리는 거 같아 기분이 좋다. 언제나 내 인생은 막히고 또 막히고 너무 막혀서 평생 뚫리지 않을 거 같은 길들이 이제는 열리고 있다. 통로가 열리고 날씨가 추워져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다른 통로로 이동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나아가려고 한다.

찬 날씨가 싫기만 했는데 오히려 차서 좋다. 찬 날씨에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고 싶다.

11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현님은 겨울에 많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군요~! 저도 올해부터는 겨울에 좋은 추억을 가지도록 노력해봐야겠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포레스트 검프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얼른 눈이 내려서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김소은(미디어스쿨) 길이 열리고 있다니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네요 즐거운 겨울 보내시길 바라요!

2023/11/14

tuesday, pm 8:05 | 15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12일차 #차다

짧아도 좋으니 매달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은 솔직히 말해,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약조한 것이니 지키기야 하겠으나... 마지막으로 펜을 잡아본 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마찬가지로 두서 없을 글에 미리 사과합니다.
그래요. 첫 편지는 당신의 첫인상에 대해 써달라 하셨지요.
이제 와서 무얼 숨기겠습니까. 당신은 특이했습니다.
온갖 장신구를 주렁주렁 찬 사람을 특이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이도 있겠으나 그게 저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
.
.
요즘 날이 참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만 총총.

=

답서 받았습니다.

어투가 너무 사무적이라고요.
맺음말은 상사에게 보내는 편지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전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은 감기가 유독 심하게 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좋습니다. 날씨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죠.
.
.
.
이지러진 달이 다시금 차기까지,
평안하십시오.
그럼 이만 총총.

=

당신의 마음에 차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라니. 그 정도로 못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으니 저도 눈동자에 대해
말하죠.-
-사실 처음의 편지는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그저 말하지 않은 게 있었을 뿐이니
거짓은 아니군요.-
-당신이 내 쪽을 바라보아 즐거움에 찬
그대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내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총총.

=

행여나 편지가 너무 짧다며 원망하진
않으시겠지요.
낱말을 고르고 또 고르다보니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전 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 총총.

=

서두를 어떻게 떼어야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난 편지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이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군요.
이미 끝난 사안에 이리 구는 것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마지막 당신의 말이 내 귀에
못박인 듯 하여...
당신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속이 당신께 해가 될까 차라리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기쁨으로 빛나는 당신의 눈을 봤을 때 저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슬퍼하는 당신의
눈은 저 또한 슬프게 했습니다. 허나 미움에
찬 눈만은 절 당신과 같게 만들지 못하더군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날 입 안에 가득
찼던 말은 내뱉는 찬 숨에 녹아 사라지고
말았는지.
침묵하여 당신의 신뢰를 잃어놓고 전 다시금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는 못난
자라 미안합니다.
끝의 끝에서야 말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안녕하십시오.
총총.

11 1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마음이 뭉클해지는 글인 것 같아요..!!! 추운 날에 이렇게 따뜻한 글 감사합니다

2023/11/14

tuesday, pm 8:08 | 16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2일차 #차다

수능이 다가올 때가 되면 따뜻했던 날씨도
변덕을 부리기 시작한다. 저번 주까지
포근했지만 갑자기 이번 주부터 차가운

공기가 온 세상을 휘감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는 싫지만 그럼에도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겨울 간식이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슬슬 겨울 간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제는 붕어빵을 파는 포차에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보았다. 바람이 불어 패딩을 입지 않으면 몸이 얼 정도의 날씨임에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거리며 포차 앞에 있었다. 붕어빵을 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손난로를 만지면서 포차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손에는 어묵꼬치가 있었다. 김이 폴폴 나는 어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침이 고였다. 지나가던 길이라 먹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을 기약했다.

나는 겨울 간식 중에서도 어묵을 가장 좋아한다. 그냥 어묵보다는 아주 아주 추운 날씨에 포차 앞에서 옹기종기 서서 먹는 어묵을 좋아한다. 일단 포차에 들어가면 어묵꼬치가 몇 개정도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꼬치 하나를 집는다. 퉁퉁 불은 어묵에 간장을 살짝 뿌려 먹으면 오랫동안 국물에 잠겨 어묵 속에 갇혀있던 어묵즙이 입 안에서 퍼진다. 그렇게 한 입, 두 입 먹다보면 꼬치 한 개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약간 텁텁해진 입 안을 가시기 위해서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따른다. 뜨거운 국물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 더 하얀 김이 풍기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킨다. 혹여나 입천장을 데일까 어묵 국물을 정성스럽게 후후 불어 한 입 마시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몸 속에 남아있던 차가운 공기를 사라지게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나선 마치 아저씨처럼 크으 소리를 낸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보면 눈 앞에는 빈 어묵꼬치가 줄지어 있다. 더 먹을까 고민하다 옆에 있던 붕어빵을 보니 거기에 눈길이 더 간다. 누군가는 팥이냐 슈크림이냐 고민할 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팥을 고른다. 가장 좋아하는 팥 붕어빵을 주문한 후 기다리는 동안 어묵꼬치를 한 두 개 더 먹는다. 주문한 붕어빵이 나오고 가는 길이 아쉽지 않게 종이컵에 어묵국물을 가득 담고 나온다. 팥이 가득한 뜨거운 붕어빵을 손에 들고 항상 머리부터 먹는다.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꼬리는 마지막에 먹어야 더 맛있다. 그렇게 붕어빵을 한 입 먹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어묵국물을 한 입 마시면 그렇게 행복한 순간도 없을 것이다.

그래, 이 맛에 겨울을 즐기는 거지. 몸을 얼릴 정도로 차가운 날씨가 이토록 반가운 건 겨울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옛날만큼 마음껏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민음식이던 붕어빵과 어묵도 가격이 많이 올라 같은 오천원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은 달랐다. 심지어 양은 더 적어진 듯한 기분에 가끔은 옛날이 그립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겨울 간식을 포기할 순 없는 건 겨울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간식의 조화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에 먹을 간식을 위해서 현금을 많이 뽑아두어야겠다.

13 9

가양선(경영학과) 겨울 간식을 위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요즘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양선(경영학과) 양선님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요즘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하지만 예전보다 붕어빵집을 찾기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 슬프기도 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ㅠㅠ 예전에는 포차가 줄지어 있었는데 이젠 보기가 정말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붕어빵 포차가 있는 곳이 따로 표시해주었네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겨울에 먹는 어묵이랑 붕어빵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은 포차가 많이 사라져서 아쉬워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그러게요ㅠㅠ 그 많건 포차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래서 저는 포차가 있는 곳을 따로 표시해두었네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은(미디어스쿨) 수업 끝나고 호떡을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은게 내내 아쉽네요 저도 현금을 두둑히 챙기고 다니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먹어야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소은(미디어스쿨) 지금 아니면 언제 먹겠어요!! 아직 겨울은 많이 남았으니 우리 천천히 즐겨보자구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하영님 글을 읽으니 오늘은 꼭 포장마차 가서 오뎅을 먹고 한 손에는 붕어빵을 포장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8:08 | 17읽음

가양선(경영학과)

#12일차 #차다

겨울이 오면 늘 손이 얼어버리는 나와 언니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핫팩을 많이 구매하신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새학기가 다가오면 낯을 거리는 성격 때문에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늘 밝게 다가와 준 따뜻한 친구들이 있었다.

차가움을 녹이기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누군가의 차가움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14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양선님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겨울이 본인을 드러내는 것 같으면, 바로 다이소에 달려가 핫팩을 구매하곤 해요! 양선님과 공통점이 생긴 것 같아 좋네요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누군가의 차가움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끔은 용기가 없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자신감 있게 행동한 적이 없네요 이제는 꼭 노력하고 도전해봐야겠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양선님에게 다가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차가운 손을 가졌지만 그 속에 뜨거움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ㅎㅎ 어쩌면 양선님은 이미 따뜻함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죠!! 이젠 그런 양선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아닐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14
tuesday, pm 9:46 | 16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2일차 #차다

축구공을 차다, 얼음이 차다, 바람이 차다, 연인을 차다 등 '차다'라는 표현은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눈빛이 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단지 나의 기분이 좋지 않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찬 눈빛을 보내며 까칠하게 대했던 적이 있었나.
나는 어렸을 때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 나의 기분대로 행동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별로였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은 다행히 그 부분을 고쳤고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사람들에게 찬 눈빛을 얼마나 보였는가

☺ 13 ⋯ 5

이유빈(사회학과) 저도 기분에 따라 차가운 눈빛이 되기도 하는데 사회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쳐야겠어요!!
김현지(경영)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ㅎㅎ 지금은 거의 없어진 저의 모습인데 앞으로 만나는 타인에게 따듯한 눈빛으로 많이 대해주신다면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질거에요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가끔씩 감정 조절이 잘 안될 때가 있곤 하죠.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에서 비롯된 찬 눈빛을 많이 장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첫인상이 차갑다는 얘기도 듣죠.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바꾸기 보단 친해짐으로허 본래의 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유난히 남자친구에게 감정기복을 심하게 부리곤 하는데 꼭 고쳐봐야겠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9:50 | 12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12일차 #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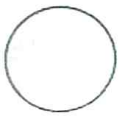
인상이 차갑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내게 쉽사리 말을 건네지 못한다.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다. 군대에 있을 때 후임들이 나를 무서운 선임 중 한명으로 뽑기도 했다. 한 번도 그들을 혼낸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웃음기가 없는 무표정으로 지내서일까.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서러울 때가 있다.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다.
웃음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웃음이 나를 떠나간 것일까.

☺ 10 ⋯ 3

박지원(사회학과) 인상이 차갑다는 뜻은 그만큼 매력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웃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고 다니시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습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고 연습해보세요!! 조금 나 자신이 웃기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효과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박지원(사회학과) 웃는 연습 조금씩이라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평소엔 무표정이라서 그런지 첫인상은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친해지고 나면 정반대의 성격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곤 하죠! 영찬님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겉모습은 차갑지만 내면은 따뜻한 그런 사람. 그러니 그 모습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14
tuesday, pm 10:10 | 17읽음
이주영(디미콘)

#12일차 #차다

오늘 멘토링 활동이 있어 축구공을 찼다. 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축구공을 찬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추운 날 축구공을 찼다. 활동을 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재밌고 보람차다. 의무로 해야 했던 멘토링 공부가 이제는 스스로 찾아 공부하며 재미를 찾고 있다. 보람찬 나의 활동이라 함은 멘토링 활동이다.

처음에는 축구도 잘 못했다. 경기 룰도 이해 못 했고 골을 넣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점차 느는 게 보여 신기했고 아이들과 웃으며 활동하는 게 정말 재밌었다. 처음에 축구도 어색했지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어색했다. 말투도 어색 설명도 어색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잘한다. 보람찬 활동이 있어 행복하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나에게 적절한 활동이었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체육적인 활동도 많이 하면서 나도 성장했다. 따뜻한 봄에서 시작해 추운 겨울까지 너무나도 행복했다. 내년에도 이 활동을 할 예정이지만 항상 같이 활동하던 언니는 졸업이라 이번 달이 마지막인 게 너무나 아쉽다. 함께한 추억이 너무 많은 탓인지 자꾸 생각나는 경험이다.
축구를 차며 보람찬 활동.

13 5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직접 축구공을 차 보진 못한 거 같아요. 학우님 글을 보고 축구하고 싶어졌네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축구하시는 분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추운날이 길어지는데 몸 관리 잘하세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축구를 하시다니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봄부터 겨울까지 정말 보람찬 올 한 해가 된 듯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초등학생 때 매일같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함께 할 서럼이 없어 아쉽네요 ㅎㅎ 축구 속에 행복한 추억이 있는 주영님의 글을 보니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 날 때 언제 한 번 축구를 해야겠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10:24 | 15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12일차 #차다

찬 공기에 수족냉증까지 더해져 손과 발이 시리고 얼어붙을 것만 같다. 아무리 장갑을 끼고 양말을 신고 핫팩을 챙겨도 금세 추워진다.
차가운 음식은 좋아하지만서도 차가운 몸은 너무나도 싫다.

문득 내 몸이 차가운 건 내 마음씨가 그리

곱지 않아서
못된 생각이 삐져나올 때마다 점점 몸이
얼어붙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어떠한 선택의 늪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데
선택을 할수록 자꾸만 마음이 그리 좋지 않다.
선택이 잘못되어 마음이 언 걸까?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좀 녹이고 싶다.
임시방편인 장갑과 양말과 핫팩 말고 따가운
햇빛을 좀 내리쬐고 싶다.

10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손이 너무 차서 고생중이에요 건강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제 친구도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은 이런 거 때문에 정말 힘든 계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마음씨가 굽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차가운 손을 가진 건 그만큼 뜨거운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차가운 음식은 좋지만 차가운 몸은 싫다는 말에 너무 공감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10:44 | 15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12일차
[차다] 요즘 날씨가 많이 차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따듯하게 입고 나가는 것이 보여요.

저도 어느새 패딩을 꺼내입고
이 겨울을 이겨내려고 해요.

이겨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니
차가운 공기가 아닌 따듯한 공기라고
생각해요
따듯한 공기까지 품어갈 차가움이라면
금방 없어지길 바래요.
봄이 오는 그날까지

13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슬슬 패딩을 꺼내려고 하는데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네요
박지원(사회학과) 따듯한 공기까지 품어갈 차가움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그런지, 아마 이 추운 계절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아 조금 슬프기도 하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요새 정말 춥긴 춥더라구요... 패딩을 입을까 말까 항상 고민하지만, 더 추워질 날들을 위해 전 아껴두고 있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치 노래가사를 읽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우리끼리, Band!

2023/11/14
tuesday, pm 10:46 | 12읽음
고다인(중국학과)

#12일차 #차다

'차다'라는 키워드를 보고 저는 초등학교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초겨울에 친구와 운동장 벤치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6학년들이 공을 #차며 축구를 하고있었고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분명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전 운동장 바닥에 누워있었고 같이 놀던 친구는 깜짝 놀라 괜찮냐며 저를 일으켜 세우려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축구공이 저 멀리서 빠른 속도로 날아왔고, 그걸 모르고있던 저는 그 공에 아주 세게 머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 공을 찬 학생은 놀라서 저에게 달려왔고 괜찮냐고 묻는 말에 차마 괜찮다고 대답은 못했습니다.아픈것도 아프지만 너무 놀랐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공을 좀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잘 튀기도 하고 어느새 나에게 날아와 나를 때릴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시간에도 여자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피구도 저는 슬금슬금 피해 뒤로 빠지고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일이지만 그 한 번 머리에 맞았던 공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고있다니 신기하기도 합니다.여러분은 누가 찬 공에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10 5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야구선수 시절에 많이 공에 맞곤 했는데 아픈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김소은(미디어스쿨) 저도 공이 무서워서 피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농구공에 맞아 본 기억도 있답니다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
박지원(사회학과) 초등학교때 운동장을 지나가면서 맞아본 기억이 있네요 게다가 피구를 할 때는 공을 엄청 무서워해서 엄청 피해다니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남자애들과 격하게 하다보니 공에 맞는 일이 맞았어요. 언젠는 농구를 하다 공이 얼굴로 잘못 날아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코가 아주 살짝 틀어졌죠. 그럼에도 다행히 건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공을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ㅎㅎ 다만 전과는 달리 공이 얼굴쪽으로 날아오면 약간 움찔하는 건 있는 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는 남자친구 배구

동호회 연습에 따라갔다가 배구공에 맞은 적이 있어요. 너무 얼얼하고 아프더라구요 크크,,,,,,, 그 이후로 공이 더더욱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2023/11/14
tuesday, pm 11:09 | 13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2일차
차다.
벌써 11월 중순이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2023년이 지나가버린 느낌이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는 비몽사몽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곤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에서 가장 빨리 차가워지는 부분은 손, 발과 같은 끝부분이다. 수족냉증이 있는 나로썬 찝찝하기 짝이없다. 땀은 나는데 손은 차갑고 히터로 데워도 밖에 나가면 금방 다시 차가워진다.

우리의 주변도 그렇다. 사회에서 보호받기 어려운분들부터 사회적 약자들부터 더 차가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더 작은 차가움도 더 날카로운 고통으로 다가가기에 주변에서 더 신경써줘야 할 것이다.

날씨는 차가워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10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마음만은 항상 따뜻하기를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벌써 2023년이 지나가네요.. 준호님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나만 생각하기보단 우리 모두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행동해야겠어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안의 가치를 더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준호님도 그런 인샹을 살아가길 작게나마 바래봅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준호님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돋보이는 글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11:14 | 12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12일차 #차다
어릴 적부터 저는 손발이 차가운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손을 잡으면 다들 놀랄 정도였습니다. 특히 날이 추워질수록 손발은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참 따뜻하신 분인데 항상 부러웠습니다. 추운 날 학교에 다녀오면 고생했다며 저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하다며 스스로 자부했었습니다. 신기하게 사춘기가 지나가자 고등학생 시절부터 손발이 따뜻해져 갔습니다. 날이 추워도 예전만큼 손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따뜻한 사람을 항상 부러워했는데 제 손도 드디어 따뜻해지다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마음도 따뜻하다고 말하긴 어려워졌습니다. 커가면서 어릴 적만큼 순수하지 않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손을 여러 번 쓰다듬었습니다. 문득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차다고 나도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밤입니다.

9 3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소은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수족냉증이 워낙 심해요.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지만 겨울엔 따뜻한 곳에서도 차가운 손에 사람들이 놀라곤 하죠. 그래서 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건 육체적으로는 차가운 손일지라도 그 속엔 따뜻하다 못해 뜨거움을 품고 있길 바라고 있죠!! 저도 소은님도 그런 손길이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예전의 소은님처럼, 손발이 늘 차가운 편이라 겨울만 되면 파리마냥 손바닥을 쓱쓱 비비곤 해요 크크,,,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11:23 | 11읽음
조영주(간호학과)

#12일차

하나, 둘, 셋! 탕-

추운 겨울날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하던 올해도 지나가고 있다. 소원한 기도들, 아프던 마음들, 애닳던 사랑과 치열한 격투도 어느새 지나고 고요한 바다는 흘러간다.

후후-, 따뜻한 붕어빵 하나에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며, 연기인지 입김인지 모를 겨울의 공기 속에서 앞을 향한 걸음을 뗀다.

"야아아, 어디 가냐! 붕어빵 혼자 먹냐!"
수정이 달려온다. 괜히 다정한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흘러온 시간에 피식 웃으며,
출발선인지 결승선인지 모를 어느 한 단락의 에필로그를 짙게 차며 길을 향해 나선다.

하나, 둘, 셋! 탕-

/ 차다 : 발로 힘 있게 밀어젖히다.
끝과 시작의 지점에서,

10 3

박지원(사회학과) 마음이 흐뭇해지는 글인 것 같아요 얼마전에 붕어빵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지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주인공이 어딜 향해 나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이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길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마치 로맨스 소설의 일부분을 읽는 듯한 감정이 드네요! 늦었지만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11:30 | 16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12일차 #차다

나는 사회복지학부로 입학했다.
복수전공을 선택할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주변 친구들은 심리학과를 대부분 선택했다.
그러나 나는 청소년들을 좋아하고,
어렸을때부터 누군가에게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도움을 주는걸 즐겼다.
따라서 지도사의 길을 걷자고 다짐했고
청소년학을 선택했다.
현재는 청소년지도사의 길을 걷고있다.
내가 크면서 느낀 어려운점은 보완해서
돌려주고, 좋았던점은 청소년들에게
경험시켜주는 사람을 꿈꾼다. 또는 마음이
차가운 청소년들을 따뜻한 보살핌 아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11 3

박지원(사회학과) 다혜님은 분명 좋은 청소년지도사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꿈을 이루고 싶은 이유와 목표가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부럽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자신의 띠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다혜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네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인생의 한 갈림길로서 선택한 다혜님이 참 멋지고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응원의 한 마디를 건네드리도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너무 멋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11:51 | 12읽음
라혜민(사회학과)

#12일차 #차다

겨울이 되니까 바람이 차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칼바람에
머리가 띵-하고 울린다
바다생물의 숨방울처럼 입김이 뻐끔뻐끔
나온다
숨을 들이켰다가
후-내쉬는 사이
나는 겨울바다를 유영하는 개체가 된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 시공간의 소용돌이에서
우연한 만남을 찾아
이 세상을 유영하는 한낮이다
눈부시게 빛나는 찰나이다
차디찬 세상은 따스함이 내리쬐는 세상의
안쪽 얼굴
우리는 외로운 개체이기에 부둥켜 안는다
서로가 있기에 비로소 온전해진다

10 3

박지원(사회학과) 우리는 홀로 태어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다니며 우연한 만남을 찾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혼자있을 때 차가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함께 있을 땐 그 무얼보다 뜨거운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살아야 그 가치를 더 빛낼 수 있디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혜민님이 어떤 개체가 되어 유유히 바다를 유영했는지 궁금해지는 글이었어요! 늦었지만 잘 읽었습니다 :)

2023/11/14
tuesday, pm 11:58 | 13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12일차
너가 떠난지 벌써 120일이 지났다. 여름에
멈춰진 너와의 추억.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 다가오고 있다. 그
사이 3번의 만남. 사실 계절이 추워진 건지 내
마음이 차가운 건지 잘 모르겠다. 너무
보고싶어서 너를 차갑게 대했나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식었나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 근데 아직은 너가 많이 좋은데 이걸 계속 생각하다간 너가 너무 그리워 일상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너를 향한 마음을 내 생각 어딘가 깊은 곳, 냉장고에 넣고 꽁꽁 얼려둔 것 같아. 내 마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조금은 온기가 있을 거야.
계절이 지나 눈이 녹듯 봄 꽃망울이 얼굴을 내밀고 수줍게 미소지을 때, 내 마음을 꺼내어 조금씩 녹여볼게
아직은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 둘게.
나의 마음은 차다. 하지만 시린 겨울이 아닌, 너가 찾아오길 기다리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려고 얼려둔 차가운 마음이다.
남은 429일 너를 그리며, 얼른 꽃이 피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10 6

박지원(사회학과) 꽃은 분명 따듯한 날, 그 자리에서 곱게 필 거예요. 꽃이 무사히 피도록 응원할게요

임미혜(사회복지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감사합니다! 사실 군대간 친구 생각하며 썼는데, 얼른 꽃이 피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ㅜㅜ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떤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꺼내보고 싶을만큼 애틋한 사랑처럼 느껴지네요. 놓고 싶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놓으려 생각도 해보다 결국 놓지는 못하고 마음을 얼려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애틋한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굳이 억지로 꺼내지 않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두어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저는 억지로 꺼내서 버리려다가 되려 더 크게 다쳤었거든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임미혜(사회복지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댓글 달아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억지로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올까봐 두렵기도 해요.. 크게 다쳤다는 말이 지금은 담담하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겠죠?! 지은님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2023/11/15
wednesday, am 12:17 | 20읽음
김양선

#12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날씨때문인지 유독 차가운 날씨 이야기가 많네요. 그런 만큼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차거나 차이면서 가졌던 아픔이나 상실도 언젠가는 흐릿해질 겁니다. 오늘 꽉 찬 하루를 살았을 여러분,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12 0

2023/11/15
wednesday, am 7:40 | 20읽음
김양선

#13일차 키워드 : 갓생
언제부턴가 20대들 사이에서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god)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을 합친 신조어로 모범적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삶을 가리키는 갓생.
모닝미라클같이 갓생을 인증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때로는 한국 사회가 청춘들에게 너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갓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갓생을 시도하거니 갓생인 삶을 살고 있는지요?

13 0

2023/11/15
wednesday, am 8:27 | 20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13일차

'갓생'. 신과 같은 삶을 염원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신조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준말만 없었다 뿐이지, 신과 같은 삶은 인간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늙지 않기 위해 일평생 불로초를 찾고, 미지의 유토피아를 찾아 항해하고,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연마하고, 위상을 떨치고 권력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급을 나눠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도배된 삶은 감히 갓생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그렇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갓생이라며 치켜세워주고,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 이면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갓생은 조금 얼룩져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헛된 일은 신과 같은 삶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를 수집하는 게 취미라 특별한 나만의 돌멩이를 위해 세계일주를 하고 싶다는 사람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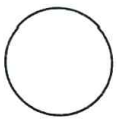
토익, 토플, 토스, 오픽이 아니면 의미 없는 걸까요?
주 6회씩 2시간 이상 하는 운동과 인증샷이 아니면요?

요즘의 평범한 갓생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두의 갓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나는 지금 무엇을 하나 고민일 나이, 시기입니다. 아마 평생을 거쳐서 하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은 무엇 하나 열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갓생이란 것을 기억해주기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13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꼭 대단하고 부지런하지 않아도, 이 일상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갓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홍다연(정치행정) 갓생을 산다는 것이 하나의 강박처럼 느껴질때가 있었는데 서현님의 글을 읽고 많은 힘을 얻게되었습니다 멋진 글 감사해요!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무엇 하나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의미있는 하루니 다들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사람들마다 갓생의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은 고민할 나이이자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고민은 평생 겪을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2023/11/15
wednesday, am 8:38 | 16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13일차 #갓생

참 바라는 것도 많은 사회이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뭐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내 스스로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무엇하나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다.

기준선에 평균이라는 선 상에 나를 놓아두기 위해
또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은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
시기질투하고 내 자신이 못나 보이게 된다.

갓생산다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경험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
즉, 24시간 스케쥴로 바쁘고 숨통없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틈틈히 하는
것처럼 주로 사용하거나 들은 것 같다.

24시간 꽉꽉 채운 일정으로
자신의 시간을 쓸모있게 보내는 것은
대단하고 칭찬할 일이지만
그 내면은 가끔 상처받고
불안에 떠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심해진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도 나눠진다.

왜 청년들 중에서는 집에서만 있는지
잠시 모든 것을 쉬고 접어두고 살아가고
싶은지
이러한 환경이 어디서 왔는지 그 이면에
'갓생'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갓생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더라구요. 이런 저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고다인(중국학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만 잘 살수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라 더더욱 피곤한거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갓생이라는 말은 모호한 듯해요.. 상민님의 글을 읽으니 위로를 받은 기분인 것 같아요 꼭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am 9:14 | 19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3일차

갓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면 한 번쯤 시도해 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테다. 나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거나 쉬는 시간 없이 과제를 해본다거나 달리기를 매일 뛰는 등등 일상보다 열심히 살아보고자 활동했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살아온 방식과 생활패턴이란 것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인의 갓생을 모방할수록 지쳐가는 자신과 피로가 누적된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불가결한 에너지와 대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갓생의 갓(god)이 괜히 붙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신처럼 될 필요는 없었다. 대략 110년 전의 인간만 하더라도 미라클 모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현대 인류의 평균 수면 시간을 잔 것도 아니다. 시계가 일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지만 그저 자신의 패턴에 맞게 살았다. 밤에 일어나 글을 쓰거나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다 다시 잠자리에 들기도 했다.

12 4

김서현(광고홍보학과) 타인을 모방하지 않는 나 자신으로서의 삶 자체를 인정하는 글인 것 같아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삶의 주체로서 신과 같아지는 것보다 스스로를 생각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충민님 글을 읽으니 다른 사람과 다른 패턴에 살아갈 때도 있는 제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다인(중국학과) 그동안 살아온 방식을 무시한채 무리한 시도를 하면 피로감만 생기는거 공감해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타인의 갓생을 모방할수록 스스로 지쳐가고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갓생을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2023/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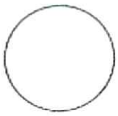
wednesday, am 10:07 | 17읽음

김서희(심리학과)

#13일차
유튜브를 보면 '갓생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 갓생 브이로그를 보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쓰는지, 언제 기상하고 언제 취침하는지 등등 다양한 것들을 알게된다. '갓생'이 어찌 보면 피곤하고 각박한 삶을 요구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갓생'을 사는 것을 좋아한다. mbti에서 E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가지 일을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재밌고 완벽하게 해낸 나를 보면 뿌듯함도 느낀다. 나에게 '갓생'이라는 단어는 좋은 자극을 주는 단어이다.

12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무언가의 자극이 필요할 때면 유튜브에서 '갓생 브이로그'를 검색하며 보는지라 반가운 글이었어요!! :)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저는 자기계발유튜버한테 자극 받았었는데 갓생 브이로그도 한 번 봐야겠어요:)
고다인(중국학과) 너무 늘어질때는 자극을 주기위해 갓생브이로그를 보는것도 방법이겠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사실 유튜브에서 갓생 브이로그를 찾아보면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저와 타인을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을 신경쓰기 보단 저에게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나만의 길을 가야지하면서 매일 다짐하는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am 10:40 | 20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3일차
교수님의 말씀처럼 최근 20대들 사이에서는 '갓생'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자주 들리며, 소셜 미디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주로 어떤 새로운 경험이나 특출난 성취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그 순간의 자신을 신이 내린 것처럼 느낄 때 특히 자주 등장한다.
언제부턴가 친구들 사이에서 '갓생'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표현이 되었다. SNS에서 친구의 일상을 엿보다가 각종 활동이나 성공적인 이벤트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면, 댓글란에는 "갓생했다!"라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갓생의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상 속에서 찾아낸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일 하나에도 '갓생'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레시피로 만든 요리가 뜻밖의 맛으로 성공했을 때, 또는 어렵게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팀 전체를 빛내었을 때 등이다. 이런 순간은 자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작은 일 하나에도 '갓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작은 성취들이 모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갓생'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의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즐기고 싶다.

11 2

고다인(중국학과) 작은 성취감에도 갓생이라고 느낄수 있는게 행복한 삶인거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작은 일 하나에도 '갓생'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갓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힘도 나고 자신감도 생기는 기분인 듯해요!! 저도 이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2023/11/15
wednesday, am 10:55 | 20일차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3일차 #갓생

"너 진짜 갓생 산다."
"진짜 열심히 산다. 멋져."
"왜 이렇게 바빠."

그녀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강의를 듣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그녀는 작년, 대학교에 입학하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숙사 입사하고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기초 필수과목과 교양, 전공 등 스스로 과목과 교수를 정하고,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는 게 새로우면서도 흥미로웠다. 내가 직접 시간표를 작성하고 선착순으로 수강신청까지 해야 한다는 게 낯설었다. 그동안의 학교생활과 많이 달라진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기숙사 룸메이트와 친해지고, 학교 동아리 선배와 동기와 술을 마시며 친해지고, 학과 생활보다 동아리 생활에 집중했다. 공부 또한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으며, 공모전 등 대외활동도 열심히 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도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더 보려고 책을 폈다. 또한 그녀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접 생활비를 벌어서 쓰기도 했다. 악착같이 사회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바쳤다. 인간관계에도 신경 쓰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다.

가끔 그녀는 울적해졌다. 혼자 기숙사에 있을 때면 한없이 우울해져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어하거나 눈앞이 흐려지고 어지러울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셔 보아도 점점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갈 뿐이었다. 아무도 없는 동굴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결국 울부짖었다. 혼자 잘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인 이상 혼자는 너무나 외로웠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과 그녀 자신을 비교하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용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도 안 하며 학교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대학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 등. 그 사람들도 각자의 고충과 삶이 있겠지만, 자신보다 시간적 혹은 마음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이제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과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녀에게, '여행'과 '휴학'이라는 단어가 간절했다.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이, 그녀 자신만의 인생을 위해 쉬고 싶어 한다. 취업을 서둘러 하고 싶으면서도 휴식이 시급한 그녀는 항상 고민이다.

13 7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너무 공감가서 슬픈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임미혜(사회복지학과) 때로는 쉬어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학기 휴학하고 복학해서 오히려 학교 생활에 더 만족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내 자신이 편하고 행복을 느끼는 삶이 갓생 아닐까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얼른 그 사람이 괜찮아지길 한없이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홍다연(정치행정) 2학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너무 공감가는 글인 것 같아요
박지호(식품영양학과) 저도 많이 공감이 되네요!
고다인(중국학과) 너무 바쁜 삶을 살면 휴식이 간절해지는 법이죠 글 잘 봤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사실 이제는 조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글 속 주인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아 너무 슬프고 공감이 가네요. 내년에 휴학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그걸로 이번 학기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am 11:17 | 17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3일차 #갓생
저는 하루 하루를 갓생으로 보내기 위해 항상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과를 시작하면 무언가를 빼먹거나 어딘가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습관처럼 플래너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제를 하는 데 있어 시간을 따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때 저의 진정한 역량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획을 미리 작성해놓기 때문에 하루안에 그것을 다 수행해내기 위해 여유부리지 않고 집중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2개의 공모전과 3번의 전공 및 교양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의 보냈던 학기 중에 이번 학기가 학업적으로 가장 바쁘면서도 이룬 것이 많은 학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무언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 스스로 만족이 될때까지 진행하는 편이라 가끔 건강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갓생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챙기면서 열심히 각자의 하루를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11 3

박지호(식품영양학과) 글 잘읽었어요. 다연님도 건강하고 알찬 하루 꾸려나가시길 바래요!
고다인(중국학과) 공모전과 바쁜 학업까지 병행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이번 학기를 정말 알차고 바쁘게 보내셨네요 !! 대단하세요 다연님의 마인드 정말 배우고 싶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2023/11/15
wednesday, am 11:30 | 17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13일차
굳이 갓생을 살아야 하나? 요즘 드는 의문이다. 나에게 갓생이란 바쁜 일상이다. 과다한 일들이 맡겨졌음에도 이를 모두 수행하는 생활이 갓생처럼 느껴진다.
나는 2만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위해서 5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 너무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바쁘게 사니까', '남들도 이만큼 노력한다', '이거라도 해야지 잘하는 거지'. 등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렇게 1년을 살다가 결국 2022년도 한 학기 휴학했다. 휴학을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꽤 단조로운 생활을 했다. 하지만, 뮤지컬도 보고 국내 여행도 가고, 가끔 봉사도 하면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너무 바쁜 생활에 익숙해져 한동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도 했다. 무리한 갓생은 나에게 역효과를 가져왔었다. 지금은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간이 생기며 마음의 여유도 있고, 현재의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
너무 미디어에서 보이는 갓생에 의미를 두며 이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갓생이라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갓생을 살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낀다. 결국 내 자신에 만족감을 느껴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다.

13 4

라혜민(사회학과) 미디어에서 갓생의 이미지를

부각해 그만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미혜님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멋집니다!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저는 바쁜 삶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일정을 만들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미혜 님의 글을 보고 나니 난 과연 정말 바쁜 걸 좋아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고다인(중국학과)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며 사는게 갓생이라는거 저도 동의해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사람마다 갓생의 기준은 다르고 꼭 갓생을 살아야 하는 것도 의무는 아닌데 그냥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걷고 싶어요

2023/11/15

wednesday, pm 12:11 | 18읽음

조석환(심리학과)

#13일차
지구엔 생이 참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 하나 없죠.
그냥 뭐 그런게 서러워져서 높은 곳으로 떠나갈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은 비단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숨 쉬기가 힘들어서 이 곳이 살아갈 곳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쩌면 지구 밖의 생명일지도 모르겠네요.
빛을 쫓아가면 알게 될까요? 아니면 얼어붙은 선로를 따라 질주하면 알게 될까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다고 말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어렵고 괴롭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 되었나 봅니다.
그런 저는 비난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해도 결코 위축 되지는 않습니다. 비난 당하면 비난 당한채로, 손가락질 받으면 손가락질 받은채로, 비웃음 당해도 비웃음 당한채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이런 저도 다른 이들에게는 열심히 산다고 선망 받기도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겨우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기 위해 발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보다 더 나은 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보다 더 뛰어난 그들이 부러워하거나 존경이라던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꿈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말하지만 그것은 이루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 말에 감응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네들만의 무언가가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목적도 없고 꿈도 잃어버린 나 같은 생명체들은 초조해가며, 스스로 비교하고 비교를 당해가며 억지로 따라갈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고, 정해진 답이 없으니 자신인채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워 하며 고민하는 것도 충분한 일이니 그 괴로움과 주저 앉아 더 나아갈 힘이 없는 그 감정을 부디 소중히 여겨주세요.
#갓생

11 3

신유정 (심리학과) '갓생, 여유로운 삶이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보다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석환(심리학과) 신유정 (심리학과) 저는 갓생이라는게 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사는게 더 좋고, 그게 진정한 갓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이번 갓생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면서 악동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이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사실 요즘 저의 마인드가 후라이 같거든요~ 누군가가 저의 인생을 간섭해도 저는 저만의 길로 흘러가고, 꿈이 없어도 그저 흘러가고 싶거든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걸요

2023/11/15
wednesday, pm 1:43 | 19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13일차
저는 갓생을 산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원래 아침형 인간이고 성격이 급해서 모든걸
아침에 끝내는 편이라 남들 눈에는 부지런해
보여 그렇게 부르는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갓생이라는 말이 사회가 만들어낸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뭐든 부지런
한것은 좋은 법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갓생 챌린지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보여주기의 삶이라 비춰질 지라고 그
챌린지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달이
되면 그런 삶이 습관이 될테니까요.
갓생이라 한다고 뭐든 완벽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일을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부지런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는게 갓생 아닐까요?

13 3

고다인(중국학과) 갓생이라고 꼭 완벽해야 하는게 아니라는 말에 공감해요~
신유정 (심리학과) 부지런한 삶은 갓생의 또 다른 말 같아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응원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갓생은 정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갓생이라고 모든 하루를 완벽하게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2023/11/15
wednesday, pm 2:41 | 14읽음
라혜민(사회학과)

#13일차 #갓생

아마 넌 아직도 이해를 못한것 같아
그래서 넌 그길을 걸으면서 생각하겠지
내가 뭘 놓친걸까 아니면 니가 거짓말을
한걸까
넌 그 길을 걸으면서
너는 사람들이 좀 더 예의가 발랐으면 좋겠지
뭔갈 물어볼때 '저기요'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지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밀치지 않았으면
좋겠지
아마 그게 너의 리듬
엄마도 이해 못하고 친구들도 가까운
애완동물도
이해못하는 아마 그게 너의 리듬
_ 이랑 <너의 리듬>

누군가에게 너는 갓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
누군가에게 너는 평범하다고 여겨지겠지.
아니, 세상에 평범한 건 없어.
너의 속도와 리듬으로 그저 흘러가는 거야.
우주에서 보면 위아래가 다 무슨 소용이야.
더 빨리 가건 느리게 가건, 더 많이 이루건
적게 이루건
결국에 우리는 모두 한순간일 텐데.

이대로 죽을 수 없다던 박막례 할머니가
말했지.
“북 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야”라고.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늘 응원할게
사랑해, 사랑해,
사 랑 해

11 1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마지막 박막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말이 인상 깊어요!! 저의 장단에 맞춰, 북치고 장구 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거나 혹은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출 수 있겠죠. 하지만 저를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기에 저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출 수 있을 것이고, 저만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3:01 | 16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13일차
갓생을 살길 원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
윤택한 삶?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쪼개며 사는 삶?
그런 것에 의미를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었다.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부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갓생이라고 말한다.

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일까지 할 수 있냐고.
4년 내내 전액장학금을 유지하고,
연애에다가 N잡까지 뛰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3전공을 듣고, 제 학년에 졸업을 할 수
있냐고.

나는 그저 한가지를 선택하지 못해서
번잡하게 삶을 늘어놓았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갓생이라고 말한다.

신기했다. 나처럼 정돈되지 않은 삶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게.
선택지가 많다 보니 하나를 고를 수 없어
전부를 택했을 뿐인데.

이것이 갓생이라면, 나는 지금 삶이
윤택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

여유를 빼앗겼을 뿐인데 갓생이라니. 이보다
우스운 게 어디있을까.
나야말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러운데.

12 4

고다인(중국학과) 대학생활과 일을 병행하는건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살아온 방식을 바꾸기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매 순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잘 읽었어요!
신유정 (심리학과) 여유를 즐기는 것과 갓생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싶은 것 후회하지 않고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칠 때는 꼭 쉬어감이 필요하지만요.
박지원(사회학과) 조금은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2023/11/15

wednesday, pm 3:17 | 13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13일차 #갓생
나는 흔히 생각하는 갓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사실 갓생의 정의를 정확히
모르겠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무조건
부지런하고 열심히만 살면 다 갓생이 맞나.
삶의 방향도 행복도 느끼지 못한 채 이리저리
치이며 바쁘게만 살다 보면 번아웃도 그만큼
오기 쉽다. 갓생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플래너를 쓰고, 일정을 꽉 채워 열정 넘치는
하루를 산다는 편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체력도
다를뿐더러 각자의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갓생을 살고 있다고 요즘 들어 느낀다.

11 2

고다인(중국학과) 맞아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면서 살아가도 충분히 갓생이니까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갓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람마다 갓생의 기준을 다른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3:18 | 17읽음
문정희(법학과)

#13일차
갓생
최근들어 갓생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해야지 싶다가도
주변의 많은 유혹에 이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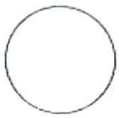
작년에 나를 생각하면
솔직히 갓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갓생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키워드 갓생을 생각하며
앞으로 갓생과 가까운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갓생!은 아니어도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다

12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요즘 늘어져 있었는데 올라오는 글들 읽으면서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갓생보단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혹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말해도 좋은 것 같아요~~ 갓생은 이제 조금 버겁고 무거운 존재라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3:29 | 17읽음
이주영(디미콘)

#13일차 #갓생

사람들은 갓생을 산다를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져 남들에게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신조어다.

갓생브이로그나 공스타 스터디 윗미를 하면서 갓생을 사는 중을 알리는데 미디어학과인 내가 봤을 때 갓생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삶을 노출시키면서 갓생의 범위가 달라진 것 같다

원래 처음 갓생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즉 열심히 초점이 갔다. 사람들마다 열심히 한다는 강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산다 느꼈다.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할지라도 갓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공부도 노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다 잘해야 한다.

열심히 사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갓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잘함도 따지고 사회적 인식도 따지기 때문에 갓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들 나만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정하는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12 4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정말로 미디어에 보여지는 것을 따르지 말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맞아요! 보여주기 위한 갓생이 아닌 나만의 갓생을 사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갓생 말고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열심히 사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갓생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괜히 주변에서 갓생 갓생거리면 더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ㅠㅠ 나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길이라 생각해요...

2023/11/15
wednesday, pm 6:02 | 17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3일차 #갓생

자신이 생각하는 갓생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내가 생각하는 갓생은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과 하루에 일정을 3개 이상은 끝내는 것을 갓생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바쁘다고 생각되면 갓생이라고 생각하는거 같다. 그치만 갓생은 우리 생각보다 덜 바쁠지도 모른다.

무조건 바쁘다고 갓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하루를 열심히 살고 뿌듯함을 느꼈다면 그것이야말로 갓생이지 않을까? 자신의 행동을 남의 시선에 맞추어 갓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저 자신의 속도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갓생이라고 생각한다.

12 3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가끔은 바쁘게 살아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신의 속도에 따라 나아가는 것! 좋은 말이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미리 계획했었던 일정을 무사히 다 소화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사람마다 갓생의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갓생이라는 말보단 그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 이 말이 더 긍정적이게 다가오고, 나의 하루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모든지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6:04 | 14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3일차
어느때부턴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갓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바라는 것이 많은 사회에서 다들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갓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완벽함 그 자체의 느낌이었다. 나라는 사람은 절대 닿을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는 삶. 내가 고등학교 당시에 쓰였던 갓생의 삶은 공부에 얼마나 인생을 쏟아부었느냐였다. 그래서 누가 공부를 몇시간 했으며 누구는 잠을 자지 않았으며 누구는 성적을 몇 점을 받았으며 누구는 학원을 얼마나 다니는가 등등 말이다. 그러한 기준에 나를 평가해보니 나는 갓생은 커녕 다시 환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수능이 마친 후 나는 다시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지 못했다. 고등학교 안에서는 학교가 세상의 전부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정하는 갓생의 의미도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더 학점을 잘 받았는지, 누가 어느 공모전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곳에 취업을 하였는지 등등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 갓생의 의미를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했던 답이 전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과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갓생이 맞다. 그러나 세상은 넓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전보다 더 노력해서 한 발짝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갓생은 내가 한꺼번에 어떤 성과에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결과물에 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면 그것도 갓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한번 큰 결심을 하고 헬스장에 나갔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오늘 갓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목표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 순간 남들의 목표와 정의된 갓생에 얽매이지 말고 직접 갓생을 설계하고 나아가야 한다.

12 2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우리는 매 순간 남들의 목표와 정의된 갓생에 얽매이지 말고 직접 갓생을 설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다보니 피로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6:26 | 21읽음
정우현(인문학부)

#13일차
예전에는 갓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어머니의 재정난으로 용돈을 받는 것도 눈치가 받기 시작했다. 매번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기도 스트레스고 민폐를 끼치기 싫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처음에는 일이 쉬운 줄 알았으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당황한 일들이 많았다. 최근엔 시비가 걸려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

이런 사소하고 어쩌면 재밌는 일들이 생기면서 내가 1인분을 하기 위해 어쩌면 갓생을 사는 걸지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엄마 돈으로만 사는 갓백수였지만 돈의 결핍으로 인해 진상들을 상대하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다.

갓생이라는 게 별거 없는 것 같다.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행위로 인해 인간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 같다. 내 인생은 왜 남들에 비교해서 못났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진행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인생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갓생은 그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인생일 뿐이다. 뭐든지 어려운 것도 쉽게 생각하면 쉬운 법이다.

13 6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우현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류영찬(빅데이터전공) 형님도 파이팅입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가 제일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아르바이트가 편의점인데 대단하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ㅎㅎ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어려운 것도 쉽게 생각하면 쉽다는 우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갓생 응원할게요

박지원(사회학과) 사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드는 것도 요즘은 시간 낭비라 생각도 들어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걷는 속도와 길,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저만의 길을 걷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2023/11/15
wednesday, pm 6:35
류영찬(빅데이터전공)

#13일차 #갓생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고 25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인지 그동안의 행보가 그립고 아쉽게 느껴진다.

1년간의 휴학을 끝내고 이번 학기에 복학했다.

학교 홈페이지를 매일같이 드나들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았다.

여러 특강과 비전페어, 동문특강을 들었다. 또 독서 골든벨과 SW Week 대회 등 다양한 교내 공모전에 도전했고 몇몇 부분에서는 수상과 상금을 수여할 수 있었다.

학교와 협업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원하는 자격증이나 외부 강의도 좋은 것들이 많다.

하나라도 더 얻어가고자 했던 마음이 모여 행동으로 나타내어 졌고 갓생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살아본 것 같다.

-

매 학기마다 학교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과 돈을 제공한다. 나는 이번 학기만 해도 50만원이 훌쩍 넘는 돈과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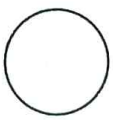
학교 홈페이지 공지와 학과 사이트 공지만 잘 봐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 교내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이용해 먹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주는거 내가 받으면 좋지 아니한가

11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꼼꼼히 잘 활용해야겠어요...! 좋은 정보가 되는 글 감사합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다 형님!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정우현(인문학부)

김현지(경영)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죠 ㅎㅎ 저도 이번에 공모전에 두 번 참여했습니다! 영찬님의 갓생 응원합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김현지(경영) 멋지십니다 저도 현지님의 갓생 응원할게요!!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올해부터 학교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있어요 아직 공모전까지는 많이 두드려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학교를 다니며 돈과 여러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려구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꼭 여러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보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11/15
wednesday, pm 7:42 | 14읽음
조성현(철학과)

#13일차
언제나 갓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갓생이라고 한다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자고 복습 예습하고 운동을 하면서 삶은 윤택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7일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신경써야 할게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갓생을 살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 지금 처럼 사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갓생을 사는 건 아니더라도 해야할일을 잘하고 만족하며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일이 그렇듯 엄청난 일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갓생의 부담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활에 집중해봅시다

10 4

김현지(경영) 부담을 덜어내며 조금씩 나아가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갓생의 부담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더 여유롭고 나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갓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삶의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갓생살기를 꿈꾸는 저도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하며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5
wednesday, pm 8:10 | 14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3일차#갓생
'갓생' 외면하는 삶을 산다. 유튜브 채널 구독을 여러 개 했는데 그중 반이 '갓 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처음에는 보고 자극을 받아야지. 보면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라면서 구독을 했지만 지금은 올라온 영상을 그냥 보기만 한 채로 '열심히 살아야 해!' 라는 내 마음속 어딘가의 외침도 외면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고 생각만 한다.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진짜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한 일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힘을 많이 뺀 것일까? 열정을 쏟던 꿈이 사라지고. 좋아하던 이가 사라지고. 노력이 무너지는 경험을 1년이란 시간 동안 수없이 겪어와서 그런지 그 이후로 그때 만큼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다시 달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나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다. 성취 경험이 중요 하다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꼭 한 가지라도 성취해서 나의 가능성을 보고 싶다. 대학교 4학년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나는 갓 생이 필요하다. 주변의 갓 생을 나와 다르다고 외면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갓생'사는 나 자신이 필요하다.

10 5

김현지(경영) 자신의 삶을 사는게 중요하다는 유정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고다인(중국학과) 충분한 휴식이 없다면 에너지를 쏟아내기 힘들죠~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예요~
박지원(사회학과) 갓생을 살아야지! 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정리하면 조금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든, 인간관계든, 활동이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인드로 한다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어쩌면 유정님은 충분히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저 알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팅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유정님은 늘 해내고 계시니까요 ㅎㅎ 유정님은 항상 성실한 존재임을 알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신유정 (심리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합니다

2023/11/15

wednesday, pm 8:36 | 16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3일차 #갓생

라이팅 챌린지를 시작한 후부터 나는 매일 아침마다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밴드 알림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동안의 키워드는 워낙 친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문제없이 글을 써내려갔지만, 오늘 아침에 주어진 키워드는 날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 고민의 시작은 갓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갓생이란 신을 의미하는 'God'과 인생을 의미하는 '생'이 합쳐진 신조어로서 남들에게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이라는 뜻이었다.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는 알게 되었지만, 막상 쓰려니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했다. 긴 고민 끝에 오늘은 갓생을 살아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쓰려고 한다. 다만,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지키기 힘들 수도 있기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쓸 것이다. 갓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것은 부지런함이다. 하루라는 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을 맞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 때 유행이었던 미라클 모닝처럼 남들보다 한 시간이라도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갓생의 시작이다. 사실 나는 잠이 굉장히 많아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다.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너무 오래 자다보니 아침햇살을 보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방학마다 가족과 함께 내려오시는 외삼촌은 내가 죽은 건 아닌지 늘 코 밑에 손을 대어 숨 쉬는 것을 확인하시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아침을 맞이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잠이 많은 나에겐 갓생의 시작이 까마득한 높이의 언덕과도 같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래 자는 것을 습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갓생살기의 두 번째 목표는 운동이다. 내가 가장 잘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다. 그것도 누워서하는 숨쉬기 운동을 말한다.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운동하자이지만, 정작 한 번도 꾸준히 해본 적이 없다. 하루에 고작 10분을 움직이고는 너무 힘들다면서 포기하는 게 일상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운동한다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으신다. 어느 날부터는 운동한다는 나의 말에 반응도 안 보이시고 있다. 하지만, 갓생을 살기 위해선 움직여야 한다. 몸을 움직여야 체력도 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 30분 이상 걷기 혹은 달리기를 통해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목표는 영어 공부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좋아한 과목은 영어였다. 항상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마음속으로만 영어 공부 계획을 세웠을 뿐 행동으로는 옮긴 적이

드물다. 하지만, 요즘은 영어에 미친 듯이 빠지고 싶다. 다행히도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늘 잘 다져왔기 때문에 이젠 행동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책상에 앉는 것이 먼저가 될 것 같다.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영어 독서를 하거나 영어 자막으로 영화를 보거나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갓생살기의 뜻만 보면 마치 나는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 나가다보면 갓생을 넘어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일단 시작한 라이팅 챌린지도 갓생의 일부분이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일단 해보자. 그게 갓생의 시작이다.

9 6

김현지(경영) 하영님의 갓생을 응원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현지(경영)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현지님의 갓생을 응원할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다인(중국학과) 꾸준히 해나가면 영어실력이 향상될것이라고 믿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고다인(중국학과) 정말로 공부는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구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갓생이라는 말만 들으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라 생각이 들지만, 사소한 목표를 이뤄나가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너무 공감되는 말이네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야 크게 성장한 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15
wednesday, pm 8:47 | 16읽음
가양선(경영학과)

#13일차 #갓생

새학기, 방학만 시작되면 친구들끼리 갓생모드라며
열심히 살아가는 기간이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고
일주일도 안 지난 시점에 다들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무언가의 여유가 있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생각한다. 라이팅 챌린지도 사실 갓생을 살기 위해 신청한 것다. 아직까지 잘 실천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 챌린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를 포함한 참여자 학우분들 모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11 5

김현지(경영) 양선님의 챌린지 완주를 응원합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끝까지 챌린지 완주해봐요
박혜윤(사회학과) 남은 이틀도 열심히 완주해서 목표를 이루어내봐요!!
박지원(사회학과) 갓생은 정말 부담이 크고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조금은 부지런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뭐든지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갓생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ㅎㅎ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은 라이팅 챌린지, 우리 끈기 있게 끝까지 해봐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15
wednesday, pm 9:28 | 14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3일차 #갓생

사실 나는 최근까지만 해도 갓생을 살고 싶어, 스스로 조금 노력도 해보고 갓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 내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득 갓생은 무엇인지, 갓생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허무감이 들었다.
내가 생각한 갓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챙겨 먹고 수업을 다녀오고, 수업이 다 끝난 후 낮잠을 자지 않고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개인 공부를 하는 것이다. 또 공부를 마치고 운동을 다녀오고 저녁을 먹고 자기개발이나 취미 생활을 하고 일찍 잠을 자는 것이라 생각했다.

갓생을 사는 것은 분명 좋다. 하지만 꼭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갓생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도 좋다. 사람마다 갓생의 기준은 다르고 자기만의 루틴대로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갓생을 따라하며 흉내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각기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걷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도, 시간도 없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갓생처럼 나는 꼭 살아가고 싶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고 세월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나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나에게 작게 박수를 치고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싶다! 내일을 향해!!

9 4

김현지(경영) 조금씩 나아가는 것 보다 중요한건 없는 것 같아요! 지원님의 갓생을 응원합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저만의본 갓생 기준을 정하고 실천하며 살고 싶네요
고다인(중국학과) 쉼없이 달려가다 지치는것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꾸준히 나아가면 그게 정답인거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춰진 갓생보단 나만의 틀에 맞는 갓생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삶보단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삶이 더 가치있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5
wednesday, pm 10:08 | 16읽음
홍은기(영문학과)

#13일차
갓생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게 언제였죠? 작년이었나? 저는 갓생이라는 단어 꽤나 많이 썼어요. 갓생 살아야지. 갓생 살자. 이런 말 긍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자신은 갓생이라는 단어 싫다고, 갓생 사는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 거냐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뭐라 생각했냐면, 와, 사람이 이렇게 꼬일 수도 있구나.

11 4

김현지(경영)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게 갓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갓생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겨난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박지원(사회학과) 갓생이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사람을 가두면서,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비교를 하게 돼서 갓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꺼려지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 저는 앞서 말한 갓생의 느낌보단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갓생을 살고 싶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갓생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알아서 자주 쓰는 것인지 잘 몰랐네요. 갓생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본인에겐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런 시선은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보려구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5
wednesday, pm 10:09 | 16읽음
김현지(경영)

#13일차 #갓생

나의 갓생은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체중도 감량되고 바른 자세가 편해졌다.
이후 체력이 조금 늘어 헬스장을 등록했다.
전문적으로 PT를 받는건 아니지만
땀을 흘리기 위해 런닝화를 신는다.

오전 운동을 하고 먹는 밥은 꿀맛이다.
맛점 후 강의실로 향해 좋아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우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을 한다.

수업이 끝나면 단골 식당으로 향한다.
복학 후 꾸준히 들리는 곳이다.
어느덧 사장님들과 안부를 주고 받으며
따듯한 밥을 먹는다.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카페인이 가득 찬 컵을 쥐고
도서관에 가서 토익 공부를 한다.
시험 기간이 아니여도 도서관에는
열공하는 학우들이 정말 많다.
그 안에서 나도 글자들에게 더욱 집중한다.

채점이 끝나면 오답 정리를 하고
일기를 쓴 후에 오늘을 돌아본다.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느꼈던 감정을
기록한 후 내일의 계획을 세운다.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건강한 몸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시간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졸업 이후에도 꾸준한 패턴을 유지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삶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

모임이 쉬워진다!

11 12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단골 식당 어딘지 궁금해지네요
김현지(경영)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영찬님 감사합니다ㅎㅎ 단골 식당은 제육이 유명한 곳이에요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김현지(경영)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수연님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용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취감을 느끼다니 너무 좋네요~
김현지(경영) 고다인(중국학과) 다인님 댓글 감사합니다! 온종일 에너지를 쓰다보니 잠들 때 기절이에요ㅋㅋㅠ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체력을 기르고자 기숙사에서 지낼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런닝머신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꽉꽉 차있는 하루를 사는 현지님이 멋있어요!!!!!
김현지(경영) 박혜윤(사회학과) 혜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런닝머신 좋아해요!! 혜윤님의 갓생 응원하겠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현지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하는 운동이라곤 누워서 하는 숨쉬기 운동밖에 없는데...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네요 ㅎㅎ 현지님처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진 못해도 앞으로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현지(경영)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 감사합니다! 전 아직 헬린이이지만 ..ㅎㅎ 조금씩 걷다보면 체력이 금방 느실거에요!! 하영님의 갓생 응원하겠습니닷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오전 운동이라니! 정말 대단하시고 배우고 싶어요!! 저는 비록 갓생이 아니더라도 오전 운동은 정말 너무 본받고 싶어지네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오후에 나가기가 더 힘들더라구용... 지원님의 갓생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넘 감사해요 :)

2023/11/15

wednesday, pm 10:16 | 13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13일차 #갓생
저에게 갓생이란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이 세 시간 이하일 때입니다. 시간이 빌 때마다 휴대폰을 보다 보면 하루에 다섯 시간도 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많은 날이나 밖에서 친구와 놀고 들어온 날에는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이 주로 세 시간 이하입니다. 그런 날이면 휴대폰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오늘 하루를 촘촘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에 아주 뿌듯합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시간 기준으로 오늘 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은 2시간 57분입니다. 어디 가서

갓생 살았다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만 단지 휴대폰을 세 시간
이하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10 5

고다인(중국학과) 휴대폰 중독이 흔한 요즘시대에 휴대폰 시간 제한도 갓생이 맞죠~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설정한 목표를 지키신 것만으로도 이미 갓생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박혜윤(사회학과) 저는 하루에 5시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폰 중독자에겐 소은님이 진정한 갓생러입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디지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가끔은 너무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인지 소은님이 정말 멋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저도 소은님처럼 최대한 핸드폰 사용시간을 줄여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가끔 휴대폰 사용 시간이 평소보다 낮을 때 뿌듯함을 느끼곤 해요 휴대폰을 보다 보면 무의미할 때도 많고, 휴대폰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할 일들을 여유롭게 끝낼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10:21 | 16읽음
고다인(중국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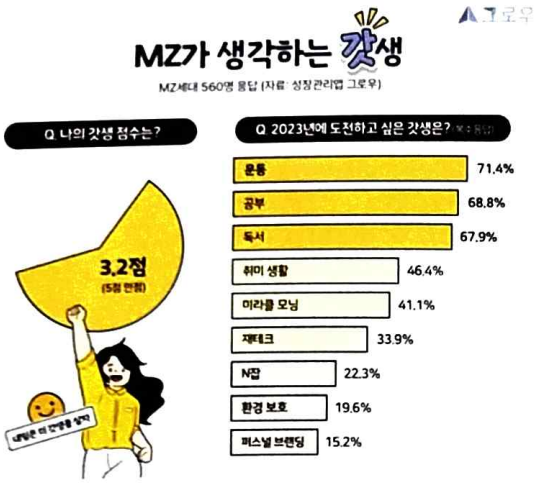
#13일차 #갓생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듣고는 합니다. "이제 갓생살아야지." , "내일부터는 정말 갓생살거야."

그런데 '갓생' 무슨 뜻일까요?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 生을 합친 말이고 뜻을 말해보자면 '부지런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정도 입니다.경쟁사회에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삶에 대한 동경,욕심 그리고 다짐을 나타낼때 쓰는 단어입니다.현실을 살며 내 인생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갓생이라는 단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지 유튜브에 갓생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영상이 있습니다.예전에 한참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반대로 워라밸 휴식 등등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인기있기도 했죠.이처럼 너무 무리해서 살다가 휴식이 필요해지고 이런 패턴이 몇년주기로 반복에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좋은 면이 있는가하면, 쉬지않고 목표만을 위해 달려가다가 오히려 번아웃이 와 무너지는 사람도 있기때문이죠. 조사결과에 따르면 23년도 갓생살기 목표는 운동,공부,독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 이후는 취미생활,미라클모닝 등등이 있었습니다.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은거라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도 너무 나태해지지도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모임이 쉬워진다!



10 5

김현지(경영) 맞습니다! 전 운동, 공부, 독서는 꾸준히 하는데 미라클 모닝은... 포기했어요 ㅎㅎㅎ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꾸준함과 적당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박혜윤(사회학과) 이미지 중에서 독서가 가장 안되는 것 같아요.. 이번 방학에는 꼭 책을 읽어야겠어요 꼭...!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을 알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지런히 살다보면 어느순간 힘이 들고 그래서 쉬다보면 나태해지고... 그 중간이 저에겐 참 힘드네요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독서요..! 매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독서를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나의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겠어요!!

2023/11/15
wednesday, pm 11:07 | 13읽음
조영주(간호학과)

#13일차

(Got)생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음절로 쓰이는 우리의 '갓생'.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다. 남들에게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에 넘어서,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다. 생명 얻은 삶. 어쩌면 의지보다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기쁨이 나의 동력되는 삶. 하루하루를 그런 감사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루하루를 그런 기쁨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받은 값없는 사랑 덕분에 나도 값없는 사랑 베푸는 삶이 되기를. 이것은 우리의 갓생(Got생)이다.

/

9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이 정말 공감 되네요. 어렸을 땐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나 자주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보려구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갓생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갓생인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11:09 | 11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13일차 #갓생

신처럼 산다는게 얼마나 피곤하고

부지런함을 많이 요구하는일 인줄을
갓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알게되었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얻을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의 'God 생(生)'

의미와는 조금 변질되긴 그러면 바쁘게 살지
않아도 남에게 부러움을 얻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또한 갓생이라 볼수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생각해보니 아무런 노력없이
남의 부러움을 얻을만한 가치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반전되는 생각들로 글을 쓰기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반전되는 내용보단
그냥 세상의 이치를 알게된 느낌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선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것.

우리가 신에 대해 생각할때도 그저 능력이
많아 편하게 살아가는 '날먹충' 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능력이 많은 만큼 바쁘게
살아갈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바쁘게 살아가는 이' 들을
응원합니다!

9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바쁜 삶이
갓생이라기보다는 삶을 보다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이 갓생이라고 생각해요! 갓생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세운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나가는
것과 같으니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가끔은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혹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의
노력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나에게 큰 박수와 위로를 건네주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있기에 세상이 돌아가고 세월이 이리
빠르게 흐르는 듯해요

2023/11/15
wednesday, pm 11:21 | 13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3일차
갓생.
요즘 생활패턴을 보면 그냥 빡빡한건지
갓생인건지 헷갈리지만 부지런히 지내고
있는것 같긴하다. 매일 아침 7시30분에
일어나서 강의 듣고, 과제하고, 근로 하고,
전공 프로젝트도 틈틈이 하고, 논문도
준비하고, 백준 문제도 풀고, 프로그래머스
문제도 풀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끝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해도 일이 넘쳐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중간고사 전에는 아르바이트도
다녔지만 중간고사 이후로는 못다니고
있어서 갓생이라기보단 그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 아닌가 싶다.

갓생이 결국 본인의 삶을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본인의 삶의
질을 낮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다.

9 2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전 오히려 갓생은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만약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갓생보단 힘이 들어 쉬고 싶은
순간이 아닐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갓생은 여러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갓생을 산다면 삶의 여유와 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11:34 | 12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13일차 #갓생

언제부터인가 갓생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번져 누구나 다 쓰기 시작했다. 나도 즐겨 쓰는 단어인데 어감이 좋아서 입에 착 달라붙고, 갓생이라 외치기만 해도 오늘 하루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듯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주문 같아서 좋았다.

사람마다 갓생의 정의와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나의 갓생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와 하루를 끝마친 것이다. 매일의 투두 리스트를 다 끝내는 것도 갓생이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보냈다면 그것도 갓생이라고 정의하기로 했다.

전자의 갓생은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후자의 갓생은 신의 가호로 신이 지켜주어 안전하고 안정된 삶 같은 느낌이랄까!

어떠한 갓생이든지 갓생은 참 좋은 삶이다.

8 1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갓생이라는 단어가 유행이 된 듯해요!! 알찬 하루를 보내는 갓생과 안정된 하루를 보내는 갓생 모두 소중하고 참으로 좋은 삶인 것 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11:35 | 13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13일차
[갓생] 갓생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하지만 갓생을 사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닐 정도로 쉽지 않다. 그래서 나도 항상 말로만 갓생을 산다고 할 정도로 갓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갓생을 살아보려고 한 노력은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나만의 계획을 짜서 하루를 알차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갓생을 살기 위해선 계획이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부터 저녁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체계적이지만 본인에게 무리하지 않게 짜는 게 중요하다. 나도 이제 갓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미래에는 더 나은 갓생을 살 것이다.

9 2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갓생을 살기 위해서든 뭐든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소화할만큼 계획을 짜고 이뤄내면서 성취감을 얻는것이 중요한거같아요~

2023/11/15
wednesday, pm 11:39 | 12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13일차 #갓생

충분한 수면 시간과 규칙적인 식사도 분에 넘치는 것이 되어버린 우리네에게 갓생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다고,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더 많은 걸 성취해내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것 같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은 걸 해냈을 때 '갓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세간은 자격증 취득, 학점 관리, 취업 준비와 취미, 건강까지도 모두 잡는 걸 갓생의 조건으로 꼽는다. 그럼 장학금을 받으면, 어려운 자격증을 따내면, 번듯한 직장을 가지면 그 땐 갓생이 되는 걸까? 갓생을 살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갓생이 뭐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고 제 몸 건사할 줄 아는 삶,
건강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적정 선을 지키며 열심히 사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삶,
정신과 신체 모두 건강한 삶,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갓생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건강을 지키는 삶'이었다.

건강을 갓생의 최우선 조건으로 말한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성공과 인정보다도 휴식이 더 절실해 보였다.

9 2

박지원(사회학과) 제가 생각하는 갓생이랑 많이 비슷해요! 저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지만 건강과 휴식이 최우선이라 생각해요
고다인(중국학과) 건강하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거 공감이 되네요~

2023/11/15
wednesday, pm 11:50 | 16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13일차 #갓생

사람들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른 '갓생'
언제부터인가 나에게는 남들보다 잠을 적게 자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사는 거 같아도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나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갓생'을 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변사람들로부터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
졸리다가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잠이 깬다.
이렇게 '갓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다.

10 2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시험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공간에서는 모두가 열심히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힘도 나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다인(중국학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극을 받기도 하죠~글 잘 읽었어요

2023/11/16
thursday, am 12:34 | 19읽음
김양선

#13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갓생을 시도해 본 친구들, 처음 들어본 친구들, 비판적인 친구들 등등 다양한 생각이 오간 것 같네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기보다, 자기 삶의 속도를 찾고,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요. 여러 친구들이 글에서 그런 생각들을 말하기도 했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습니다.

11 2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세상의 속도보다 자신의 속도와 방향성을 찾아야한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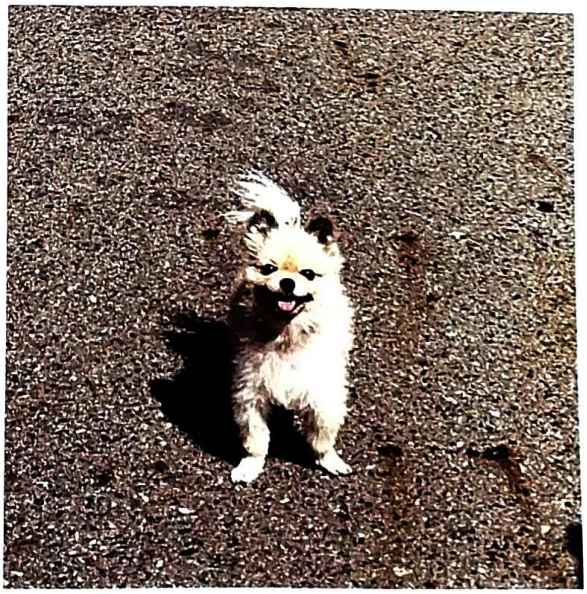
2023/11/16
thursday, am 8:01 | 22읽음
김양선

#14일차 키워드 : 이별
이별. 이별은 헤어짐을 말합니다. 어찌보면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연인을,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상실과 슬픔을 겪어본 친구들도 있겠고, 아끼던 물건과 이별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3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글쓰기 동반자들과도 곧 이별해야겠지요? 오늘은 이별과 상실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해요.

10 0

2023/11/16
thursday, am 9:10 | 19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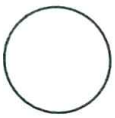
#14일차
이별이라는 말은 언제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가족과도 친구와도 아직 이별해 번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있다면 반려견과의 이별이 가장 가깝겠지요.
이별이란 누군가에겐 오늘 친구와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 연인과 헤어지는 것 이라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별이란 더이상 보고싶어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3년을 함께한 반려견과 매일을 이별의 준비를 해야하는 마음이 22년 인생을 살며 가장 아픈 이별의 순간이고 가슴아픈 순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인생에도 우리 삶의 모든건 언젠가는 끝이나기 마련이지만 이별은 언제나 슬프고 힘든 일 인것 같습니다.



14 3

박지원(사회학과)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이 있듯이 끝도 있기 마련이지만, 항상 그 끝이 닥치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 무지개 세상으로 가서 지호님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랑 이별을 해야 한다면 누구나
다 너무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이 강아지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13년을 함께한 강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거에요



2023/11/16
thursday, am 9:54 | 16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14일차 #이별

이별하면 먼저 슬픈 것이 떠오르지만
다른 이별을 글로 쓰고 싶다.

우리의 관계는 항상 건강하지도 않으며
안전하지도 안정하지도 않다.

때론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치명적이기도 하며
괴롭히기도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한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와 이별하는 것이
나에게 안전하고 안정을 주지만
그리 쉽지 않다.

건강한 나를 찾기 위한 이별을...

이별이 나에게 좋을 수 있음을 기대하며

14 3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어떤 관계든 안정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이별이라,,, 너무
좋은 표현이고 좋은 자세라 생각이 드네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나에게 해로운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손을 놓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누군가가 제게 그러더라구요. '너가 살려면 너가 그
손을 놓아야 한다.' 마치 제 모습은 바늘로 제 몸을
쿡쿡 찌르면서 '아파 아파'만 소리치고 있는
꼴이더라구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저를 바닥으로
끌고가는 관계와 이별하고 건강한 관계와 인사하고
싶네요

2023/11/16
thursday, am 10:16 | 16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14일차

새싹이 피어나는 봄날이었다. 알버트의
품에는 아름다운 자식이 안겨 있었고, 나란히
흔들의자에 앉은 아내도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국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로 뻗어 나갔다.
세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가 장난감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는 중년이 되어
있었고, 브라운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대가
되었다.

참혹하고 이득 될 게 없었던 큰 전쟁을 두
차례나 겪었던 그는 훈장을 옷장 깊숙이
숨겼다. 전우의 죽음을 뒤로하고 홀로 고향에
귀국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책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서점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직접 글을 쓰기도 했으며
여왕이 그의 가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알버트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 적군의
피로 물든 자신의 죄를 참회했으며 빈곤한
자들을 위해 힘썼다.

세월이 흘러 신이 내린 인간의 최후가
그에게도 점차 드리웠다. 병마를 이기지 못한
그는 아늑한 침대에 누워 부인과 자식들을
한데 불러 모았다. 그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노래하는 풀벌레처럼 나직이 흘러나왔다.
이윽고 거센 빗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창문 너머 환한 장난감 가게와 서점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어린 천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말이다.

♡ <브라운의 장난감 가게> 마지막
화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2 3

박지원(사회학과) 으악 벌써 마지막이라니,, 정말 재밌고 따뜻한 글이었어요. 이제는 브라운의 장난감 가게와도 이별이네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충민님 글을 제일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재밌네요!! 더 읽고 싶어요

2023/11/16
thursday, am 10:41 | 18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14일차
이별이라는 단어는 참 먹먹하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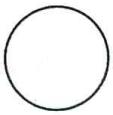
올해는 유독 이별과 만남이 많았던 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와의
이별이 아닐까 싶다.

할머니께선 폐암에 걸려서 병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셔서 막연하게
올해도 버티지 않을까 했다.
엄마가 병원을 다녀오라고 했는데 일정이
되지 않아
따로 한 주 늦게 날을 잡았었다.
병원에 가기 전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 얼마나 벙쪘는지.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다녀올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할머니와의 이별을 포함해 수많은 이별을
눈물로 보냈었다.
몸은 떨어졌고, 상대방은 볼 수 없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있다.
그게 내 이별에 추억과 그리움으로 얼룩진
사람이 모여있는 이유가 아닐까 했다.

14 5

박지원(사회학과) 항상 뒤늦게 후회하고 아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저는 작년 추석날 할머니의 부고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 전화에서 손이 떨리는 건지 목소리가 떨리는 건지 모를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다 해야할까요?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구요... 끊자마자 바로 출발했는데, 가는 ITX 안에서 택시 안에서 계속 엉엉 울다가 넋이 나가있다가... 평생 울 거 다 운 기분이더라구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라 아직도 후회만 남는 것 같아요... 할머니 얼굴이 또렷하게 생각나는 글이었네요 감사합니다 :)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김서현(광고홍보학과) 저도 엄마 전화로 소식을 들어서 공감가네요..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별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말에 정말 공감해요. 글도 잘 읽었습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가족과의 이별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립고 아프고 슬픈 것 같아요 저도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네요...



2023/11/16
thursday, am 10:56 | 18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4일차 #이별
저는 이별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내일'이라는
네이버 웹툰을 떠올리개 되었습니다.
드라마로 실사화된 작품이기도 하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웹툰은

생과 사를 다루는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며,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자살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나무', '하늘바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 모두 누군가와의 이별에 대하여 다루어졌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별을 겪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나이를 먹어가며 어른이 되어가면서 만남과 이별에 더욱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슬픔을 잘 헤쳐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별을 잘 극복하고, 누군가와 헤어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기에 저는 적절한 기한을 정해 그 순간만 슬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떠나간 이를 애도한 이후에는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남은 여생을 후회없이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드라마를 보지도, 웹툰을 보지도 못 했는데 시간이 된다면 꼭 한 번 봐야겠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웹툰을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꼭 봐야겠어요~~ 맞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언가와 이별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정말 재밌게 봤던 웹툰인데 다시 정주행 해봐야겠네요

2023/11/16
thursday, am 11:47 | 18읽음
김서희(심리학과)

#14일차
이별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의 반려견인 복실이가 생각난다. 복실이는 내년이면 벌써 11살이 된다. 그래서인지 요즘들어 복실이랑 헤어지게 될까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든다. 점점 늙어가는 복실이를 보면 너무 속상하고 이별이 더 가까워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별의 준비를 해야하는데, 정말 쉽지 않다. 나는 아직도 학교에 있으면 복실이가 너무나 보고 싶고 복실이를 보러 일주일에 한번 씩 본가에 간다.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복실이와 이별한다는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하지만 언젠가 이별할 순간이 올텐데,,

13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복실이는 이렇게 이별을 많이 걱정해주는 주인이 있어 참 행복한 강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실이가 오래오래 이 세상을 누리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가양선(경영학과) 복실이가 더 밝은 세상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끝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이별은 정말 믿기 싫어지는 현실이라 생각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벌써부터 이별을 염두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네요

2023/11/16
thursday, pm 1:10 | 22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1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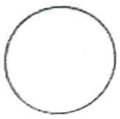
저는 이별이 어두운 단어로 기억되는 게 싫습니다. 검은색이 좋은 것과 같은 이유죠. 우리에게 휴식이 존재하는 건 저 높은 하늘을 검은색이 전부 메꿔준 덕인데.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테니까요. 감정은 계기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별을 어둡게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는 이 별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16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이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내려구 해요.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정희(법학과) 저도 이별은 슬픔만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박지호(식품영양학과) 공감해요. 좋게 생각라면 그만이죠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어쩌면 이별은 성장통일지도 모르겠네요
가양선(경영학과) 이별 속에 성장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을 통해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정말 큰 가치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문구가 조금 슬프네요



2023/11/16
thursday, pm 2:56 | 21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4일차
이별은 삶 속에 자주 어우러지는 감정 중 하나로,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감정의 깊이와 난해함을 안겨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어느 누구나 마음 한 켠에서 아련한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언젠가 나도 한 사람과의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의 감정은 마치 먼지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은 아름답기도 하면서 동시에 쓰라림과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짐의 순간은 삶의 한 챕터가 닫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일단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 이별의 시간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자아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별은 삶의 한 부분이자 또 다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아픔이 나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별이던, 그 순간의 감정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별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과 성장의 기회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별의 아픔은 지나가고, 그 뒤에는 더 풍요로운 삶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16 3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이별은 삶의 한 부분이자 출발점이라 생각해요. 매일 이별이 무섭고 두려워 피하기만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 부끄러워지네요. 이제는 지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별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인생의 여정에 한 부분인 이별을 통해 더 멋지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맞아요 이별이란 씁쓸하면서도 잊고 있던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게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요 잘 읽었습니다!

2023/11/16
thursday, pm 3:20 | 18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14일차 #이별
가끔은 이별이 필요한 것 같다. 사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나쁜 습관들, 예를 들면 일을 끝까지 미룬다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나쁜 버릇은 영영 이별해도 좋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곁에 있다면 어쩔 때는 이별이 서로에게 나은 선택지가 되기도 한다. 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 이별이란 건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과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기존의 익숙함을

떠나보내고 끊어버린다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별은 우리 삶에 성장의 발판이 되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건 헤어짐 곁에 상실감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함께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14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내 곁을 채워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은 정말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별로 인한 상실감, 슬픔은 분명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마음 때문인지, 걱정이 덜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이별을 통해 더 성장해 보겠습니다!!

2023/11/16
thursday, pm 3:29 | 19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4일차
이별이라는 감정은 무섭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좋아하는 것들, 가까이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오면서 갖는 친구들과의 이별, 건강문제로 인한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과의 이별, 내가 아끼돈 반려동물과의 이별...등 이별의 종류는 무수하게 많다. 마치 해변가에서 대상과의 추억을 기리면서 모래성을 쌓다가 이별이라는 파도가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만 같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과 슬픔 속에 수 개월을 보낸다.

그러나 이별이라는 파도가 지나간 후에는 모래 속에 파묻힌 조개, 갯지렁이, 새로운 흙 등이 새로운 것들이 나를 반긴다.
이별은 때때로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한다.
친구와의 이별이 내 인간관계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인간관계를 쌓기도 하고, 반려동물과의 이별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한다. 이별이 오고 다시 새로운 인연이 채워지고 다시 이별이 오고 새로운 인연이 채워지는가 보다.

15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인연은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공감하며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마지막 문구 정말 공감이 가네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된다면, 그 빈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인연에 대한 미련이나 상실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 물론 새로운 인연이 채워지는 것도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는 아직까지는 이별이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3/11/16
thursday, pm 3:56 | 19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4일차 #이별

'이별'은 저마다의 감정이 있다.
그러나 '후회'나 '그리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사람은 이별하게 된다. 관계가 멀어지거나 죽음을 맞이하거나 등의 방식으로.
언젠가는 이별할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화내지 말걸', '투덜거리지 말걸', '좀만 더 잘해줄 걸', '그때 그랬을 걸'.
이별 후에 남는 건 후회 속 남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후회하지 않고 그 사람과 더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질 않고 어렵다. 현재는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라고 생각하니 더욱 이별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된다.
언젠가 이별할 것을 알지만, 괜히 회피하며 나에겐 그 사람과의 이별이 빨리 찾아오지 않을 거리라 믿곤 한다. 그러나 이별은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른다.

이별 후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와 그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

이별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별을 할 결심, 이별할 준비와 그 과정, 이별 후의 삶.

13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후회하지 않도록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용기가 주는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한 듯해요

2023/11/16
thursday, pm 4:01 | 18읽음
문정희(법학과)

#14일차
이별한다는 것.
놓아야하는 것.
어떠한 인연
어떠한 목표
어떠한 경험

나의 모든 소중했던 것들과
이별할 때
다가올수록 슬픔과 아련함이 공존한다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도 오지만
이별은 슬픔이 가득할 수 밖에 없다
떠나보내는 마음만큼 아픈 마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별에 덤덤해지고 싶지만

아직은 아픈 것 같다

덤덤할 수 없는 그런 이별은
아직 미성숙한 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

14 4

이유빈(사회학과) 이별이 언제나 쉬운건 아니죠 ㅠㅠ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그 또한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덤덤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가양선(경영학과) 이별은 미성숙의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공감하며 글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이 덤덤해진다면 그건 조금 슬플 것 같아요 언제나 이별은 새롭고 또 무섭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미성숙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라혜민(사회학과) 이별이 아프단 건 그만큼 진심이었단 거겠죠. 진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정희님께 분명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2023/11/16
thursday, pm 4:41 | 18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4일차 #이별

처음 이별했을 때에는 세상을 모두 다 잃은 기분이였다. 그 순간 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달래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였다. 그렇지만 이별도 다 한순간이다. 이별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엄청난 슬픔이 높은 파도처럼 떠밀려와 눈물만 차오른다면 점차 이별을 한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다 의미가 크지 않았다는걸 알게 된다.

나중에 보면 이별도 나에겐 또다른 깨달음과 경험이 되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헤어짐에 대해 이별에 대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별한 사람 또는 무언가에 대해 좋은 추억이 있었다면 그거야 말로 좋은 이별이겠지

13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에 백 번 천 번 공감할 수 있을만큼 이별에는 정말 시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첫 이별은 너무나 힘들어요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이별한 상대나 그것에 대한 좋은 추억, 기억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이별이자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이 들어요 :)

2023/11/16
thursday, pm 4:54 | 18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14일차
이별이라 함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과 만나지 못하는 이별 두 가지가 존재한다. 떠나는 이와 돌아오는 이와의 이별이 늘 공존하는 바다에 등대를 보고, 등대지기는 늘 떠나는 이와 돌아오는 이들 사이의 이별을 바라볼 것 같아 이를 주제로 시를 지어봤습니다.

등대지기

새벽의 빛은 서서히 떠오르고
수 많은 배들은 등대를 벗 삼고
위로 삼아 힘든 항해의 끝을
시작하고 끝낸다

푸른 바다 선 넘어의 빛나는 연결.
파도는 조용히 일렁이고
바람의 결은 조용히 흩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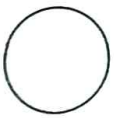
등대지기 떠나가는 배 보며
슬픈이의 눈물에 조용히
불을 밝혀 주었다

추억에 젖은 눈물은 빛나며
멀어져 가는 섬을 바라보는 배는
어쩌면 못 올지도 모르는 섬을
향하여 언제나 마지막 작별을 고한다

등대지기여, 이들의 심장이 되어
바다를 향하여 그대를 깍고 비추소서

15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한 시인이 썼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너무 운율이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시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등대지기를 활용한 이별이라 그런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등대지기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영주(간호학과) 우와.. 표현이 너무 예뻐서 흠뻑 빠져들어 읽었네요. 좋은 시 감사합니다 :)



2023/11/16
thursday, pm 5:02 | 19읽음
조성현(철학과)

#14일차
이별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별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별이 두렵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비관적인 태도로 느껴질 수 도 있습니다. 끝날 관계에 큰 힘을 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려 그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관계에 최선을 다하기때문에 이별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친해지고 관계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해진 사람에게는 더더욱 예의를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관계를 다하면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별이 두렵지 않습니다.

14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없이 사랑하면 관계가 끝나도 큰 후폭풍이 없더라구요.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은 항상 두렵고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관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후의 이별이라면, 미련을 덜 갖게 되면서 조금 덜 슬픈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라혜민(사회학과) 헤어지고 나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건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이래요. 저도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 해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6
thursday, pm 6:16 | 15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4일차#이별

당연하던 것과의 이별. 이별이라는 단어는 생각하지도.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나'이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선생님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과의 이별은 다른이들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나에게는 몇 배로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였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많은 나였기에 새로운 환경, 사람, 방식은 또 다시 괴롭게 많은 힘을 들여 적응해야 하는, 하고 싶지 않은 일 이였고, 이별의 상황에서 '그렇구나', '아쉽다', '안녕히 가세요' 보다는 '왜' 라는 말과. '그렇게 하기 싫어' 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사람이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이별'의 순간이 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나의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새로운 만남이 늘어나는 만큼 이별의 순간도 늘어난다. 그래서 점점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어려워진다. 일부러 외면하기도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별' '이별의 순간'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소중한 것 '을 지키기 위해. 잘 지내기 위해, 내가 잘 못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조금 더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린아이 같기도 하다. 받아들이지 않고 싶다고 어찌보면 '징징거리는 것' 이니까. 나도 알지만 쉽지 않다.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살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 12 ⋯ 2

가양선(경영학과) 소중한 것들이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모든 이별이 항상 좋은 이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별은 정말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3/11/16
thursday, pm 7:11 | 18읽음
김현지(경영)

#14일차 #이별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지나갔기에 아름답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프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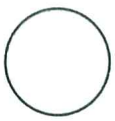
"그때 이렇게 할걸"
"이 말을 꼭 전했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엔 아쉬움이 잔뜩 묻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지금의 내가 지난날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날에 머무르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행여 실수했다 하더라도 움츠려들지 말고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 13 ⋯ 8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저도 최선을 다하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고 싶네요
김현지(경영)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아쉬움을 느낀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다음에 생겼을 때 대처를 잘 하면 지난날의 감정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영찬님에게 행복한 나날이 가득 담기길 응원할게요
가양선(경영학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가양선(경영학과) 양선님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밤 되세요
고다인(중국학과) 과거에 집착하기보단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역시 좋죠~글 잘 봤어요
김현지(경영) 고다인(중국학과) 다인님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감기조심하세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이별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이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맞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ㅎㅎ 좋은 밤 되세요



2023/11/16
thursday, pm 7:28 | 19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4일차 #이별

어릴 시절 나에게 이별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이 더 컸다. 언제가 될 진 몰라도 계속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 속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이별은 그저 헤어짐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이 있듯이

나에게 이별은 만남을 연결해주는 다리였다. 친구들과 놀다가 헤어지게 되면 아쉬움이 담긴 손짓으로 인사를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늘 설렘으로 가득했다. 내일은 무엇을 하고 놀지, 어떤 얘기를 할 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다보면 금방 집에 도착해있었다.
하지만 이별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창 사춘기 시절인 중학생 때,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내 곁을 떠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일하게 남긴 것은 이별이 가진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 사람과의 이별은 그저 가슴이 아픈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인생의 한 부분을 잃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처절한 것이었다. 그동안 이별이 있다면 반드시 만남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였기에 오지 않는 만남을 기다리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그때부터 이별에도 영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마음 한 편으로는 여전히 이미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문을 열면 그 사람이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며 어서 오라고 안아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있는 초록색 집에 가면 다시 한 번 이미 떠나버렸음을 느낀다.
그 이후로 나는 이별이 무서워졌고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같이 사는 가족들이 집에 잘 오는지 혹은 왔는지 매일 같이 확인한다.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한다. 그저 곤히 자고 있는 건데 괜히 코에 손을 대보고 새벽에 깨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사람을 통해 얻은 영원한 이별의 경험은 내가 가족들에게 집착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나는 언제올지 모르는 이별 앞에 한없이 작아지게 되었다. 이제는 사람과 겪는 이별을 싫어한다. 특히 영원한 이별은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허락하지 않는다. 언젠가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또 다시 영원한 이별을 해야할 것이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나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문득 긴장을 통해 가족들을 맞이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지나친 걱정은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기에 과연 내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이별을 회피하려고 할 뿐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젠 하루라는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자 한다. 영원한 이별 앞에 후회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 후회조차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졌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며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을 지금보다 더 채워나가고 싶다. 이별이 다가와도 아름답게 빛나는 추억으로 기억하고 싶다. 내 바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는 오늘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본다.

13 6

신유정 (심리학과)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영님이 기억에서 이별이 아름다운 것으로 많아지길 바래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신유정 (심리학과) 너무 감사합니다!! 유정님도 오늘 하루 소중하게 보내셨길 바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거예요~글 잘 읽었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고다인(중국학과)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최선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저에겐 이별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네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젠 후회 가득한 이별보단,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려고요. 이별이 다가오더라도 그 이별을 무서워하기보단 당당하게 맞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노력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원님도 언제가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16

thursday, pm 8:08 | 19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14일차 #이별

학교를 다닐 때마다 매번 두가지 감정에 휩싸인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해야 한다는 아쉬움. 수업을 들으며 친해진 교수님과 조모임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친구들, 발표를 들으며 호기심이 생긴 학우와 같은 수업 및 프로그램을 참가하며 내적 친밀감이 생겨버린 이들.

이번 학기에도 새로 알게 된 친구들이 꽤 있다. 인복이 있어서인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더 알아가고 친해지고 싶지만 한 학기는 나에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사람을 알아가는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고 먼저 연락 할 용기도 없다.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나와 인연이 닿았던 이들은 빠르게 멀어져 갈 것이다. 아쉬움이란 파도 속에서 허우적 대며 점점 멀어질 것이다.

14 7

김현지(경영) 정이 많은 성격이신 것 같아요! 저도 내적친밀감이 생긴 많은 이들이 있는데 연락하지 못한다면 가벼운 미소라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ㅎㅎ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김현지(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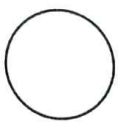
고다인(중국학과) 많은 사람들을 알수록 많은 이별을 하기도 하죠~글 잘 읽었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고다인(중국학과) 감사해요

박지원(사회학과) 누군가와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선 엄청난 애정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귀찮음도 많이 느끼고 이것저것 할 일들도 많아서 그런지.. 인간관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박지원(사회학과)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좋은 인연은 만나게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멀어지게 되면 더욱 아쉬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별은 참 어렵고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6

thursday, pm 8:53 | 15읽음

홍은기(영문학과)

#14일차 #이별

두려움도, 고마움도, 죄책감과 원망도, 차마 묻지 못한채로 끝나버린 몇 가지 의문들도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야지. 내일도 또
그렇게..

11 3

박지원(사회학과) 지금 느끼시는 두려움이나,
원망, 슬픔들은, 조금 많이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묻힐 것들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새롭게 다가올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들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새로움 가지고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설렐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저희 같이 힘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짧지만 뭔가 강력한 글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은기님의
슬픔도 묻혀있는 것 같아 뭔가 가슴이 아프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3/11/16

thursday, pm 9:45 | 15읽음

조석환(심리학과)

#14일차
오늘 따라 하늘이 유독 높고 맑은 기분이네요.
왜인지 조금은 쑥스럽고 부끄럽네요. 조금은
흐려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늘 보던 창문 밖
풍경에도 이제는 슬슬 꽃이 피었을려나요?
항상 이때 즈음이면 고향의 매실나무와
밤나무는 생명의 태동을 알리는 바람에 곧 잘
아파 했었는데 잘 지내고 있을지도
궁금하군요.
눈을 살짝씩 감을 때마다 오랜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주마등인가
봐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주마등이
약을 바싹 올리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지금 이
기분도 황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잃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슬픈 사람입니다. 그 때에
만나서 행복했었는데, 돌아섰을때 안겨준
지나친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 후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와서 생각해 보면,
행복과 슬픔을 저울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잠이 들면 올라 오는 엔딩 크레딧. 내가
주연인 한 편의 독립 영화. 신세를 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면 본편보다 몇
시간이나 더 긴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그런 걸
생각하자니 실소가 나오네요. 또 다시 잠에
들면 흐르는 엔딩 크레딧.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겠지요. 어쩌다 가끔
떠올려주길 바라지만 제가 생각해도 썩 좋은
명작이라 할 수 없겠네요. 이번에도 생각하니
역시나 실소가 나네요. 당신이 잠들면 흐르는
엔딩 크레딧. 거기에서는 저는 분명
조연이겠지요. 섭섭하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분명 그걸로 당신도 행복했었다는
증표니까요.
앞으로 스물 여섯 마디의 엔딩 테마가
남았네요.
그 아이의 스커트 끝 자락이 되고 싶다던가
아찔한 동백꽃 향기나 메론향기가 맡고싶은
이루지 못한 소망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울리는
마지막 숨결 이니까요.

(Amazarashi의 엔딩테마 라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해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
JYxGM7vNRs

[한글자막]아마자라시 -엔딩테마
www.youtube.com

#이별

11 2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한 번 봐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영화를 통해 이별을 겪는 건 낭만적이면서도 슬픈 것 같아요. 어떤 노래가 이별을 마무리할 지, 내 엔딩엔 무엇이 담길지... 누가볼 지 모르겠지만 제 영화를 통해 이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6
thursday, pm 10:06 | 20읽음
가양선(경영학과)

#14일차 #이별

나에게 이별은 두려운 존재이다.
아쉬움, 슬픔 등 이별이라는 말에 담긴
여러가지 감정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

영원한 이별과 일시적 이별
두 이별이 지닌 무게는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두 이별 모두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별이 익숙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별의 익숙함은 모르지만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14 ··· 5

김현지(경영) 힘들지만 무뎌지는게 맞는 것 같아요! 감정을 온전히 느끼면 부정적인 부분은 사라지더라구요..! 좋은 기억만 양선님께 남기를 바랍니다

가양선(경영학과) 김현지(경영)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별이 익숙해지기 보단,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별에 익숙해지기보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너무 공감이 되네요. 이별은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오히려 슬픔을 잊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양선님도 저도 이별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성장하는 자신를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별을 잘 받아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상대방이 내가 싫어졌음을 인정하고 그를 잘 보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곤 하죠.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0:09 | 18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14일차 #이별

이별만큼이나 사람들이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즘 발라드 곡들을 들어보면 이별에 관한 가사가 굉장히 많는데요 현재시각 11월 16일 9:56분 기준으로 멜론 차트에서 발라드장르의 1위 곡은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라는 곡으로 이또한 이별의 감정을 담아낸 곡입니다.

모두가 한번쯤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소중한 장난감과의 이별, 처음 유치원에 가던날 항상 붙어있던 엄마와의 잠깐의 이별,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돌아가게 되면서의 이별

다음 만남이 약속되어있다는 전제 하에,
이별은 때로는 만남에 있어 아쉬움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해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다음 만남이 약속되지 않은, 혹은 이제
영원한 이별을 약속하는 순간에는 나의
마음을 더욱 굳세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슬픈 이별을 경험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했던 실수나 상처를 준행동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해가되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며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되는것 같습니다.

[이별의 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두 별이 만나
하나의 반짝이는 큰 별이 되었다

만남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밝은 별이 되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둘의 반짝임에
시간이 흐르며 균열이 생겼고

서로를 떠나며 가장 밝은 별이였던 둘은
이별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별의 상처로 둘의 빛은 전보다 작아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두 별의 만남으로 하나의 큰 별이 되었고
두 별의 이별으로 밝은 이 별(Two stars)이
되었다

14 5

가양선(경영학과) 노래 꼭 들어볼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이별을 겪으며 지난 실수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맞아요 이별을 겪고 나면 성숙한 나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슬픈 이별을 통해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공감이 되네요. 슬픔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아감으로써 새로운 인연에는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게 어쩌면 이별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박재정님 노래를 참 좋아해서 반갑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0:25 | 18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14일차 #이별

20년이 조금 넘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꽤 많은 이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인형과 같은 무생물부터 10년을
살았던 정든 집,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며
헤어진 친구들, 선생님, 키우던 햄스터와
가족 등 그 이유도 형태도 대상도 모두 다르게
찾아온 이별은 내게 상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언제나 이별이 닥쳐왔을 땐
인지만 할 뿐 인정은 하지 못하다가 일상의 빈
자리를 자각했을 때에야 비로소 슬픔이
몰려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모르겠다.
다만 살다보면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 믿을
뿐이다.

14 4

고다인(중국학과) 명쾌한 방법은 없지만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은 정말 항상 무섭고 슬픈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예전에 빈자리의 슬픔이 언제 메워질 수 있을 지 생각해봤지만 해결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빈자리는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다만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겪었던 추억들은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별도 추억으로 생각하게 되어 웃음을 짓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살다보면 감정에 무뎌지고, 어느순간 이별한 사람이 생각나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0:43 | 18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4일차 #이별

소복이 쌓인 눈을 밟으며 걸어오는 너
눈이 마주쳐버렸다, 너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눈을 피해 걸어오는 너

무심히 핫팩을 건네는 너
그런 핫팩을 조물조물 거리는 나
아무 말 없이 우린 서로의 눈을 피하고
새하얀 눈을 밟으며 걷는다

식어버린 핫팩이 너의 걸음을 멈춰세웠다
아,
너는 기어코 나에게 뒷모습을 보이는구나

우리의 눈은 무엇이 마지막이었을까, 서로의
눈(目)일까 아니면 우리를 덮은
눈(雪)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그것을 조물조물 거린다
잊지 못한다, 우리의 마지막 눈을

저는 아직 무언가와 이별을 해본 기억이 없어, 이별의 감정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별은 누군가가 먼저 끈을 놓아버리는 이별이라 생각이 들어, 이런 시를 부끄럽게 적어봤어요 :)

☺ 15 ··· 4

김경회(국어국문학과) 핫팩이 식어버린것과 끝까지 조물거린다는걸 보니 핫팩이 마음을 의미하는건가 싶었습니다 먼저 뒷모습을 보인 상대방이 먼저 끈을 놓아버린 경우이려나요 시 잘읽었습니다
김현지(경영) 시도 정말 잘 쓰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원님이 쓰신 글은 연애의 이별을 말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지원님의 시가 왠지 이미 경험한 듯한 느낌을 들게해서 인지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네요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예전 남자친구와 길을 걷다가 걸음을 멈췄는데 그 남자는 제가 멈춰선지도 모르고 휴대폰만 보며 걷더라구요. 그 때 이별을 결심했었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0:53 | 15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4일차
이별.
모든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누군가의 실수, 어쩔 수 없는 상황,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은 이별의 끝에서 항상 상처를 남기고 떠난다.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게 된다고 했던가, 사랑하던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멀어진 사이를 보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후회와 절망에 빠지곤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기억속에 잊혀져가는 이별은 결국 아름답게 미화되기도 한다.

고통스러운 이별 속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성장하게 된다. 슬픔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또 다른 인연에서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래야할 것 같다.

15 4

고다인(중국학과) 한참 지나고보면 이별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을 때가 있죠.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은 나를 성장시키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도 하는 듯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별 이라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시작을 배움으로써 새로운 인연을 보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준호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 방법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별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안 좋았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화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 감정에 속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0:57 | 17읽음
고다인(중국학과)

#14일차 #이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별을 겪습니다.그 중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유형 중 하나인 연인과의 이별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별을 할 때 신기할정도로 금방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별 그 자체보다 괴로운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통의 크기와 재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이별은 통보한 상대방은 내가 힘들어하기를 바라지도,관심도 없습니다.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괴로워할수록 이를 지켜보는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보다 가치가 낮은 사람이니 더이상 만나면 안되는거야.'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별 극복의 원리가 있을까요? 이별 후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하느냐가 이별 극복에 걸리는 시간과 고통의 크기를 정합니다.사람의 뇌는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정보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때문이죠.아무리 많이 싸우고 헤어졌어도 '내가 이렇게 매일 상대방을 떠올리다니 나는 그를/그녀를 정말 사랑했나봐.' 해석하게 되죠.이런 뇌의 착각을 빨리 깨부실수록 이별의 극복은 쉬워집니다.그러니 이 다음에 해당하는 3가지 행동은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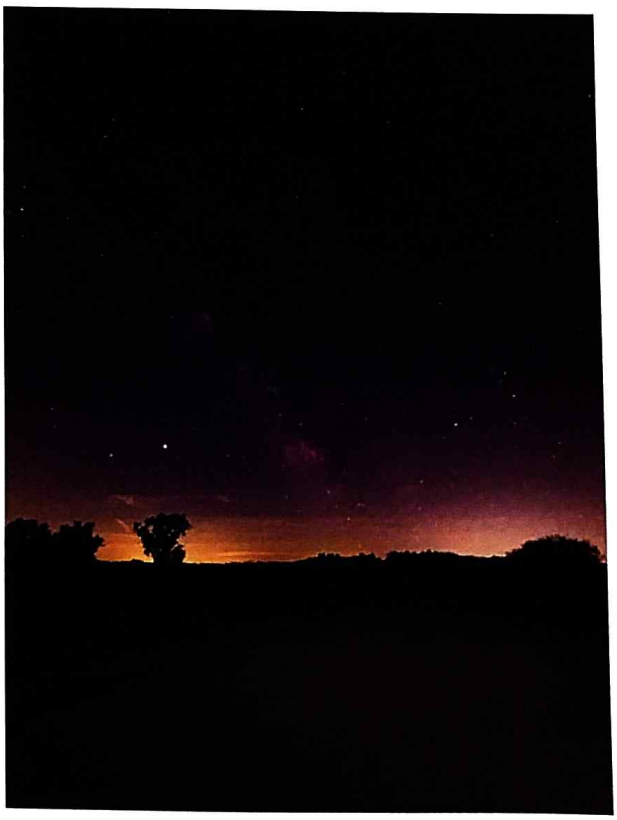
1.과거를 반복해서 재생하지 말 것.

무엇이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에서 넘어가
끝없이 지난날의 잘못들을 생각하고
후회하면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2.재회에 집착하지 말 것.
혹시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 전화나
카톡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다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3.재회를 전제로 행복한 미래를 그리지 말 것.
상대방과 다시 만나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다보면 앞서 설명한
1,2번은 무한굴레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별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극복하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15 5

박지원(사회학과) 다인님의 글을 읽으니, 이별이
조금 가볍게 다가온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현지(경영) 극복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어주신
유용한글 넘 잘 봤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늘 이별을 추억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인님이 써주신 극복방법을 통해서
한 번 더 추억으로 남기는 행동을 해볼 수 있겠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과거의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많이 사랑했었던 게 아니라,
상대방에 내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서 배신감에 못
잊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0:59 | 19읽음
조영주(간호학과)

#14일차

없어도 그려지는 온기. 멍하니 바라보면
느껴지는 미소.
걷다가도 선명한 목소리. 자꾸만 스쳐가는
아름다운 모습.
한 걸음에 다짐을, 한 걸음에 눈물을,
한 걸음에 쿵, 한 걸음에 쾅.
돌고 돌아도 쉬이 사라지지 않는,
너의 향기가 쉬이 잦아들지 않는,
나는 이 별에 있다

/ 이별, 이 별.

16 3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너무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이별이 느껴지면서도 그 속에서 아직 식지 않은 사랑이 느껴지네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별을 띄어서 쓰니 이별이라는 새로운 발상이 만들어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새로운 발상이라서 그런지 흥미롭게 봤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띄어쓰기 한 번에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다니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1:04 | 20읽음
이주영(디미콘)

#14일차
#이별

이별은 헤어짐을 의미하지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의미하고 이별은 참 가슴 아프지만 다음을 기약한다. 살면서 이별은 자주 마주한다. 친구와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지역과의 이별, 물건과의 이별 이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람과의 이별이 정말 슬프다.

어렸을 때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친구와 성인이 된 지금까지 함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유학을 가버리는 바람에 이별을 마주하게 되었다. 친구가 또다시 만나자며 떠나버리고 고등학생쯤 됐을 때 약 5년이 지나서야 만났다. 두근거렸고 기대된 친구와의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다. 친구와 어느새 밤이 될 때까지 놀고 헤어져야 할 때 눈물이 글썽했다. 그래도 또 만남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가장 좋아했던 여행지에 1주일 동안 지냈다. 일주일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눈에 많은 것을 담고 싶었다. 여행지와의 이별을 마주할 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다. 나중에 다시 그곳에 찾아가려 한다 다양한 종류의 이별이 있겠지만 다들 잘 견뎌내시길,,,

15 3

박지원(사회학과) 이별은 다양한 형태로 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 잘 견뎌낼게요!! 따뜻한 글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별의 슬픔을 극복해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극복해날갈 수 있는 건 새로운 만남을 통해 얻는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주영님도 이별의 슬픔보단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라는 노래 한 소절이 떠오르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1:33 | 14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14일차
[이별] 이별의 아픔은 정말 지우기 어렵다. 이별이란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다가 사라진 과정이라고 본다. 또는 한 사람이 떠난 그 과정은 얼마나 슬플지 감이 오지도 않는다. 이별은 항상 슬퍼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나도 예전에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짧은 만남으로 덜 아픈 이별을 경험했지만 이별이란게 좋을 수 없다는걸 알았다. 이별이

좋은 경우는 날 아프게 하거나 날 힘들게한
사람에 대한 이별밖에 없는 것 같다.
이별에 대한 경험은 언제나 두렵기만 하지만
이별이 생기면 새로운 만남도 오는 법이다.
이별에 슬픔에 계속 있기보다는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싶다.

11 3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이별이 생기면 분명 새로운 만남도 오는 법이라 생각해요!!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네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별의 슬픔에 빠져살다보면 결국 그 인생이 자신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소정님의 글처럼 슬픔보단 다가 올 새로움에 설레여하고 이별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서로 함께 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별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1:45 | 16읽음
정우현(인문학부)

#14일차
이별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첫사랑과의 이별, 외할아버지와의 이별, 이사 간 집과의 이별, 전에 다니던 학교와의 이별 등등. 그 이별들이 내 전성기라고 생각할 만큼 특별한 기억들이 많았다. 그냥 너무 특별해서 계속 소장해서 기억해 두고 싶은 소중한 추억들이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잃었다던가 해서 정말 좋았던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었다. 언제 겪어도 적응되지 않는 수많은 이별에 아파하며 혼자 힘들어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별은 다른 추억, 혹은 이별에 묻히더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별은 나에게 발전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별이 없었더라면 새로운 시작 또한 없었을 것이고 이별이 줬던 아픔과 상처 또한 극복하기 위해 인내해야 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나는 강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시련이란 것도, 아픔과 이별이란 것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나를 튼튼하게 해주더라. 이별은 당장은 아프고 언제 괜찮아질지 모르는 아픔을 주지만 이제는 나에게 교훈을 가져다주고 다시 희망을 갖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나 끔찍하고 아프기만 한 줄 알았던 이별은 새로운 출발이자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아직 뜯어보지 않은 선물이 되었다.

14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멋지네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이별은 평생을 겪어도 익숙해질 수 없고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현재의 저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우현님처럼 이별을 통해 추억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보고 싶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이별은 겪는 순간, 정말 끔찍하고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별은 나를 성장시켜주면서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이 들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아직 뜯어보지 않은 선물이 되었다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1:45 | 16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14일차 #이별

초겨울 쓸쓸한 눈비가 속삭이는 날
후회의 눈물이 어루만진 추억 속으로
파고든다
사랑의 마침표를 찍으며
이별의 그림자로 심연이 드러난다

인연은 붉은 실이 연결되고
이별은 붉은 실이 끊어진다
실이 끊어져도 삶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갈라진 길 위를 굴러간다

14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붉은 실이 천천히 끊어지기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연은 붉은 실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실은 실제 그 인연을 만나면 쉽개 끊어지지 않는데요. 쉽게 헤어지고 만나는 연애는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 붉은 실로 연결된 관계는 서로에게 너무 잘 맞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붉은 연이 끊어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인연은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저의 붉은 실들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유민님 글을 읽다보니 '붉은 실'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1:48 | 16읽음
라혜민(사회학과)

#14일차 #이별

아침에 봄이가 좋아하던 고등어조림을
요리해먹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게 다 얼마
만인가 싶어 새삼스러웠다. 아마 셋이 앉던
식탁이 유난히 비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날 이후 시간이 지나긴 했는지, 우리 부부
얼굴엔 수척함은 지나가고 건조함만
남아있다.

얼마간의 침묵 뒤로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올해는 오지 말라셔.
이제 기운 없으셔서 당신 먹을 김치는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충분하시대“
”응“
”그러고 보면 어머니도 김치는 별로 안
드셨잖아. 원체 매운 걸 잘 못 드셔 그런가.”
“그러게”
“우리 이번엔 둘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기분전환도 좀 할 겸”
생각지도 못한 여행 제안에 남편이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지만, 우선 장단을 맞춰줬다.
“그러자, 당신 어디 생각한 곳 있어?”
“봄이, 우리 봄이한테 인사하러 바다 가자”
남편 입에서 먼저 봄이 이름이 나오다니.
고개를 들어 그이의 얼굴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는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작년에 사랑하는 딸, 봄이를
사고로 잃었다. 아이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던
뒷모습을 뒤로하고 영영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 그 뒤로 사람이 많은 시가지에
서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뉴스도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지긋지긋해서
필사적으로 듣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도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 우리 부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13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세상에서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래요. 부부의 시간이 그때에 멈춰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머리로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슬픈 글 잘 읽었습니다 ㅠㅠ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슬픈 글인 것 같아요 잘 읽다가 가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글로만 읽어도 부부의 상실감과 슬픔이 얼마나 클 지 감히 예상이 돼요. 늦었지만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1:48 | 17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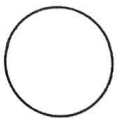
#14일차 #이별

'이별'하면 연애의 마지막이 생각난다.
이별은 참 힘든 것 같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 이별도, 갑작스러운 이별도 이별 자체가 참 힘든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별도 건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연애를 봤을 때 만나지 않고 연락으로 헤어지거나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를 봤다. 이런 이별은 옳지 않다고 본다. 만나서 상대방과의 솔직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해야,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별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별은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다.

12 3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연애에서 느끼는 이별의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인지 다혜님의 글을 보면서 이별이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한 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알 것 같네요 ㅎㅎ
굴 잘 읽었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이별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이 드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분명 이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2023/11/16
thursday, pm 11:57 | 17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14일차 #이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까지?' 싶은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별입니다. 저는 이별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도, 사랑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헤어지는 것도 모두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마침 오늘 이별에 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웰다잉 하는 법, 애도의 단계, 상실을 치유하는 법과 같은 것들을 배우며 이별을 무서워만 했지 극복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간단하게라도 내 삶의 방향과 죽음, 이별에 관련된 것들은 계획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불현듯 닥쳐올지 모르는 이별에 대비해 하루를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내는 것도 이별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매일이 가치 있는 날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 4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이별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있다가 정작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는 게 더 좋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제는 하루를 소중하고 행복하데 사랴구요!! 소은님의 인생도 이젠 이별의 슬픔보단 행복의 기쁨이 더 많길 바랄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순간의 행복을 기억하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하루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 수업을 꼭 들어보고 싶어요. 늦었지만 글 잘 읽었습니다 :)

박지호(식품영양학과) 푸 에세이 책에서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을 느끼는 일은 매일 있어라는 말을 봤어요! 저도 그 말을 무척 좋아해여 ㅎ

2023/11/17

friday, am 12:34 | 22읽음

김양선

#1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린 글들을 보니 '이별'은 역시 가볍게 이야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별을 노래나 시,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은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기기도 하지요. 내가 겪은 오늘의 이별을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면 내일로 한걸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비오는 목요일 잘 마감하기 바랍니다.

11 1

류영찬(빅데이터전공)

2023/11/17

friday, am 7:30 | 29읽음

김양선

#15일차 키워드 : 결말

라이팅 챌린지 1기의 마지막날 키워드는 마침표, 2기의 키워드는 마감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꾸준히 해 온 미션의 매듭을 지어주는 단어가 뭘까 떠올리다가 3기의 마지막날 키워드로 '결말'을 골랐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의 끝, 어떤 일의 마무리는 항상 궁금하면서 또 뿌듯함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계획하는 일이나 이야기가 있나요? 어떤 결말을 내고 싶은가요? 살아오면서 겪은 일이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결말이 있을까요? 드라마나 영화. 동화나 소설 중 결말을 바꿔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바꿔써보기도 괜찮습니다.

13 0

2023/11/17
friday, am 8:34 | 21읽음
김상민(생명과학과)

#15일차 #결말

예전부터 동화, 소설, 영화, 연극 등
결말이 있기에 마치 삶에서도 결말이 있는 줄
알았다.

삶은 연속적이었고
굳이 결말을 맺는다면 인위적으로
'졸업', '퇴사', '이직', '구조조정', '폐업' 등
으로
마치 분리된 시간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
같다.

어제는 수능이었다.
마치 수능이 끝나면 하나의 고비가 끝나는 줄
착각하게 만든다. 마치 결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20살 이후 세상은 분리된 것이 아닌 연속이며
선택마다 흘러가는 굴레였다.

결말이란 죽음 이후에 찾아올까?
그것도 한편으론 인간이 정한
인간이 느끼는 유한한 선 상의 지표이지
않을까 싶다.

결말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간적이기도 하며
인간의 통찰에 대한 한계를 담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다.

연속적인 굴레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의 글을
썼다.

16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인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상민님 글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내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몇 년 전만 해도 수능만 보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인생에선 끝은 없는 듯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7
friday, am 10:37 | 20읽음
조석환(심리학과)

#15일차
結. 맺음. 실이라던가 노끈이라던가 그런
가느다란 섬유의 조직을 얼그러 모아 그
다발로 엉키게하고, 꼬이게 하고, 묶는 것.
末. 끝. 나무 줄기의 위와, 기둥의 맨 위,
무성한 잎사귀들 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
가장 바깥과 가장 위와,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더 이상 연속되지 않는 지점.
結末. 엉키고, 꼬이고 묶인 섬유 다발의 가장
윗 부분 혹은 가장 아래 부분, 가장 끝에 있고
더이상 이어지지 않는 부분.
이렇게 한글자 한글자 해체하여 들여다보고,
다시 이어 붙여서 들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의미다. 그리고 다시 들여다
보면 새로운 의미가 탄생한다.
結末. 맺어진 끝. 이미 결정된 끝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된 끝일 수도 있으며
운명론적과 자연론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미 존재하는 끝일 수도 있다.
맺어진 끝을 알기 전 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상상하며 끝을 맺고 싶어한다. 이러한 과정을
하는 것도 무언가에 의한 우리의 결말이며,
우리가 원하는 끝이 되었든, 안되었든 어쨌든
마주하는 끝도 무언가에 의한 결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되지 못 한 끝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변하기도
하며, 결말의 원인이나 시작을 분석하는
형이상학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걸지도
모른다. 이 또한 누군가에 의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맺어진 우리의 끝이다.
#결말

13 7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이 또한 누군가에 의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맺어진 우리의 끝이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그동안 석환님 글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조석환(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계속해서 같은 실패를 겪게 되면 그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변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에 의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석환(심리학과) 박지원(사회학과)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호(식품영양학과) 글 잘읽었어용. !! 끝의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 와닿었어요
조석환(심리학과) 박지호(식품영양학과) 저의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2023/11/17
friday, am 10:39 | 19읽음
정충민(융합신소재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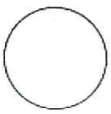
#15일차

글을 시작할 때는 열정적이고 유연하지만 결말에 다다르면 머뭇거리다 완성하지 못한다. 어쩌면 이별과 끝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성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말이 있기에 완성된 작품이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더불어 유명한 소설의 결말은 대단하기보단 오히려 자연스럽다. 책을 끝까지 읽으면 기분 좋게 페이지를 덮는 것이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의사가 오랜 수술 끝에 환자를 극적으로 살리며 찬사를 받는 것, 탐정이 단서를 종합해 범인을 지목하면서 유명해지는 것, 모두 평범한 결말이지만 결코 단순하진 않다. 우리의 일상 또한 그러하다.

14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어릴 때 동화를 보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충민님 글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모든 결말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결말로 향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가치가 있으며 험난하다고 생각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7
friday, am 10:44 | 20읽음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15일차
한 편의 소설이 막을 내릴 때, 그 결말은 독자에게 큰 여운을 남기고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요 캐릭터들은 각자의 운명을 마주하며 성장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는 봄이 찾아와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는데, 이것은 주인공의 내면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은 주인공의 감정과 고뇌를 담아내어 독자를 감동시킵니다.
애인과의 관계도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딪침과 아픔을 극복하며, 주인공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그 순간, 두 사람의 미래가 밝게 펼쳐지는 듯한 기대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향해 결연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력은 독자에게 강한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각자의 이야기들이 모여 전체적인 결말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결말은 독자에게 작품의 여운을 남기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캐릭터들의 모습이 새로운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독자들은 여전히 주인공들에게 공감하고 기대감을 가지며, 이 작품을 마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독자와 작가는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0 4

김현지(경영) 지은님 그동안 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지은님과의 한 여정이 끝나, 다음 이야기들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박혜윤(사회학과) 3주동안 수고하셨어요!! 3주간의 여정 아름다웠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2:05 | 19읽음
정수연(AI의료융합전공)

#15일차
어느새부턴가 결말이라는 단어에서 죽음의 향기가 묻어나왔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과 같은 콘텐츠를 넘어서 내 결말을 떠올렸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작품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결말은 내 사전에 없었다.

인간에게 결말은 뭘까. 나는 언제나 해피엔딩을 꿈꾸는데, 내가 행복하려면 어떡해야 할까. 결국, 내 끝은 어디일까. 언제가 되어서야 결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의 끝에는 결국 죽음이 서 있었다.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결말, 죽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끝을 상기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을 풍요롭게 했다. 할까 말까 고민하던 일은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했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게 했다. 무작정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게 됐다. 내 엔딩에 대한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우도록 만들었다.

가인의 '카니발'이라는 곡이 있다. 죽음, 장례식을 하나의 축제로 표현한 노래인데 그것은 나의 사상과 딱 들어맞았다. 내 죽음이, 결말이 슬프지 않길 바랐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다.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면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의 결말에는 모두가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과정은 어렵더라도 완성하는 순간 분명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야.
후회 없는 죽음, 결말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퍼레이드가 되길 기대한다.

13 6

박지호(식품영양학과) 글 잘 읽었어요 ! 저듀 카니발이라는 노래 참 좋아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예전에 한동안 SNS에서 가인의 카니발 뮤비가 난리였던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한 번 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앞으로의 인생이 퍼레이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3주 동안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인생이 퍼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뭔가 독특하면서도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너무 슬퍼하고 우울한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박혜윤(사회학과) 인생이 퍼레이드가 되도록 기대하며 살아야겠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2:21 | 21읽음
김보민(사회복지학과)

#15일차 #결말

<2022.05.08>

기숙사 세미나실에서 혼자 유튜브를 시청하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세미나실 유리 창문 밖으로 눈물을 훔치며 걸어가는 여성을 보았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코를 훌쩍이며 힘없이 걷는 그 모습이 아른거렸다. 대충 묶은 머리와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던 여성이었다.
그저 세미나실 앞을 잠깐 지나간 짧은 순간이었는데 혼자 오만가지 생각을 다 했다. 무엇 때문에 그리 서럽게 우는 건지 궁금했고, 그 사람이 궁금했다.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우는 게 부러워서일까, 공감이 돼서 그랬던 걸까. 하던 일을 멈춰 노트북을 닫고, 그 여성에게 시원한 음료 하나를 들고 다가갔다. 속상한 일이 있었냐고, 괜찮으면 나에게 말해줄 수 있냐고. 너무 서러워 보여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먼저 말을 걸었다. 그 여성은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학업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고, 인간관계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훌쩍이는 여성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성과 대화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새벽 3시가 지나서야 대화를 마무리 짓고 각자 기숙사로 들어가 잠들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보자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고 헤어졌다.
...
작년 있었던 일이었다. 마지막 문단을 제외한 내용은 현실이고, 마지막 문단은 내가 만약 오지랖이 넓었던 사람이었더라면 이랬을까, 싶은 상상 속 이야기이다. 짧은 일기처럼 한글 파일로 저장해두고 있었다. 이 하루의 결말을 바꿔보고 싶었다.
실제로는 그 분에게 말 한 마디 못하고 그냥 내 할 일만 묵묵히 끝내고 들어가서 잤다. 어쩌면 그때 내가 울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나도 저렇게 서럽게 울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다. 위 이야기 속 여성의 사연은 어쩌면 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13 4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어떻게 보면 생판 모르는 남일뿐인데, 보민님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느껴지네요.
박지원(사회학과) 분명 그분은 보민님의 위로 덕분에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2023/11/17
friday, pm 2:47 | 20읽음
라혜민(사회학과)

#15일차 #결말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 아니면 새드엔딩이라죠.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좋아하시나요?
과거에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했습니다. 주인공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끝으로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말은 이야기를 위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잃어버린 구두를 찾아준
왕자님과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말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야기 밖의 삶은 상상의 몫으로
남겨두었기에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수 있던 건 아닐까요?

지금의 저는 열린 결말에 설득당하곤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어쩌다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으면서도 미래는 어떤 모양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끝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 삶이라는
목적지 없는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모르겠지만 같은 말들을
애정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기를 쓰고
돌파구를 찾아내는 주인공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사랑합니다.

지난 3주간의 챌린지는 어떠셨나요?
매일 짧은 글을 쓰느라 머리 굴리고, 각가지
반응을 남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굴은
알 수 없는 분들이지만, 여러분이 써주신 글을
읽으며 울고 웃고 사랑과 용기를 얻었어요.
가끔 결말을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면, 이렇게
나만의 방에 앉아 고요하게 글을 써봐도
좋겠어요.

늘 건강히 행복합시다.
그럼, 안녕하세요.

15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어렸을 때는
열린결말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은 결말이
열림으로써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펼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챌린지 끝까지 완주하신거
축하드리고 앞으로 혜민님의 열린 결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는 열린결말을 좋아해요 :)
뒷이야기를 제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
설레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고
위로도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박혜윤(사회학과) 열린 결말은 제가 상상하는대로
결말이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많으셨어요~

2023/11/17
friday, pm 2:55 | 15읽음
이유빈(사회학과)

#15일차 #결말

길다면 긴, 짧다면 짧았을 3주간의 여정이
끝이 났다. 라이팅 챌린지를 하는 3주 동안
우리는 누구보다 멋진 자신의 이야기를 펼친
작가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시작되면
결말도 있어야 하는 법. 오늘이 그 이야기의
결말을 써내려가는 날이다.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결말이 좋은
경우도 있다. 이번 라이팅 챌린지는 정말 좋은
결말을 써내려간거 같다. 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라이팅 챌린지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도
두 번째인 지금도 좋은 결말을 써내려가
좋았던 것 같다. 라이팅 챌린지를 3주 동안
함께해준 당신들께도, 나에게도 라이팅
챌린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좋은 결말이
오길 바란다.

다들 멋진 이야기의 결말을 써내려가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3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유빈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그동안 결말이 좋지 않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이번 라이팅 챌린지는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2:58 | 19읽음
김서현(광고홍보학과)

#15일차

처음 신청할 때만 해도 길게 느껴졌던 열 다섯 날이 결말을 맺게 되었네요.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글을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나날들이었네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4학년 2학기라 다음 챌린지에는 참여할 수 없겠지만, 이 기억은 오늘로 결말을 맺고 저의 추억이 되겠네요.

그동안 제 글에 많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 이전에도 행복함만 가득하시기를.

저는 이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하나를 두고 이 결말을 기억하며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vnS_jn2uibs?si=H8luWsiPdmnFEw_l

DAY6 "Time of Our Life(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M/V
www.youtube.com

15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길게만 느껴졌던 3주가 이렇게 후다닥 빨리 지나가버렸음에 놀라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 !!
가양선(경영학과)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꼭 들어볼게여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그동안 서현님의 글을 읽고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해요 라이팅 챌린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학기도 잘 마무리하길 바라요
박혜윤(사회학과) 남은 학교 생활도 좋은 결말 맺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2023/11/17
friday, pm 3:20 | 19읽음
류영찬(빅데이터전공)

#15일차 #결말

4학년 2학기를 끝으로 해보고 싶은건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 중 하나가 글을 써보는 것이었고 마침 라이팅 챌린지 프로그램을 알게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글을 읽고 소통하며 내가 느낀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고 더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손 끝에서 쓰여진 글들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본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어쩌면 지나가다 마주쳤을 지도 모르는 그대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동안 재밌었어요

15 12

이유빈(사회학과) 3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라이팅 챌린지 같이 하셨던 사람들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이유빈(사회학과) 챌린지 완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홍다연(정치행정) 저 또한 다른분들의 글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게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찬(빅데이터전공) 홍다연(정치행정) 그동안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영찬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가양선(경영학과) 3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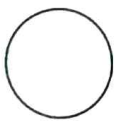
류영찬(빅데이터전공) 가양선(경영학과) 양선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박지원(사회학과)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정우현(인문학부) 고생했어요



2023/11/17
friday, pm 3:31 | 17읽음
홍다연(정치행정)

#15일차 #결말
라이팅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쓰게될지 기대하며 밴드앱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글을 적는다는 것이 내심 부담으로 다가왔으나 다른 분들과 함께 서로의 글을 나누고, 그에 응답하며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주제로도 이렇게나 다양한 글들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5일간 진행했던 이 도전은 이번 학기에 진행했던 활동들 중 가장 뜻깊었고 기억에 많이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다른 관점에서 키워드를 생각해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해 댓굴과 공감표시로 소통하며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말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챌린지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평소에 스스로 꾸준히 글을 작성해나가며 또 하나의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더욱 성장해나가고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훌륭한 글을 읽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했던 저의 글이 다른 분들께 작게나마 귀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다연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박혜윤(사회학과)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15일이 좋은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까 하면서 기대를 한 것 같아요~~ 3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3:37 | 17읽음
신유정 (심리학과)

#15일차#결말

'어떤 일의 마지막'. '이야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 '결말'의 의미를 '나의 대학생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다른 사람보다 학교를 1년 오래 다녔다. 그리고 재수도 했었다. 항상 늦게 시작하고. 더디게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이 가득했었다.물론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마무리한 일들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던지 신중했고. 결단을 내렸을 때는 애를 많이 썼다. '마지막 남은 학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잘 마무리 하고 싶어 노력하고 있는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의 나'와 '들어오고 나서 나'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는 것 이였다.
여전히 깔끔하고. 완벽하고. 행복한 결말을 좋아해서 이상과 괴리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 실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서 인생에 필요한 자산을 많이 남기고 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나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결과를 생각하며 지금을 그다지 만족스럽게 보내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 그 때 많이 웃고 싶어서 현재의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었다. 그런데 결말은 점점 더 뒤로 간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결과도. 그동안의 과정도 별로 좋지 않다.
무작정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많이 한심해 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었다. 그렇지만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있기도 하다. 방법을 바꾸거나 나에게 보상을 적절히 주는 것, '이렇게 해야 해'하며 완고한 고집이 아닌 불편한 것을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 보면 멀리 있는 결말이 잡히지는 않아도 어떻게 될 지는 조금 예상이 가능하다. 적어도 망했다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드 엔딩이나. 결말이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웃을 수 있는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결말이 어떻다고 미리 실망하지도. 또 미리 엄청 좋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자.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하면 결말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내가 불행하면 결말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11 7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유정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신유정 (심리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가양선(경영학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신유정 (심리학과) 가양선(경영학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과정이 길어도 결말이 행복하면 과정도 행복하다고 기억되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어떤 일이든 미리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행복하면 무조건 실망을 느끼고 불행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현재의 삶을 즐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싶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2023/11/17

friday, pm 3:42 | 17읽음
김서희(심리학과)

#15일차
벌써 라이팅챌린지를 시작한지 3주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는데 매일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라이팅챌린지에 도전한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다. 그리고 다른 학우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다른 시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13 5

류영찬(빅데이터전공) 챌린지 완주 축하드려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서희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가양선(경영학과)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동안 서희님의 글을 읽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셧어요~~!!

2023/11/17
friday, pm 4:39 | 18읽음
문정희(법학과)

#15일차

결말..
모든 일에 끝이 있기에
슬프기도 때론 버틸 수도 있게
만든다

내가 3주 동안 글을 쓰면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나의 감정을 다시 되돌아 보기도 했다

결말이 난 나의 글들이지만
그 글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은
끝나더라도 나에게
계속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3주를 뒤로하고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더욱더 성장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12 6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모든 일에 끝이 있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다는 말이 참 좋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
박지호(식품영양학과) 글 잘읽었어요! 모든건 끝이 있다는 말이 슬프면서도 희망적으로 다가오네요
가양선(경영학과) 앞으로 더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박혜윤(사회학과) 열린 결말의 3주를 행복한 결말이라고 상상하고 싶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니, 정말 슬프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 3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5:16 | 15읽음
박지호(식품영양학과)

#15일차
어느덧 마지막날이 왔네요. 첫 날 시작하는 마음으로 첫 글을 쓴게 어제같은데 역시 시간은 참 빠르죠.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때 조금은 저의 성장을 기대했지요.
글을 쓰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하던 저였지만 매일 이렇게 글을 써보니 벌써 20개가 넘는 글이 쌓여있더라구요.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언제나 도전하고 경험에 가치를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땐 귀찮고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습관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나를 만들기위해 또 부단히 하루를 노력하며 살아가야겠어요 ㅎ

12 4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앞으로의 지호님 도전과 경험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
가양선(경영학과)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그러게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라이팅 챌린지..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당~

2023/11/17
friday, pm 7:04 | 17읽음
조성현(철학과)

#15일차

우리는 결말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결말과 싸우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결말을 미리 알고 싶기도
합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등등
결말을 알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행복한 결말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말은 미리 알 수 없고
결말을 맞이해도 행복한 결말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며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힘이있습니다.
바로 여러 결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처럼 하나의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결말을 향해 또한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는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는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의 결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다음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봅시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인 희망을 손에 쥐고
행복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봅시다.

ps.라이팅 챌린지의 결말은 행복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쓰는 글의 재미를 알아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 6

가양선(경영학과)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여러 결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말이 왜인지 참 든든하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
박혜윤(사회학과) 라이팅 챌린지의 결말이 행복했어서 다행이에요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저희의 결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음 결말이 있으니 힘을 내야겠어요. 마지막까지 좋은 글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결말을 알 수 없기에 현재를 더 가치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보자구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2023/11/17
friday, pm 7:17 | 14읽음
김채연(환경생명공학과)

#15일차 #결말
처음 라이팅 챌린지를 할 때만 해도 글을 쓰는 게 너무 어색하고, 짧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긴 수업이 연달아 있는 날은 쓰기조차 귀찮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점점 3주 차가 가까워질수록 글쓰기가 자연스러워지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3주도 금방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오늘의 키워드를 보고 떠오른 사실은, 저는 결말을 항상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끝맺음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판도가 뒤바뀌기도 하고 쌓아왔던 시간들이 가끔은 물거품이 되기도,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도 하니까요. 라이팅 챌린지는 이번 겨울에 저에게 좋은 결말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챌린지가 끝나고도 긴 글을 한번 써보고 싶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주의 시간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6

가양선(경영학과)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채연님 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
박혜윤(사회학과) 저도 처음엔 3주가 길게 느껴졌는데 이젠 엄청 짧게 느껴져요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긴 글도 한 번 써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3주라는 시간동안 주어진 키워드로 글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채연님에게 박수를 쳐 드리고 싶어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2023/11/17
friday, pm 7:33 | 14읽음
김현지(경영)

#15일차 #결말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공강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시어에 맞게 글의 주제를 고민하고
썼다 지우길 반복하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단서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의 글을 읽으며 공감하기도 했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주 동안 진행되어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글쓰기가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닌, 열린 결말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처럼 틈이 날
때마다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며 꾸준하게
좋은 습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9 10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챌린지를 통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어요! 3주 동안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김현지(경영) 가양선(경영학과) 양선님 감사합니다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 오늘은 어떤 제시어가 나올지 설레하며 밴드 어플을 열었던 기억이 나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

김현지(경영)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맞아요ㅎㅎ 아침에 일어나면 꼭 밴드 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끝나서 아쉬워요 지은님 그동안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넘 감사드려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지(경영) 정우현(인문학부) 우현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는 그 썼다 지웠다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내가 정말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3주 동안 너무 행복했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김현지(경영) 박지원(사회학과) 지원님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비록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현지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의 3주라는 시간도 소중했던 같아요 ㅎㅎ 3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김현지(경영)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그동안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17
friday, pm 8:16 | 16읽음
가양선(경영학과)

#15일차 #결말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결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결말은 시원섭섭, 아쉬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3주간 참여한 라이팅
챌린지의 결말을 내려야하는 지금
시원섭섭한 감정이 듭니다. 3주 동안 다양한
주제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저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을 배웠고,
감정을 글로 나타내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공감과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챌린지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 생각합니다.
3주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 9

김현지(경영) 저도 무척 시원섭섭합니다 ㅎㅎ ㅠ 그동안 글 잘읽었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김현지(경영) 감사합니다!!ㅠㅠ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양선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가양선(경영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감사합니다! 지은님도 수고 많이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가양선(경영학과) 정우현(인문학부) 감사합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번 3주 동안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 마음을 엿볼 수 있어 좋았고 행복했어요 :) 큰 위로를 받고 생각도 넓어진 기분이 들어요! 3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가양선(경영학과) 박지원(사회학과) 3주 동안 지원님 글 잘 읽었어요! 3주 동안 수고셨고,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하게 끝날 수는 없겠지만 양선님에개는 행복한 결말의 순간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3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2023/11/17
friday, pm 8:20 | 20읽음
정우현(인문학부)

#15일차
어렸을 때만 해도 결말에 대해 별생각 하지 않았다. 그냥 하루하루를 즐겼던 것 같다. 근데 고등학교를 입학하고부터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다. 중학생 때 까지는 결말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학교만 출석하면 진급시켜줬는데 이제부터는 내 역량으로 사회적지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커지기 시작했다.

성인이 되고 지금 와서는 고등학교 때처럼 미래를 그리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게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말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영화를 볼 때도 한 장면 한 장면에 빠져들면서 몰입할 수 있는 영화가 재밌는 영화이지, 결말이 어떻게 될까에만 추리하면서 보는 영화는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등 이런 생각들은 정말 부질없다.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결말을 행복하고 즐겁게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말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결말에만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 봤기 때문이다.

미래보다 현재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라이팅 챌린지가 나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열어주신 교수님들과 기타 도움을 주시고 있는 학교 관계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을 마쳐야겠다.

감사합니다!

☺ 12 ⋯ 10

가양선(경영학과) 챌린지하면서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가양선(경영학과) 감사합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유일하게 프로필 사진을 본인 모습으로 해놓은 분이셔서 한 번에 제 기억에 각인이 됐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인사해주세요~
박지원(사회학과) 어떤 일이든 현재를 살아가야 하고, 나에게 닥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아요 :) 3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박지원(사회학과) 맞습니다 !감사함니다
김현지(경영) 우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김현지(경영) 감사해용~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미래의 결말을 알지 못하기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과 설렘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올 과정들이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보자구요!! 그동안 우현님 글을 읽으면서 힘이 되었네요 ㅎㅎ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정우현(인문학부)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하영님의 댓글을 보고 힘을 얻었네요 감사해요~!!

2023/11/17
friday, pm 8:27 | 14읽음
배성준(경영학과)

#15일차
시선 너머로 거대한 막이 펼쳐진다.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 아니 열어볼 수 없는... 시간이 흐른다. 내 발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거대한 막이 가까워지고, 거대한 막에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막은 투명해진다. 처음에 막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 어떤 빛도 없이 어두캄캄해서 막연하고 무섭기만 했는데 이제는 막에서 들어오는 옅은 빛으로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찬다. 나도 내가 마지막이라는 막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돌아온 길이 사소하면서도 성대하다는 것을 안다.

이제 단 두 걸음만 내딛으면 마지막에 닫는다. 느리게 옮기던 발을 멈춘다. 시계의 초침이 8을 가리키려다 그대로 멈춰선다. 내가 왔던 길을 잠시 숨을 돌려 바라본다. 발굴했던 길들이 마구 엉켜있다. 그만큼 고난과 시련이 많았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나만의 길을 창조했다는 것일 것이다. 시작점은 멀리 보이지 않는다. 다시 고개를 돌리고 막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그대로 굳어버릴 줄만 알았던 초침이 9를 향해 육체를 일으킨다.

"여기서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힘들고 나를 무겁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간의 기억과 경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결말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에워싼다.

"결말 밖에 나가면 그때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힘차게 발을 내딛는다. 초침은 9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세운다.

막을 손으로 짚었다.

부드럽다.

그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초침은 0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빛만이 나를 둘러싼 눈부신 곳에서 계속 걷는다.

말하지 못할 뿌듯함, 보람감, 성취감이 밀려온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
.

빛이 다시금 줄어들기 시작한다.
빛과 어둠이 섞여 일렁이다가 완전히 암흑이 된다.
계속 걷는다.

저 너머에 아주 옅은 빛깔이 새어나온다.

시계의 초침은 0에서 1을 향해 움직인다.

12 10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성준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배성준(경영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일일히 답글 달아드리지는 못했지만 항상 제 글 열심히 읽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배성준(경영학과) 정우현(인문학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정말 재밌고 신기한 글이라 생각이 들어요 :) !! 마지막까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배성준(경영학과) 박지원(사회학과) 감사해요!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마치 인생을 시계에 비유한 것 같아서 참 멋진 글이었다고 생각해요 ㅎㅎ 항상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3주동안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글 잘 읽었습니다!!

배성준(경영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혜민(사회학과) 수고하셨어요! 따뜻한 주말 되세요~

배성준(경영학과) 라혜민(사회학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9:10 | 19읽음

홍은기(영문학과)

#15일차 #결말

밸모럴의 새벽 공기는 숨이 막혔다.

"비가 많이 오네." 우리 중 누군가 모든 영국인들이 할 말이 없을 때면 꺼내는 공통 주제를 꺼냈다. 우리는 모여 앉아 공보관의 전화를 기다렸다. 티비 속에서는 뉴스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평소와는 달리 아주 이른 시간부터. 다이애나의 이름과 소위 그녀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 남자의 이름이 반복됐다.

해리와 윌리엄은 각자의 방에서 자고 있다. 애들에게는 해가 뜨면 말할 작정이었다. 부디 최악의 사실을 전하는 일만은 없기를 바랬다. 아이들은 엄마를 잃기엔 아직 너무 어렸다. 다이애나도 어렸다. 결혼할 때의 나이가 겨우 20살이었다. 내가 다이애나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더 어렸다. 다이애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치켜 뜨며 나를 바라봤다. 다이애나는 관심의 한 가운데에 서는걸 즐기면서도 지금까지도 앞에서는 이유 없이 볼을 붉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건 아이들을 스코틀랜드로 데려갈 때다. 아이들은 차 뒷좌석에서 우릴 훔쳐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비쥬를 하고 차에 탄게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어쩌면 나의 대관식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먼 미래에는 윌리엄의 대관식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그녀는 어쨌든 간에 나보다 어리니 말이다).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결혼식에 축하의 말을 전할 수도 있겠지(결혼식이 가능만 하다면).

살아만 있다면 가능성만은 열려 있을 것이다.

살아만 있다면.

"수술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파리에서 다시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 말에 따라 우리의 결말이 나타날 것이다.

13 5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그동안 은기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정말 여러 생각이 드는 결말인 것 같아요~~ 3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뭔가 뒷내용이 궁금해지는 글이다 보니 이번 챌린지의 끝으로 인해 은기님의 글을 볼 수 없다는 게 슬프네요 ㅠㅠ 그래도 그동안 은기님의 글을 보면소 많은 공감도 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ㅎㅎ 3주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글도 잘 읽었습니다!!

라혜민(사회학과) 수고하셨어요! 안온한 밤 되세요 :)

2023/11/17
friday, pm 9:25 | 18읽음
박지원(사회학과)

#15일차 #결말

가끔은 영화나 소설 속 결말이 애매모호하게 끝나거나, 열린 결말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이런 애매모호함이 참 마음에 든다.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이기에, 내가 생각한 대로 결말을 상상하며 뒷이야기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의 결말은 작가나 감독에 의해 정해지거나 혹은 시청자나 독자에 의해 정해지기도 한다. 결국 결말은 누군가가 정해놓고 짜인 틀 속에서 흘러가기 마련이다. 누군가가 그 틀을 건들더라도, 이미 정해진 운명은 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결말도 운명에 의해 혹은 내가 짠 각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짜놓은 결말은 나이가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음악 카페를 열면서 나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다. 나는 그저 나의 결말이 꼭 불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고요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한 내 주변 지인들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2 8

신유정 (심리학과) 지원님의 결말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제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크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지원님의 결말이 고요하게 흘러가기를 바랄게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용~~
김현지(경영) 지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열린 결말 저도 좋아해요~3주동안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원님이 생각하시는 결말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아주 가득한 행복이 꼭 넘쳐나길 제가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라혜민(사회학과) 지원님의 결말은 따듯하고 다정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

2023/11/17
friday, pm 9:37 | 20읽음
오하영(영어영문학과)

#15일차 #결말

과거에는 정해지지 않은 결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었다. 내가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을지에 대해 안다는 게 현재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난 항상 결말을 먼저 찾아보곤 했다. 결말을 보고 나서야 영화 속에 깜짝 등장하는 것들에도 놀라지 않고 평화롭게 볼 수 있었다. 어쩌면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이와 달리 드라마는 결말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드라마 편성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정해진 요일과 시간 외에는 볼 수 없었기에 결말을 원하는 나와는 맞지 않았다.
친구와 영화 약속이 정해진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나는 보려고 하는 영화에 대한 결말을 인터넷에 찾아보았다.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핸드폰으로 영화의 결말을 보고 있는 나를 본 친구는 나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아니, 이제 곧 볼 건데 왜 결말을 찾아봐?"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대답해야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몇 초 동안 머리를 굴려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결말을 알아야 영화를 볼 때 아무 걱정 없이 보잖아."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나를 존중해주었다.

"아, 그래?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보면 재미없지 않아? 결말을 알면 네가 말했듯이 걱정 없이 볼 수 있지만, 나는 결말을 몰라야 영화를 처음 보는 설렘이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친구의 그 말은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안정적인 것을 항상 추구하던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짜릿함이나 설렘을 모르고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재밌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동안 늘 결말을 알고 있던 상태로 봐서 그런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긴 여운이 남지도 않았다.
친구의 한 마디에는 여운이나 재미가 없는 이유가 담겨있었고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결말을 향해가는 과정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끝을 알고 있다면 설렘이나 짜릿함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영화의 결말을 찾아보지 않는다. 이제는 앞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렘을 가득안고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영화를 보는 내 다가올 결말에 대해 긴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긴장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었고 결말에 대한 여운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짙게 남아있었다.
어쩌면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생기는 일들이 당연한 듯이 느껴지고 현재를 즐기는 순간보단 그저 미래가 오길 기다리는 지루함만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자.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자. 어떤 결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의 나를 보다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자.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교훈일지도 모른다.

13 16

신유정 (심리학과) 마지막 문장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하죠 3주 동안 하영님의 좋은 글과 따뜻한 댓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신유정 (심리학과) 저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유정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꾸준히 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ㅎㅎ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도 범죄 드라마 볼 때는 늘 범인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결말을 보고서야 정주행을 시작하곤 했어서 그런지 예전의 하영님에게도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하영님 글에 댓글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늘 정성스럽게 댓글 다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감사했어요. 하영님이 항상 같이 다시는 이모티콘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저의 댓글이 누군가에게 좋은 힘을 주었다는 게 감사하네요!! 저도 지은님의 글들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3주동안 감사했습니다 ㅎㅎ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양선(경영학과) 3주 동안 하영님의 글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가양선(경영학과) 저도 양선님의 글을 읽으면서 좋았던 기억들이 많네요 ㅎㅎ 양선님도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ㅎㅎ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정우현(인문학부) 우현님도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ㅎㅎ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저는 미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항상 결말만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할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요. 3주 동안 하영님의 글을 읽으며 저의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박지원(사회학과)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사시는 지원님이 언젠가 행복이 가득한 결말을 맞이하시길 제가 응원할게요!! 3주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항상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글 그동안 잘 읽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고다인(중국학과) 저도 다인님의 글을 읽으면서 힘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3주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현지(경영) 하영님의 글을 읽으며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김현지(경영) 저의 글을 읽으시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다니...!! 너무 감동이네요 ㅠㅠ 현지님도 3주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라혜민(사회학과) 늘 따뜻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영님의 결말을 향한 항해를 응원할게요! 수고하셨어요 :)

오하영(영어영문학과) 라혜민(사회학과) 저도 혜민님의 글을 읽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ㅎㅎ 혜님의 결말에도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2023/11/17
friday, pm 10:05 | 17읽음
임미혜(사회복지학과)

#15일차
3주간의 나의 이야기를 매듭 짓는 하루가 왔다.
그동안 매일 글을 쓰면서 나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먼저 전한다.
그리고 항상 흥미로운 주제와 참여를 독려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를 전한다.
'글'의 장르도 지금까지 쓰여진 글들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3주간 많은 학우분들의 글을 읽으면 각 고유의 문체나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깊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글, 무언가 몽글 몽글한 느낌의 글 등 다양한 느낌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한 주제에 대해 모두의 생각이 조금씩 다름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3주간 글을 쓰는게 쉽지는 않았다. 과제하다 까먹고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하루의 한 번, 적은 시간에 무언가 생각을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좋았다.
다음에도 이 챌린지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할 것이다.
너무나 즐거운 3주 간의 이야기 덕분에 대학생활의 추억이 생겼다.
그동안 함께 글을 쓰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모두 포근하게 보내시길,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2 8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제 하루의 끝에는 꼭 라이팅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가양선(경영학과) 미혜님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셨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수고하셨어요! 이번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3주 동안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많은 위로도 받고 다양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글로서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챌린지의 아주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ㅎㅎ 이 챌린지가 미혜님의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고다인(중국학과) 3주동안 글 잘 읽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라혜민(사회학과) 3주간 꾸준히 글쓰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2023/11/17
friday, pm 10:08 | 17읽음
김경회(국어국문학과)

#15일차 #결말

[The end or The and]

이번학기의 챌린지는 제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참여할수 있는 챌린지였습니다.

졸업논문을 작성하면서 정말 졸업을 앞두고있다는 것을 체감하고있는데요

4년간의 학교생활의 결말을 지을때 라이팅 챌린지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것같은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졸업이후에도 또다른 '챌린지' 를 이어나갈지도 모릅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선 이것이 제 인생의 한 구간의 '결말'이 되지만 긴 이야기 속에선 '과정'으로써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잘 결말지을수있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2 7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미리 졸업 축하드려요. 4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경회님 챌린지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가양선(경영학과) 미리 졸업 축하드립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3주간의 챌린지가 경회님이 한 단계 더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챌린지는 결말을 맞이했지만, 이 챌린지가 경회님의 인생의 한 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은 비록 짧아도 인생은 길기 때문에 무한한 챌린지와 결말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경회님의 이야기도 항상 응원할게요
고다인(중국학과) 끝없는 결말의 연속에서 성취감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3주동안 수고하셨어요
라혜민(사회학과) 대학생활에서 라이팅 챌린지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겠어요. 미리 졸업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10:21 | 18읽음
이주영(디미콘)

#15일차
#결말

끝을 결말이라 생각해 보면 결말은 모든 순간에 있다. 라이팅 챌린지를 한 지 벌써 3주가 되었고 이제 끝이 다가왔다. 결말이 있다는 것은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이번 주 나에게 많은 결말을 안겨주었다. 매주 즐겨보고 매주 기대했던 청춘 드라마도 결말을 맞이했고, 과제나 팀플을 마무리했고, 항상 다녔던 카페도 마지막으로 찾아갔고, 이 챌린지도 마감이다. 하지만 결말이 생기면 시작도 생겨나는 법 새로운 팀플도 생겼고, 새로운 드라마를 즐겨보기 시작했으며, 새롭게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생겨난다. 결말을 아쉽게 생각할지라도 결말이 있기에 시작이 있다.

나는 열린 결말을 좋아한다. 내 마음대로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드엔딩이나 해피엔딩을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니 생각할 것도 많다. 열린 결말에서 내가 만든 결말로 내가 만든 결말을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며 돌고 도는 게 시작과 끝 즉 결말인 것 같다.

13 7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일본어 공부라니, 너무 멋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가양선(경영학과) 결말이 가지고 오는 또 다른 시작이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닫힌 결말을 좋아해요!! 딱 정해진 결말이 뭔가 끝이 났구나허는 느낌을 준달까요?? 하지만 가끔은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열린결말이 끌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ㅎㅎ 주영님 글처럼 내 맘대로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열린 결말을 좋아해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고다인(중국학과) 열린 결말은 긴 여운을 주더라고요~수고하셨어요
라혜민(사회학과) 저도 열린 결말을 좋아해요. 끝을 모르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요. 수고하셨어요!

2023/11/17

friday, pm 10:37 | 19읽음
김명지(데이터테크)

#15일차 #결말

10월의 마지막에 시작한 챌린지가 11월의 절반이 조금 지난 오늘 끝을 맺었다. 보자마자 글이 술술 써지는 주제도 있었고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몇 줄을 적을 수 있었던 주제도 있었다. 때론 시간에 쫓겨 마감 직전 겨우 인증을 끝내기도 했다.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15일이 지나 어느새 일상에 녹아들었던 매일 글짓기에 결말을 지을 때가 왔다. 이후 내가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완결을 냈다는 게 뿌듯하다.

얼마나 더 많은 완결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의 나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한 가지 소망이자 욕심을 가져본다면, 그 모든 과정이 더 나은 나로 귀결되기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기를.

3주 동안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12 8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요
가양선(경영학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했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당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도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키워드를 나만의 글로 풀어쓰는 게 재밌어서 챌린지가 힘들어서 즐겁게 버텼던 것 같네요 ㅎㅎ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글 잘 읽었어요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마감 직전에 업로드했던게 공감되네요~수고하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의 인생에서 아직까지 많은 결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명지님처럼 그런 결말들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울 듯합니다 3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혜민(사회학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늦었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앞으로 명지님에게 멋진 완결이 많이 있길 바라요!

2023/11/17
friday, pm 11:10 | 17읽음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15일차 #결말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나는 결말의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의 설렘 사이에서 빙빙 맴돌고 있었다.

새 시작의 문을 열기 위해 과거의 아픔과 실수의 결말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심어주었다. 과거의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설렘으로 승화시켰다.

앞으로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든 담대히 맞서 시작할 수 있기를 :)

12 6

가양선(경영학과) 늘 담대히 맞서고 시작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인생의 결말을 모르기에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재겪는 일에 대한 설렘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즐겁게 누려보자구요 ㅎㅎ 그리고 유민님의 인생의 결말에는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3주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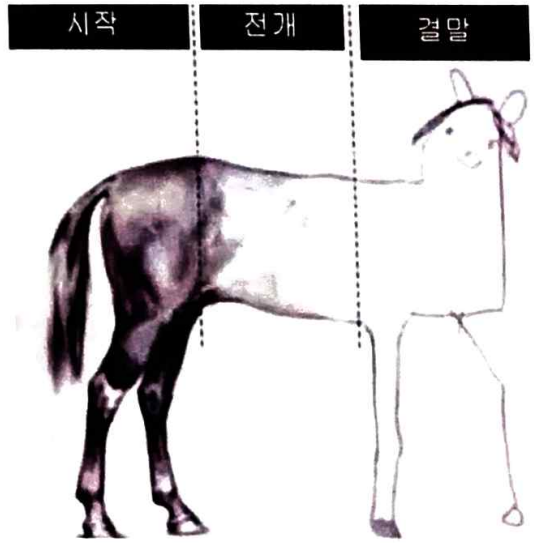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앞으로의 결말이 어떻든 맞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 동안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혜민(사회학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늦었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대하게 맞서 시작하는 유민님의 삶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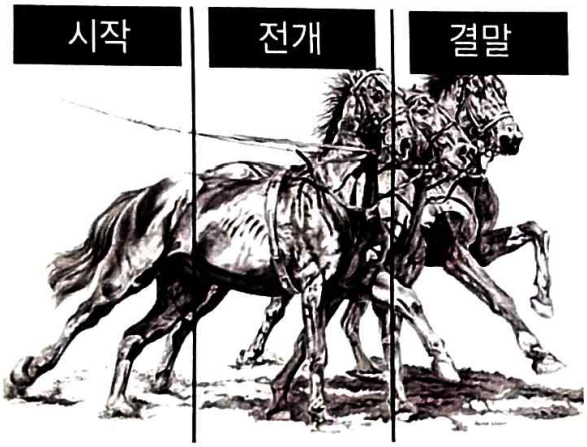
2023/11/17
friday, pm 11:13 | 18읽음
고다인(중국학과)

#15일차 #결말

결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마무리되는 끝'입니다.우리는 영화의 결말,연극의 결말 등등 다양한 결말들을 알게되고는 하죠.소설책도 결말부터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천천히 보다가 결말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엄청난 인기를 끄는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일부러 모든 회차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곤 합니다. 주위에 가득한 스포일러들을 애써 무시하며 드라마가 다 끝나고 인기가 사그러들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드라마에 한 번 집중하면 다음 회차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서도 있고, 주위 사람들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하며 시청하는게 더 좋기때문입니다.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하며 꾹 참았다가 밤새 1회부터 쭉 몰아보면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보고는 합니다.가끔은 정말 결말까지 완벽히 탄탄한 드라마가 있지만 보통은 흔히 말하는 '용두사미(龍頭蛇尾)' 드라마가 많아 실망하는 일도 있죠. 이럴땐 결말 쯤 긴장감이 확 없어져버려 실망하며 시청합니다. 저의 이런 몰아보기 습관은 가끔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위 친구들이나 친동생의 스포덕에 결말을 알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말이 어떤지 빌런이 누군지 등등 알고싶지 않았던 사실들을 알고 드라마를 시작해도 보다보면 집중하느라 잊어버릴때도 있습니다.이제는 또 어떤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려 합니다. 결말까지 긴장감있는 드라마를 아신다면 추천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3주동안 즐겁게 라이팅 챌린지를
해오신 학우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 13

가양선(경영학과) 3주 동안 다인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제 글에 남겨주셨덤 댓글들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다인(중국학과) 가양선(경영학과) 감사해요~
박혜윤(사회학과) 이 짤의 반대버전을 본 적이 있어요 결말이 완벽한 말의 그림이요. 3주동안 완주하신 모든 학우분들이 그 그림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박혜윤(사회학과) 맞아요 용두사미가아닌 두번째 사진과 비슷하신 학우분들이 더 많죠~댓글 감사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고다인(중국학과)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저는 처음에 결말을 알아야 안정감이 생겨서 찾아보곤 했었어요. 그런데 결말을 안다는 건 새로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젠 결말에 대한 설렘을 느끼기 위해 보지 않게 돠었죠 ㅎㅎ 저는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결말을 알지 못하기에 인생은 즐겁고 짜릿할 수 있는거죠!! 다인님의 결말에는 어떤 것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결말이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니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보자구요 ㅎㅎ 3주동안 고생많으셨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고다인(중국학과) 오하영(영어영문학과) 행복한 결말을 바라며 즐겁게 살아가야겠어요~감사해요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결말이 별로여서 중간에 끊은 드라마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라이팅 챌린지의 결말은 너무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3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고다인(중국학과) 박지원(사회학과) 지원님 3주 챌린지 수고하셨어요~~
라혜민(사회학과)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상도 응원할게요!
고다인(중국학과) 라혜민(사회학과) 감사해요~수고하셨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신하균 여진구 주연 '괴물' 드라마를 추천드립니다! 범죄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요 크크,, 늦었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11:18 | 19읽음
이다혜(사회복지학과)

#15일차 #결말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결말이 있다.
결말은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결말을 쓰고 있다.

나는 하루의 마지막을 라이팅챌린지로 마무리 하고 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면서 내가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모두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글을 읽으며 웃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11 7

고다인(중국학과) 라이팅챌린지 완주 수고하셨어요~
박혜윤(사회학과) 오늘 하루, 지난 3주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오하영(영어영문학과) 3주라는 시간동안 어떤 날은 글을 쓰기 어렵고 귀찮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완주를 하니 정말 기쁘네요 ㅎㅎ 다혜님도 이 시간들이 하나의 추억과 좋은 경험이 되어 미래의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박지원(사회학과) 그러게요, 저희는 오늘 하루의 결말을 써 내려가고 있네요 :)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혜민(사회학과)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야기처럼 저도 제 속 얘기를 여기서는 풀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11/17
friday, pm 11:20 | 18읽음
안소정(언어병리학과)

#15일차
[결말] 영화엔 결말이 꼭 있다.
이 3주 프로젝트도 결말이 찾아왔다. 슬프던 기쁘던 결말이 나온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감정을 담아 글을 적을 땐 뭉클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볼 땐 기쁘고 놀랍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뭘까?

난 꾸준함을 키워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무언가 꾸준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작심삼일을 깨고 3주 동안 글쓰기를 잘 완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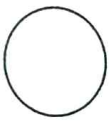
뿌듯하기도 아쉽기도 한 프로젝트는 꾸준함을 길러준 뜻깊은 프로젝트이다.

13 7

고다인(중국학과) 3주 라이팅챌린지 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길고도 짧은 3주의 시간동안 사실 귀찮았을 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ㅎㅎ 소정에게도 3주의 시간이 뜻깊고 소중한 순간으로 추억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ㅎㅎ 글 잘 읽었습니다!!

박혜윤(사회학과) 작심삼일도 10번이면 한 달이라는데 라이팅 챌린지는 거의 한 달을 했으니 꾸준함이 완벽히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성장과 행복 아닐까요?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저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 글을 작성하다 보니 너무 뿌듯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생각과 감정도 읽을 수 있어 더더욱 좋았고 행복했어요~~ 3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라혜민(사회학과) 꾸준함은 반짝 하고 빛나지 않는 순간에도 버티는 힘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늦었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뿌듯함이 많이 남는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2023/11/17
friday, pm 11:51 | 14읽음
김준호 (콘텐츠IT)

#15일차
결말.
어떤 일, 이야기의 끝을 우리는 결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말은 곧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데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누군가는 이를 결말로 볼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위기에서 기회를 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절대는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결말도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끝을 의미하진 않는다. 앞에서 보기에 결말일 뿐 한발짝 나아가 뒤돌아보면 시작이기에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결말을 보고 다시금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 결말 이후 더 나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지금의 결말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높은 벽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벽이 아닌 문으로써 다시 열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11 6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고다인(중국학과) 결말이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죠~3주동안 수고하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봉준호 감독이 남긴 명언이 떠오르네요! 봉준호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이게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당연히 벽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문이다.'라는 대사인데, 준호님도 벽이라 생각했던 문을 발견하시길 바랄게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아직 우리는 진정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맞이하는 결말에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죠 ㅎㅎ 준호님도 최선을 다해 산 인생의 결말이 행복한 순간이길 바랄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라혜민(사회학과) 수고하셨습니다!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늦었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벽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큰 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2023/11/17
friday, pm 11:55 | 14읽음
조영주(간호학과)

#15일차

계속 걸어갑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어도
계속 걸어갑니다
무너질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때라도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하루에 최선을
하루에 순종을
하루에 기도를
하루에 감사를
차츰차츰 내 길 따라
느려도 꾸준히 나는 걸어갑니다

결말은 이 모든 순간의 결과
알아주지 못해도
드러나지 않아도
홀로 있는 중에 행한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결말이 되어 빛을 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무너질 것 같을지라도
나는 오늘을 그 빛을 따라
걸어갑니다

/ 꾸준한 하루하루가 모여 15일,
수고하셨습니다!

12 6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어요!
박지원(사회학과) 우와 너무 희망적인 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누구도 저의 결말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 빛을 따라 저만의 길을 찾아 걷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3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내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말이 행복해지는 비결같네요 ㅎㅎ 영주님에게도 그런 행복 가득한 결말이 오길 응원할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글 잘 읽었어요!!

라혜민(사회학과) 시나브로 자란다는 말이 생각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다인(중국학과) 꾸준히 걸어가다보면 생각치못한 결말이 맞이하고 있죠~3주챌린지 수고하셨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늦었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우리 모두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길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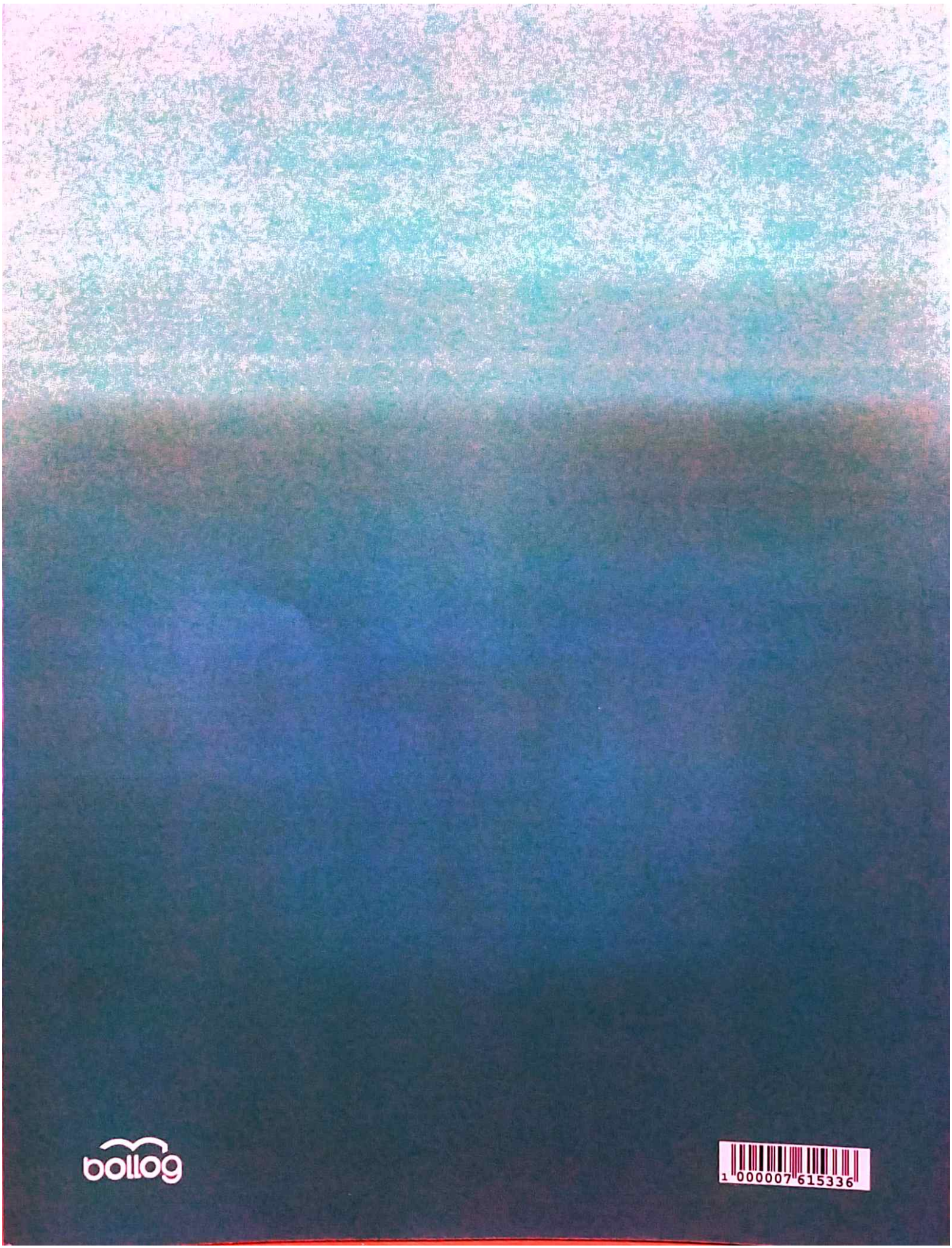
2023/11/17
friday, pm 11:56 | 19읽음
김소은(미디어스쿨)

#15일차 #결말
드라마 보는 것이 낙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내가 작가를 해도 더 잘 쓰겠다 싶은 작품도 있었고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썼을까 감탄하게 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글 쓰는 일에 대한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존경심 덕분에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명분 없이 쓰는 글을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거나 영화 감상문을 남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고 라이팅 챌린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글을 쓰는데 명분이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청해 왔고 이번 라이팅 챌린지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저의 23년도 2학기 라이팅 챌린지는 이 글을 끝으로 결말을 맺지만 아직 글과 저는 오프닝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진 모르지만 글과 함께하는 결말은 해피엔딩일 것 같습니다.

11 7

정우현(인문학부)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사회학과) 저도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다이어리나 일기를 더 열심히 써보려고 해요!! 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3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하영(영어영문학과)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해내신 소은님에게 박수를 쳐 드리고 싶어요!! 이 3주라는 시간이 소은님에겐 성장의 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그리고 소은님 인생의 결말은 항복이 가득한 순간들만 있길 바랄게요!! 3주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ㅎㅎ

이유민(환경생명공학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과 함께하는 소은님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
라혜민(사회학과) 3주간 수고많으셨어요!
앞으로의 일상도 응원합니다 :)
고다인(중국학과) 글을 쓸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더라고요~수고하셨어요
장지은(언론방송융합전공) 늦었지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은님만의 멋진 오프닝과 결말을
만드시길 바라요!


bollog
1 000007 615336